2019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인터뷰 및 채록에 도움 주신 분들

충남역사문화연구원(계룡시) : 서순경, 정용화
천안동남구문화원 : 조성오, 김윤식, 김현정
천안서북구문화원 : 이정우, 김세관, 김용순, 권유진
공주문화원 : 이걸재, 임장묵, 이혜정, 최병숙
보령문화원 : 황의호
온양문화원 : 홍승균, 정종미
서산문화원 : 남 향, 오선영
논산문화원 : 권선옥, 임영선, 김무길
당진문화원 : 윤성의, 이종미, 장수덕, 박찬열, 최현주, 남기은
금산문화원 : 박광수, 장정변, 최우진
부여문화원 : 오문선, 이영미
서천문화원 : 김민수, 김태령
청양문화원 : 김민수, 김태령
홍성문화원 : 유환동, 김정헌
예산문화원 : 이걸재, 임장묵, 구락서, 이정욱
태안문화원 : 정낙추, 김명식

2019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일러두기

이 책은 '2019 충청남도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을 통해 만난 구술자 238명의 이야기를 담은 것이다. 각 시군마다 15인 이상의 구술자를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하여 채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짧은 글이다.

구술자는 모두 광복 이후 전쟁과, 폐허 속의 국가 재건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숨가쁜 삶을 일구어 온 토박이들이다. 바닷가에 살았던 이는 소금을 만들고, 큰 시장에 살았던 이는 순대를 만들었다. 공직생활을 마친 공무원도 있고 부모를 모시며 논밭을 갈았던 맏자식도 있다. 기술을 이어받은 장인, 오랜 민요를 기억해 들려주는 할머니, 독립유공자의 자손 등 충남 사람들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인생을 기록하였다.

※ 책의 수록 순서는 행정구역 순서에 따라 천안시부터 태안군까지 15개 시군별로 나누고, 구술자는 채록 순으로 하였음,
※ 각 시군마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주제를 기획하고, 그에 적합한 구술자를 모집하여 인터뷰하였음.
※ 역사, 민속, 향토 등의 전문가가 구술자 면담 후 본 책자의 원고를 작성함.
※ 구술자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사실과 다를 수 있음.

2019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충남에 살다 그리고 말하다

조선 영조 때 실학자 이중환이 저술한 옛 지리서 〈택리지(擇里志)〉에는 사람들이 거주가 가능하며 살기 좋은 땅을 '가거지(可居志)'라 일컫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땅, 자연환경이 빼어난 곳, 사람들의 인심이 후덕해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 그리고 생활하기 편리하고 경제생활에 이로운 곳이 그곳입니다.

충청의 젖줄인 아름다운 금강을 따라 풍요롭고 넓은 들판과 과거부터 역사문화의 중심을 이룬 공주, 부여, 논산, 계룡, 빼어난 풍광과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금산, 청양, 서천, 보령, 태안, 내포를 중심으로 인심이 선하고 후덕하기로 알려진 서산, 홍성, 예산, 그리고 경제생활과 활동이 편리한 당진, 아산, 천안 등 사람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충남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고장은 살기 좋을 뿐 아니라, 예부터 독자적이고 아름다운 '백제문화'를 창조하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일본에 전수하며 일찍이 한 류를 이끌었습니다. 근대에는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 암울했던 시기를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로 바꿔놓은 매헌 윤봉길,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유관순, 월남 이상재 선생 등 우리 지역 애국지사 분들의 민족독

립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처럼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충남에서 살고, 또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은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 충남 15개 시, 군에서 충남도민들이 살아낸 삶에 대해 직접 듣고, 기록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엮어 책으로 만든 것은 또 하나의 역사로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도민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묻어두지 않고 역사로 남기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요, 책임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역사가 될 것이며, 그 역사에 반추하여 다가오는 충청남도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충남문화원연합회장
공학박사 김 시 운

온몸으로 마주한 삶의 이야기

구술채록(口述採錄)은 우리 고장의 풍토와 선인들의 구체적 삶이 스며든 영상과 음성입니다. 문헌은 정태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우리 향토의 문화와 지역민이 살아온 삶의 서사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삶속에 켜켜이 쌓인 인문과 역사, 문화를 구술로 채록하여 그 현장성과 가시성을 확보하는 일에는 단순한 기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2019년 충남은 16건의 무형의 기억과 경험, 지식을 스토리텔링의 형식으로 담아냈습니다. 수 차례의 사전연구와 사전면담, 구술면담, 녹음, 영상기록, 사진기록 등의 과정을 거쳐 향토민요, 마을사, 소금문화, 농악, 상장례문화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마주한 장삼이사의 표정과 목소리를 통해 우리는 당시의 풍습과 사회상을 본바탕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근현대를 살아온 지역 원로들의 생생한 증언은 우리 문화의 자부심을 키우고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충청남도는 백제의 역사와 기호유교의 전통, 그리고 내포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가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당당히 웅변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여 도민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민의 삶 곁에 있는 향토문화를 소중히 기억하고 간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는 15개 시군 문화원의 힘이 컸습니다.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향토 민속자원의 발굴과 보존을 위해 애쓰고 계신 시군 문화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살아있는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위해 흔쾌히 채록에 응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충청남도지사 양 승 조

충남의 정체성을 살리는 기반

「충남 근현대 구술채록집 발간」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220만 도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먼저, 지역 문화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해주신 양승조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현장 채록에 정성을 다해주신 각 시군 문화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우리 지역의 생생한 역사를 담아내고자 흔쾌히 구술 채록에 응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근현대사는 국권피탈·독립운동·한국전쟁·경제개발·군사독재·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국민들은 압제의 핍박 속에서 국가의 내일을 걱정하며 현장에서 뛰었으며, 자식을 공부시키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피와 땀으로 조국 산업발전을 위하여 뛰었습니다. 현재 충남의 문화·산업·생활은 이런 노력 속에서 일궈낸 결과이며, 우리는 고초 속에서 눈부신 발전을 일궈낸 우리 선조들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구슬채록은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장엄한 강물을 건너간 충남도민의 생생한 역사입니다. 더 늦으면 잊혀질 수도 있는 소중한 유산을 기록화

함으로써 우리 도민이 겪어왔고 만들어온 역사를 후손들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E.H.Carr)'라는 말처럼, 역사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미래를 만드는 힘입니다. 더 늦기 전에 원로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지역 역사를 역사문화자원을 정립하고 바로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현대를 살아온 충남도민들의 생생한 증언은 충남의 역사를 만들고 나아가, 충남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방문화원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히 전통문화계승·발전과 향토민속자원의 발굴 및 보존을 위해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충남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지혜와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충남문화원연합회와 충남문화가족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9. 12.

충청남도의회 의장 유 병 국

발간사 | 충남에 살다 그리고 말하다_ 4
축　사 | 온몸으로 마주한 삶의 이야기_ 6
축　사 | 충남의 정체성을 살리는 기반_ 8

천안동남구_ 병천순대 탄생배경 및 변화과정

병천의 늦깎이 대학생_ 16/ 병천의 교직생활과 그 이후_ 19/ 새마을지도자_ 22
병천순대의 역사_ 25/ 병천 면사무소의 경험_ 28/ 병천 지역 청년단 활동_ 31
병천의 집배원_ 34/ 개 한 마리가 땅 두 마지기가 된 사연_ 36/ 장날이 곧 생일_ 39
병천과 병천순대는 불가분의 관계_ 42/ 병천순대의 발전을 위해서_ 45
가난했던 어린시절_ 48/ 열심히 살기만 한 인생_ 51/ 지역사의 산증인_ 53
병천순대는 행운이었다_ 56

천안서북구_ 성환, 세월 속 근현대 풍경

성환 찰방_ 60/ 성환 만세운동_ 64/ 성환 사금점_ 68/ 성환목장_ 72
성환역_ 75/ 성환 수향리 _ 79/ 성환 배_ 83/ 이화시장_ 87
성환 순대국밥_ 91/ 성환문화원_ 95/ 진주집_ 99/ 향토연구_ 103
시인 농사꾼_ 107/ 국악인의 길_ 111/ 진정한 향토인_ 115

공주시_ 공주 전통 향토민요

공주 축원소리와 의당집터다지기_ 120/ 의당집터다지기 소리꾼_ 123
즉흥소리의 귀재 _ 127/ 천생 소리꾼_ 131/ 독보적인 상쇠_ 135/ 중고제 명창_ 139
경문 법사 _ 143/ 소리 주막_ 147/ 이루지 못한 소리의 꿈 _ 151
시조창을 하는 직조 공장 여인_ 154/ 범패 음악과 고청염불_ 158
공주지역 고 시조창_ 162/ 유구 향토 민요의 보물_ 166

보령시_ 보령 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고대도_ 170/ 녹도_ 175/ 녹도의 산 증인_ 180/ 녹도 여성의 생활 _ 186
불모도의 마지막 거주자_ 191/ 빙도의 토박이_ 196/ 삽시도의 산 증인_ 201
석대도_ 207/ 외연도_ 212/ 원산도 주민이 된 반공포로_ 218/ 원산도_ 223
장고도_ 228/ 추도_ 234/ 호도_ 240/ 황도_ 245

아산시_ 온양의 노거수와 마을史

세계 속의 외암민속마을_ 252/ 현충사가 들어선 백암리 마을_ 255
유서 깊은 신앙터 공세리_ 258/ 서해 끝자리 선장면 홍곳리_ 262
대동의 자부심과 원동암의 저력_ 265/ 산양리의 인생 여정_ 268
농촌운동으로 보낸 세월_ 271/ 깨끗하고 엄숙한 유곡리의 제(祭)문화_ 274
윗대실과 아랫대실의 화목_ 277/ 물 좋은 동네 방수물_ 280/ 황금 들녘의 선장면_ 283
용머리의 자부심과 애향심_ 287/ 정감 넘치는 운교리 만세_ 290
하나된 오암리 마을의 자부심_ 293/ 평촌리서 한생을 살다_ 296

서산시_ 서산의 상장례 문화

환성리의 상장례 풍습_ 300/ 망자의 마지막 길을 밝히는 상엿소리_ 304
죽음을 정리하는 법_ 308/ 미리 정한 묫자리_ 312/ 전통적인 시신의 매장법 _ 316
꿈에 만난 가족들_ 320/ 상엿소리를 잘하는 사람_ 324/ 좋은 땅의 운명_ 327
지곡면의 상장례_ 331/ 운산면의 상장례 _ 335/ 와우리 사람들 이야기_ 339
동부시장 사람들의 상장례_ 343/ 김익제 법사가 겪은 상장례_ 347
망자를 편히 보내는 길_ 351

논산시_ 논산 지역의 근현대사

근현대사와 함께한 인생_ 356/ 논산시 지정 향토유적 제1호 덕유정_ 360
밀짚모자의 원산지 강경_ 364/ 소문난 솥 공장_ 368/ 양말 공장 시절_ 371
옥녀봉의 추억_ 375/ 추억의 정미소_ 378/ 행복한 역무원 생활_ 382
양조 기술자로 보낸 일생_ 386/ 강경의 직물 공장_ 389/ 마부_ 392/ 강경의 일꾼 _ 395
강경의 옛길_ 399/ 강경 우체국_ 402/ 보세가공 홀치기_ 406

계룡시_ 계룡의 옛 모습과 신도안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기억하다_ 412/ 내 고향 신도안_ 416/ 신도안을 지켜온 선비_ 420
광석리 토박이_ 424/ 농소리의 열두 대실_ 428/ 도곡리 애향심_ 432/ 소라실 효자_ 435
연화동 토박이_ 438/ 왕대리 효자_ 441/ 입암리 전화집_ 445/ 천직 이발사_ 449
평생을 신도안과 함께한 농민의 삶_ 453/ 자신의 삶을 개척한 논산 소녀_ 457
왕대리 토박이의 노익장 투혼_ 461/ 계룡시에 뿌리내린 두 번째 삶_ 465

당진시_ 당진 지역의 마을 이야기

초등교육자로 퇴임한 중흥리의 산 증인_ 470/ 맨손으로 일군 삶_ 473/ 농촌운동_ 476
진짜 당진 사람_ 479/ 우리 마을_ 483/ 유학은 내 운명_ 486/ 흰 꽃, 소금을 피우다_ 489
당진을 위한 나와 선대의 삶_ 493/ 육영사업에 바친 일생_ 496
왜목 개발은 내 필생의 사업_ 498/ 당진 지역운동_ 501/ 기지시줄다리기의 산 증인_ 505
당진 발전의 조력자_ 508/ 대장장이_ 511/ 면천 사랑_ 514

금산군_ 금산의 나루터 이야기

쌀 한 톨 빼먹도 못하고_ 518/ 금강과 더불어 살아온 삶_ 522
대한민국에서 땅이 제일 귀한 동네_ 526/ 미금이 깔려 땅이 숨을 못 쉬어_ 530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신촌_ 533/ 농바우끄시기_ 537/ 봄이면 천렵을 하는 가마골_ 541
글보다 몸으로 배운 공부_ 545/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_ 548/ 인삼 어울이_ 551

고인돌과 배묻이굿_ 554/ 천내강 나룻배_ 557/ 어죽과 도리뱅뱅이_ 560
물가의 한 시절_ 564/ 천내강의 추억_ 567

부여군_ 부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전수자와 일제강점기 경험자의 생애

내포제 시조를 지켜가다_ 572/ 백제의 노래 산유화가_ 576
백제의 세 충신을 모시는 삼충제_ 579/ 부여의 오지마을 장벌리 마을신앙 _ 582
백제 무형문화유산_ 585/ 은산별신제의 추억_ 588/ 태평소 명인의 꿈_ 591
송국리 유적 지킴이_ 594/ 종이꽃을 만드는 사람_ 598
짚신을 삼아 다져진 솜씨가 마을의 유산이 되다_ 601/ 충화의 독립 정신_ 604
부여의 유림 정신_ 608/ 은산별신제를 지키는 무녀_ 611/ 추양리 두레풍장의 쇠잡이_ 615
평생을 백제와 함께_ 619

서천군_ 서천 마량리당제

마량리당제는 마량의 삶_ 624/ 당골네의 멋진 수염_ 626/ 500년 된 마량리당제_ 629
부녀회가 있어 좋은 마량리당제_ 632/ 마량리당제는 계속해야 한다_ 635
함께하는 마량리당제_ 638/ 마량리당제_ 641/ 마량리당제의 추억_ 644
민속의 계승, 마량리당제_ 647/ 변화된 마량리당제_ 650/ 마량리당제는 대동제_ 653
마량리당제의 큰 뜻_ 656/ 마량리당제_ 659/ 어깨가 무거운 마량리당제 화주_ 662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화주_ 665/ 화장만이 느끼는 행복_ 667

청양군_ 청양의 3·1운동, 항일운동, 후손들의 삶

시골에 와서 더 젊어지셨어요_ 672/ 독립운동하신 우리 할아버지_ 675
독립운동가 이덕현의 손자_ 678/ 마지막 봉사 _ 681/ 정산의 독립운동가들_ 684
정산의 만세운동_ 687/ 열정으로 지킨 고향_ 689/ 독립운동가의 후손 _ 692
고향에서 찾은 할아버지 명예_ 694/ 애국의 고초와 보상_ 696/ 서훈의 날이 오면_ 698
죄인 아닌 독립운동가의 후손_ 701/ 청양군 광복회_ 704/ 소문난 효자 집안_ 707
독립운동가의 후손_ 710

홍성군_ 홍성의 포구 이야기

옹암포구의 흥망성쇠_ 714/ 옹암포구의 새우젓과 액젓 공장_ 718
광천 옹암포구의 변천사 _ 721/ 토기점을 하는 집안의 장손_ 724
결성 지역과 성호포구의 변화_ 726/ 홍보지구 방조제 공사로 인하여 사라진 성호포구_ 730
세곡창고가 있던 바닷가 마을 _ 734/ 경치가 아름다웠던 교항리 바닷가 _ 737
남당리 해안_ 741/ 어사리 어사포구_ 744/ 피난민과 원주민들이 함께 가꿔온 수룡동포구_ 747
AB지구 방조제가 갈라놓은 궁리포구_ 751/
죽도(竹島), 홍성군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섬_ 755
AB지구 방조제 건설로 육지가 된 오두리_ 758
전국적인 살조개 생산 갯벌이었던 동성리 앞바다_ 762

예산군_ 예산의 농악

땅 부자 일 부자_ 772/ 예산 최고의 농기 보유 마을 _ 776/ 청소3리 농기_ 778
물가래질 하는 마을 _ 780/ 천년 나무와 봉림리 칠석제_ 784
예산 최고의 상쇠가 태어난 고장 _ 788/ 고도리 칠석풍장 _ 792
칠석 사제(師弟)풍장의 마을 _ 796/ 걸립풍장_ 800/ 예산군 대표 풍장 마을 오촌리_ 804
광천다리 걸립풍장 _ 808/ 예산 고유 두레풍장 가락_ 812/ 민속의 마을 시량리_ 816
예산 장터풍장의 마지막 상쇠 _ 820

태안군_ 지역의 전통 소금(자염) 문화와 생산방식

모항의 자염_ 826/ 태안의 자염 생산 _ 829/ 진미리의 자염_ 832/ 마금리의 자염 생산_ 835
고잿목의 자염 생산_ 838/ 새마을지도자_ 842/ 동해리 염벗_ 845/ 장구목 염벗_ 848
옹동벗_ 851/ 개건너 염벗_ 855/ 섬벗_ 858/ 염장 인근의 자염_ 861/ 기억골 염장_ 864
새벗_ 867/ 화렴_ 871/ 고잿목벗_ 874

천안동남구

| **손상기**(1953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병천의 늦깎이 대학생

손상기는 할아버지께서 진천에서 병천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병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가 되었다.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집안 형편이 어렵기도 했고, 동생이 많기도 해서 초등학교밖에 다닐 수 없었다. 문학 소년이 되고 싶은 꿈이 있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는 없었지만 언젠간 하지 못한 공부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초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하며 돈을 벌었고 여동생들은 중학교, 남동생들은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며 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 노력했다.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가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손상기는 마음 한편에 '언젠간 못 이룬 꿈을 이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생활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실천은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2년도에 공부에 대한 꿈을 이뤄보기 위해 대전에 있는 예지중학교에 입학하여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되었다. 2007년도에 고등학교에 졸업 후 대전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하였는데,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국문학 쪽으로 진학하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늦은 나이에 문학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과 노인들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로 입학하게 되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성적인 내신이 좋았는데 컴퓨터를 잘 못해서 가정 선생님이 "지하에 컴퓨터가 있으니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지만 주말에는 가정이 있는 집에 올라와야 해서 연습할 시간이 없었다.

그가 대학교에 들어와 보니 컴퓨터를 기본으로 해야 했는데 고등학교 때 가정 선생님이 한 말씀이 새삼 떠올라 후회가 되었다. 그래서 방과후 컴퓨터 학원을 다니며 한글, 파워포인트, 엑셀 등 컴퓨터 활용의 기초가 될 만한 것은 다 배웠다. 그리고 늦깎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동기들과 나이가 스무 살 이상은 기본으로 차이가 났지만 함께 어울리고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했다. 일부러 MT, 동아리모임 등 모임이란 모임은 대부분 다 참석해서 졸업한 지 약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나이 어린 동기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다. 늦은 나이지만 배움에 대한 꿈을 이룰 수 있어서 행복했고 값진 시간을 보냈다고 그는 생각한다.

92년쯤 그는 지금의 '병천순대' 가게를 차리게 되었다. 처음엔 고깃집을 하려고 했는데 고깃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이 없었다. 어머니께서 "도움을 줄 테니 자금도 마련할 겸 순대국밥 장사를 해보자"고 권유하셔서 순대국밥 가게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 많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청화집, 충남집, 자매집, 돼지네 등 국밥집이 몇 군데 있었는데 서로 대부분 알고 있는 이웃집들이었기 때문에 가게를 차리기 전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유로 순대국밥 가게를 차리려고 하는데 양해를 좀 구한다."고 이

야기를 하고 승낙을 받아 가게를 차렸다.

어머니가 순대를 직접 만드셨는데, 맛있는 순대를 만들기 위해서 버리기도 많이 버렸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손님들의 입맛에 잘 맞는 순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순대국밥 가게에서는 순댓국 안에 밥을 넣어줬는데 그의 가게에서는 밥과 국을 따로 주었다. 손님들이 '혹여나 먹고 남은 밥을 넣어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밥과 국을 따로 제공한다면 손님들이 불안한 생각 없이 맛있게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그가 가게를 차린 초반에 식당 주변은 전부 논과 밭이라서 불빛이 없어 캄캄했는데, 장사가 잘 되면서 많은 순대국밥 가게가 생기기 시작하여 동네 풍경이 달라졌다. 캄캄하고 어두웠던 마을이 생기가 돌며 크게 달라진 것이었다. 가끔 식당 간판 불빛, 식당 불빛 등 반짝반짝한 불빛으로 인해 밝아진 동네를 보고 있을 때면 흐뭇하기도 하다. 순대국밥 가게를 함으로써 병천이라는 마을이 생기가 있게 된 이유에 조금이나마 일조한 부분이 있다는 자부심이 있어 그는 오늘도 마음이 뿌듯하다.

| **신문호**(1943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병천의 교직생활과 그 이후

신문호는 병천면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병천 토박이다. 학교생활 및 군대와 직장생활을 제외하고는 전부 병천에서 지내왔다. 1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병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교사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실했던 그를 좋게 보아 청주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권유해서 청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 거기서 청주사범학교 병설중학교를 다녔고,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청주사범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어 졸업 후 교직생활을 할 수 있었다.

당시 초등학교만 나와도 잘 나왔다고 했는데 다른 도시로 유학을 간다는 것은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별하고 더더욱 힘든 일이었다. 초근목피를 먹고 독사풀 열매, 아카시아 풀떡, 쑥떡 등은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대신 먹었던 것들이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정도로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의 어머니가 청주에서 떡 장사를 하며 생활했는데, 새벽부터 장사를 준비해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아야 했다. 그는 학교 가기 전 새벽에 절구에 떡방아를 찧으며 장사 준비를 도와드리고 하교 후 밤에는 가게 일을 도와드렸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셋방살이를 하며 학교를 다녔는데 지금이야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 등 다양한 난방시설이 있지만 예전에는 불을 지펴서 방을 데우는 난방시설뿐이었다. 불을 지피려면 나무가 있어야 하는데 불을 지필 나무가 없어서 방 안에 물을 놔두면 얼 정도로 추운 곳에서 생활하며 공부를 하였다. 생활이 어려웠지만 사범고등학교는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고 나라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해줬다. 그 덕분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어 충북 영동과 충남 병천에서 교직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한 후 충북 영동군에 있는 자계초등학교에서 첫 근무를 하게 되었다. 굉장히 작은 학교여서 교장 선생님을 포함한 교사가 4명이었는데, 여교사가 없고 남교사만 있었다. 운동회를 해야 했는데 무용을 가르쳐줄 여교사가 없어서 그가 여교사의 역할을 맡아 아이들에게 무용을 가르쳐 기억에 남는 운동회를 할 수 있었다.

자계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한 후 군대에 갔다가 영동군 용산초등학교로 복직 후 병천초등학교로 전근을 오게 되었다. 그의 기억에 남는 것은 병천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양궁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그 당시 병천중학교와 병천고등학교에는 양궁부가 있었는데 양궁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굉장한 실력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병천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양궁을 배워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그는 양궁부를 만들었는데, 덕분에 전국대회에 출전해서 수상을 하기도 했다. 교직생활 중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다고 한다.

1963년부터 1980년까지 약 18년 정도를 교직에 있다가 건강상의 문제로 퇴직했다.

퇴직 후 농사를 짓다가 식당을 했는데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약 23년 정도 식당을 운영했다. 식당을 하며 병천면 음식협의회 회장직을 맡아 병천면에 있는 식당의 발전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음식 맛, 태도와 예절, 위생 등 손님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병천의 명물 '병천순대'에 대해서도 여러 번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주로 가격과 맛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지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토속적인 맛을 조금 더 살려서 특색 있는 순대국밥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음식협의회 회장을 하며 다양한 음식들이 있지만 특히 병천순대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한다.

| **유준봉**(1942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새마을지도자

유준봉은 병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5남매 중 셋째로 태어났다. 남 속썩이지 말고 살라는 엄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 개구쟁이였지만 말 잘 듣는 아이로 자랐다. 장날 저녁이면 친구들과 집에 들어가기 전에 술에 취한 취객을 놀리려고 동태처럼 생선인 척 종이 안에 돌멩이를 넣고 끈으로 묶어 벽에 매달아 걸어놓곤 했다.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생선인 줄 아는 취객이 그것을 가져가다가 무언가 이상해서 열어보고는 돌멩이인 것을 알고 '에잇!' 하며 바닥에 던져놓고 가는 것을 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한다.

낮엔 초등학교에 다니고 밤에는 서당을 다녔는데, 그 당시에 서당은 있었지만 옛날처럼 한복 입고 수염을 기른 훈장님이 있는 서당은 아니고 한문을 잘 아는 분이 고전을 가르쳐 주었다. 1954년쯤인가 천자문을 익히고 동문선을 배우다가 학문을 다 마치지는 못했다. 병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어려웠던 시절이라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말조차 제대로 꺼내보지도 못했다.

국문학(고전)을 배워 학자가 되고 싶었던 그는 가난 때문에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군대에 가게 되었다. 아니 군대라고 할 수 없는 비슷한 것이었는데 지서에서 관할하는 집체교육을 받았다. 일반 군대와는 다르게 1년 동안만 교육을 받으면 되는 과정이었다. 근무로 지서를 지키는 일을 했고 전역 후 일을 하러 서울로 올라갔다가 섣달그믐날 보따리를 싸서 고향으로 내려왔다.

아버지가 농사를 짓다 축협 중개사 일을 하셨는데 지금으로 보면 소 경매하는 경매사의 역할을 한 것이었다. 수입이 꽤 괜찮아서 아버지는 그에게 중개사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여 중개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모든 중개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양심적이지 않게 중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양심적으로 했고 그 결과 약 20년 정도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농가에서 소를 팔려고 가져오면 중개사가 받아서 경매를 진행한다. 어떤 사람이 소를 훔쳐와 본인의 소인 것처럼 팔려다가 들통나서 도망간 사람도 있었다. 그가 중개사를 할 때의 일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소를 내다팔려고 데려와 제값보다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일처리만 빨리 진행하려고 해서 무언가 이상함을 느껴 '파출소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소를 놓고 도망갔다. 잃어버린 소의 주인이 혹여나 싶어 경매장에 와서 보고 자기 소를 찾아간 일도 있었다. 큰돈이 오가는 자리이니만큼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 예전에는 우시장이 많았지만 현재는 우시장이 많지 않다.

예전에는 이장과 함께 일을 하는 새마을지도자가 있었다. 유준봉은 새마을지도자와 이장 일을 합하여 30년 이상 하고 있다. 새마을 지도자는 새마을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새마을사업은 보조금을 받아서 하천 정비, 울타리 정비 등을 하고 마을회관 건립 등 마

을을 가꾸고 정비하는 일을 했다. 보통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은 동네 사람들을 도우며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을 한 셈이었다. 마을과 주민들에 관련된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했고 지금도 이장 일을 하고 있다. 그는 함께 살아왔고 함께 살아갈 마을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다.

| **이복자**(1951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병천순대의 역사

이복자는 충청북도 옥천에서 태어났다.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귀여움을 많이 받으며 자랐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는 과수원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으셨는데 그 덕분에 복숭아를 실컷 먹으며 자랐다. 그 때의 기억 중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집에 친구들을 불러서 몰래 복숭아를 실컷 따먹고 혼날까봐 먹고 남은 씨를 몰래 땅에다가 묻었던 일이다. 또 예전에는 학교에서 닭을 키웠다. 풀을 뜯어서 닭에게 줬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학교 1학년쯤에 라면을 처음 보게 되어 금강으로 냄비와 솥단지를 가

져가 친구들과 끓여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었다고 한다. 라면이 언제 출시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골이었기 때문에 도시보다 늦게 접해볼 수밖에 없었다.

이복자는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들과 모임을 하고 있는데, 당시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함께한 추억 덕분인지 여전히 끈끈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즐거웠던 학창 시절로 옥천여고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은 하지 못했는데, 7남매 중 그녀 위로 오빠들이 있는 탓이었다. 그 때의 사회 분위기는 여자들은 대학에 진학시킬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 꿈이었던 사범대학교 수학학과를 가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다.

그녀가 병천으로 오게 된 이유는 결혼 때문이었다. 병천으로 오기 전 살던 곳에는 기차와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그나마 잘 형성되어 있는 편이었는데, 결혼을 약속한 후 남편의 고향인 병천을 와 보니 많이 달랐다. 천안에서 병천은 거리가 꽤 있는 편인데, 지금이야 아스팔트로 도로포장이 잘 되어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 도로포장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버스를 타고 오면서 엉덩이가 깨질 것같이 터덜거리고 먼지가 너무 많이 나서 '선택을 잘 못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절망감이 들었다. 그렇지만 살다보니 동네 사람들과 환경이 너무 좋아 애착이 많이 생길 만한 곳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연탄장사를 했다. 연탄장사를 하고 번 돈은 그녀가 주산으로 관리를 했다. 결혼하기 전 직장에서 경리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셈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판매 장부를 관리하는 일을 잘 해 줄 수 있었다. 남편은 판매하는 일이 바쁘기도 해서 따로 장부를 만들어서 판매량을 관리하지 않았는데, 아내 덕분에 판매 장부를 만들어서 장사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계산을 세밀하고 꼼꼼하게 잘 했기 때문에 남편이 깜짝 놀랄 때도 있었고, 계산을 워낙 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내가 돈을 쓸 때에 어디에 쓰는지 물어보지도 않을 정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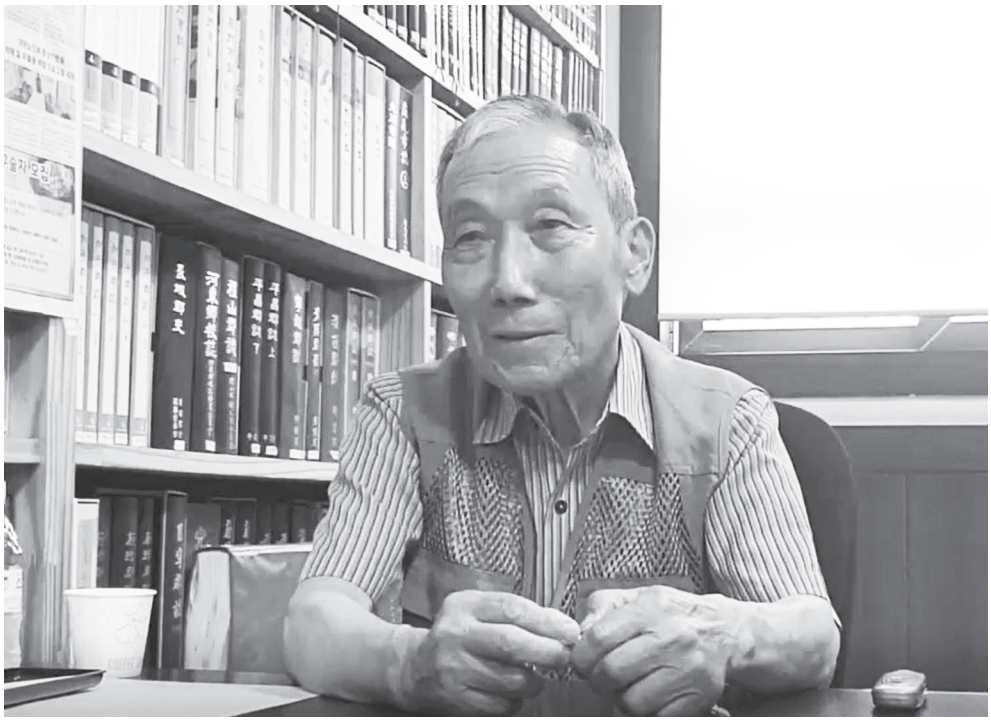
장사를 하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지금의 '고모네 순대' 가게 땅을 샀다. 네 칸의 집을 지어서 세를 주었는데, 그녀가 남편과 함께 건물을 짓고 나서부터 점점 식당이 늘어나 지금의 순대거리가 되었다. 그 전에는 병천 읍내 일대가 전부 논밭이었다.

그녀가 시집와서 처음 살았던 곳이 지금의 '청화집'이라는 순대가게 뒤편이다. 집에 텃밭이 있었는데 식구들끼리 먹으려고 채소를 심었다. 먹을 만큼 수확을 했는데도 많이 남으면 청화집이 이웃이니까 나누어주고는 했다. 청화집은 현 여사장의 시어머니가 당시에 장사를 했는데, 평일에는 장사를 안 하고 장날에만 했기 때문에 순댓국을 장날에만 먹을 수 있었다. 예전에는 냉장시설이 잘 되어있지 않아 순대를 팔고 남은 것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곤 했다. 팔고 남은 순대 또는 순댓국을 많이 얻어먹기도 했고, 그녀의 텃밭에서 수확한 채소를 자주 나눠주며 서로 주고받아 이웃 간의 정을 쌓았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1984년쯤 그녀의 남편이 병천JC 회장(청년회의소)을 했다. 1984년, 1985년 2년 동안 1대, 2대 회장을 했는데, 지금은 JC가 없어졌지만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제주도에도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 JC에서 병천 봉화제 행사를 했는데 JC 회원들이 깡통과 솜방망이를 만들어 며칠 전부터 봉화제 준비를 했다. 행사 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두루마기를 입고 봉화제를 했고, 각종 방송국에서 인터뷰와 촬영을 하러 오고는 했다. 약 1,500명 정도가 올 정도로 큰 규모의 행사였다. 함께 봉화제를 하러 온 병천JC 회원들에게 식사대접을 해야 했는데 고민 끝에 순대국밥을 대접하기로 했고 국밥 교환권 같은 티켓을 만들어서 아무 가게에서나 가서 먹고 티켓을 지불하면 총 티켓 개수만큼 JC에서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했다.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병천순대와 국밥을 접해 보고 맛있어서 JC 회장이었던 그녀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다.

그녀는 병천순대가 오랜 시간이 지난 요즘까지도 각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감사하고, 병천순대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여러 순대가게 사장님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 **이선구**(1938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병천 면사무소의 경험

이선구는 연안이씨 22대손이며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병천에 정착하게 되어 그의 고향은 병천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 형편이 어려웠는데 중학교 다닐 때에는 도시락 하나 싸는 것이 어려울 정도였다.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 중학교에 진학하려 했지만 집안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아서 차마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그때 큰형이 중학교 진학을 도와주어 어렵사리 학교에 입학하였다. 중학교 때 학비를 내야했는데 어려운 형편에 집안에 학비를 달라 말하기 힘들어 매번 교무실에 불

려가 혼을 나기도 했지만 공부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다. 중학교를 마친 후 고등학교 진학을 걱정하던 중 서울에서 회사를 하던 동네 사람이 서울에서 일해 보겠냐는 제안을 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생각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여 얼마 후 그는 상경하게 되었다.

서울에 있는 회사는 병따개, 화장품 마개 같은 것들을 만드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기계로 누르면 되지만 예전에는 사람의 힘으로 기계를 누르기 때문에 많은 힘이 들었다. 낮에 어렵게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는 틈틈이 모은 돈으로 학업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었던 형에게 감사의 표시로 쓰러져 가는 집을 지어드렸는데 그에게는 형이 아버지와 마찬가지의 존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감사하고 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은 분이라고 한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퇴를 한 후 고향으로 내려와서 지내다가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전역 후 동네에서 반장(구장)일을 1968년~1972년까지 4년 정도 했고, 새마을지도자를 1972년~1975년 3년, 이장 1975년~1977년 2년을 했다. 동네 반장을 맡았을 때는 마을 길 정비 사업을 주도했다.

이장을 할 때는 가리방(옛 인쇄 방식)을 긁어서 공문을 발송했는데 공문에 쓰인 필적이 좋았다. 이장을 하면서 농사일을 병행하고 있었는데 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본 면사무소 직원들의 제안으로 면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임시직으로 입사했지만 20년 정도 근무를 했다.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을 때 기억에 남는 것은 통계관련 업무였다.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컴퓨터와 조사원들이 없어서 직접 발로 뛰며 집집마다 조사를 해야 했던 힘든 일이었다.

병천 지역에서 순대와 더불어 유명한 특산물이 있는데 '아우내 오이'다. 오이하우스를 지으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다. 초창기에는 60가구 정도였고 지금은 200 가구가 넘게 농사를 짓고 있다. 초창기에 하우스를 짓고 보조금을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많았고 방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것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잘 모르는 농사꾼들을 위해 서류를 작성해주고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까지도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보고, 지역의 특산품인 아우내 오이가 활발하게 판매되고 유통되는 것을 보면 옛 수고와 추억들이 생각난다.

그리고 옛 오일장 모습을 회상해 보면 지금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떠오른다.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모습이지만 어린시절에는 시장이 물건이 매매되던 공간인 동시에 사람들의 교류의 장이 펼쳐지던 곳이었다. 물론 지금도 교류의 장이긴 하지만 느낌이 조금 다르다. 어릴 적에는 그렇게 장에 가는 게 좋았고 대장간, 싸전(쌀 등 곡식을 판매하는 장소), 가축시장 등 다양하게 볼거리가 많았다. 특히 술에 취한 사람들도 많았다. 아는 얼굴이 보이면 막걸리 한 잔 기울이고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금보다는 깊은 정을 갖고 있던 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이따금씩 옛 장 모습을 생각하면 그 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천안에서 가장 큰 전통시장인 중앙시장처럼 병천의 전통 오일장이 많이 발전해서 전통모습을 간직한 시장이 형성되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하기도 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전통적인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가서 아쉬움이 있고, 앞서 건의한 것처럼 오일장을 중앙시장처럼 크게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옛 장터에서 먹던 순대 맛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다양한 속재료가 골고루 들어가지만 예전에는 선지와 부산물이 전부였다. 지금은 순대가게 또는 공장에서 순대를 만들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집에서 순대를 만들었고 장터에서는 안주거리를 하려고 순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 막걸리 한 잔을 기울이며 순대를 안주로 삼거나 순댓국의 국물을 안주로 먹었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살기가 어려워 가난에 허덕이던 시절을 보냈지만 그 시절에는 지금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과 끈끈한 유대관계가 있었다. 오일장과 순대가 더욱 더 명품이 되고 전통을 잘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 **황규민**(1946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병천 지역 청년단 활동

황규민은 병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병천 토박이다. 16대조부터 병천에서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이조판서 겸 대제학을 지냈던 분이라 한다. 병천은 역사적으로 인물을 많이 배출한 곳이기도 하다. 조병옥 박사를 비롯한 국회부의장, 문교부 차관 등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신 분들을 많이 배출했다. 천안군 의회 부의장을 지낸 그의 아버지는 당시 한국청년단 천안단장을 했다.

한국청년단 천안단장이었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조병옥 박사가 가끔 집을 방문했는

데, 아버지와 함께 선지 시래기국을 먹으며 밤새도록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본 기억이 있다. 당시에는 1원권 지폐가 있었는데 1원권 지폐 뭉치를 용돈으로 받기도 했다. 나이가 어려서 돈에 대해 잘 몰랐던 그는 용돈으로 받은 돈 뭉치를 갖고 나가서 친구들에게 한 장씩 나눠 준 적도 있었다.

황규민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장래희망이 군인이었다. 고등학교에 입학 후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대대장을 했고,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하려고 했다. 사관학교에 가려면 공부를 잘 해야 했는데 학교에서는 성적이 좋은 편이었지만, 사관학교에 가기에는 실력이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1년 재수하고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다 보니 꿈이 바뀌었다. '이왕 할 거면 법대를 가서 판검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법대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그의 성에 차지는 않았다. 그래서 합격은 했지만 입학하지 않고 군대에 지원해 입대했다.

그는 입대하기 전에도 병천 지역 청년활동을 했지만 제대 후에도 계속 왕성히 청년활동을 했다. 청년단에서의 기억 중 1회 봉화제를 할 때였는데, 봉화제에 쓸 봉홧불을 만들려면 깡통이 필요했다. 그런데 횃불을 만들 깡통이 없어서 깡통을 구하기 위해 병천부터 천안 동부지역의 6개 면을 다 돌면서 깡통이란 깡통을 전부 구해서 솜과 기름, 불을 넣고 횃불을 만들었다. 처음 시행했던 1차 봉화제를 성황리에 잘 마칠 수 있었기에 그 이후에도 계속 봉화제를 했다.

봉화제를 만든 계기는 3·1만세 사건이 병천 지역에서도 있었고, 유관순 열사를 비롯한 많은 위인들이 나고 자란 지역이므로 다른 지역보다 더 애국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또 후배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애국정신을 좀 더 함양시켜주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

황규민은 천안시에서 첫 번째로 무투표 당선된 시의원이고, 천안시의회 시의원을 3대까지 했다. 의정 생활할 때에 신경을 쓴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지정리였다. 농사를 편히 지으려면 우선 경지정리가 되어야 했는데, 그의 조카가 농림부 농지개발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여서 병천 지역의 봉황리와 용두리의 경지정리를 하는 데에 있어

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아우내은빛복지관'을 건립한 일이었다. 병천 지역 면장과 총무국장 등 주변 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국비를 얻어 지은 것인데, 지금은 위탁으로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 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다.

몇십 년 동안 병천순대를 접하고 봐 왔던 황규민은 고향인 병천이 발전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이유 중 하나가 병천순대와 오일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병천순대에 관련되어 종사하시는 분들과 병천을 찾아주시는 타 지역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또한 순대협의회를 제대로 활성화해서 행정기관과 순대협의회가 서로 순대거리 활성화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질 좋고 값진 순대를 대접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또한 병천순대를 사랑해주시는 외지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병천순대'라고 하면 따듯한 정이 느껴지는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 **황복현**(1956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병천의 집배원

황복현은 조상 때부터 약 200여 년 이상 병천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증조할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다. 여름이면 친구들과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예전에 전부 논이었던 지금의 순대거리에서 겨울에는 논에 물을 가둬놓고 스케이트를 타며 놀곤 했다. 대부분의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그 역시 다를 바가 없었는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곧바로 생업에 뛰어들어야했다. 그는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마음 편히 써보지 못하고 동생들의 학비를 위해 아끼며 생활했다.

그는 중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우체국에 취직을 했다. 1971년도쯤이었는데 전화가 없던 시절이었다. 전보 배달을 하기도 하고, 장정 소포, 소포 배달 등 지금의 집배원들과는 조금 다르게 일을 했다. 지금이야 오토바이 또는 자동차로 배달을 하지만 예전에는 자전거로 다녔다.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땅이 질어서 자전거를 둘러메고 다니거나 자전거를 한쪽에 세워놓고 걸어서 배달을 하곤 했다. 약 10년 넘게 자전거로 배달을 하다가 88올림픽 이후 오토바이가 보급되어 오토바이로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었다. 지역이 넓어서 한 동네마다 3명 정도의 집배원들이 근무를 했는데, 한 사람이 부재할 경우 그 사람의 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서 돌아가며 '순환집배'를 하고는 했다. 집배원 일을 하다 보면 배달을 갈 때 동네사람들이 대부분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다. 그래서 편지 답장 쓰는 것을 도와주며 그들의 손과 눈이 되어주었다. 그는 약 20년 정도 집배원 일을 했다.

그는 우체국 근무 후 농사를 지으며 이장을 맡았다. 이장은 주로 면사무소에서 서류를 주면 조사해서 면사무소에 주고, 주민들의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면사무소에 건의를 하기도 했다. 독거노인, 어려운 가정 등을 조사해서 쓰레기봉투, 생필품 등을 독거노인이나 국가유공자에게 주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는 했다. 마을 집배원, 마을 이장 등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마을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 수 있었고, 마을을 잘 파악하니 동네 사람들도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집배원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이장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동안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는 마을 사람들과의 따듯한 정이 매우 고맙게 느껴진다고 한다.

| **김광우**(1946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개 한 마리가 땅 두 마지기가 된 사연

김광우는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병천에서 자리잡고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다. 아버지는 7남매의 막내아들이었고 당시 씨름판에서 소를 한 마리씩 타 올만큼 힘이 좋으셨다. 그래서 제방에 둑을 쌓는 석축 일도 하시고 돌을 운반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셨다고 한다.

6·25 전쟁 당시 그가 5살이었는데 동면에서 피난을 간 것이 겨우 지금의 유관순 사우 근처였다. 가서 저녁 먹고 뜰에서 불덩어리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곤 했는데 나중에 생

각해보니 군인들이 쏘던 예광탄이었다. 하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좋아했던 것과 군용차에서 깡통을 던져줘서 먹는 것인 줄 알고 먹긴 먹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군대식량이었던 것이 생각난다.

김광우는 6형제의 장남으로 자랐으며 집안도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그래서 중학교에 진학은 못했지만 진학을 시키기 어려우니 한문이라도 좀 더 배우라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서당에 가서 당시 논어, 맹자까지 습득을 하였다. 하지만 가난하여 쌀이 귀해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라 한문 배우러 서당으로 가는 명성골을 넘어 다니던 길에 쑥이나 질경이, 보리수, 나무 껍데기 등을 벗겨 먹는 일이 허다했다. 이렇게 먹을 것도 없이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동생들은 어떻게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르쳤다.

그는 객지 생활을 좀 하다가 해병대에 입대를 했다. 해병대 입대하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김신조 일당이 남파하여 나라가 어수선했는데 월남에 지원해 파병 생활을 하였다. 하지만 거기도 전쟁터이기는 마찬가지였으며 하루하루를 보내며 오늘은 무사히 살았구나, 하는 말을 버릇처럼 내뱉곤 했었다.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집안 형편으로 몇 마리 키우던 닭이 알을 낳으면 먹는 것도 아까워서 그것을 짚으로 두세 꾸러미 싸서 장날 가서 팔면 겨우 동태 한두 마리와 바꿔오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것도 참 맛있게 먹었다고 말한다.

어렵게 살았던 그의 집과는 달리 백부는 그래도 제법 부유했다. 어느 날 그는 큰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가져와 기르기 시작했다. 그때 그의 나이 7, 8살 때였다.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잘 키워서 팔아 어머니는 돼지 한 마리를 사셨다. 돼지 한 마리가 새끼도 낳고 불어나자 이번에는 소 한 마리를 사기로 했다. 석축 일을 하던 아버지가 조금씩 모아두었던 돈까지 탈탈 털고 어미 돼지와 새끼 돼지를 모두 팔아 겨우 황소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 그렇게 잘 키운 황소를 팔아 이번에는 암소를 샀고, 암소가 새끼도 낳고 제법 목돈이 되어 땅을 샀다. 땅 두 마지기 살 돈이 모자라서 백부에게 돈을 빌려 암소, 새끼소 몽땅 팔아 땅 두 마지기 샀다고 한다. 보통 사람들은 그 당시 땅을 사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니었고 더군다나 개 한 마리로 시작해 땅 두 마지기를 샀다는 집도 흔하지 않았다. 그

렇게 되기까지 무려 17, 18년이 걸린 일이었다.

김광우는 김남호와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랐으며 지금까지 75년을 이웃에서 같이 살며 누구보다 가깝게 지내고 있다. 맛있는 것도 함께 먹으러 갈 정도이며 비록 나이는 3살 차이가 나지만 친구처럼 막역하게 지내는 사이이다. 순대나 병천 시장을 보는 시각도 비슷한데 순대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요즘 사람들은 예전과는 달리 먹고 싶으면 먹으러 가보자 하는,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유동성, 그리고 직접 먹어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파급력이 큰 매스컴의 영향도 크다. 병천순대가 유명해짐에 따라 많은 유동인구가 병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 주차할 공간이 너무 부족하여 주차시설 확보가 가장 시급한 일이다. 또 예전에 본 전통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 둘은 노력을 한다. 배움에 대한 철학과 열정이 있는 그는 지금 현재 신계리 평생교육원 묵파원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 **김남호**(1942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장날이 곧 생일

김남호는 부모님의 고향이기도 한 병천에서 태어나 병천을 떠나 지내 본 적이 없는 병천 토박이이다. 특히 어린시절에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어릴 적 그는 매우 가난했는데 그 가난함 뒤에는 항상 몸이 아프셨던 아버지가 계셨다. 9살 때는 6·25전쟁이 발발하여 이곳으로 내려온 인민군들에게 인민군 노래를 배우러 다니기도 했다. 피난만은 가지 않고 죽어도 내 집에서 죽겠다던 할아버지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어린 남매를 할아버지 곁에 남겨두고 부모님은 현재 유관순 사우 근처로 피난을 갔다. 그리하여 그는 할

아버지의 끼니를 챙기기 위해 피난 간 부모님으로부터 먹을거리를 받아서 총탄이 날아다니는 거리를 활보해야 하는 위험한 일상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몸이 편찮으셔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하여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하지 못했다. 열세 살 때부터 농사를 시작하였는데 당시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손수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었고 어린 나이에 농사를 지으니 어려운 날들의 연속이었다. 가뭄으로 인해 벼가 제대로 크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치면 농작물이 망하기에 적절한 시기에 맞춰 농작물을 기르는 일은 나이가 어린 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를 더욱 힘들게 했던 것은 어리다고 동네 사람들이 괄시하며 동네 품앗이에조차 끼워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렇게 어렵게 농사지은 쌀도 가을이 되면 병환에 계신 아버지의 약값으로 다 나가기 일쑤였다. 악착같이 견디고 견뎌 15살에는 어렵게 소를 마련하였는데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품앗이에 끼워주었다. 그래도 여전히 서러운 일이 많았다. 품앗이를 먼저 해달라는 부탁을 뒤로하고 자기네 논을 먼저 매었던 사람이 있었다. 그때 당한 설움을 악착같이 버텨낸 결과 오히려 그 시간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술회한다.

내 못 배운 한을 대물림 하지 않기 위하여 김남호는 악착같이 일을 해 나갔다. 4남매를 키우기 위해 농사만 짓는 것은 역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담배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담배 농사도 고된 작업의 연속이었다. 한 건조실에 네 사람이 조를 이뤄 교대로 나흘마다 한 번씩 밤을 새우는 작업을 해야 했다. 건조기에 불을 계속 때주어야 했기 때문에 나무를 계속 넣으며 꼬박 하룻밤을 샐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힘들게 농사일을 했어도 아이들 학비를 감당하기에 힘이 부쳐서 할 수 없이 농협에 보증인을 세워 돈을 빌려 쓰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장성한 자식들을 보고 있으면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공부를 가르친 것이 후회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다만 막내아들이 28살에 불의의 사고로 이 세상 먼저 뜬 충격이 커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를 끊었다. 지금은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자식은 없고 몸은 자꾸만 아파서 걱정을 한다.

그는 병천 오일장을 생일날이라고 기억한다. 생일날처럼 장날은 늘 맛있는 것도 사먹고 별것 다 구경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날 먹은 순댓국과 막걸리가 최고였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장날에 와서 먹는 푸짐한 순댓국이 그에겐 크나큰 위로가 됐었다고. 또한 병천장은 농사일을 하기 위해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만남의 장이 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는 이러한 추억들로 가득한 병천시장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싶어 한다. 협의장 시절에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드는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병천에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 깔끔한 인상을 주기 위하여 시장을 옮기자는 뜻을 시장에게 건의를 했다. 하지만 상수원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세워두었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아쉬움을 가지고 지역개발을 위한 계획을 꿈꾼다. 병천은 주말과 장날이 겹친 날에 시장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도로가 너무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 멀리서도 병천을 찾아와 주시는 관광객분들을 위한 주차 공간의 확보와 그늘막 등 편의시설이 좀 확충되어야 된다고 그는 생각한다.

| **김정집**(1955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병천과 병천순대는 불가분의 관계

김정집의 할아버지는 한의사였다. 보령에서 한의사 시험을 보고 합격했다. 그 당시에는 한의사에게 정식 면허증이 발급되기 전 임시 면허증을 주었는데 5년간 무의촌(의사 및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서 근무를 하여야 정식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당시 병천 또는 황해도 지역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했는데 병천 지역을 선택하고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그때부터 김정집의 고향이 병천이 되었다.

김정집은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나 15명의 식구들과 한 지붕 밑에서 살았다. 한의사 할아버지 밑에서 천자문을 배웠고, 저울을 들고 할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와드리기도 하

며 어린시절을 보냈다. 한의사 할아버지와 함께 자랐기 때문에 주위에서 한의사가 되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어렸을 때는 그런 환경 덕에 한의사를 꿈으로 생각하고 지냈는데,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후 다른 진로로 관심을 갖고 특히 독서하는 것을 좋아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월탄 선생이 지은 10권짜리 삼국지를 밤새워서 읽기도 하며 인문학적으로 꿈을 키웠다.

어렸을 때 살던 곳은 장이 열리는 장터 인근이었다. 시골 내 시내에서 살다 보니 매번 봐왔던 장터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예전 살던 집이 지금은 도로가 생겨서 철거가 되었지만 바로 옆에 우시장이 있었다. 우시장이 서는 날이면 왁자지껄하게 사람 소리가 들렸고, 1년에 한두 번 난장이라는 것이 벌어지고는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커스 비슷하게 간단한 곡예, 줄타기 등을 하고 씨름판이 열렸다. 아마도 단오 무렵과 추수 끝날 무렵이었던 것 같다.

옛 오일장과 지금의 오일장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처럼 생필품도 물론 많고 상업적인 측면이 있기도 했지만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상호 교류의 측면이 많았다. 장이 서면 이쪽저쪽에 사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장터에서 만나서 같이 막걸리도 마시고 떠들며 놀기도 하고 설 무렵이면 장터에서 윷놀이도 하고 농사에 대한 정보가 오가는 등 서로 반기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 병천순대를 처음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장 한군데에서 가마솥을 걸어놓고 장작불을 때서 순댓국을 끓여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 당시 병천에 도축장이 있어 도축 후 내장 등 부산물이 흔했다. 먹고살기 어려운 때라서 일반 서민들은 고기라는 것을 맛보기가 어려웠다. 장날이 오면 머릿고기를 먹고 내장으로 순대를 만들어서 순대 한 그릇이나 순대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를 기울이며 서로 다른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간식거리가 흔하지 않을 때여서 어쩌다 한 번 먹어보는 순댓국이 신기하고 맛이 좋았다. 지금의 순대와는 조금 달랐는데 예전과 달리 요즘은 채소를 많이 넣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초창기에는 당면, 쌀 불린 것 등을 넣어서 만들어 순대를 찌기 전에는 생쌀이라서 작게 보이던 것이 찌고 나면 수분을 머금고 양이 늘어나서 순대의 크기가 지금

보다 컸다.

김정집은 도축장으로 인해 순대가 탄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도축장이 없으면 내장과 부산물을 공급받아 가져올 만한 곳이 없었을 것 같고 있어도 예전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주 열리는 오일장에 물건을 공급받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 도축장으로 인해 지금의 병천순대가 생기게 된 것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예전에는 선지와 내장 등 부산물을 팔고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계셨는데 부산물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소비를 다 하기에 어려워서 순대를 만들어서 판 것이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병천 지역에 병천순대가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컸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외식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순대로 인해 병천이 활성화되면서 원주민보다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함으로 인해 외식문화가 발달하게 된 것 같다. 타지에서 식사를 하고 장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의 소비로 병천에 돈이 들어오면 병천과 주변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로 병천순대를 만들어야 진정한 신토불이가 아닐까 한다. 물론 순대 가게를 운영하지 않아서 하는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같은 지역에서 돈이 유통이 된다면 병천 지역이 조금 더 활성화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심에 감사하고 요즘 국내에서 농사짓는 분들의 어려움을 병천순대로 덜었으면 한다. 그렇게 된다면 병천과 병천순대의 관계는 진정한 불가분의 관계가 될 것이다.

| **곽기종**(1931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병천순대의 발전을 위해서

곽기종은 올해 나이가 89세이다. 89년 중 70년을 병천에서 보냈으니 병천이 고향이라고 해도 될 것 같다. 21살 때 6·25전쟁이 발발해 참전 용사로 군인 생활을 해서 1955년에 제대하고 그후 농사를 지으며 생활했는데 지금은 기계화 되어서 농사짓기가 예전보다는 수월하다. 약 60년 전에는 전부 손으로 모를 심고 호미로 논을 매고 농약도 없어서 직접 잡초 같은 것을 일일이 뽑고는 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는 풀 약이 나와서 쉬워졌다. 낫으로 깎고 호미로 농사일을 할 때에는 농작물 수확량이 적었다.

먹고살려면 들이나 밭에 가서 허리 숙여 엎드려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농작물을 걷어오거나 익지도 않은 보리를 솥에다가 볶아서 털고 말려 절구통에 쪄서 밥을 해서 먹고 죽을 쒀먹고 살았다. 머리카락을 잘라서 파는 장면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값을 높게 받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면 쌀을 가마니로 받고는 했다. 옛날에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옷을 입은 곳에 이가 생겨서 저녁에는 이 잡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 군대에 있던 시절에 무명 바지를 입었는데 시커먼 이가 겨드랑이와 온몸에 퍼져서 잡느라 고생을 했다. 지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지만 옛날에는 흔하다 못해 온몸에 퍼져 있던 이를 생각하면 지금도 간지러운 느낌이다.

옛날에는 배고프고 어렵고, 보릿고개에 제대로 먹지도 못한 것이 일상이었다. 밭이나 논에서 일을 하며 한 푼 한 푼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장날에 나와서 순대국밥을 한 그릇 사 먹으면 돼지고기와 순대를 푸짐하게 넣어준 순대국밥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다. 옛날 순대국밥 하니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병천순대가 유명해지면서 각 지방에서 순대와 순대국밥을 먹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하수구로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나와 길에서 숨 쉬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악취가 났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게 건의를 해 병천 지역의 하수구 폐수 관련 공사를 하게 되어 지금의 깔끔한 시설이 생기게 되었다. 순대거리가 활성화된 배경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옛날 순대와 지금 순대의 차이를 생각하면 옛날에는 지금보다 많은 피(선지)와 쌀을 넣고 만들었지만 지금은 찹쌀을 볶아서 넣고 피(선지), 들깨, 다양한 채소를 넣어서 예전과는 다른 맛이 난다고 한다. 궁금해서 순대 가게 사장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아, 그런 걸 왜 물어유' 하고 알려주지는 않았다. 곽기종이 자부하는 것은 지금의 병천순대는 맛있고 깔끔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알아주는 먹거리가 되어서 좋다고 한다. 예전에는 순대국밥과 함께 해장국도 인기였는데, 해장국에 순대와 선지, 시래기 같은 것을 넣고 벅벅하게 끓였고, 배고픈 사람들이 당시 2,000원~3,000원을 갖고 장에 오면 양 많은 해장국과 순대국밥 한 그릇을 배불리 먹고 갈 수 있었다.

병천순대가 맛이 좋아서 소문이 난 것도 있지만, 방송에 방영된 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면서 타지에서 손님이 많이 오시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 손님이 오시면 가장 대접해드리기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식당에서 바닥을 없애고 의자를 놓는 추세로 바뀌고 있는데 여러 병천순대 가게에서도 좌식에서 의자로 많이 바뀌었다.

병천순대를 드시는 연령층이 보통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니까 손님들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더 많은 손님들을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병천순대뿐만 아니라 병천 지역과 인근 지역에 있는 독립기념관, 유관순 사당 등에 방문하는 주민과 타 지역민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순대거리를 더 특색 있고 관광지로써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 **최승도**(1941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가난했던 어린시절

최승도는 선대 어른부터 병천에서 살아온 토박이이다.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아버지가 신병에 걸리셨는데 지금으로 말하자면 폐렴이었던 것 같다. 병이 심하셨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의 일을 나눠 하게 되었는데, 아침 먹을 것이 없어 산에 가서 진달래꽃을 따 먹으며 허기를 달래고 나무를 하는 등 어릴 때부터 일을 하며 학교를 다녔다. 비가 질질 새는 학교에서 물건을 넣지 못할 정도로 삭은 헌 가마니 조각을 깔고 창고 바닥에 앉아서 공부를 하였다. 회포대라는 종이가 있었는데 공

책이 없으니 회포대를 찢어서 공책 대신해서 쓰며 어렵게 공부를 했다. 초등학교 졸업 후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는데 병천면 근처에 있는 동네에서 한 해 일하고 또 근처 다른 지역에서 한 해 일하며 4년을 지냈다. 나무 패오기, 담배 및 각종 농사 등 머슴살이로 생활비를 벌었다.

어린시절에는 부유했던 사람들보다는 가난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시기여서 비슷한 또래 아이들 중에 머슴 일을 하는 친구가 많았다. 주인댁에서 잘 때도 있었지만 집에 가서 자고 싶을 때는 20리 약 10킬로미터를 걸어 다녔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와서 자고 다음 날 다시 일을 가려면 친구들이 다니는 중학교 근처를 지나야 했는데 동창들을 만나면 가난해서 진학을 못하고 일을 다니는 자신이 부끄러워 넓은 길을 놔두고 돌아서 소로(작고 매우 좁은 길)를 건너서 다니고는 했다.

국밥을 처음 접해본 건 스무 살이 넘어서였다. 가진 게 없어 순대국밥이나 순대를 사 먹어볼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병천순대가 유명해져서 가게들이 많이 생기고 지역 주민이나 외부 사람들이 방문해서 상권이 커지게 되었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병천순대가 지금처럼 특화되어 있지는 않았었다. 병천순대가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순대를 먹어본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병천에 가서 순대를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입소문을 내줬기 때문이다.

그는 손님이 방문해서 식사를 해야 하면 병천순대를 대접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는 했는데 손님에게 대접할 만한 특색 있고 맛있는 음식이 단연 병천순대가 으뜸이었고, 대접해드리는 분마다 맛있다는 칭찬이 자자했다.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과 정겨운 분위기 그리고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순대와 순대국밥 때문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인기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농사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는 농사를 생업으로 알고 살아왔다. 담배 농사로 돈을 모았고,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은 덕분에 농토도 넓혔다. 그 후 오이 농사를 시작해 13동 정도 오이 농사를 짓고 있다. 병천 지역에는 순대와 더불어 '아우내 오이'도 특산품으로 유명하다. 순대를 업으로 삼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특

산품인 오이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 조금은 이바지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많이 남아 있지 않고 대부분 도시로 가서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요즘 기계화가 돼서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해 농사일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덧붙여 농촌이 예전처럼 활성화돼서 특산물이 더 발전하고 정이 많이 쌓이는 지역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황규명**(1948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열심히 살기만 한 인생

황규명은 어린시절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다. 어린시절 꿈 하나 정도는 갖게 마련인데, 꿈조차도 가져 본 적이 없었다. 5살 때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생계를 이을 궁리를 하기도 바빴다.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이 컸기에 꿈 없는 어린시절이라기보다는 어머니께 효도를 하는 그 자체가 꿈같은 삶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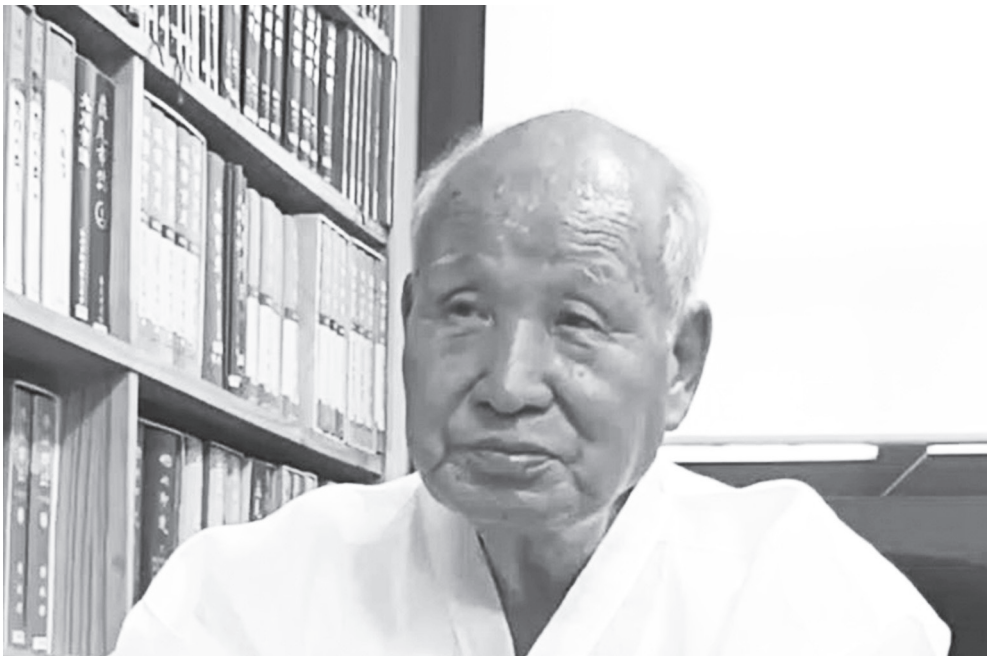
황규명은 스스로 꿈이 없는 현실주의자라 생각한다. 농사일부터 시작해서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해보고, 다시 고향인 병천으로 내려와 연탄장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시절

정말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한다. 결혼 후, 늑막염이라는 병을 얻어 연탄장수를 관두었다. 병을 완치했던 1977년에는 밭을 논으로 바꾸는 쌀 생산 위주의 녹색혁명이 일어났다. 그는 사회 분위기에 맞추어 불도저로 생계를 꾸려나갔다. 겨울에는 일이 많았지만 여름철에는 일거리가 부족하였다. 그런데 86아시안게임, 88서울 올림픽 등 불도저의 중흥기를 맞이하면서 생계에 큰 보탬이 되었다. 그러던 중 89년도에는 불도저를 처분하고, 90년부터는 포크레인 사업자격을 취득하였다. 우리나라가 건설업이 중흥을 이루던 시기였다. 건설업에만 20년을 쏟아부었다.

그러던 중 현재의 '고모네 순대' 건물을 98년도에 구입하여 임대업을 시작하였다. 2003년도에 매각을 하기까지 약 5년간 임대만 주었지 직접 활용할 계획이나 환경이 되지 않았다. 그 후에도 병천 지역에서 처음으로 노래방 사업도 시작하였고 치킨집도 창업하였다. 지금까지의 삶과 같이 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가정을 꾸리면서 현실감 있게 생업과 같이 인생을 함께 했다.

그의 삶은 바뀌어가는 시대의 영향이 큰 몫을 했다. 그는 병천순대의 맛도 중요하지만, 병천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90년대 목천의 독립기념관 개관, 병천 JC의 지역 활동, 병천과 수신면을 연결해 주는 교량, 상록리조트(골프장)의 관광객 등이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아우내 봉화제 지역 행사의 영향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JC에서 맡아서 운영하였다.

| **유헌종**(1934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지역사의 산증인

유헌종은 요즘 소위 말하는 뇌섹남이었다. 즉,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고 공부에 소질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음성의 한 산골에서 생계를 이어가셨고, 두 분은 한약 공부와 생업을 병행하셨는데 과거제도의 폐지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에 맞물려 한약 공부로 생계를 꾸려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할아버지께서는 개인 선생을 하실 정도로 여유가 있었지만, 공부를 하다가 농사를 짓게 될 만큼 생계가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기억된다.

8남매 중 맏이로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을

놓치지 않았을 만큼 리더십이 뛰어났고 공부에 관심이 많았다. 그의 기억으로 아우내장터는 그가 일곱 살 경에 예전의 구 면사무소 앞 병천리 1구 중심으로 작은 시장이 개설된 것이 시초라고 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무수하게 언급해도 부족하지 않다. 일제강점기에 학창시절을 보낸 유헌종은 어릴 적 시대를 또렷하게 기억해냈다. 그 시절 일제의 군사교육식의 학교교육에서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군사교육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어린시절의 교육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함을 이미 알고 계셨던 까닭이었다. 어렵사리 초등교육을 마치고, 6학년 때 인생의 큰 은인을 만났다. 바로 교사 한상욱이었다. 입학금을 낼 형편이 되지 못한 그는 중학교 진학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그렇지만, 교사의 배려로 학교에 가게 되었으며 교육자의 참모습에 감동과 감격을 받았다. 그것이 교육자의 길로 다가서는 첫발이 되는 순간이었다. 한상욱을 보면서 인생의 목표를 갖게 된 것이었다.

유헌종은 진천농고를 거쳐 사범대학교까지 진학하였다. 6·25전쟁으로 인해 휴교를 하였지만, 그 시절 공민학교라는 곳에 교사로 발탁되어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1953년도에 준교사 시험에 합격하여 정식 교사가 되었고, 다시 고향인 천안시 병천으로 돌아와 병천초등학교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먹고살기가 어려운 때라 초등학생들이 중학교까지 진학하는 것은 드물었다. 그의 목표는 초등학교 졸업생을 중학교에 최대한 많이 진학시키는 것이었다. 그 바람은 곧 지역주민과, 학부모, 졸업생들의 바람이기도 하였다. 전기가 없는 시절에 호롱 불 아래에서 밤 11시까지 근무하기 일쑤였다. 겨울철만 되면 난방(난로)시설에 대한 걱정이 컸다. 그 이유는 화재의 위험성 때문이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학생들의 교육에 매진하다 보니 그는 결핵이라는 중병을 얻었다. 그렇지만 모친의 극진한 간호와 관리로 10년 만에 완치를 하여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고 있다. 어린시절 주위 사람들에게서 받은 고마움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는 지역교육에 큰 봉사와 애착을 쏟았다. 그런 좋은 교육이 대물림 된다면, 병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도 크나큰 성장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갖고 있다.

원래 아우내장터는 함석으로 빈 공간에 설치를 하여 운영한 '장옥'이 시발점이 되었다. 그곳은 '싸전'이라고도 불리었는데, 쌀을 팔고 사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 장은 몇 번 옮겨져 옛날 면사무소 앞으로, 꽃집 주변으로 이동을 하였다. 그 시절의 오일장은 비교적 순수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장에 오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먹고사는 것이 힘든 시절일수록 장꾼들이 순수하지 못한 행동과 생각을 할 만한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이다.

장의 풍경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우산 고치는 사람, 고무신 꿰매는 사람, 포목을 파는 사람과 함께 오징어 파는 사람 등 수산물도 거래가 되었다. 오징어는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오징어 내기도 성행했었다. 6·25 전후에 아우내장터의 규모는 실로 전국에서 손꼽을 정도였다. 왕래하는 사람이 2만 명 전후가 되었다고 한다. 병천 아우내 오일장의 전성기였다.

병천순대에 대한 최초의 기억은 지역의 아낙네 몇몇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순대를 판매하였던 것이다. 장소를 정해놓고 파는 게 아닌, 방문판매의 개념이다. 맛이 좋아 술안주로 유명해지며 사람들이 점점 자발적으로 찾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현대에 와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방송 홍보와 지역에서의 홍보 등이 맞물려 지금의 명성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타 지역민들이 독립기념관 등 천안의 명소를 방문하였을 때 순대가 지역에서 특색 있는 음식으로 간주되어 유명세를 치르는 것도 한몫 거든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아우내장터와 순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장터와 순대의 유명세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면 단위의 지역에서 상업화의 분위기에 젖어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유 선생의 시각에서의 바람이 있다면, 사업주들이 지역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법과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덧붙여 전체적인 후손들에게 희망하는 게 있다면, 삶을 아끼고, 사람을 아끼면서 살았으면 하는 것이다.

| **이영희**(1945년생)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



병천순대는 행운이었다

구술자 이영희는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지금의 청주시 옥산면)에서 6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대부분이 선생님인 교육자의 집안에서 자라서 교육에 대한 열의가 많은 소녀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녀가 초등학생일 때 그녀의 담임 선생님은 당시 명문이었던 청주여자중학교에 진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당시 청주여중에 가려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체력시험에서도 통과를 해야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성적은 괜찮지만 체력이 약해 청주여중에

진학할 수 없을 것을 안타까워 한 그녀의 담임 선생님은 이영희를 어떻게 해서든 교육을 시키기 위해 체력을 기르게 해 청주여중에 입학을 시켰고 길러진 체력으로 인해 고등학교에까지 진학하게 되었다.

병천면 용두리에 사는 아버지 친구분의 중매로 약국을 운영하던 한 청년과 1966년에 결혼을 하여 옥산면에서 병천면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도로포장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가난했던 시골로 시집을 오며 약사인 남편을 도와 함께 약국을 꾸려나갔다. 그 당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했기 때문에 약국에서 돈을 주고 약을 구매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영희의 약국에서는 외상으로 약을 주었고 가을철 추수할 때에 약값을 농산물이나 돈으로 받고는 했다.

그녀의 집은 약국과 붙어 있었는데, 응급실이 없던 옛날에는 낮이나 밤이나 약이 필요하면 언제든 그녀의 약국으로 사람들이 찾아왔다. 낮에 고단하게 일을 하고 밤에 잠이 들었다가도 사람들의 다급한 소리가 들리면 언제든 문을 열어 약을 처방해주고는 했다. 약국이 거의 없던 곳이고 요즘처럼 병원이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약국이 병원의 몫을 하기도 했다.

약국에 손님들이 많기도 했고 건물이 워낙 노후되어서 새로 건물을 지어야 했는데 공사 기간이 약 1년 정도 진행되었다. 공사를 하는 일꾼들의 식사를 해결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고민하다가 지금의 청화집에서 일꾼들의 식사를 해결했다. 그 당시 청화집은 장날에만 순대를 팔았는데 이영희의 부탁으로 일꾼들의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평일에도 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해서 장날이 아닌 날에도 장사를 하게 되었다. 잘 되는 곳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는 것처럼 청화집 근처에 다른 순대국밥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것이 순대국밥 거리 형성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순대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처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1996년쯤 IMF 때 현재 순대거리 가게의 터가 전부 논이었는데 정부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자연녹지에 건축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었다. 이영희는 갖고 있던 몇 개의 논을 메꾸고

건물을 지어 순대가게(그 당시 한방순대, 황토방순대, 오가피순대, 본가순대, 무심천순대)가 세워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녀의 판단력은 오늘날의 병천순대거리가 형성되기에 많은 부분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병천에 순대거리가 형성되는 것을 지켜보며 자부심과 뿌듯함이 강하다. 그녀의 제2의 고향이자 그녀의 아이들의 고향인 병천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무엇보다 병천의 발전에 앞장서서 작은 것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깊다.

천안서북구

| **이영자**(1943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성환 찰방

전주이씨 임영대군파 17대 후손인 이영자(77세)는 할아버지(황제 특사로 1925년 일인에 의해 시해) 때부터 천안, 성환 율금리에서 거주해 온 토박이로 3대에 걸쳐 터전을 이어온 토박이이다. 항일운동에 앞장섰던 부친 이종학과 달성서씨 서만화 사이에서 4남 6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부친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무료 야학을 8년을 하셨다.

6·25 전쟁 때는 경부철도와 1번 국도변에 살고 있어 북한군의 진격 상황과 국군의 후퇴 등 전후 사정과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쟁 발발 소식과 함께 아산 음

봉 쌍용리로 피난을 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살았다. 종전 후 그녀는 고향 성환으로 돌아왔고, 집 가까이에 있던 성환초등학교를 마쳤다. 개화적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서울로 중학교 진학을 할 수 있었지만, 넉넉지 않은 집안 사정으로 고학으로 서울 유학 생활을 이어갔다.

아버지는 성환역 앞 지금의 감리교회 아래에 '한양양화점'이란 이름으로 양화점을 운영하셨다. 집안은 화목했지만 대쪽 같은 성품의 아버지는 항상 친일 배신자 척결을 주장하셨기 때문에 기득권층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경계와 그들의 보이지 않는 공격을 받아야 했고, 급기야 세 살 위 오빠가 친일 2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황망한 사건을 겪기도 했다.

밀려드는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숙명과도 같은 사명의식은 그녀를 현실참여 활동으로 끌어냈고, 더불어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했다. 타협을 모르는 직선적인 성격도 어쩌면 이즈음 만들어진 환경적 요일이 아닐까 싶다.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중퇴한 후, 시험을 통해 초등교원 자격을 획득하고 탄은 이정의 후손답게 고유의 문화유산인 장황(粧潢) 기술을 익히게 되었다. 그런가 하면 내적 깊숙이 지닌 정의롭고 향토적인 기본정서는 그녀를 가장 잘 이해하는 고향으로의 귀향을 이끌었다. 하지만 4·19운동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기도 했다.

20대 후반에 고향인 성환으로 내려온 그녀는 31세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중매로 결혼을 했지만 순탄치 않은 4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입양한 아들을 홀로 맡으며 이혼을 받아들여야 했다. 결국 자신이 선택했지만 고단한 삶의 시작이 아닐 수 없었다. 이혼 이후 홀로 가정을 건사해야 했던 위기 속에서 입양한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1986년 서울에서 고교 때부터 배운 표구 기술을 살려 '성환표구점'을 열었다.(현재 위치인 성환읍 449-312) 이를 통해 그는 시각예술의 가치 보존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자신만의 철학을 피력해 가며 문화 활동을 앞세운 표구 기술자로 살았다.

그 후, 입양한 아들이 청각장애 2급 판정을 받는 힘든 고비도 있었지만 그녀는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뒷바라지하였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펼쳤다.

당시만 하더라도 장애인을 위한 제대로 된 시설 및 환경이 절대 부족했다. 또 사회의 몰이해 속에서 장애아 부모들은 또 다른 아픔을 겪어야 했기에 이를 극복키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현실에서 부딪치는 갖가지 일들은 그녀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갔다.

그녀는 장애아부모회를 통해 제도권 교육시설 만들기에 나섰다. 우선 천안에 제대로 된 장애아 교육기관의 필요를 주장했고, 1991년 그와 관련 공립 인애학교 유치 및 1993년 특수교육개정법 통과를 이끌어냈으며, 천안시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에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때때로 공공기관과의 언쟁과 투쟁이 이어졌고, 설득과 읍소를 반복했다. 이런 활동이 알려지며 MBC인간시대를 통해 장애인 부모의 고충을 드러내기도 했고, PD수첩도 촬영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고향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으며 그녀는 성환의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누대로부터 이어온 가풍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살았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의 경계와 편견, 몰이해 등으로 갈등도 없지 않았다.

그녀를 두고 많은 이들은 여장부라 일컫는다. 특히, 천안삼거리는 알려져 있지만, 조선시대에 성환도 찰방이 성환역에 있었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점이 안타까워 성환역과 성환찰방의 역사적 의의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귀중한 향토사적 가치를 지닌 성환찰방의 위치도 고증되지 않고, 추정 장소에 표식도 없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의식 없는 선진문화도시의 길은 요원함을 이야기하고, 성환의 역사성·향토성의 중요함을 발로 뛰어가며 설파했다.

천안지역 향토사계와 문화예술계가 그녀의 열정과 움직임과 남다른 식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정유재란 성환전투 승리의 현장이며 구한말 청일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성환, 조선 최고의 교통 요충지이자 군사 요충지였던 성환찰방의 도시 이곳 성환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하게 작은 소도시 한편으로 밀려나 있는 게 여전히 아쉽다. 그래서 그녀는 지속적으로 생업인 성환표구점과 전통찻집인 '소사'를 운영, 예술의 가치 보존과 문화예술 플랫폼의 역할을 자임해 나

갔고,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부친으로부터 전해들은 조선시대 왕실 목장인 성환목장, 일제강점기 일인들의 사유화로 전락한 성환목장, 그리고 해방 후 국립종축장으로서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 상세하게 꿰뚫고 있는 이영자. 그녀가 가장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환을 가장 성환스럽게 할 수 있는 '성환찰방'에 대한 무관심이다. 조선시대 교통의 핵심인 12개 역을 거느리던 성환도 찰방에 대해 관련 자료를 통해 정확안 위치를 고증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 문화단체 등에 성환찰방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성환목장 및 왕실 연계 등을 향토사적으로 접근하는 한편 역사적 고증과 민족정기 차원에서의 복구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향토사를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람들과의 소통도, 그들과의 연찬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 **임명순**(1948년생)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



성환 만세운동

임명순은 1948년생으로 선대부터 150여 년째 천안에 뿌리내리고 살아온 토박이 중의 토박이다. 그는 방앗간 집 손자로, 임만재 초대 도의원과 전주이씨 이필헌의 4남 4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동아의원이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천안시 보건소장직을 역임했지만 여덟이나 되는 자녀를 키우고 가르쳐야 했기에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는 못했다. 막내로 태어난 그는 운동화를 처음 신어 보고 책보자기 대신 새 책가방을 어깨에 메던 6학년 때의 환희를 또렷이 기억한다.

어린시절 다니던 천안 남산초등학교는 논 가운데 있었다. 그러므로 등하굣길은 질퍽한 논두렁길이었다. 광덕이나 집 근처에 목천에서 농민들이 땔감을 지게에 지고 와 팔던 나무전도 있었다. 그의 집에서도 나무 한 짐을 사서 1주일이나 열흘 정도 때고 나면 나뭇간이 비어 다시 사들이곤 했었다. 나무전 외에 싸전이 있었고 여름이면 열무시장이 서기도 했다. 목천 콩밭열무는 품질이 좋아서 서울에서 중간상인들이 기차를 타고 내려와 열무를 사 가곤 했다.

남산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 대전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농대를 나왔다. 이후 아내 이종숙을 만나 결혼을 하고, 전공을 살려 한때 농촌진흥청에 근무를 했다. 이때 통일벼 육종사업에 관여하여 보릿고개를 없애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하지만 그는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어릴 적부터 꿈꾸어 왔던, 농촌 근대화의 큰 뜻을 품은 채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향 천안으로 내려왔다. 한국농약사를 경영하며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해도 수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접하기도 했다.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천안 단위농업공판장을 개설하는 데 창립멤버로 참여하여 농산물 유통구조의 기반을 마련하는 일에 매달렸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에도 관심이 많아 건설폐기물과 플라스틱의 재활용사업을 연구했다. 그중 건설폐기물 재활용 연구는 두 건의 특허권을 취득하기에 이르며 사업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생업이 되었다. 현재 유량동에 있는 '그린환경'의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임명순은 천안 관련 옛 문헌을 살피는 일에도 흥미가 많았다. 어느 날 천안시지를 읽다가 천안군 연혁의 오류 부분을 발견했다. 이를 바로잡으려고 관련 자료를 섭렵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천안 향토사연구소와 인연을 맺게 되고 체계적인 향토사 연구에 빠져들었다. 그는 1900년대 기록부터 천안에 관한 자료를 뽑아내고 빠진 부분을 채워갔다. 방법은 옛날 자료를 발굴하여 상황이나 시대적 맥락을 조사한 뒤 내용을 확인하고 충실히 하는 일이었다. 그러한 일을 대가 없이 40여 년간 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일조차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한 어

려운 상황에서도 천안을 위한 향토사 사업을 꾸준히 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그중에 유관순 열사의 탄생일이 1904년이 아니라 1902년이라는 사실을 밝혀낸 일과, 순국일이 1920년 10월 12일이 아니고 9월 28일이라는 사실을 제적등본을 통해서 밝혀낸 일, 또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 혹은 7년을 받았다고 알려져 왔는데, 공주지방법원 형사사건부 기록에 5년이라고 명시된 사실을 찾아낸 일 등 그동안의 향토사 관련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 결국 그의 이러한 향토사 연구의 공적을 높이 평가받아 천안시와 충청남도에서 시상하는 학술 부분 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일제의 국권침탈 9년째인 기미년 3월 14일, 목천보통학교 만세시위로 시작된 천안지역 기미독립만세 시위는 3월 20일 입장 양대리의 민옥금 등 3명의 여학생(민옥금, 한이순, 황금순)들 주도로 이어졌고, 3월 28일 입장 광부 만세운동과 3월 29일 천안읍내장터 만세운동, 3월 30일 풍세 횃불시위로, 그리고 유관순이 주도한 아우내장터 만세운동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천안 다음으로 규모가 큰 성환의 만세운동에 대한 언급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1900년대 천안의 근현대사를 연구하던 중 아우내 만세운동 하루 전날인 3월 31일 성환에서 등불 만세운동이 펼쳐졌음을 밝혀냈다.

찾아낸 참고 기록물은 3가지이다. 그 첫 번째가 『독립운동사』 제3권, 삼일운동사(하)에서 성환 만세운동은 “3월 31일 밤 성환에서 수천 명 군중이 대한 독립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크게 놀란 경찰과 헌병이 총칼로 제지하고 나섰다.”라고 적시된 부분이다. 또 한 가지, 『3.1운동비사』(이병헌, 1966)에서 “3월 31일 오후 8시 읍내에서 수천 군중이 등불을 들고 만세를 부르며 시내를 도는 한편 일대는 정거장 구내에서 정차 중인 기차를 향해서 만세를 부른즉 승객 중에서 호응하여 만세를 불렀다. 이때 기차 안에서는 일본인과 충돌한 일이 있었다. 온양온천행 기차는 출발시간서 약 30분간 정차하여 떠나지 못하였다.”라는 문구도 발견한다. 마지막으로 『3·1운동실록』(이용락, 1956)에서도 “성환에서 1천여 명이 회합, 헌병·경찰이 해산시켰다”라는 문구를 발견한다. 그러나 이런 몇 줄의 문헌만으로는 성환 만세운동의 진실을 밝혀낼 수 없었다. 그 외에 동아일보 1946년 2월 28일 자

기사인, 공베르 신부가 증언한 성환 만세운동 등불시위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성환에서는 3월 31일의 등불만세시위 전에도 간헐적으로 시위가 있었다. 당일 석반을 마치고 산책을 하다 보니 촌락민이 몰려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기에 나도 호응하였더니 당시 이병규 성환면장과 지역 유지들이 몰려와 여러 가지 지도를 받아 갔다. 지도 내용은 절대로 평화적으로 하되 3월 31일 밤 등불을 있는 대로 들고 나와 질서 있는 시위를 하라는 것이다. 성당에 갖고 있던 300여 개의 등불을 내주었다. 장엄하고 신사적인 만세운동은 그날 밤을 넘겨 다음날까지 이어졌다."

공베르 신부는 등불시위에 합세했을 뿐 아니라 피신처를 마련하여 그들이 잡혀가는 것을 막았다. 프랑스 기를 내걸고 일경이 체포하러 오면 "이곳은 프랑스 영토"라고 이야기하여 돌아가게 했다. 그래서 성환 독립만세운동에서는 체포 구금된 사람이 없다.

임명순은 성환 등불 만세운동은 주동자가 드러나지 않는 지역 공동체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유추한다. 그는 성환 만세운동이 성당 신부와 함께한 유일한 등불 시위였으며 자발적이었다는 데에 의미를 둔다.

| **이흥규**(1933년생) **심원석**(1935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성환 사금점

〈여암고〉를 보면 고려 때 원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직산 서쪽에서 금을 캐 두서너 근을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성환 율금리가 금 생산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기록들은 결국 구한말 외세 침략 당시 직산금광, 성환지역 사금에 관심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전언에 의하면 숙종 때 직산 고을인 성환은 금이 많아 금 캐러 전국 각지 사람들로 북적였다는 기록도 있다.

일본인들은 청일전쟁으로 직산에 군대를 주둔시키게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지역에 관심을 두고 은밀히 금이 얼마만큼 매장되어 있는가를 조사했다. 실제 한국 금광사를 살펴보면 경부선 관통지역 인근인 천안, 목천, 둔포, 안성 등지는 금광개발 기지로서 중요한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1899년 가등공사는 석정(石井)과 제등(齊籐)을 파견해

광산을 조사시켰는데, 이때 석정은 직산지역이 유망 금 광산이라고 보고했다.

일본인들은 성환을 위시한 직산 일대 60리×40리(동-서, 남-북) 면적을 차지해 금광산 내지 사금점을 펼쳤다. 특히 매장량이 풍부한 삼곡리 사금장에는 일본인들을 직접 투입해 새로운 기법의 채굴 방법을 도입했다. 이렇듯 역사의 현장, 직산지역(구한말 이전, 성환은 직산현이었기에 크게는 직산지역으로 포함) 성환지역은 사금 대표산지로서 금배가 지역을 훑으며 사금 채취에 열을 올렸다.

이흥규는 1933년 천안 목천에서 출생했다. 이 지역에 논이 적어 쌀밥 먹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아버지는 자신이 8살 때 성환 대흥리로 이주해 왔다. 2남3녀 5남매 중 장남으로 빈한한 농가의 기둥이라는 중압감에 그는 힘든 어린시절을 보냈다. 게다가 멀리 밖에 나가 돈 버는 일을 하고도 싶었지만 농사짓는 아버지와 장사에 나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러지도 못하고 평생 성환에 거주했다. 학업은 가난해서 성환초등학교를 겨우 마쳤다. 또 장애를 지녔던 아버지를 도와 농사짓는 법을 배우는 것이 순리였고, 해방 직전 일본인 '산전'의 소유였던 대흥리 일원 저수지와 농토를 임차해 농사짓고 물이용 대금(수세)을 내면서 오로지 농토 넓히는 일에만 진력해 왔다. 당시는 오로지 배불리 먹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성환에서의 농업이 자신 삶의 기반임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인 이흥규는 20살 때 결혼, 4남매를 두었다. 장애인 아버지의 노동력의 한계를 자신이 짊어져야 했기에 늘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한 번도 현실을 비관하거나 누구를 원망한 적은 없었다. 당시 어머니는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 늘 강인한 모습으로 사셨는데,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교훈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해방 후, 안궁리, 수향리, 신가리, 대흥리 일원 대부분이 일본인 소유 농지였기에 일본인들이 물러난 뒤, 일부가 지역민들에게 불하되었다. 이때 15마지기 땅을 불하받아 본격 농사를 짓는 일에 전념했다. 힘든 노동이었지만 자식 키우는 재미로, 하루하루 나아지는 생활을 꿈꾸면서 그는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왔다. 다행히 3남 1녀 자식들이 모두 열심히 공부를 잘해 서울대와 연세대, 인하대에 진학했고 딸은 상고를 나와 직장생활하다

시집을 갔다.

대흥5리 마을회관 자리는 옛 이름이 복병재로, 옛날 청일전쟁 때 병사들이 전쟁을 하던 곳이라 이 이름이 붙었다. 한동네에 사는 이흥규와 심원석은 '성환' 하면 율금리가 금광으로 유명했다고 말한다. 1930,40년대 금 광산이 성행했고 광산 굴이 지금까지도 남아있어 당시의 흔적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흥규에 의하면 성환5리 천주교회 서쪽으로 내려오는 길옆에 있는 '화성관'은 금곡리(율금리)에서 금광이 한창일 때 광부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술집인데, 화성관 여인들은 일반적으로 신사들은 거절하고 돌가루 잔뜩 뒤집어 쓴 허름한 광부들은 대환영이었다고 한다. 술을 마신 후 녹두알, 콩알만 한 금덩이를 술값으로 내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성환읍내에서 대흥리로 넘어오는 초엽, 갯방죽에 금배가 있었고, 버럭틈(안궁리 4구)에 금배가 있어 동리사람들이 신기해 구경 갔었다. 그곳에서 광부로 일을 하던 강진옥, 강성옥 두 형제가 있었지만 그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

인부들은 원동기를 실어 성환천 혹은 논바닥을 파 제끼며 흙 속에 섞여 있는 사금을 채취했다. 보통 바닥을 5m 정도 파곤 했는데 대흥리 안궁리 일대 웅덩이가 무수하게 파헤쳐졌고, 금세 다시 메꾸어지면서 성환 전 지역을 훑으며 사금을 채취했다. 당시 복사(금을 골라내고 남은 돌가루)가 길게 이어졌다. 금배가 사금을 채취하기 위해 논바닥을 밀고 내려가면 작은 도랑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하천으로 이어지면서 성환 곳곳은 늘 부산해 보였다.

이흥규와 심원석 모두 금배에 대한 공통적인 기억이 있다. 입장 쪽에서 금배가 움직이는 모습을 심심찮게 봤었고 성환에서는 홍경리(대흥3리)에 금배가 맨 먼저 들어오려고 했는지 원동기를 돌리기 위해서 그랬는지,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었다. 대략 100m 간격으로 시추작업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지역주민들은 일본인들이 얼마만큼의 금을 생산했는지, 또 얼만큼 지들 나라로 가지고 갔는지, 진행과정과 생산된 양은 알 수가 없었다고 한다.

금점판과 관련해서는 직접 일한 사람들이 아니라 깊게는 알 수 없지만 당시 홍경리에

는 오랫동안 '70명 구덩이'란 이름을 단 구덩이가 존재했었다. 1930년대 금 러시가 일던 때에 구덩이를 깊게 파내고 사금을 채취하던 광부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압력을 받은 물길이 터져 나오면서 구덩이 속 70여 광부들이 몰살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구덩이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존재했었는데 2000년대 들어 공장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그 흔적이 사라져 버렸다.

오랜 세월 일본인들이 운영하는 금점판이 성환 곳곳에 세워져 금 채취에 열을 올릴 즈음, 지역 주민들은 성환목장(지금의 국립축산과학원)과 더불어 일본인들의 자본 침탈, 영토 점령, 이권 획득 등 불평등한 계약 속에서 가슴 아프고 잊고 싶은 일이 많지만, 금을 모으고 채취하던 그때의 풍습이 지금까지도 그들의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 **한상범**(1935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성환목장

한상범(86세)은 국립종축장에서 34년간 기능직으로 근무하였다. 할아버지 때부터 성환 신가리에서 거주해 온 토박이로서 고향마을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그는 마을의 쇠퇴와 주민들의 이주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인정이 넘쳐나던 옛 시절을 그리워했다.

한상범은 농업에 전념하던 아버지 한유길과 어머니 조선녀 사이에서 4형제 중 셋째로 태어났다. 외갓집은 아산 용두리로 심성이 고운 외사촌들이 있다. 그는 신가초등학교의 전신인 간이학교를 마친 후, 집안 사정으로 중고등학교 진학을 못한 채 군 입대를 하고, 제대 후 고향마을인 신가리에 연접한 성환목장(당시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 기능직으

로 입사, 젖소 관리부에서 근무했다. 32세라는 늦은 나이에 이웃 평택의 대사리를 고향으로 하는 규수와 결혼,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장자는 공업고등학교를 나와 전기 관련 업체에 근무하고 있고, 차남은 서울에서 살고 있다. 두 딸은 모두 결혼해 외지로 출가했다. 농촌마을에 거주하면서도 직장생활을 했던 그는 아버지의 농사붙이를 일부 거들면서 한 번도 고향을 떠난 일이 없었고, 자식들이 출가한 이후 1993년 59세 되던 해, 집을 허물고 새롭게 개축했다.

평생 삶의 터전인 신가리와 이웃해 있는 축산시험장의 직장생활은 그에게 고향지킴이로 이어올 수 있게 한 근원이었다. 흔히들 성환목장으로, 국립종축장으로 불리는 국립축산과학원(현재의 정식 명칭)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인 '카호시데쓰마[赤城鐵馬]'가 종마(種馬) 생산을 위한 소규모 목장으로 출발했지만 1928년 젖소 도입으로 낙농사업을 본격화했다. 그러던 것이 해방되면서 1947년 국립으로 이관되고, 농사개량원 성환축산시험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상범은 이 이름으로 불리던 때인 1962년 입사하여 성환목장과 한평생을 함께하였다.

그뿐 아니었다. 관광산업이 발전되지 못했던 6,70년대 성환목장은 각급 학교의 소풍지로 각광을 받았다. 목장 내 이승만 대통령 별장으로 쓰였던 99칸 목조기와집 취원각(翠遠閣)은 참으로 아름다웠고, 축산연구를 위한 방목지인 너른 목초지, 영화촬영으로 인기였던 목가적인 목장 풍경, 금송, 독일가문비나무, 전나무, 메타스퀘어, 서어나무 등 고급 수종으로 정원을 이루었던 격조 높은 목장 곳곳의 풍경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였다. 그는 밤낮으로 이러한 풍경을 벗하면서 보냈던 시간이 행복했다.

그가 풍운의 꿈을 안고 입사한 이곳에서의 생활은 늘 즐거웠다. 1994년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과 통합,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로 통폐합이 되고 2년 후 정년퇴직하면서 34년간의 축산과의 인연을 끝맺었다.

취원각은 본래 판서를 역임했던 양반가의 주택으로 지었다고 한다. 일제강점 이후 성환목장이 만들어질 때 일본인 목장주가 그 집을 철거하고 그 재료를 다시 사용하여 150평 부지 위에 외부는 한식, 내부는 일식으로 개조해 취원각이라 이름짓고 목장주의

별장으로 이용하였다. 그러면서 정원에는 단풍나무를 심고 건물 앞에는 전나무, 건물 주변에는 일본 원산의 금송을 심었는데, 40년 생 이상 큰 나무를 심었기에 지금 정원의 숲은 대부분 나이가 150여 년 이상 된 고목이다. 성환목장을 연접하는 성환의 7개 마을은 모두가 다 그림 같은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부드러운 구릉지대에 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는 취원각이지만, 그곳 생활할 때에는 그리 가까이 있어도 귀한 유적임을 몰랐다. 그러다 구제역과 AI발생으로 방역 문제 때문에 출입이 제한되기 시작했고 일반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금지의 구역으로 변했다.

우수한 품종의 젖소와 종돈, 종계, 종토를 생산, 양축농가에 보급해 오던 국립축산과학원이 우수종계 보존과 확산, 개량사업 등 엄청남 성과와 역할, 기능을 담당해 오고 있지만 시대의 변화와 방역문제 등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성환지역 발전의 제1 걸림돌로 지적받아온 터에, 국립 축산과학원의 이전은 30년 천안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터에 많은 이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남 함평으로의 이전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 그는 담담했다. 개인적으로는 아쉽고 서운한 감이 있지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참 잘된 일이라 여기기 때문이었다.

평생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성환목장(축산시험장, 성환종축장, 혹은 성환종축원)에서의 34년은 오늘의 그 자신을 만든 기둥이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우량 종축의 생산과 보급, 가축사양 관리, 자급사료 생산, 초지 개량에 관한 연구에 몰두해 온 지난 세월, 목장 경영방법의 시범 및 훈련에 관한 일을 맡아 보았던 연구기관의 일원이었음이 자랑스럽다고 한다. 그는 지금 마을에서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마을회관 벽면마다에 걸려 있는 휘호와 금언 서예 액자가 독학으로 배운 그의 서예 솜씨다. 그러면서 그는 곧 사라져 갈 성환목장을 가슴에 넣어두기 위해 가끔씩 그곳을 거닌다. 자신 삶의 반을 차지했던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쩌면 그의 전부였는지도 모르겠다고 한다. 그의 눈가에, 그의 표정에서 성환목장의 유구한 세월과 부침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 **심재호**(1935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성환역

1935년생의 심재호는 청송심씨 안효공파 25대손으로 성환의 토박이다. 성환역 인근에 있었던 한의원 겸 한약방을 경영한 할아버지의 덕으로 후손들이 모두 훌륭하게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특히 소문났던 영재 아들은 성환 지역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의 아들은 2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최우수 성적을 유지하였다. 대전고등학교를 12세에 입학하였고, 서울대학교에서 유기화학을 전공한 학자가 되어 대학 교수로 봉직하고 있다.

심재호는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일, 등굣길에는

녹비 생산을 위해 풀을 한 짐씩 베어서 짊어지고 갔던 일 등이 그의 기억에 남아 있다. 16세인 중학교 3학년 때 그는 6·25전쟁을 맞았다. 아산 음봉 월랑리로 피난을 갔는데, 처참한 모습을 목격하는 화는 면했으나 의용군으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계속 산속에서 지내야 하는 고초를 겪었다. 새벽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밤이 깊으면 마을로 내려왔다. 어린 나이에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나 이제 생각하면 그 덕분으로 강건한 체력과 인내심을 갖게 된 듯하다.

그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일찍 서울로 유학, 양정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쟁 때문에 천안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양정고등학교로 옮겨서 졸업하였다. 지역사회에서 살아오며, 천안농고를 다닌 것이 교우 관계와 의장활동 등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대학교는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로 진학하여 졸업하였다. 그가 전공을 살려서 서울에서 자리 잡지 않고 가업을 잇기 위해 성환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헌의 시발점이 되었다.

본래 장항선의 분기점은 성환역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한다. 당시는 천안역보다 규모도 크고, 청일전쟁의 성환 전투에서 일본군이 대승을 거둔 이유로 다른 역보다 역장의 급이 높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철도부지로 땅을 많이 빼앗기게 될 것을 두려워 한 지주들이 심하게 반대해 천안으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만일 성환역이 장항선 분기점이 되었더라면, 더욱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성환의 발전 속도는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성환은 소도시이지만 역 앞의 도로는 직선화되고 구획정리가 잘된 편이다. 해방 직후에는 꽤 큰 건물과 병원, 식당, 양조장, 다방 등이 늘어서 있었고 역 주변에는 여인숙이 많았다. 대표적인 건물은 동인병원, 성환의원, 양조장, 버들다방 등이다. 또 열차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팔던 모습이나, 길게 늘어선 노점 등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그런대로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는데, 다른 도시에 비해 발전 속도가 늦어서, 계속 이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큰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 그나마 변화를 느끼게 한 것은 얼마 전 수도권 전철의 개통이라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수도권 남부 지역과 경기도 경

부선의 역세권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이 용이하기 때문에 남서울대 학생들의 왕래가 많다.

성환목장(국립 종축장, 축산기술연구소)은 드넓은 땅을 차지하고 100년이 넘게 유지돼 왔다. '성환' 하면 성환목장이 떠오른다는 사람도 있지만,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곳이기도 했다. 이제 이전이 확정되어 반갑고, 그 부지를 이용한 개발계획이 희망적으로 잘 수립되고 있어 기대가 크다. 예전에는 유명한 소풍 장소로 활용되었기에, 열차에서 내린 많은 학생들이 줄지어 걸어가던 모습은 잊을 수 없는 풍경이다.

심재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가업을 잇기 위해 과수원 경영을 함께 했다. 무엇보다 소독을 자주 하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 지금은 성능이 매우 좋은 자동분무기가 이용되고 있지만, 당시는 원시적인 수동분무기였다. 몇 단계의 진화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자동분무기가 이용되기에 이르렀다. 과수원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 주의를 게을리하여 자칫 실패할 경우 타격이 크기도 했다. 일기에도 촉각을 세워야 하고, 화접이나 봉지 씌우기 등의 작업을 위해서는 일손 부족의 문제도 심각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보통 사람의 생각대로 편한 직업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한눈팔지 않고 성실하게 과수원을 경영하여 농협 조합장을 맡기까지 16년을 이어왔다. 성환의 특산품인 배 농사와 사과 농사를 함께 지었다. 인근 경기도 동남부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복숭아는 저장성이 떨어져서 시도하지 않았다.

농협 조합장이 된 것은 완전히 타의에 의한 것이었다. 그가 합리적이어서 농협의 운영을 정상화시킬 적임자로 중의가 모아지며 여러 사람이 찾아와 설득하였다. 계속 피해 다니다 지쳤고 여러 사람의 권유 때문에 결국 수락했다. 다행히 그가 조합장을 맡으면서 농협의 운영은 정상화되었다. 큰 어려움 없이 농협 운영이 정상궤도로 들어섰다.

천안이 시로 승격되기 전에는 천안군이었다. 천안읍과 환성면(현재 천안서남부 일대)이 천안시와 천원군으로 된 것이다. 군세가 약해져서 박탈감을 느끼던 중 이름마저 빼앗겼으니 시군 사이에는 알게 모르게 알력이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초기에는 천안군(뒤에 본 이름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천원군은 천안군으

로 개칭)의 반발이 심했고, 심재호는 반대투쟁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여러 사람의 토론을 거쳐 결국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절감하던 참이었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반쪽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보다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다. 통합이 되고 추대 형식으로 의장직에 취임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큰 명예도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현재의 북천안새마을금고는 본래 성환새마을금고였다. 농협 조합장과 시 의장을 역임하며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새마을금고에서도 이사장으로 옹립되었다. 처음 이사장에 취임한 것은 1987년의 일로 그의 나이 53세였다. 오래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이사장직을 맡기에는 젊은 나이였다. 그 후 사세의 확장을 위해 북천안새마을금고로 개명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천안 경제의 핵심인 불당동에 지점을 내기 위해 신사옥을 건축하기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33년째 이사장직을 맡고 있다.

| **김준동**(1958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성환 수향리

수향리에 미군부대와 함께 흔히 말하는 '기지촌'이란 공간이 들어서며 우리 사회에 여러 명암을 남겼다. 그들은 싸구려 화장품 냄새를 풍기기도 했고 신기한 세상으로 인도하기도 했다. 두려움이나 경계심보다는 색다른 체험이자 바깥 세계로의 눈뜸이나 통로로 여기려는 생각이 강했다. 카바레, 댄스홀, 서양춤, 서양노래, 넉넉함, 달콤함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군부대에서 암시장으로 흘러나온 C레이션 박스는 그 시절에 인기 품목이었다. 미군의 비상식량으로 주민들에게는 처음 먹어보는 별미였다. 커피는 '설탕 탄 비

싼 물'로 알려졌다. 요즘으로 치면 일회용 인스턴트 커피였다. 김준동은 당시 미군부대가 들어온 후부터 이 지역의 모든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다.

예전에는 옹기를 굽던 가마터가 있었으며, 가마터에서 일하거나 농사를 짓는 10~20여 가구로 이루어진 마을로 이름은 '점촌'이라 했었다. 이후 행정개편으로 수천(지금 수향2리)의 '수', 지족향(지금의 수향1리)의 '향' 자를 따 수향리란 명칭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마을에 1957년 미군이 주둔하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1960년대 가마터가 불이 나 소실되면서 '양촌'이라 불렸다. 또 신문화가 들어왔다 하여 '신향촌'이라고도 불리면서 점촌, 수향리, 양촌, 신향촌이라는 여러 명칭의 마을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풍족한 물자를 바탕으로 300여 가구가 조화를 이루며 60~70년대 성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지가 되었다. 그러나 미군이 떠나고 지금은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조용한 마을이 되었다.'

청소년기의 그는 미군부대를 통해 세상을 읽었다. 1985년 스물아홉에 부산이 고향인 아내 윤석화를 만나 결혼하고, 1남 1녀를 두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터라 60년대 이후 60여 년 동안의 수향리 모습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다. 1960년대 이 지역에는 부대 정문에서 넘어오는 산등성이를 중심으로 수향리 대흥리 등에 마을이 있었는데 대부분 초가집이거나 판잣집이었다. 피난민들은 생활은 어려웠지만 지주였거나 지식인 출신이 많아 미군부대를 끼고 부대 물건으로 장사를 하기도 하고, 군속으로 부대에 근무하는 사람도 꽤 많아서 금세 형편이 나아졌다.

교육열도 높아서 마을 아이들 대부분은 상급 학교에 진학했는데, 다른 지역 농촌아이들보다 먹고 입는 환경이 훨씬 좋았다. 그 시절 미군부대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창고였다. 부대는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급했으며, 아이들이 군것질 거리나 장난감을 얻는 장소였다.

그가 어릴 적 그들은 먼 나라의 무섭고 낯선 군인이었다. 그러나 어느 새인가 조금씩 익숙해져 그들에게 다가갔다. 인심 좋은 코쟁이는 선심 쓰듯 과자를 한두 개씩 던져주기도 했었는데, 그런 날이면 재수가 좋았다. 그들이 질겅질겅 씹는 것이 껌이라는 것도 알

게 되고, 동정의 손길을 못 잊는 철부지들은 틈만 나면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아이들은 미군 자동차의 배기가스조차 냄새가 좋다고 뒤따르며 들이마시곤 했다. 어린 꼬마들은 콘돔(나중에야 그놈이 무엇인지 알았지만)을 불어 만든 풍선을 갖고 놀기도 했다. 누더기 같은 옷에 박힌 이를 잡는다며 DDT를 마구 뿌려대기도 했다.

그는 부대찌개를 기억했다. 미군부대 식당에서 흘러나오는 잔반에서 먹을 만한 것을 골라내 허기진 배를 채우곤 하던 시절, 그것은 훌륭한 영양식이었다. 이제 쌀이 남아도는 풍족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 부대찌개를 안주로 즐기고 있을 줄이야 누가 생각이나 했겠는가.

한편 수향리는 애환이 서린 마을이다. 미군기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 해도 붉은 황토마루 기슭에 20여 호의 집들이 모여 사는 평온한 동네였다. 어느 날 갑자기 미군부대가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350만 평이나 되는 수용 지역의 주민들은 수백 년 동안 살아온 고향집과 산과 들 그리고 이웃들로부터 쫓겨나야만 했다. 지금처럼 보상과 이주대책이 있을 리 만무했다. 한 마디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 시절이었으니 말이다. 그런가 하면 소위 양색시로 불리던 짙은 화장기의 여인네들이 쪽방촌을 이루며 미군들에게 값싼 웃음을 파는 기지촌으로 변하였다. 많을 때는 200명 정도나 몰릴 정도였다.

지난 23년간의 수향리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며 마을 역사를 만들어갔다. 사진관 옷가게 전파사 세탁소 당구장 등 시골 마을에서는 생각조차 못했던 것들이 들어서서 성업 중이었고, 생필품을 파는 가게는 무려 18개나 되었다. 그렇게 호황을 누리던 마을 경기는 1980년 미군 철수와 함께 끝을 맺었다. 주민들도 대부분 마을을 떠났다. 미군부대와 연결되어 있는 생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수향리가 성환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절이 막을 내리게 된 셈이었다. 빈집이 늘고 마을은 슬럼화로 치달았다. 미군 철수 이후 40년이 지났는데도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어 마을에는 노인들만 남았다. 이것이 한때 화려했던 수향리 풍경이다.

주한미군과 함께 이 땅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에는 전쟁이 남겨놓은 고단한 삶과 시

대의 변화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것은 주한미군과 함께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 세대에게는 피할 수 없었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였다. 어느 면으로 보면 어떤 향수이자 아픔 같은 것이기도 하다. 다행스런 것은 미군과 주민의 갈등이 거의 없었던 점이었다. 문전옥답을 빼앗기는 아픔도 겪었지만, 그들을 원망할 줄을 몰랐다. 오히려 수향리 경제가 성환 경제를 이끌었다고 할 정도로 주민들의 살림에는 도움이 된 면이 있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어떤 사람은 "양색시를 보면 자녀 교육 문제가 걱정되는 것 말고는 좋은 것이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순박한 사람들이기도 했고, 전후 그저 먹고 살기 바쁜 어려운 시기였기에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수향리에 미군부대가 1957년부터 주둔을 시작하여 23년간 머물렀다. 그 자리는 현재 대한민국 공군이 들어와 작전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군부대의 주둔은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은 거의 없는 셈이다. 미군부대가 주둔하는 동안 마을의 정취도, 인심도, 풍습도, 경관도 바뀌어버린 수향리 일대의 당시 모습을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민경호**(1937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성환 배

민경호(83세)는 일제강점기 때 이발소를 운영하던 할아버지와 철도 보수 일을 하던 아버지 민경식의 고단한 삶을 보며 어린시절을 보냈다. 그의 삶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정국으로 치닫던 변혁의 시기에 크게 반전을 이루었다. 아버지는 해방 직전 일본에서 돌아와 시대에 적응하는 새로운 삶에 대해 고민하다가 외가(둔포)가 있는 성환으로 이주해 해방을 맞았다. 그때 아들 민경호의 나이는 7살이었다. 아무 것도 모르던 철부지 시절, 아버지를 따라 먼 타지로 이주해 온 그의 눈에는 신기한 것뿐이었다.

고향 주문진을 뒤로 하고 타향살이를 시작한 아버지는 당시 안양골로 불리던 송덕2리에 자리를 잡았다. 비교적 널찍하게 땅을 확보한 아버지는 남들이 하지 않던 배 농사를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일손을 돕고 배 농사 기술을 배우며 어린시절을 보냈다. 당시 마을에 20여 호 남짓한 집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자리했던 모습과, 황폐한 구릉 너머로 손으로 일구고 발로 다지면서 땀으로 농사짓던 농부들 모습이 그의 기억에 희미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또렷하게 기억나는 건, 민가가 드물었던 송덕리 8천여 평에 아카시아 울타리를 치고 밤낮으로 배 농사에 여념이 없으셨던 아버지의 부지런함이었다. 그 때 그는 외지에서의 공부도, 자신이 하고 싶었던 토목공학의 꿈도 내려놓고 고된 노동을 마다치 않고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배 농장으로 내려와 가업을 잇는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었다.

그의 생각은 그럭저럭 주효했다. 보릿고개와 근대화과정 속에서 특별히 나아질 것이 없는 시골생활은 개인영농 위주에서 기술영농으로 바뀌어 가는 변화의 세월을 목도하면서 과수농업만큼은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법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아버지는 늘 걱정이 많으셨다. 경험과 체득된 자신만의 농사법이 옳다고 주장하셨지만 그는 아버지를 조금씩 설득하고 이해시켰다.

모든 농사는 햇빛과 물의 싸움이라고 그는 들었다. 햇빛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지만 물은 인간이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물을 잘 다룰 줄 알아야 고품질의 좋은 과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관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기본적인 지식과 어떤 자재가 있는지 또 어떤 자재를 선택해야 적절한지를 공부했다. 그때 물 관리 기술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뿐 아니라 지역에서 작목반이 조성될 때 합류해 공동작업 활동도 펼쳤다. 무엇보다 오랜 농사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지만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고, 적기 판단을 놓치지 않은 게 평생 배 농사를 지으면서 큰 실수를 하지 않은 원동력이었다.

한편으로는, 민가에 전해지는 오랜 전통기법도 멀리하지 않았다. 지력을 높이기 위해

유통기간이 지난 막걸리를 배밭에 뿌리고, 배나무 아래 호밀을 심어 조화로운 경관도 만들고 호밀 자체를 유기질퇴비로 활용했다.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수용했다.

가끔은 성공소식을 알리며 승승장구하는 동창들의 모습을 보고 농부의 길을 걸은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애써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자신은 배 농사의 성공이 세상과의 경쟁이고 남들과의 경쟁이라 생각했다. 때문에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막연히 농사만 잘 지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가 전수해준 배 농사의 방법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고품질을 향해 노력했다. 토목공을 내려놓고 부친의 터전으로 내려온 그는 분명 남다른 무엇인가를 남겨야 한다는 강박을 스스로 선택했다. 이 같은 생각과 노력은 결국, 오랜 역사와 명성을 얻고 있는 성환 배가 명품화의 길을 걷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지역에서 '하늘그린 천안연합사업단'이 구성된 것이다. 그동안 안정적인 판로 등을 걱정했던 자신을 비롯한 여러 농가들이 고품질 배 생산에만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늘그린 배는 대형 유통센터뿐 아니라 홈쇼핑, 대학병원 등 출하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고, 까다로운 농산물 검역 규정으로 유명한 미국에 국내 최초로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면서 배 농가들의 긍지로 자리하게 됐다. 성환 지역의 탄탄한 농업기반이 부가가치를 향한 새로운 마인드를 심어놓았기 때문이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천안 성환 지역 배 재배의 시초는 1909년 일본인들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고 한다. 현재 성환 배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신고배는 1929년 일본에서 천지와 금촌주의 교배로 육성된 품종인데 성환 지역에는 1954년부터 재배되기 시작했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곳에 터전을 잡고 배 농사를 지을 때와 맥을 같이 한다.

성환 신고배가 규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59년 배 조합이 설립되고, 1970년부터 충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확대재배가 이루어지면서 나주·울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배 주산지로 자리하게 되었다. 미국을 겨냥해 수출 배 단지를 조성, 1996년부터 본격 수출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유럽으로까지 판로를 넓혀가면서 이제 성환 신고 배는 세

계 으뜸배로 그 명성을 높여 가고 있다.

그는 평범한 농부가 아니고, 아버지가 일군 터전에 발길을 들인 그저 그런 가업의 계승자도 아니다. 일찍이 그는 아버지의 시대와 자신의 시대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자연환경과 기술, 노력, 그리고 정성이 결합한 배 원예의 질서를 만들려고 노력했다. 성환 지역이 나주 배의 명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농가 저마다의 노력과 배원예조합의 체계적인 지원 및 판로 개척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엄격히 말하면, 자연적인 환경 덕분이라고 말한다. 성환의 알맞은 기후와 풍토가 좋은 배를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든 근본이라는 것이다. 타 지역에 비해 강우량 많지 않고 토심이 깊으며 대부분 완만한 경사지이기에 배수가 양호하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면서 일교차가 심해 당도 향상의 최적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환경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배의 특성상 양질의 배가 생산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재배농가들이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한 결과라고 말한다.

| **이영래**(1939년생, 실제는 1937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이화시장

이화시장은 원래 1900년대 초부터 마을 아낙들이 길거리에서 푸성귀나 떡, 옷가지들을 가져와 팔던 곳이었다. 그것이 오일장이 되었고 성환읍 승격과 함께 장옥이 설치되어 일부 점포는 상설판매장이 되었으며, 2014년부터 3년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으로 볼거리까지 갖춘 관광형 시장으로 모습을 바꾸어 만들어진 곳이다.

이화시장이라는 이름을 얻은 것도 이때부터이다. 성환은 배밭이 많아 이른 봄이면 온통 흰 배꽃(이화)이 흐드러지게 핀다. 이화시장상인회 회장을 지낸 터줏대감 이영래는

이곳이 제2의 고향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그가 장옥에 논산상회라는 어엿한 간판을 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50여 년 세월은 이화시장 절반의 역사이기도 하다.

그는 1937년 논산의 한 농촌에서 장남으로 태어났다. 젊은 시절 학업을 마치고 어렵게 취업을 했으나 그 월급으로는 장남으로서 대식구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33세 때 직장을 그만두고 당시 옷 장사를 하던 장돌림 친척 아저씨를 찾아 성환으로 왔다. 이불 보따리로 1,000원짜리 월세부터 시작했다. 아버지는 밀짚모자 만드는 가내공업을 했는데 도움을 청할 형편이 못 되었다.

처음에는 남대문시장에서 헌 옷을 떼다가 장을 돌며 팔았다. 자전거에 옷가지를 산처럼 싣고 자갈길을 달려 장이 서는 곳이면 둔포, 입장, 천안, 평택 가리지 않고 수십 킬로미터를 달렸다. 울퉁불퉁 자갈길이었으나 그 당시에는 도로에 자동차가 거의 없어 다닐 만했다. 이후 사람들 형편이 나아지자 평화시장에서 제작한 새 옷을 아이 옷부터 성인 옷까지 구색 맞춰 떼다 팔았다. 새벽시장을 봐야 해서 밤잠을 설치고 서울 평화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 가서 볼일을 마치고 성환에 오면 점심때가 되었다. 그렇게 6년여를 점포도 없이 말집처럼 기둥에 지붕만 덮인 노점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장사를 했다.

1973년 성환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얼마 안 가 시장에 장옥이 들어섰다. 이때부터 좀 편히 장사할 수 있었다. 임대한 장옥 한 칸에, 논산이 고향이기에 논산상회라 간판을 걸었다. 장사가 더 잘 되었다. 단골이 많았다. 눈썰미 있는 그는 손님마다 각기 다른 취향을 파악하여 옷을 권했다. 몇 가지 옷을 골라 주면 입어보지도 않고 값도 물어보지 않고 받아 가는 단골들이 있을 정도였다.

그 당시는 유명메이커 바람이 불기 전이었기에 시장물건이 잘 팔렸다. 더구나 80년대 중·고등학교 교복 자율화 이후에는 더욱 활기를 띠었다. 손님에게서 받은 돈은 나무 하꾸(궤)에 넣었다가 그날그날 거두었다. 명절 대목장에는 커다란 하꾸에 돈이 꽉 차서 쑤셔 넣어야 겨우 들어갈 정도였다. 덕분에 고향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도 부양할 수 있었다. 그 무렵 살림집도 새로 지었다. 현금 장사라 좋았지만 대신 외상거래가 많았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점포에 찾아왔다. 여기가 어머니의 단골인 줄 안다며 얼마 전에 어머니는 하늘로 가셨다고 했다. 외상값을 갚으러 온 것이다. 그는 외상장부를 떠들어볼 것도 없이 "그만 둬."라며 젊은이를 위로했다. 그렇게 더러는 거저 주기도 하고 깎아주고 덤도 주는 게 재래시장의 인심이었다.

성환장은 1일과 6일에 선다. 장판에는 멀리서 온 외장꾼의 난전도 펼쳐지고 상설 점포도 문을 열고, 귀퉁이 귀퉁이마다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들을 싸들고 나와 펼치기도 했다. 기르던 가축이 새끼 낳으면 토끼, 강아지, 염소 등 가릴 것 없이 안고 나왔다. 어미닭이 품어 깐 병아리들도 삐악거렸다. 우시장도 섰다. 왁자지껄한 시장통에 이따금 호각소리 들리면 "벙!" 하는 굉음과 함께 뻥튀기의 고소한 냄새가 시장 안에 퍼졌다. 꼭 물건을 팔고 사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웃끼리나 친구간, 사돈간에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사발씩 나누곤 했다.

성환의 국밥은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지금도 인근 천안, 평택은 물론 수원이나 서울에서도 장 안날(장 전날)이나 장날을 맞춰 국밥을 먹으러 오는 손님들이 많다. 지금은 블루베리 등 신종 과일에 자리를 빼앗겼지만, 1970년대까지만 해도 성환 개구리참외가 성환장의 대표 과일이기도 했다.

90년대 들어 마트가 생기면서 재래시장인 성환장은 서서히 그 활기를 잃어갔다. 그러던 차 2014년부터 3년여에 걸쳐 새 단장을 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환이화시장 문화관광형시장육성사업단, 천안시, 성환시장상인회 등이 힘을 합쳐 전통시장에 새바람을 불러일으켰다. 그 덕에 문화예술을 접목한 관광형 이화시장으로 거듭났다.

어느덧 그의 나이가 80을 넘었다. 예전보다는 편리해졌지만 그래도 한 달이면 네댓 번씩, 새벽 5시 첫 전철을 타고 올라가 물건을 떼어 용달을 이용해 택배로 보내고 버스나 전철로 정오쯤에나 돌아오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고급 손님은 백화점에 빼앗기고, 시장 손님은 저렴한 중국산에 눈을 돌리니 남대문시장 갈 일도 줄었다. 생각 끝에 점포를 넘겼다. 주위에서는 사랑방이 없어졌다고 아쉬워했다. 어쩌다 길거리에서 단골손님을 만

나면, 왜 장사를 그만 두셨냐는 원망으로 반가움을 표했다. 친정집 같았다는 둥, 쉬어가는 집이었다는 둥 아쉬워했다.

장사를 하다보면 옷을 입어보고는 입은 채로 줄행랑을 치는 사람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사람을 애써 쫓아가지 않았다.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뭐라도 하나 거저 집었다가는 CCTV 부릅뜬 눈에 딱 걸려 경찰서로 잡혀가야 하는 요즘과는 다른 인심이었다. 그는 가게를 접으며 두툼한 외상장부도 함께 없애버렸다. 손주며느리 선보러 간다고 들뜬 마음으로 와서 새 옷을 장만하던 환한 얼굴, 어디 여행 갈 거라며 옷 좀 골라 달라고 채근하던 달뜬 단골손님, 애기 아빠, 애기 아빠 하던 이웃들의 정겨운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도 흐뭇하기만 하다. 이화시장 상인회장으로 상인의 권익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애썼던 일, 성환 5구 정화위원회 위원장으로 봉사하던 일, 성환 조기축구회 회장으로 신났던 일, 성환 상공협의회 회장으로 상인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던 일 등도 어제 일만 같다. 장옥을 기름집에 넘겼지만 이화시장에 대한 그의 사랑은 여전하다. 앞으로 이화시장이 거듭나서 70~80년대 영화를 되찾기 바라고 있다.

| **김성규**(1962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성환 순대국밥

성환 이화시장 '두 번째 집'은 음식을 조리해 파는 집이다. 이 일이 3대에 걸친 생업이지만 간판조차 없다. 두 번째 집이라는 호칭조차도 손님들에 의해 붙여진 상호 아닌 상호이다. 성환 이화시장 한가운데 장옥이 늘어선 끝쯤에 소원배나무를 마주하며 일곱 칸의 포장마차가 이어져 있다. 성환 순대타운이다. 김성규는 그 중에 두 번째 포장마차에서 국밥을 판다.

그의 선대는 경상도에서 살았다. 작은할아버지께서 이곳 성환에 자리를 잡게 되었는

데 일찍 할아버지를 여의고 의탁할 곳을 찾던 아버지도 성환으로 함께 오게 되었다. 전부터 인근에서 도축장에서 나오는 질 좋은 부산물을 눈여겨보았던 작은할머니는 어머니에게 순댓국밥집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어머니는 송탄 순댓국밥집 딸이었다. 그게 1963년의 일이다.

어머니 이원분은 국밥을 잘 말았다. 장날마다 손님이 줄을 섰다. 당시 장에는 수돗물도 전깃불도 없었다. 날이 새기 전에 장에 나가야 했다. 부모님은 이미 장 준비를 마치고 통금 해제 사이렌이 울리기만을 기다렸다. 새벽 4시,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자마자 아들을 앞세워 가게로 갔다.

장에는 이른 새벽부터 우전이 준비되고 있었다. 부모님은 불을 밝히고 가마솥 아궁이에 장작을 지폈다. 그는 꽁꽁 언 발로 찬바람 속을 달려 샘으로 향했다. 어린 그가 할 일은 국밥 장사에 필요한 물을 샘에서 퍼 나르는 일이었다. 얼마쯤 왔다갔다 하다보면 가마솥에서 국밥이 끓고 우전에서 흥정을 마친 거간꾼과 소 주인들이 들어왔다.

그러나 순대를 만들어 국밥을 말아 파는 일은 너무나 힘들었다. 그것을 체험한 그는 순대국밥집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로 무작정 올라갔다. 순대국밥 장사만 아니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운전 일을 배웠다. 별거 아니었다. 운동도 잠시 하고 건설현장에서 막일도 했다. 모두 할 만했다. 동대문시장에서 옷도 떼어다 팔았다. 순댓국 장사보다는 수월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수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그런 터에 가끔 집에 들러보면 연세 드신 부모님은 그의 빈자리까지 채우며 힘들게 국밥 장사를 하셨다.

어느덧 김성규는 29세가 되고 부인 박정옥을 만나 가정을 이뤘다. 그 무렵 국밥집을 피하기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다시 한 번 고민했다. 그리고는 어린시절 그토록 싫어하던 순대국밥집으로 운명처럼 돌아왔다. 여전히 힘든 일이었다. 순대국밥집들이 대부분 순대를 공장에서 받아다 쓰지만, 성환 이화시장에서는 집집이 고유의 비법으로 손수 만들었다. 순대창을 비롯한 부속 고기는 인근 사조산업 도축장에서 그날그날 나오는 부산물을 썼다. 하루 1,500마리에서 2,000마리 정도의 돼지를 처리하는 대형 도축장이기

에 언제나 신선하고 질 좋은 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순대는 소창을 쓰는데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잡내가 날 수 있으니 정성으로 여러 번 세척했다. 순대에 들어가는 소는 그때그때 제철 채소를 썼다. 요즘에는 양파, 호박, 부추, 우거지, 표고버섯 등을 주로 넣는다. 선지는 색을 내기 위한 용도로 조금만 쓴다. 많이 넣을 경우 특유의 누린내가 날 수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그가 강조하는 주재료는 바로 정성이다.

요즘은 편리성을 우선하기에 기계를 사용하는 일이 많다. 순대창에 소를 넣는 일도 기계를 이용하여 후루룩 채우고 만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두 손의 감으로 순대 속을 알맞게 채운다. 바로 정성을 넣는 것이다. 그러자니 공정이 더디고 손이 많이 간다. 이러한 공정들이 매일 진행된다. 순대는 속의 종류와 양을 잘 맞추지 못하면 낭패를 본다. 지금의 맛나고 보기 좋은 순대는 부모님이 수없는 실패를 거듭한 끝에 터득한 결과물이다. 국물을 낼 때도 어머니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한다. 국밥의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후루룩 들이켜는 얼큰하고 개운한 국물 맛에 있다. 느끼하지 않고 산뜻한 맛을 내기 위해 모든 공정에 화학조미료는 넣지 않는다. 신선한 돼지 사골과 부속 고기만을 우려낸 육수에 순대를 삶아 건져내고 거기에 양념하여 밥을 만다. 고기의 감칠맛이 우러나와 여러 채소와 어우러져 담백하고 시원한 국밥이 된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깻가루는 탁자 곳곳에 준비하여 손님이 식성대로 첨가하게 한다. 반찬은 김치, 깍두기와 양념한 새우젓이 전부다. 김치와 깍두기는 미리미리 담아서 숙성시켜 놓고 쓴다. 국밥의 간이 슴슴한 이유는 이 김치 깍두기에 있다. 국밥을 한 수저 떠서 그 위에 잘 익은 깍두기 한 조각을 올려서 한입 깨물면 구수한 순대와 머릿고기가 상큼한 깍두기와 어우러져 그 맛이 일품이다.

명절이면 유독 손님이 많다. 집에 온갖 맛난 음식을 두고도 굳이 국밥집을 찾는다. 단골 중에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분들도 더러 있고 그들의 자손들이 찾는 경우도 많다. 그는 더운 여름날, 손님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국밥을 드시는 모습도, 추운 날 언 몸으로 찾아와 뜨끈한 국밥으로 추위를 녹이는 모습도 보기 좋다고 한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힘이 난다고 한다. 때로는 막걸리 취기를 빌미로 생떼를 부리는 손님도 있다. 어쩌

다 머릿고기에서 나온 뼛조각을 이물질이라 험담을 해대는 손님도 있다. 힘없이 허청허청 살아가는 서민들은 그렇게 국밥집에 대고 화를 푼다. 문턱도 없어 주머니에 만 원 한 장만 있어도 호기롭게 들어설 수 있는 천막집, 국밥 한 그릇에 막걸리라도 한 잔 곁들이다 보면 무의식 안에 쟁여 있던 울분이 그렇게 불쑥 튀어나오나 보다.

한때 '따로국밥'이 유행한 적 있다. 두 번째 집 손님 중에도 밥을 말지 말고 따로 달라는 사람이 간혹 있다. 아홉 집이 모여 성업 중이던 이화시장 순대타운에도 두 집이 포장을 접어야 하는 변화가 있었다. 다행히 2014년부터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이화시장에 새 바람이 불었다. 이화시장이라는 새 이름도 그때 얻었다. '이루어 기쁘다'는 성환이라는 지명을 모티브로 소원배나무와 소원탑 등 조형물을 설치했다. 공예가를 불러 유리 공예 특화거리를 조성했다. 이룸예술공원에서 이들 공예품을 전시하고 각종 문화행사도 열 수 있게 되었다. 먹을거리, 살거리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 느낄 거리를 추가했다. '두 번째 집'은 3대째 이어오는 국밥집이다. 3대인 큰아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 **심재호**(1935년생) **변윤서**(1937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성환문화원

성환문화원은 1963년 설립, 1972년에 청사를 준공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천안시 서북구문화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사업 확장에 따른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다. 이제 새 청사 신축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설립 당시 청사 마련 과정에 함께했던 심재호는 초대 부원장을 했고, 변윤서는 초대 사무국장을 지냈다.

변윤서 성환문화원 초대 사무국장은 고조할아버지 때부터 성환에서 살아온 성환 토

박이이다. 성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천안중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인근의 미군부대에서 영어를 배운 뒤 서울에 있는 경기공업고등학교에 편입했다. 그러나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에는 용산 군부대와 성환 군부대에서 일하다가 부원장 심재호와 뜻을 함께 하였다. 1963년 성환문화원이 임의단체로 설립되어 법원에 등기를 필하는 과정부터 변윤서는 사무국장 상무직으로 합류하였다. 당시 초대 임원은 문화원장 한일성, 부원장 심재호, 변윤서 사무국장이었다. 이후 이들은 길고도 어려웠던 성환문화원 청사 건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 건립의 당위성을 파악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은 마치 한 편의 계몽소설처럼 드라마틱했다. 문화원 설립 당시는 6·25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혼란기였다. 당장 시급한 것은 곯는 배가 아니라 배우지 못한 이들을 계몽시키는 일이었다.

심재호는 대학교 졸업 후 성환에서 가업인 과수원 농사를 지었다. 그 덕에 먹고는 살 수 있었기에 급여가 없는 부원장이라는 봉사직책을 맡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재건학교도 세워서 야간에 학생들을 가르쳤고 반공연맹 지부장으로도 일했다. 남보다 일찍 깨우치고 배웠으니,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거창한 뜻은 아니더라도 후배들을 위해 뭐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때 053부대에서 탄약 출입을 담당하는 일을 하던 변윤서를 사무국장으로 영입하여 함께 일했다. 서른세 살 변윤서는 쌀 두 가마니 정도 살 수 있는 8천 원 봉급을 약속 받았다. 타 지역과 달리 인근 부대의 동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천안군 공보실이나 053부대에서 자동차와 기사가 나오면 영사기와 발전기를 싣고 관할 6개면은 물론 병천 동면까지도 다니며 계몽영화를 상영했다.

그리고 영사기를 가지고 동네 다니며 영화 상영하는 것 외에 민속경연대회, 콩쿠르대회를 매년 개최했다. 추석 행사로 씨름대회를 했는데 그때 현 이종석 서북구문화원 원장이 총각마거리 대회에 출전하여 일등하고 나중에 장사씨름대회에서도 장사를 차지했다. 그의 부친 역시 장사였으며 문화원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콩쿠르대회 행사는 소방회관에서 했다. 당시 소방회관은 극장의 역할도 했다. 씨름대회는 난장이 서는 시장통에서 했는데 가마니만 사고 나머지는 역시 군부대에서 지원받았다.

그는 1963년 5월 10일, 성환문화원을 임의단체로 등록하고 활동을 시작했으나 청사가 없어 어려웠다. 한일성 원장의 자택에서 문화원 업무를 봐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논의 끝에 원사를 짓기로 결정하고 건축비 마련 수익사업을 추진했다. 마침 성환 종축장이 들어오게 되면서 해당 대지의 무연고 분묘를 이장하는 사업이 입찰에 붙여졌다. 문화원은 봉사단체이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었다. 논의 끝에 한일성 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입찰에 응해서 낙찰받았다.

작업은 직원들과 관련자들이 손수 했다. 힘든 일이었긴 해도 누구 하나 불만 없는 신명나는 고생이었다. 당시 대전공설운동장을 조성하면서도 무연고 분묘 이장 사업이 있었다. 그런데 이장을 소홀히 하여 운동장 건설 당시 공사장에서 뼈가 나오는 등 변고의 소문이 들려왔다. 그 일이 반면교사가 되어 더욱 정성을 들여 사업을 했다. 더구나 문화사업을 위해 하는 일이니(개인명의 사업이었지만 실은 성환문화원사 건립을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었고, 세 단체가 함께 일했다) 정성을 다해 빈틈없이 하자고 다짐했다. 당시 번영회장 갈종철은 일처리를 아주 세밀히 하는 사람이었다. 분묘를 이장할 때 일단 사진을 찍어 기초자료를 만들고 묘지마다 번호를 매겨서 이동 경로를 따라 위치를 빠짐없이 적고 그림지도까지 첨부하여 관리했다. 밤을 새우는 건 흔한 일이었다. 변윤서는 오토바이를 몰고 현장을 누비며 동분서주했다. 젊은 패기에 타고난 활동적인 성품이 더해서 탁월한 추진력을 발휘했다. 그렇게 삼천칠팔백여 기의 분묘가 무난히 이장되었다. 수익금이 꽤 되었다. 문화원사 건립의 종잣돈이 마련되었다.

그렇게 정말 힘들게 모은 종자돈으로 대지 50여 평의 낡은 함석집을 한 채 샀다. 터는 넓지 않았지만, 위치는 성환의 요지였다. 국도변에, 성환역을 바라보며 차부와 읍사무소, 우체국, 지서 등을 이웃하는 성환의 중심지였다.

그곳에서 잠시 문화원 사무를 보았다. 건물은 제대로 지어보자는 게 모두의 다짐이었다. 그런데 공사비가 문제였다. 처음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설계비였다. 설계비는 예산에도 없던 항목이었다. 기금마련을 위해 시공간을 가리지 않고 더 뛰어야 했다. 그는 이때의 일을 '구걸'이라고 회상하며 웃었다. 한국화약 김종철 국회의원이 국방분과위원장으

로 있을 때 전후복구비 명목으로 국비를 100만 원인가 보조해 주었다. 마침 입장 사람인 민유동이 충남도지사로 오게 되어, 쫓아가서 100만 원이라는 거금의 건립기금을 또 받아왔다. 그렇게 되니 시군의 보조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다.

서울에 사는 출향인사들을 파악하여 일일이 편지를 올리고 찾아다니며 호소했다. 그래도 턱없이 부족했다. 한일성 원장이 인근 미군부대 캠퍼 사령관에게 찾아가 사정을 전하고 고물로 돈이 될 만한 물자의 지원을 받기도 했다. 회원들과 청사 건축에 관여했던 대부분의 사람에게서도 과분한 성금을 받았다. 종잣돈 마련 당시 고생은 둘째 치더라도 분묘이장 사업 시 시신을 다루는 일이 유쾌하지는 않았을 터라서 그때의 심정을 묻자 두 구술자는 여전히 좋아서 한 일이라며 빙그레 웃었다.

우여곡절 끝에 3년여에 걸친 공사가 끝났다. 대지 184.8㎡ 건평 275.88㎡의 슬래브 청사였다. 1972년 10월 28일 청사 앞에서 낙성식을 하는 날, 민유동 도지사를 비롯하여 천안군수, 천안경찰서장 등 애써 주신 인사들을 모두 초청했다. 그때도 053부대의 지원을 받아 식장 무대를 설치했다. 포장까지 쳐 햇빛을 가리고 나니 그럴싸했다. 무대에는 각계 인사들이 올라가 앉고 앞에는 지역민들이 빼곡히 들어찼다. 행사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무대가 "뿌지직, 쿵!" 하고 아래로 주저앉았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심재호 부원장과 변윤서 사무국장은 47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도 얼굴을 붉히며 '어디 구녁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만 싶었다'고 그 상황을 회고했다.

심재호 부원장은 성환문화원사 건립 비사를 기억해내면서 문화원은 시민들의 정신적인 면을 교화·정화하며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공간이므로 문화원 설립에 참여한 것은 차원 높은 결단이었다고 자부한다.

이제 성환문화원은 명칭도 천안시서북구문화원으로 바뀌고 오래된 청사도 이전신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두 분은 남다른 감회에 젖는다. 그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심재호 초대 부원장은, 현 이종석 원장의 계획대로 청사 건립이 잘 이루어져서 서북구민들이 원하고 만족하는 문화 창달의 장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강창환**(1951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진주집

진주집은 강창환의 어머니 이규희(1924년생)가 해방 전부터 경영하던 음식점이다. 성환 지족향(현재 수향1구)에서 농사를 짓다가 장날이면 성환장에 농산물을 내다 팔았다. 주로 쌀을 내어 일용품을 마련하였다. 어머니가 거래하던 곳은 성환극장 자리에 있던 싸전이었다. 장터를 자주 왕래하시던 어머니도 어느 날부터 싸전 근처에서 음식을 팔기 시작했다. 천막을 친 간이음식점이었다. 아버지는 진주강씨로 진주 분이었기에 옥호는 자연스럽게 진주집이 되었다. 주로 막걸리와 돼지고기를 연탄불에 구워 팔았다. 평소

에는 손님이 없어 장날에만 장꾼을 대상으로 밥장사를 했다.

진주집 음식은 맛있기도 하거니와 당시에는 식당이 거의 없었기에 장사가 잘되었다. 그래서 20여 미터 떨어진 지금의 장소에 한옥 건물을 매입하여 진주식당으로 간판을 걸었다. 그때가 1939년이었다.

장사는 성업이었으나 아픔도 있었다. 그의 나이 겨우 여덟 살에 아버지를 여의게 되는 어려움이 찾아왔다. 홀로 3남 3녀의 자녀를 키우고 가르쳐야 하는 어머니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사에 더욱 매진할 수밖에 없었다. 전화위복이 된 셈이었다. 어머니는 이때부터 주위에서 여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손질된 고기를 정육점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었다. 갈비를 짝으로 들여와서는 어머니가 직접 도끼로 먹기 좋게 일일이 쪼갰다. 그리고는 성환의 달콤한 배를 갈아 넣어 갈비 양념을 만들었다. 커다란 대야에 고기를 가득 재워놓고 손님이 오면 연탄불에 구워 먹게 했다. 손님이 얼마나 많았는지 고기 구울 때 사용한 나무젓가락을 따로 모아 밥 짓는 땔감으로 사용할 정도였다.

당시 어머니는 세 자녀를 한꺼번에 서울로 유학을 보냈다. 어머니의 덕으로 서울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다니던 중 입영 시기가 되어 휴학을 하고 입대를 하였다. 이때가 삶에서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진주식당의 2대 전수자이자 아내인 한화순을 만났기 때문이다.

결혼하여 성환에 정착한 부부는 진주식당에서 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갈비 기술을 배웠다. 기술을 익히는 데만 4~5년이 걸렸다. 1978년에는 식당 등록을 하고 1981년에 집을 새로 지었다. 그때부터 수제 돈가스를 개발하여 메뉴에 추가했다. 돼지 고추장불고기도 인기 메뉴였다. 이때는 장손님뿐 아니라 인근 면사무소 직원, 군부대 종사자까지 단골이 되었다. 그는 그때 어머니의 깍두기가 특히 인기였다고 한다.

2012년에는 중앙일보에서 '시어머니 손맛 대 이어 79년'이라는 제목으로 진주식당을 보도했다. 한식 맛집이라는 주제로 SBS, KBS 등의 방송을 타기도 했다.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100년 전통을 이어갈 성장 잠재력이 있는 30년 이상 된 매장에 주는 '100년 가게' 칭호를 얻었다. 한국관광공사에서는 2019년에 이

곳이 천안에서 가장 오래된 음식점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는 한옥이던 진주식당을 개축하여 지금의 현대식 4층 건물에 진주회관이라는 간판을 새로 걸었다.

1대인 어머니는 어느덧 연세가 96세, 이제는 2대인 며느리 한화순이 주축이고 3대인 딸도 건물의 한 층을 맡아 운영 중이다. 여러 여건으로 예전처럼 연탄불에 갈비를 굽지는 못한다. 대신 진주불고기와 고추장 불고기를 가스 불을 이용해 불판에 구워낸다. 직접 재배한 우거지로 끓인 우거지갈비탕은 소문이 나서 여러 번 방송을 타기도 했다. 또한 쇠고기를 이용한 담백한 진주불고기와 왕돈가스도 손님들이 자주 찾는 진주회관의 대표메뉴기 되었다.

그는 진주갈비 2대 전수자인 아내를 서울깍쟁이라 한다. 깍쟁이는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을 뜻하지만, 구술자는 달리 해석한다. 다른 데 한눈팔지 않고 오로지 가게 일에 충실하며 자식교육과 남편 뒷바라지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실한 아내를 칭찬하는 반어적 표현이다. 오늘의 진주회관이 있기까지 음식 만드는 일을 도맡아 하며 진주식당의 핵심기술을 전수한 사람도 아내이며, 이 집의 자랑거리인 왕돈가스의 도비 소스를 개발한 사람도 아내라는 말로 칭찬을 이었다.

그는 음식업이 하향 추세라고 전망한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장하는 것은 보류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며 진주집의 전통을 이어가려 한다. 현재 아내와 딸이 각 층을 맡아 운영하고 있으며 4대 전수자가 될 두 손주는 대학교에서 음식 관련학을 공부하는 중이다. 그는 식당 주인으로서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마련한 음식을 팔아야 한다고 말한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듯 반갑게 인사하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손님이 잡숫고 또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주회관 입구에는 상시 태극기가 펄럭인다. 그의 남다른 애향심과 애국심 때문이다. 그는 결혼하던 이듬해인 1975년부터 성환의용소방대원으로 입대하여 의용소방대장까지 지냈다. 당시 소방서 성환파출소에 근무자라고는 기사 두 명뿐이었다. 반면 의용소방대원은 40여 명으로 그들은 일상 어느 때나 사이렌만 울리면 출동하여 소방업무에 임했다. 그도 식당에서 불고기를 굽다가 달려 나가 불을 꺼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

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전국 소방왕 대상'을 수상하였다.

2대에 걸친 천안시의원으로 총무분과에서 의정활동도 펼쳤다. 13년 동안 한국요식업중앙회 천안시 지부장을 맡아 음식업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기도 했다. 현재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천안시지부 부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의 지역 사랑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아들에게 지역의 남서울대학교에 진학하길 권유했으며 손자와 외손녀에게도 같은 대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권유하여 현재 일가족 3명이 성환 소재 남서울대학교의 동문이다.

그의 애향심은 끝이 없다. 성환의 낙농 인구가 감소하는 것, 성환 특산물인 배 농업이 조금씩 위축되어 가는 것에 대해 염려가 크다. 또한 종축장과 군부대에 막혀 발전이 늦은 것에 대해도 아쉬움이 많다. 다행히 종축장이 이전 결정되고 넓은 터에 새로운 성장 동력의 축이 될 첨단산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는 기대감으로 가득하다.

| **황서규**(1936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향토연구

성주황씨 참판공파 13대손인 1936년생 황서규는 평생을 2세 교육과 향토사 연구에 헌신한 사람이다. 고향은 직산의 마정리 가장 안쪽의 막다른 마을이어서 산을 넘으면 아산 땅이었다. 용이 누워있는 모습이라고 해서 용와산인데 용굴이 쌍으로 뚫려 있었다. 그 굴이 서해 바다까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끝까지 가보고 싶은 모험심이 발동하기도 했었다. 그는 9세에 직산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했다. 중학교는 천안시내에 있는 공업중학교를 선택했는데 현재 북중학교로 바뀌었다. 고등학교는 이웃 학교인 공업고등학교

로 진학하였고,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은 7남매를 공부시키기가 힘겨우셨고, 형제들은 모두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이어가느라 고생을 감수해야 했다. 그는 서울문리사범대학 사회과를 나와 교직에 종사하게 되었다. 황세득 장군의 후손이라는 자긍심과 부모님의 성실함이 어우러진 가풍의 영향으로 근면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모범 교사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의 사회생활의 시작은 교육행정직이었다. 지금은 교육청이지만, 당시는 교육위원회였다. 서울교육위원회 관리국 재무과에 잠시 근무하다가, 방학의 매력에 이끌려 경기도 교원임용고시에 응시하였다. 방학의 매력이라 함은 쉴 수 있다는 점이 아니라, 그 기간을 활용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평택 오성초등학교로 첫 발령을 받았는데, 당시 초등학교는 교육행정직이 없어서 교사 중에 수업이 적은 저학년 담임교사가 회계 업무를 맡아야 하는 것이 애로점이었다. 학교 옆에 사립중학교가 있었다. 중학교로 가면 애로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다시 기회를 엿보던 중에 고향에서 가까운 동성중학교로 옮겼다.

48년 전의 일이다. 당시 시골의 사립중학교는 재정 형편도 열악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기피해서 학생 배정을 거의 받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이었다. 진학을 포기했던 학생들을 찾아서 추가 모집을 했지만 가난한 학생들이 대부분이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직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었다. 일요일도 없고 방학도 없었다. 밤 9시까지 특별 보충 수업을 진행하는 총력전을 이어갔다. 노력의 결실은 바로 나타났다. 가까운 평택의 평택동고에서 장학생을 한 학급 모집하는데, 1위부터 3위까지를 석권하고, 무려 7명이 장학생으로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교육청에서 깜짝 놀라 실사를 나왔다. 학교에서 노력한 과정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 결과 학교의 위상이 높아졌다. 큰 성취감을 맛보는 즐거움은 있었으나 교무부장의 업무를 벗어나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가 다음에 한 일은 '연중 꽃피는 학교'를 가꾸는 일이었다. 물을 주기 위해 일요일이나 방학 때도 학교에 나가야 했다. 평생을 정성껏 가꾼 학교이기에 1999년 8월에 퇴임

하고도 가끔 들러 전지작업을 비롯한 조언을 하곤 했더니, 조금만 뜸해도 왜 안 오느냐고 전화가 걸려오곤 하였다. 아쉬운 것은 부임하고 바로 교무부장을 맡는 바람에 담임을 거의 할 수 없었던 점이다. 학생들은 담임교사를 스승으로 기억하게 마련이다. 담임을 맡아야 사제의 정을 나눌 기회도 더 갖는 것인데, 어려운 교무부장을 모두가 기피해서 좀처럼 그 짐을 벗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가 되었다. 제자들이 은사 대접을 할 때마다 더 느끼게 되는 아쉬움이다.

1996년 10월 하순의 어느 날, 총동창회 황광원 회장의 전화를 받았다. 내일 교내 체육대회에서 회갑상을 차려드리겠다는 뜻밖의 이야기였다. 늦었지만, 총동창회의 결정사항이니 꾸짖지 마시고 받아달라는 간청이었다. 다음날 오전 행사가 끝나고, 졸업생들이 준비한 잔칫상이 단상에 차려졌다. 100여 명의 졸업생들이 만수무강을 기원한다며 큰절을 올렸고, 많은 선물은 물론 순금으로 제작한 학교 뱃지가 박힌 감사패도 받았다. 더욱 감격한 것은 제자 강석수로부터 받은 제주도 여행권 선물이었다. 지금은 모두들 쉽게 다녀오는 제주도지만,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난생 처음 다녀온 제주도여서 그것이 특별했다.

그는 1999년 8월, 정년퇴임을 했다. 학교 측에서 퇴임식을 준비한다고 했지만 고사하고 아침 전체조회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교문을 나섰다. 며칠 후, 시내에 '황서규 선생님 정년퇴임식'이라는 현수막이 걸린 걸 보았다. 이번에는 당황스런 마음과 부끄러움이 더 컸다. 8월 29일, 어쩔 수 없이 아내와 함께 퇴임식에 참석하였다. 졸업생들이 많이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인사들까지 초청한 분에 넘치는 성대한 퇴임식이어서 감동을 받았다. 이번에도 많은 선물과 함께 순금으로 제작한 감사패를 받았다. 제자 조원기는 3박 4일 금강산 여행권을 선물하여 잊을 수 없는 멋진 퇴임을 기념하는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

그가 학교에 근무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은 향토반을 운영하며 학생들과 문화유적 답사를 다닌 일이었다. 덕분에 향토사 연구를 지속할 수 있었고,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많은 성과도 얻었다. 향토사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6년에 지역총람지에 고향 마

을에 대한 소개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을 읽고 나서였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책에 수록한 것이 마냥 신기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연구 활동을 한 계기는 천원군지에 실린 황세득 장군과 그의 아들인 황박 장군에 대한 글을 읽고서였다. 글을 집필한 민병달을 찾아가 자신을 소개하고 두 분이 직계 조상이라고 밝혔다. 매우 반가워하며 역사학도로서 훌륭한 조상의 업적을 밝히는 보람찬 일을 해 보라고 적극 권유하였다. 이후 천안향토사연구회에도 참여하며 연구 활동은 지속되었고, 많은 발굴 작업과 왕성한 저술 활동을 했다.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소개할 수도 없거니와 중요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위례성 발굴, 천안거북놀이의 재현, 광덕사 소장 자료 문화재 지정, 직산의 오충신 업적 발굴 등이다.

1972년 교수 강전섭이 제보하여, 대전일보 1면에 대서특필된 기사가 실렸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로 시작하는 ‘한산도가’는 이순신 장군의 작품이 아니라, 황세득 장군의 작품이 확실하다는 자료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그 자료를 가장 먼저 찾아낸 이가 바로 황서규다.

| **정창순**(1939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시인 농사꾼

정창순은 어린 나이에 부모 이혼으로 조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성장하였다. 아버지는 재혼과 함께 따로 살았고, 손주를 딱하게 여기신 조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다. 때문에 부모의 부재를 크게 느끼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성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천안중학교에 진학하였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버지와 함께 산 것도 잠시, 졸업을 앞둔 1월에 아버지 상여가 나가던 날에 제적통지서를 받았다. 아버지의 병환과

더불어 어수선해진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못하게 된 절망감으로 장기결석을 한 탓이었다.

배 농사를 돕다가 군대를 다녀오고, 다시 배 농사에 매달렸다. 배 재배에 관련한 교육을 받던 중에, 부여에 있는 고모 댁에 갔다가 역시 친척 집에 다니러 온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했다. 내종형을 졸라 그 아가씨를 다시 만나고 27세의 나이에 결혼까지 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소설가의 꿈을 안고 상경했다. 갖고 올라간 돈은 쉽게 줄어들었고, 어쩔 수 없이 건설 현장에 뛰어들었으나 적응이 쉽지 않았다. 오히려 과수원 일이 쉽게 느껴졌다. 서울 생활을 접고 낙향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곽학송 소설을 읽고 그를 존경해서 찾아가곤 했는데, 월세를 내지 못해서 그가 쫓겨나는 모습을 목격한 것이었다. 꽤 유명한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모습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당시만 해도 농사만 잘 지으면 배 가격이 좋았고 판로 걱정이 없었기에 낙향을 결심하였다.

즐거울 수 없는 낙향이었는데 서울 생활에 실패한 그를 비아냥대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것이 약이 되었다. 당시 뱃값은 좋았다. 그는 열심히 노력해서 배 재배의 최고 기술자가 되고 싶었다. 10년 뒤에 누가 더 잘 사나 보자는 오기가 발동한 것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을 두문불출, 배 농사에 전념하여 성공할 수 있었다. 배 농사 선배의 이런 조언도 도움이 되었다. "배나무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배 농사에 성공할 수 있다. 놀아도 배나무 밑에서 놀아라!" 그 말을 명심해서 참으로 열심히 배나무를 가꾸었다. 봄에 꽃이 잘 피어야 풍년을 기약할 수 있기에, 꽃이 필 무렵이면 그는 초긴장 상태로 살았다. 배나무는 날씨와 시기별 강우 상황에 민감해서 기상 정보에도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정성을 다해 가꾸어 왔기에, 그 350주의 배나무들은 지금도 차례대로 한 그루 한 그루를 생긴 모양 그대로를 자세하게 그릴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배 과수원의 틀이 잡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이루게 되자 젊은 시절의 꿈이 되살아났다. 바로 문학이었다. 바쁜 농사일에 시를 쓰는 것은 쉽지 않았으리라는 짐작인데, 의외로 대답은 아주 쉬웠다. "배 농사짓는 일이 바로 시 짓는 일이고, 바람에 흔들리며 잎

새가 내는 소리는 시를 낭송하는 소리로 들렸다."는 것이다.

배나무나 배꽃을 소재로 한 시를 찾아보았다. 농사짓는 시인은 더러 있지만, 평생 배농사만 지으며 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창작 욕구를 느끼게 되었고, 그는 배 농사짓는 유일한 시인이라는 작은 자부심도 갖게 되었다. 사실 그가 문학과 인연을 맺은 것은 이전에, 계간지 《한농》의 문예작품 현상공모에 응모해서 수필부문에 영예의 당선을 차지한 일이었다. 시를 열심히 쓰고 싶은 욕심에 처음 찾아간 곳은 위례문학회였다. 그를 계기로 조묘순 회원의 권유에 따라 한국문인협회 천안지부에 가입하게 되었고, 월간 《시문학》의 추천으로 시인으로 등단하게 되었다. 시작 활동에 정진하여 2014년에는 시집 『백합을 위하여』를 펴냈다. 한편 그는 수필에도 매력을 느끼게 되면서, 2000년 천안수필문학회 창립회원으로 참가하여 모임에 빠지지 않고, 수필 창작에도 열의를 보여 왔다.

수필에 매력을 느낀 것은 수필이 자기 고백의 문학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속마음을 알리기 좋은 장르라는 점이다. 수필문학회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다녀오는 문학기행은 문우들과 다정한 정을 나누는 좋은 자리였고, 수필을 더 열심히 쓰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했다고 한다. 글을 쓰고 나면 가장 먼저 아내에게 보이는데 옆에서 글을 읽고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은 너무나 큰 행복이다. 그래서 그의 첫 수필집 제목도 『아내의 미소』이다. 진솔한 시골 농부의 이야기가 반응이 좋아서, 얼마 전에 출판사 '온북스'를 통해 편집을 다시 한 『아내의 미소』를 재출간하였다. 그에게 글을 쓰게 한 동력은 아내였다. 바쁜 배 농장을 경영하려면 밤낮이 없이 일에 매달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느라 시간을 빼앗기는 만큼 배우자의 일은 더 늘어났겠지만 짜증 한 번 내지 않았다 한다. 그의 창작 활동에 대한 절대 후원자는 아내였던 셈이다.

그의 수필집은 대부분 소박한 시골 생활과 농사짓는 이야기다. 먼저 펴낸 책에는 서울생활의 애환을 담은 1969년의 일기도 실려 있고 크게 고생한 경험이 들어 있다. 그의 진면목이 엿보이는 부분은 마음고생 속에서 우러나오는 가족애였다. 돈이 없어서 어린 아들 딸에게 맛있는 걸 사주지 못하는 심정을 토로한 대목은 가슴이 시큰하다. 그렇게 키

운 4남매, 특히 두 딸은 이제 아내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효녀가 된 점이 큰 자랑거리다.

배를 수확하는 가을에 찾아오는 손님에게는 들고 가기 힘들 만큼의 배를 챙겨준다. 미안스러워 하는 후배들에게 "미세한 흠집으로 오래 두면 상할 수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먹는 데는 지장이 없다."면서 팔기 어려운 것들이니 부담 없이 가져가라 안겨주곤 한다.

예전에 손님이 찾아가면 그의 아내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반갑게 맞아주곤 하였다. 그것은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남편의 문단 후배들을 정성껏 대접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런 아내가 어느 날 하늘로 갔다. 그는 가족끼리만 조촐하게 장례를 치렀다. "그저 정신이 하나도 없는 망연자실 상태이어서, 가까운 친척에게만 알렸다."는 이야기로 그때의 심경을 보여줄 뿐이었다. 이미 1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는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며 매주 한두 번씩 공원묘원을 찾곤 한다.

| **김영실**(1960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



국악인의 길

김영실은 증조부 때 천안에 정착한 토박이이다. 아버지 김동렬과 어머니 박을분 사이에서 3남 2녀 중 넷째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입장 양대리의 금광에 근무하였고, 금광이 폐광된 후에는 이모부의 소개로 영산강댐 건설 현장에서 일한 덕분으로 경제 사정은 비교적 넉넉하였다.

그녀가 출생한 곳은 문암리 저수지 근처였다. 예전의 예비군 교육장이 있었던 마을이다. 당시만 해도 시내버스도 이용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다. 안서초등학교는 물론 신안초

등학교도 없던 시절이어서 천안초등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어린이 걸음으로 한 시간도 훌쩍 넘는 거리여서 그녀는 학교 다니기가 매우 힘들었다. 다행히 4학년부터는 새로 지어진 신안초등학교로 옮기게 되어 덜 힘들었다. 신안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다. 동창회장으로 추대를 받아 4년간 봉사했는데, 천안지역의 초등학교에서는 최초의 여성 동창회장이라는 말을 들었다.

산골짜기에서 자란 것도 아니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였으며, 동창회장까지 역임했지만 중학교 진학을 하지는 못하였다. 형제가 모두 최고학부를 나왔고, 가족 모두가 늦게라도 진학하길 적극 권했음에도 고집을 부렸었다. 어린 나이에 철이 없어서 공부가 싫었다고 하면서도, 그녀는 아쉬워한다. 노래, 그 중에서도 창을 좋아해서 국악인의 길을 걷고 싶어 했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국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부모님의 허락은 얻을 수 없었다. 나이 차가 많아서 결혼한 언니가 서울에 살고 있었다. 언니를 따르던 그녀에게 서울로 가서 학교에 다니라고 권했다. 서울 생활을 하면서도 진학은 하지 않았고, 몇 개월 있다 보니, 어머니 품이 그리워 천안으로 내려왔다. 잠시 농사를 돕다 취직한 곳이 남영나일론이었다. 공장 일은 쉽게 적응하여 열심히 한 결과 일찍 작업반장의 자리에 올랐고, 10년 정도 근무하였다.

그녀는 중매로 한 살 위인 남편을 만나 24세에 결혼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을 풀고 싶었던지 자녀들의 뒷받침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학교의 학부모회장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네 자녀가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여 교사로 사업가로 잘 살고 있으니, 멋지게 한풀이를 한 셈이다.

그녀는 미래의 일을 추측할 수가 없다. 국악인 김영실이 중학교에 진학했더라면,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어쩌면 오늘의 '국악인 김영실'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경제적인 면이나 자녀교육 면으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 그가 중학교에 진학했다고 해서 이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리라는 보장도 물론 없다. 이런 김영실을 지켜보며 더없이 흐뭇함을 느끼는 사람은 물론 가족이다. 중학교 진학마저 마다하고 공장에 취직한 그녀는 부모님께 아픈 손가락이었고, 형제들에겐 안타까움의 대

상이었다.

사업수완이 출중한 남편의 사업은 탄탄대로였다고 한다. 으레 성공한 사업가도 대부분 젊은 시절에 고생을 하곤 했다는데, 건설 경기가 붐을 이루었던 시기의 스티로폼 사업은 대박이 났다. 이어서 양돈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다 지금은 두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그 후 양돈 사업으로 눈을 돌렸는데, 그것 또한 대성공이었다. 아산시와 예산군 두 곳에서 대규모로 양돈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양돈을 위한 돈사(豚舍)를 세우는데, 의외로 스티로폼이 많이 소요되는데 따른 선택이었다. 남편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재주도 뛰어나서 양돈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편리한 기계 기구를 만들어 특허를 낸 것도 여러 건이나 된다고 한다.

결혼하고 1년도 되지 않은 어느 날 남편이 말을 꺼냈다. 사업은 많이 도와주지 않아도 좋으니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라는 것이었다. 물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 이어졌다. 순간 그는 어린시절의 꿈이 되살아났다. 경기민요를 배워서 명창이 되는 꿈, 바로 그것이었다. 바로 경기민요를 배울 수 있는 스승을 찾아 나섰고, 선생인 김수미를 만나 바로 경기민요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밝고 통통 튀며 경쾌한 리듬이어서 배우는 일에 신이 났다. 그가 가장 즐기는 노랫가락은 '청산리 벽계수'라고 한다. 물론 명창이 되는 길이 그녀에게 쉽진 않았다. 초기에는 진도가 나아가는 듯이 느껴졌지만, 굴곡이 있었고 슬럼프도 찾아왔다. 스승이 채편으로 등짝을 내리칠 때는 눈물이 쏙 빠졌다. 갈 길이 아득하게 느껴질 때는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 울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였다.

"그렇게 힘이 들면 조금 쉬었다 하면 되지."

부군의 말대로 조금 쉬다가 선배 명창들이 득음을 위해 피를 토하는 많은 연습을 했다는 말을 상기하며 다시 마음을 다잡곤 하였다. 그렇게 고비를 넘기고 슬럼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 곳은 성거산이었다. 천주교 성지로 오르는 곳에 좋은 정자가 있다. 그곳에서 천흥사 쪽을 내려다보며 맹연습을 했다. 흐린 날은 발아래로 산허리를 휘감은 구름이 절경이어서 큰 위안을 주기도 했다. 영화나 TV에서 보면 명창들이 폭포수 아래를 찾아가는 모습이 나오곤 하는데, 습도가 높아서 목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고 울림

이 있어서 좋았다.

서도창에도 매력을 느끼고, 서도선소리산타령보존회(사단법인) 회장 이병기를 찾아가게 되었다. 천안에서 인천 부평을 찾아가는 길은 서울보다도 더 먼 길이었다. 그녀의 집념은 그 먼 길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도 사사를 위해서는 자주 찾아가야 했지만, 송서율창을 배우는 재미로 어려운 줄 몰랐다.

그녀는 천안거북놀이보존회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전에 황서규 선생님이 구술하신 내용이다. 문화원 발굴사업으로 채택되어, 병천고등학교 학생들에 의해 재현되었다던 그 거북놀이이다. 공식 명칭은 천안거북놀이보존회이지만, 이 지역에서는 '성환거북놀이'라고 부르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진학 내용에 따라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기 위해 발상지의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보존회가 만들어져서, 매년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 **정재택**(1951년생)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



진정한 향토인

정재택(69)은 군 제대 후, 일반 사회로의 진로를 접고 고향으로 귀향, 열악한 환경의 농촌과 근대화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변화를 위해 청운의 꿈을 다짐했다. 그는 4H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농촌계몽과 농촌근대화의 첨병이었던 4H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이 그를 신명으로 이끌었다. 이른 나이에 회장을 맡아 청년지도자로 인정도 받았다. 그런가 하면 당시 불길처럼 솟아오르던 새마을운동에 심취, 성환 지역 새마을협의회를 시작으로 천원군, 천안시, 충청남도 협의회장을 차례로 맡으면서 평소 지녔던 신념과

의지를 마음껏 펼쳐냈다.

1995년 천안시와 천안군의 통합은 진통을 거듭했다. 찬반으로 나뉜 지역사회 여론은 갈등과 반목의 연속이었다. 이때 부위원장을 맡아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뛰었다. 긴 안목으로 천안을 바라보자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결국 통합이 이뤄지면서 그는 성취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다.

또 천안의 오랜 숙원으로 자리한 국립종축장 이전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발 벗고 나섰다. 그는 국립종축장 이전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장을 맡았다. 관계 요로 및 지역민들의 이해를 확보하기 위해 뛰었다.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뛰었다, 그러기를 24년 결국 2019년 2월, 정부는 전남 함평으로 종축장을 이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쾌거였다. 천안북부지역, 특히 성환 발전의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이렇게 그는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일마다 몸을 던졌다. 그것은 마치 자신에게 숙명과도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후 2기 광역의회 선거에서 그는 충남도의원으로 당당히 선출됐다. 열정으로 의회활동을 펼쳤다. 그것이 결국 그를 정치 일선으로 나서게 된 동인이 되었고, 그 후 그는 20여 년 넘게 정치활동을 전개했다. 17대 총선 실패에서부터 줄곧 뜻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정치적 성취를 이루지 못한다면 자신의 뜻을 살피는 사람을 통해 뜻을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움직였다. 정치 곳곳에서 그의 역량을 끌어다 쓰는 일들이 생겨났고, 2016년에는 충남교통연수원 원장으로 활동하는 기회도 얻었다.

1990년대 이전 천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개구리참외를 아느냐'고 묻는다면 십중팔구 '그렇다' 할 것이다. 1920년대 천안에 살던 일본인에 의해 개량된 '성환 개구리참외'. 껍질의 무늬가 마치 개구리 같다 하여 '개구리참외'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개구리참외는 1926년부터 1970년대까지 그 이름을 떨쳤다. 일제강점기 성환목장주 일본인 카호시데쓰마[赤成鐵馬]가 우리 재래종과 일본종을 교배시켜 개량한 것이다.

정재택은 성환 개구리참외는 참외의 절반을 가르면 붉은빛을 띠는 참외속이 특유의

향기를 풍기는데 그 은은한 풍미를 요즈음 흔한 '일반참외'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를 회상한다. 크기는 일반 참외의 두 배 정도로, 큰 것은 3kg에 달하는 것도 있으며 특히 수분이 많아 시원하며 입에 넣으면 씹지 않아도 녹는 기분을 주고 독특한 향기가 기억으로 남았단다. 다만, 표피가 얇아 운반할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했었다고 말한다. 많은 인기가 있던 개구리참외는 재배와 유통의 어려움 때문에 공급량이 줄면서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되었다.

토종 성환참외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은천(銀泉)참외가 주류를 이루는 요즘, 성환 개구리참외의 옛 명성을 잊지 못하는 정관용(정재택 7촌 재당숙)은 매주리에서 3대째 개구리참외를 가꾸어 오는 농부이다. 그에 의해 보존되어 비닐하우스 시설재배와 재배 기술 개발돼 원형을 되찾게 됐다. 품종 복원과 유통에 나선 천안시농업기술센터와 천안배원예농협 덕분에 지난해 총 4톤가량의 개구리참외가 마트에 진열됐다. 그는 성환 특산물의 명맥이 되살아났다고 본다. 참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한다.

농촌마을인 성환에서 태어나 평생을 고향과 함께 자리해온 정재택은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볼 때 3가지 회한이 남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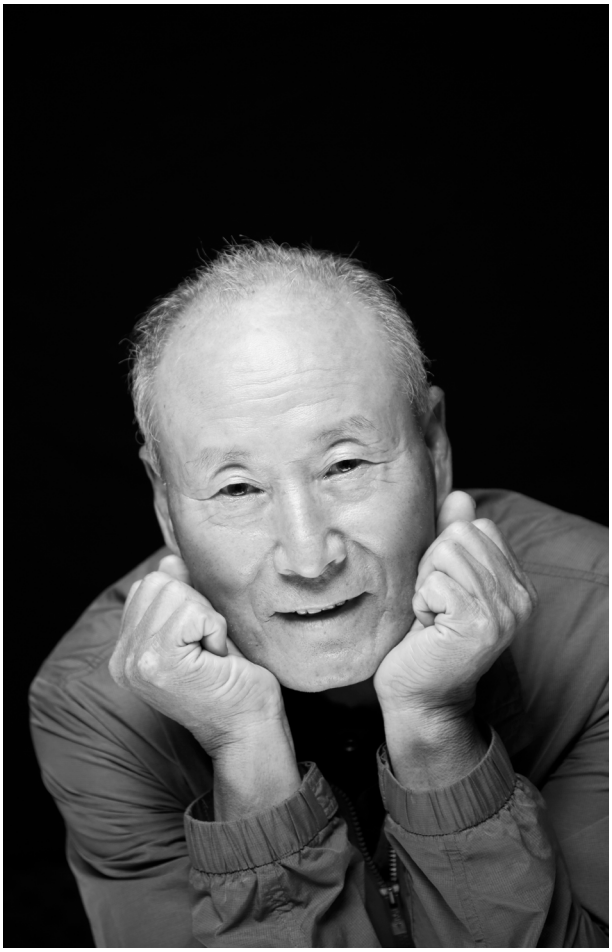
하나는, 요즘 농촌사람들, 상록수정신, 유토피아 정신, 순수한 열정이 없단다. 다시 그 정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또 하나는 새마을정신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한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 민족혼을 불러일으킬 동인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한 요인이 없다며 안타까워한다. 세 번째는 철인(哲人)정신이 있어야 한단다. 플라톤이 말한 철인정신, 사유의 정신이 농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모두에게 유익한 공익을 향한 협동정신의 필요성과 함께 지역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한다.

"국립 종축원의 이전을 끌어낸 것은 초당적인 협력이었다. 우리 지역사회도 그러해야 한다. 정파와 이해와 이념을 초월해 지역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는 우리 고장 성환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자신 또한 남은 여력 다하겠다고 한다. 진정 향토인으로 기억될 성환 지킴이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공주시

| **유왕종**(1947년생) 공주시 의당면 요룡1리 |

공주 축원소리와 의당집터다지기



유왕종은 1947년생으로 아버지 유재학과 어머니 이봉희 사이에서 2남 1녀 중 차남으로 출생했다. 나이 11세 되던 해인 1957년에 아버지의 결정으로 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덕골로 이주하였고, 25세인 1972년에는 다시 공주시 의당면 수촌1리 신촌 마을로 이주했다. 결혼 이후 28세(1975년) 때 맞은편 마을인 공주시 의당면 요룡1리 22-2 번지로 분가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일생 동안 공주시 의당면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다. 23세인 1969년에 의당면 요룡리에 사는 권창기와 혼인하여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그가 소리에 입문한 과정은 갑작스러운 신병 때문이었다. 아버지가 가정에 소홀한 사람이라서 불안한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런데 청년기에 병명을 알 수 없는 병을 얻었다. 병원에 갔지만 병명도 알지 못하고 병세가 중해져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다. 그때 탁발을 나온 승려가 계룡산 산신을 만나야 살 수 있다 하여 계룡산 연천봉 밑 부도골 홍종무의 암자에서 백일기도를 시작하였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모든 약을 끊고 기도에만 열중하였는데 홍종무(1898년경 출생자)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은 어려우니 경문을 읽으며 행하라 권하여 경문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때 읽은 경은 천수경, 산신축, 단군 축원(삼신경) 등이었으며 작은 소리로 읽으면 외워지지 않으니 큰 소리로 하라 해서 대청으로 외기 시작하면서 소리를 시작하였다. 그 후 기도와 함께 건강은 매우 좋아졌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병이 무병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첫 백일기도 후에 다시 백일기도를 하고 50일 기도를 세 번이나 거듭하면서 350일 기도로 건강을 회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무당으로 살 것을 결심하였다. 그러나 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동안의 일을 말하고 무속인이 되겠다고 말했을 때 아내의 결사적인 만류로 뜻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내는 무당이 된다면 나와는 이혼을 하고 하라고 했다. 다른 스님이 “법사가 무당을 할 수 없다면 목수로 살아야 무병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 권하는 바람에 목수 일을 배워 평생 직업으로 삼았다. 이후 마을에 돌아와 목수를 직업으로 하면서도 농사를 병행하며 살았으며 1975년부터 1988년까지 요룡리 이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에서 목수로 활동한 적이 있다. 그런데 2002년 2월 교통사고를 당해 서울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서울에서 살기가 어려워 귀향하였다. 이때 귀향 결심을 쉽게 한 것은 처음 신병이 들었을 때 계룡산을 만나야 살 수 있다는 가르침으로 목숨을 이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인근 마을인 의당면 오인리의 행상 선소리꾼으로 김갑순 사망 시 앞상여 선소리꾼을 하였는데, 유명한 오갑순으로부터 마을 상여 행상소리를 배울 것을 권유받고 그에게 상여 행상의 선소리, 요령 치는 법, 몸짓 등을 지도받아 행상 선소리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자기가 거주하는 마을의 서낭제와 용신제(샘고사) 고사 축원 소리를 하는 등 향토 소리꾼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의당에서는 알아주는 소리꾼이었지만 본격 예술 활동은 하지 않던 그는 2005년 민속학자 심우성의 지도와 전용주, 이걸재의 권유로 최병숙 등과 전통문화공연단 〈논두렁 밭두렁〉을 설립하고 부회장을 맡아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설립 당시에는 향토 민요를 공연하는 단체가 적어 시작한 지 3개월 후부터 마을의 축제 등에서 공연하였다.

그리고 2007년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기공식에 동 단체가 중요 공연으로 〈세종시 큰터다지기 민속〉을 공연하였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국내외 귀빈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공연이었는데 칭송이 높았다.

2010년 전국민속예술제에 충청남도 대표 민속으로 〈의당집터다지기〉로 출연하였다. 그리고 〈의당집터다지기 보존회〉를 결성할 때 창립의 주요 인사로 활동하였으며 2010년 한국민속예술제 충청남도 대표 민속으로 출연하여 은상을 수상하고 2013년 3월 충청남도 무형문화제 제45호로 지정되었다. 유왕종은 이 민속의 집터다지기 고차 축원소리와 집들이 축원소리로 주요 예능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그의 인생에는 집터다지기 민속만큼 종교로 대순진리회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1982년 계룡산 50일 기도 시 미륵사상에 심취하였고 신도안에서 득도했다는 여자 법사를 만나 구천상제를 모시고 미륵을 섬기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구천상제를 모실 방안을 몰라 찾고 있을 때 작은 처남 권위원의 소개로 대순진리회를 방문하였다. 혼자 간 것이 아니고 당시의 여자 법사와 함께 대순진리회를 방문하였는데, 여 법사가 당신이 섬겨야 할 구천상제와 미륵이 계신 곳이 이곳이니 이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라 하여 망설이지 않고 입문하였다. 그 후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동 종단의 교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전용주**(1947년생) 공주시 우성면 두만리 |



의당집터다지기 소리꾼

전용주는 1947년생으로 아버지 전남진과 어머니 이건춘 사이에서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7세부터 20세경 집안이 어려워 돈을 벌기 위해 평택 어촌에 취직하여 조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어업으로 숭어 준치 꽃게 등을 잡는 어부 활동을 한 후 부모 봉양을 위해 귀향하여 현재까지 두만리에서만 살고 있다. 25세에 공주시 우성면 상서리에 사는 오동례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전용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소리를 매우 좋아하였다. 마을에서는 대를 이어 소리

잘하는 집으로 호가 나 있었으며, 두 사람 모두 글을 몰라 문서 있는 소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한스러워하였다. 외조부 이칠상은 지조 있는 선비로 추앙받으면서도 소리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했던 사람이다. 외조부는 78세에 공주 동학군의 진군을 보고 피난을 하였으며 진군 모습을 자세히 보고 이 내용을 외손자에게 이야기로 전하였을 만큼 동학을 신봉하였다.

그의 어머니는 총기가 좋고 청이 좋았던 사람이었다. 두만리로 시집온 후 집에서 옛날 이야기 책을 주민들에게 읽어주는 만독꾼으로 활동하였다. 만독꾼이란 〈춘향전〉 〈옥단춘전〉 등의 한글 이야기책을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읽어주는 사람이다. 당시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것인데도 밤마다 그의 집에는 이야기책 읽는 소리를 들으려 동리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서산대사〉 〈사명당전〉 〈삼국지〉 〈장화 홍련전〉 등의 책과 〈회심곡〉 〈시조〉 등의 노래 교본도 구하여 읽어주어 마을 사람들이 겨울이면 언제나 밤마실을 오는 집이 되었다. 이는 전용주의 소리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어머니는 장수하여 1996년 97세에 사망하였다.

전용주는 16, 17세 즈음에 마을에서 이미자 노래를 잘한다고 칭찬을 많이 들어 가수의 꿈을 꾸었다. 고생하는 부모를 두고 집을 나갈까 망설이기도 했다. 가수와 집안일을 놓고 고민하던 그는 그해 경기도 평택시의 작은 어촌 마을로 취직을 나갔다. 어촌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였다. 그때 그는 빨리 돈을 벌어 땅 30마지기(6,000평)를 사 놓고 가수를 하자고 결심했다. 그러나 쉽게 돈이 모이지 않아 꿈은 접어야 했다. 그러던 중 군대 입대 문제와 함께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가까이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될 형편이었기 때문에 평택 생활을 접고 집으로 돌아와 어쩔 수 없이 농사일에만 전념해야 했다.

농사를 지으면서도 마을의 소리꾼들이 부르는 소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세에는 마을의 두레 공동작업을 하면서 선소리꾼 강병식(1920년경 출생)의 선소리를 듣고 익혔다. 특별히 공부를 한 것은 아닌데 몇 번 들은 것으로 논매는 소리의 선소리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고 강병식이 혼자 해 보라 하여 선소리를 불렀더니 그에게 논매는 일판의

선소리를 맡겼다.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마다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준 후 매번 그에게 노래하라고 시켜 자연스럽게 마을 논매는 소리 선소리꾼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모든 사람이 한여름 더위에 허리를 숙이고 논을 매야 했지만 선소리꾼은 북을 치면서 소리를 하고 논매는 노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지 않았다.

또한 35세인 1982년경 당시 마을의 상여 행상소리 선소리꾼 윤달수(윤광중의 부친)가 행상소리 선소리꾼이 되기를 권하였다. 마을에서 초상이 나면 상여 행렬을 따라 다니며 귀동냥으로 소리를 익혔는데, 마을에 초상이 나 출상 전날밤의 상례 풍습인 재떨이 상여 놀이판에서 요령을 맞겨 선소리를 시켰다. 자신이 특별히 가르쳐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행한 것인데 전용주가 하는 행상 선소리를 들어보고는 다음부터 모든 초상에 행상소리를 그에게 맡겨 버린 것이다. 그 후 전용주는 윤달수가 기존에 부르던 행상의 선소리와 그의 어머니가 읽어주던 회심곡의 내용을 더하여 자신의 소리로 만들어 불렀다.

마을 풍장(농악)의 상쇠 역시 비슷한 과정을 거쳐 마을 대표 상쇠가 되었다. 산골 마을이라서 마을의 두레풍장과 놀이 풍장 모두 가락이 단조로웠는데 전용주는 크게 학습하지 않고 흉내를 낼 수 있었다. 그리고는 어느 날인가 마을의 또래 젊은이들과 함께 상쇠를 잡고 함께 연주했는데 그를 본 마을의 상쇠 어른이 네가 하면 되겠다면 쇠를 잡지 않아서 상쇠를 칠 수밖에 없었다 한다.

전용주는 자신이 치는 마을 풍장의 상쇠 가락이 자기 마을에서도 너무 미흡하여 보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주읍내 웃다리 풍장단인 금강풍물패에 회원으로 입문하면서 지역의 민속예술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금강풍물패의 활동은 길지 않았다. 풍물패에서 배우는 가락이 마을 풍장과 너무 달라서 자신이 상쇠를 쳐도 마을 풍장으로 연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2005년 민속학자 심우성의 지도와 이걸재의 권유로 최병숙 등과 함께 의당면내에서 소리 잘하고 풍장 잘 치는 사람들을 모아 나갔고 유왕종, 박동화 등이 합세하면서 전통문화공연단 〈논두렁 밭두렁〉을 설립하고 회장을 맡아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소소한 활동으로 그쳤으나 행정복합도시인 세종시 기공식에서 동 단체가 중

요 공연으로 〈세종시큰터다지기 민속〉을 노무현 대통령과 국내외 귀빈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하였는데, 주변의 칭송이 높아 2010년 전국민속예술제에 충청남도 대표 민속으로 〈의당집터다지기〉가 출연하였다. 이를 계기로 〈의당집터다지기 보존회〉를 결성할 때 주도적으로 활동하였으며 2010년 한국민속예술제 충청남도 대표 민속으로 출연, 은상을 수상하고 2013년 3월 충청남도 무형문화제 제45호로 지정되어 이 민속의 주요 예능인 집터 고르는 가래질 소리와 집터 다지는 소리의 예능 보유자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는 전수교육관에서 〈집터다지기〉를 가르치며 청소년들에게 체험 교실을 운영해 주는 등 전통 민속 보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권재덕**(1946년생)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

즉흥소리의 귀재



권재덕은 1946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484번지에서 아버지 권수만 어머니 박희자의 6남 5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80년 8월 같은 마을 운정길 44로 이주 후 현재까지 한 마을에서 거주하고 있는 마을 토박이이다. 마을을 떠났던 기간은 군생활이 전부인데 이조차 시력 문제로 면제되어 조치원에서 42일 훈련 후 마곡사 예비군 중대본부에서 방위로 군을 필하여 마을을 떠난 기간이 매우 짧다. 29세에 공주시 신풍면 봉갑리에 살던 유희자와 혼인하여 2남 2녀를 두었다.

권재덕의 조부는 본디 천안의 마름실에서 살았다. 조부의

나이 9세(1908년) 때 마을에 역병(장질부사)이 돌았는데 하필 권재덕의 증조부모가 병에 걸려 사망하였다. 그 집안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 절반이 죽어 나가는 역병 때문에 서로 도와 장례를 치르는 일조차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조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아버지 초상을 치른 후 무작정 남쪽으로 걸어 내려와 사곡면 운암 마을에 이르렀다고 한다.

어린 소년은 운암리에 들어와 어느 마을인지도 모르면서 가장 큰 집을 찾아 들어가 자기를 애기 머슴으로 받아 달라고 하소연했다. 처음에는 승낙하지 않던 주인이 하루 한 나절을 조르자 마지못해 승낙하여 소년은 그 집에서 일을 하며 성장하였다. 애기 머슴이란 두레에 들기 전, 그러니까 농사일로 품앗이를 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머슴으로 들이는 것을 말하는데 먹이고 재워 주되 새경이 없는 머슴을 이르는 말이다. 부잣집에서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을 했던 그의 조부는 15세에 반 새경을 받기 시작했고 23세까지 새경을 모아 약간의 전답을 마련한 후 결혼했다. 결혼 후에는 6남 5녀 11남매의 아들딸을 얻어 자리 잡았으며 그 후 장남인 권재덕의 아버지가 그 집을 물려받아 현재의 대를 이었다.

권재덕의 아버지는 무속인이었다. 일반적인 굿을 하는 무당이 아니라 축원으로 경을 읽어 굿을 하는 이른바 법사였다. 권재덕은 아버지가 둔 11남매 중 막내였고, 결혼을 하여 4남매를 두었다. 조부가 9살 어린 나이에 살아남기 위해서 도망치듯 들어온 동리에서 2대 만에 22명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였다. 하여 권재덕이나 그의 아버지는 이 마을에 대한 애정이 매우 높다.

권재덕은 소리를 공부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결혼 초까지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 남에게 소리나 농악을 배울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그는 마을에서 내려오는 모든 향토 민요와 농악을 남들 하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 스스로 배워 공연무대에 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소리와의 인연을 맺은 것은 21세에 마을의 4H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당시 4H활동은 당연히 서구 문화에 기반을 둔 레크리에이션이 주를 이루어 향토 민속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는 사곡면 4H연합회 회장을 맡을 만큼

왕성하게 활동하였는데 집단 레크리에이션 후 열리는 장기자랑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자신에게 소리에 대한 재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대중음악이나 건전가요 등으로 장기를 자랑할 때 그는 자기 마을 어른들이 하는 향토 소리를 하여 인기를 얻었다.

1969년 24세의 나이에 충청남도 4H경진대회 개인 장기자랑에서 대상을 차지하였는데, 이때 부른 소리가 그 마을에서 전래되던 '열두 달 거리 고사축원' 소리다. 도 경진대회 장기자랑 대상의 경력은 자기의 소리가 대중에게 인기가 있음을 알게 하였고 이에 자신감을 얻은 그는 사곡면의 경로잔치나 작은 마을 행사와 축제에 초대되어 공연하는 일이 많아졌다.

사실 그가 마을의 민속을 배우게 된 것은 1957년 그의 나이 12살 때였다. 마을의 어른 한 분이 마을에서 낡아 버려둔 풍장 악기를 손질하여 마을 청소년들에게 치도록 했다. 이때 권재덕은 마을의 형들 또래와 함께 3개월 동안 매일 마을 풍장을 연습하였다. 15세가 되던 1960년에는 정월대보름 주간에 4일 동안 마을의 모든 가정을 돌면서 걸립 풍장을 쳐 모은 재화로 마을고사를 지낼 때 축원 소리꾼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상쇠면서 소리꾼이 되었던 것이다.

1966년에는 마을 걸립 풍장 상쇠가 되었고 그 마을 출신으로 서울 중계동에 살고 있는 출향인사의 초청으로 서울로 올라가 중계동의 동민회관 건립자금 모금을 위해 실시한 동민 가정 안택 걸립 풍장을 3일 동안 진행하고 품삯으로 많은 돈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경향으로 1969년 충청남도 4H경진대회 개인 장기자랑 대상을 차지한 것이다.

하지만 마을의 주 상쇠는 아니었다. 중요한 행사나 두레는 노인이나 어른들이 풍장을 치고 가벼운 행사에서나 풍장을 치는 정도로 살았다. 그런데 1974년 칠석날 마을에서 풍장을 치기로 한 마을 풍장패 상쇠가 갑자기 몸을 다쳐 풍장을 이끌지 못하게 되었다. 당시 그 마을 상쇠 김학수는 주저 없이 그를 지목하여 상쇠를 치게 하였다. 사오십 대의 풍장꾼들의 풍장판 상쇠를 27세의 젊은이가 맡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어른들은 상쇠의 실수가 있어 자신들이 남부끄러운 일을 당하면 단번에 상쇠를 빼앗아 버리는 것이

당시의 풍조였기에 권재덕은 자신의 배를 두드리는 연습으로 상쇠를 익힌 후 걸립 풍장의 상쇠를 잘 이끌었고, 이후에는 마을의 대표 상쇠로 활동하였다.

그는 50대 이후 각종 농악 교실에서 풍장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활동하였다. 그가 가르친 공주의 농악은 탄천 덕지보건진료소, 신풍면 선학리, 사곡면 대룡리보건진료소, 사곡면 유룡리 마을회관, 사곡면 회학리, 사곡면 운암리, 사곡면 호계리, 사곡면 가교리 등이다.

권재덕 소리의 가장 큰 특징은 즉흥소리다. 상례든 고사 축원이든 어디든 찾아가 소리를 할 때에 그 환경에 맞게 반드시 즉흥적인 소리를 더하여 큰 감동을 준다. 상여 행상소리의 경우 사망한 사람이 살아서 행한 어려움이나 즐거웠던 일을 찾아 듣고 즉흥적으로 넣어 부르는데 그 간절함이나 느낌이 상주나 문상객들을 눈물짓게 하는 것이다.

| **강미자**(1948년생)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



천생 소리꾼

강미자는 1948년생이다. 그녀는 아버지 강관여가 60세에 얻은 딸로 특별히 깊은 사랑을 받고 성장하였다. 아버지 강관여가 강미자를 더욱 사랑스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머니 안향란이 1950년 딸의 나이 불과 3세밖에 안 되었을 때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이다. 불운한 강미자는 아버지 역시 일찍 여의었다. 그녀가 초등학생이던 시절에 아버지도 사망하여 오빠의 보호 아래 성장하였다. 오빠와 올케는 강미자를 홀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버지 때처럼 그네를 타고 싶다는 말에 대청의 대들보에 그네를 매줄 만큼

은 아니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우울증에 시달렸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게 되자 병증은 더욱 심해졌다.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한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건강조차 약한 편이어서 외로움 속에서 성장하였다.

강미자는 주변과 오빠의 권유로 20세에 당시에는 고급 직업이었던 피아노 조율사 배상호와 결혼을 하고 서울 면목동에서 신접살림을 차렸으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못했다. 남편은 의처증이 매우 심한 사람이었다. 집에서 외출도 못하고 살아가는데도 아내를 믿지 못해서 억지를 쓰는가 하면 피우지 않은 바람을 피웠다고 하여 심한 구타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러 여자와 바람을 피워 결국 그녀는 자식 1남 2녀를 데리고 이혼을 선택하였다.

이혼한 강미자는 어릴 적의 우울증이 재발하였고, 아들딸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노력하였지만 건강이 점점 악화되어 일상적인 생활은 고사하고 살기도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이때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는 일이 생겼다. 남들이 키우다가 버린 유기견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유기견의 불쌍한 모습이 마치 자신을 보는 듯하여 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하였는데, 한 마리 두 마리 유기견의 수가 늘어나면서 개를 키우기 위해 움직이자 운동량이 많아지고 자신을 따르는 개들을 돌보면서 스스로 마음의 평온을 얻어 건강이 호전되었다.

그러나 도심에서 개 여러 마리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자신의 삶에 많은 위안을 주는 유기견 돌보기는 포기할 수 없는데, 유기견들이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져 조용한 곳에서 개를 키우자면 시골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강원도와 경기도의 여러 곳을 돌면서 자리를 살피다가 2000년에 현재의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에 외딴 가옥을 구입하여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었다.

강미자는 어려서 라디오나 TV에서 나오는 노래 중에서 국악이 좋아 아무 노래든지 배워 부르는 취미가 있었다. 주로 경기민요를 좋아했지만 그 못지않게 대중가요에도 심취해 있었다. 그러나 좋아하는 국악을 배울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29세였던

1976년에 경기민요 학원에 등록하고 6개월 동안 수강료를 내고 배웠으나 수강료가 비싸고 배움의 속도가 너무 느려 포기하였던 것이 유일한 국악 공부였다. 물론 그 영향으로 경기민요를 더 좋아하게 되었지만, 이혼과 유기견으로 삶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리꾼으로 활동하는 것은 까맣게 잊고 살아왔다.

그런데 공주에서 조금 할 줄 아는 경기민요를 통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2005년 전통문화공연단 〈논두렁 밭두렁〉 회원이 되었다. 거기서 공주의 민요를 익히기 시작하면서 향토 소리의 매력에 빠져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다. 또한 '의당집터다지기보존회', '공주아리랑 연구회'에 가입하면서 3개 단체의 중요한 소리꾼으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논두렁 밭두렁〉의 전통문화 종합극 「동학」 공연에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2년 동안 중요 배역으로 공연하였다. 처음에는 「녹두장군 오셨네」라는 제목으로 공연하다가 2015년부터 「동학」으로 제목을 바꾼 이 작품은 동학의 마지막 큰 전투가 벌어진 우금티가 있는 고장이라 하여 창작 공연한 작품이다. 그녀는 이 작품에서 중요소리에 해당하는 2종의 '새야 새야'에 독창자로 활동한다.

또한 2007년부터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것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5호인 의당집터다지기다. 그녀가 공주의 민속 예술에서 가장 많은 공연과 관중의 갈채를 받는 민요는 '공주아리랑'이다. 공주시에는 '공주 긴아리랑', '공주 엮음아리랑', '공주 잦은아리랑'이 구전되고 공주아리랑 연구회에서는 이 3종의 공주아리랑을 보급·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 노래 중 공주 긴아리랑 주창자로 각종 공연에 참여하고 독창으로 이를 공연하는 소수의 회원 중 한 명이다.

강미자는 민속 예술인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차례 국제 교류 공연에 참여하였다. 그녀가 말하는 감동적인 공연은 다음과 같다.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한인 축제에서 노래한 '공주 긴아리랑' 공연은 자신의 공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했다. 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칭다오 한인 축제의 공연장에서 무반주로 혼자 공주 긴아리랑을 불렀는데 시끄럽던 관중이 조용해지고 눈물을 흘리는 동포들을 보면서 자신이 더욱 감동했다 한다. 그녀는 일본에 유일한 한인 교포

마을인 일본 교토 우토루 한인 마을에서도 2회 공연을 하였다. 첫 번째 공연에서는 외국에서 자신의 모국을 잃지 않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의 삶에 눈물겨워, 그들의 삶에 비하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여 인생의 위안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문 공연에서는 한국의 풍장과 집터 다지는 소리가 일본인들에게도 인기가 매우 좋다는 것에 감동하였다 한다. 국내 공연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극장 중 하나인 국립극장 야외무대에서 동학을 공연하였는데 국립극장의 전문가들이 칭찬을 해주어 감동을 받았다 한다.

각종 소리에 뛰어난 재능과 미성을 가지고 있는 강미자의 시조 실력은 매우 빨리 늘어 공주를 비롯한 충남 각지의 전국 시조 경창 대회에 출연하여 을부, 갑부, 명인부의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그녀는 윤복수에게 석암제 시조를 배워 현재는 석암제 시조로 자신이 배우기 시작한 공주 종합사회 복지관의 시조반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정철기**(1961년생) 공주시 금학동|

독보적인 상쇠



정철기는 1961년생으로 아버지 정재순과 어머니 고원분 사이에서 3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상쇠로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또한 북, 장구, 징과 상모놀이 등 농악 전반에 모두 능하여 수많은 농악단을 지도하고 제자를 길러내었다.

그는 할아버지 정점룡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명인들과 함께 성장하였다. 그의 조부 정점룡은 공주에서 6대를 내린 집안의 자손으로 양반 집안에서 성장하였지만, 일제강점기에 농사만 짓고 세상 일에 나서지 않으면서 스스로 예술을 좋아하였고 명인들과 교분을 즐겨하였다. 공주 금학동에

서 성장하여 고사 덕담과 농악으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얻고 국립극장, 예술의 전당 등에서 공연하였던 김복섭, 공주 최고의 축원 덕담꾼 최인현, 1956년 천안에서 개최된 제1회 농악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수촌 농악〉의 상쇠 김태산 등과 매년 몇 차례씩 금학동에 모여 가무악을 즐기며 살았기 때문에 어린 그는 그들의 뛰어난 예능을 지켜보면서 성장하였다.

할머니 김이분은 그의 어린시절부터 자장가로 아리랑을 불러주었다. 특별한 노래는 아니었지만 즉흥적으로 부르는 아리랑을 정철기가 어린이로 성장하고 난 후에도 자주 불러 주어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를 만큼 익숙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예술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다. 서당에서 공부하여 한학을 깨우친 사람이었고 스스로 공부하여 집터나 묘터를 잡아주는 지관으로 활동하였지만, 지관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 함께 어울릴 수 없다 하여 농사만 지었고 예술판에는 섞이지 않으려 하였다.

할아버지 정점룡 역시 아들 손자가 예술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특히 장손인 정철기가 농악인들과 어울리는 것은 심하게 금지했다. 공부해서 큰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할아버지가 금기시했던 농악이지만 할아버지와 자주 어울린 의당면 수촌리 김태산과의 인연은 농악으로 깊어졌다. 정철기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김태산의 귀염을 받았으며 할아버지가 없는 틈틈이 상쇠가락을 배웠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김태산은 정철기가 상쇠로 재능이 있음을 알아본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농악판에 구경 가는 것조차 금하였지만 김태산은 작은 재주뿐인 정철기를 데리고 나가 자기 농악판에서 함께 공연하도록 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정철기는 김태산의 농악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대로 끝이 날 것 같던 인연은 정철기가 공주 농업고등학교(현 생명과학고)에 진학하면서 이어졌다. 김태산이 농업고등학교에 창설된 농악부의 선생으로 초빙된 것이었다. 정철기는 할아버지 말씀이 떠올라 처음에는 농악부에 가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절친한 친구가 농악부에 함께 들어갈 것을 권하면서 마음이 흔들렸다 공주농업고등학교 농악부 2기생으로 가입하면서 다시 김태산을 만나 본격적으

로 농악을 배웠고 김태산의 지도에 따라 상쇠를 쳤다.

김태산의 정철기 사랑은 남달랐다. 고등학생인 철기를 자신의 풍장단 공연에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의 재주를 보여주고 가르쳤으며 그때마다 자신의 뒤에서 상쇠를 치게 하였다. 김태산은 처음에는 〈수촌농악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하였지만, 전국대회 대상 수상 후에는 〈공주농악대〉로 이름을 바꾸었고, 공주 관내 5일장을 돌며 풍장을 치는 전문 풍장단으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 공주농악대에는 대전 웃다리풍장의 패두가 된 송순갑, 남사당의 농악으로 이름을 높이고 용인에서 활동한 이원보 등의 쟁쟁한 농악인들이 함께하는 수준 높은 농악대여서 정철기에게는 매우 소중한 배움의 길이 되었다.

김태산은 축원 소리, 집터 다지는 소리, 두레판의 각종 농요에도 조예가 깊고 지역에서는 소리꾼으로도 활동한 인물이다. 풍장판에서 판제에 민요를 함께 부르는 소리판을 곧잘 편성하였던 그의 영향으로 정철기는 소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훗날 서울에서 활동할 때 진도 씻김굿 구음의 명인 박병천과 공주 출신으로 고사덕담 하나로 전국적인 인기를 누렸던 김복섭의 축원 소리를 배우는 계기를 만들었다.

정철기가 말하는 김태산 농악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작 입장을 양편에서 2줄로 들어온다. 시작 1진을 태극진으로 한다. 칠채의 8반 금사진 가락이 특이하다. 악기별 가락이 일정한데 서로 다르게 친다. 잡색은 양반과 각시(여장 남자)만 세운다.

정철기는 1983년 12월 군대 생활 중 의가사 제대 후 민속촌의 상쇠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사물놀이 상쇠를 배워 익혔고 민속촌의 활동과 병행하여 서울 풍물놀이마당을 주 공연장으로 하는 〈마당패 뜬쇠〉의 상쇠로 7년 동안 활동하였다. 또한 이 단체의 초대 대표였다. 이때 함께한 인물로는 현재 경기도 광명 농악 예능 보유자인 임응수, 공주인 엄재곤, 김천인 최익환, 유성인 김광수 등이며, 임응수는 정철기를 이어 이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였다. 그의 괭과리 연주 솜씨는 사물놀이의 창시자인 상쇠 김용배 사망 후 전국 최고라는 평가를 받는다.

잘나가는 상쇠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지만 정철기는 자신의 공부를 쉬지 않았다. 뜬쇠 활동의 영향으로 인연이 시작된 김복섭에게서는 공주의 고사 축원 소리를 배웠고 진도

씻김굿에서 구음과 북춤으로 명인이 된 박병천에게서는 구음과 진도 북춤을 배웠으며 강원도 동해안의 별신굿을 수학하기도 했다.

그는 대학과 고등학교에서 농악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그가 출강한 대학은 강원대학교 7년, 중앙대학교 2년, 명신대 겸임교수 1년이며 광주 종합고등학교와 동두천여상의 농악부를 지도하였다.

정철기와 김복섭의 인연은 공주의 소리 문화에 큰 의미를 갖는다. 공주의 예인으로 현대 민족예술에 큰 족적을 남긴 김복섭이고, 그의 예술 중 가장 빛나는 것이 고사 축원이다. 이 고사 축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물놀이 창시자이면서 비나리로 유명한 이광수의 비나리에 바탕이 되는 소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김복섭의 고사 축원의 원형은 소실될 위기에 처해 있으며 김복섭에 대한 자료는 일천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두 사람의 인연으로 김복섭류의 고사 덕담 소리가 정철기에게 전승되었다.

| **박성환**(1969년생) 공주시 봉황동 |



중고제 명창

박성환(본명 박노훈)은 1969년생으로 논산에서 출생하여 공주고등학교에서 공부한 후 한국외국어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했다. 판소리와는 인연이 없을 것처럼 성장하였지만 평생 단 한 번의 느낌으로 판소리에 입문하였고, 현재는 공주시에서 〈충남판소리진흥원〉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예술감독, 강사를 겸임하면서 중고제 명창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환은 아버지 박광래와 어머니 신이균의 4남 1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아버지는

마을 농악의 북잽이로 각종의 민요를 즐겼으며, 어머니 신이균은 경기민요를 잘하고 대중가요에 능하여 동네 가수로 이름이 난 사람이다. 어머니는 담배 농사일을 하면서 라디오의 국악 프로그램을 즐겨 들었고, 어머니를 도우면서 박성환은 자연스럽게 국악에 관심이 생겼다. 그는 라디오에서 최종민이 진행하는 국악의 향연에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을 듣고 판소리와 판소리꾼을 동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소년 시절의 박성환은 논산시 소재 연무중앙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거쳐 공주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한국외국어대 불어과로 진학하여 공부만 아는 청년으로 성장하였다. 판소리와의 인연은 대학에서 취미 활동으로 농악과 판소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결혼은 판소리인으로 박성환보다 이름이 높은 염경애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염경애는 파주염씨로 조선 말엽의 명창 염계달의 6대손이며 장인 염봉태도 판소리 명창일 뿐 아니라, 처의 고모 염금향도 순천에서 활동한 판소리 명창으로 판소리 명문가의 여인이다. 성우향, 조상현에게 사사하고 광주시립국극단 단원을 거쳐 국립국악원의 수석 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전문 판소리인으로 서울에서 일하고 있다.

불어 공부에 매달려 있던 박성환은 장례 예식장에서 한 선배가 던진 질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선배는 단순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 질문에 순식간 많은 생각을 하고는 대답이 궁하여 무심결에 “잘 살아야지요.” 하고 대답했는데, 자신의 대답이 큰 깨달음으로 돌아와 집에서 혼자 춤을 추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 잘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가 군에 입대하여 포천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면서 혼자 명상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다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판소리를 하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한다. 잘 살아야 하고 판소리를 하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는 제대 후 미련 없이 외국어를 포기하고 김소희 명창을 찾아가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우고 전념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

첫 스승은 김소희였다. 김소희는 자신이 남자의 창을 지도하는 것에 부담스러워 하였는데, 이후 그는 한 스승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 선생의 판소리를 사사하도록 도움을 주

었다. 첫 스승 김소희의 소개로 "남자니 남자 소리를 배우라." 하여 남원의 강도근 문하로 들어가 시봉제자가 되었다. 농사를 지으며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강도근의 인품에 반하여 건설현장 식당에서 살면서 공부에 매진하였다. 강도근의 소개로 무당이 사용하다 비워둔 신당인 외딴집에 거주하며 수궁가 적벽가를 배웠다. 스승 강도근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자 성우향을 추천하여 서울의 성우향 판소리 학원에서 8년 동안 살면서 보성제 심청가 춘향가를 익혔다. 그리고 성우향 사사 2년차에 국립창극단에 신입회원 모집 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중고제 판소리의 마지막 명창 정광수와의 인연은 박성환의 판소리 인생에 큰 변화와 기회를 주었다. 대학 졸업 후 창극단 단원 시절 비계비를 면하기 위해서 학사 편입으로 중앙대학교에서 국악 개론을 공부하였다. 이때 중고제와 이동백, 김창령, 황호통 등의 명창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자신이 충청인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중히 여기던 중 동료 소리꾼 이강직에 의해 이동백제의 중고제 명창인 정광수가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박성환은 망설이지 않고 정광수를 찾아가 제자가 될 것을 하소연하여 어렵게 승낙을 받고 3년간 시봉제자로 들어갔다. 그리고 정광수에게는 다른 소리는 전혀 배우지 않고 중고제만 수학하였다. 그에게 적벽가 2년, 수궁가 1년을 사사하였으며 결혼 후에는 부인 염경애도 함께 다녀, 부인은 중고제 단가 〈초로 같은〉을 사사했다. 박성환은 아내와 함께 정광수 사망시 임종을 지켰는데 정광수는 앉아서 사망하였다 한다.

박성환이 기억하는 정광수는 1903년 출생하여 2003년 사망하기까지 고고하고 소리가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박성환이라는 예명을 지어주어, 죽은 후에도 남을 이름이라 칭하며 전하였고, 임종시에는 박성환 염경애 부부가 꼭 해로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다짐을 두었다 한다.

전통 판소리 다섯마당 외의 판소리에 관심이 많았던 박성환은 현대에 맞는 작품을 판소리로 공연하고자 작품을 검토하고 만선, 산불, 달집을 대상으로 접근하여 작창을 시도했다. 이때 희곡 「산불」을 읽고 인간의 본성과 사랑 등의 내용에 매료되어 작창을 하고 기획서를 창극단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창작 창극 작품으로 선정되어 직접 연출하였다.

이 작품에서 그는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고 시대적인 아픔, 인간의 생명력, 인간의 본성, 남녀의 사랑과 환희를 중심으로 연출하여 〈젊은 창극〉의 표제로 공연하여 초연부터 반응이 뜨거웠다.

공주와의 인연으로 공주문예회관에서 공주 지역에 맞는 창극을 기획하고 대본을 썼으며 작창을 하여 연출한 작품이 「대왕 무령」이다. 공주의 역사가 백제 시절 수도를 부여로 천도하면서 생긴 상실감과 허무주의적 요소가 너무 큰 것 같아 이를 바꾸고 싶었다 하며 무령왕을 알고 보니 백제를 재건하고 문화를 발전시킨 영웅이었기에 「대왕 무령」을 기획한 것이다. 곰나루 전설이 웅진백제 수도를 사비로 천도한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상처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작품으로 창극 「대왕 무령」을 연출의 중심에 두었다. 그는 언제든 다시 한 번 이 작품을 다시 공연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국립창극단의 단원 직을 사임하고 판소리에 전념한 이후 박성환은 중고제에 자신의 소리 인생을 모두 투자하고 있다. 중고제 심청전을 각색하여 창극을 공연하기도 했다.

| **이용구**(1945년생) 공주시 반포면 |



경문 법사

이용구는 1945년생으로 반포면에서 출생하여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아버지 이영춘과 어머니 고분임 사이에서 5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대전의 박희순과 혼인하여 일가를 이루었다. 1914년생인 아버지는 마을의 선비로 살았던 분이다. 논 14마지기(2,800평) 밭 2마지기 반(500평)이 있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으며 시조를 즐기고 장구로 시조 장단을 잘 쳐 집에 찾아오는 사람을 가르치기도 했다.

선비의 가풍이 잘 살아 있는 집안에 태어난 이용구는 소년 시절부터 신병에 시달렸다.

처음의 신병(무병)이 온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당시는 몰랐으나 병원에 가면 병명이 나오지 않는데 몸이 아파 학교를 못 다녔다. 선생이 유급할 것을 권하였으나 유급하지 않고 5학년까지 다녔는데, 계속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니 흥미를 잃었고 결국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신식 학업을 포기한 이용구는 13세에 서당을 다니기 시작하여 14세가 되었을 때 천자문, 계몽편, 명심보감, 소학 5권을 떼었다. 그런데 하루는 훈장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들의 머리가 너무 좋아 공부는 빠르나, 마음공부가 되지 않는다."며 1년만 쉬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를 받아들여 서당공부를 중단시켰다.

서당공부도 중단한 이용구는 집에서 할 일이 없었다.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일도 하지 않았던 그는 무위도식하는 것이 싫어 무작정 가출하였다.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집을 나와 처음 나간 공주읍내 호서극장 부근에 쌍대문집에서 저녁을 얻어먹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한의원에서 2년 동안 일했다. 한학을 한 때문에 약장에 기록된 한자를 모두 읽어 주인인 한의사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그는 공부를 못하게 한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가까이 있었음에도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가지도 않은 채 2년을 보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는 꾸지람을 하지 않았고 마치 늘 집에 있었던 것처럼 대해 주었다. 집에 와서도 농사일을 시키지 않아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고(못하고) 노는 것으로 세월을 보냈는데 점점 몸이 아파왔다. 병이 깊어질수록 사람을 보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번은 공암 5일장에서 만난 송곡리에 사는 여인네를 보는 순간, 그녀의 집이 불타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 "당신 집이 지금 불타고 있다."고 소리 지르고 함께 뛰어가 마을 사람들과 불을 끄고 돌아오기도 했다.

이 일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공부 없이 살면서 남의 미래를 보며 살다가는 큰 실수를 할 것 같아서 또 다시 가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계룡산 삼불봉에서 백일기도를 하였다. 백일기도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군입대 영장이 나와 있어서 하산 1주일 후 입대하였다.

36사단의 2기생으로 입대한 당일 군기를 잡는 첫 훈련 중에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정

신을 차렸을 때 자기가 묶여 있음을 알았다. 군용 침대에 사지를 단단히 결박당한 상태였으며 온몸은 상처투성이였다. 곁에 누워 있는 동료에게 이유를 들어보니 내용이 참혹했다. 자기가 훈련 중에 발작하여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이를 말리려고 훈련병과 교관 수십 명이 달려들어 제어하려 하였으나, 제어하지 못하고 헌병들이 와서 짐승을 잡듯이 올가미를 던져 묶어놓았던 것이다. 이후 두 곳의 병원에서 원인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결국 정신분열증 환자로 분류되어 의가사 제대를 하였다. 입대 2주 만이었다.

군에서 사고 이후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속인임을 인정했다. 그리고 조부 이은학이 소유하고 있던 고도서 중에서 경문이 적힌 문서를 몰래 가져다가 혼자 공부로 암송을 시작하였으며 규모가 작은 굿판을 스스로 열어 무당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스승 없이 문서만으로 굿을 해나가며 무당으로 활동했던 이용구가 스승을 찾아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한 것은 굿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영역이 너무 많다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굿의 규모가 점점 커져 자신의 독학 독경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당시 공주 최고의 법사로 유명했던 장기면 장밭들 거주 법사 최인현(1925~1927년경 출생)을 찾아가 사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학문으로 독경을 매우 깊이 있게 연구한 선비였다는 사실도 알았다. 최인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한 이용구는 반포면 송곡리의 법사 이존길(최인현보다 1살 아래), 1924년경 출생자인 왕촌의 한상덕 법사 등에게 본격적으로 앉은굿을 사사받았다.

스승을 모시고 경문만으로 굿을 하는 법사의 일을 배운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3인의 스승 모두 경문은 혹독하게 가르치면서도 설경을 잘 알려주지 않아 어깨너머로 본 것을 혼자 연습하여 기량을 키워야 했다. 그리고 1일에서 7일에 이르는 각종의 앉은굿에 맞는 법식은 매우 난해하여 짧은 기간 동안 숙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결국 그는 설위의 경우 잡종이로 혼자 연습하여 하나하나 익혀 나갔고, 굿의 절차에 대해서는 스승을 따라 나가 경험하는 모든 굿을 기록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했다.

충청도의 앉은굿은 경문 위주의 굿으로 신기를 이용한 신비로운 행동(작두타기 등)이나 흥미로운 선거리가 전혀 없는 굿이다. 충청도 외에는 행하지 않는 형식이며 대중적인

인기도 약한 민속이다. 이런 경향으로 공주에서 활동하는 무당들도 선거리, 신기의 굿을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경문만으로 굿을 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용구는 계룡산의 영향으로 전국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 각종의 풍장 고사소리, 집터 다지는 소리, 달궁소리 등에 영향을 미친 앉은굿의 경문 축원만을 고집하여 지금도 경문 봉축만의 굿, 공주에서는 경을 읽는다고 표현하는 전통의 앉은 굿 외에는 전혀 시전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당연히 현존하는 법사 중 경문이 가장 많고, 변형이 가장 적은 것이 이용구의 경문이다.

| **김옥정**(1947년생)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



소리 주막

김옥정(본명 김영식)은 1957년생으로 아버지 김태현과 어머니 윤양로의 사이에서 4남 4녀 중 3녀로 태어났다. 그녀는 20세에 충북 충주시 귀현동의 박인서와 혼인하여 슬하에 2녀를 두고 현재 공주시 반포면의 공주 대전 간 대로변에 소리 주막을 열고 손님들에게 소리를 들려주며 지역의 축제 등에서 공연을 하며 살아간다.

그녀의 아버지 김태현은 독립운동가였으며 해방 후 장관을 지낸 이범석 장군의 휘하에서 활동한 독립유공자이다. 이범석의 휘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조

국이 광복되어 함께 귀국하였는데 이후에도 이범석과 함께 일을 하였다고 한다. 정부 수립 후 이범석이 장관으로 취임하자 그동안의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로 특채되었으며 종로경찰서에서 경찰 생활을 시작하였다. 당시 이렇게 시작한 인물들은 대부분 경찰의 요직을 거쳐 빨리 승진하였으나 아버지는 청렴과 애국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지만 고집이 매우 강한 성격이라서 주위 사람들과 관계가 원활하지 못했다. 김태현은 점점 중앙에서 밀려났으며 결국 청주경찰서로 내려와 대전의 신탄진의 현도지서장으로 정년퇴직하였다.

김옥정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대부분 엄한 아버지, 가난 속에서도 홀로 청청하여 가족들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으로 남아 있다. 그나마 좋은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색동 고무신을 사주어 매우 좋았던 기억이 있다. 그런데 그 기억조차 자신이 고무신으로 얼음과자(일명 아이스깨끼)를 바꾸어 먹고 매우 심하게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일 정도로 엄하여 두려웠던 사람이다. 박봉에만 의지하고 청빈한 성품으로 인해 6남매를 양육하는 것이 어려워 매우 곤궁하였으며 가족이 병들어도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네 아들 중 두 명이 병으로 사망하였다.

김옥정의 오빠는 유도선수로 1966년 스코틀랜드 세계유도선수권대회에서 동매달을 획득하였다. 그럼에도 고집스러운 아버지의 이름에 걸려 자유롭게 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호주로 이민을 갔다. 호주로 이민 간 후에도 호주에 한인 체육회를 설립하고 회장을 재임한 인물이다. 김옥정의 오빠가 2016년 파킨스병에 걸려 한국에 나오지 못하자 형제들이 호주를 방문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돌아왔을 만큼 우애가 깊으며 아직도 왕래하고 있다.

김옥정은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고 공장에 들어가 공녀로 생활하였다. 그러나 공장 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사표를 내고 나오자, 다시 공장으로 가거나 결혼을 하라며 택일을 종용하는 아버지 때문에 20세 어린 나이에 결혼하였다.

김옥정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가수를 꿈꾸었고, 중학교 3학년 오아시스 레코드사가 개최한 전국 가요 콩쿠르에 언니의 이름으로 출연하여 대상을 받았다. 당시 주최한 오아시

스 레코드사에서 가수로 키워주고 음반을 내준다 하였으나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혼을 하고 연이어 두 딸을 기르면서 가수의 꿈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 그런데 그녀의 나이 27세에 옥당 정경파 선생의 소리를 라디오로 듣고 반하여 무조건 수원으로 올라갔다. 남편과 두 아이를 버려두고 돈도 없이 혼자 올라간 것이다. 물론 남편이나 가족에게는 어디 간다고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수원의 풍화장에서 만난 옥당 선생은 소리를 배우려면 수강료를 가지고 오라 하였다. 돈이 없다고 하자 가르칠 수 없다고 내쫓았다. 소리를 배우지 못하면 죽을 것 같던 김옥정은 당시 수원에서 가장 큰 요정을 찾아갔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일(소리)을 달라고 하였다. 1주일에 2회만 소리를 하게 해 주고 그에 당하는 돈을 주면 그것으로 소리 공부를 해야겠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지배인은 소리를 들어보고 결정하자고 하였고 김옥정은 몇 소절 배운 경기민요와 대중가요 한 곡을 불렀는데 주 2일이 아니라 4일을 주었다. 기생으로 소리를 하면 소리를 잘한다고 주는 팁도 적지 않았다. 김옥정은 그렇게 번 돈 모두를 옥당에게 수강료로 지급하고 소리를 배워 나갔다.

살풀이춤의 경기도 지방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였던 옥당 선생은 어느 날 갑자기 서도창 제전을 배우라 했다. “이 소리가 너의 목청과 맞지 않는 노래이나 네 인생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노래이니 서도창의 목소리를 흉내내지 말고 그냥 네 청으로 해라.” 하며 노래를 가르쳤다.

집과 연락을 끊고 소리 공부에 매진하던 김옥정은 수원 수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집에 연락하고 오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병을 얻어 생활이 어려워지자 1988년 소리 공부를 끝내고 남편에게 돌아왔다. 청주를 떠나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로 이주하여 소리꾼으로 돈을 벌어 17년을 남편의 병 치료에 전념하였다. 남편 박인서는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지만 2005년 결국 타계하였다.

어려운 가운데도 2000년 대전전국국악경연대회 출연 차하의 수상을 하였고 2001년에는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상을 탄 후 이름이 알려지면서 대전에서 경기민요로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 찾아왔다. 이론에는 약하지만 소리에는 자신이 있던 김옥정은

이들을 제자로 받아들여 1년을 가르쳐 대회에 나가 상을 타게 되었다. 그런데 문득 자신이 술집에서 기생으로 소리한 전력이 문제가 되어 제자들의 앞날에 누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하였고 이 사실을 이야기하여 제자들이 선택하게 하였는데 모두 떠나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그녀가 남에게 소리를 가르쳐 돈을 벌게 된 것은 무당들을 가르치고 나서였다. 앉은굿 일변도였던 공주의 무속판에 변화의 바람이 불어 선거리를 시작했고, 그중에서도 경기민요를 쓰고 싶던 무당들에게 경기민요를 가르치고, 계룡산에 수도하며 무당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들어 이들을 가르쳤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후 건물을 짓고는 〈생소리 주막〉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열어 현재 운영하고 있다. 그녀는 두 딸을 교육하여 하나는 공무원으로 다른 하나는 네일아트의 예능인으로 잘 살아 걱정이 없다. 그리고 요즘은 심신장애가 매우 심한 가족 4인을 불러들여 함께 살아가고 있다.

평생을 어렵게 살면서 소리의 길을 지켜온 김옥정은 자기는 복 받은 여자라 말하면서, 생소리 주막에서는 음식을 팔면 돈에 사로잡힌다 하여 음식이나 술은 개인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먹게 한다. 거기서 소리를 들려주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 **조윤웅**(1944년생)공주시 의당면 월곡리 |



이루지 못한 소리의 꿈

조윤웅은 1944년생으로 1912년생인 아버지 조종덕과 같은 해 출생한 어머니 양옥진 사이에서 6남매의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그의 집안은 고조부가 만천리에서 터를 잡은 이래 3대에 걸쳐 독자로 내려와 손이 귀한 집안이었으며, 의당면 월곡리에 살게 된 것은 할아버지 조선규 때부터였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한학을 하였고 시조를 잘하였으나 조윤웅은 특별한 기억이 없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의당면 수촌 농악단의 운영에 관해 중요 사항들이 증언되었다.

그의 아버지 역시 한학을 공부한 사람이었다. 학문이 깊고 시조를 잘하는 선비였으나 일제강점기에는 세상에 나서기 싫다하여 농사만 지으며 살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공주의 예인들과 많이 어울렸다. 대표적인 인물이 의당면 수촌리의 김태산이며 대전 웃다리 풍장의 창시자로 예능 보유자인 송순갑이다. 또한 스스로 음악을 매우 즐겼다. 시간이 나면 퉁소를 불었고 혼자서 새납을 공부하여 김태산 등이 농악 공연을 할 때면 새납 연주를 맡아 함께 공연하기도 하였으며 서예도 즐겼다.

조윤웅이 초등학교 시절인 1954년경 의당면 월곡리 의당초등학교 뒤편 공터에 김태산의 수촌 농악대를 초청하여 공연하였는데, 이때 송순갑이 장구잽이로 출연하여 장구 공연과 물구나무서기 곰봉재주 등의 땅재주를 펼쳤고, 아버지는 새납을 부는 공연 판을 열기도 했다. 또한 아버지는 지역의 선비로 알려져 의당초등학교에서 예절 교육을 가르쳤고, 이때 의당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모셔가는 모습도 자랑스럽게 기억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고 농사도 적게 지은 그의 집은 언제나 가난했다. 이사를 하기 전 7세 때 신풍면 백룡리의 서당에 나가서는 신동 소리를 들었던 조윤웅이지만, 아버지로 인해서 공부도 못하고 세파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동혈산으로 불린 큰 산에서 나무를 해다 장에 파는 나무 장사꾼이 되어야 했고, 15세에는 의당면 청룡리에 있는 양조장에 취직하여 술 빚는 일을 배우기도 하였다. 어린 몸으로 나무를 해서 모아두었다가 공주장으로 내다 팔러 가는 날이면 산의 나무를 관리하는 상감에게 들키지 않으려 큰길로 가지 못하고 냇둑을 따라 지고 나가야 했고, 25리 길을 걸어 공주장에 나가 나무를 팔면 그 나뭇짐을 산 사람의 집까지 져다 주어야 하는 고된 청소년기였다. 이런 형편 때문에 그는 29세가 되어서야 공주시내에 살고 있는 임재순과 혼인하여 슬하에 3남 4녀의 아들딸을 낳고 길렀다.

의당면 월곡리는 200여 호에 이르는 큰 마을이었다. 1963년까지는 의당면의 면소재지이기도 했다. 이 마을에는 민속이 대단히 성행하였던 마을이다. 두레가 1970년대 중반까지 운영되었으며 풍장이 성행하였고 마을에는 북을 만드는 장인도 있었다. 마을 두

레풍장판에서 북을 치는 민병하는 북을 잘 만들고 고치는 사람이었고, 홍순철의 아버지 홍수봉은 상쇠로 유명하여 홍수봉이라는 이름보다는 '홍 깽매기'로 불렸으며, 김종견의 형 김종구는 장구를 잘 쳐 '장구 종구'로 불렸다. 징 잘 치는 고근택, '벅구봉진'으로 불린 양봉진 등이 이 마을의 마지막 두레 좌상이었던 1912년생 양울진과 더불어 기회만 되면 풍장판을 벌이고 소리판을 벌인 마을이다.

이런 마을 환경에서 조윤웅은 소리와 농악의 흥을 매우 좋아하게 되었다. 기실 초등학교 학생 시절부터 좋아했으나 가난한 가정형편 때문에 배울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그런 것을 좋아하여 집안이 가난에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소리를 잘 해보고 싶다는 욕심은 더욱 커졌지만 가르쳐 주는 선생이 없고 돈을 들여야 배운다는 생각으로 머뭇거리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민요를 스스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때 그가 부른 것은 경기민요인 노랫가락 창부타령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 조윤웅이 소리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1995년이다. KBS라디오에서 토속제 정선아리랑으로 '비가 오려나 눈이 오려나 억수장마 지려나' 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였다. 그 소리는 단번에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청주 KBS 방송이었는데 누가 불렀는지를 확인하고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인 권재은의 소리라는 것을 알고 전화번호를 소개받아 그를 찾아가 문하생이 되었다. 이후 조윤웅은 공주에서 청주에 이르는 먼 길을 다니며 공부하였다. 한 달에 2~3회 수업을 10년 넘도록 다니면서 소리를 배웠고 공주에서 공연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후 계속 경기민요를 중심으로 소리를 익히고 공연 활동을 하였지만 2005년부터는 경기민요 이수자들이 공주로 유입되기 시작하여 무대에서 그를 찾는 데가 줄어들면서 활동이 소원하여 2010년부터는 소리를 거의 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다.

지금은 전숙희 이은주 창을 주로 듣지만 공부는 하지 않고 있다. 가난 때문에 하고 싶던 소리를 하지 못하였고 늦은 나이에 시작하였다가 꿈을 접어야 했던 사람이다.

| **유옥자**(1950년생) |



시조창을 하는 직조 공장 여인

유옥자는 1950년생이다. 아버지 유황열과 어머니 김순분 사이에서 3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강릉유씨 집안의 아버지는 젊어서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고 해소와 천식으로 심하게 기침을 하며 살아왔다. 그러면서도 흥이 좋아 마을의 상쇠로 꽹과리를 잘 쳤으며 언제나 노래를 흥얼거렸다. 건강이 좋지 못하여 일을 잘 하지 못하였는데 자신이 병원에 다녀 돈을 쓰면 자식들이 고생한다는 이유로 병원조차 가지도 않았다고 한다.

아버지보다 12세가 어렸던 어머니 김순분은 정안면 광정리에서 성장하여 혼인하였는

데 건강하지 못한 남편 대신 가족들을 간수하기 위하여 언제나 일해야 했다. 봉건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아버지에게 자기 주장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순종적으로 살았다는 것이 유옥자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의 전부다.

유옥자는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초등학교 졸업 후에 공주읍내에 있는 직조 공장에 취직하여 22세에 결혼하기까지 직장을 다녔고 번 돈은 모두 가족을 위해 썼다. 22세에 계룡면의 정규성과 혼인하였다. 정규성은 당시 운전기사로 일했는데 처음 본 순간 남자의 모습이 하도 멋져 망설이지 않고 청혼을 받아들이고 일사천리로 혼인식을 올렸다고 한다. 신접살림은 공주시 쌍신동에 차렸고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다.

가난이 싫었던 유옥자는 결혼 후에도 직조 공장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 다행히 직조의 일은 젊은이들이 하지 않으려 하는 어려운 일이고 보니 회사에서 나가지 않기를 바랐고, 가난을 면하고자 했던 유옥자는 50대까지 직조 공장에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50대에 이르러 집안 경제가 안정을 찾고 자녀들의 교육이 끝나면서 생활의 여유를 찾았다.

직장을 정리한 유옥자는 쉽고 돈이 들지 않는 예술 활동을 찾다가 농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공주시 산성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물놀이 앉은반 풍장을 송성빈에게 배웠으며 이때 그녀는 상쇠를 공부했다. 송성빈의 앉은반 사물놀이 수업은 그녀에게 잠재되어 있던 흥을 일깨웠다. 이에 만족할 수 없던 유옥자는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의 선반과 앉은반을 병행하는 유재열을 찾아가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때 역시 상쇠였다. 그녀는 잠시 경기민요를 공부하기도 했다. 경기민요를 하는 묵계월에게 사사한 남은혜가 공주에 내려와 경기민요 교실을 열었을 때 수강을 하며 경기민요를 배웠으나 맑고 높은 청을 따라가기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였다.

농악을 배우기 위해 찾은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녀는 여러 가지 예술을 만날 수 있었다. 노래 교실, 서예 등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당시 공주시 시조협회 회장 김장희가 지도하는 시조창이 특히 마음에 끌려 2000년에는 시조를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적어 석암제와 내포제를 동시에 배워 나갔다. 그러

나 같은 시조이면서도 시김새와 가락이 완연히 다른 두 가지 시조를 동시에 배우는 것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석암제만 지도하는 송춘자의 문하로 들어가 석암제를 공부하였고 2005년에는 윤복수에게 다시 석암제를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다.

석암제 시조만 공부하던 유옥자는 내포제 시조 특강에서 예산의 김경태와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내포제 시조의 예능보유자인 김원실을 만나 다시 내포제 공부를 시작하여 지금은 내포제 시조만 부르고 있다.

유옥자는 스스로 공부하는 힘이 매우 좋은 사람이다. 시조를 배우러 김경태, 김원실 등을 찾아갔을 때 회원들 다수가 연습하는 공간이어서 집중도가 떨어지고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 실질적인 연습을 잘 하지 못했다. 연령이 높은 노인들 중심으로 모이는 모임이라서 앞으로도 개선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자 그녀는 선생에게 기본을 배우고 나서 시조창 악보집을 놓고 스스로 공부하는 데 진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같은 시기에 공부를 시작한 동료들보다 단연 높은 실력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는 공주를 비롯한 충남 각지의 시조 경창대회에 출연하여 을부, 갑부, 명인부 대상을 차례로 수상하는 결과를 얻게 했다. 그녀는 자신을 시조의 세계로 입문시킨 공주시 주민복지센터에서 현재 내포제 시조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시조협회의 지부장을 맡아 본격 활동에 나서면서 회원들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다. 노인들이 주축인 시조회에 젊은이들을 영입하는 것은 쉽지 않았으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물심양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2~3년 전만 해도 10명에서 15명 정도였던 회원은 2019년 현재 25명에 이르고, 이 중 20여 명의 회원들은 열심히 공부하여 매년 1회 실질적으로 정기발표회를 개최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으며, 2019년에는 공주시 백제문화제에서 처음으로 시조회 회원들의 작품만으로 시조창 공연을 개최하여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유옥자는 현재 충남 각지에서 열리는 내포제 시조 경창대회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시조를 하면 폐활량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얼굴이 쫘악 펴지고 주름이 적어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시조 배우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제가 어떻게 그만두겠어요. 힘이 닿는 대로 공부를 계속하고 공주가 내포제 시조의 중심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참입니다."

2000년도 늦깎이로 시작한 시조가 그녀를 참으로 많이 바꾸었으며 자신의 인생을 여유롭게 하였다는 점에서 유옥자는 자랑을 그치지 않고 있다. 그녀의 경험이 말하듯이 시조창 소리꾼의 생활이 예술적 가치는 물론이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그녀가 공주를 위해 작창한 시조 〈공산성〉이다.

공산성 성곽 따라 백제 숨결 흐르도다.
금빛 물결 너울너울 제 곁을 지켜 주네.
찬란한 세계유산 공주 꽃이 피도다.

| **김영대**(1941년생)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 |



범패 음악과 고청염불

김영대(법명 범진)는 1941년생이다. 독립기념관에서 가까운 천안 석남면에서 아버지 김재봉과 어머니 고순득의 사이에서 7남 5녀 중 3남으로 출생하였다. 당시 아버지는 드물게 건축업을 하는 사업가였으며, 돈을 벌어 농지를 많이 구입하여 머슴을 두고 농사도 짓는 유복한 가정을 꾸렸다. 아버지는 가정교육을 매우 엄하게 한 사람이었다. 언제나 어른들에게 예의 바른 자식으로 성장할 것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쓸데가 없다는 말로 독려하곤 했다. 이런 연유에서 김영대는 학교에 갈 때 학용품이

떨어져도 아버지에게 학용품 살 돈을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했다.

그의 어머니 고순득은 상냥하고 활달한 여성이었다. 언제나 말에 유머가 있었고 자식들에게 자애로웠다. 남편이 사업을 하며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서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었지만, 머슴들을 조리 있게 부려 농사일로 남편이 속을 썩는 일이 없게 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면서도 자식에게는 엄한 면이 있었다. 어린 영대가 빵을 먹고 싶어서 집 근처에 있는 빵집 앞을 지나다가 널판에 있는 팥고물(앙꼬)을 긁어 먹었는데 돈은 내지 않고 남의 것을 먹었다 하여 매우 심한 회초리를 대기도 하였다.

김영대가 기억하는 어머니는 현명하고 여유가 있으면서도 사리 분별이 또렷한 여성이었는데 불행하게도 그의 나이 8세 되던 해 39세로 여러 자녀들을 남겨 놓고 일찍 죽었다. 아버지가 사업차 집을 비웠을 때 감기에 걸려 머슴이 사다 준 약을 먹었는데 듣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집안에 아편을 재배하여 조금씩 먹어 잔병을 고쳤던 경험으로 몸살감기에 아편 몇 잎을 먹었는데 그것이 잘못되어 손도 쓰지 못하고 타계해 버렸던 것이다.

어린 김영대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충격을 받았는데, 후에 문득문득 죽음을 생각했다 한다. 천안에서 제일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광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대광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나중에 서울 배문고등학교로 옮겨 졸업했다. 이때까지 아버지의 사업이 순탄하였는데 대학에 들어갈 즈음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사업이 흔들려 대학공부를 하지 못할 위기가 찾아왔다. 그때 그는 과감히 현실을 인정하고 고학으로라도 공부를 계속할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벽돌공장에 들어가 벽돌도 찍고 신문을 돌리기도 하여 돈을 벌어 대학공부를 계속하였다.

김영대가 머리를 깎고 승가에 입문한 것은 대학 재학 중일 때였다. 다행히 아버지의 사업이 정상을 회복하여 편하게 대학을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불심이 돈독했던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출가하여 스님이 되면 어떠겠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내용은 이랬다. 아버지가 불자이면서 살림이 넉넉하여 많은 승려와 교분이 있었는데 천안 일봉사의 주지이면서 서울에 개인 사찰을 가지고 있는 스님이 찾아와 처사의 집에서는 중이 나와

야 한다고 하면서 “그동안의 업보를 씻기 위해 아들 중 하나를 출가시키면 나머지 가족들의 앞날이 환해질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려운 일이 중중할 것입니다. 불가에 인연이 있는 자식도 있으니 의중을 물어 결정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때 지목한 사람이 아들 영대였다. 이 말을 들은 김영대는 당황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당연히 할 말을 이제 하시는구나 싶어 단번에 출가하겠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는 기다리지도 않고 당장 상경하여 용은사로 출가하였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범패를 배우기 시작했다. 범패는 어장과 유천학에게 배우기 시작하여 일현의 정식 제자가 되었으며 이때 공주 마곡사에 승적을 두었다. 그와 일현의 인연은 이후 30년 동안 계속되었고, 이 인연으로 능인정사와 세검정의 소림사에 주지로 활동하기도 하였으며 마곡사의 총무로 봉직하기도 하였다.

마곡사에서 승려 생활을 계속하던 그는 마곡사 주지 선거에서 파벌이 갈려 다투는 모습에 회의를 느끼기도 하였다. 더구나 그가 추대했던 승려가 주지에 낙선하면서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마곡사에 승적을 두었지만 마곡사에서 사오백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사가의 건물을 구입하여 〈효심원〉 선방을 차리고 거기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염불승으로, 범패 예술에 능한 예승으로 이름이 높아졌다. 전국 어디나 부르는 곳에 가 염불을 해 주는 일을 큰 소일로 삼았다. 자유로운 천성을 살려 그림을 그리고 박동진 이생강 등과 교분을 쌓으며 속가의 예술인들과 함께 공연하기도 하였다.

2019년 그는 부여군의 백제문화제 중 삼천 궁녀의 원혼을 달래는 수륙제 봉행 시 오전 10시부터 밤 8시까지 10시간 동안 끊임없이 염불을 했다. 본디 여러 명의 승려를 초빙하여 교대로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다른 승려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혼자 10시간 염불을 수행하였다.

그는 고청염불에 대한 아쉬움을 풀기 위해서 고청염불을 배우고 싶어 하는 제자를 모으고 효심원에서 1주일에 하루, 매주 토요일 고청염불 무료 강좌를 시행하고 있다.

그가 함께 활동한 예술인들은 판소리의 박동진, 피리의 이생강, 학춤의 김덕명, 경기민요의 김영림 등이다. 절에 매이지 않은 그는 자유로운 생활 속에서 서도창을 익히기도

하였으며 시조를 공부하기도 하여 이들 예인과 공연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 인기가 좋았다. 이 과정에서 〈불경 각설이 타령〉을 작창하여 불렀다. 속가 소리 각설이 타령은 흥겹고 대중에게 인기가 많은 노래지만 내용이 없어서, 그 그릇에 불경의 심오한 진리를 담아 부르면 포교에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만든 노래다.

팔만대장경의 신수만 뽑아서 진리로 담아내고 싶었다는 그의 불경 각설이 타령이 알려지자, 그것 외에도 자신의 인생을 노래하는 자칭 〈허튼 소리〉를 만들어 불렀다. 그러면서 "소리꾼이라면 어떤 음악이나 가리지 않고 속에 든 소리, 애원성을 혼을 다해서 뱉어내는 소리라야 하는 것이다. 감동이 없는 소리는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허허 웃었다.

| **윤복수**(1935년생) 공주시 신관동 |



공주지역 고 시조창

윤복수는 1935년생으로 청양군 목면 신흥리에서 칠곡윤씨 집안의 아버지 윤종규와 전주이씨 덕천군파의 어머니 이원순 사이에서 4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평생의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이었던 윤복수의 인생에서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사람은 아버지였다. 1894년경 출생한 아버지는 평생 농사만 지었고 전답 50여 마지기(1만여 평)를 지어 마을에서 부자 소리를 들었지만 자식의 훈육에는 엄격하면서도 인생은 남을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어도 언제나 책을 가까이하는 생활을 하였고 지인들과 더불어 시조창을 즐겨 불렀다. 훗날 교직을 마치고 시조에 열정을 쏟게 된 것도 아버지가 부르던 시조에 대한 추억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21세의 이른 나이에 청양군 대치면 평산리에 거주하던 강순구를 만나 혼인을 하여 4남 2녀 6남매의 아들딸을 낳았다.

윤복수는 1968년도부터 1999년까지 31년 동안 초등학교 교사로 봉직한 사람이다. 당시 사범학교를 나와 초임으로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에 있는 사양초등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한 후 1999년 공주시 의당면 수촌초등학교에서 정년을 맞기까지 31년 동안을 성실함으로 교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재직 시 오직 학교와 학생만 바라보며 생활하여 예술이나 취미 생활에 대한 시도 없이 삶을 살았다 한다.

그러던 그가 퇴직 후, 아버지가 즐겨 부르시던 시조창이 생각나 관심이 갔고, 2004년에 공주 시조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기적인 연습을 시작하면서 시조창에 입문하였다. 당시 공주 시우회에서 시조를 가르친 사람은 공주시 우성면 출신의 남창 김영준과 여창 송춘자였다. 김영준은 통음으로 도와 솔의 음계에서 내는 평성을 중요시하여 공주·청양 지역에서 널리 불리던 고재의 시조를 품위 있게 하는 사람이었고, 여창 송춘자는 곱고 맑으며 높은 청을 부드럽게 내는 재주가 좋아서 생전에 공주 시우회의 오랜 강사로 활동한 사람이다. 김영준은 대전으로 이주한 후 연락이 끊겼고, 송춘자는 노환으로 별세하였다.

윤복수는 창으로의 시조를 부르는 것에 대한 공부 못지않게 시조의 역사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한 덕분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학교에서 남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으니, 시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하였으며 어떻게 변화하여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알고자 했다. 그러기에 자신이 부르는 시조는 류파가 어떤 것이며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연으로 지은 시조인지를 알고 부르려고 노력하였다.

그가 말하는 우리나라 시조는 '조선조 영조 때 신광수의 문집 〈석북집(石北集)〉에 시조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고 시조에 장단을 처음 붙인 사람은 이세춘'이라고 한다. 이 기록에는 가락은 없고 악부만 전수되는 형식으로 전래되다가 순조 때에 이르러 〈임원경제지

〉 중 유예지에 정간보로 그려진 시조 악보가 수록되어 가락의 형식이 세상에 등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시조는 지금처럼 여러 종류로 나뉘지 않고 서울과 그 인근의 선비들이 부르는 〈경재〉와 기타 지방에서 부르는 〈향재〉로만 전승되었다. 이 시절의 시조는 단조로워서 음계로 보아 도에서 솔의 음역에서 소리를 하였고 세성(細聲)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주 드물게 사용하고,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한다.

이렇게 전승되던 시조는 한국무형문화재 41호 정경태 선생이 선율선 시조를 만들었으며, 식음새(시김새)를 넣어 멋스럽게 하였다. 이는 율요상조법으로 식음새가 화려한 것이 특징인데 1973년 초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내포제 시조는 식음새가 적으며 세음이나 가성을 쓰는 것이 단조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공주에 내포제 시조를 알려 가르친 사람은 청안 목면 출신으로 공주시 대통교 앞에 살았던 김인성이고, 이어 김화자가 잠깐 가르쳤으나 김인성은 대전으로 이사를 가고 여인숙을 운영하던 김화자는 사망하였다 한다.

윤복수의 이러한 공부는 지역에서 시조를 가르치는 선생들이 시조 자체만 음악으로 가르칠 뿐 시조의 뿌리와 현대 공주 시조 문화의 흐름을 모르는 상태라서 누가 물어도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 자신이 찾고 공부하고 기록하였다.

2004년 시조회 회원이 되었음에도 윤복수는 2007년 10월 대한시조회 아산시지부가 개최한 전국 시조경창대회에서 명인부 금상을 수상하고, 예산군 지회에서 개최한 전국 시조경창대회에서는 국창부 1등을 수상하였으며 충북 제천의 전국시조가사경창대회에서는 대상부 1등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리고 대한시조회 공주지회의 지회장을 역임하면서 공주에서 시조 강사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유옥자, 강미자 등에게 넘겨주고 평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복수 시조의 가치는 1980년대 이후 공주에 유입된 현대 시조 석암제와 내포제가 주를 이루고 1970년대 이전에 공주의 선비들이 즐긴 공주의 고시조 예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 뿐만 아니라 석암제와 내포제, 그리고 공주 일원의 향재 시조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시전하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그도 공주 청양의 향재 시조를 부르지 않았으며, 그가 부르는 향재 시조는 스승을 정하여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부르던 시조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듣고 성장하면서 자신의 몸속에 쌓인 것에 시조를 공부하면서 석암제 이전 소리 특성을 분석하고 악보를 보면서 부르는 소리라고 고백한다. 그럼에도 자기가 부르는 시조창은 예전의 충청도 선비들이 여가 소일로 한가롭게 부르면서도 품위가 있는 향토 소리하고 한다. 그리고 어떤 시조를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고 다만 인생을 살면서 평온한 마음과 성실한 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런 바탕 위에 열심히 공부하며 즐겁게 창을 배우고 부르는 것이라고 한다.

| **모동진**(1936년생) 공주시 유구읍 추계리 |



유구 향토 민요의 보물

모동진은 1936년 생으로 서산 해미에서 출생한 아버지 모남순(1915년)과 어머니 최연순(1919년)의 사이에서 1남 1녀의 외아들로 태어났다. 어린시절 그는 삶이 험난했다.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사망하면서 집안이 크게 흔들렸고, 해미에서 사는 것이 어려워진 어머니가 유구읍 추계리로 이주하면서 현재 사는 마을에 들어왔다. 그의 나이 불과 12세였을 때 일이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거의 없고 10세 이전에 사망하였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정확히 그가 몇 살 때 사망하였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6세 이전의

일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고를 찾아 추계리로 이주한 것도 아니어서 아는 사람도 없는 타동이었다. 이 마을에서 모동진은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일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다. 두레에 든 것도 17세 때였고 넓지 않은 논농사를 지었지만, 자신의 전답에 농사를 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레 쌀로 받는 품삯이 더 소중한 시절이었다.

어머니 최연순은 남자처럼 살았다. 아들딸이 아비 없는 자식이라 싹수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여 외동아들에게는 매우 엄한 어머니였지만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도 남매를 한 끼도 거르지 않게 하였으며, 죽이나 나물밥 등의 악식(惡食)도 먹이지 않으려 노력하였다.

추계리에서 성장한 모동진은 유구 읍내에 사는 최찬예와 혼인을 하여 1998년경에 이혼을 하였다. 이혼한 사유에 대해서는 끝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 알 수 없었지만, 그들 부부에게는 이미 2남 3녀의 아들딸이 있었던 터여서 홀로 된 모동진은 자식들을 돌보며 사는데 진력할 수밖에 없었다.

두 아들은 현재 제주도에 정착하여 부유하게 살고 있으며 세 딸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는 까닭에 지금 그는 혼자 살고 있는데 유구에 사는 여동생 모동예와 그의 장남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모동진을 돌보고 있다.

모동진이 성장한 추계리는 민속문화가 매우 성행한 마을이다. 이 마을에서 활동한 1934년생 황창호는 상여 행상소리와 묘터 다지는 달궁소리에 능하여 인근 마을에 불려다닌 소리꾼이었고, 두레 논매는 소리는 최재영이 잘하였다. 공주 사람들이 최근 많이 부르는 공주엮음 아리랑이 「신세타령」이라는 제목으로 채록된 것도 이 마을이며 이소라 선생의 한국의 농요에 「산아지」 소리라 하여 지금의 공주 잦은아리랑이 채록된 마을이 추계리다.

이러한 민속 판에 모동진은 어려서부터 함께할 수 있었다. 아버지가 없는 집안의 이른바 소년가장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두레 공동작업에 참여해야 했고, 일판에서 부르는 어른들의 노래를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의 기억력이 좋지 않아

서 그가 부르는 소리들이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배움으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소리를 들었는지를 알아 계보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인데 기억하지 못하여 안타깝다.

현재 모동진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2018년 지병으로 쓰러져 죽을 고비를 맞이했다가 소생하였으나 노환과 겹쳐 생활이 불편한 정도고, 부르는 노래도 힘이 없고 가사가 오락가락하여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과거의 그는 마을의 농요와 유구읍 석남리 수촌마을 서낭제 고사의 축원소리, 상여 행상소리, 창부타령 등 매우 가치 있는 향토 민요를 부르는 사람이고 노래를 썩 잘했다.

모동진에 대한 조사는 2017년 7월 추계리 경로당에서 시행되었다. 조사원 이걸재에 의해 시행된 당시의 조사에서 모심는 소리, 상여 행상소리, 석남리 수촌마을 서낭제 고사 축원소리 등을 채록하였고, 노랫가락 청춘가 신세타령(공주 엮음아리랑) 등의 놀이 소리를 잘 부르며, 농사 일소리로 모심는 소리와 자리개질 소리, 꽃나비질 소리를 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마을의 농요로 못자리 만들 때 번지질 소리, 논두렁 고치는 말뚝 밖는(치는) 소리, 가래질 소리는 마을에 있었으나 배우지 못했다고 하였다.

앞서 기록한 농요는 매우 소중한 노래들이다. 유구 지역에서 채록된 타 농요가 없으며 모동진은 다른 놀이판이나 취미 교실 등에 전혀 나가지 않은 사람이라서 향토 민요의 변형이 없이 순수한 마을의 전통 전래 소리들이기 때문이다. 그의 노래 채록은 추계리 논매는 소리, 추계리 상여 행상소리. 석남리 수촌마을 서낭제 고사 축원소리, 창부타령 등이다.

보령시

| **김성준**(1940년생) 보령시 오천면 고대도리 |



고대도

김성준은 김해김씨로 조상이 인접한 섬인 삽시도에 거주하고 조상묘도 삽시도에 있는 바람에 인근 섬과 인연을 갖고 태어났다. 고대도에는 고조부가 이주하여 거주하였다. 아버지는 이웃 안면도에 살던 처녀와 결혼하여 2남을 낳았는데 그 중 차남이 김성준이다. 김성준은 같은 섬에 거주하고 있는 최씨 처녀와 혼인하여 2남 2녀를 낳아 길렀는데 결혼 직후에 낳은 자녀 3명은 열이 올라가는 경기로 잃고 말았다. 이후에 낳은 자녀들은 무사히 성장하여 대학교육까지 마치고 모두 결혼했다. 현재 고대도에는 김성준 부부만

거주하고 있다.

그가 자랄 때 고대도에는 학교가 없었다. 교사가 발령을 받아 왔는데 학교가 없기 때문에 10여 명의 학생들이 부잣집 사랑방을 전전하면서 공부하였다. 그러다가 3학년에 이르러서는 이웃 삽시도에 있는 친척집으로 가 삽시도의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6·25전쟁이 일어나서 고대도로 다시 들어와 사랑방을 전전하면서 5학년까지 공부하였다. 그때 교실은 없었어도 교사들은 열심히 가르쳤다. 하길남, 이준학이 고대도라는 외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고대도 주민들이 정식으로 학교에 다닌 것은 현재 60대 나이를 가진 사람들부터다. 그들부터 정식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도 진학할 수 있었는데, 중학교는 모두 주포면에 있는 보령중학교에 진학하였다. 그러나 주포에서 하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잘 사는 집 몇 명만이 중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근래 고대도에 가장 발달했던 것은 김양식이었다. 고대도의 환경이 김 포자를 붙이기 가장 알맞은 곳이라, 보령 각 지역의 김양식 하는 사람들, 특히 주교면 은포리 사람들이 고대도에 와 포자를 붙였다. 음력으로 8월 중순, 추석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은 김발을 가지고 고대도에 와 포자를 붙였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고, 고대도 서쪽 갯벌에 김발을 늘어놓는 것이다. 김 포자는 10월이 되면 육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컸고, 보이지 않아도 그 이전에 모두 가져갔다. 고대도에서 붙이는 포자는 자연산으로 맛이 좋았다. 고대도어촌계는 포자 붙이는 대금을 받아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

김양식을 위해서는 먼저 대나무를 잘라 발을 엮어야 한다. 대나무는 6자 크기로 잘라 쪼개어 100쪽을 엮으면 1떼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음력 8월 중순에 갯벌에 말뚝을 박고 설치하면 김의 포자가 붙고 성장하게 된다. 이후 음력 10월이 되면 김이 자라고, 자라는 대로 채취하게 되는데, 대개 3번 채취할 수 있다. 김은 언제나 채취하는 것이 아니다. 사리 때가 되어야 채취할 수 있고 조금 때는 채취할 수 없는데 대개 3매 날부터 채취하기 시작한다. 김살을 매는 것도 한 사람이 높은 곳과 낮은 곳에 매도록 한다. 물이 많이 빠지지 않는 때는 위쪽의 김살에서 채취하고 아래쪽의 김살에서는 사리 때 채취한다. 김이 잘 자라는 곳은 깊은 곳이다.

김을 뜯어오면 바닷물로 깨끗이 빤다. 김 바구니에 넣고 문질러서 빤다. 이후 민물로 닦아서 바닷물을 완전히 빼야 한다. 바닷물이 남으면 김을 떠도 상품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고대도에서는 김을 섞은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씻은 김을 김발에 올려놓고 손으로 펼쳐 만들었다. 김을 말릴 때 낮에는 김이 겉으로 나오게 말리지만 밤에는 김이 속으로 들어가게 거꾸로 널어놓는다. 말린 김은 손질하여 100장씩 묶어 내다 판다. 한겨울이 되어 김이 성숙하면, 하얗게 변하게 된다. 대개 음력설 지나기 전에 변한다. 이것을 고대도 주민들은 '도다'라고 하였다. 도다가 돋으면 우선 색깔이 하얗게 될 뿐 아니라, 깔깔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졌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김발을 내려 갯벌에 붙여놓기도 하였다. 갯벌에 붙어 햇빛을 보지 못하면 다시 윤기 나는 검은 색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많이 할 수도 없고, 힘들고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보통 염산을 처리하였다. 가끔 염산처리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도다가 나기 때문이다.

고대도의 샘물은 예부터 벙어리도 3년만 먹으면 말을 한다 할 정도로 좋기는 했지만 전 주민이 양식하는 김을 빨아내는 데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그래서 샘물을 확보하는 것이 큰 문제였다. 밤에 기다렸다 물이 나오는 대로 떠 오고, 앙타리라고 하는 갯벌에 솟는 민물을 길어오기도 하였다. 앙타리에는 갯벌 속에서 민물이 솟는데, 바닷물이 나갔을 때 갯벌을 파 샘을 만들고, 물을 길어오는 것이다. 물을 확보하는 것도 힘든 일이었다.

고대도의 굴은 유명하였다. 섬의 남동쪽에 굴밭이 넓어 겨울이면 많은 굴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판로가 문제였다. 육지와 통할 수 있는 것은 5일마다 다니는 장배뿐인데, 5일 동안 두었다가 생굴로 팔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고대도에서는 굴을 따면 바로 소금으로 절였다. 이것이 오래되면 굴젓이 되는 것이다. 이때 소금만 넣고 다른 양념은 하지 않았다. 조개(바지락)도 마찬가지였다. 생으로 깐 조개를 소금으로만 젓을 담갔다. 고대도의 굴젓과 조개젓은 소비자가 사다가 취향대로 고춧가루를 넣고 양념하여 먹었다. 최근에도 고대도에는 많은 굴과 조개가 있어 마을 주민들이 다 처리하지 못할 정도이다. 요즈음은 매일 객선이 다니기 때문에 객선을 통하여 생굴과 살아있는 바지락을 출하한다.

고대도에서 소라는 많이 잡히지 않아 집에서 먹으려고 젓을 담갔다. 소라젓은 생으로 껍질을 깨고 소금으로만 젓을 담그는 것이다. 젓이 익으면 양념을 해 먹는다. 대숙도 마찬가지다. 대숙은 모아놓고 여러 개를 한 번에 두드려 깨고, 물에 씻어 살만 골라내어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 젓을 담근다. 양이 많지 않아 가정에서 먹기 위해 젓을 담갔다.

고대도의 주벅은 섬 남쪽 선바위 아래에 맸다. 이곳은 물살이 세고, 사리 때도 노출되지 않는 곳이다. 약 10틀 정도 맸는데 옛날부터 소유자가 있어 후손에게 전해졌고 매매되었다. 김발처럼 어촌계에서 추첨하는 것이 아니었다. 김성준은 할아버지가 하던 것을 아버지를 거쳐 물려받았다. 주벅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필요한데, 고대도에서는 이 배를 '무뚝선'이라고 불렀고 두세 집이 배 하나를 운영하였다. 주벅은 양쪽에 큰 나무기둥 2개를 세우고, 자루 같은 그물을 설치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어려운 것은 기둥을 세우는 일이다. 기둥은 육지에 나가 주로 중나무나 참나무를 구해다 쓴다. 중나무나 참나무가 크고 길고 튼튼하기 때문이다. 중나무를 구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육지에 나가 사왔는데, 중나무는 대개 울타리 속에 있어 베기도 어려웠다. 그리고 나무 기둥도 낮은 곳에는 좀 작은 기둥을 세웠고 깊은 곳에는 굵고 긴 기둥을 세웠다. 나무를 잇기도 했다. 나무기둥 하나를 바다에 세워놓기 위해서는 큰 돌망태 3개에 돌을 가득 채워 바다에 넣고 기둥을 묶어 매야 하는 것이다. 돌망태 3개가 있어야 기둥이 한 곳에 고정된다. 이때 돌망태는 굵은 동아줄로 망을 만들어 돌을 떠다가 채워 밀어 넣는다. 당시 바닷가에는 큰 돌멩이도 없어 지렛대를 가지고 바위를 깨어 모았다가 사용하였다.

나일론실이 나오기 전에는 육지에 나가 목실을 사다가 그물을 만들었다. 주벅에 사용하는 그물은 긴 그물 여러 개를 이어 붙여 만드는데, 목실을 이용하여 일단 긴 그물을 만들어 솥에 골탄과 함께 넣고 끓였다. 골탄은 시커먼 기름으로 끈적끈적하였다. 끓여낸 그물을 여러 개 이어 붙여 긴 자루처럼 만들어 주벅의 나무기둥에 매다는 것이다. 이 작업을 하려면 손이 기름으로 범벅이 되었다. 이런 작업은 매년 반복되었다. 주벅철이 끝나면 그물을 떼어내어 해체하고, 철이 되면 다시 골탄과 함께 삶아 이어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물을 오래 쓸 수 없었다. 당시 그물의 길이는 30발, 입구의 폭은 10

발 높이는 7발 정도 되었다. 고대도에서 주벅으로 가장 많이 잡은 고기는 딩퍼리라고 하는 등이 푸르고 납작한 작은 고기였다. 이 고기는 어찌나 많이 잡혔던지 말리는 것이 문제였다. 고대도에는 말릴 공간이 없어 장고도나 멀리 안면도까지 가서 말려다 사료용으로 팔았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 젓거리로 팔기도 하였다. 딩퍼리는 국물을 내면 맛이 최고였다. 멸치보다도 맛이 좋았다. 이런 딩퍼리가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고대도에는 2집이 주벅을 맨다. 현재 고대도에는 두 집이 주벅을 맨다. 명칭은 옛날대로 주벅이라고 하는데, 방식은 크게 개선되었다.

고대도의 당제는 마을에서 추렴을 해서 지냈다. 추렴을 하고, 정(淨)한 사람으로 당주를 정하면, 당주가 광천장에 나가 큰 소를 사오고 제물을 마련하여 정월 초사흗날 지냈다. 제를 지내는 날이면 소를 끌고 당샘인 웃샘에 가서 목욕을 시킨 다음, 당집 앞 큰 나무 있는 곳에서 잡는다. 소고기를 지숙이라고 하는데, 지숙을 사용하고 당제를 지내고, 당에 오른 뱃기에 길지를 매어주면서 지숙을 나누어준다. 이때 지숙을 받은 선주들은 힘껏 뛰어서 배에 올라 뱃기를 꽂고 지숙을 구워 뱃고사를 지낸다.

고대도 마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가 해안에 잘 가꾸어진 산소가 있고, 비석에는 '전주이씨 미륵왕할머니지묘'라고 씌어있다. 이 할머니의 후손이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었는데 모두 이 미륵왕할머니와 묫자리 덕분이라고 믿어 산소를 단장하고 비를 세웠다고 한다. 고대도에서는 보통 외지에서 죽은 사람은 집안으로 들여오지 않는 풍습이 있었다. 그래서 외지에서 죽어 시신을 배에 싣고 들어오면 상엿집 밑, 장벌에 천막을 치고 시신을 안치했다가 장례를 모셨다.

고대도에도 해막이 있었다. 해막은 옛날 당제 지내는 기간에 출산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집이었다. 고대도도 당제를 엄격하게 지냈기 때문에 당제 기간에 출산을 하면 부정한 것이 되어 큰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당산과 마을이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 집을 짓고 당제 기간에 출산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 고대도의 당집은 마을 남쪽, 현재 미륵왕할머니 산소 옆에 있었다.

| **김성용**(1936년생)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



녹도

김성용(金聲龍)은 경주김씨로 원래 아산 지역에서 거주하였는데, 증조부가 아들 둘을 데리고 대천으로 이주하였다. 이후 대천에 거주했는데, 녹도로 들어온 것은 김성용의 할아버지다. 당시 녹도는 조기가 많이 잡혀 많은 배가 드나들었고 그의 집안에서 운영하는 양조장이 번창하였다. 머슴을 2명이나 둘 정도로 잘 살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양조장도 그만두었다. 아버지는 6남매를 두었고 병약한 관계로 큰일을 할 수 없어 살림이 어려워졌다. 이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녹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녹도에서 성장하였다. 이후 녹도 처녀와 결혼하여 살았다.

녹도에는 논은 없고 밭농사만 지었다. 밭에는 보리를 주로 심고, 조 수수 등을 심었는데 부자라고 해야 보리 7~8가마를 생산하였다. 김성용 집안은 밭이 없어 주인 없는 땅에 보리를 심어 2가마도 안 되는 보리를 수확하였다. 녹도에는 1950년 무렵 고구마가 들어왔다. 예전에는 보리의 뒷그루로 조를 심었는데, 고구마를 심고서부터 배고픔을 면할 수 있었다. 녹도에서는 모시를 심지도 않고, 길쌈을 하지도 않는데 자연적으로 모시가 자라고 있다. 현재도 무성하게 자란다. 그는 옛날에 생활이 어려워 한때 이 모시를 베어다가 껍질을 벗겨 태모시로 팔기도 하였다.

독도에서 농사지을 때 거름으로 사용한 것은 잿간변소에서 나온 재와 버무려진 인분과 생선의 대가리였다. 녹도에는 생선이 흔하기 때문에 생선대가리를 재와 버무려 말려두었다가 밭에 거름으로 주었다. 흔한 복쟁이 대가리가 거름으로 많이 쓰였다.

녹도에서는 초분을 많이 하였다. 초분은 바닷가에 만드는데 먼저 흙을 좀 높여 쌓고, 돌을 깐 다음에 대나무발로 싼 시신을 올려놓고, 양쪽에 말뚝 2개를 박아 이엉으로 둘러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때 시신은 육지에서와 같이 수의를 다 입힌다. 이러저런 이유로 녹도의 동남쪽 해안에는 초분이 많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위생상 좋지 않다고 매장을 종용하였고, 주민들도 힘을 합해서 모두 매장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초분이 없어졌다.

옛날 주벅으로 조기를 많이 잡을 때는 녹도에 돈이 많았고, 많은 화적떼들이 들어왔다. 이를 막기 위해 군인의병 4명이 들어왔다. 이 의병들이 화사리 너머에 다니는 무역선에서 벼를 빼앗았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일본 경찰이 녹도에 들어와 수색을 하게 되었다. 의병들은 숨었으나 산에서 탄피를 발견한 일본 경찰은 다음날 수색하기로 하고, 포구 밖에 배를 정박시키고 잠을 잤다. 이때 높새바람이 불어 일본 경찰이 탄 배가 포구 안으로 들어왔고, 의병들은 이 기회를 잡아 일본 경찰을 모두 죽였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군산의 일본군과 경찰이 녹도로 들어와 녹도를 모두 불태웠다. 그때 몇 사람이 호도로 건너갔고, 호도 당산에 숨었다가 일본군들이 당산에 불을 지르자, 아래에 있는 집에 뛰어들어 바느질하는 아주머니의 치마폭 속으로 들어가 살아남았다 한다. 그렇게 살아

남았다는 사람이 박덕수다. 이 인연으로 박덕수는 딸을 그 생명의 은인에게 며느리로 주었다. 그 후 녹도로 돌아온 주민들은 막집, 죽집을 짓고 거주하면서 주벅을 경영하여 다시 마을을 만들었다.

녹도에서 생산한 해조류는 돌김, 청각, 세모, 듬북 등인데, 듬북은 반드시 제사상에 올렸다. 듬북의 모양이 여러 갈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상님이 가지고 가서 주변 친구들하고 나누어 먹기 때문이라고 한다. 꼭 탕을 끓여 놓았다고 한다. 육지에서는 '뜸배기'라고 불렀는데 요즈음은 녹도에도 없고, 다른 바다에도 없다.

녹도에 주벅이 있었다. 주벅 자리 좋은 것은 논 한 섬지기하고도, 저인망 어선 1척과도 바꾸지 않았다. 녹도의 주벅은 30틀 정도 맸다. 그러나 다 같은 자리가 아니어서 어떤 주벅은 고기가 많이 들고 어떤 주벅은 고기가 잘 들지 않았다. 옛날 동력으로 움직인 주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공동으로 배를 운영하고 작업하였다. 대개 주벅을 운영하는 사람 5명이 배 한 척을 마련하고, 거기에 '군중동무'라고 불리는 일꾼과 '화장'이라고 불리는 배를 챙기는 사람을 고용하게 된다. 그러면 주벅 다섯 개당 두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녹도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용되어 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였다. 주벅 일은 항상 주인 다섯 명과 고용된 두 명의 일꾼, 즉 일곱 명이 일하는 것이다.

주벅은 한식 전에 넣어 민딩이, 황복부터 잡았고, 이어 반지, 갈치가 들었다. 주벅은 항상 한식 전에 넣었다. 주벅에 처음으로 잡히는 고기는 민딩이다. 민딩이는 배가 매끈한 복어로 독도 없었다. 다음으로 한식사리에 들어가는 것이 황복이었다. 황복은 다량으로 잡혔는데, 굉장히 컸고 많이 잡히면 한 주벅에 대여섯 바지게가 들었다. 복어가 끝나면 반지가 들었다. 큰 반지는 기름이 있어 가공하기가 어려워 버리기도 하였고, 작은 반지는 기름이 없어 말려 팔았다. 다음으로는 갈치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들어오는 갈치는 대형으로 머릿갈치라고 불렀고, 다음에 들어오는 보통 갈치를 쇠재비갈치라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작은 갈치를 풀치라고 하였다.

옛날 녹도에서 조기가 잡힐 때도 조기는 곡우사리 때, 한 사리만 잡혔다. 이때 많은 조가가 잡혔는데, 주벅이 녹도 마을의 앞이기 때문에 배가 들어오지 않아도 많이 들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조기가 많이 들면, 흥이 난 어부들이 노래를 불러가면서 조기를 배에 퍼 담았고, 온 하늘에는 갈매기들이 난동하였다. 마을에서는 이 광경만 보고도 조기를 많이 잡았는지 알 수 있었다.

조기를 잡던 시절에는 주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잡고기는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조기를 잡았다. 작은 전마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모두 주낙으로 조기를 잡은 것이다. 얕은 바다에서 조기가 사라지면 깊은 바다로 이동하여 조기를 잡았다. 깊은 바다를 '두멍'이라고 불렀는데 어청도두멍, 외연도두멍 등이 있었고, 외연도 꾀꽈리와 달배 사이에 있는 두멍에서 주로 잡았다. 주낙으로 잡은 조기는 바로 절여 팔았다.

녹도 주민들은 주변에 있는 무인도나 간조 때 드러나는 바위너덜에 가서 조업하기도 하였다. 이런 곳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아 많은 어획을 할 수 있었다. 무인도에 가는 것을 '외도 간다'라고 하였고, 간조 때 드러나는 바위너덜에 가는 것을 '여라루'라고 하였다.

녹도의 당제는 1981년도까지 지내고 폐지되었다. 당제를 지내는 데 가장 어려운 점은 당주를 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주가 되면 많은 금기사항을 지켜야 되고,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원망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는 1년에 2번 지냈다. 첫 번은 이월 10일경에 '도신제'라는 제를 지내고, 추석에 또 한 번 지냈다.

당주가 장을 보러 갈 때는 장배를 타지 않고, 배를 내어 깃발을 달고 가서 제에 필요한 물건을 사 온다. 과거에는 소를 잡아 지냈는데 1970년대 초부터 소는 잡지 않고 간략하게 지냈다. 제는 남자들이 주관해서 지내는데, 당집에 떡방아를 찧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당주 집에서 떡방아를 찧어 쌀가루를 가져다가 당집에서 쪄 올린다. 나머지 제물도 모두 당집에서 만들어 올린다. 이때 물은 언덕 너머에 있는 물을 길어다 사용하였다.

녹도는 물이 특히 부족하여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에는 모두 샘을 만들었다. 마을 쪽에 아홉 개, 언덕 너머에 한 개 등 모두 열 개의 우물이 있었으나 물은 부족했다. 날이 가물면 각 샘에서 물을 긷는 순번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 물을 떠가게 했다. 물이 부족해서 두레박으로 바닥을 훑어야 했고, 이것을 '물 따른다'라고 말하였다. 과거 언

덕너머에 있는 샘이 마을에서 멀기는 하지만, 수원이 좋아 이 물로 빨래도 하고, 길어다 먹기도 하였다. 지금은 이곳에 샘을 파고, 이보다 위쪽에 270m의 지하수를 개발하여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 해수면 이하에서 나오지만 아직은 담수로 나오고 있다.

김성용에 의하면 녹도에서 가장 오래된 방파제는 일제강점기에 쌓은 것이라고 한다. 이때도 큰 방파제를 쌓았는데 길이가 100여m가 되었다. 이 방파제는 1980년대에 방파제를 새로 쌓을 때 밖으로 옮겼다. 이후 10여 년 전에 현재의 방파제를 완공하였다. 이제 배를 접안하는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되었다. 세 번의 공사로 방파제는 완공되었으나 여객선을 접안하기는 어렵다. 방파제의 입구가 낮은 바다이고 모래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만조 때는 배를 접안할 수 있으나, 정기적으로 접안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을 초래한다. 입구를 준설하려고 해도, 모래로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메워지는 문제가 있다.

1980년대 전화가 들어왔다. 전화 한 대를 마을 사무실에 두고 관리하는 직원을 두었다. 전화를 하려면 마을 사무실에 나와 교환을 통해 이루어졌다. 관리하는 직원의 봉급은 마을에서 조금 주었다. 녹도에 정식 발전소가 생긴 것은 1997년도부터이다. 옛날에는 어유(魚油, 엇지름)라고 생선의 내장을 끓여 기름을 모아 불을 켰는데 냄새와 그을음이 많이 났다. 이후에는 냄새와 그을음이 없는 석유를 사용하였고, 1980년대 초에는 마을에서 발전기를 구입해 마을 자체적으로 발전해서 전깃불을 켰다. 직원 월급도 마을에서 주었다. 예산 부족, 기술 부족, 송전시설 미비 등으로 늘 고장이 났고, 저녁 12시까지만 전기를 공급하였다. 불만 켜고 냉장고 등은 사용할 수 없었다. 마을 앞 축대는 5·16 직후 쌓기 시작하였다. 당시 마을 사람들이 목도로 돌을 운반하고, 와이어로 망을 만들어 돌을 올려놓고 끌어다가 축대를 쌓았다.

녹도에서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생선이 있고, 못 올라가는 생선이 있다. 올라가는 생선 중 귀한 것은 조기이다. 그리고 민어 같이 고급 생선도 올린다. 주로 비늘이 있는 고기를 올린다. 그러나 비늘이 있어도 숭어는 올리지 않는다. 비늘이 없는 고기는 거의 올리지 않는데, 주꾸미나 낚지 등은 올리지 않고, 꽃게도 올리지 않는다.

| **이규인**(1928년생)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녹도 |



녹도의 산 증인

이규인은 경주이씨로 8대조까지는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에 거주하였고 거기에 선대의 묘소도 있는데, 7대조가 충남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이후 이규인씨의 선조들은 녹도에 세거하였다. 그는 충남 홍성군 고도면 하천리에서 아버지 이유신의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는 아주 약하여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3년 동안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고, 만신한테 팔면 살 수 있다고 하여 홍성군 결성면 성호리에 사는 만신한테 팔려간 뒤 집도 성호리로 이사하였다. 성호리의 만신은 당주를

12번이나 한 사람이었다.

아버지 이유신은 홍성보통하교를 졸업하고 여수 수산학교를 졸업한 당시의 지식인이었는데 수산업을 하려고 그가 8살 무렵 가족을 데리고 녹도로 들어와 생활하였다. 그래서 홍성군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를 따라 녹도에 들어와 이제까지 생활하고 있다.

1932년 녹도로 이주했는데 녹도에는 학교가 없고 서당만 있어 서당에 다녔다. 약 20명이 함께 다녔다. 당시 서당의 선생님은 오천면 오포리 가그말 출신 조용기였다. 그는 학식이 높았고 수운교를 믿는 사람이었다. 조용기 밑에서 한문을 5년 동안 배웠는데, 선생은 한문뿐만 아니라 신학문과 일본말까지도 가르쳤다. 한번은 일본 순사들이 서당에 들어왔는데, 한문책을 집어넣고 일본말 책을 꺼내놓고 배우는 시늉을 하기도 하였다. 그는 11살 때 배운 소학의 서문을 지금도 줄줄 외울 정도이다. 서당에 5년 다닌 후 신식학교에는 다니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녹도 주벅에서 고기, 특히 조기를 잡아 서해어업의 중심지가 되고, 파시가 형성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큰돈을 벌게 되자 아편을 맞는 사람이 많았다. 이규인의 아버지도 아편을 맞았다. 12살 때 이런 사실을 알고, 아편을 끊지 않으면 자살한다고 소동을 벌인 적도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려고 아편을 끊었다.

아버지가 계실 때에는 일을 하지 않다가 1946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일을 시작하였다. 우선 밭농사 580평을 지었는데 녹도는 경사가 급하고 소가 없어 모두 따비로 파서 농사를 지었다. 580평을 따비로 파는데는 보리를 갈 때는 5일, 글을 갈 때는 3일 걸렸다. 글을 갈 때는 비가 오는 계절이라 땅이 물렀기 때문이다. 밭에는 보리를 주로 심고, 글로는 스슥(조), 고추, 김장채소 등을 심었다. 보리나 스슥은 방아를 찧어야 먹을 수 있었는데, 방앗간이 없어 모두 집에서 절구통에 찧어 먹었다. 나무 절구통에 찧었는데 여자들은 절구로 남자들은 메겡이로 찧었다. 여자만 찧지 않고 남자도 찧었다. 쌀은 육지에서 사다가 먹었다. 어업도 했기 때문에 쌀을 사다가 먹을 수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어청도에서 250원을 주고 홍어배를 사서 홍어를 잡았다. 당시 배는 풍선배로 길이가 40~50자였고 돛은 3개였다. 바람만 좋으면 빨리 움직이

는 배였다. 홍어는 어청도 밖에 나가 잡았는데 주낙으로 잡았다. 미끼는 가자미를 잡아서 썼는데, 녹도에서는 가재미를 잡기 어렵기 때문에 고등어를 가지고 나가 썰어 주낙을 놓으면 가재미가 잡혔고, 잡은 가자미를 큼지막하게 썰어 홍어 주낙을 놓는 방식으로 잡았다. 아침에 가재미를 잡아 낮에 주낙을 놓고, 저녁 먹고 두어 시간이 지난 뒤 건져 올리는데 많이 잡을 때는 한 번 출어에 2동(2천 마리)을 잡았다. 잡은 고기는 법성, 줄포, 강경 등에 내다 팔았다. 강경도 들물 따라 가면 금세 갈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홍어를 잡다가 바람이 불어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녹도 사람 6명이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이때 그의 삼촌도 사망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작은 풍선배를 사서 녹도 근해에서 조기 주낙을 하고, 조기가 없어진 뒤로는 놀래미, 우럭, 갯장어 등을 잡았다. 조기 주낙은 주벅에서 잡은 밴댕이를 미끼로 사용했는데 대개 700마리 정도 잡았고 많을 때는 1000여 마리도 잡았다. 이때 조기는 외지 배들이 와서 사 가고, 우럭이나 갯장어 같은 고기는 외지배가 사 가기도 하지만, 어항에 가져다가 팔기도 하였다. 풍선배로 어항까지 오는데 바람이 좋으면 2시간, 바람이 없으면 6~7시간이 걸렸다.

녹도 근해에서 주벅 매는 장소는 대화사도와 소화사도 사이, 화사도와 독섬 사이, 녹도와 호도 사이였다. 주벅을 맬 때 문제되는 것이 큰 말뚝을 세우고, 넘어지지 않게 고정하는 것이었다. 큰 말뚝은 직경이 1자는 되어야 했고, 소나무나 중나무를 사용하였다. 깊은 곳에는 나무를 이어 사용하였다. 볏짚으로 동아줄을 만들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협력하였다. 동아줄을 만들기 전날 볏짚을 바닷물에 담가서 만들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협력해서 만들었다. 주인집에서는 음식을 장만하였고, 주민들은 품삯을 받지는 않았다. 주벅을 매는 사람들은 서로 품앗이로 일했지만 주벅을 매지 않는 사람들도 일을 해주었고, 주벅에 고기가 들면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동아줄을 만들 때는 짚을 먹여가며 자세를 돌려 꼬는데, 이렇게 만든 작은 가닥 15~16개가 모여 하나의 큰 동아줄이 되는 것이다. 이때 여럿이 힘을 합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리를 주고받으며 하였다.

그물은 싸리나무 껍질로 만들었다. 육지에서 싸리나무 껍질을 사다가 노끈으로 만들고 그 노끈으로 그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물의 길이는 30~40발쯤 되었고, 앞이 넓고 뒤는 좁았다. 짚으로 만든 동아줄은 매년 새로 하였다. 음력 2월이면 말뚝을 세우고 3~4월 고기를 잡고 꺼내온다. 볏짚이 오래 견디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물과 기둥은 오래 사용하였다. 오래 사용하기 위하여 그물은 매년 약물을 풀어 솥에 넣고 끓이는 소위 갈들이는 작업을 하였고, 말뚝은 4월이 지나면 빼다가 장벌에 올려놓고 말렸다. 이렇게 하면 10여 년을 사용할 수 있었다. 주벅을 보러 갈 때와 올 때는 노래를 불렀다. 특히 주벅에 고기가 많이 들을 때는 북을 치면서 만선의 노래를 불렀다.

녹도에서는 주벅으로 또는 주낙으로 많은 조기를 잡았다. 그래서 전국에서 주낙배가 모여들고 상고선이 모여들었으며 어업조합이 만들어졌다. 고기의 판매는 어업조합에서 취급하였다. 고기는 모두 어업조합에서 경매에 의해 팔고, 고기를 잡은 사람들은 전표를 받아 현금과 바꾸었다.

녹도의 어업조합이 대천 어항보다도 먼저 만들어졌다. 무창포 다음으로 안흥조합이 생기고 이어서 녹도조합이 만들어졌다. 녹도 어업조합에는 5~6명이 근무하였는데, 입찰하고 고기 달아주고, 고기 세어주고, 사무 보는 사람 등이 있었다. 그가 어렸을 때 조합장은 최종화였다. 이렇게 일찍 생긴 어업조합이 대천에 보령수협이 생기면서 흡수 통합되었다. 모든 자료는 보령수협으로 가져갔는데 모두 불태워 남아있지 않다.

일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한말에도 녹도는 서해 어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었다. 그래서 대천장에서 녹도 사람을 찾으려면 갖신(가죽신)을 신은 사람만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리고 돈을 벌은 사람들은 모두 돈을 주고 관직을 샀다. 그래서 녹도에는 정참봉, 이참봉, 박참봉 등 수많은 참봉들이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도 관직을 샀는데 강화 창고참봉이라고 했다.

주벅을 매는데는 볏짚 천여 뭇, 기둥, 그물 등이 필요하고 이것으로 그물을 만들어 설치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녹도의 어민들은 참봉이라 불리는 전주들의 돈을 얻어다가 사용하였다. 전주들은 볏짚값과 경비로 쓰고 먹을 쌀 10~15가마를

대주고, 잡은 고기를 받아서 팔았다. 그래서 이득은 전주들이 보고, 섬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지 못하였다. 그때 뒷돈 대준 전주는 대천 녹문에 사는 정참봉, 영보리 가숭구지에 살던 이참봉, 대천 궁촌 사는 오주사, 결성 사는 맹승전, 신대리 벌말 사는 박참봉 등이었다. 이들은 녹도에 살다가 돈을 벌어 육지로 이주하였고 많은 부를 축적하여 후손들을 일본에 유학보내기도 하였다.

그는 22살에 같은 섬마을에 사는 21살의 정씨댁 처녀와 결혼하였다. 슬하에 6남 2녀, 8남매를 키웠다. 낳아서 잃은 자식이 하나도 없이 모두 잘 키웠다. 위로 아들 3명을 두었는데 큰아들은 현재 71세, 둘째 아들은 69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고, 더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8년 동안 9번의 집안 장례를 치르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더구나 식구는 많아서 12명에 이르기도 했다. 그래서 남의 홍어배를 타고, 농사를 지으면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은 녹도에서 초등학교만 졸업시키고 도시로 내보냈다. 딸들은 아들 삼형제 아래로 낳았는데 모두 녹도에서 초등학교만 졸업시켰다. 다섯째와 여섯째 아들은 녹도에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대천이나 서울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켜 내보냈다. 현재 부인은 2년 전에 죽고 큰딸이 녹도에 들어와 그를 돌보고 있으며, 넷째와 다섯째 아들이 녹도의 마을일을 하고 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초분으로 들였다가 장례를 모셨다. 초분은 육지의 초상처럼 사망한 지 3일쯤에 모셨다. 장소는 대개 바닷가의 모래장벌의 육지쪽 끝이었다. 이곳은 모래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리 때에도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었다.

여객선이 없던 시절, 녹도에는 장배가 있었다. 어선과 같은 풍선배인데 사람은 20명까지 탈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배삯을 받았고, 대천장 안날에는 정기적으로 운항하였고, 손님이 있으면 이틀에 한 번도 운항하였다. 배를 이용한 사람들은 주로 녹도 주민들로 일반 용무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녹도에서 잡은 생선이나 김 등 해조류 각종 젓갈을 팔러 나가는 사람이 많았다. 녹도에서 팔러 나오는 젓갈은 갈치젓갈, 꼴둑젓갈, 박대젓갈 등이었다.

배는 쇳개에 대었는데 바람이 좋으면 2시간에 올 수도 있었으나 바람이 없으면 5~6시

간이 걸렸다. 바람은 동풍만 불지 않으면 운항할 수 있었다. 서풍이 가장 좋고, 북풍이나 남풍도 이용할 수 있었으나 동풍은 곤란하였다. 노를 저어서 다니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안개 낀 날 운항하기 위해서 배에서는 오늘날 콤파스 같은 지남철을 사용하였다. 이것을 건령구라고 하였다.

녹도의 당제는 전횡장군을 모시고 소를 잡아 지냈는데 그가 없앴다. 당제는 전횡장군을 모시고 지냈다. 당집은 현재도 남아있고, 당집 안에 전횡장군을 그린 그림을 모시고 제를 지냈다. 전횡장군을 그린 그림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아마도 그의 7대조가 어청도에서 들어올 때 만들어놓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

| **김향화**(1932년생) **복남점**(1942년생)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녹도 |





녹도 여성의 생활

복남점(卜南点)은 1941년 녹도에서 5남매 중에서 막내로 출생하였다. 부모님도 가난하였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생활하기가 더욱 어려웠다. 어머니가 일하고, 오빠가 남의 배를 타 받아오는 돈으로 연명하였으나 늘 배가 고팠다. 당시 녹도에는 정식 초등학교가 있었으나 입학하지 못하고, 집에서 바다에 다니고, 조카들을 보거나 심부름을 하다가 11살 때 식모살이를 떠났다. 어머니가 식모살이를 해서 배고픔을 면하라고 보낸 것이었다.

복남점은 11살 때부터 어청도에서 식모살이 시작하였다.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월급은 없었고 아이를 보아주고 밥을 얻어먹는 정도의 조건이었다. 부잣집은 아닌데 배를 하느라고 아이 돌보는 사람이 필요해서 둔 것이었다. 월급은 없었지만 옷도 해 주고 배고프지 않아 집보다 편하게 있었다. 그 다음은 광천에 가서 1년 반 정도 살았다. 이 집은 노부부가 석유를 파는 집인데 밥을 해주고 2,000원을 월급으로 받았다. 광천에서는 노부부가 돌아가신 후, 천안의 술과 음료수를 도매하는 집에서 1년 반 정도 지냈다. 그 뒤 논산으로 친구와 함께 식모 살러 갔다. 이 집은 친구의 숙모 집인데 식모를 둘 형편이 아닌데도 아이들 키우기가 어려워 객식구를 두려고 한 것이었다. 남편은 군인 가고 아이들은 다섯이나 되는데 보따리장사를 하였으니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 그리했다. 이 집은 식모는 두었어도 끼니꺼리가 없을 정도여서 1년도 못되어 친구와 같이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올 때가 18살이었고, 그녀는 이듬해에 33세의 녹도 총각과 결혼하였다. 그 때가 나이 19세였다.

복남점이 시집을 오니까 시집에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둘, 시누이 셋, 신랑까지 아홉 식구였다. 남편은 목포로 배를 타러 나가면 보름이나 1달 만에 들어왔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너무 엄격하여 늘 불안하게 지냈다. 그녀는 6남매를 낳아 길렀는데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시집살이가 하도 심하여 '울애기' 소리를 한 번도 안하고 아이를 덥석 안아보지도 못했다. 첫딸을 낳고나서 내리 사내애 넷을 낳고도 막내로 딸을 낳았다고 구박받을 정도였다. 남편 사랑이나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남편이 한 달 만에 들어와도 잠자리조차 마음대로 못할 정도였다. 아이들 돌잔치도 시부모가 싫어하여 할 수 없었다. 아들은 중학교까지 보냈으나 딸들은 녹도에서 초등학교만 보냈다.

김향화(金香花)는 1932년 호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김학도는 어업조합에서 일을 보았고 3남 3녀를 낳았는데 막내딸 김향화를 훌륭하게 자라라고, 일본인 재등오길(齋藤五吉, 사이또고기치)의 양녀로 보냈다. 그녀는 서울에서 소학교 4학년 2학기를 다니다가 해방이 되어 부모가 있는 호도로 들어왔고, 이후 학교는 다니지 못했다. 호도에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어업조합에 다니는 녹도의 남편과 혼인하였다.

김향화의 시어머니도 모진 시집살이를 시켰다. 시집와서 딸 셋을 낳았는데 아들을 못 낳았다고 구박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꼬투리를 잡아 탈을 냈다. 오죽해야 딸이 일곱 달 만에 경기로 죽었는데 잘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녀는 그래도 세 동서가 녹도에서 함께 살아 시어머니가 없을 때 서로 웃고 재미있게 지냈다. 이 세 동서가 지금 95세, 93세, 88세인데, 생존하고 있다.

김향화와 복남점에 의하면, 녹도에서는 물이 귀해 빨래하기가 힘들었다. 광목으로 된 바지저고리를 빨려면, 잿물이나 숫물(두부를 짜낸 물)을 받아 빨고, 말렸다가 풀을 먹인 후, 다듬이질을 하여 빤득빤득하게 만든 후, 다시 바느질을 해서 만들어야 하는 과정이다. 시집살이시키는 시어머니들은 풀 먹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물에 넣어 다시 풀 먹이고 다듬이질을 하게 하였다. 물도 귀한 곳에서 빨래하고 바느질하는 일은 힘든 일이었다. 명주옷은 더 힘들었다. 풀 먹이고 다듬이질하는 것을 '푸다디미'라고 하였다.

녹도는 물을 구하는 것이 문제였다. 샘은 여러 곳에 있었지만 물이 잘 나지 않아 녹도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늘 부족하였다. 복남점은 낮에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낮에는 물을 길어올 수가 없었다. 물을 퍼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샘에 물이 고이는 대로 두레박으로 떠서 물통에 담아오는 것이어서 낮에는 엄두도 못 내고 밤에만 물을 길었다. 밤에도 물통을 놓고 순번을 기다려 물을 담아가는데 물이 고이는 대로 두레박으로 퍼 담기 때문에 샘 앞에서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 복남점과 김향화는 밤에 순번을 기다리느라고 어업조합 창고에 보금자리를 틀고 늘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았다.

복남점은 낮이면 쉴 새 없이 일해 돈을 벌었다. 밭농사를 짓거나 바다에 나가 굴이나 홍합을 따고 해초를 뜯고, 약초를 캐서 팔기도 하였다. 녹도에서 캔 약초는 잔대, 방풍나물뿌리, 천남생이, 후박나무껍질 등이었다. 나무하는 품을 팔기도 하였다. 부잣집에서는 사람을 사서 풀을 베어 말려 땔감으로 쓰는데, 이런 풀 베는 일을 한 것이다. 집에서 필요한 나무도 모두 복남점이 하였다. 남편은 외지로 배 타러 갔기 때문에 나무도 그녀의 몫이었다. 풀을 베거나, 솔가루를 긁어 큰 동으로 만들어 이고 왔는데 하루에 8번을 다녔고, 늦으면 중간에 놓았다가 다음 날 새벽에 가져왔다. 멸치를 잡을 때는 멸치 선별하

는 일도 하였다.

복남점은 명절 제사로 정월보름 제사를 지냈고, 기제사에는 손님상을 놓았다. 그녀는 과거에 한 해 6번 제사를 지냈다. 기제사를 3번 지내고, 명절 제사로 정월 초하루, 정월보름, 팔월보름에 지냈다. 기제사는 조상상과 손님상을 함께 차리는데 손님상은 마루에 간단하게 차린다. 대개 떡 한 쪽하고 지숙을 차리는데 지숙은 생선을 말린 포이다. 그리고 메제사라고 하여 손님상에 밥과 국을 한 그릇씩 놓았다가 회식하기도 한다.

그녀의 시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여, 늘 집에서 술을 담갔다. 술을 담그기 위해서는 먼저 누룩을 만들어야 한다. 녹도에서는 밀농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밀을 맷돌에 갈아 고운 가루는 수제비를 해 먹고, 기울(껍질)을 물에 개어 누룩을 만든다. 누룩은 맹물로 개는데 적당히 습도를 맞추어 틀에 넣고 밟아 일정한 모양으로 만든다. 이것을 안방 아랫목에 쑥대를 깔고 얹어놓은 후, 위에도 쑥대를 덮어 놓는다. 그러면 방이 따뜻하니까 바로 발효가 되고 이후 말리면 누룩이 되는 것이다. 녹도에도 가끔 '술 조사'를 하러 왔다. 술 조사를 하러 오면 누룩이나 술을 대밭에 감추었다.

녹도에는 밭이 많고, 밭에서 보리, 밀, 옥수수, 수수, 조, 고구마 등 여러 종류의 농작물을 재배하였다. 그러나 콩농사는 잘 안되었다. 꼬투리가 영글지를 않는 것이다. 그래서 녹도에서는 간장을 많이 담지 못했다. 간장 대신 젓국을 사용하였다. 배추도 잘 자라지 않아 육지에서 들여갔다.

녹도에서 담아먹는 젓국은 까나리젓, 반지젓, 풀치젓(작은갈치젓), 오징어젓, 꼴두기젓, 갈치속젓, 아가미젓, 고둥젓 등이다. 이 중에서 갈치속젓은 큰 갈치의 배를 갈라 내장을 빼 젓을 담는 것이다. 아주 맛있는 젓이다. 오징어젓과 꼴두기젓은 일단 먹통을 떼어 버리고, 간을 해서 물이 생기면 버리고 다시 간을 해서 담는 것이다. 이른바 '재간'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빨갛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런 젓갈은 국물은 없다. 아가미젓은 각종 물고기의 아가미를 모았다가 젓을 담는 것이다. 고둥젓은 '무릇'이라는 고둥으로 담는 것으로 깨가지고 깨끗이 씻은 후 소금에 버무려 담는 것이다. 소라젓과 맛이 같았다.

잿간화장실은 잿간 한쪽에 붓출이라는 돌을 놓고, 그곳에 앉아 용변을 본 후, 재를 묻

혀 죽가래로 퍼 쌓아 놓았다가 거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녹도에는 과거 모두 나무를 땠기 때문에 재가 많았고, 이 재를 이용하여 변을 처리한 것이다. 이렇게 재와 변을 섞어 쌓아 놓은 것을 '망옷'이라고 하였다. 냄새가 나지 않아 좋았고, 밭에 거름으로 이용하여 친환경적이었다.

녹도의 결혼식은 신랑집에서 이루어진다. 같은 마을에서 결혼하더라도 신부는 신랑집으로 가마를 타고 와 결혼식을 치른다. 이때 가마는 신랑의 친구들이 메고 심한 장난을 치기도 한다. 이때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는 원삼쪽두리를 입는다. 가마와 신랑의 사모관대는 마을에서 마련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신부가 사용하는 원삼쪽두리는 개인적으로 구비하는 집이 많았다. 녹도에서는 원삼쪽두리를 개인적으로 마련하고 여자가 죽었을 때 그것을 입혀 매장하기도 하였다. 복남점의 친정 큰어머니는 자기 원삼쪽두리를 딸, 조카들이 입고 결혼식하게 한 뒤, 자기가 죽으면 입혀달라고 유언하여 입혀 매장하였다. 김향화의 시어머니도 원삼쪽두리를 입혀달라고 유언하였으나 시신의 부패가 워낙 심하여 입힐 수가 없었다고 한다.

복남점의 올케언니는 11살 먹어서 민며느리로 시집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자랐다. 둘째딸인데 친정의 살림이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당시 신랑은 12세였는데 철이 없어 신부를 내쫓으라고 했다고 한다.

민며느리와 남편은 성인이 된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았다. 민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딸과 어머니처럼 사이가 좋아, 나중에 친정어머니보다도 시어머니와의 사이가 더 가까웠다고 한다. 시어머니도 이 며느리와 정이 들어 95세로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다고 한다.

녹도에서도 당제를 지내는 기간에 출산을 하려면, 당집이 보이지 않는 외진 곳으로 거처를 옮겨 출산하였다. 이것을 해막이라고 했는데, 녹도에서는 마을 뒷산 너머 골짜기에 옹달샘이 있었고 이 옹달샘 옆에 천막을 치고 출산을 한 것이다. 현재 86세인 부인이 이곳에서 애를 낳다가 애가 죽었다고 한다.

| **박연옥**(1961년생)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



불모도의 마지막 거주자

박연옥(朴蓮玉)은 밀양박씨로 선대는 남포면 양항리에서 세거하였다. 그러다가 할머니의 오빠인 전씨 할아버지가 불모도에 살면서 형제들을 불러들여 함께 살게 되었다. 그래서 불모도에는 할머니의 4남매(남자 하나, 여자 셋)가 모여 살게 되었다. 당시 타인은 한 가구뿐이었다.

할아버지는 3남 1녀를 두었는데, 아버지는 장남이었다. 아버지는 고향인 남포 양항리에 사는 최씨와 결혼하여 1남 6녀를 두었는데, 큰딸이 일찍 사망하여 둘째였던 그녀가 큰딸이 되었다. 그녀는 1959년에 불모도에서 태어났고, 정식 학교에서 제대로 공부하지

는 못했다. 6살 때부터 밥을 짓고 빨래하고 굴 찍고 10살 때부터는 아버지 따라서 고기 잡는 일도 하였다. 그때 노 젓는 일도 배워 지금도 노를 잘 젓는다.

농사일도 많이 했고, 특히 소꼴을 베느라고 손도 많이 다쳤다. 지금도 흉이 선명하다. 16살에는 정부의 독가촌 철수사업으로 삽시도로 이주하였으나 불모도에서 어업을 하였기 때문에 21~22살까지 불모도에 막을 치고 살았다. 불모도에서 주벅(낭장망)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 22세에 결혼하였고, 결혼 후에도 불모도에 다니면서 맨손어업을 하고 있다. 슬하에는 1남 1녀가 있다.

그녀의 언니는 아홉 살에 죽었다. 당시 취학통지서가 나와 삽시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었었는데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 당시에 아버지와 친척들이 당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마당에서 쪼갠 일이 있는데 이 때문에 지골 맞았다고 믿고 있다.

불모도는 섬의 크기에 비하여 인구가 적고 땅이 기름져 나무가 많았다. 장작 만들 나무도 많았지만 풀도 많아, 푸장나무를 해서 팔았다. 장작은 참나무, 잡나무 등으로 틈틈이 장만하여 잘게 자귀로 빠개 놓으면 뱃사람들이 와서 사 갔다. 산고래 사람, 고대도 사람 등 주변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배를 불모도 마을 앞에 대 놓고 사 갔다. 불모도 앞은 불모도와 삽시도로 가로막혀 배를 대기도 좋았다. 이 나무는 배에서 쓰는 나무이기 때문에 보통 '뱃나무'라고 불렀다.

옛날 장배를 타고 삽시도에 들어와 불모도에 오려고 하는 사람은 삽시도 밤섬 상바위에서 불을 피워 연락하였다. 상바위에서 불을 피우면 불모도에 올 손님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 불을 본 불모도에서는 알았다는 신호로 불을 피운다. 그리고는 배를 저어 삽시도에 건너가 사람을 싣고 온다. 썰물이라 배가 걸려 있으면 들물 때까지 기다렸다

불모도의 토지는 돌도 없고 좋았다. 보리, 밀, 콩, 마늘, 감자, 동부, 깨, 고구마 등을 심었는데 아주 잘 되었다. 거름으로는 소나 돼지의 두엄이나 퇴비, 인분 등을 사용하였다. 불모도에는 방앗간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곡식은 절구로 빻아 먹었다. 밭을 갈기 위하여 일소를 길러 땅을 갈았다.

불모도의 집은 모두 작은 집이었다. 대개 방 1칸 부엌 1칸이었고, 방이 2칸인 집도 있

었다. 벽체는 흙으로 쌓고, 지붕은 모두 볏짚으로 덮었다. 볏짚은 삽시도에서 나무와 바꾸어 사용하기도 하였다. 매년 지붕을 새로 만드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 관리하기는 어려웠지만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였다. 마루도 있었다.

박연옥의 아버지는 불모도에서 주벅을 매었다. 고기를 잡으면 상고배가 와서 사 가기도 하고, 멸치 등 말릴 수 있는 고기는 말려서 팔았다. 멸치는 집에서 삶았는데, 그녀는 머리로 이어 나르고, 아버지는 지게로 져 날랐다. 할아버지의 동생은 불모도 앞에 길게 살을 매서 고기를 많이 잡았으나 실패해서 논 3마지기를 팔았다. 잡은 멸치를 삶아서 말릴 줄 몰라 젓을 담았고, 젓 담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불모도 근해에서 주낙을 놓고, 외줄낚시를 하여 고기를 잡았다. 잡은 고기는 모두 등을 타서 절였다가 팔았다. 특히 갯장어는 간을 하지 않고 째서 바윗돌에 말려 팔았다. 삽시도로 이주한 뒤, 아버지는 유명한 낚시 안내인이 되었다. 바다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이다. 삽시도에서는 절인 고기 외에도 전복이나 해삼을 잡으면 상자에 살려 놓았다가 모아서 팔고, 김, 세모, 듬북 등을 뜯어 말렸다가 팔고, 낙지나 조개를 잡아 팔기도 하였다. 굴은 찍어 모아 놓았다가 장에 가는 편이 있으면 팔기도 하고, 젓을 담아 팔기도 하였다. 굴젓은 고춧가루를 넣지 않고 소금으로만 담아 팔았다.

불모도에는 해산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리 때가 되면 무인도나 간조 때 드러나는 바위로 어로작업을 나갔다. 이것을 여파루라고 하였다. 배를 타고 나가는데 많은 해산물을 잡을 수 있었다. 밤에는 솜방망이를 만들어 가지고 갔다. 솜방망이는 석유에 담가 사용하였다.

삽시도로 이주한 1974년 이후에도 불모도에 낭장망을 매고 어업을 하였다. 고기를 잡아 삶아 말려서 팔아야 했기 때문에 불모도 옛 집터에 막을 쳤다. 막이라고 하지만 온돌도 놓아 따뜻하게 하였다. 잡은 고기를 삶아, 장벌에 말려 팔았다. 원산도 사람들도 들어와 낭장망을 하고 막을 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에 남편을 만났다.

불모도에는 샘이 두 개 있다. 윗샘은 마을 안에 있는데 물맛이 없고, 뱀 같은 것들이 지나다닌다고 먹지 않고 빨래나 하였다. 먹는 샘은 아랫샘이었다. 돌 틈에서 물이 나와

아주 시원하고 물맛이 좋았다. 그러나 바닷가에 있어 물이 많이 들어오면 바닷물에 잠겼다. 매일 만조가 되면 바다에 잠기고, 썰물이 되면 샘물을 모두 퍼내고, 민물을 모은다. 물은 그런대로 나왔으나 바닷물에 잠기는 때에는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딸렸다. 특히 밤에 만조가 될 때에는 만조 전에 물을 떠다 놓아야 했다. 그녀는 밤에 물을 길러 다녔는데 무섭지는 않았다고 한다.

불모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당산이라고 하였다. 당산의 나무를 건드리면 지골맞는다고 하여 아무도 들어가거나 건드릴 수 없었다. 매년 정월이 되면 아버지들이 돼지고기, 떡, 밥, 탕국, 과일 등을 준비하여 제를 올렸다. 봄과 가을에는 안택도 하였다.

불모도의 남쪽 해안, 장벌은 남향으로 바람도 닿지 않고 따뜻하였다. 그래서 굴을 잡으면 모두 모여 이곳에서 굴을 깠다. 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 앉아 굴을 깠다. 불모도의 지명은 당산, 두마섬, 딴두마섬, 질마섬, 속녀, 목쟁이, 동끝이, 독암녀, 구녕배, 바진창, 하나시, 하나시장벌, 수염머리, 독살미, 까시굴, 진질바탕, 용매기, 용매기딴여, 가운데딴여, 배그녀딴여 등이다.

불모도 서쪽, 녹도 가는 길에 있는 무인도가 용매기이다. 용매기 근처에는 용매기딴여, 가운데딴여, 배그녀딴여 등 많은 바위가 있다. 이들 바위는 물이 많이 나가면 다닐 수 있는데 물이 많이 나가야 되고, 잠깐 다닐 수 있어 원하는 곳에 배를 대고 들어간다. 이곳에는 소라 등 고둥류와 홍합, 굴, 그리고 세모 같은 해조류가 많다. 옛날 불모도에 살 때도 들어갔고 현재도 들어간다.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된다.

불모도 앞, 배 대는 곳이 진질바탕이다. 이곳 깊은 곳에는 진질이라는 해초가 무성해서 어렸을 때 캐 먹기도 하였다. 진질을 뽑아 뿌리를 씹으면 달콤했다. 그래서 진질바탕이라고 불렀는데, 요즈음 많은 해산물이 나온다. 굴이 많고, 개조개도 많고 낙지도 많다. 그녀는 낙지 잡는 기술을 아버지한테서 배웠다. 낙지는 갯벌에 구멍을 파고 사는데 반드시 두 개의 구멍을 1자 간격으로 파 놓는다. 한 구멍은 그냥 '구녕'이라고 하고 한 구멍은 '부릇'이라고 부르는데 부릇은 파랗다. 낙지를 잡을 때는 구녕 쪽에서 파고 들어가야 바로 잡을 수 있다. 그녀는 봄·가을 낙지 철에 맨손으로 50~100마리의 낙지를 잡는

다. 낙지는 아무 때나 잡는 것이 아니고, 산짐이라고 부르는 3매, 4매, 5매 날 잡는다. 이 때는 이른 아침에 썰물이 되고, 많은 낙지가 올라온다고 한다. 그러나 거끔으로 들어가는 6매, 7매, 8매, 9매에는 물은 많이 나가지만 낙지를 잡을 수 없다. 그녀와 함께 갯벌에 나가는 주민이 20여 명인데, 낙지는 혼자 잡는다. 그녀처럼 할 수가 없어 조개를 캐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불모도에는 방파제가 없어 모두 작은 배를 가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면 배를 모두 뭍으로 올려놓았다. 배를 올려놓기 위해서는 만조 때 최대한 높여놓고 온 가족이 달라붙어 들어서 올려놓았다. 바람이 자면 배를 내려놓았다. 배를 내리기는 올리기보다 좀 쉬운데 그래도 많은 힘이 들었다. 이때는 이불이나 거적 같은 것을 바닥에 깔고, 드러누워 다리 힘으로 밀어 배를 내린다.

불모도에는 많은 약초가 있었다. 잔대 같은 것은 아주 많았고, 천남생이, 시호, 창출 등 약재를 캐서 팔았다. 당시 아버지가 해송화라는 약재를 캐서 먹어보라고 주었는데 그것이 하수오다. 그녀는 불모도뿐만 아니라 용매기에 들어가 캐기도 하였다.

불모도에 살 때 한 노인이 약초를 캐러 들어왔다. 그때 귀한 간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버지와 함께 약초를 캐러 다녔다. 용매기에 들어가 잠도 자고 했는데 아버지한테 잘 대해 주었다. 나중에 그분이 간첩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1974년(박연옥씨가 16살에 이주했다고 하여 추산한 연도임.) 정부에서는 작은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모두 큰 섬으로 옮기는 사업을 하였다. 불모도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모두 삽시도로 이주하였다. 당시 정부에서는 부엌 1칸, 방 2칸의 슬레이트집을 지어주었다. 당시 땅값은 보상해주지 않았는데 좋은 집을 지어 주어서 갈 만했다. 벽돌담에 슬레이트 지붕집이라 좋았다. 삽시도에 들어와서도 불모도에 막을 짓고 어로활동을 하였다. 그녀는 삽시도로 온 뒤 불모도의 농사는 짓지 않았다. 어업 소득이 높았기 때문이다. 불모도에 살 때는 식량이 부족했고 쌀이 특히 귀했다. 밥을 하려면 보리와 고구마를 많이 넣고 쌀은 한쪽에 조금 놓았다. 밥이 되면 쌀이 있는 부분은 할아버지 퍼 드리고 고구마를 으깨어 보리와 섞어 먹었다.

| **김용순**(1941년생) 보령시 천북면 낙동리 빙도) |



빙도의 토박이

김용순(金龍順)은 김해김씨로 1941년 빙도에서 4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빙도에는 그의 12대조 할아버지가 들어와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후손들이 세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빙도에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할 때 37가구였었는데 그 중에서 30가구가 김해김씨였다고 한다. 그의 할아버지는 학자였는데 3남을 두었고 그 중 막내아들이 김용순의 아버지이다. 김용순은 4남 2녀 중 셋째아들로 성장하였다.

김용순의 아버지는 한문 공부를 오래 하여 시전·서전, 논어·맹자까지 다 읽었다고 한

다. 주로 청소면 장곡리 장자울에 사는 박동진한테 배웠는데 오래 배운 까닭에 학식이 상당히 높아져 선생님과 동료들이 함께 다니면서 글을 지었다고 기억한다. 그러나 농업이나 어업에는 소극적이었고 주로 글만 읽었다. 식구들이 바빠 소를 굶겨도 쇠죽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하는 일은 마을 주민들의 혼서지를 써 주고, 당제 축문을 쓰고, 묫자리를 잡아주는 일이었다.

빙도는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간혹 학교에 간 친구들도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가 한문에 재미를 붙여 천자문을 떼고 소학을 읽고 통감을 읽을 무렵, 6·25전쟁이 그것마저 할 수 없게 하였다.

빙도마을은 사리 때 천북면 쪽으로 걸어 다닐 수 있었지만, 갯벌에 빠져야 건널 수 있었기 때문에 점차 오천면 교성리 도미항과 통하게 되었다. 도미항까지는 불과 100여m 거리이지만 바다가 깊어 나룻배가 필요하였다. 전쟁이 끝나고 오천초등학교에 취학한 학생들에게 통학이 문제가 되어 학부형들이 교대로 나룻배를 운영하다가 이후 마을에서 관리하였다. 마을 사람들도 시장에 가야되고, 섬 밖에서 농사짓는 사람도 많았기 때문이다. 나룻배는 전담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다. 온종일 나루에 대기하고 있다가, 빙도에서 나가는 사람이 있거나, 빙도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태워주는 것이다. 빙도로 들어오는 사람은 도미항의 선바위에 서 있으면 나룻배가 태우러 나갔다.

나룻배 사공에게는 마을에서 급료를 주었다. 현금으로 주지는 않고, 여름에는 보리 몇 가마, 가을에는 벼 몇 가마를 주었다. 당시 머슴 새경(머슴의 급여, 1년에 1번 주었음)보다는 더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대신 마을 사람들은 무료로 태워주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배삯을 받았다. 처음에는 마을에서 배를 마련하였는데 나중에는 보령군의 지원을 받아 만들기도 하였다. 주로 노를 젓는 무동력선이었고, 보령군의 지원으로 발동선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빙도 주민들 중에서 그의 아버지 또래 되는 사람들이 작은 배를 가지고 천수만 안에서 대하어장을 개발하였다. 현대 서산 AB지구 논이 있는 곳인데, 빙도에 사는 주민들이 개발하였다. 이곳에서 음력 3~4월에 자망을 이용하여 대하잡이를 했는데, 큰 소득을

올려 1년에 논 3~4마지기를 살 정도였다. 잡은 고기는 고북에 있는 분조합에 매각하였고, 잠은 갯고랑에 배를 대고 잤다. 무동력선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지에서 잠 자가면서 고기를 잡았다. 당시 빙도에는 0.5톤 정도 되는 뗀마가 많았고, 대하를 잡으러 가는 배들은 대략 2톤 정도 되는 무동력선이었다. 닻 2개, 노 2개를 달아 움직였고 서산 AB지구까지 가는데 4~5시간 걸렸다. 밀물썰물을 이용하여 다녔다.

빙도 어린이들이 학교 다니기 불편하여, 오천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고, 보령교육청을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여 학교를 지었다. 당시 학교를 지은 땅도 마을에서 희사를 했고, 학교 짓는 터도 주민들이 닦았다. 장비가 없어 주민들이 괭이로 파고, 가래질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입학한 사람들이 현재 51세이다. 그러니까 1970년대 중반쯤에 학교가 만들어졌다.

그는 26세에 결혼했는데 친구들보다 늦었다. 결혼 후에는 형 집에서 형과 함께 살았다. 형이 동생들 결혼시키기 힘들다고 분가를 시켜주지 않았다. 이후 그는 동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31세에 분가하였다. 자녀는 2남 1녀를 낳아 모두 대학교육까지 시켰고, 현재 모두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빙도에는 여러 차례 간척이 이루어졌다. 당시 장비가 없어 돌은 사람들이 목도를 해서 나르고, 흙은 구루마를 놓고 밀고 다녀 둑을 쌓았다. 제방의 양쪽에 있는 산을 무녀(허물어) 제방을 쌓았다. 빙도마을 북쪽, 언덕 너머에 간척지를 만드는 것을 어렸을 때 보았는데, 아버지 형제들, 사촌형들이 지게로 흙을 져다가 붓고, 배로 돌을 실어다가 흙이 떠나가지 않도록 부었다. 돌은 빙도 북쪽에 딸린 섬인 딴섬에서 가져왔는데, 금광을 하느라고 파낸 돌이었다. 배에 멍석 같은 것을 깔고 돌을 실어다가 물이 들어왔을 때 넣었다. 마을의 오래된 간척지는 언제 누가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나주김씨네가 많이 소유하였었다.

간척지의 수문은 물을 빼내기도 하고, 바닷물을 막기도 하는 장치이다. 빙도의 간척지에는 큰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고, 그 가운데를 파내어, 서로 맞붙여 둑에 묻어 만들었다.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바다 쪽에 부드러운 짚 검불(벼의 밑에 있는

부드러운 잎)을 이용해서 막았고, 안에 있는 민물이 빠져나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안쪽에서 막았다. 이런 물 관리는 수문과 가까운 논 주인이 하였다.

빙도에는 하천도 없고 샘물도 나지 않아 물을 가두었다가 농사지었다. 모든 논에 물을 가두어두지만 아래에 있는 논으로 물이 모이게 된다. 그러면 윗논으로 퍼 올려서 농사를 지었다. 물을 올리는 데는 바가지와 두레를 이용하였다. 빙도에서는 물이 없어 고생하였다. 7월이 되어도 비가 오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마른 논에 모를 심었다. 물기가 없는 논에 꼬챙이로 구멍을 뚫고 심는 모를 꼬쟁이모라고 하는데, 심은 뒤에 잘 눌러주어야 바람이 들어가지 않아 살 수 있었다. 뽐때리는 모는 비가 좀 와서 논이 질척할 때 심는 것이다. 손으로 꼽기는 하지만, 물이 없어 심은 공간이 노출되기 때문에 뽐을 때리듯이 모의 옆을 때려 흙으로 덮는 것이다. 모를 심은 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딱딱하게 말라 붙어 벼가 잘 자라지 않았다. 호미모는 논이 밭처럼 되었을 때 호미로 파고 심는 것이다. 비가 오면 잘 자랐다.

전기가 들어온 후, 지하수를 파고 양수기로 끌어올려 농사를 지었다. 이웃한 천북이나 청소 지역에는 지하수가 잘 나오지 않는데, 빙도는 60~100자를 파면 좋은 지하수가 나왔다. 섬인데도 좋은 지하수가 나온 것이다. 이 물로 농업용수를 해결하였다.

빙도에서 천북 쪽 바다는 얕아서 사리 때 물이 빠지면 걸어 다닐 수 있었다. 대략 매월 사리인 절반은 갈 수 있었고, 조금인 절반은 건널 수 없었다. 옛날에는 많이 다녔으나 점차 오천 교성리 도미항으로 다녔다.

빙도와 천북 사이의 바다에 예부터 넓은 석화양식장을 조성하여 많은 굴을 생산하였다. 양식하는 방법은 갯벌에 돌을 늘어놓는 투석식이었다. 돌은 모두 빙도에서 가져갔는데, 산 위에서 돌을 캐어 해안으로 굴린 뒤, 만조가 되면 배를 대고 실어다가 양식장에 부었다. 물이 들어오면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할 수 없어, 자기 구역에 대나무를 꽂아놓고 표시하였다. 이때 대나무의 끝은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잘 찾을 수 있었다. 생산한 굴은 모두 광천장에 가서 팔았다. 광천장에 가려면 도미항에서는 너무 멀어 청소면 신송리 고잔에 배를 대고 걸어 다녔다. 석화양식장은 모두 개인 것이었고 홍보지구 간척사업

때 보상도 개인적으로 받았다.

김용순은 송아지 1마리씩을 광천장에 가서 사다가 키워 팔았다. 모두 10번, 10마리를 키워 팔았다. 광천장에서 송아지를 사면 빙도까지 가져오기에 큰 힘이 들었다. 말을 안 들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다행히 큰 소가 동행하면 졸졸 잘 따라왔다. 도미항에서는 배에 싣는 것이 문제였다. 배를 안 타려고 하면 앞발을 들어 올려놓고 엉덩이를 때려 실었다. 이때 배 바닥에 멍석을 깔고 실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배의 판자가 상할 수가 있었다. 소가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소는 물에 빠져도 헤엄을 잘 치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헤엄치는 소를 따라가려면 노를 빨리 저어야 한다.

자망으로 대하를 잡은 것은 빙도 사람들이 시작하였다. 나일론 줄로 자망을 만드는 기술은 전라도 사람들한테서 배웠는데, 이것을 가지고 천수만 AB지구 안에 가서 많은 대하를 잡았다. 대하가 자망에 덩어리로 올라왔다. 이때는 대하뿐 아니라 꽃게, 오징어, 도미 등 많은 고기를 잡았다. 이것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자망으로 어업을 하였다. 가을에는 빙도 다리 있는 곳에서 대하 새끼를 잡아, 미끼로 하여 원산도 근해에 주낙을 놓았다. 주낙으로 부서, 상어, 가오리, 민어 등을 잡았는데, 당시 민어 값이 비쌌다.

현재 빙도에는 세 가구가 어업을 경영하고 있다. 배는 방조제 제방에 정박하고 출항하는데 봄에는 주꾸미를 잡고, 주꾸미 이후에는 자망으로 고기를 잡는다.

빙도에도 당집이 있다. 현재는 담벽만 남아 있지만 옛날에는 지붕도 있었다. 제일은 정월보름 안에 택일을 해서 정했고, 당주는 생기복덕을 보아 정하였다. 제물은 밥, 떡, 과일 등이었다. 마을의 남자들이 가서 지냈다. 소나 돼지를 잡지는 않았다. 해막은 없었다.

안면도, 원산도, 장고도 등에서 광천 독배로 다니면 장배들은 대개 빙도 북쪽으로 다녔다. 북쪽이 직선거리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빙도 근처에는 벌뚱이라고 하는, 벌로 된 높은 곳이 있기 때문에 썰물에 배가 걸치기도 하였다. 배가 걸치면 꼼짝없이 12시간을 기다려야 해서 빙도에 들어와 잠자리를 청하기도 하였다. 큰 배들은 현재 다리가 놓인 곳으로 다녔다. 깊은 갯골을 찾아다녔기 때문이다.

| **이정우**(1936년생) 보령시 오천면 삽시도리 |



삽시도의 산 증인

이정우(李貞雨)는 전주이씨로 먼 조상 할아버지가 전주에 사시다가 오천으로 왔고, 오천에서 배를 타고 안면도 옷점이라는 곳에 정착하였다. 이곳에는 친척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곳에 이주한 할아버지는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사망하여, 바닷가에 그대로 맞가래질(시신을 그대로 둔 채 양쪽에서 가래질을 하여 묻는 것)을 쳐서 묻었다고 전한다.

아버지는 농사는 짓지 않고 어업을 경영하면서 장배를 운영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장

배 사업은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사다가 항구에 내다 파는 것으로 광천 독배를 자주 다니고 강경으로 팔러가기도 하였다. 일반 생선은 광천으로 가지만, 강다리 등 젓갈 담는 고기는 강경까지 올라가 팔았다. 사업이 번창한 덕에 이정우는 고생을 모르고 자랐다. 어렸을 때는 농사일도 안 하고, 남들이 먹었다는 콩깻묵을 먹지도 않았다. 돈이 많아서 화폐 개혁할 때 돈을 다 바꾸지 못할 정도였고, 나일론 옷도 마을에서 가장 처음 입었다고 한다.

1960년대 초에는 납작한 12마력짜리 발동선(영성호)을 건조하여 먼 바다까지 나가 많은 고기를 잡아 돈을 벌었다. 고기를 얼마나 잘 잡았던지 아침에 나가면 저녁때 기를 꽂고 돌아왔고, 영성호 고기는 따로 있다고 할 정도였다. 이 배는 톤수에 비해 매우 납작하여 먼 바다까지 나갈 수 있었다. 삽시도 사람인 박생길이 지었는데 기계는 마산에서 사왔다. 박생길은 배 짓는 기술자였다.

1936년생인 그가 취학할 나이인 8세가 조금 넘어 삽시도에 간이학교가 생겼다. 간이학교는 술등 박영삼 집 옆에 있었는데 없어지고 현재의 자리에 학교를 세워 취학하게 되었다. 그의 나이는 적은 편이고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학교에 다녔다.

그는 훗날 14년간 옛 학교의 육성회장으로 일하면서 학교 발전과 삽시도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학교의 교실이 옛날에 지은 목조건물이어서 다시 짓는데 옛 시절 담임 교사였던 이희일 교육장의 힘이 컸다. 교육장과 관리과장의 배려로 운동장에 교실을 짓게 되었고 운동장은 앞으로 확장하였다. 운동장 확장할 토지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메구(풍물)를 치면서 집집마다 방문하여 얼마만큼의 성금이 모아졌다. 이것을 가지고 땅 주인인 박영삼을 찾아가 운동장 부지를 내줄 것을 부탁하자 흔쾌히 허락했다. 이후 운동장 부지를 돋는 일은 삽시도리의 7개 반별로 작업량을 할당하여 해결하였다. 이후 학교가 없는 섬 아이들 기숙사까지 지어 6학급 115명의 학생이 삽시초등학교에 취학하였다.

6·25전쟁 때 초등학교를 다녔지만 이정우는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의 가족은 여차하면 배를 타고 피난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박영삼의 사위가 당진경찰서에

근무하고 있었던 관계로 당진경찰서 경찰들이 삽시도 박영삼네로 피난 와 있었다. 어느 날 밤, 한치재를 두목으로 한 안면도의 공산주의자들이 총을 가지고 삽시도로 들어와 경찰들과 박영삼 등을 체포하였다. 그들은 체포한 사람들을 삽시도에 들어와 정박해 있던 대천수산고의 실습선에 태워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 실습선을 이용하여 섬을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그런데 아버지가 집에 있던 소주를 안면도에서 온 공산주의자들에게 먹였고, 실습선의 시동이 걸리지 않자, 삽시도에 있는 모든 기관장들을 소집하여 고치게 하였다. 이때 경찰들은 실습선의 시동을 걸지 말라고 이르고, 소변을 보게 손을 풀어달라고 부탁하여 손의 결박을 풀고 술에 취한 공산주의자들을 제압하여 모두 죽였다. 일부 공산주의자는 졸고 있었으며, 대장인 한치재는 자기 권총으로 사살되었다. 일부는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하였으나 모두 살해되었다.

삽시도에 돌아온 박영삼은 모든 주민들에게 삽시도를 떠나라고 소리쳤고, 마을 주민들과 함께 외연도로 피난하였다. 이때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 마을에 불을 지를까 염려하여 7명의 주민이 결사대로 남아 섬을 지켰다. 그러나 삽시도에는 아무 일도 없었고 피난 간 주민들도 봉화불로 신호하여 돌아왔다.

그는 삽시도의 낡은 당산에서 기우제 지내는 것을 보았고, 결혼 후에(1950년대 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삽시도의 기우제는 날이 가물면 마을의 책임자들과 노인들이 지내는데 낮에 지냈다. 농악을 치고, 돼지대가리와 삼색실과를 준비하여 제를 올리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보리짚을 낡은 당산 꼭대기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다. 아침에 준비하여 오후까지 지냈는데 기우제를 지내면 비가 조금이라도 왔다고 기억하고 있다.

삽시도의 당제는 매우 엄격하게 지냈다. 먼저 섣달 중순께 마을 총회를 하였다. 총회는 늘 박영삼이 주도하였고 그 밑에 그의 아버지와 복기을 아버지가 있었다. 이들이 당주를 정하고 당추렴을 하였다. 당주는 여러 가지로 보아 부정이 없는 사람이어야 했고, 당추렴은 공평하게 냈으나 배를 부리는 사람은 더 냈다. 제물은 당주네 집에서 장만하였고, 소는 황소로 광천장에서 사다 준비하였다. 당샘은 깨끗이 청소하고 품어 자리로 덮어 놓았다. 정월 열나흗날이면 초청한 무당들이 들어오고, 마을 사람들은 농악을 치면

서 소를 당샘물로 목욕시켜 당으로 올려 보냈다. 이때 소는 고삐를 뿔에 감고, 당집 진입로 근처에 풀어놓는데, 스스로 저 죽을 자리에 섰다고 한다.

정월 열나흘 밤에 소를 다 잡아서 제를 올리고, 보름날에는 배 부리는 집에서 뱃기를 들고 당으로 올라갔다. 그러면 당주가 뱃기의 끝에 길지를 매어주고, 쇠고기를 한 근쯤 나누어주면 자기 배 있는 곳에 뛰어가 뱃고사를 지냈다. 이때 제일 먼저 뛰어가 뱃고사를 지낸 배가 그해 가장 많은 고기를 잡는다고 믿었다. 이때 아이들은 뱃고사 떡을 얻어먹기 위해 몰려들었다.

정월보름날 해가 질 무렵, 당주와 무당들은 당집에서 바슴마당 또는 거름마당이라고 불리는 마을 앞 공터에 내려와 굿판을 벌였다. 이때는 농악을 치고 피리젓대 불고, 무당들이 춤을 추는 흥겨운 굿판을 벌인 것이다. 이때 배 부리는 사람들은 돈을 놓고 절하기도 하였다. 바슴마당에는 미리 큰 솥을 걸어놓고 쇠고기, 내장, 껍질 등을 삶아 국을 끓이고, 마을 주민 모두가 나왔다. 부정이 있어 당집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도 모두 나왔고 처녀 총각도 모두 나와 구경하였다. 굿판은 새벽 2~3시에 끝났다.

그가 군에서 제대한 1960년쯤, 삽시도의 당제는 없어졌다. 당제를 지내기 위해 마을 회의를 열었는데, 일부는 찬성했지만 일부에서는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당에서 당굿한다고 부자가 되고 고기가 많이 잡히느냐고 반대를 해 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박영삼이 없애는 쪽 편을 들어 결정하였다고 한다.

당제는 없어졌는데 누구도 감히 당집을 건드리지 못했다. 지골 맞을까 봐 건드리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데 당집 근처에 소를 매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당집을 훼손하기도 하여 흉물스러워지자,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부탁하여 당집을 헐도록 하였다. 이에 그는 쾌히 승낙하고 당집을 헐어 좋은 목재는 대천제재소에서 제재하여 교회 건축에 사용하였다.

이정우는 군대에 가기 전에 김용현으로부터 기독교를 전도받았다. 박영삼 소유인 간이학교 사택 자리에서 가마니를 깔고 예배드리기도 하였다. 특히 삽시도의 실권자 박영삼이 허락하여 건물까지 내주었고 처녀 총각 30여 명이 모이는 것도 반대하지 않았다.

삽시도에도 조금 때 갯벌을 소로 갈아, 염물을 만들어 끓여 소금을 만들었다. 육지 사람인 박종대가 하였고, 그곳이 염전이 되었다. 그 뒤 염전은 논이 되었다가 현재는 황무지로 남아있다.

삽시도에는 농경지도 많고 소도 많았으나, 쟁기질하는 소는 많지 않았다. 소에게 쟁기질을 가르치려면 나무를 베어 '끄승개'를 만들어 장벌에서 끌고 다니게 했다. 처음에는 돌을 무겁게 실어 끌고 다니게 하다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사람이 타고 다닌다. 이때도 처음에는 앉아서 타고, 많이 숙달이 되었을 때는 서서 탄다.

길들이는 기간은 보통 보름정도 걸리는데 소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다. 성질이 고약한 소는 오래 걸리고, 온순한 소는 쉽게 가르칠 수 있다. 성질이 고약한 소는 코뚜레를 붙잡고 고삐로 때리는 등 무섭게 보여야 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소에게 까니 뵈면 가르칠 수 없다. 짐승도 따끔하게 혼내야 말을 잘 듣는다. 끄승개를 잘 끌면 쟁기질을 할 수 있다. 그는 소를 잘 이용하였다. 경운기가 나오기 전에는 소 등에 질마를 얹어 두엄과 볏단을 날랐다. 소 등에는 한 번에 70뭇의 볏단을 실어 운반할 수 있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양쪽에 균형이 맞도록 볏단을 얹어야 하는 점이다.

삽시도 남쪽 수루미에는 큰 사구가 발달하여 높은 모래산도 있었고, 깊은 웅덩이도 있었다. 이 모래산을 대월광업이라는 회사에서 10여 년간 모두 파 갔다. 다행인 것은 해안의 사구는 건드리지 않아 오늘날 그대로 남아 있다. 내륙 쪽에는 모래산을 파 가, 평지와 웅덩이로 변했다. 이 모래는 판유리공장보다 주물공장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옛날 삽시도에는 제대로 된 방파제가 없었다. 그냥 마을 앞 바다에 대 놓는 정도였고 밤섬에도 대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에 방파제공사를 시작하였다. 원래는 16년 걸려 쌓을 텐데 IMF 때문에 1년이 지체되어 17년 걸려 완공하였다. 이정우는 이 방파제공사를 시행하는 동방건설에서 15년 동안 일했다.

삽시도는 작은 섬이고 냇물이 없어 논에 물을 대기 어려웠다. 겨울에 내리는 빗물을 논에 저장하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모두 스며들어 버렸다. 모든 논들이 하늘만 쳐다보는 형편이었다. 그래서 못자리 하는 논에만 작은 들샘을 파 못자리에만 물을 축이는 형편이

었다. 가뭄이 계속되면 대부분의 논은 소위 '호미모'를 하였다. 논에 물을 대고 모를 손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밭 작물처럼 호미로 파고 심는 것이다. 속도도 느리고 여간 힘든 작업이 아니었다. 또 바람이 들어가면 죽었기 때문에 꼭꼭 밟아주어야 했다. 호미모도 못 하는 논에는 수수나 조(스슥)를 심었다. 이렇게 어렵게 농사지어 보통 논 1마지기에 1섬의 수확을 하였다. 육지의 절반에 불과하였다. 이후 경운기가 들어온 뒤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경운기로 제너레이터를 돌려 양수기를 가동하였다. 지하수 개발과 소류지 건설로 물 문제를 해결하였다.

삽시도의 동쪽 해안에 있는 갱알할매바위에는 갱알할매가 앉아 오줌을 눈 자리가 선명하다. 발자국 자리, 오줌에 패인 자리, 오줌이 흘러간 자리가 선명하여 옛날 갱알할매가 오줌을 눈 자리라고 한다.

| **김춘화**(1933년생) 보령시 웅천읍 성동리 |



석대도

김춘화(金春花)는 의성김씨다. 의성김씨는 웅천읍 구룡리, 죽청리 일대에 많이 거주하고, 구룡리에는 넓은 종중산도 마련하여 선조들의 묘도 모시고 있다. 김춘화의 할아버지도 웅천읍 구룡리 구룡마을에 살았다. 아버지 김봉기, 어머니 김정월은 부여군 차고개에 살다가 6살 때 남동생 1명과 함께 석대도로 이주하였고, 석대도에서 여동생 2명이 더 태어났다. 처음에는 집과 밭만 사가지고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석대도 전체를 샀다.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모두 수운교를 믿어 도명(道名)을 받아 사용하였고, 대전에 있는

수운교 본부에 다닐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다. 아버지의 도명은 '평오장'이었고 큰아버지는 '황오장'이었다. 이름 대신 모두 평오장, 황오장이라고 불렀다. 아버지는 머리를 깎았고 가사와 장삼을 싸가지고 수운교 본부에 다닐 정도였다.

그녀는 학령기가 되어도 학교는 다닐 수 없었다. 조금 때는 육지로 나가는 길이 열리지도 않고, 사리 때 열린다 해도 학교 가는 시간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학교는 다니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천자문만 배웠다. 한글은 쉽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이 글 읽는 것을 보고 스스로 깨우쳤다. 나이가 들면서 집안일만 하다가 결혼하였다. 결혼한 후에 아버지가 석대도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육지로 이사하였다.

그녀가 6살 때쯤(1938년) 석대도에는 4가구가 거주하였다. 제일 남쪽 끝봉이라고 하는 곳에는 김상국이 살았는데 수운교를 믿어 '대덕'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북쪽으로 그녀의 집이 있었고, 위로 최길남, 임종만이 살았다. 모두 4집이 살았다. 이후 끝봉에 살던 김상국 노인 부부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육지에 거주했기 때문에 3가구가 살았다. 그 중 그녀 집이 가장 컸다. 지붕은 모두 초가였는데 산에 나는 '띠'나 육지에 가서 볏짚을 사다가 이었다.

석대도에서는 보리, 콩, 옥수수 등 육지와 비슷한 농사를 지었다. 다만 석대도에 소를 키우는 집이 없어 쟁기질을 할 수 없었다. 봄·가을 파종기가 되면 무창포나 간드리에서 쟁기질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사리때 물이 빠지면 들어왔다가 밭을 갈고 다음날 물이 빠지면 나갔다. 그래서 밭을 갈 때는 집에서 쇠죽을 쑤어 먹이고, 쟁기질하는 사람도 재워주어야 했다. 생산되는 것은 밭곡식뿐이어서 쌀은 사다 먹고, 일제강점기에는 배급을 타 먹기도 하였다.

아버지는 작은 배를 가지고 있어 어업을 하였다. 주낙을 놓아 조기 보골치 같은 것을 잡아, 칼로 등 부분을 갈라 포를 만들어 팔고, 소라껍질을 새끼줄에 매달아 주꾸미를 잡아 팔았다. 고기를 많이 잡지는 못해 큰 소득이 되지는 않았다. 그저 가족이 생활하는 정도였다.

석대도에는 굴과 박하지가 많았다. 사리때면 굴을 따고 박하지를 잡아 아버지가 지게에 져 육지에 나가 팔았다. 구룡리 지역에 다니면서 팔았는데 친구들이 많이 사 주었다.

김춘화가 10세 때, 어느 날 저녁때 바다에 가 보았더니 물이 빠졌는데 바위에 중간 크기의 소라가 하얗게 붙어 있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구니에 담아 높은 곳에 정신없이 옮겨놓았다. 한 누리를 옮겨놓고 아버지에게 연락하여 지게로 져 왔다. 다음날 할머니하고 가 보았더니 다 내려가고 얼마 없었다. 소라는 사람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 바다로 다 들어가 버린다. 이 소라는 젓을 담가 팔기도 하고 먹기도 했다. 또 한 번은 해가 조금 남은 저녁 때 목 쪽으로 갔더니 꽃게가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었다. 정신없이 한 바구니를 담아 집으로 왔다. 어두워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석대에는 2개의 독살이 있었는데 끝봉 아래에 있는 것은 김상국(대덕)네 독살이어서 돌아가신 뒤에는 폐허가 되었고, 동쪽에 있는 것은 그녀 집에서 운영하였다. 우럭, 숭어, 박대 같은 것을 잡았는데 많이 잡지는 못했다.

석대도에는 김과 세모가 많이 돋았다. 김은 꼬부린 철사로 긁어서 따가지고, 샘물로 씻고 김발로 떠 말려 팔았다. 세모는 뜯는 대로 말려 팔았다. 녹도처럼 재를 묻혀 뜯지는 않았다. 이 외로 파래, 삼파래 같은 것을 뜯어 말려 팔기도하고 먹기도 하였다.

석대 장벌의 남쪽 끝에 좋은 샘이 있었고, 주민들은 모두 이 샘물을 먹었다. 이 샘은 조금 때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지만, 사리 때는 바닷물로 덮였다. 그래서 사리 때에는 바닷물이 빠진 뒤에 모래와 자갈을 걷어내고, 샘물을 품어내야 민물이 고여 먹을 수 있었다. 사리 때면 매일 하루에 두 번씩 하는 일이었다. 아무나 먼저 가는 사람이 했고 그녀가 부지런하여 많이 하였다. 물을 나르는 것은 주로 여자들이었는데 물동이로 이어 나르다가 미끄러져 물동이를 깨치기도 하였다. 물이 많이 나와 물동이나 물지게로 져 날라서는 물이 줄지 않았다. 물이 시원하고 맛도 좋았으며 석대섬에 살던 주민들의 식수, 빨래, 김씻기 등에 사용하는 데 충분하였다.

그녀는 시집가기 전에 친정에서도 모진 고생을 하였다. 어머니가 늘 아파서 활동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철이 나면서부터는 늘 일을 해야만 했다. 6살 먹어서부터 설거지를

하였고 8살 때 보리방아를 찧었으며, 12살 때 아버지 두루마기를 꿰맸다. 그리고 빨래도 도맡아 했는데 당시 빨래는 잿물을 받아 그 물로 빨래를 삶아 빨았다. 옷을 뜯어 빨고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을 하여 다시 꿰매야 빨래가 완성되는 것이었다. 13살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바지저고리를 빨아 꿰맸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겨울에 빨래할 때는 샘물이 얼어 얼음을 깨가면서 빨았다. 너무 손이 시려 울기도 하였다.

그녀가 17살 때 6·25가 터졌다. 어느 날 초저녁, 미군의 고무보트가 석대 앞으로 왔고, 건너 간드리에서 인민군들이 총을 쏘았다. 총알이 쌩쌩하고 지나갔는데 그녀는 담벼락에 숨어 쳐다보았다. 이튿날 아침 바닷가 샘 옆에 있는 굴에 미군 1명이 부상당한 채 숨어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구호를 해 주었고, 이후 미군은 큰봉 산제 지내는 바위 아래로 갔다. 이때 미군이 김춘화의 동생 김선예(1947년생)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고 한다.(이 부분은 2019년 5월 6일 김춘화씨의 동생 김선예(1947년생, 미국 센디에이고 거주) 증언) 마을 사람들이 미군을 도와주려고 접근했더니 미군이 손짓으로 가라고 하여 접근하지 못했는데 무창포에서 인민군이 배를 타고 와, 미군을 데려가고 미군 시신 1구를 떠메고 갔다. 죽은 미군이 있는지는 떼메고 가는 것을 보고 알았다. 이때 석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김춘화의 아버지는 1953년에 사망하였다. 옆집 최길남네 돼지가 병으로 죽었는데, 이 돼지를 잡아 무창포에 가서 팔고 돌아오는 길에 배가 뒤집혀 사망한 것이었다. 돼지를 팔고서 술을 많이 마셨고, 그날은 특히 안개가 짙게 끼었다. 최길남과 그의 손자, 그리고 아버지가 타고 석대로 돌아오는데, 어린 손자가 노를 젓는 것을 아버지가 빼앗아 젓다가 배가 전복되어 사망하였다. 이때 최길남과 그의 손자는 무창포로 헤엄쳐 나왔다.

석대의 산제당은 무창포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봉우리인 큰봉(첫봉) 아래에 큰 돌이 있고, 이 돌에서 산제를 지냈다. 세 집이 모아서 남자들이 지냈으며 제를 주관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축문도 읽었다.

그녀는 20살 쯤 시집을 갔다. 시집은 처음에는 부자였다. 시할아버지가 왕실에서 홍릉을 조성할 때 석공으로 일하러 가서 돈도 벌고 벼슬도 얻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할아

버지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제당을 지었다. 시어머니가 산제당에 살면서 치성을 드려 자연히 무속인이 되었다. 이후 남편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산제당에 거주하면서 스님이 되었고, 늦게 그녀와 결혼하였다. 결혼식도 석대 친정에서 하지 않고, 이곳 산제당 절에서 하였다.

남편은 다리가 불편하여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일, 불공 뒷바라지, 나무하는 일 등 모든 것이 그녀 몫이었다. 남자처럼 지게를 지고 산에서 나무를 할 정도였다. 남편은 돈도 벌지 못하고 일도하지 못하였다.

그녀는 아이들 5남매를 두었는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묵 장사를 시작하였다. 집에서 묵을 쑤어 웅천장에 파는 일이었다. 상수리를 사다가 도구통에 절구로 찧어서 시루에다 넣고 물을 밭쳐서, 매에다 갈면 저녁 12시가 다 되었다. 잠깐 자고 일어나 아침 먹고 묵을 쑤어 퍼 놓아 식기를 기다리고, 묵이 굳기 전에 또 상수리를 빻아 물을 부어놓고, 굳은 묵을 떼어서 이고 시장에 가서 팔았다. 묵을 팔고 저녁때 오면 아이들 저녁 해 먹이고, 또 묵을 12시까지 갈았다. 상수리는 웅천장에서 샀다. 1가마를 사서 반으로 갈라 닷말을 머리에 이고 웅천장에서 집까지 10리가 넘는 거리를 한 번도 쉬지 않고 이고 왔다. 쉬면 다시 일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생활의 연속이었다.

묵 장사가 돈은 많이 남았다. 상수리 1말에 300원주고 사서 묵을 쑤면 20모가 나오는데 1모에 300원을 받았다. 20배가 남는 장사였다. 묵 장사로 5남매를 모두 가르쳤다. 아이들은 모두 공부를 잘 하였다. 모시도 열심히 하여 저축하였고 그 돈으로 현재 거주하는 산 5000여 평을 구입하였다. 산제당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다고 사정하여 샀다. 모시는 한 겨울에 3~4필 했는데 주산면 화평리 화산 사람한테 맡겨서 짰다.

그녀의 시집은 시아버지가 노름으로 탕진하였다. 남편도 산제당에서 생활하면서 부처님을 모셨는데,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후광으로 신도들이 좀 있었다. 친정아버지도 수운교 스님으로 머리를 깎고 생활하였다. 그녀도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 현재 동광사라는 절을 짓고 스님 일을 하는데 여러 수양아들을 두고 있다. 수양아들은 보령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다.

| **최돈영**(1936년)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



외연도

최돈영(崔敦榮)은 경주최씨로, 외연도 입향조의 13대손이다. 외연도의 경주최씨들은 어디서 이주했는지는 모르지만 13대조가 입향한 이후 세거하여 1980년대까지 집성촌을 이루며 외연도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할아버지는 한학을 한 외연도의 선비였고 5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 5형제는 모두 외연도에 거주하였다. 아버지는 막내아들로 4남 2녀를 두었고 최돈영은 장남이다. 할아버지의 후손들이 외면도에는 많다. 모두 외연도에서 성장하여 외연도에서는 가장 번족한

집안으로 소문나 있다. 최돈영의 직계 가족만 현재 22명이다.

그는 외연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줄곧 외연도에서 생활하였고, 장년에 이르러서는 낭장망을 경영하여 성공하였다. 슬하에는 5남매를 두어 모두 외지에서 공부시켰고, 현재는 자식 모두 육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외연도에서는 부부만 생활하고 있다.

최돈영의 아버지는 학교에 다니지는 않고 외연도에서 서당을 다녔다. 그리고 생업으로는 장배를 운영하였다. 장배는 3~4톤의 돛단배였고, 주로 광천장을 보러 독배로 드나들었다. 광천장을 보러가기 위하여 장 안날(1일 전) 외연도에서 떠났는데, 외연도 주민들은 말리거나 절인 생선, 말린 해초류 등을 싣고 장을 보러갔다. 광천장을 보러 갈 때 목표는 1물때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즉 들물 6시간 동안 운항하여 독배에 들어가고, 썰물 6시간 동안 독배를 출발하여 외연도에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목표일 뿐 바람이 잘 불면 3시간에도 갈 수 있고 마파람이나 하늬바람이 불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더구나 바람이 세어 배가 바람에 날리면 외연도 근처까지 왔다가도 다시 쫓겨 가야 했다. 예측할 수 없는 항해였다. 이런 어려운 뱃길에도 불구하고 최돈영이 기억하는 한 장배의 사고는 없었다. 단지 외연도 안에서 바람이 불어 배가 깨지는 피해를 입은 정도였다. 그때도 인명피해는 없었다.

외연도 주민들은 장배에 염장한 생선, 말린 생선, 말린 미역 등 해초류를 가지고 나가면 광천장의 객주들에게 맡겨 판매하였다. 그래서 외연도 주민들과 광천장의 객주들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또 외연도 주민들은 광천 독배에 있는 단골 하숙집들이 있어 묵었다. 장을 보러 가면 자고 와야 했고, 일기가 불순하면 며칠 묵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하숙집 주인이나 그 후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옛날 외연도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배는 대부분 작은 전마선이었다. 이것을 타고 외연도 주변에서 주낙을 놓거나 외줄낚시를 하여 생활하였다. 이때 바람이 불면 배를 뭍으로 끌어 올려놓았다. 장배는 크기 때문에 올려놓지는 못하고, 외연도 포구 서쪽에 있던 작은 구선창 안에 들여놓고 묶어 놓았다.

배에서는 많은 줄이 필요했다. 특히 닻줄은 튼튼해야 했기 때문에 칡으로 만들어 사

용하였다. 평소에 칡 줄기를 잘라 말려 두었다가 물을 축여 닻줄을 꼬았다. 닻줄은 칡을 여러 겹으로 꼬아 만들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어 장벌에서 만들었다. 모두 줄을 꼬는 자새를 들고 나와 도와주었다.

옛날 풍선배에도 취사도구가 있었다. 장배도 끼니를 배에서 때워야 했기 때문에 배 한편에 취사도구를 설치하였다. 이것을 밥채비라고 하였다.

그의 셋째 큰아버지는 배 사업을 하였다. 황도 밖에서 주낙으로 홍어와 대구를 잡았다. 이때 잡은 홍어와 대구는 생물로는 팔수가 없어서 모두 외연도에서 말려 팔았다. 홍어와 대구는 소금을 뿌리지 않고 그대로 말려 팔았는데, 겨울이라 말릴 수 있었다. 외연도 어린이들은 홍어를 말릴 때 입 주변에 붙은 굳은 혹살을 떼어 먹고 혼나기도 했다고 한다. 홍어배들은 겨울에 작업했기 때문에 전복되는 사고가 가끔 일어나 외연도에서도 몇 사람이 죽었다. 형제간에 나갔다가 죽는 일도 있어 남은 가족들의 생활은 참혹하였다. 부인들이 해초를 뜯어 생활하였는데 마을에서 도움을 줄 수도 없었다.

외연도에도 많은 농토를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다. 논은 없고 밭만 있었는데, 산비탈 등 개간이 가능한 땅은 모두 개간하여 밭농사를 지었다. 농작물은 보리, 밀, 잡곡, 옥수수 등이었다. 따라서 외연도에서는 쌀은 먹기가 힘들었고 주로 보리, 옥수수 등으로 밥을 해 먹었다. 방앗간도 없어 이런 것들을 모두 절구에 찧어 먹었다. 식량이 늘 부족하여 부자라고 해야 보리밥이라도 삼시세끼 먹고사는 집이었다. 흉년이 들면 참나리 구근과 칡뿌리까지 먹었다. 참나리는 외연도에서 개나리라고 불리고 보령지방 육지에서는 호랑이나팔꽃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백합의 구근처럼 구근이 매달려 있는데 이것을 먹은 것이다. 구근만을 먹지는 않고, 보릿가루나 밀가루와 버무려 쪄 먹었다고 한다. 칡뿌리는 캐다가 절구에 찧거나 돌에 두드려 물에 씻으면 밑에 가라앉는 것이 있다. 이때 맨 바닥에 있는 흰 것이 녹말인데, 갈분이라고 하여 팔기도 하고 음식을 해 먹기도 하였다. 녹말 위에는 검붉고 느른한 것이 가라앉는데 이것을 '능쟁이'라고 하였다. 능쟁이는 곡식가루와 함께 죽을 쑤어 먹었다. 이 외에 무릇도 캐 먹었다.

외연도에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경 초등학교가 만들어졌고 야스모도라는 일본인 교

사가 배치되었었다. 당시에는 학교가 생겼어도 주로 남자들만 학교에 다녔고, 여자들은 다니지 않았다고 한다. 학교가 만들어지지 전에는 서당이 있어 한문을 배웠는데 서당 훈장도 육지에서 들어왔다고 한다.

외연도는 400~500명이 살던 큰 마을이었지만, 마을에 초상이 나면 장례를 모실 때까지 온 마을 주민들은 일을 하지 않고 애도하였다. 장례를 모실 때까지 동네가 쉬는 것이다. 상여는 대천 구시에서 만들어 왔는데 사용하지 않은지가 오래되어 현재는 모두 썩어 없어졌다. 외연도에서 상여가 나갈 때는 북을 치면서 나간다.

옛날 외연도 주민들의 배는 작은 전마선이었다. 돛대 2개를 달아 바람이 좋으면 사용하였고 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 이동하였다. 그물은 없었고 주낙을 놓고 외줄낚시를 하였다. 옛날에는 고기는 지천이기 때문에 고급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였다. 조기, 농어, 갈치 등을 잡아 소금에 절여 팔았다. 조기는 배를 타지 않고 입에 소금을 넣어 절였다. 조기의 미끼는 미꾸라지를 썼고, 노래미는 갯장어를 썼으며, 갯장어는 노래미를 썰어서 사용하였다. 그 시절 조기가 많았다. 그는 조기를 바다에서 바구니로 뜨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조기가 외연도 마을 앞에 있는 장벌까지 다가와 후리그물로 잡기도 했다. 후리그물은 모래로 된 해안에서 그물을 둘러쳐 뭍으로 끌어 올리는 것으로, 한쪽은 뭍에 두고 다른 쪽은 배를 이용하여 둘러쳤다고 한다. 장벌이 있는 횡견도나 오도에서도 했다. 갈치도 후리그물로 잡았다. 이렇게 많던 고기가 1980년대 이후 그물 사용이 늘어나 어족자원이 고갈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외연도 마을은 장마 때 둘로 갈라졌다. 당산 밑에 있는 마을이 안말이고, 장벌 위에 있는 마을이 밖에말인데, 장마가 지면 두 마을 사이의 낮은 곳에 물이 고여 방죽이 되는 것이다. 배를 타고 다녀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밖에말이 사구이고 사구 뒤에 있는 습지에 배수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습지의 서쪽 제일 낮은 곳에는 언제나 물이 있었고, 민물고기인 미꾸라지와 송사리가 많아, 잡아서 미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는 배수구를 내어 습지가 없어졌다.

외연도는 1970~1980년대에 걸쳐 낭장망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이 새로운 어법이 시

작된 것은 1970년대 원산도 사람인 한옥윤씨가 명금해안에 말뚝을 세운 주벅을 매면서부터이다. 이때 주벅에서 많은 고기가 잡히자 외연도 사람들도 관심을 가졌고, 새로운 기술인 낭장망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많은 고기를 잡아 크게 번영하였다. 낭장망에는 3월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고기가 들었는데 주로 멸치와 까나리를 잡았다. 최돈영의 경우에는 낭장망 3개에서 생산된 멸치가 하루 3㎏짜리 100포대 정도였다. 낭장망은 하루에 2번씩 고기를 건져야 했고, 건져 올린 고기는 삶아서 말려야 했다. 모든 과정을 다 해야 했기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이제까지 외연도에서 벌어보지 못한 돈을 벌은 것이다.

최돈영은 한때 당주를 하였다. 그때는 1년에 당제를 두 번, 노구제를 두 번 지냈다. 당제는 음력 4월과 동짓달에 지냈고, 노구제는 조상에게 방안제사 지내는 것처럼 지내는데 정월보름과 8월 보름에 지냈다. 당제는 소를 잡아서 지냈다. 정월보름에는 1년을 잘 보내게 해달라는 뜻에서 올리는 제사고, 동짓달에는 한 해 잘 살았습니다 하고 지내는 제사라고 한다. 4월 당제는 고기가 많이 잡힐 때라 지내는 제사라고 한다. 제를 마치면 안당에서 고기와 떡을 온 마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주었다. 당제 때 출산은 해막에서 하였는데, 봉화산 서북쪽 기슭에 해막이 있었다. 해막은 방 한 칸, 부엌 한 칸으로 돌담에 함석을 얹은 가옥이었다. 당제 기간에 출산하는 임산부가 있으면, 일단 육지로 나가거나 주변에 있는 횡견도, 오도 등으로 피신을 했고, 그러지 못하면 해막으로 들어가 출산을 하였다.

옛날에는 외연도 근해에서 전갱이와 고등어를 많이 잡았다. 두 배가 고기떼를 둘러쳐 잡는 것이다. 그물 실은 배가 고기를 둘러싸서 잡은 뒤 운반선이 와서 사갔다.

외연도 본섬에는 맨손으로 갯것을 채취할 만한 곳이 별로 없기도 하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출입하기 때문에 잡을 것이 없다. 따라서 배가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바위섬에 들어가 갯것을 하였다. 이것을 외연도에서는 '운섬'이라고 하였다. 운섬 가면 사람 손이 닿지 않아 많은 갯것을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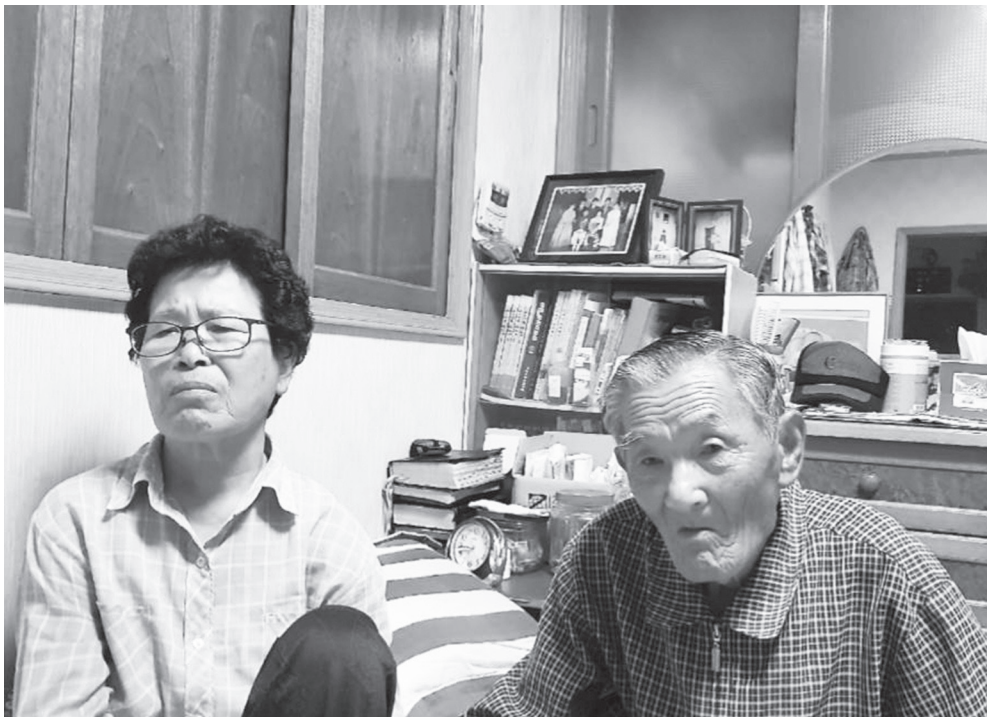
6·25전쟁 때 외연도에는 인민군이 들어오지 않았고 해군들도 상륙하지 않았다. 단지

피난민이 많이 왔는데 옹진 사람들이 많이 왔다.

외연도에 마을 어촌계가 생긴 것은 1987년부터이다. 당시 최돈영이 어촌계장으로 군청, 도청 등에 다니면서 외연도 본섬 36헥타의 마을어장 면허를 받아 어촌계를 발족하였다. 이후 외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외연도 주변 섬에 있는 양식장을 회수하여 현재와 같이 어장을 넓혔다.

옛날에는 외연도에 각종 새가 참 많았다. 닭새, 꽤새, 빕새, 빙치, 비둘기, 참새 등(모두 외연도에서 부르는 이름)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아 새덫으로 잡기도 하였다. 그런데 요즘은 현저히 줄었다. 방죽이 없어져 새가 먹을 물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 **박만곤**(1931년생) **김명희**(1942년생)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



원산도 주민이 된 반공포로

박만곤(朴萬坤)은 춘천박씨로 1931년 평안남도 중화군 양정면 대내리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고향에서 1944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50년 인민군에 입대하여 참전하여 낙동강전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할 때 자유인이 되었다. 이후 1953년 다시 한국군에 입대하여 1956년 제대하였고 원산도 양조장에서 일하면서 1961년 원산도 주민 김명희와 결혼하여 슬하에 3남 2녀를 두고, 줄곧 원산도에서 살았다.

박만곤의 처 김명희(金明嬉)는 1942년 원산도 선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제 때 징용으로 끌려가 결핵을 앓다가 1956년쯤 사망하였다. 당시 병약한 어머니와 15세 된 그녀, 그리고 어린 남동생이 있었다. 김명희는 집안이 어려워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퇴하였다. 집에서 어머니의 병구완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때었다. 20세 때인 1961년 원산도 양조장에서 일하던 박만곤과 혼인하였다.

6·25날은 새벽에 비가 내렸다. 포성이 울리는 소리를 듣고 훈련하는 줄 알았는데, 아침이 되니까 한국군들 포로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포로들 중 부상이 심하여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은 부대에서 사살하기도 하였다. 당시에는 인민군이라도 부상이 심하여 살아날 가망이 없으면 사살하였다. 그는 임진강을 건너 의정부를 거쳐 서울 남산의 방송국에 배치되었다.

서울 방송국에 배치되어 있을 때, 북한에서 유명한 정예부대인 4사단 18연대로 배속받아 위생병이 되었다. 18연대는 계속해서 남하였고, 남하하다가 조치원에서 미군과 만나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18연대는 본대보다 앞질러 나가 도로를 차단하고 전투를 벌였다. 그는 원래 기독교를 믿었다. 그러나 북에서는 기독교인을 반동분자로 취급하였다. 신의주에서 훈련받는데, 주일 날 종소리가 들리면 '반동분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래도 기독교인라고 적어 부대에서 상관들한테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였더니 의심을 하지 않게 되었다.

낙동강 전선인 창녕에서 그는 포로가 되었다. 1950년 9월 후퇴명령을 받고 부대가 후퇴할 때 낮에는 산에 있고 밤에만 이동하였다. 하루는 동료 2명과 함께 내려가 보초를 섰다. 목화밭인데 밭이 딱딱하여 흙을 조금 파서 앞에 놓고 엎드려 있었는데, 미군 탱크가 8~9대가 올라왔다. 탱크에서 포를 쏘아 하늘이 노랗고 등에 돌이 떨어지곤 하였다. 양쪽에서 보초를 서던 동료들은 미군의 총에 맞아 모두 죽은 다음 그는 투항했다. 이때 통역관이 "야, 너는 이제 살았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전쟁 중이라 옷을 빨아 입을 수가 없어 이가 많았다. 포로로 잡힌 뒤 바로 속옷은 버리고 미군이 준 속옷을 입었고, 신발도 잘라 낮게 만들어 신었다. 미군들이 옷 속에 살

충제를 뿌려 이를 잡아 주었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신경도 써 주었다. 포로로 잡힌 후 그는 부산 마산을 거쳐 거제도에 수용되었다. 거제도에서는 먹는 것도 좋고 입는 것도 좋았으나 잠자리가 비좁았다. 한 천막 안에 50명이 잤는데 일시에 누워야 모두 잘 수가 있을 정도였다. 거기서 포로를 분류했다. 남으로 갈 사람은 가는데 특별히 생활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는 없다고 하였다. 공산 포로들은 수용소 안에 인공기를 걸어놓았는데 태극기보다 더 높게 걸어놓았다. 그리고 활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지를 붙들어 매고 잡아다녀서 죽였다. 죽은 시체는 변기통에 넣어 버렸다.

그는 거제도에서 논산으로 이송되었고, 1953년 논산에서 석방되었다. 당시 미군은 감시만 하고 있었는데 한국군이 문을 열어주고 나가라고 하였다. 이후 3명이 논산군 채운면 용화리로 들어갔다. 당시 마을에서 살 방은 마련해 주었고 농사짓는 일을 해 주고 밥을 얻어먹었다. 논산군 채운면 용화리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 1953년 8월 한국군으로 입대하였다. 여느 한국군과 같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받고, 3사단 포병대대로 배속받아 측지병으로 일했다.

제대하고는 갈 곳이 없었다. 처음에는 부산으로 가려고 했었다. 부산에 가면 고향사람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다. 그런데 후임으로 들어온 광천 출신의 강석희가 자기 집에 가서 일 좀 보아달라고 하였다. 자기가 군대에 와서 자기 집이 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충청도로 가기로 하고, 제대해서 제일 먼저 포로수용소에서 나와 기거했던 논산 채운면의 집으로 갔다. 가서 가을일을 해 주고 광천 강석희 집으로 왔다. 광천의 강석희 집은 살기가 어려웠다. 강석희의 아버지는 몸이 불편하였고, 더구나 부인도 사망한 상황에서 아들 둘을 군대에 보내고 열댓 살 먹은 딸이 밥해주고 있는 형편이었다. 도저히 함께 있을 형편이 안 되어 원산도에서 온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을 곳을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원산도의 양조장을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1957년부터 원산도 양조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김명희의 어머니는 병약하고, 아들이 어리기에 박만곤을 사위 겸 아들로 얻으려고 딸에게 결혼하기를 강요하였다. 김명희는 스무 살, 박만곤은 서른한 살이었다.

박만곤은 원산도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고 배달도 하였다. 원산도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술은 많이 팔리지 않았다. 술독이 한 10개쯤 되었고, 주문이 오면 모두 등짐으로 져 배달해 주었다. 초전마을까지 배달해 주었다. 당시 제삿집이 많았다.

KBS에서 이산가족찾기 방송을 할 때 그는 작은아버지를 만났다. 작은아버지는 아버지 4형제 중, 1·4 후퇴 때 남하였다. 홀로 남하하여 새살림을 차렸는데, 북에서는 박만곤을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였다. 아마도 전사통지서가 나간 것 같았다.

김명희는 처녀 때부터 교회에 다녔다. 친구들이 부흥회를 한다고 하여 교회에 갔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어머니한테 교회에 다닌다고 많이 맞았다. 다른 집 딸들은 주일날 바다에 나가 조개나 굴을 잡는데 교회에 간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그녀는 주일날에는 온종일 교회에 있다가 저녁에 집에 들어와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다. 그녀는 맞아 죽으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다고 버텼다. 그러다가 박만곤과 결혼하면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어머니의 다짐을 받고 결혼하였다. 남편도 당시에는 남의집살이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였지만 북한에서는 교회에 다녔고,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승낙한 것이었다. 약속대로 결혼 후에는 마음대로 교회에 다녔고, 주벅을 맸어도 주일날은 꼭 교회에 갔다.

박만곤은 결혼 후 양조장을 그만두고 주벅을 매고 본격적인 수산업을 시작하였다. 주벅 어업을 배운 것은 양조장에 있을 때 양조장 주인이 운영하던 주벅을 관리해 보았기 때문이었다. 하나시에 주벅 3틀을 매어 운영한 것은 고기가 많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기가 많이 드는 자리는 남들이 선점했다. 주벅에서는 밴댕이, 멸, 꽃게 등을 잡았다. 주벅에서 잡은 고기는 장모가 광천장에 가져다가 팔았다.

그는 주벅을 하면서도 김발을 40떼나 매었다. 김발은 겨울에 일하고, 주벅은 봄에 일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김발을 매어 하루에 5동, 5000장 정도를 생산하였다. 온 가족이 일했고, 특히 10대의 작은 딸은 손이 빨라 김을 아주 잘 떴다. 김은 낮에는 바로 햇볕에 말리지만 밤에는 뒤집어 널어 바람으로 말렸다. 그는 주벅을 매고, 김발을 매어 꽤 많은 돈을 벌어 3남 2녀를 가르치는 데 썼다. 원산도에서 중학교까지 가르치고 육지에 있

는 고등학교에 모두 진학시켰다.

박만곤 부부는 현재 원산도 감리교회에 다니고 있다. 신도는 대부분 노인들로 20여 명이다. 그러나 김명희가 처녀 때는 원산도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다녔다.

옛날에는 대천에 반공포로들의 모임도 있어 한 번 가 본 적이 있었다. 중학교 교사로 있는 사람이 책임자였는데, 갈 만한 데가 못 된다고 생각하여 다시는 가지 않았다.

박만곤은 서산 AB지구 간척사업 이후 주벅도 안 되고, 김발도 안 되어 한때 서울에 올라가 오토바이 부품공장에 취직했었다.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자마자 아프기 시작하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다. 결국 1달도 못 되어 다시 원산도로 내려왔고, 몸도 나았다. 교인들이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김양식을 하고, 생활용수로 쓰기 위에서 밭에다 샘을 팠다. 30자를 팠는데 물이 잘 나왔다. 샘 속에는 큰 독을 묻고, 파이프를 세운 뒤, 주변을 돌로 채우고 흙을 덮어 샘을 만들었다.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올 때라 모터로 끌어 올리는 샘이었다. 샘을 파는 것은 그가 직접 하였고, 흙을 올리는 일은 아이들이 하였다. 돌을 채우고, 흙을 덮기 전에 올라오다가 떨어져 큰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한때 이 샘물을 잘 사용했으나, 마을에서 옆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말라버렸다.

원산도 선촌마을의 조개는 공동양식장에서 캔다. 어촌계에서 상인과 협의하여 작업하는데, 1가구에 1사람씩 작업할 수 있고, 1인당 40㎏을 캔다. 주로 여자들이 나가서 작업하고 남자들은 운반해 주는 정도이다. 김명희는 젊었을 때는 40㎏을 충분히 캤는데, 현재는 어렵다고 한다. 40㎏ 한도에서 캔만큼 돈을 받는다. 흉년에 생활이 어려울 때는 쑥을 뜯어 먹고, 바다에서 말을 뜯어다 밥에 넣어 먹었다. 특히 염전 가에 나는 생이라는 것을 뽑아 먹었는데 달착지근하였다.

원산도에는 학생들이 없어 학교가 폐교되고 있다. 제일 먼저 원산초등학교가 폐교되었고, 이어 원의중학교가 폐교되었다. 원의중학교를 폐교시키지 않으려고 어른들까지 입학하였으나 결국 폐교되고 말았다.

| **안성길**(1939년생)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



원산도

안성길(安成吉)은 1938년 원산도 점촌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조상은 할아버지 때에 고기를 잡으러 원산도에 들어와 정착하였다. 할아버지는 아들 3형제를 두었고 모두 원산도에 거주하였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로 점촌에 살면서 남의 중선배를 타고 연평도에 조기 잡으러 갔다가 배 사고로 사망하였다. 안성길이 아주 어렸을 때라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 이때 남겨진 형제들은 아들 넷, 딸 하나로 모두 다섯이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는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고, 이후 선촌으로 이사와 농사와

어업 등을 하며 생활하였다. 학교는 광명초등학교를 다녔으나 마지막 사친회비를 내지 못하여 졸업장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스물한 살에 원산도 처녀와 결혼하여 딸 둘을 낳아 길러 모두 출가시켰다. 당시 마을 이장으로 가족계획 요원이었기 때문에 아들딸 가리지 않고 둘만 낳기 운동에 솔선했다.

그의 어머니는 선촌에서 중선배가 들어오면 생선을 받아 안면도에 가서 팔았다. 그 시절 안면도와 원산도 사이에는 나룻배가 있어 다닐 수 있었다. 중선배에서 생선을 받아가지고 안면도에 가서 곡식과 바꾸어 오는 것이었다. 하루 종일 생선을 이고 가서 팔고, 곡식으로 받아 이고 왔다. 이런 생활로 5남매를 양육하였다. 생선 값은 주로 일로 해 주었다. 중선배를 부리는 집에 가서 생선값 대신 일을 해주는 것이었다. 원산도 선촌 너머, 염전 있는 곳에는 일제강점기에 뚝은 만들었지만, 논으로 만들지 못한 황무지가 있었다. 이 황무지를 안성길의 형들이 5마지기나 개간하였다. 갈대가 난 갯벌을 파서 둑을 쌓고 논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렇게 만든 논은 오래 두면 염기가 빠져 농사지을 수 있었다. 이 논들은 나중에 국유지가 되었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두 불하받았다.

원산도에는 옛날부터 주벅이 많았다. 그 주벅에 청어가 많이 잡혔다. 청어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물이 터져도 다 나가지 못하고 남은 것을 잡았을 정도였다고 한다. 원산도는 1개의 법정리이지만 과거부터 3개의 행정리로 분구되었다. 1리는 선촌과 진구지이고, 2리는 점촌, 저두, 개경, 3리는 풋살, 짐말, 사창 마을이다. 이장도 다르고 어촌계도 따로 한다. 원산도는 하천이 없어 모두 하늘만 바라보는 천봉지기였다. 옛날에 비가 오지 않으면 초복 때까지 모를 심었는데, 물이 없으면 작대기로 구멍을 뚫고 심었다. 꼬챙이모라고 하였다. 초복 때 심어도 그 후에 비가 오면 1마지기에 1섬은 먹을 수 있었다. 이것을 원산도에서는 '대석'이라고 하였다. 날이 가물면 못자리가 문제였다. 못자리가 말라 타 죽으면, 밤새워 샘물을 받아다 못자리에 뿌려주기도 하였다. 마을 사람들한테는 욕먹을 일이었다. 먹는 물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원산도의 부잣집은 대개 논 20여 마지기를 지었다. 또 밭도 많았고 머슴도 두었다. 일소를 세워 논을 갈았고, 남의 논을 갈아주고 대신 품으로 받아 일을 하였다. 소를 키우

는 집에서 남의 논을 갈아주면 논 주인이 품으로 갚아 주는 것을 쇠품이라고 하였다. 논 1마지기를 다루어주는데, 모두 5일의 품으로 갚아야 했다. 육지보다 2배로 많은 품이다. 소가 귀해서 그렇게 비쌌다고 한다. 그러나 쇠품을 가서는 땀 흘려 일하는 경우는 드물었고 그냥 슬슬 일했다고 한다. 그리고 부잣집에 쇠품으로 일을 가면 밥도 잘 먹고 참도 얻어먹어 좋았다고 한다. 원산도 간척지에는 많은 풀이 나 농사짓는 데 힘들게 했고, 특히 날이 가물어 마르면 더 많은 풀이 났다. 원산도의 간척지에 난 풀은 사위질빵, 방동사니, 가래 등이 많이 났다. 제일 많이 난 것이 방동사니였다.

원산도의 주벅은 하나시, 삼상여 등지에 많이 맸다. 많은 주민들이 주벅을 매고 살았다. 주벅에 고기가 잘 잡히지 않고 매는 게 너무 힘이 드니까 전라도에서 낭장망이 들어왔다. 매기도 쉽고 더 깊은 곳에 설치하여 고기 잡기가 좋았다. 주벅하는 기술을 외연도에 전해준 사람도 원산도 사람이었다. 외연도 주민들은 주벅을 맬 줄 몰랐는데 원산도 사람이 외연도 명금에서 주벅을 매고 이어서 낭장망을 매어 많은 돈을 벌었다. 외연도 사람들도 따라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현재 원산도는 다른 섬처럼 해삼이나 전복 양식은 거의 없다.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바지락이다. 어촌계에서 날짜를 정하여 공동작업을 한다. 1년에 대략 가구당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 장고도나 외연도의 어촌계 소득에 비하면 아주 적은 액수이고, 또 본인이 바지락을 캔 소득이다. 1,2,3리 어촌계가 따로 운영된다.

원산도와 안면도 사이에 있는 어장이 모두 안면도로 귀속되어 타격이 크다. 주민들은 예부터 원산도와 안면도 사이에 있는 검은여, 미녀, 큰여 등에 나가 조개를 잡았다. 이곳은 썰물 때 드러나는 어장으로 과거에는 자유롭게 조개를 잡은 곳이다. 그러나 태안군과 경계를 획정하면서 모두 태안군 구역으로 되어 들어갈 수 없다. 원산도 주민들에게 타격이 크다. 이렇게 썰물 때 드러나는 여나, 풀등에 가서 갯것하는 것을 '여파루'라고 한다. 여파루를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배를 가진 사람에게 운임조로 어획물을 준다. 조개를 한 바가지 주는 식이다.

한때 이미골에 살던 한학이 깊은 선생님이 서당을 만들어 원산도의 젊은 사람들에게

한문도 가르치고 한약을 공급하기도 하였다. 한약 중에는 아편도 있었다. 아편은 원산도에서 재배한 것이었다. 원산도에는 아편중독자도 많았지만, 중독되지 않은 사람도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아편을 별 거부감 없이 맞았다. 안성길의 어머니도 속애피가 일어나면 아편 주사를 맞아 치료하였는데 96세까지 살았다. 선촌에는 아편중독자가 3명 있었다고 한다. 아편은 녹두알만 하게 공급되었다. 이것을 주사로 맞기 위해서 숟가락에 물과 함께 넣고 끓여 주사하였다. 이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약솜을 숟가락에 담가 주사기로 빨아들였다. 아편중독자는 팔이 퍼렇게 멍들어 엉망이었다.

원산도에는 무자격 의사가 주민들을 치료하였다. 수술 같은 것은 하지 않고, 진맥을 하고 청진기를 대 보고 진료하였다. 큰 병이면 육지 병원으로 보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이 신뢰했다. 조기를 잡으러 가는 중선배들은 출항하기 전에 당집에서 위하고, 또 용왕제를 지내고 출항하였다. 그리고 연평도에 도착하고서도 제를 올렸다. 연평도에서 돼지를 잡아 제를 올리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주민들은 주로 광천장을 보았다. 광천장을 보기 위해서는 하루 전에 원산도를 출항해서 독배나 광천에서 자고 장을 보았다. 원산도에는 독배에 다니는 장배가 4척이나 있었다. 이들 장배는 어로활동을 하지 않고 주민들의 운송만 담당하였다. 포구마다 장배가 있어 주민들로부터 배삯을 받고 운영하였다. 광천 독배까지 가는 데는 한 물때(6시간)를 보고 다녔다. 주민들이 가지고 나간 것은 절인 생선이나 말린 생선, 곡식 같은 것이었다. 사람들은 중선배에서 고기를 떼어 절이거나 말려서 광천장에서 팔곤 하였다. 중선배는 사리 때 조업하기 때문에 조금 때 들어왔다. 잡은 고기의 대부분은 현지에서 팔지만, 소금에 절인 고기는 선원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이 고기가 유통되었다. 조금 때가 되면 육지에서 엿장수들이 엿을 많이 가지고 들어와 생선과 바꾸기도 하였다.

원산도 사람들은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은 뒤로, 농업에 열중하여 많은 쌀이 생산되었다. 생산된 쌀의 70%는 외지로 반출된다. 이런 쌀을 방아 찧기 위해 방앗간이 3개나 있었다. 발동기를 설치한 방앗간이 있기 전에 사용하던 연자방아는 없었다고 한다.

원산도의 논에는 민물고기가 많다. 미꾸라지, 송사리, 붕어, 뱀장어, 참게, 웅어, 우렁

등 육지와 같은 민물고기가 살고 있다. 개구리도 많고, 뱀도 많다. 뱀의 종류도 육지와 같다. 원산도 선촌의 당집은 문화재급이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이 한창인 1970년대 당집을 없애자는 편과 존속시키자는 편이 갈라져, 기존의 당집을 헐고 블록으로 다시 지었다. 원래의 당집은 1칸이었지만 기둥이 아름드리였고, 바닥도 나무로 깔았으며, 오래되었다. 당집의 대들보에는 광무 7년에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 당집을 새로 블록으로 지으면서 옮겨 적어 놓았다. 당집에는 3개의 위패가 있어 제를 모셨다고 하는데, 당집을 새로 지으면서 위패도 없어졌다고 한다. 당집 때문에 효자도와 은연중 다툼이 있다고 한다. 서로가 남자당이라고 우긴 것이다. 원산도 사람들은 원산도가 남자 신이 있는 당이고, 효자도는 여자 신이 있는 당이라고 하며, 효자도 사람들은 그 반대라고 우기는 것이다.

안성길은 할아버지들이 소를 잡아 당제를 지내는 것을 보았다. 마을회관 옆 참나무 밑에는 마을의 마당이 있었고, 이곳에서 소를 잡아 당제를 지냈다. 이렇게 크게 지냈던 당제는 원산도에 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아 가난해지면서 쇠퇴하였다. 이후에는 쇠머리를 사다가 떡과 밥을 해 놓고 지냈다.

선촌마을에 당제를 지낼 때에는 육지에서 무당들을 불러다가 굿을 해가면서 크게 지냈다. 정월 열사흗날, 현재 마을회관 뒤에 있는 참나무에 줄을 늘어뜨리고 오색 깃발을 매고 무당들이 춤을 추었다. 큰 구경거리였다. 마을 경제가 어려워진 이후에는 무당들을 부르지 않고 마을 사람들이 했지만 이 날 제를 올렸다. 보름 새벽 당집에서 당제를 지낸 후에, 선촌 바닷가로 와서 짚으로 만든 띠배에 각종 제물을 담아 띄워 보내 제를 마쳤다. 당제를 마친 뒤에 결산을 했는데, 이것을 '하기 닦는다'라고 하였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와 풍물치고 술 마시고 놀았고, 남은 쇠고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이곳은 참나무 아래,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이다.

원산도 전역에서 김양식을 하였다. 각 어촌계 단위로 매년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하였다. 그는 10떼 정도를 매었다. 김의 포자는 주로 전라도에서 붙여 왔다. 염전은 해방 후에 만들었다. 1979년 해저케이블로 전기가 들어왔다.

| **편제환**(1939년생) 보령시 오천면 장고도리 |



장고도

편제환(片齊煥)은 절강편씨이다. 현재 장고도에는 절강편씨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의 8대조가 안면도 장곡, 노루땅이라는 곳에 살다가 장고도에 정착하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슬하에 4형제를 두었다. 그의 아버지는 안강망어업을 하여 많은 돈을 벌었으나 나중에는 실패하였는데 7남매를 두었다.

편제환은 장고도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광천으로 나가 중학교(광천중)와 고등학교(광천상고)를 마쳤다. 장고도에서는 드물게 고등학교까지 다닌 것이었다. 당시 광천상고

는 명문이었다. 이후 고향에 들어와 장고도 처녀와 결혼하여 5남을 낳아 길렀다.

편제환의 조상이 장고도를 개척할 당시 장고도는 무인도였다고 한다. 장고도에는 편씨 이후에 강씨들이 귀양 와서 정착하였고, 다음에 박씨들이 들어왔다고 한다.

장고도에 처음 마을이 생긴 것은 대머리해안이다. 이곳은 현재 선착장이 있는 평평한 모래땅으로 여기에 정착했다가, 서쪽 산 너머 위방죽들 동쪽 덕개동이라는 곳으로 옮기고, 다음에는 중산 쪽으로 옮겼다가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한다. 대머리해안에서 서쪽 산너머로 옮긴 것은 샘 때문이었다고 한다.

장고도에 김청일이 들어오기 전에는 서당이 있어 한문을 가르쳤다. 편제환의 아버지 세대가 다녔고, 편제환도 어렸을 때 서당에서 천자문을 배웠다. 훈장은 외지인이었고 매우 엄격하였다. 오늘 배운 것은 내일 모두 쓰고 외워야만 했으며 잘못하면 종아리를 심하게 맞았다.

1950년대 북에서 피난 온 김청일이 장고도에 정착하였다. 그는 명필이었고 한문을 많이 알아 마을 사람에게 한문과 한글을 함께 가르쳤다. 김청일의 지도로 장고도 사람들은 문맹에서 벗어났다. 그 후 장고도에 초등학교가 생겼다. 김청일은 장고도에서 결혼하여 5남매를 낳아 길렀다.

장고도에서 논이 가장 많은 곳은 윗방죽들이다. 장고도에 들어온 옛 어른들에 의해 개척되었는데, 과거에는 완전히 천수답이었다. 날이 가물면 모내기를 전혀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장마에 물이 많아지면 물을 가두어 농사를 지었다. 물 문제가 해결된 것은 전기가 들어와 지하수를 개발하고 양수기를 설치하면서부터이다. 옛날에는 들샘(둠벙)도 없었다고 한다.

장고도 주민들이 흉년에 많이 먹었던 것은 말밥이었다. 장고도에는 참말이 지천이었고 이것을 뜯어다 밥을 해 먹었다. 말은 뻣뻣하기 때문에 여러 번 삶고 문질러서 부드럽게 하여 보릿가루나 밀가루와 함께 버무려서 밥을 하여 먹었다. 맛이 좋았고, 굶주린 주민들을 살려주었다. 장고도에는 칡도 없었다. 유일한 먹거리가 말이었다.

장고도 사람들은 광천 장곡 사람들과 유난히 친밀하게 지냈다. 광천장에서도 만나 거

래를 하였지만, 장고도에서 해산물을 장곡에 가져가 팔기도 하고, 장곡 사람들이 장고도에 들어와서 거래하기도 하였다. 장고도에 안강망이 들어오면 장곡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 주로 물물교환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 장곡에서 쌀도 많이 가져다가 먹었다.

그 시절 안강망이 한 20여 척이나 되었다. 안강망 배는 바람을 이용하는 풍선배였지만 무척 컸다. 안강망배들이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오면 장고도는 많은 고기와 사람들로 넘쳐났다. 편제환의 아버지도 이런 안강망배를 운영하였고,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었다. 안강망을 하는 배들은 현재 마을 앞에 있는 모래와 자갈로 된 언덕인 선창에 대었다. 선창에는 돌로 된 배말뚝이 많이 있었고, 여기에 배를 묶어 놓았다.

안강망 배에는 1척당 선원이 5~6명이었다. 선장이 있었고, 선장 밑에는 앞선장, 뒷선장이 있었으며, 음식을 장만하는 사람을 화장이라고 하였다. 이런 직책이 없는 하급 선원을 영자라고 하였다. 어획량은 배 주인과 선원들이 반반씩 나누었다.

연안에는 주벅을 맸다. 주벅은 나무 기둥을 2개 세우고 자루 같은 그물을 매다는 어법으로, 장고도 북쪽의 종두려, 남쪽의 돛단여, 동쪽의 부녀 근처에 맸는데, 한 곳에 20여 개나 되었다. 주벅에는 많은 고기가 잡혔다. 주벅 매는 자리는 고정되어 있었고 후손에게 물려주었으며 팔기도 하였다. 좋은 장소는 비싼 값에 거래되었다고 한다.

장고도 사람들이 여파루 가는 여는 주로 돛단여이다. 돛단여에 가면 사람들이 출입하기 어려운 곳이라, 소라, 박하지, 청각, 지충 등이 많아 큰 그릇을 가지고 가서 잡았다. 배가 없은 사람은 배를 얻어 타고 가므로 배 주인에게 고마움으로 잡은 해산물을 덜어주었다.

장고도에는 많은 독살이 있었다. 마을 뒤 서쪽 바다에도 있었고, 마을 앞 동쪽 바다에도 있었다. 독살은 고기가 많이 들어가는 좋은 독살도 있었고, 고기가 잘 안 들어가는 독살도 있었는데, 현재 배 타러 가는 길 옆, 부녀 쪽에 있는 독살이 가장 좋았다. 독살은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모두 주인이 있었다. 독살에는 고기가 많이 드는 경우, 어떤 때는 멸치가 몇십 가마 들기도 하였다. 이런 때는 젓을 담지만, 처리하지 못하면

밭에 거름으로 사용하였다. 고기가 많이 들어도 마을 사람이 잡아가지는 않았다.

1960년대, 편제환이 군대에 갔다 와서 이장을 맡아 일할 때 장고도에 낭장망이 시작되었다. 낭장망은 주벅의 말뚝 대신, 돌에 희(부력 있는 스치로폼)를 매달고 그물을 다는 것으로 원리는 주벅과 같으나 더 깊은 곳에 설치할 수 있었다. 처음 시작한 사람은 전라남도에서 온 채씨 형제인데, 그에게 팔고 갔다. 그가 낭장망으로 많은 고기를 잡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여했고, 마을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봄이면 오징어, 갈치를 잡아 팔았고, 이후에는 까나리, 열치, 멸치 등을 잡았다. 이것들은 모두 장고도에서 삶아 말려 팔았는데, 말리는 장소가 없어서 문제였다. 당시 한 집에서 하루에 200포대 정도의 마른 멸치를 생산해서 팔았다. 낭장망의 고기는 밤에도 꺼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였다. 생산량이 워낙 많아, 장사꾼들이 장고도에 들어와서 입찰하기도 하였다.

당시 멸치를 삶는 것이 기술이었다. 벙커C유를 태워 끓였는데 적당히 삶아야 했고, 특히 간을 잘 맞추어야 했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말리기는 좋은데 너무 짠 것이 흠이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말릴 수가 없어 모두 젓갈을 담았다.

이렇게 장고도에 부를 가져다 준 낭장망은 점차 소멸되었다. 어족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장고도에서 낭장망을 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현재 장고도에는 낭장망도 없고, 안강망도 하지 않는다. 요즘 안강망은 뺑뺑이라고 불리는 개량 안강망으로 바뀌었는데, 장고도에서는 운영하기 어려워 하지 않고 있다. 모두 대천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장고에서는 다만 해삼, 전복, 바지락 등을 양식하고 있을 뿐이다. 장고도에 어선어업은 없어진 대신 낚싯배가 늘어나고 있다.

옛날 안강망배는 참나무로 만든 닻을 사용하고 황톳물 들인 돛을 사용하였다. 안강망은 자루 같은 그물을 닻으로 고정시켜 밀물썰물에 이동하는 고기를 잡는 것이다. 현재는 쇠로 만든 닻을 사용하는데 옛날 장고도의 안강망배들이 사용하던 닻은 모두 참나무로 만들었다. 큰 참나무를 반으로 갈라 닻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쇠만은 못하지만 충분히 역할을 하였다. 이렇게 무거운 닻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께, 운찌라고 불리는 일

종의 도르래를 이용하였다.

옛날에는 방파제가 부실하여 바람이 불면 낭장망에 쓰는 배를 모두 선창 위에 올려놓았다. 배를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고, 배 밑에 나무를 깔고 굴려서 올렸다. 이 나무를 괴탱이라고 했는데, 괴탱이를 넣는 사람이 기술자였다. 배를 내릴 때도 괴탱이를 넣고 내렸다. 배를 이동시킬 때 드러누워 발로 밀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1980년 장고도에서는 등바루놀이를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출품하기로 하고 연습을 하였다. 장고도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놀이를 각색하여 연습했는데, 지부장이라고 불리는 사람과 민속경연대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하에 40여 일을 학교에서 연습하였다. 공연에 참여한 사람은 25명이었고, 예비 출연자 5명까지 30명이 연습하여 참여하였다. 당시 경연대회는 제주도에서 열렸고, 떠나기 전날에는 태풍이 불어 장고도에 많은 피해를 입히기도 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어 출발하였다. 10월 29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공연을 끝냈으나, 아쉽게도 최고상(대통령상)을 받지는 못하고 문화공보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등바루놀이의 원형은 찔레꽃으로 꼭두각시를 만들어가지고 무당이 대를 잡는 것처럼 처녀들의 고민을 말하면 응답하여, 의사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다. 돌방을 지어놓고 마을 처녀들이 모여 꼭두각시에게 고민을 말하고, 꼭두각시의 응답을 들었다. 이날 부모들은 오곡밥과 안강망 어선이 잡아온 좋은 생선으로 음식을 만들어 갖다 주었다. 처녀들이 무동을 태우고 마을을 돌며 노래들 부르고 끝났다.

장고도에서는 당제를 엄격하게 지냈다. 음력 12월 30일 대동총회을 열어 당주를 뽑고 당제 날짜를 잡았는데, 여러 가지 사정과 일진을 보아 뽑았다. 당주로 선발되면 당산에 가서 상황도 보고 청소도 하였으며, 생활도 근신하였다. 대동총회에서는 선주들한테서 돈을 모아 당주에게 주고, 당주는 광천장에 가서 제물을 구입해 온다. 과거 안강망이 성할 때에는 마을에서 기르던 소를 잡아 사용하였으나 안강망이 쇠퇴한 이후에는 광천장에서 소고기를 사다 사용하였다.

장고도에서는 당제 기간에 마을에서 출산하면 안 되는 금기가 있었다. 출산을 부정으

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윗방죽들 동쪽, 덕개동에 해막을 짓고 당제 기간에 아이를 출산하는 집으로 하였다. 이 집에 김청일이 들어와 살았는데, 해막으로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불편한 점이 많아, 마을과 가까운 학교 옆에 새로 짓기도 했다. 이후 불편한 점이 많이 마을 회의를 거쳐 해막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당제도 쇠퇴하였다.

장고도에는 금기사항이 많았고, 금기사항이 엄격하게 지켜졌기 때문에 초분을 많이 하였다. 사람이 죽어도 금기 때문에 매장할 수 없다고 하면 일단 초분을 하고 뒤에 매장해야 했다. 초분의 장소는 공동묘지 주변이었고, 편제환이 어렸을 때 10기 이상의 초분이 있었다.

| **최두철**(1946년생)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추도 |



추도

최두철(崔斗澈)은 경주최씨로 1946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 내에 있는 추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안면도 누동리에서 출생하여 거주하다가 추도에 사는 고씨 부인을 만나 데릴사위로 들어와 살았다. 그의 부모가 9남매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최두철은 8째로 막내아들이다.

그의 형제들은 모두 학교교육을 받지 못했다. 집안 형편이 어렵고 추도에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만 막내아들이라고 특별히 생각하여 안면도에 있는 외가에서 고남초

등학교를 다녔다.

그의 아버지는 6·25전쟁 때 남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했다. 어디 사람 배인지는 잘 모른다. 육도 사람 배이거나, 안면도 황도 사람의 배일 것으로 추측되었다. 왜냐하면 그곳에 중선배들이 있어 먼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았기 때문이었다. 인민군이 내려와 인공치하가 되었을 때도 고기를 잡으러 나갔고 고기를 팔기 위해 법성포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때 법성포에서 나오는 배에 육도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말을 듣지 않고 갔다가 인민군들에게 학살되어 구덩이에 묻혔다고 한다. 그날이 대략 음력으로 9월 15일이다.

최두철의 큰형은 원산도 풋살에 살던 부자인 김갑동의 배를 탔었다. 워낙 착실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선주가 사위를 삼았다.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이 지나 원산도에서 추도로 전마선을 타고 오다 전복되어 사망하였다.

아버지는 전쟁 때 학살되었고 큰형은 사고로 돌아가시니 많은 가족들을 어머니가 모두 돌보아야 했다. 어머니는 행상을 하였는데, 추도의 주벅에서 고기를 잡으면 그것을 사서 머리에 이고 안면도에 가서 팔았다. 당시 안면도하고는 왕래가 많아 배편이 있었고 이 배를 타고 안면도에 다니면서 행상을 한 것이다. 고기를 이고 가서 곡식하고 바꾸어 왔다. 어머니가 행상을 하여 9남매나 되는 가족을 키웠다. 막내아들을 제외하고 아무도 학교를 보내지는 못했지만, 당시 흔했던 민며느리로 보내거나 식모로 보내지 않고 모두 키워 출가시켰다.

최두철은 군대에 다녀온 후, 추도분교에 기능직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당시에는 청부라고 불렀고, 그것도 1년 동안 임시직으로 있다가 정식이 되었다. 그러다가 광천 장곡에 사는 처녀와 혼인하였다. 장곡에는 동생이 시집가서 살고 있었는데 동생의 남편과 처남이 친구인 관계로 중매를 섰던 것이었다. 그는 결혼 후 1남 2녀를 낳았다. 아이들은 추도에서 초등학교를 마친 후에는 서울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시켰다. 처음에는 처제의 도움으로 진학시켰지만 나중에는 집을 마련하여 아이들을 가르쳤다.

추도에는 1마지기 정도의 논이 있어 논농사를 짓기도 하였고, 1만 평이 넘는 밭이 있

었다. 밭에는 주로 보리와 콩, 마늘, 고추 같은 채소를 심었는데, 추도에는 쟁기질하는 소가 없어 안면도 사람들이 갈아 주었다. 봄과 가을에 들어와 갈았는데 소를 실어 와야 했다. 소가 들어오면 약 1주일 동안 일해야 추도의 밭을 모두 갈 수 있었다. 소가 배를 타고 건너올 때, 대개는 길들여진 소라 말을 잘 들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앞발을 들어 올려놓았다. 소는 앞발만 오르면 스스로 오른다. 소의 먹이는 밭주인이 해결해 주었다.

추도에는 열댓 가구가 살았고, 최고 많을 때는 18가구까지 살았다. 그런데 주벅을 매는 집은 10가구 정도였고, 나머지는 주벅을 매지 않았다. 당시 주벅을 매는 사람들은 그래도 잘 살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려웠다. 주벅이 없는 집은 주벅에서 나오는 고기로 행상을 하곤 하였다. 행상도 다른 곳은 교통편이 없어 안면도로 다녔다.

나무 말목을 세우는 주벅을 맨 후에는 기술이 발전하여 낭장망을 매었다. 최두철의 형들이 장성하여 낭장망을 매었다. 낭장망을 맨 후 살림이 나아졌다. 현재도 추도에는 1개의 낭장망이 운영되고 있다. 소도와 추도 사이에 낭장망을 맸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

추도에서는 옛날부터 김발을 매었다. 김발을 맬 수 있는 곳이면 모두 매었기 때문에 섬 전체에 김발이 있었다. 추도의 김발은 한번 매면 계속해서 맬 수 있었다. 다른 마을처럼 돌아가면서 매는 것은 없었다. 최두철은 15떼 정도를 맸는데 하루에 2~3동, 즉 2000~3000장을 생산하였다. 처음에는 햇볕에 말렸기 때문에 많이 생산하지 못했으나 후에는 방에 난방을 해서 말렸기 때문에 3동까지도 생산할 수 있었다.

추도에서는 처음에는 대나무를 이용하여 김발을 하였고, 후에는 실그물을 이용하였다. 포자를 붙이는 것도 처음에는 마을에서 그냥 포자를 붙였고, 후에는 조개껍질에 붙은 인공포자를 이용하였다. 마을 사람 모두가 김으로 높은 소득을 올렸다. 추도에는 갯벌이 넓지 않아 조개나 굴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안면도와 원산도 사이에 있는 검은여, 풀등 등에 가서 조개를 잡았다. 이렇게 썰물 때 드러나는 여나 풀등에 가서 잡은 것을 '여파루'라고 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런 곳이 모두 태안군에 속하게 되었다.

추도는 항구 조건이 불리하고, 주변 바다가 유속이 빨라 큰 배를 정박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옛날부터 중선배도 없고 작은 배만 운영하였다. 태풍이 불면 배들을 오천으로

피항시켰고 작은 바람이 불면 섬 뒤쪽으로 배를 옮겨 바람을 피했다.

추도와 소도는 완전히 안면도 생활권이었다. 모든 일이 안면도와 함께 이루어졌다. 사람이 죽었을 때 허육도에 공동묘지가 있고 상여가 있었지만, 추도 주민들은 안면도에서 상여를 가져와 시신을 안면도로 운반하여 매장하였다. 안면도가 더 가깝고 더 친숙한 생활권이었기 때문이다. 허육도의 공동묘지는 주로 육도와 월도 사람들이 이용하였다. 특히 월도에는 묘를 쓸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허육도에 매장하였다. 추도와 소도는 안면도와 가까워 같은 생활권이지만, 그래도 5개 섬(월도, 육도, 허육도, 추도, 소도)는 한 마을이고 이장도 하나여서 한 마을이었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주민 모두가 일을 하지 않고 돌보아 주었다.

추도에서는 주벅의 말뚝을 세우기 위해 썰물 때 갯벌에 돌을 쌓고 동아줄로 감은 후, 말뚝에 연결하여 말뚝을 세웠다. 동아줄을 크게 만들었고 짚도 많이 들었다. 현재도 썰물 때는 돌 쌓은 것을 볼 수 있다.

추도에도 당제를 지냈는데, 섣달그믐날이나 정월보름날 지냈다. 당주가 정해지면 상가집에 가지도 않고 모든 언행을 삼갔다. 제물로 소나 돼지를 잡지는 않고, 떡, 밥, 과일 등으로 지냈다. 일반 제사처럼 저녁때 올라가 자정쯤 지냈다. 마을 어린이들이 떡을 얻어먹으러 따라가기도 하였다. 출산하는 사람을 위한 해막도 없었고, 출산 때 피신하지도 않았다. 제를 지내는 당산은 가장 높은 꼭대기로 큰 나무가 있었다. 당집은 없었고, 큰 독에 제사에 쓰는 그릇을 담아 놓았었다. 현재 그릇은 모두 없어지고, 울창한 당숲만 남아 있다.

추도는 최고 전성기에 18가구가 거주한 작은 섬이다. 이런 섬에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 신창화가 교육청을 찾아다니면서 운동을 하였다. 그의 노력으로 마을 주민들이 땅을 희사하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어 주었다. 추도분교에는 처음에 5개 섬 학생들이 모두 다녀서 학생 수가 60~70여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월도분교가 지어진 후로는 크게 줄었다. 한때 본교로 승격하려고 했으나 월도분교가 생기는 바람에 무산되었다. 월도분교가 생기기 전에는 추도분교에 학생 기숙사가 있었다. 수십 명의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

했고, 학교에서 고용한 아주머니가 밥을 해 주었다. 기숙사 관리는 교사가 했다. 그러나 월도분교가 생겨 월도, 육도, 허육도 학생들이 월도분교로 들어가게 되고, 추도분교에는 추도와 소도의 어린이들만 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규모가 급격히 줄었고, 기숙사도 없어지게 되었다. 대신 장학선이 만들어져 5개 섬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실어 날랐다. 월도와 추도로 실어 나른 것이다.

어촌계는 효자2리 어촌계로 5개 섬이 함께 하는데, 어로작업은 자기가 사는 섬에서만 한다. 추도 사람은 추도에서만 바지락이나 굴을 잡고, 소도에 가서는 잡지 못한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는 들어가서 잡을 수 있다. 이스라지 섬은 보령 관할구역이고, 추도와 제일 가깝다. 섬은 완전한 바위섬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바위섬이 아니고, 풀이 나 있다. 해산물은 추도 본섬과 비슷한데 바지락은 별로 없다.

추도 뒤에 있는 여가 우무녀이다. 우뭇가사리가 많아 붙여진 이름인데, 썰물 때는 노출되지만 들물이 되면 보이지 않아 아주 위험한 바위이다. 이 여에는 우뭇가사리가 많고 홍합이 지천이었다. 과거에는 우뭇가사리가 돈이 되는 해초이기 때문에 우뭇가사리를 주로 뜯고, 나오기 전에 국수해 먹으려고 잠깐 홍합을 잡았다. 잠깐 잡아도 큰 홍합을 수십 개씩 잡을 수 있었다. 우무녀에서 효자도 동쪽 멍덱이까지는 홍합 천지였다. 심지어 홍합이 겹겹이 깔려 있었다. 물발이 센 곳이기 때문이다. 이런 홍합을 잠수기어선들이 모두 잡았다. 황금어장이었다.

추도는 작은 섬이고, 산의 대부분은 밭으로 개간되었기 때문에 나무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나무는 안면도 등지에서 사다 썼다. 나무까지 사서 쓰는 바람에 살림이 어려웠다.

추도에는 샘이 좋았다. 날이 가물면 부족하기는 했으나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김을 할 때도 4개의 샘으로 충당하였다. 월도 같은 물 부족은 없었다. 월도에서는 지붕에 내린 물을 모두 받아 사용하였다.

추도 주민들은 광천장을 보았다. 추도에서 출발하는 장배도 있었으나 대부분 안면도에서 출발하는 장배를 이용하였다. 안면도 장배들이 추도를 거쳐 간 것이다. 주벅으로

잡은 작은 생선을 말려 가마니에 담아 독배로 가지고 가면, 광천장까지 운반해 주는 사람이 있었다.

1970년대 초, 최두철이 주동하여 마을에 전깃불을 켰다. 경운기 엔진을 사다가 발전기를 돌려 해질 때부터 저녁 9시반~10시까지 공급하였다. 마을 청년 2명씩 당번을 정하여 엔진을 돌리고 끄고 하였다. 1주일에 한 번씩 당번이 돌아왔다. 이런 자가발전을 약 3~4년 동안 하였다.

이웃한 소도에는 군부대가 있어 정식 전기가 안면도에서 들어왔다. 이것을 보고 당시 추도분교에 근무하던 유승일이 힘을 써 대전의 전업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전업사의 도움과 마을 사람들의 힘으로 나무로 된 큰 전봇대를 세워 소도에서 전기를 끌어왔다.

최두철의 어머니는 정월이 되면 꼭 안택을 했다. 추도에는 무당이 없어 광천이나 안면도에서 불러다 했는데 집집마다 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했다. 1970년대까지도 안택을 했다.

| **최기환**(1932년생) **정봉섭**(1932년생) 보령시 오천면 호도리 |



호도

정봉섭(鄭奉燮)의 선대는 대천 남곡동에 거주하다가 녹도로 들어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왔는지는 알지 못한다. 아버지가 녹도에서 원산도의 안씨 성을 가진 별장 딸을 만나 결혼하였고, 1932년 정봉섭을 낳은 뒤, 곧바로 길산도로 이주하였다. 길산도에서는 7년 정도 거주했는데, 이때 그의 아버지는 녹도에 주벅에서 일했다. 아버지는 아들을 공부시키려고 학교를 찾았으나 호적이 되어있지 않아 선생님의 도움으로 호적에 올렸는데 모두 4살씩 줄여 호적을 만들었다. 그래서 4년이나 늦은 1936년생이다.

그는 뒤늦게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형편상 호도에 살며 녹도로 공부하러 다닐 수가

없어 5~6개월 다닌 뒤에 그만 두고 호도에서 한문서당에 다녔는데, 열심히 공부하여 통감 초권까지 읽었다.

최기환(崔起煥)은 경주최씨로 할아버지가 홍성군 결성면에서 사시다가 호도에 사는 밀양박씨와 결혼하여 호도에 들어오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부인을 둘 데리고 한 집에서 거주하였다. 할아버지는 아들 둘, 딸 둘을 낳아 길렀는데 딸 하나만 안면도 중장리에 살았고, 나머지는 모두 호도에 거주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가난하여 남의 배를 타고 생활했는데 1952년 2월에 홍어배를 타고 나갔다가 사망하여 시신도 찾지 못하였다. 아버지는 4남 1녀를 남겨 놓았고 최기환이 장남이었다. 최기환은 호도의 동년배처럼 학교에 가보지 못했고 13살에 장가들었으며 18살 때부터 배를 탔다.

호도 주민들은 김, 미역, 가시리(세모), 청각 등을 뜯어 말려서 팔아 현금을 만졌다. 이것은 홍어배 사고로 가장을 잃은 여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해초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것이 김이었다. 주변 섬에 가서도 뜯어왔는데, 많이 하는 경우에는 5인 가족이 1사리(15일)에 10동(1만장) 정도를 하였다.

호도는 외연도나 녹도와 달리 논이 있었다. 논이 20여 마지기 되었고 밭도 많았다. 그러나 대부분 일본인 땅이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들어간 후, 그 땅들은 정부 땅이 되었고, 농사를 지어 땅값을 상환한 후 개인 땅이 되었다. 호도에는 농사짓는 땅이 많기 때문에 소를 길러 쟁기질하는 집이 있었다. 정봉섭도 쟁기질을 잘 해서 남의 밭을 갈아주기도 하였다. 소는 처갓집에서 길렀다. 남의 밭을 한나절 갈아주면 보리를 말가웃, 많으면 두 말을 받았다. 호도에서는 쟁기질도 했지만 따비로 파는 사람도 있었다.

호도에는 학교가 없었다. 녹도에 있는 학교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통학할 수가 없었다. 해방 후 학교가 설치되어 남녀 모두 취학할 수 있었다. 그들이 현재 일흔이 넘었다.

호도에는 7척의 홍어배가 있었다. 이 배들은 풍선배지만 배가 커, 멀리 나가 홍어를 잡았다. 어청도가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나갔다고 한다. 이 홍어배들을 운영한 사람들은 모두 부자로 이웃 사람들을 고용하여 6명이 출어하였다. 이 중 3차례에 걸쳐 4척의 홍어배가 침몰하여 단 1명만이 살아남고 23명이 사망하였다. 당시 호도에 거주하던 43

가구 중에서 절반 이상이 사망한 것이다. 호도 인근에 있는 녹도에서는 주벅을 매어 많은 돈을 벌었으나 호도에서는 주벅을 매지 않았다. 장소가 마땅치 못했기 때문이다. 나무를 세우는 주벅은 못했지만, 나중에 도입된 낭장망은 매었다. 학교 뒤, 동끝 근처에 4집이 맸다. 낭장에 들은 고기는 주로 멸치 종류였고 갈치도 들었다.

호도의 생활은 농업이 반 이상이었다. 보통은 밭 700~800평, 논 3~4마지기를 농사지었고, 부잣집은 논 7~8마지기, 밭 1000여 평을 농사지었다. 농작물은 보리, 콩, 수수 등이었다. 그러나 저수지가 없어 논농사는 쉽지 않았다. 10년이면 5년은 제대로 지을 수 없었다. 날이 가물면 모를 심을 수 없었고, 비가 와도 대략 1마지기당 1섬을 수확하였다. 주변 섬 중에서 그래도 물이 풍부한 섬이 호도이다. 호도는 논이 있고, 평지가 넓어 물이 풍부하여 아무 곳이나 파면 물이 나왔다. 농사짓는 물은 부족하였지만, 식수는 충분한 편이었다. 날이 가물면 녹도에서 배로 물을 길러 오기도 하였다. 펌프 샘이 들어온 뒤에는 집집마다 샘을 파고 펌프를 설치하였다. 현재는 마을 상수도물을 먹는다.

호도 동북쪽에 있는 뾰쪽한 섬이 명덕도이다. 벌의 멍덕처럼 뾰쪽해서 멍덱이라고 불렸고, 명덕도(明德島)라고 표기하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지도를 제작하면서 잘못 표기하여, 호도 바로 북쪽에 있는 분점을 명덕도라 표기하였다. 명덕도에는 홍합, 구둥, 굴, 굴통 등의 해산물이 많았다. 특히 굴통은 깨쳐서 젓국을 끓여 먹었다. 또 겉보기에는 바위섬으로 보이지만, 올라가면 좋은 잿땅으로 이루어져 온갖 식물이 자랐다. 달래가 많아 캐먹었고, 개나리(참나리)와 칡, 둥글레, 방풍, 단풍이 많아 캐다 먹었다. 흉년에는 개나리 뿌리를 소금포대로 캐다 먹었다. 단풍은 나물로 먹었고, 방풍은 약재로 썼다.

옛날에는 호도 근처에서 조기낚시를 하였다. 분점이나 질미(길산도), 외연도 근처에서 했는데 주변보다 깊은 소위 두멍을 찾아다니면서 조기를 낚았다. 많이 잡을 때는 하루에 500~600마리를 낚았다. 한번에 2~3마리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조기의 미끼로는 육지에서 미꾸라지를 사다가 살려놓고 사용하였다. 미꾸라지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포를 떠서 사용하였다. 잡은 조기는 운반선에 팔기도 했지만, 대부분 절였다. 조기는 칼을 대면 버리기 때문에 배를 타지 않고, 입에 소금을 넣어 항아리에 넣어 절여 팔았다.

소금을 넣을 때는 입이나 아가미를 통해 막대기로 쑤셔가며 넣었다.

호도 주민들은 대천장으로 많이 다녔다. 광천은 더 멀어 한물에 다니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호도에 장배가 있을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일단 녹도로 가서 장배를 타고 대천장을 다녔다.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호도에도 1907년에 일어난 녹도 의병 이야기가 전한다. 옛날 육지에서 녹도 출신이라고 하면 무조건 잡아가 숨기고 살았다든지, 녹도환란 때 누구누구가 죽었다든지, 녹도 맞은쪽 창배에 환란 때 녹도 사람들이 가지고 온 밧줄이 썩은 채 있다든지, 여인의 치마폭으로 사람을 살렸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호도에서는 지관이 없다든가 너무 추운 때 돌아가셨다든가, 후손을 보지 못했을 때 초분을 했고, 특히 6월에 돌아가시면 초분을 했다. 6월에 묘를 쓰기 위해 땅을 파면, 후손이 죽기 쉽다는 속설이 있어서 6월에는 땅을 파지 않았다. 초분이 3년 정도 묵는 것도 있었다. 나중에 정식으로 매장할 때 보면, 어떤 시신은 썩어 뼈만 있기도 하고, 어떤 시신을 바짝 말라 있기도 하였다. 호도 마을에는 서쪽에 공동묘지가 있고, 묘지에 상여집도 있다. 정봉섭의 기억으로는 세 번 정도 상여를 다시 만들었는데, 새 상여를 사 오면 옛 상여는 모두 불태웠다. 상여를 새로 사올 때 노인을 태우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상여가 나갈 때는 북을 치고 나갔다.

호도 마을에도 정봉섭의 회갑 무렵까지 당제를 지냈다. 당집은 과거에는 작은 기와집으로 있었으나 새마을운동 시기에 블록으로 크게 지었다. 당집에 모신 신은 알지 못한다. 그냥 산신, 당산신 정도로 알았다고 한다. 당제는 마을에서 당주 1명과 발당주 2명을 뽑아, 동짓달에 택일해서 지냈다. 호도에는 홍어잡이 배가 많아 겨울에 출어했기 때문에 겨울이 시작되는 동짓달에 지낸 것이다. 제물은 대천장에 가서 소를 사다가 잡아 사용하였고, 떡과 밥, 과일 등을 올렸다. 제물을 마련하는 곳은 당집 아래에 평평한 곳이었다. 이곳을 막태라고 했는데, 이곳에서 소를 잡고, 떡방아를 찧어 떡도 만들었다. 절구는 마을의 정갈한 집에서 가져다 썼다.

당제는 마을 샘을 품고 봉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마을 샘을 깨끗하게 품어내

고, 봉하면 마을 사람 누구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당제가 끝나야 사용하였다. 당주와 발당주는 저녁에 당에 올라가서 준비를 해서 지내는데, 3일 걸렸다. 당집에서 자가면서 제를 준비하고 올리는 것이다. 당 내리기 전날에는 마을의 뱃기들이 당집으로 올라가고, 당집에서 제를 마치면, 뱃기와 함께 하당으로 내려와 제를 올리고 잔치를 한다. 하당에서 제를 올린 뒤에는 모든 제물을 가져다가 먹고, 남은 것은 전 주민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준다. 이때 마을 주민 모두가 모이고, 풍장을 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배를 가진 사람들은 뱃기를 가져다 배에 달고 뱃고사를 지냈다.

당제 기간에 출산이 예정된 임산부는 가운데논골에 있는 집으로 피신을 하였다. 가운데논골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고, 당집이 보이지 않았으며 2가구가 있었다. 그래서 당제 기간에는 이곳에 부탁하여 피신하였고, 그곳에 해막이라는 막을 치고 출산하기도 하였다. 이곳에는 우물이 있어 마을 주민들과 같은 물을 먹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였다. 최기환도 작은 아들을 출산하려고 해막으로 갔는데, 다른 사람도 들어와 있었고, 아침이 되니까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이 마을에 사는 김인규의 어머니가 64세인데 당시 해막에서 태어났다.

호도에 홍어배는 7척 있었다. 모두 풍선배였고 6명씩 타고 다녔다. 주낙은 물살이 세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에 맞추어 출항하였다. 출항할 때는 주낙을 25~30바퀴 싣고 나갔다. 1바퀴에는 낚시 70개를 매달았고, 낚시 간격은 3발 반이었다. 나갈 때는 너무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고사를 지내고 출항하였다. 어청도 밖 먼바다로 나가 주낙을 놓았고, 많이 잡으면 홍어 1000마리 정도를 잡았다. 잡은 고기는 호도로 가져오지 않고 법성포나 군산, 장항 이런 곳에 팔고 호도로 돌아와 쉬었다. 사리 때 돌아오는 것이다. 홍어를 잡는 일은 빠르면 4~5일, 늦으면 12일 정도 걸릴 때도 있었다.

현재 호도에는 23명의 해녀가 있다. 이 중 17명은 제주도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고 6명은 호도 출신으로 물질을 배운 사람이다. 이들은 매년 호도 해역에서 해삼을 잡아 마을 어촌계와 50:50으로 나눈다. 2018년에는 해삼 70톤을 생산하였다. 호도는 양식장 면적은 좁지만 해녀의 숫자가 많아 녹도보다 더 많은 해삼을 생산하고 있다.

| **이상모**(1943년생)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



황도

이상모(李相模)는 전주이씨다. 선조들은 원래 안면도에 살다가 할아버지 대에 보령시 대천동 쇄개포구로 이사와 거주하였다. 증조할아버지도 독자이고, 할아버지도 독자라 자손을 많이 두는 게 소원이었다. 외연도 이장을 지낸 분이 9남매를 두었다는 것을 알고 그 집 막내딸에게 혼사를 넣었다. 그래서 외연도에 거주하는 김해김씨의 19세 된 딸과 대천동 쇗개에 살던 17살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어, 1943년 이상모를 낳았다.

이상모의 아버지는 이후 가족을 불러들여 외연도에서 소를 키우며 생활하였고, 어린 그는 외연도초등학교에 취학하였다. 그러나 외연도에서는 사유지가 많은 까닭에 마음대

로 소를 키울 만한 장소가 없어 1955년경 가족 모두 황도로 이주하였다. 1969년 외연도로 다시 이주할 때까지 그의 가족은 15년간 황도에 거주하였다. 동생들 교육은 외연도 친척집에 기숙하였다. 외가 쪽 친척들이 모두 외연도에 있어 동생들은 외연도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외연도에 이주한 후, 아버지가 50세 때에 돌아가셨다. 그 뒤는 이상모가 동생들도 돌보고 자기 자식을 돌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힘든 환경이었지만 어업을 경영하면서 모두 극복하고, 자식들을 모두 대학교육까지 시켜 훌륭하게 키웠다. 현재까지 어업을 경영하면서 외연도에 살고 있고, 황도 근해에서 고기를 잡고 있다.

황도는 작은 낙도이지만 산 정상부분이 평평하고 풀밭이 넓었다. 소나무는 많지만 가시덤불이 없고, 소가 좋아하는 솔새, 띠, 억새 등이 많아 소를 키우기 좋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의 대부분이 국유지여서 소를 마음대로 키울 수 있었다. 그래서 집집마다 소를 2마리 이상씩 키웠고 12가구가 살 때는 30여 마리의 소가 있었다. 그는 처음에 3마리로 시작하여 5마리까지 키웠다. 볏짚이 없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음력 7월에 베어 말린 건초를 먹였다.

이상모가 황도에 들어갔을 때 최고 12가구가 살았는데, 모두 경주최씨였고, 고씨가 1가구, 이씨(이상모댁)가 1가구였다. 경주최씨가 황도에 들어온 것은 당시 황도의 유지였던 최연춘의 증조부라고 전한다. 그분의 묘도 황도에 있다. 그래서 황도의 경주최씨는 형제 또는 6~7촌 되는 모두 가까운 집안이었다. 따라서 황도의 생활, 당제 같은 것은 경주최씨들이 주도하였다.

황도의 집은 대부분 방 2칸, 부엌 1칸의 전형적인 초가삼간이었다. 9남매와 부모, 모두 11식구가 초가삼간에서 생활하였다. 집은 소나무가 많기 때문에 소나무 기둥을 세워지었다. 이때 소나무는 4각으로 깎지는 않고, 껍질만 벗겨 사용하였다. 지붕은 서까래를 얹은 다음, 작은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서까래 위에 엮고 흙을 개어 얹었다. 그리고 볏짚 대신 산에서 띠를 베어다가 덮었다. 벽체는 축담이라고 불렀는데, 흙과 돌을 이용해서 만들었다. 바닥에는 돌을 한 줄 쌓고, 그 위에 흙을 반죽해서 올려, 돌과 흙을 교대로 쌓는 것이다. 이때 흙 속에는 띠를 썰어 넣어 튼튼하게 하였다. 육지에서 볏짚을 넣는 것과

같았다. 이때 넣는 띠를 '적심이'라고 하였다. 흙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였다. 방문(門)은 나무로 틀을 만들어 대나무로 만들었다. 대나무를 자리 엮듯이 성글게 엮어 나무틀에 붙이고 창호지를 발랐다. 방문을 제외한 다른 문들은 가마니 같은 것으로 치는 경우가 많았다. 툇마루는 없는 경우가 많았고, 이상모의 집은 떠밀린 판자를 주워 만들어 사용하였다.

황도에는 먹는 샘이 1개 있었다. 12가구가 살 때에 물이 늘 딸렸다. 이후 주민이 줄어 6가구가 되었을 때는 충분하였다. 황도에는 골짜기마다 물이 나오기 때문에 골짜기마다 샘을 팠고, 빨래하는 물로 사용하였다. 이런 물은 먹지 않았다.

이상모는 1969년에 외연도로 이주하였다. 황도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곧바로 1973년쯤에 모두 이주하였다. 당시 군산앞바다 십이동파에 간첩이 들어오는 사건이 있었고, 정부에서는 작은 섬에 있는 소수의 주민들을 모두 큰 섬이나 육지로 철수시키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당시 이주민에게는 방 한 칸에 부엌 한 칸의 작은 집을 주고 이주하도록 하였다. 당시 황도에 살던 주민들은 형편에 따라 일부는 대천으로 이주하고 일부는 외연도로 이주하였다. 당시 새마을운동 때라 외연도에서는 백사장 모래땅에 집을 지어주었다. 당시 황도의 땅은 개인 것이 아니어서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황도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당산이다. 당산에는 나무가 있었고 이곳에서 2월 보름날 당제를 지냈다. 당제를 주도했던 사람은 최연춘이었다. 당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젯날 당산에 '가방'이라는 천막을 치고 하룻밤을 새면서 지냈다. 제물로는 당산에서 돼지를 잡았고, 돼지고기, 떡, 삼색실과 등으로 제를 올렸다. 그 때 이상모는 당산에 물을 길어다주는 일을 했다.

황도에 사는 주민들은 집집마다 모두 배를 가지고 있었다. 배가 생활의 수단이었다. 배의 크기는 길이 4m, 폭 1.3m 정도였다. 이 배를 타고 외연도, 어청도를 다니고 주낙을 놓고, 낚시질을 하여 생활하였다. 그러나 황도 안에는 방파제가 없어 한시도 배를 바다에 둘 수는 없었다. 작은 파도에도 깨져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나 뭍에 올려놓아야 했다. 온 가족이 동원되어 올려놓았다. 황도마을이 북풍받이이기 때문에 남풍이 부

는 여름, 아주 바람이 없는 날은 예외적으로 배를 바다에 띄워 놓았다. 황도에는 큰 배가 있어도 뭍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 소용없었다.

황도에서 살아가려면 식량이 문제였다. 황도에서 이용하는 작은 배는 외연도 나가기도 쉽지 않고, 특히 겨울에는 몇 달 동안 외연도와도 소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식량은 대량으로 구입해 비축하고 먹었다. 최소한 여름 보리가 나올 때, 가을 쌀이 나올 때 식량을 외연도에서 구입하여 날씨 좋은 날을 택해 큰 배를 이용하여 황도로 운반하였다. 담배 같은 생활용품도 마찬가지로 대량 비축하였다. 가족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식량을 비축해야 했다. 이상모는 한 10가마씩 구입해서 비축하였다.

황도의 주 소득원은 낚시였다. 작은 배를 타고 주변 바다를 다니면서 주낙을 놓았는데 한 배에 6바퀴를 싣고 다녔다. 1바퀴는 길이가 100발이고, 1발에 낚시 1개씩 달기 때문에 100개의 낚시가 매달려 있는 것이다. 1배가 600개의 낚시를 싣고 다니는 것이다. 미끼는 잡은 놀래미를 썰어 사용하였다. 미꾸라지 같은 미끼는 구입할 수도 없었다.

주낙으로 잡은 고기는 우럭, 놀래미, 갯장어 등이었다. 이런 고기가 과거에는 빈 낚시 없이 물려 올라왔다고 한다. 이렇게 잡은 고기는 바로 내다 팔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말리거나 소금에 절여 팔았다. 갯장어는 말릴 때 소금을 뿌리지 않았고, 우럭이나 놀래미는 등 쪽을 갈라 소금을 뿌린 뒤 말렸다.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벌레가 생겼다. 어느 정도 마르면 돌로 눌러놓아 납작하게 하여 머리가 양쪽으로 가게 묶었다. 그것을 광천장이나 대천장에 가서 팔았는데, 봄에 잡은 고기는 보리바슴할 때 팔았고, 가을에 잡은 고기는 가을 벼바슴할 때 팔았다. 일꾼들에게 먹이는 계절이라 불티나게 팔렸고, 상인들이 황도까지 사러 들어오기도 하였다.

황도에서도 간장을 담았다. 바람 때문에 콩이 잘 되지 않아 주로 사다가 담았는데 아주 조금 담았다. 간장 대신 사용한 것은 주로 젓갈이었다. 황도에서 담는 젓갈은 우럭젓과 광어젓이었다. 우럭젓은 주낙으로 잡은 우럭 중에 작은 우럭을 골라 담는데 아주 맛이 좋았고, 젓갈을 썰어 무쳐먹기도 하였다. 광어는 잡히는 대로 무조건 젓갈을 담았다. 당시에는 회를 먹을 줄 몰랐고 육지까지 살려서 운반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천으로

잡히는데 잡히는 대로 썰어 젓갈을 담았다. 맛이 일품이었고, 육지의 간장처럼 모든 요리에 사용하였다.

외연도에서는 멸치를 잡기 위해 배에서 횃불을 비추고, 가에로 몰아 쪽대로 떠 잡기도 하고, 횡견도장벌, 오도장벌 등 모래 있는 데에 가서 후리그물을 끌기도 하였다. 후리그물은 긴 그물로 둘러쳐 뭍으로 끌어내는 그물이어서 양쪽에서 여럿이 잡아당겼다.

황도에서는 겨울에 김과 미역을 뜯어 말려 팔고 가시리를 뜯어 팔았다. 가시리는 어렸을 때는 세모라고 하고, 크면 불팅이라고 불렀는데, 세모를 뜯을 때는 미끄럽고 잘 집히지 않아 재를 뿌리고 뜯었다. 불팅이는 조합에서 수매를 하였는데, 사다가 풀을 만든다고 하였다. 푹 삶으면 우무가 되고 끈적끈적하여 풀이되었다. 나일론에 풀 먹인다고 알고 있었다.

황도에서는 조기도 낚았는데 모두 황도두멍에서 잡았다. 두멍은 깊은 바다를 말하는데 황도와 횡견도 밖에 웃검북녀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근처가 깊은 두멍이었다. 깊이가 90m쯤 되는 깊은 두멍인데, 원래 황도 사람들은 몰랐고, 경상도 사람들이 올라와 조업을 해서 알았다. 이곳에서 외줄낚시로 하루에 200~250마리의 조기를 잡았다.

황도에서는 여름에 농어낚시를 하였다. 대나무 낚싯대에 복어 껍질로 만든 가짜 미끼를 달고 저녁에 낚시질을 하면 농어가 잘 물었다. 어떤 때는 한 자리에서 50~60마리의 농어를 낚을 때도 있었다. 달이 밝은 날은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대로 장소를 옮겨가면서 밤새 낚시질을 하였다. 낚은 농어는 물이 닿지 않는 곳에 쌓아 두었다가 다음날 배를 가지고 가서 실어오곤 하였다. 어떤 때는 수달이 뜯어먹기도 하였다. 이렇게 잡은 농어는 배를 갈라 소금을 뿌려 말렸다가 팔았다.

황도에는 홍합이 많았다. 홍합은 큰 것으로 따는데, 바위 위에 올라가서도 따지만, 옆에 붙은 것은 배를 대고 서서 땄다. 홍합을 따는 일은 위험한 일이었다. 채취한 홍합을 드럼통에 넣어 삶아 빼어 말렸다. 마른 홍합은 맛도 있었고 값이 비쌌다. 1말이면 쌀 1가마 값이었다. 황도의 소득원이었다.

황도에서는 그물을 이용해서 고기를 잡을 수는 없었다. 주변이 온통 거친 돌이었기 때

문에 그물을 놓으면 전부 바위에 걸려 끌어올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로지 주낙이나 외줄낚시로 고기를 잡았다. 황도에서는 전복을 많이 잡았다. 황도의 배는 작고 낮기 때문에 전복 잡기가 수월하였다. 전복은 김, 미역 등을 먹으려고 기어다니는데, 2마, 3마날 저녁에 가면 기어 다니는 놈을 손으로도 잡을 수 있을 정도였다. 잡은 전복은 살려 두었다가 잔잔한 날 어청도에 가져다가 팔았다.

황도의 순수 우리말 이름은 느레이고, 어청도는 늘컨도, 횡견도는 비껭이, 오도는 먹엄이었다. 사람들이 먹엄가서 먹고, 비껭이 가서 빚지고, 느레에 와서 늙는다고 하였다.

아산시

| **강희춘**(1934년생)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



세계 속의 외암민속마을

강희춘은 1934년 생이다. 아름다운 설화산 자락을 등에 두고 외암리에서 생활한 게 나이와 같으니 그 세월이 그대로 85년이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된 외암리 거주는 3대째 이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흔히 이 마을 옛 어른들을 회상하고 일컬을 때면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이미 타계한 사람들조차도 120살이니 128살이니 하며 생시 나이로 즉답을 할만치 가깝게 마음을 나누며 깊은 인연으로 살았다.

그는 어려서 인근 송남초등학교를 나왔고 나중에는 동네의 서당에서 한학을 배웠다.

배움이라야 평생 그것이 전부였지만 깊이 있는 한학을 공부한 까닭에 지금도 소서(素書, 중국의 전략서로서 최고의 지혜와 처세, 치국사상을 제시한 경전)를 펼칠 정도로 내공이 보통을 넘는다. 그 덕에 살면서 곁에 서책을 가까이 하며 지내었다. 자식들은 모두 최고의 학부를 보내 뒷바라지를 했고, 이제는 외암리의 팜스테이 민박을 운영하면서 마을을 지키고 있다.

그가 송악면의 외암리 이장을 역임한 세월이 약 15년이다. 그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외암마을이 국가지정 민속문화재 236호로 지정되는 과정에 참여한 것이다. 외암리는 예안이씨가 다수를 차지하는 집성촌이지만 여러 집안들이 오순도순 정감있게 지내온 한적한 시골마을이었다. 한때 이 마을도 새마을운동을 거치면서 초가집을 고치고 슬레이트 지붕을 씌웠으며 블록벽을 쌓았지만, 국가지정 전통민속마을로 변환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런데 절차 중에 다시금 지붕에 초가를 얹고 현대적인 모습을 지워내 예스럽게 바꿔야 하는 전제가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마을 전체 주민들의 합의 아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되는 일이었다. 주민들의 숱한 오해와 갈등을 다독이면서 대외적으로는 관청업무에 매진하고, 내부적으로는 자신의 가옥부터 솔선하여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면서까지 공을 들여 일을 추진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의 외암민속마을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마을은 대한민국 3대 전통민속마을의 반열에 올라 있다. 마을 입구의 '외암동천 동화수석'이라는 간판격의 반석을 정비하고 기왕의 돌담을 정비하였으며, 예안이씨 집안의 전통주와 제조기법을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등극시켰다. 이는 전통의 올바른 계승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일이었고 담장장, 초가장을 무형문화재화 하는 기틀이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예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을 다시 이어서 매년 정월에 마을 초입에 있는 장승제를 시작으로 노신제와 600년 수령의 마을 수호신 느티나무에 대한 괴목제를 되살림으로써 마을의 일체된 화합과 옛 정신을 구현하는데 힘을 썼다.

평화롭고 정갈한 외암마을이 사실 일제강점기 때는 금광채취로 홍역을 앓았던 적이 있음을 그는 기억한다. 해방이 된 뒤에는 새마을사업과 현대화의 물결에 발맞추어 삶의 변화를 꾀하게 마련이었지만, 이곳이 전통민속마을로 지정된 이후 오히려 많은 제약이

따르면서 현대생활에 적응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지 않았다. 시시때때로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지로 활용됨은 물론, 늘어만 가는 관광객들이 개인 가옥의 살림을 하는 안채까지 들어와서 사진을 찍는 등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제는 인식이 바뀌고 국가적으로도 개선되어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관람객과의 상생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실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는 여전하다.

그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등재가 완성되어 마을의 여러 가지 분위기가 크게 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원이 확대될 것은 물론이고 그처럼 3대째 사는 사람뿐 아니라 타지에서 사는 4대, 5대째의 젊은 후손들이 다시 마을로 들어와 안착하게 될 것이다. 모든 일이 한꺼번에 바뀔 수는 없겠지만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는 살아 있는 동안 가장 간절히 원하는 일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 **김봉기**(1944년생) 이건열(1944) 아산시 염치읍 백암리 |



현충사가 들어선 백암리 마을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나라 전 국민으로부터 깊은 존경을 받는 최고의 인물이다. 이순신의 사당이 있는 현충사는 우리나라의 주요 사적지인 까닭에 거의 모두가 한 번쯤은 다녀갔을 곳이기도 하여 무엇보다도 아산의 자랑이다. 사실 오늘날의 현충사로 가꿔지기 전에 염치읍 백암리는 충무공의 작은 사당을 옆에 둔 한적한 시골마을에 불과하였다.

김봉기는 교편생활을 하던 부친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떠도는 생활을 하다가 6·25전

쟁을 계기로 외가 동네인 백암리에 일곱 살 때부터 살게 되었다. 거기서 평생의 친구인 이건열을 만났는데, 이건열은 이순신의 형님인 율리공 이요신의 직계 후손으로 역시 백암리에서 태어나 살아온 역사의 산 증인이다.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이지만 어른들의 교육열은 지금 못지않았다. 요즘 학생들에겐 상상할 수 없는 먼 통학거리를 걸어서 다니면서 그는 온양시내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쳤다. 당시 곡교천은 외나무다리를 건너야 했으며 장마가 지는 계절에 물이 넘치면 나룻배를 운영하였는데 인근 고을 모두가 활용했다. 배삯은 여름에 보리 한 말과 가을 벼 한 말을 내야 했다.

유년시절에는 지금의 현충사 너른 공간이 온통 논과 가옥이었고, 현충사 연못의 500년 느티나무는 단오날 그네를 뛰었으며, 충무공이 말 달리던 1킬로에 달하는 산등성이 치마도를 내달렸었다. 이제는 현충사 뒤편의 조용한 마을이 된 백암리에서 오순도순 옛이야기하면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다.

현충사는 박정희 군사정권의 시작과 함께 큰 변화를 겪게 되고 이는 백암리 마을로서는 천지가 바뀌는 상황으로 전개된 일이었다. 정부가 앞서 추진한 성역화사업으로 전통마을인 백암리 주민은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일괄된 16평 가옥군으로 제비뽑기하여 강제이주를 하게 되었다. 뜻하지 않게 백암리의 가옥과 농지는 모두 현충사의 너른 광장으로 조성되었으며 추후 건설된 주차장으로 인해 백암리의 옛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강제이주는 살림살이가 제각각인 주민들에겐 희비가 엇갈리는 결과를 낳았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집을 고치고 증축하면서 생활을 해야 하는 백암리 주민들은 2층 이상의 건물은 올리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를 받았다. 게다가 마을은 현충사 권역에서 보이지 않도록 나무숲으로 가리는 가운데 존재감이 없는 조용한 곳이 되었다. 그럼에도 백암리 주민들은 마을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현충사 뒤 방화산 9부능선에 있는 샘제를 통한 산신제를 이어왔고, 제사에 임하여 엄격한 제관의 선정과 부정타지 않도록 삼가는 절차를 존속해 나아갔다. 그러나 노령화 되는 시골마을과 축소되는 인구현상에 따라 전

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3년 전부터 산신제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당시 4월 28일 충무공 탄신일에 즈음해서는 매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였기 때문에 마을은 타의에 의해 단장을 하였고, 가정에서의 술 제조가 국법으로 엄금하였던 시절에도 충무공 종가의 제주만큼은 특별히 허용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이 술을 매우 선호하였다고 한다.

예전에는 현재 모습과 달리 구본전이 자리하였고 이순신의 난중일기와 장검 및 유물은 종가에서 소중하고도 비밀스럽게 보존한 끝에 오늘날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백암리 마을의 터줏대감 김봉기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현재 백암리 이장을 맡고 있고 그의 친구 이건열은 백암리의 노인회장을 맡고 있다. 현충사의 변혁에 따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현재의 백암리는 6·25전쟁의 좌우익 갈등 때도 덕수이씨라는 절대적 다수의 집성촌이 있어 별다른 마찰이 없이 화합하며 지내온 곳이기도 하다. 이제는 집성촌의 개념도 흐려지고 타지로부터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다.

한때 당당히 지켜오던 마을의 산신제가 단절된 것처럼 백암리 고유의 마을 정서는 퇴색될 수밖에 없지만, 사는 풍속이 바뀌고 세월이 달라진 이상 이제는 좀 더 젊은이가 이장도 맡아 주고 마을을 정갈하고 단란하게 꾸려가 주기를 김봉기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현충사로 인해 공장이나 축사의 조성이 통제되어 환경이 맑고 깨끗한 것은 백암리의 좋은 점이며, 현충사처럼 언제까지나 기품 있고 정숙한 마을이기를 기대한다고 그는 말한다.

| **김윤배**(1941년생)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



유서 깊은 신앙터 공세리

김윤배는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에서 태어났다. 선조들로부터 이어온 천주교 신앙을 지켜오면서 유서 깊은 공세리 성당에 나가고 있다. 그는 우리 민족 모두가 어려운 시절이었던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인주초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영인중학교 재학 중 월사금을 내지 못하여 쫓겨나는 궁핍한 유년을 보내기도 했다. 이후 친척이 있는 대구로 옮겨 신앙생활을 계속했고, 이어진 군 시절에는 전국을 순회하는 보직을 맡아 전국의 천주교 성지와 교구를 섭렵하는 계기를 얻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현재까지도 전국의 성지를 순례하

는 모임을 이끌고 있으며, 초창기 한반도에 도래한 외국인 선교사들의 본고향인 유럽의 각 나라별 출생지들을 방문하는 여정을 안내하는 일로 이어졌다. 아산시에 택시업이 생길 즈음 그는 당시로서는 드문 직업인 택시운전사를 시작하였으며, 아산시 모범운전사 제1호의 영예를 안을 정도로 성실하게 살았다. 운전대를 놓은 지금도 주기적인 교통안내를 하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보람을 찾고 있다고 한다.

현재 아산시의 주요 향토문화유산으로 자리하며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공세리 성당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성당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충청 내포지역에 전파되기 시작한 천주교는 현재 행정구역상 예산군 지역으로 바뀐 간양골 성당에서부터 시작하여 공세리 성당이 창설되었는데, 초창기 프랑스 선교사가 와서 공세리의 아랫마을에 민가를 매입하여 예배당을 설립한 후, 미래를 예견하였고, 건축에 관해 탁월한 안목을 지녔던 에밀드비즈 신부에 의해 현재의 성당 터에 공사를 시작했다. 신부님은 일제강점기였던 당시 서구의 특정 종교에 대한 일본의 훼방을 경성의 프랑스 공사로부터 협조를 받아 타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바닷가 풍랑에 대한 해난사고의 안전을 기원하던 침해당이 있는 곳, 마을 공동묘지로 음험한 기운이 감도는 동산(童山)이라는 불편한 시각을 거두고 뾰족한 지형을 닦느라 높은 지대를 파내고 아래 지역을 북돋았다. 모든 일은 마을 신도와 청나라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한다. 현재 각 향토 사료에 보호수로 지정된 약 380년 수령의 느티나무가 실제로는 성당의 건립과정에서 수 미터 옮겨졌다는 내용이 기록으로 전하지만, 사실은 현재 그 자리에서 언덕을 파내고 같은 자리에 내려서 그대로 심은 것이라고 한다.

외삼촌 강도수를 포함해서 신도 둘이 나무가 하중을 견뎌내지 못하고 내려앉는 바람에 나무에 깔려 사망하였으며 수 명이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흉흉했던 마을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중세의 성인이었던 성베네딕토의 상과 이름이 새겨진 분도패를 묻고 기도하자 차차 안정을 찾아 공사를 재개할 수 있었다. 또한 오늘날의 인주초등학교와 인주중학교가 개교하기 전에 공세리 성당에서는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의 학습공간을 개설하여 교육사업을 하기도 하였다.

공세리 성당이 지어진 초창기에는 성당의 맞은편 동산에 대형 물탱크를 만들고 옹기로 관을 만들어 성당 마당에 분수를 조성함으로써 인근의 큰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였으며, 당시 주석하셨던 에밀드비즈 신부님이 현재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조력발전소를 구상하였다는 것은 당시로서도 획기적이었다. 더불어 천주교의 초장기 선교사들의 6·25전쟁 당시의 수난사에 대해서도 미처 알려지지 않았던 참상이 많다. 이것이 낱낱이 규명되기를 바랄 뿐이다.

공세리는 조선시대 중엽부터 300여 년에 이르도록 조세창이 운영되던 마을이다. 현재까지도 창고 터의 옛 유구가 잔존하는 공세리는 과거에 충청 인근 40여 고을에서 이송된 조세미를 관리하느라 관료를 비롯한 주변 인구가 많았고, 그들로 인해 매우 번성한 마을이었다. 그러나 조세창의 역할을 마친 이후 현재는 한적한 시골마을이 되었고, 주변의 환경 변화에 따라 바다가 메워져 옛 흔적들은 거의 사라진 형편이다. 각지에서 조세미를 운송하던 배들이 식량과 연료를 조달하느라 형성된 '밥전거리'는 세월이 흘러 밤을 팔던 '밤전거리'라 잘못 알려지기도 하였다.

지금은 너른 농토가 된 인주의 들녘은 조수간만의 차가 인천 앞바다의 경우를 능가하여 백중사리 때면 경기도 안성지역을 넘어 서정리까지 들어찼다가, 빠질 때의 물살은 무서울 정도로 거세게 몰아쳤다. 바다가 보이던 공세리 성당 언덕의 옛 모습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

한편 당시로서는 흔하면서도 많은 이들에게 고충을 주었던 질환인 피부종기에 특효약이어서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렸던 '이명래 고약'이 공세리 성당의 신부님으로부터 전수받은 약에 기인하였으며 성당의 미사에 쓰이는 포도주를 프랑스로부터 조달하기에 어려움을 겪던바, 아예 포도주를 생산하는데 이용하기 위해 포도묘목을 심어 전파한 것이 현재 명물로 자리한 안성지역에서부터 천안 입장, 그리고 탕정 포도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도 공세리 성당의 근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내용이다.

지리적으로는 당시 군사적 요충지로서 공세리의 중요성이 컸는데, 구한말에 발발한 청일전쟁의 격전지였던 이 지역에서 풍도 앞바다의 전투와 성환에서의 전개에 따른 일본

측의 승리, 그리고 그들이 세웠던 전승비에 대한 흔적들은 아직도 치열했던 당시를 증명하고 있다.

6·25전쟁 중 요충지인 공세리 지역에서는 전쟁 발발 전부터 북측의 사전 작업이 감지되었으며, 전시에는 북한의 기마병이 주둔하였고 서해바다를 통한 침투를 방어하고자 그들이 참호진지를 만들었던 장소도 있었다. 한편 공세리 앞바다에서는 저 멀리 당진의 한진포구에서 생활하는 마을주민들의 움직임이 바다를 거울삼아 신기루처럼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세계에서 약 열 군데만 있는 신비로운 현상이었지만 방조제의 건립으로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 어른들은 '영(靈)이 논다'라고 표현했고, 물동이를 지고 이동하는 당진의 아낙네 모습이 비치던 바다 모습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언급이 없으며 현장에서도 볼 수 없는 장면이라 전설처럼 세월에 묻히게 되었다고 그는 전한다.

| **김현기**(1933년생) 아산시 선장면 홍곶리 |



서해 끝자리 선장면 홍곶리

김현기는 1933년생으로 아산 사람이다. 경주김씨 계룡군파의 자손으로 태어나 선장면 홍곶리에서 5대를 이어 살았으니 이 마을 터줏대감이다. 그가 살고 있는 홍곶리는 아산 선장면 서해 끝에 있다. 지금은 드넓은 농토로 바뀌었지만, 어릴 때 원 마을은 논이 운동장이었고 뻘이 놀이터였다. 멀리 인천 덕적도 섬으로부터 새우젓배가 오면 새우젓 한 병에 벼 한 말을 물물로 교환하던 시절을 살았다.

여섯 살 때 극심한 가뭄에 모내기조차 할 수가 없어 온 동네 사람들이 굶어가며 피죽

을 끓이고 독새풀로 연명하던 시절도 있었다. 그 시절엔 걸어서 4km에 달하는 선장초등학교까지의 등굣길을 마다않고 다녔다. 당시에는 서슬이 시퍼런 일본인 교사가 한 달에 표 10장을 나눠주고 조선 학생의 조선 발음이 적발될 때마다 표를 뺏어갔다. 표를 모두 빼앗긴 어린 조선 학생은 엄한 벌칙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우리말 말살정책을 펼쳤던 제국주의 말엽의 혹독함을 그는 견디어야 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인들의 패악질은 가혹하기만 하였다. 비교적 농토가 넓었던 선장 뜰은 일본인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뙤약볕 아래 부지런히 농사를 지은 마을 농민들의 고초는 아랑곳 않고 전체 수확의 9할을 공출해 갔으며, 1할의 쌀로써는 도저히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었던 농민들은 마름의 삼엄한 감시를 피해 한밤중에 볏단을 감추고 파묻어서 자식들과 노부모를 먹일 식량을 마련해야만 했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이했는데, 해방의 기쁨도 잠시 곧이어 맞이한 한국전쟁의 상흔은 더없이 크기만 하였다.

홍곳리에는 경주김씨가 대를 이어 농업을 영위하고 지내온 만큼 빈곤하지 않은 살림살이에 온 일가끼리 모여 살았건만, 난데없이 닥쳐온 6·25전쟁은 한순간에 마을의 분위기를 뒤집어 놓았다. 한때 65호의 호수로 구성된 홍곳리에서는 약 십여 호가 좌익의 기치를 들고 이웃 간에 평생의 원수를 대하듯 흉폭한 일을 저질렀고, 때문에 비교적 지주 역할을 하던 경주김씨네의 시련이 매우 컸다. 18세인 그는 할 수 없이 소년단에 가입하여 북조선의 공산당 노래를 배우면서 견디어야 했다. 그런데 전후에 다시 분위기가 바뀌어 복수극이 펼쳐지면서 상당수의 마을 사람들이 홍곳리를 떠나야 했고, 마을의 가옥은 절반으로 줄어버렸다.

그는 젊은 시절 마을 어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리(里) 서기를 지냈고 군대를 마치자 승진한 것처럼 홍곳리의 이장을 맡아 십 년 넘도록 마을을 위해 애를 썼다. 술을 마시지도 않으며 정확하게 일처리를 한 덕에 마을의 협조를 이끌어 내었고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를 대행하고 비료를 분배함에 차별이 없도록 하였다. 홍곳리는 삽교천의 개발로 인해 펼쳐진 갯벌이 농토가 되면서 아산시에서도 내로라하는 부촌으로 점차 변모해갔다.

홍곳리에서 걷어가는 농지세가 아산시 송악면 전체보다 많다고 할 만큼 풍요로움을

구가하였다.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350년 수령의 느티 정자나무가 하나 있는데, 배[船]가 들어올 때 배를 묶던 나무가 그 옆에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서 안녕과 복덕을 기원하였으나 시절이 바뀌어 더 이상 그런 풍속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도 정자나무는 한결같은 묵묵함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팔각정이 있는 그늘을 제공하면서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요즘은 늦게 취미 붙인 서예 작품으로 연이어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서 거실의 한 면을 상장으로 채우고 있다. 살기 어려운 현재의 농촌상황을 생각하면 객지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는 자식들에게 홍곳리에 와 살기를 강요하기가 쉽지 않다고 아쉬워한다. 그래도 집안들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정감 있는 이 마을이 좋다. 사람들이 온통 한 가족과 진배없으니 온 마을이 우리 집이요 온 마을 사람들이 가족인 셈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선장면 노인회의 분회활동을 하면서 동시대를 살아온 이들과 함께 홍곳리의 느티나무처럼 건강하고 무탈하기만을 바라고 있다.

| **윤석홍**(1947년생) 아산시 음봉면 동암리 |



대동의 자부심과 원동암의 저력

윤석홍은 온통 밭 투성이의 시골마을에서 9남매의 막내로 태어났다. 8대조로부터 이어온 집안이지만 큰형과 누나들을 잘 가르치면 동생들을 잘 건사하겠거니 생각하신 어른들의 뜻에 막내는 중학교도 중간에 그쳐야 했다. 잘 가르친 형제들은 도회지로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섰고 막내만 고향을 지키면서 무려 27년간 이장을 보았다.

동암리는 몰라도 대동은 안다고 했다. 원동암과 동암1리, 송촌리로 나뉘어진 행정편제에도 세 고을은 한 형제처럼 지내왔고, 각자 마을의 여력으로 타개하지 못할 문제는 일

곱 명씩 모여 21명으로 구성된 대동번영회를 통하여 해결하였다. 한때 그는 대동번영회의 회장으로 활약하기도 하였다. 큰 도로가 개설되어 마을의 상징이자 터주인 구리바위가 상할 위기에 있을 때도 차라리 길을 비껴가도록 목소리를 합쳤고, 마을마다 전통을 이어가는 장승제와 산신제에도 찾아가서 기원을 함께 하였다. 투명하고도 치밀하게 짠 계통문을 통하여 후배들이 일처리를 함에 지침이 되도록 하였으며, 수고한 자 칭송받고 손해 보는 이 없도록 낱낱이 기록을 하였다. 어언 일백 년에 이르도록 장부며 문서를 보존하였는데, 지금은 그것이 마을의 보배요 자부심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는 흙길을 걸어 천안까지 학교를 다녀야 했고 왈패들의 해코지를 두려워하면서도 개목고개를 넘어 천안장을 다녀와야 했다. 그러던 시골마을이 대동저수지가 생긴 후 밭이 논이 되어 부자들이 늘어났고 공장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서고 대학교가 입주하는 가운데 아산에서도 번듯하고 풍요로운 마을이 되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을 이장이라는 명패 아래 청춘을 바친 만큼 그는 이제 멋들어진 양옥집들이 개성을 발휘하는 원동암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 더없이 보람을 느끼고 있다.

국도 628호가 개통될 때도 마을의 힘으로 구리바위는 온전하게 보존이 되었다. 구릿빛이 감도는 바위는 두드리면 쇳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바위 위에서 조개를 땄다고도 한다. 아랑각시의 애틋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수백 년 살아온 향나무만이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을 터이다. 이 바위 이름을 따서 마을은 동암이라는 마을명을 얻었다. 마을에서는 장승과 함께 깊은 정성으로 바위에 제사를 모시고 있다. 마을 입구에서 동네 사람들의 기원을 해결해 주시던 장승님은 굉음 울리는 아스팔트 도로를 피하여 구리바위에 안락하게 서 계시며 3년 전부터는 아예 돌로 조성한 석장승으로 모시었다. 이제는 격년으로 모시는 노승제는 한 쌍을 나무로 깎아서 제사 당일이면 마을의 집집마다 방문을 하고 심지어 안방까지 들어가 온갖 액운을 떠안는다. 바지저고리의 동정을 뜯어서 매어달면 그 한해의 액운은 장승님이 모두 해결을 하고, 기꺼이 십시일반 성의를 표시하면 모든 비용은 저절로 충당된다. 정월대보름에 즈음하여 택일을 하여 마을에 초상이 나거나 부정의 요소가 발생하면 굳이 성스러운 제사를 치르지 않고 미루는

데, 미루다 미루다 어느 해에는 5월에 가서야 제를 모신 사례까지 있었다. 주당으로 정해진 이는 집안에 아무도 들이지 않도록 금줄과 황토 흙으로 표식을 해두고, 마을에서는 닭 한 마리도 피를 보아서는 안 된다. 생기복덕이 좋은 날에 생기복덕이 닿은 부부를 제관과 당주로 선정하며 부정한 일을 보거나 듣거나 심지어 달거리를 하는 이도 금한다. 이렇듯 정성을 다하여 조성하고 모신 장승님이 아침부터 하루 종일 마을의 민원을 잔뜩 떠안은 후 저녁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리에 서서 의젓하게 제삿밥을 들었는데, 이제는 구리바위님과 장승님이 함께 제삿밥을 잡수시게 되니 마을 주민들에게는 일거양득이 된 셈이다.

마을 입구에는 큼지막한 대동교회가 들어서서 사람들도 여럿 교회를 다니지만 오랜 세월을 전통으로 이어온 마을의 전통신앙 의례에 대해 교회측도 이해하고 협조하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되니 그의 눈에 보기가 좋다. 또한 인근에 새로 입주한 공장이나 타지인도 기꺼이 절을 올리고 정성에 마음을 더하는 것 또한 원동암 마을에 대한 흐뭇한 화합과 애정의 표현으로 느껴진다.

대동 사람들은 어려웠던 시절의 대동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또 외견상의 발전에 더불어 후손들의 미래에도 각별히 기대를 갖고 있다. 마을 출신이자 기업가로 성공한 대한은박지 김흥배의 후원에 힘입어 덕준장학회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타당한 장학생의 선발과 격려로 대동의 힘이 발휘되고 있다. 이미 장학회의 혜택을 받은 학생 출신으로 검사가 배출되기도 하였으며, 해군사관생도가 탄생하는 것이 그 결과이다. 향후에는 이들이 궤도에 서서 고향 마을의 후배들을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런 아름다운 선례가 장승님을 위해 정성을 기울였던 마을 사람들의 기원에 근거하고 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다.

| **이규환**(1937년생) 아산시 염치읍 산양리 |



산양리의 인생 여정

이규환은 경주이씨에서 분파된 합천이씨 사람이다. 그의 조상은 500여 년 전 사돈댁의 정치적인 사건을 발단으로 멸문지화의 위기를 모면하고자 염치읍 산양리로 뗏목을 타고 와 입향하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14대를 이어온 산간벽지에서의 삶은 오늘에 이어져 내려왔다. 장남을 잘 가르치면 집안이 온전하리라는 어른들의 정서로 인해 그는 차남으로서 초등학교밖에 다니질 못하였다. 그마저도 6·25전쟁의 발발로 4년 만에 마치고 흙을 벗삼아 살아온 인생이다. 이제는 형제와 자식들도 제각각 살림살이를 찾아 떠나가

고, 묘하 자손의 사명감으로 조상에 대한 극진한 제례는 물론 묘역을 지켜내겠다는 마음을 앞세워 격변하는 근대화에 버텨왔다. 자식도 들어오기를 거부하는 산중 시골마을에서 요즘은 하나 둘씩 빈집이 되어가는 마을의 적막함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의 산양리 1, 2, 3구는 합구였던 산양리로 모두가 한동네였다. 옆 마을 강청리와는 산길을 헤쳐 들어야 하고 더 멀리 아산장에는 고개를 넘나들었다. 갯벌에 가로막히고 산으로 둘러싸인 산양리에서는 경사진 곳을 개간하고 일구면서 오래도록 살아온 사람들끼리 평화롭기만 하였다. 누구라도 어려웠던 시절인지라 우마차길을 다니면서 그는 국문을 깨치고 마을의 훈장님과 천년고찰 세심사에서 한자를 얻어 배웠을 뿐이었다. 1934년 일제강점기 시절 토지측량에 나선 일본인들은 산양리 1번지를 명명하고 나서 점심 식사하러 강청리에 갔다가 식후에 업무를 재개하면서 산너머에 2번지를 기재하였다. 1번지와 2번지가 1.5 km나 떨어진 이유이다. 엉성하고도 정립되지 않은 행정체제 하에서도 그는 조상이 대대로 이어주신 종산과 토지를 목숨처럼 지켜내는데 눈을 부릅떴고, 수많은 묘역의 풀을 깎으며 보살피는 일을 하며 살았다.

이제 그는 80여 평생의 사명을 내려놓았다. 때마침 인근에 개설하게 된 골프장이 종토의 토지매입으로 추진되었고 조상의 은덕으로 살아생전의 숙원사업이었던 납골당의 건립을 이루어 내게 된 것이다. 원뿌리였던 김포지역에서 분가한 500여 년 전 조상의 묘소가 경기도권의 개발로 인해 이장을 하게 됨에 따라, 다만 한줌의 산소 흙이라도 퍼서 아산의 산양리에 모시는 일은 근본 뿌리를 정립하고자 애쓰는 그의 신념에서 비롯된 일이다. 경제적인 외형의 모습에서 찾을 수 없는 양반가의 꼿꼿한 자존심이이라 할 수 있겠다.

고찰 세심사가 지진으로 피해를 입으면서도 큰 바위가 법당을 비켜나고, 마을 아낙과 무속인의 기원을 받던 정자나무가 불에 타고 태풍에 쓰러짐을 보면서도 조상들이 지켜내고 기원을 일삼던 영물의 상징으로 여겼다. 그가 심은 소나무가 오늘날 현충사의 정원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뒤뜰의 모과나무가 용인 에버랜드의 멋쟁이 나무로 각광받는 자부심은 평생을 산양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삶에 대한 일종의 보상심리로 보여진다.

그가 유년시절 살았던 산골의 흙벽집에서 마을 쪽으로 내려왔건만 지금의 가옥 역시 마을에서 가장 깊은 산속에 있는 끝집이다. 한때 합심해서 농사를 짓고 웃음 짓던 산양리 마을은 6·25때 비극을 겪었다. 머슴들이 어제의 주인댁을 급습하고 안채를 차지한 까닭이었다. 전쟁이 끝나자 또한 분수를 모르고 날뛴 자들을 처단한다며 숱한 목숨이 사라졌고 시체를 짊어지고 산속으로 올라가는 곡소리가 적지 않았다. 죄 많아 살기 민망하여 산양리에 못 살고 또 빈궁하여 못살아서 동네는 자꾸만 빈집이 늘어가고 아이들 소리 잘잘하던 삼서초등학교는 어느덧 폐교가 되어버렸다.

갯벌에 바닷물이 차면 새우젓을 싣고 오던 배들을 묶던 나무가 이제는 바다가 아닌 들녘을 바라보면서 아스팔트 도로가에 쓸쓸하게 서있다. 군복을 입은 마을의 청년들이 총을 쏘며 연습을 한 총탄을 아직도 품고 있는 소나무의 아픔은 누구도 기억하고 있지 않다. 한때는 떡시루를 받던 느티나무는 불에 타서 사라졌으니 그 자리에 거목이 있었음을 알지를 못한다.

다만, 오목가래로 땀흘리며 일구어낸 황금 들녘이 산양리의 앞에 펼쳐져 있고 기우제를 지내느라 세 길도 넘는 기원 돌을 세워놓은 '남산평' 선돌이 다만 윗머리라도 마을입구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이제는 한적한 산사가 되어버린 세심사에는 언제나처럼 온화한 부처님의 미소가 한결같이 사람들을 맞이하여 주고 있다.

그는 이렇게 수백 년의 조상님들이 묻어 계시고 자신 또한 돌아가게 될 산양리가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것이야말로 문중의 일원으로 평생을 기여한 이유라고 여기고 있다. 하나 둘씩 비어가는 집들이 흉가처럼 마을의 모습을 해치는 것이 그는 보기 싫다. 차라리 도회지처럼 동네 한복판에 아파트를 짓고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가깝게 살기를 바라고 있다.

| **이무희**(1941년생)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



농촌운동으로 보낸 세월

이무희는 집안 어른들이 아산향교에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계신 까닭으로 엄격한 유교적 가풍 아래 성장하였다. 성장기 때 선친의 높은 교육열로 천안지역 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이어 서울의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에 진학하였으니 보장되는 미래를 약속받은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당시 부당한 사회를 비판하고 개혁하려는 학생운동에 매진하여 대학으로부터 복학을 거부당하자 고향으로 내려왔고, 남은 인생은 농촌운동과 지역사회를 위한 헌신으로 마음을 굳히고 왕성한 농촌운동 실천에 몸을 바쳤다. 현재 노

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전 못지않게 뚜렷한 주관을 견지하여 지역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때로는 경책하면서 깊은 애향심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영인면 아산리는 옛날 아산현의 현청이 있던 관아였으므로 유구한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청일전쟁을 직접 겪은 시련이 있으며 6·25전쟁을 통한 상흔이 지금까지도 아물지 않고 있는 형편이기도 하다.

이제는 아산시의 면소재지에 불과한 아산리에 낙향한 그는 후에 직접 관청을 방문하여 기어이 농촌지도소의 설립을 이루어 냈다. 이를 시작으로 지역 농촌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라도 무안으로부터 도입한 양파를 영인의 특화작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궁구하였다. 한편 아산리의 역사성을 고취하기 위한 노력을 펼쳤는데 아산현감을 지낸 토정 이지함의 선양사업에도 매진하였다. 토정 선생의 걸인청은 이태리의 마키아밸리가 펼친 노동에 대한 대안에 앞선 생산적 복지라는 탁견을 제시하고 나아가 그것을 기네스북에 등재하고자 추진하였다. 그 구체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걸인 청의 실체성을 밝히기 위한 발굴 및 학술사업을 끈질기게 타진하고 있는 중이다.

영인에 소재한 영인저수지는 12만7천 평에 이르는데 과거 농수로가 불편했을 당시의 잔재임을 부각시키고 아산만의 개발에 따른 효용성을 들어 다시 영인면 아산리를 주요 곡창지대로 환원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무궁화 선양회 회장을 맡아 국화로서 아직도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무궁화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에 힘을 쏟고 있다. 국민들조차 무궁화가 국화로서 법제화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는 현실과 무궁화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아산시청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가까운 영인산 수목원을 활용한 무궁화의 전시 공간 확보에 실제적 접근을 하고 있다.

아산현청이 있던 곳에서 수백 년을 자리하고 있는 은행나무와 과거 아산우체국 자리에서 역사를 증명하고 있는 느티나무는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다. 나무에 묶이고 현장에서 총살을 당한 6·25전쟁의 참상은 잊을 수 없지만 이제는 치유해야 할 과거이다. 그는 최근 결성한 영인 향토보전협의회를 통해 각 문중에서 간직하고 있는 옛 문헌이나 근대 자료와 사진류 등을 수집하고 있다. 개발 논리에 밀려 정신없이 달려온 근대 역사의 이

면을 규명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역사공간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다.

현재 그의 슬하에 무남독녀 외동딸이 있다. 딸은 아산시 온양시내에서 거주한다. 마당에 무궁화를 심고 조용히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편히 살아도 되지만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관심이 여간 큰 게 아니다. 근래에는 토정관으로 개관한 마을의 공간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운집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였다. 아직도 잔재하고 있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의 좌우익 갈등, 그리고 최근의 현대자동차의 공장개설에 따른 외부인의 유입과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의 문제까지 복잡하기만 하다. 그는 진정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화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특화작물의 경제적 가치 상승 방안이나 마을 기구를 활용한 대동단결의 방안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한다. 무궁화 알리기에 대한 노력, 청일전적비 현장의 표석 설치, 걸인청의 복원 추진은 최종적으로 아산리의 역사관의 개관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다시는 이 땅에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교훈의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그는 시련의 시기를 온몸으로 겪은 세대로서 꼭 당부하고 싶다고 말한다.

| **이범선**(1947년생)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



깨끗하고 엄숙한 유곡리의 제(祭)문화

이범선은 아산시 거산초등학교를 나왔다. 분교가 되고 폐교의 위기에 봉착하였던 시골학교가 의식 있는 신세대 학부모의 열정으로 본교가 된, 대안학교로 높이 평가받는 학교다. 고향 유곡리에서 고개만 들면 바라보이는 봉수산 자락은 온통 예안이씨들이 조상들을 모신 종산이고, 그가 유년시절부터 체득한 예법은 마을 이장을 하고 마을제사를 주도하면서 그대로 투영되었다.

유곡리는 청정지역답게 도회지의 번다함을 피해서 조용함과 정갈함을 추구하는 외부

인들이 점차 늘어나서 1구에서 4구에 이르도록 분구가 되었다. 마을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생 사찰 봉수사도 들어오고 교회도 들어섰지만, 이 지역의 신앙은 오로지 천년 고찰 봉곡사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멀리는 공주와 예산에서도 찾아왔던 봉곡사의 사월초파일은 한바탕 축제였으며 볼만한 장관이었다. 송악의 다섯 실로 불리던 옆 마을 느릅실은 그 많았다던 느릅나무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고, 외지인들이 8할에 이르면서 사람 얼굴이 바뀌었다.

적지미는 유곡리에서도 그나마 널찍한 들판이 있어서 쌀을 쌓아놓고 산다는 이름을 가질 정도로 예전부터 살 만한 동네였다. 그래서 땅을 팔고 떠나는 이도 없고, 빈집이 없으니 들어오는 이도 없어서 김씨 이씨 박씨가 살지언정 모두가 한 형제요 한 가족인 동네이다.

요즘 보면, 마을마다 크고 작게 제사를 지내고 있고 그 형태도 다양하다. 적지미는 매년 동짓날에 즈음하여 마을제사를 모셔왔다. 요즘은 현대사회에 맞게 동짓날 후에 맞이하는 일요일을 택한다. 날짜가 정해지면 전날에는 마을 입구에 금줄을 쳐서 외부인 출입을 엄금한다. 밖에 나가서 사는 아들딸도 들어올 수 없으니 대소사가 있다면 미리 연락을 취하여 그날만큼은 철저하게 삼가고, 이는 온 마을 사람들이 불평 없이 준수한다. 제관으로 정해진 사람들이 몸가짐을 정갈히 하는 것은 당연지사이지만, 마을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여인네들 또한 혼자된 몸이라든지 최근에 부정한 것을 보았던 이도 배제된다. 하여 온 동네 사람들은 새우젓이 들어간 김치를 일주일 전부터 먹지 않는다. 오로지 깨끗한 사람, 하자가 없는 사람이 마을 주민들이 합심하여 모은 깨끗한 돈으로 깨끗한 제사 음식을 마련한다.

초헌 아헌 종헌과 소임자 둘이 산에 올라가서 현장에서 메와 국을 직접 지어 올리고 산신제를 마치고 나면 마을 정자나무에 와서 금줄을 치고 소지를 올리면서 술과 시루떡을 올린다. 이 시루떡은 한해의 복을 듬뿍 담은 떡인지라 모두가 나누어 먹으며 즐거움을 더한다. 산신제와 노성제는 철저하게 남성들만으로 진행되며 여성들은 모든 제가 끝날 때까지 마을회관에서 대기하고, 부정한 요소 때문에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남성과

제물을 차리는데 참석치 못한 여성들은 각자의 가정에서 기다리다가 모든 제가 끝났음이 알려지면 모두 나와, 비로소 정자나무 그늘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기원을 함께한다. 제사가 끝나면 마을의 현안과 향후의 계획 그리고 예산의 집행에 대한 마을회의가 개최된다.

마을제례에 대한 축문과 예산의 집행 그리고 헌관의 명단은 자그마치 일백 년 넘도록 문서로 기재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제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일언반구의 이론이 발생하지 않는다.

적지미 마을은 시골마을답게 노년층이 많지만, 마을제사를 수행할 청장년과 철두철미한 의지에 빈틈이 없으니 향후에도 이 전통을 이어나가는 데 조금의 우려를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야말로 적지미의 자존심이요, 마을 주민 모두가 무탈하고 평안한 이유라고 믿고 있다.

직지미 마을의 복판에는 칠은사라는 사당이 있다. 예안이씨 퇴호 이정렬 참판이 일곱 분의 뜻있는 분들의 모임을 결성하고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도모하는 회합의 장소를 만들었다. 예안이씨 문중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유곡리와 송악면에서 일곱 타성이 화합하고 의기투합한 것처럼 적지미의 분포 역시 다양하면서도 한 가족으로 지내왔다.

8대조 할아버지이신 외암 이간 선생의 혼이 스며 있는 강당사에서 파평윤씨 문중과 함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에 그는 정기적인 예를 올리듯 진정한 소통과 구분 없는 단결력을 익혀왔다.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오는 외암민속마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잠정 등록되어 있고, 해마다 열리는 짚풀문화제에서 그는 헌관으로서 적지미 마을의 전통을 미래의 동량들에게 선보이면서 조상들로부터 이어온 전통문화의 참뜻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 **임종순**(1938년생) **임영순**(1947년생) 아산시 염치읍 쌍죽리 |



윗대실과 아랫대실의 화목

쌍죽리의 옛이름은 대실이다. 대나무가 무성한 데서 유래하였는데 산이 깊고 마을이 길어 윗마을은 윗대실 아랫마을은 아랫대실이라 칭하였다. 특히 아랫대실은 풍천임씨의 일가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타성이 있다 해도 임씨 문중과 관련된 친인척 관계이니 사실상 하나의 집안분들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에는 공장이 일부 들어오고 근년에 설립된 쌍죽리의 사찰 혜명사는 외부로부터 신도의 왕래가 있지만, 오가는 이에게 넉넉한 인심과 시골의 정으로 대해 온 쌍죽리의 열린 마음

에 불편함이 없다.

임종순은 쌍죽리에서 태어나 유년을 지내던 중 아홉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다.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하셨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조차 흐려서 친구분들을 수소문하여 사진을 구하려고 했으나 안타깝게도 끝내 찾지 못했다. 빈궁하고 어려웠던 시절인 데다 해방 이후 6·25전쟁까지 치르면서 그는 일찌감치 생활전선에 나서야 했고, 면서기로부터 시작된 공직생활은 아산군청 근무와 보건소 근무로 연결되어 후에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이어가는 밑거름이 되어 주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서울의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다니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늦은 오후에 기차를 타고 상경하여 저녁을 굶으면서 공부를 하고, 수업을 마치고 부랴부랴 온양온천역에 도착하여 깊은 밤 오토바이를 타고 쌍죽리 시골 동네에 밤 자정이 되어야 도착하였다. 결국 이 같은 노력으로 아산시의회 의원으로서 3선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어진 경력은 아산의 도심과 근접한 지역임에도 교통이 열악한 염치읍의 구석구석 마을길을 확·포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농업기술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염치의 위상을 높였다. 큰 비만 오면 범람하는 염치천의 고질적인 지형적 난점을 개선하고자 삽교천의 수문을 증설하는 정책을 폈으며, 쌍죽리를 비롯한 시골마을의 버스노선에 대한 재정비를 통하여 주민은 물론 지역 학생들의 등하굣길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세심한 대책을 마련해주기도 했다.

임종순은 오십여 년을 쌍죽리에 살아오면서 통합 쌍죽리의 이장으로 시작하여 현재도 1구의 이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외견상으로 보아도 이백 년은 족히 넘었을 마을의 느티나무 정자목은 원래 어마어마한 둘레와 수령을 자랑하는 노거수였는데 어느 날 태풍에 쓰러진 후 싹이 움나서 오늘에 이르렀으니, 쌍죽리 마을에 뿌리내린 지는 상상을 초월할 마을의 수호신이자 큰어른과 진배없다. 분구가 되어 행정적으로 옆 동네일 수 있는 1구와 2구의 마을 주민들은 현재까지도 정월이 되면 몸가짐을 삼가고 정성스레 제를 모시면서 두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고 서로의 정을 돈독하게 가꾸고 있다. 떠나는 마을이 아니라 인구가 유입되고 발전하는 마을을 이루고자 종교시설인 혜명사의 건립을

적극 후원하였고 외부 공장이나 여타 지역민들의 유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적극성을 띠었다.

6·25전쟁 때 어떤 마을이라도 발생하였던 좌우익의 첨예한 갈등조차도 쌍죽리에서는 단일 문중의 결속력을 깨뜨리지 못하고 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었다. 풍천임씨의 선조 농웅 공은 자신보다도 한 살이 어린 계모를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매일 안위를 여쭙고 극진히 모셨다고 한다. 그러한 효행사상을 바탕으로 쌍죽리 마을은 아산시에서 초창기로부터 효도마을의 영예를 지켜내고 있다. 또한 선비들이 모여서 국사를 논하였던 뒷산의 국사봉과 소가 누워 있는 와우산의 눈알에 해당하는 황소바위가 자리한 상서로운 마을이라는 깊은 자부심과 자존을 견지하고 있다.

쌍죽리는 지형상 향후에도 가옥이 들어설 자리가 많지 않으며 넓은 농토를 지니고 있지도 못하다. 오로지 종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 개인 차원의 개발도 난망하다. 그러나 국가 교통망 개선의 일환으로 건설되고 있는 아산 천안간 고속도로의 건설로 인해 외부로부터 좀체 보이지도 않던 쌍죽리 마을에 큰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오가는 차량들이 차창 밖으로 마을을 볼 수 있을 만큼, 한적했던 마을은 매우 번잡해진 양상이며 마을 뒷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전기철탑은 마을의 풍수적 길지 형상을 옛이야기로 만들어 놓았다. 이는 주거지역으로서의 쌍죽리 발전에 치명적인 제약으로 다가올 것이며 평생을 살아온 마을의 분위기가 일신되는 결과가 예측되는 현실이다. 그러나 한 가족처럼 지내온 평온함과 마을의 결속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한데 모여 제를 올리는 정성이 깊은 만큼 윗대실과 아랫대실의 고민이 커진다 해도 마을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 그는 기대한다.

| **이종배**(1933년생) **한상복**(1944년생) 아산시 염치읍 방현리 |



물 좋은 동네 방수물

물 좋은 마을이라고 방수물이라 불렸던 지금의 방현리는 온양시가지와 경계를 이루는 온양동으로부터 곡교천을 넘어 너른 들판을 가로질러 있는 첫 번째 마을이다. 이종배는 선대로부터 방현리에 입향하여 88년을 살았고, 한상복은 유년시절에 온양시내로부터 방현리로 이사 온 이래 마을을 떠나지 않고 우직하게 긴 세월을 지켜오고 있다. 예전에는 들녘이 넓지 않았고 뒤로는 산이 둘러 있어 조용하고도 아담한 시골마을이었다. 누구나 그랬듯이 먼 거리의 학교를 다녔는데, 일제강점기엔 서슬 퍼런 일본식 교육을 받아

야 했다. 한때 6·25전쟁의 시련을 겪으면서 학업도 중단하고 청운의 꿈 또한 접어야 했다. 이제는 오순도순 평온한 정분으로 살 수 있는 웃음꽃 피는 시골마을이 되었지만, 방현리 마을의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지극정성 애향심으로 가꾸어 온 덕분이다.

이종배는 88세의 고령에 이르기까지 이 마을에서 태어나 딸 셋이 모두 출가하여 떠난 고향땅에서 아직도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고 있다. 어려웠던 시절에도 교육열이 높았던 선친의 뜻에 따라 서울의 인창고등학교에 진학하기도 하였지만, 6·25전쟁의 격변기와 군복무 의무 때문에 중도에 학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단 3년 배운 일본어를 아직도 유창하게 구사하며 정확하게 써내려 갈 만큼 정정한 총기를 잃지 않았고, 마을의 자랑인 샘제와 정자나무 제사에서는 제관으로서 마을의 화합을 도모하는 일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다.

대동제사가 세월이 흐르고 관심이 멀어져서 단절되었던 것을 15년 전부터 뜻을 모아 부활시키기도 하였다. 매년 정월에 십시일반 모은 비용으로 제물을 마련하고 정성스레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을 통해 하나가 된 화합의 장이 펼쳐진다. 샘제와 더불어 몇백 년 수령의 정자나무에도 제사를 지낸다. 이는 마을 큰어른에 대한 예경이자 마을 사람 모두에게 건강한 기운과 새 생명의 영험을 안겨줄 것을 약속받는 의식이기도 하다. 모두의 어린시절을 지켜봤듯 후손들의 모습 또한 지켜줄 것으로 믿으며 종교가 다르고 성씨가 다른 주민들에게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는 풍물에도 일가견이 있어 주민들을 교육시켜 여러 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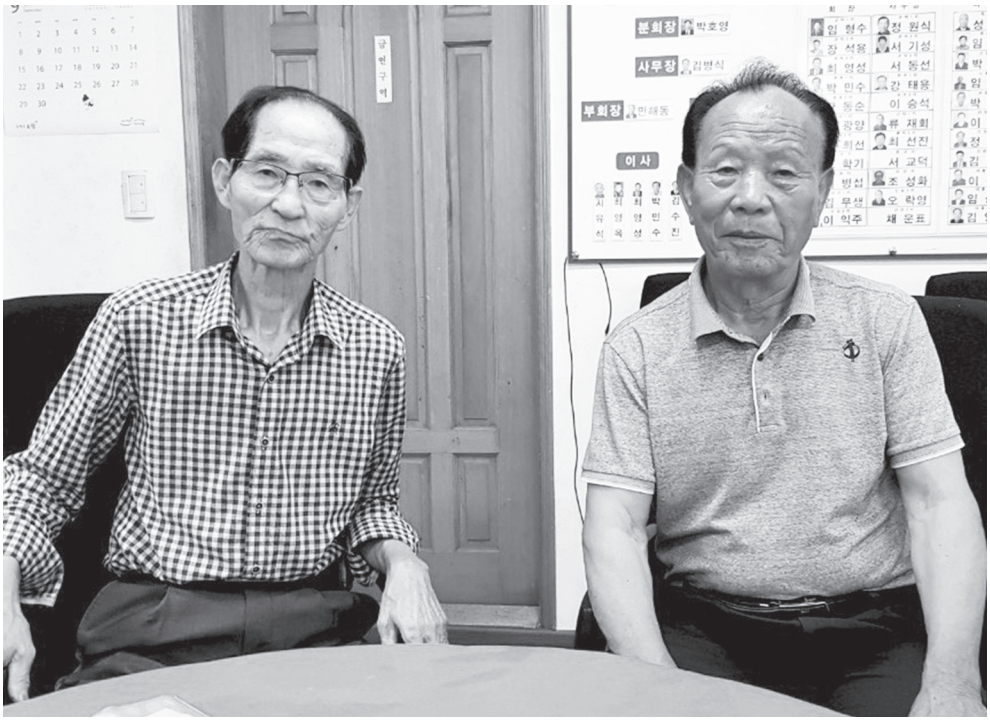
한상복은 평생 건장한 체격과 운동으로 다져진 씩씩한 기상으로 77세로 보이지 않는 외모를 가졌다. 마을에서 호반식당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할 때에는 식당이 적었던 당시에 마을 사람들의 회합장소 역할을 하도록 배려해 주었고, 염치읍과 방현리 마을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고 또 올바르게 존속하였으면 하는 바람에 많은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장을 피력할 경우에는 선배이자 원로인 어른들과도 상의하고 극진히 예를 갖추었다. 한때 16호가 거주하였던 인근 학대마을은 염치저수지의 조성에 따라 지금은 물속으로 사라져 전설이 되었다. 현대화의 물결 속에서 아직도 마을 대동행사를 통

해 전통의식과 고유의 민족 정서를 견지하려는 노력이 진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언제나처럼 방현리의 물맛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현재 방현리는 약 70호 정도의 가구들이 모여 산다. 도회지로 빠져나가는 만큼 젊은 외지인이 들어온다. 새로 전입오는 타향의 젊은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품어주려고 그는 노력한다. 그들 또한 방현리의 주민이요, 앞으로 함께 마을을 이끌어 나갈 한 가족이니 먼저 다가서려는 것이다. 더불어 시골에도 흔하게 만날 수 있는 다문화가정에게도 차별 없는 푸근한 정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방현리에서 아산 온양시내를 바라보면 엄청난 아파트 대형단지의 군락이 도시를 거대한 성벽처럼 에워싼 듯 보일 정도다. 빠르게 확장 발전하는 아산시의 지형이 천안 방향이나 내포 방향으로 향하는 형국에서 바로 인근의 염치읍이나 방현리의 소외감이 느껴지고 있다. 방현리 마을에도 변화가 모색되고 그 변화가 후손들의 풍요로 화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그 중심에는 수호신처럼 마을에 있는 수백 년 동안 큰 키로 주변을 내려다보고 있는, 건강한 왕버들 두 그루가 있다.

| **김상수**(1935년생) **권희영**(1936년생) 아산시 선장면 |



황금 들녘의 선장면

김상수는 선장면 신문리에서 태어나 80세가 넘도록 살아왔다. 아산에서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선장은 쌀이 풍부하였고 대체로 부유한 고장이었다. 항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궁평항을 기점으로 바다로부터 소금과 새우젓을 비롯한 물자가 들어와 곡물로 물물교환하는 창구의 역할을 하였기에 장날이면 2백여 명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인천으로부터 온 씨름꾼들이 참여할 정도로 큰 씨름대회가 열리기도 하였고 농어, 숭어, 꽃게, 백합이 채취되는 어업도 성행하였으니 선장이야말로 풍요로움을 구가하던 마

을이었다.

그는 아산군의 제1회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함으로써 공직생활에 들어섰다. 그러나 머슴을 두고 농사를 지어내야 하는 입장에서 선장면사무소를 벗어나지 않은 게 십여 년이었다. 당시 첫봉급 8천 원을 받았는데, 이는 쌀 두 가마에 해당하였고, 머슴은 일 년에 쌀 여덟 가마를 주었지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며 일을 시키느라 아내가 관리하기에 버거워서 퇴근하고 나면 늘 그가 나서서 하루를 정리하곤 했다.

새마을운동 때는 공직자로서 밤늦은 시간까지 주민에 대한 계몽활동을 하였으며, 구태의연한 과거의 농사법을 개선하고자 줄눈의 효용성을 전파하기 위해 직접 모내기에 참여하고 지붕개량을 권고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오해와 고역을 치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새마을운동이야말로 농촌사회에 일대 혁신이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관공서를 출입하는 민원인들이 일제강점기의 서슬 퍼런 기억에 젖어 주눅이 들고 어려워할 무렵, 동네 어른을 대하는 자세로 친절을 다해 응대하고 편의를 제공하였던 것이 향후 퇴직을 한 후에 두고두고 농업생활을 하는데 큰 자산이 되었다. 공직생활을 하게 된 자식들에게 그 일을 훌륭한 교훈으로 남겨주었다.

권희영은 선장 사람이다. 선장면은 지금의 행정구역과 달리 남부, 북부, 산간으로 불리고 있었다. 남부와 북부는 대체로 너른 들녘을 형성하고 있지만, 산간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의존하여 농사를 꾸려야 하는 열악한 동네였다. 땔나무를 해다가 선장장터에 공급하면서 벌이를 해야 했고, 을씨년스럽게 조성된 산속 서낭당에 제사가 있을 때면 무서움도 잠시 떡이나 과일을 얻어먹는 게 명절을 맞이한 듯 횡재인 시절을 살았다.

위로 11대 조상으로부터 이어 내려온 집안이었지만, 먼 곳으로까지 돈벌이를 하러 갔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혹독한 유년시절을 살았다. 당시로서는 여자 홀로 살아갈 방도가 없는지라 어머니는 개가를 하셨고, 고아가 되어 숙부의 손에 키워졌다. 초등학교를 입학하였지만 겨우 9일 만에 중단하고 집안일과 농사일을 도와야 했다. 내 자식도 키우기 어려운 시절인지라 조카인 자신의 처지를 당연시 여겼고, 먹지 못하여 체구가 작았던 11세에는 몸에 맞는 지게를 손수 만들어 일에 나섰다. 15세부터는 산에서 땔나

무를 해다가 선장장터에 팔았다. 닭울음 소리가 시계인 시절, 초저녁에 우는 엉뚱한 닭 때문에 잠결에 지게를 짊어지고 고개에 이르러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엄동설한에 날은 밝지 않고 한 가닥씩 나무를 빼서 불을 놓고 기다리다, 몇 시간을 일찍 깨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기도 하였다.

한 지게를 짊어지고 가면 잘 받아야 8원을 받았다. 수입을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산허리 땅뙈기를 산 것을 시작으로 돈을 모아 장가도 가고 내 땅도 늘려갔다. 그러다 장항선 철도가 농지를 지나가는 바람에 보상을 받고, 그 보상금으로 샀던 천안의 부동산이 10년 만에 150배가 상승하게 됨으로써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주지 않고 노후를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다. 방송작가를 하는 그의 딸은 아버지의 기구한 인생을 글로 남기고자 하였지만, 스스로 너무나도 측은하여 딸에게도 살아온 생애를 말하기에 목이 메어 만류하였다.

선장 지역은 물산이 풍부했던 만큼 교육수준도 높았다. 일제강점기에도 일본에 유학을 다녀온 분들도 많았고 항일의식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아서 3·1운동과 의식개혁 사상이 팽배하였다. 공산주의 사상을 지녔던 지식층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6·25전쟁을 맞아 일부에서 마구 폭력을 휘두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전후에는 많은 후유증과 함께 상당수가 마을을 떠나는 과정을 거쳐야 했고 평가받을 만한 항일운동에도 불구하고 좌익의 활동이라 영영 회자되지 못하게 되었다.

삽교천의 건립은 선장면에게 일대 사건이 되었다. 지하수로 농사를 짓던 데서 삽교천 민물의 유입은 북부에 40헥타르, 남부에 30만 평에 이르는 신생 농지를 조성시켰고, 그로 인해 철저한 농업지역으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르게 된 현재는 오히려 퇴보되고 낙후되어 가는 느낌이다.

사람이 많고 자연재해에 민감할 수밖에 없던 시절인 만큼 곳곳의 노거수와 산신제가 많았지만, 오래 된 나무가 쓰러지고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단절된 게 많아졌다. 궁평리의 소나무 산신제는 나무의 고사와 함께 마무리되었고, 군덕리의 산신제는 5년 전쯤부터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 제관의 선정부터 주당의 몸가짐까지 엄격하게 지켰고, 산신제를

잘못하여 사망한 사람도 있었다. 제사 음식을 산에 놓아도 짐승조차 함부로 먹지 않는 영험함이 있었지만, 특히 교회가 많이 들어서고 나서는 아예 단절되고 말았다.

인근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들어서자 더불어 많은 공장들이 줄을 이어 입주하였고 화물차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져 외지 사람들의 왕래가 늘었지만, 선장면에 정착하여 사는 인구는 오히려 줄어만 가는 실정이다. 다시 농경사회가 되어도 옛날의 번영은 되돌아오지 않겠지만 신구 문화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권희영은 가지고 있다.

옛 선장면사무소 자리에 마련된 노인회관은 애향심 높은 독지가의 희사로 이루어진 아산시 최고의 회관이며 관에 의존하지 않아 당당하다. 남부 북부 산간의 세 마을에서 늘 같은 시간이면 옹기종기 모여서 즐겁고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고, 자랑이라면 자랑이다.

| **남기웅**(1939년생) **김동석**(1948년생)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



용머리의 자부심과 애향심

탕정면 용두리는 말 그대로 용의 머리다. 용두1리는 용머리요, 용두2리는 물이 넘나든다는 무재, 용두3리는 산골이라 불린다. 탕정에서도 면사무소가 있음은 물론 파출소와 농협, 그리고 우체국 등의 관공서가 있으니 모든 탕정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자연 다방도 음식점도 있어서 마을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무재와 산골은 한마을이나 진배없으니 마을 행사라도 열릴 때면 연극도 펼쳐지고 콩쿠르도 개최되는 즐거움도 있었다. 온양장에 가거나 천안장에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하고 서낭당과 돌미륵에 기원하는 탕정의 지

형이지만, 깨어 있는 이들이 많았고 서로를 보듬으며 탕정의 자존을 지켜나갔다.

마을 복판에 있는 느티나무는 수령을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세월을 마을과 함께 해왔던 친구이자 기원의 대상이었다. 아랫마을의 느티나무 또한 이 나무와 견줄 만했지만 세월 앞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더더욱 용두마을의 나무를 각별하게 모시고 마을 아낙들이 수시로 떡을 해 올리고 과일을 차리며 정성을 다하였다. 정월대보름에는 함께 제사 음식을 마련하고 함께 나누면서 기원 의식을 치른다. 그러고 나면 마을의 안녕과 화합에 가일층 복덩이가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이 굳건해진다.

남기웅과 김동석은 용두리의 선배들이 단결이 잘되었고 또 세심하였다고 회상한다. 오랜 전통의 동계는 계원들이 지분을 가지고 마을의 대소사에 참여하였으며, 새로 입회를 하려해도 만만치 않은 입계미를 납부해야만 합류할 수 있었다. 마을의 현안은 동계에서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이장은 당연직 부계장으로서 실무를 담당하였다. 즉 행정에 앞서 마을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동계의 파워였다. 한편 연반계는 마을에 초상이 났을 때 꼼꼼한 지출과 사후 처리로 어느 마을보다 모범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 대해 정성으로 슬픔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용머리마을은 새마을운동 시기에 퇴비증산운동에 너나없이 합심하고 팔을 걷어붙여 산골의 천막에서 먹고 자면서 서로를 독려하고 힘을 더하여 관으로부터 상도 받고 모두의 재산을 불려 나갔던 것이 자부심이다.

남기풍은 안양의 포도재배 기술자를 초빙하고 묘목을 도입하여 포도밭을 일구었다. 반신반의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딸기를 심어 춘궁기를 극복하고 포도를 재배하여 큰 수확을 올리는 선진기법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너도 나도 포도를 일구니 일조량이 탁월하고 조석으로 일교차가 컸던 탕정의 포도는 전국에서 일등 포도가 되었다. 당도가 높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청과상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봉지를 씌우고 박스에 포장하는 탕정포도의 고급스런 이미지는 탕정의 명성을 전국에 알렸다.

용두리는 땅값이 비싸다. 전체의 70%가 매진한 포도농업의 성황은 모두가 잘 살았기에 땅값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데 더 크고 센 세력이 몰려왔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삼

성전자가 용두리에 입지를 선정하고 대단위 공장을 건설하였다. 모두가 해만 뜨면 나섰던 농토가 하루아침에 공장의 부지로 팔려나갔고, 이제 탕정면의 용두리, 용머리는 삼성이라는 이름 앞에 옹색하게 움츠러들었다.

농사꾼이 농지가 없다는 것은 생업이 사라진 것이나, 대세에 따라 팔려나간 농지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경제적인 넉넉함을 얻게 되었다. 마을의 공동재산이었던 회관과 부지도 공장에 편입되어 마을도 부자가 되었다.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거대한 장벽이 쳐질 것이며, 마을은 하늘을 쳐다보기도 어려운 지경이 될 것이어서 사람 살 데가 못될 것이라는 소문이 흉흉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끄럽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삼성이라는 회사의 입주에 대해 안락한 노후를 가져다준 선물로 여기고 있다. 외지에서 장사를 하고자 들어온 이들이 일부 있지만, 용두리 마을 사람들은 하루가 다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 청춘을 바쳐 일해서 얻은 마을의 재산으로 한 분이라도 돌아가기 전에 넉넉하고 족하도록 배려하고 즐겁고 안락한 노후가 되도록 애쓰고 있는 것이다. 용머리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복을 느끼도록.

| **손동희**(1946년생)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



정감 넘치는 운교리 만세

손동희가 태어나고 살아온 운교리는 아름다운 고장이었다. 마을 뒤의 거목들이 즐비한 숲에는 서낭당이 있었다. 정초나 추수가 끝나고, 또 무시로 기원하는 이들이 다녀가면 떡이며 먹을거리를 제공하니 무서움도 잠시였다. 마을의 상징이었던 벼락바위는 경지정리하고 빌라가 들어서는 바람에 없어졌지만, 서울에서 만난 고향 사람들도 그곳을 추억하며 벼락바위의 안부를 묻곤 하나 대답이 옹색했다. 학교를 안 다닌 게 아니라 학교가 없었다. 둔포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닐 때면 꺼먹 운동화가 겨우 두 달을 못

버텼다. 그래도 우리네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대단하시어 인근의 서당에서라도 배움의 길을 열어주셨다. 보리 때면 보리 서 말, 벼 때는 벼 서 말을 주고 배웠다.

둔포 하면 축사였고 너나없이 소를 먹였는데, 이제는 소가 그득 찼던 자리에 공장들이 들어서고 마을 한복판에까지 화물차가 들락거리니, 아들 며느리 데리고 살지 않아 걱정이 덜할 뿐이지 만약 손주들이 뛰어다녔으면 마음놓을 날이 없었을 것이다. 공장 사람도 빌라 사람도 지금은 자신들을 운교리 사람들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친척이 살던 집, 동무가 살던 집마저 농사도 짓지 않는 낯선 이들이 속속 들어와서 이웃인 양 자리 잡고 오며가며 인사도 없으니 속상하기만 하다. 그들에게는 안락한 노후를 보낼 집과 마을이라지만, 그에게 있어 이 터전은 평생을 일구고 일가를 지켜낸 치열한 삶의 현장일 뿐이다.

운교리의 장승은 오래 되었다. 마을의 수호신이면서 정신적 지주였던 장승은 손동희 집 앞마당 입구에 서 있었다. 듬직하면서도 불편하였다. 가을에 벼타작을 하느라 돌아가면서 탈곡기를 돌릴라치면, 희한하게도 가다가 멈추기를 반복하였다. 장승 얼굴에 먼지 날리는 불경함에 노하셨나보다 생각한 적이 많았다. 결국 윤보선 대통령네 산에 모셨다가 다시 마을 어귀에 모셔서 젯밥을 잊지 않고 잡숫게 했다.

설날을 지내고 나면 장승제를 모신다. 최근에 부정한 일을 겪은 이도 안 되고 피를 흘린 이도 제쳐놓고 정갈한 부부를 선정한다. 그들은 막중한 책무에 부합되도록 몸가짐을 각별히 조심하며, 차근차근 장승제를 준비한다. 장승제 당일엔 교회를 다니는 일부를 제외한 마을 사람 모두가 나와서 기원을 하고 소지를 올리면서 마을과 각 가정의 안녕과 복덕을 간절하게 빌고 장승을 모신다. 예전에는 떡을 복덩이인 양 창호지에 싸서 가져가느라 욕심을 냈지만, 지금은 현장에서 먹을 뿐이다. 장승은 나무로 만드는지라 오며가며 장승이 상한 모습이 민망하면 회의를 거쳐 새로 조성하는데 5~6년 정도면 수명을 다하니, 솜씨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마을에서 직접 깎고 얼굴도 새겨 넣는다. 잘생기고 못생김이 무슨 상관이랴. 돈 주고 장승을 사오는 일은 운교리의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는다. 먼저 제사를 잡수신 장승을 뒷전으로 물리고 새 장승은 앞자리를 차지한다. 손동희는

운교리의 뒷전은 우리네 차지이고 앞자리를 우리 자손이 차지해야 할 터인데 엉뚱한 외지인들이 자꾸만 차고 들어온다고 씁쓸해 한다.

운교리는 황금빛 들녘과 푸른 숲을 자랑했던 청정지역이었다. 아산만의 조성으로 갯물이 들어오지 않자 큰 논이 펼쳐졌고, 아산에서도 풍요로운 고장이 되었다. 그러나 공장들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공장 담벼락이 시야를 가리고, 소 울음 소리 나던 조용한 축사 대신 양돈장이 마구 들어왔으며 근자에는 양계장까지 자리를 잡고 있다. 관에서 허가를 받았으니 마을에서는 속수무책이지만, 먼지 날리는 화물차와 악취를 풍기는 양돈 양계장들 사이를 걷다 보면 운교리 마을은 아예 절단이 났다는 낙심이다. 아들 내외가 들어와 살기를 바라기 어려운 마을로 변모하고 있을 뿐이다. 외지인들은 빠지니 토박이들끼리라도 정을 나누고 단체관광을 한다. 운교리 마을의 일체의식을 잃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이다. 모두가 작정한 것처럼 집 앞마당에 감나무가 여물고 대추가 매달렸다. 예쁘고 정감 있는 운교리의 노력이 단합으로 화답이 되었으면 좋겠다.

| **신세현**(1950년생) 아산시 도고면 오암리 |



하나된 오암리 마을의 자부심

오암리의 옛이름은 오정리다. 마을에 커다란 느티나무 다섯 그루가 있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마을의 터주들이다. 지금은 세 그루만 남아 있는데 그나마 하나는 한국전쟁 당시에 화마를 입어 절반만 남아 있고 두 그루는 아산시의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나머지 고사한 두 그루도 어릴 적에는 커다란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지 흔적을 지워버렸다.

같은 오암리지만 1리와 2리는 산으로 경계를 나누니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살림살이로 살아왔다. 오랜 절터에서 탑과 석불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지만 제각각 살기에 바쁜 이들에겐 관심 밖의 석물일 뿐이었다. 지나가는 굶주린 걸승을 구원해주어서 묫자리를 점지 받고 조선시대 세종대왕의 후실까지 되었다는 송상침의 묘소는 왕가의 위엄답게 우람한 묘지석을 자랑하지만, 막상 그 영예를 안겨준 명당자리는 요원하기만 하다. 신세현은 궁벽한 시골에서 대를 이어 고스란히 느티나무들을 지켜봐 왔고 언제나처럼 계절을 만나면 푸르름을 더하고 그들과 함께 오암리 마을에서 동고동락하고 있다.

마을의 느티나무는 마을 아낙들에겐 부처요 하느님이었다. 소원을 빌고 슬픔은 위로받고 고민거리를 토로하며 기쁨도 나누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23년 전에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거쳐 정월대보름을 기하여 마을공동 제사로 모시는데 마음을 합쳤다. 이장은 당연직 제관이 되었으며, 이 날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마을을 떠나 타지에 사는 옛 이웃들도 모두 초청하여 마을의 축제 판을 만들었다. 그는 7년을 이장으로 지내면서, 제관을 맡게 되면 일주일 이상 부부관계도 삼가고 행여 부정탈까 함부로 눈도 돌리지 않으면서 정갈하게 지냈다. 모두들 소망을 담은 소지를 올리면서 동네사람들은 마을의 지킴이 정자나무에게 한해의 무사안녕과 평온을 기원하였다. 그런데 정을 나누기에는 이것도 모자랐다. 칠월칠석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을 기하여 다시 한 번 출향 친구들을 모두 모으고 음식을 마련하여 걸판지게 놀이판을 만들었다. 백오십 명, 어떤 때는 이백 명에 달하는 옛 마을 사람들이 한데 모여 먹고 마시고 웃으면서 흥겨웠다. 집안 사람이 남아있으면 거기서 자고, 다 떠난 이들은 마을회관에서 쓰러져 자면서 온 가슴을 이박삼일 오암리 고향에서 푹 농익혔다.

더 잘난 것도 없고 더 배운 것이 없는 마을 이장이로되 오암리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서로 도우며 돈독한 정을 이룬 것이 신세현의 더없는 치적이자 자랑거리이다. 다른 동네 사람들이 어찌 보든 말든 오암마을 나름의 문양으로 깃발을 조성하고 모두가 모일 때면 깃발을 치켜들고 하나가 되기를 기리는 것이 일 년에 두 번이다.

오암리는 밭마다 쪽파를 심고 있다. 참외도 심고 수박도 심어봤지만, 드디어 오암리에

최적화된 작물을 찾은 것이 쪽파이고 모두들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확을 경쟁하면서 나름 옹색하지 않은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 예전에는 나이 60이면 노인이었건만 지금은 젊은이고 준회원에 불과하다. 65세나 되어야 노인회를 기웃거릴 만큼 너나없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 왕성한 청년들이 마을 깃발을 기운차게 들어올릴 오암리가 간절하니 그들을 불러 모을 방도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그는 가지고 있다.

6·25전쟁을 맞이했을 때도 다른 데로 피난가기보다는 오히려 피난을 왔던 동네가 오암리이다. 피난 와서 동네가 마음에 들고 동네사람과 정분이 나서 시집 장가갔던 마을이 또한 오암리이다. 온양시내는 하루가 다르게 길이 확·포장되고 고층빌딩과 아파트가 들어서지만, 도고지역과 오암리는 늘 소외되고 개발의 눈길을 받지 못했다. 전철도 오다가 끊기고 마을에 별반 도움도 안 되는 공장의 입주도 반갑지 않다. 조용히 농사지으면서 지금처럼 사이좋게 웃음꽃 피는 마을로 지속되기만 바랄 뿐이고, 이제는 전임 이장으로서 비가 오면 넘치고 난감해지는 하천이나 신경써줬으면 하는 바람만 외치고 있다.

| 유장근(1939년생)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



평촌리서 한생을 살다

유장근은 송악면 평촌리 사람이다. 그곳은 온양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산악지역의 초입에 있는데, 다른 곳처럼 너른 농토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농지에는 돌이 많은 편이다. 험준한 뒷산자락의 서낭나무가 그의 유년시절에는 제일 을씨년스러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 유장근은 도둑골이니 황새동산이니 숲을 벗삼아 지내며 건강하게 성장하였다. 마을 입구에 널찍한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거북이가 땅을 딛고 묻혀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그곳을 복구미 마을이라 불렀다.

그런데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 반듯반듯한 농로와 네모난 벼논의 모습을 이루어야만 성과로 비춰지는 시대상황인지라 그 용하게 생긴 바위는 사라지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복구미 거북바위만은 피해달라고 탄원을 했지만 그런 민원쯤은 묵살할 수 있던 시절이었다. 지금도 어딘가 차량이 다니는 시멘트 도로 밑에서 거북바위가 신음하고 있는 듯하다. 산기슭에 덩그러니 서있던 초석과 열녀비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긴 세월 끝에 비각이 사라졌지만 마을의 자존심으로 평촌리 복구미 마을의 입구에 문패처럼 세워두어 오랜 세월 당당히 고향을 지켜온 지킴이 역할을 해내고 있다.

요즘 아산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제공하는 수원지 역할을 하는 송악저수지는 1965년에 건설된 것이다. 인근의 이십여 호가 넘는 마을과 허리춤에 이르는 냇가는 그의 어린 시절 놀이터였건만 그곳에 거대한 물이 담겨 평촌리와 어깨를 겨루고 있다. 당시 고개를 넘어 멀기만 한 온양까지의 등굣길에는 서낭나무가 새끼줄에 둘러쳐 있고 항상 누군가의 기원을 담은 돌무더기가 수북하였다. 유장근은 넓은 농지의 일손을 돕기보다는 당시로서는 번듯한 금융인으로서 농협에 근무하였으며, 가정을 이루고 나서는 고향인 송악농협을 지원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아들을 넷이나 건사하며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다.

회고해 보자면, 어릴 적에는 다른 마을보다 기와집 몇 채 더 있을 뿐이라고 여겼던 근처의 외암리는 외암민속마을이 되어 전국적으로 관광객이 몰려오는 곳이 되었다. 또한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던 곳에 불과했던 봉곡사는 '아름다운 숲길'이라며 여행객의 각광을 받고 있지만, 평촌리는 수원지 곁이어서 사람 왕래가 많지 않고 공장도 축사도 들어서지 못하니 조용하고 정갈하여 노후를 보내기엔 안성맞춤인 동네가 되었다.

청정지역이라는 것은 현재 훌륭하게 보존된 녹지 상태를 지키기 위해 개발에서 제외시킨다는 법적 규약을 가진 곳이라서 어떤 의미에서 좋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하다. 날로 번창하는 아산시의 변화 속도를 감안하면 정체되거나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산에서는 그 흔한 토지보상이라는 소리가 송악에서는 낯설 수밖에 없고 꾸부정하게 게이트볼장에 모여 있는 노인네들에게도 별다른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다.

그런데 다행히도 평촌리에는 언제부터인가 젊은 가족들이 하나 둘씩 들어오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제법 들려온다. 비어만 가는 농촌마을에 좋은 소식인 것이다. 그래서 스스로 들어오는 이들에게 텃세는커녕 그저 반갑게 맞이해줄 마음만 앞선다. 의식이 깨인 젊은이들은 오히려 먼저 가슴을 열고 친절히 인사하며 마을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니, 이제는 청정지역 평촌리는 사람 살기 정말 좋은 곳으로 불리고 있다. 그의 장남은 자기가 말년을 살아갈 요량으로 멋진 한옥으로 새집을 지어 애비에게 드렸다. 현재는 이 집의 건물관리인이 되어 있지만 고향을 지키고 조상의 묘역을 챙기려는 아들의 모습에 그는 행복하고 흐뭇하기만 하다.

서산시

| **김명두**(1938년생)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

환성리의 상장례 풍습



김명두는 환성3리 노룡곶(노룡고지)이 고향이다. 물이 가장 잘 솟았던 큰샘은 마을회관 부근에 있었다. 회관 근처는 '늙은 용이 누워 있는 지세'라는 뜻에서 예로부터 '노룡곶'이라 불리었고, 그 안쪽 마을을 '안노룡고지'라고 했다. 안노룡고지 남쪽 골짜기에 큰샘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지하수 이용이 보편화되고, 샘 근처를 논밭으로 일구면서 옛 우물은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그는 노룡곶에서 태어나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8세에 해방이 되었고, 13세에 6·25전쟁이 발발했다. 전쟁 통에 학교에 다닐 수 없었다. 더욱이 위로 형, 누이들이 줄줄이어서 학교 문턱에도 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는 스물한 살에 중매혼

을 하여 부인 박옥희를 만났다.

환성리 마을 사람들은 초상이 나는 것을 대비하여 상포계를 조직했다. 초상이 나면 계원들은 쌀 1~2두씩을 갹출하여 상갓집에 갖다 주었다. 본래 상포계는 장례에 쓸 상포(喪布)를 계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상포계원은 20명 정도였고, 대개 부모상을 대비하여 계에 들었다. 그 외에 발인계가 있었다. 이는 힘을 쓴다고 하여 역계(力契)라고도 불렀다. 대개 혼인한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발인계를 조직했다. 일반적으로 상여는 14~15명이 메는데, 그 수에 따라서 계원의 숫자도 정해졌다. 계원들은 돌아가면서 상여도 메고 장지에서 산역도 했다. 이처럼 상포계와 발인계는 장례를 대비하여 이웃 간에 맺은 상부상조의 원칙을 지켰다.

마을에 초상이 나면 서둘러 부고를 전한다. 가까운 친척들에게는 부고장을 돌리지 않고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구두로 부고를 알린다. 서산에서는 이를 '전의 부고'라고 한다. 부고를 받는 집에서는 황망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온 이에게 반드시 밥 한술이라도 대접하거나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막걸리라도 주어서 보냈다. 멀리서 찾아온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초상집에 이웃이 찾아와서 초혼하고 사자상을 차려준다. 이는 가까이 사는 친인척이 대신한다. 초혼(招魂)은 망자의 육신을 떠난 혼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풍습이다. 초혼은 안마당에서 하는데, 이때 집사자가 절구통을 엎어놓고 그 위에 올라선다. 한 손에는 망인의 속적삼을 들고 흔들면서 망인의 생시·이름·주소·관직 등을 부르고, 마지막에 '복(復)'을 3번 외친다. 속적삼은 그대로 지붕에 던져둔다. 이웃에서는 지붕 위의 속적삼을 보고 초상이 났음을 알게 된다.

한 옆에서는 사자상을 차린다. 안방으로 올라서는 섬돌 위에 키를 놓고 그 위에 쌀 3그릇, 청수 3그릇을 떠놓는다. 그 외에 망인이 신던 신발과 동전 3닢을 올린다. 이때 키의 넓은 면이 대문을 향하도록 놓는다. 사자상은 망인을 위해서 차린다고도 하고 망인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를 위한 제물이라고도 한다. 망인이 신던 신발을 놓는 이유는 이것을 신고 저승길을 가라는 뜻이고, 동전은 노잣돈이다. 상에 올렸던 쌀과 물은 발인 후

에 치운다.

초상이 나면 상갓집에서는 호상(護喪)을 세운다. 상례 전반을 알고 이웃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이에게 호상을 맡겼다. 망인과 가까운 친인척들에게는 인편을 보내어 직접 부고를 알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고장을 돌린다. 이때도 물론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부고장을 전한다. 어느 집이고 찾아가서 부고장을 전할 때는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대문에 달아둔 부고함에 넣거나 삽짝의 싸릿대에 끼워둔다. 주인은 부고장을 대문 밖에서 확인하고 집안으로는 들이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 벌을 키우는 집에서는 부고장을 가지고 벌통 앞으로 향한다. 예로부터 벌은 영물이라 하여 부고를 접하면 머리에 흰 띠를 두른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부고를 알리면, 벌이 상주들처럼 복(服)을 입는다고 한다. 만약 벌통에 부고를 고하지 않으면 부정이 타서 벌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다.

환성리에는 마을마다 상여를 보관하는 상엿집이 있고, 이를 도맡아 관리하는 상여장모를 두었다. 상여장모는 초상이 나면 상여를 꾸며주고, 정리하여 보관하는 일을 도맡았다. 장마철에 이따금 꺼내어 햇볕에 상여를 말리는 것도 상여장모의 일이었다. 상여가 너무 낡아서 쓸 수 없을 때에는 새 상여를 장만한다. 노룡곶에서도 오래전에 새로 상여를 마련한 일이 있었다. 상여는 천안에서 사 온다고도 하고, 솜씨 좋은 목수를 들여서 직접 짓는다고도 한다.

상여를 새로 들여오는 날은 마을 잔치가 벌어진다. 마치 초상이 났을 때에 행상(行喪)을 하듯이 요령잡이가 앞에 선다. 상여 위에는 극노인을 태우고, 젊은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마을을 한 바퀴 돈다. 이처럼 해야 새 상여를 오래도록 잘 쓸 수 있다. 새 상여를 들이고 첫 초상이 나면, 그 집에서 상여 값의 절반을 동네에 낸다. 아무도 쓰지 않은 새 상여를 탄 것에 대한 답례인 셈이다.

김명두는 오래전 상갓집에 다녀와서 심하게 앓은 경험이 있었다. 상갓집에 다녀온 저녁부터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그렇게 40여 일을 병석에 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낮에는 거동은 할 수 있었는데 해가 지면 여지없이 심하게 앓았다. 부인은 아무래도 상갓집에 다녀온 것이 마음에 걸렸다.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

자, 인근 마을에 사는 법사를 찾아갔다. 법사는 상문이 닿았다며, 이를 물리려면 경을 한 석 읽어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부인은 남편의 병세가 심해지자 그 길로 굿을 할 날짜를 정했다. 정해진 날짜에 법사가 찾아와서 밤새 큰 경을 읽었다. 환자를 데려다가 앉혀 놓고 살이 풀어지도록 한참을 외웠다. 이튿날 법사는 돌아갔고, 남편은 그날 저녁부터 차도를 보였다. 더 앓지도 않았고 식사도 이전처럼 할 수 있게 되었다. 거짓말처럼 회복이 되었다. 그 뒤로 부인은 남편이 상갓집이나 궂은 곳에 가게 되면 소금과 후추를 백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어주었다. 상문으로 되게 앓은 뒤로 액을 막기 위한 방법이었다.

| **차태완**(1941년생)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



망자의 마지막 길을 밝히는 상엿소리

차태완의 숙부는 차선길이다. 10여 년 전에 향년 93세로 돌아가셨다. 마을에서 청이 좋기로 유명했다. 상엿소리는 물론이고, 농번기가 시작되면 농요를 구성지게 잘 불렀다. 그의 어머니 역시 청이 좋아 부녀자들끼리 한바탕 노래판이 벌어지면, 그 중 단연 일등이 모친이었다. 어려서부터 숙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농번기에 두레가 시작되면 숙부를 따라다니면서 농요를 익혔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5~6살 때부터 그 소리가 좋았다.

숙부가 자주 부르던 농요는 농사짓는 순서에 따라서 가락과 가사가 달랐는데, 후에 숙

부가 불렀던 농요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 이 농요는 총 8개 소리로 나뉘는데, 주가래 소리, 모 찌는 소리, 모 심는 소리, 도사리 소리, 호미걸이 소리, 만물 소리, 벼 디디는 소리, 말대는 소리이다. 주가래 소리는 논에 물을 가두고 논둑을 돋우는 일을 할 때 부르는 농요이다. 곧 농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매 순서마다 정해진 소리가 있었다.

차태완은 2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누이가 맏이였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다. 7살이 되던 해에 아버님이 병환으로 돌아가셨다. 어렵게 초등학교는 졸업했으나 중학교에는 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 어린 마음에 학교 문턱이라도 밟고 싶어서 친구들과 가출을 결심했다. 집을 떠나서 인천만 가면, 공장에 다니며 야간 학교라도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요량이었다. 어머니 몰래 돈을 훔쳐서 대산포구로 향했다. 그 무렵에는 똑딱선이 다닐 때여서 물때만 맞으면 배를 탈 수 있었다. 그런데 친구 2명 중 1명이 붙잡혀 어머니들이 가출 소식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잡으러 포구까지 잰걸음으로 쫓아왔다. 공교롭게도 물때가 닿지 않아서 배를 탈 수 없었고, 그도 어머니 손에 붙잡혀 집으로 되돌아왔다. 뒷목을 잡아끌던 어머니 손을 한평생 잊을 수 없었고, 가난으로 배움이 짧은 것이 못내 한이 되었다.

그는 10대 때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여 생계를 이었다. 모친은 35세에 홀로 되어 힘들게 3남매를 키웠다. 그는 21세에 혼인을 하여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 열심히 일한 덕에 30대가 되자 어느 정도 가세가 안정되었다. 그리하여 어려서부터 배우고 싶던 노래를 배우기로 결심하였다. 처음에 시조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는 속도가 빨랐다. 전국 민요 경연대회에 나가 수상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민요 강사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석면 창리 영신제에 참석하게 되었다. 법사, 만신들이 한참 동안 굿을 한 뒤에 저녁에는 민요, 창, 시조 등을 부르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되었다. 그 때 그가 시조창 한 소절을 선보였다. 그 소리가 얼마나 좋았던지, 숙소에 돌아가서 쉬고 있던 경기민요 전수자인 박태원이 당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경기민요를 배워볼 생각이 없는지 의사를 물었다. 심지어 서울에서 본격적으로 배워보라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책임

질 가족이 있어서 선뜻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농한기에 서울에 올라가 경기민요를 배우게 되었다.

어느 집이고 위중한 어른이 계시면 자손들과 일가친척들은 물론이고 이웃에서도 염려한다. 어른이 눈을 감으실 때가 되면 자손들, 일가친척, 이웃들이 찾아와서 안방이 사람들로 꽉 찼다. 어른의 마지막 모습을 이웃들도 함께 지켜보았다. 그리고 장례가 끝나는 날까지 초상집을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초상집에 다녀와서 이유 없이 앓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객귀가 붙었다고도 하고, 상문이 닿았다고도 한다. 일진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특히 조심한다. 집안에 소·돼지·개 등 가축이 새끼를 낳았다면, 그 무렵에는 될 수 있으면 초상집에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초상집에 갔다면 가급적 시신을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잘못하면 부정이 타서 가축이 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면례는 윤달[閏月]에 한다. 서산에서는 윤달을 가리켜 '윤색 드는 달' 또는 '손 없는 달'이라고 한다. 또한 공달[空月]이라고도 하는데, 민간에서는 이 달에 손(귀신)이 없다고 하여, 평소에 탈이 날 것을 염려하여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묏자리와 관련된 일들이다. 이 달 사초를 해도 무방하고 면례를 해도 탈이 없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물건을 옮기거나, 흙·나무·돌·철물 등을 다루어도 무탈하다. 이 달에는 어떤 일을 해도 동토(동티)가 나지 않는다.

상엿소리는 그 소리를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야 한다. 상여가 나갈 때 요령잡이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무엇보다 구성진 상엿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야 한다. 상엿소리는 특별히 가사가 정해져 있지 않다. 요령잡이가 가사를 창작하여 소리를 메기면, 상여꾼들이 일제히 "어허이! 어하!" 하고 소리를 받는다. 망인의 생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에게 요령잡이를 맡겼다. 일평생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따뜻하게 맞았던 이를 위한 상엿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구슬프다. 요령잡이는 자녀들도 알지 못했던 망인의 선행을 상엿소리 곡조에 싣기도 한다.

오래전에 친한 친구가 사망하여 요령잡이를 한 적이 있었다. 행상을 하는데, 한 친구가 희희낙락 웃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은근히 서운한 생각이 들었다. 순간적으로 그 마

음을 다음과 같이 소리에 담았다.

"살아생전에 너와 나와는 네가 없으면 내가 못 살고, 내가 없으면 네가 못 살고. 그렇게 잘하게 지내던 내 친구가, 내가 막상 죽어서 황천길에 가는데, 뭐가 이리 좋아서 웃느냐. 나는 가는 마지막 길이 너무너무 서운해서 못 가겄다."

그리고 가던 길을 멈췄더니, 그 소리를 들은 친구가 반성하고 서글피 울기 시작했다. 상엿소리는 이처럼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야 한다.

상엿소리의 가사에는 인생의 허무함이 담겨야 한다. 우선 망인이 한평생 잘 살아왔고, 무엇보다 그 삶이 의미가 있었음을 노래해야 한다. 그리고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가 그러하듯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왕후장상이라 할지라도 태어났으면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곧 인생의 허무함이 상엿소리에 녹아 있어야 한다. 상여꾼들이 가사를 듣고 함께 슬퍼하고, 망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밝혀 주는 것이 상엿소리이다.

| **김지홍**(1931년생) 서산시 대산읍 대산리 |



죽음을 정리하는 법

김지홍은 대산읍 대산리에서 태어나 조부모 슬하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9세에, 어머니는 12세에 잃었고, 형제는 남동생 1명뿐이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었지만, 조부모의 각별한 보살핌 속에서 성장했다. 타계하신 아버지는 대산초등학교를 나오고 서당 교육까지 받은 지식인이었다. 일제강점기에 면서기를 지내고,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도 적지 않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그 많던 재산을 나라에 빼앗겼다. 오랜 기간 소송에도 불구하고 부친이 남겨주신 재산을 되찾을 수 없었다.

조부모는 팔순이 넘어서 임종하였다. 다행히 손자의 혼인과 증손자들이 성장하는 모습까지 보고 돌아가셨다. 당숙모의 소개로 부인 정경숙을 만나 결혼했다. 정경숙은 충남 아산 출신으로 부잣집 막내딸이었다. 부잣집 사위가 되려고 일부러 부자 행세를 했다. 당시에는 속아서 혼인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정경숙은 비록 속아서 한 혼인이지만 시간이 지나니 전혀 후회가 없다고 하였다. 일평생 부부가 해로하고 자녀들이 무탈하게 성장한 것을 감사히 여겼다.

일제강점기에 대산리에는 약 50호가 살았다. 그 중 대다수가 소작농이었고 무척 가난했다. 마을에 일본인 소유의 토지가 많았고 주민들은 그 땅을 소작했다. 가을이면 소작료와 지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이르자 식량을 공출하여 집집마다 곡식의 씨가 말랐다.

그 무렵에 "조반석죽만 해도 잘 산다."는 말이 생겨났다. 아침에 보리밥으로 배를 채우고, 점심은 거른 채 저녁을 기다렸다. 저녁에는 곡식이 약간 섞인 멀건 죽을 쑤어 먹는 것이 전부였다. 그조차 챙기지 못하여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부친이 졸업한 대산초등학교에 입학하니 일본인 교사가 아이들을 훈육했다. 처음에는 우리말을 섞어 쓰다가 시간이 지나자 아예 일본어만 쓰도록 강제했다. 아이들은 집에서는 조선어를 썼지만,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해야 했다. 학교에서 실수로 조선어를 하는 날에는 가슴에 패를 달아야 했다. 그 글자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벌을 주는 방법이었다. 아이들은 패를 다는 것 자체를 망신으로 여겼다. 그 횟수가 잦을수록 교사의 눈밖에 났다.

마을에서는 젊은 청년들이 징병·징용으로 끌려갔다. 대부분 20-30대 젊은이들이었고 미혼이 많았다. 그는 당시 징병·징용으로 차출된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 이웃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결코 남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징병·징용 갔던 이들 모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가 14세에 해방이 되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강제로 동원하여 일을 시키는 일이 잦았다. 인근 산에서 송진을 채취하여 수거해 가기도 하고, 원활한 군량

미 공급을 위해서 곳곳에 저수시설을 마련하는 일에도 동원되었다.

초상이 나면 일반적으로 삼일장을 치른다. 혹여 발인일의 일진이 좋지 않거나 상갓집 형편이 넉넉한 경우에 오일장, 칠일장을 치른다. 과거에는 부모가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른 후에 곧바로 장지에 시신을 매장하지 않았다. 그는 어려서 조부모께 이 지역의 특수한 장례풍습인 초빈[草墳]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증조모가 돌아가시자 시신을 장지에 곧바로 매장하지 않고 초빈을 했다. 집 근처 가까운 산에 시신을 모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시신에서 진물이 빠질 때까지 3개월 정도 막을 지어놓고 상주가 곁을 지켰다. 반가에서는 으레 초빈을 했다. 당시 초빈을 하는 풍습은 보편적이었다. 마을에서 가까운 바닷가에 초분골(초빈골)이라는 지명이 전한다. 지금은 굴은 없어지고 해안 절벽에 숲이 무성하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초빈을 했던 골짜기이다. 평소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던 곳이었다.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혼을 부르는 것이다. 일명 초혼(招魂)이다. 이 지역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북쪽 고향으로 되돌아간다고 믿었다. 초혼할 때 북향하여 망자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른이 숨을 거두면 우선 초혼을 한다. 반가에서는 하인들이 그 일을 도맡았다. 이를 행하는 사람은 망자가 입던 저고리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서 북쪽을 향해 선다. 그 뒤에 망인의 거주지, 생년을 왼 뒤에 "복! 복! 복!" 하고 크게 외친다. 이는 육신을 떠난 혼이 되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한다.

초혼을 한 뒤에 대문 밖에 사자상을 차린다. 이는 망인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를 위한 제물이다. 대문 밖 한 옆에 상을 펴놓거나, 여의치 않으면 짚을 가지런히 깔고 밥 세 그릇을 놓아둔다. 망인이 저승길에 쓸 노잣돈과 짚신 3켤레도 함께 놓는다. 사후에 인간이 사자를 따라서 저승으로 가면 염라대왕과 7명의 판관이 인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었다. 생전에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저승의 판관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 극악한 죄를 지은 이는 삼천 지옥에 떨어지고, 선행을 베푼 이는 환생을 한다. 살아서 죄를 지으면, 그 죗값을 죽어서 반드시 받게 되어있다고 한다.

그는 부인 정 씨의 경험담을 이렇게 전한다. 오래전 친정어머니가 임종하실 무렵에 아산 집에서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인은 서둘러 서산에서 아산 친정으로 향했다. 집에 들어섰을 때에 친정어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뒤였다. 방안에 들어서자 형제들이 어머니 곁에 둘러앉아 있었다. 막내딸을 끝내 보지 못한 어머니는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부인은 곁에 있던 큰언니 손에 이끌려 어머니 곁에 앉았다. 언니가 일러주는 대로 가만히 어머니 눈을 쓸어내렸다. 언니는 어머니 귓가에 "어머니, 어머니. 기다리던 막내딸이 왔어요. 그만 눈 감으세요." 하고 속삭이듯 말했다. 딸이 가만히 눈을 감겨드리자 비로소 눈을 감으셨다.

그들 부부는 젊은 시절에 잠시 인천에서 살았는데, 당시 이웃에 살던 쌍둥이 중 하나가 사망한 일이 있었다. 남자 아이들이었는데, 둘 중 하나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일설에 쌍둥이 중 하나가 죽으면 남은 아이도 데려간다고 하여, 그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에 방애[뱅이]를 했다. 시신을 매장할 때에 종이 인형을 함께 묻어주었다. 그래야만 남은 아이가 잘 살 수 있다고 하여 이처럼 뱅이를 한 것이다.

| **최중인**(1943년생) 서산시 성연면 명천리 |



미리 정한 묫자리

최중인은 6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3대가 한집에 살았다. 큰아버지는 혼인을 하였으나 끝내 아이가 없었다. 큰집에서 대를 이어야 마땅하나 상황이 여의치 않자, 조부는 큰아들 내외를 분가시키고 작은아들의 장자를 양자로 보냈다. 곧 그의 형님이 큰집에 양자로 들어간 셈이다. 큰형이 양자로 가는 바람에 사실상 그가 장남 노릇을 하게 되었다. 큰집에서는 형님을 호적상으로도 정리해 달라고 여러 차례 뜻을 밝혔으나, 아버지가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장성하여 혼인할 무렵이 되어서야 큰집 장손으로 입적

이 되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매우 건강한 분이었다. 그런데 58세가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병환으로 돌아가셨다. 일생 술을 즐겨 드셨는데, 아마도 위암이나 간암을 앓으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에는 기력이 쇠하여 거동을 제대로 못 하실 지경에 이르자 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시는 아버지를 부축해드리라고 일렀다. 아버지는 화장실에서 나오시자마자 각혈을 하고 몸져누웠다. 한의사를 불러 진맥하였으나, 깨어날 가망이 없었다. 한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다. 그렇게 쓰러지셔서 얼마 후 돌아가셨다.

예로부터 인간의 오복(五福) 중 최고는 편안히 죽음을 맞는 것이다. 집안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망자의 혼을 부른다. 일명 초혼(招魂)이다. 지붕 위에는 망인의 속적삼을 던져 놓는다. 이는 초상을 알리는 표시이다. 이웃에서는 흰 저고리를 보고, 제일 먼저 마당에 널어두었던 빨래를 걷는다. 그리고 초상집에 찾아가서 사흘간 일을 거든다.

초혼을 마친 뒤에 대문 밖에 사자상을 차린다. 대문 밖 한옆에 상을 펴고, 밥 3그릇과 동전 3닢을 놓아둔다. 동전은 망인이 저승길에 쓸 노잣돈이다. 그 외에 망인이 신던 고무신도 1켤레 올려놓는다.

마을에서는 이웃 간에 상포계를 조직했다. 부잣집에서는 5일장·7일장을 치러도 부담이 덜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3일 장도 큰 부담이었다. 상포계 계원 중에 상을 당한 이가 있으면 쌀 1~2되씩을 갹출하여 주었다. 본래 상포계는 장례에 쓸 상포(喪布)를 계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상갓집에 부조로 돈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다. 이웃에서는 장례 음식으로 달걀 1줄, 콩나물 1시루, 막걸리 1병을 가져왔다. 형편이 넉넉한 집에서는 양조장에서 막걸리 1통을 받아다 주기도 했다. 장례를 치를 때에 가장 필요한 술과 음식을 부조한 셈이다. 상주들은 이웃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그 집에서 초상이 났을 때 똑같이 갚는다.

수의는 삼베로 짓는 것이 가장 좋다. 나일론이 섞이면 온전히 썩지 않아서 시신에 좋지 않다. 몇 해 전에 이장하면서 나일론에 감긴 시신을 본 적이 있는데 나일론이 시신에

붙어서 벗겨지지 않아 애를 먹었다.

부잣집에서는 어른이 계시면 관을 옻나무로 미리 짜 두었다. 또 지관을 들여서 묏자리도 미리 봐두었다. 명천리에 큰 부자가 살았는데, 그 집 주인은 유명한 지관을 들여서 자신의 묏자리를 정했다. 목수를 들여서 관도 만들어 두었는데 가장 좋은 관은 옻나무를 마름질하여 짠 것이다. 시간이 지나도 옻나무 관은 썩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오동나무나 소나무에 옻칠을 한 것이 좋다. 이처럼 미리 관을 장만한 경우에만 시신을 입관한 채 매장한다. 일반 가정에서는 대부분 양질의 관을 마련할 수 없어서 탈관한 채 시신만 묻는다.

지관들은 장지를 결정할 때에 묏자리를 둘러싼 지형지세를 살펴서 신중하게 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곳이 명당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정작 이장할 때뿐이다. 이장을 하다 보면 명당과 그렇지 않은 묏자리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명당은 흙 색깔부터 차이가 난다. 좋은 묏자리는 수분이 증발하여 흙을 만졌을 때 손에 습기가 느껴지지 않아야 하고, 색깔이 누런빛을 띠는 곳이 좋다. 그런 땅에서는 대개 누런빛을 띠는 시신이 수습되기 마련이다. 이를 '황골'이라고 한다. 때에 따라서 시신이 온전히 흙으로 돌아가 터만 남는 경우도 있다. 이와 반대로 물이 닿는 곳에 묏자리를 쓴 경우에는 시신이 그대로 남았거나, 검은빛을 띤다. 산속 깊은 곳에 묏자리를 썼어도 수맥(水脈)이 흐르는 곳이 있다. 이런 곳은 장지로는 적합하지 않다. 일설에는 해성리 뒷산에 명당이 있었다고 한다. 한 주민이 조부의 묘소를 이장하다가 그 터를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실제로 황골이 수습되었고, 자손들은 이장하게 된 것을 후회했다.

초상이 나면 발인 전날 자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후에 염습을 시작한다. 이것은 자손들이 마지막으로 망인을 떠나보내는 장례 절차이기에 특히 신중히 행한다. 집사자는 염습 전에 수의 한 채를 가지런히 준비해 두고, 칼·가위 등 필요한 도구를 양쪽에 놓아둔다. 혹여 날카로운 물건들을 시신 위로 주고받지 않도록 조심한다.

이처럼 모든 준비가 끝나면 방문을 활짝 열고, 절차에 따라서 염습을 진행한다. 염습이 시작되면, 식구들은 곡(哭)을 그친다. 어수선한 상황에서 염습을 하면 혹여 집사자가

실수할 수도 있기에 이 때만큼은 주변을 환기시킨다.

집사자는 고인을 깨끗하게 닦아 드린 이후에 미리 준비해 둔 수의를 입힌다. 손톱·발톱·머리카락도 잘라서 조발낭(爪髮囊)에 담고, 손에는 손싸개, 발에는 버선을 신겨드린다. 마지막에 불린 쌀을 입에 넣어드리며,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하고 말한다. 이는 망인이 저승길에서 드실 양식이다. 반함(飯含)이 끝난 뒤에 얼굴에 멱목(幎目)을 덮는다. 이때 자손들은 고인의 생전 모습을 마지막으로 뵙는 것이어서 곡한다. 장지에서 하관을 할 때 지관은 그 자리를 피해 있어야 할 이들을 미리 일러준다. 예컨대 돼지띠, 쥐띠, 소띠 등은 자리를 피해 있으라고 이른다. 잘못하면 주당이 닿아서 크게 앓거나 심한 경우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혼례를 치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당을 피한다. 성연면에 사는 한 노파는 아들을 장가보낸 뒤에 며느리가 들어오는 날 주당이 닿아서 그날로 목숨을 잃었다. 새사람을 맞을 때 시어머니가 주당을 피하려면 굴뚝을 들여다보고 있게 하는 풍습이 있다.

| **김옥순**(1932년생)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



전통적인 시신의 매장법

어느 날 이웃에서 초상이 났다. 마을 사람들이 전부 그 집에 찾아가서 일을 거들었다. 그 시절에는 아이들도 으레 초상집 문턱을 드나들었다. 당시 김옥순도 초상집 일을 거들기 위해서 이웃집에 가 있었다. 아이들끼리 집을 지키고 있다가 9살 난 딸이 4살 먹은 남동생을 엎고 초상집에 찾아왔다. 아이들은 초상집에서 점심을 잘 먹고 집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두 아이(누나와 남동생)가 앓기 시작했다. 딸아이는 이튿날 학교에 가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앓았다. 두 아이 모두 병원에 데려갔으나 차도가 없었

다. 9살 난 딸은 결국 사흘 만에 눈을 감았다. 그 남동생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났다. 집안 어른들은 아이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초상집)에 간 것이 원인이라며, 이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초상집에는 가지 못하게 했다.

어느 마을이나 아이들의 시신을 매장하던 애장터가 있었다. 그곳은 평소에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으슥한 곳이다. 어떤 해에는 손님(천연두)이 돌아서 아이들 여럿이 한 번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10세 전후의 아이들이 사망하면 깨끗한 천이나 어른들 옷가지로 시신을 싸서 애장터로 향한다. 이웃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시신을 안고 나온 터라 땅을 깊이 팔 여유도 없었다. 시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만 땅을 파고, 그곳에 시신을 묻는다. 애장에는 봉분도 없다. 산짐승들이 냄새를 맡고 시신을 파 가는 일도 흔했다. 이를 막기 위해서 평평하게 돋운 땅 위에 베틀북을 군데군데 박고 실을 빙 둘러놓기도 하고, 깨진 그릇을 덮어두기도 했다.

초상이 나면 이웃에서 깨끗한 부인이 찾아가서 사자상을 차려준다. 이는 망인을 데리러 온 저승사자를 위한 제물이라고도 하고, 망자를 위해서 차린다고도 한다. 대문 밖 한켠에 상을 편 후 밥 3그릇과 청수 3그릇을 놓고, 그 밑에 신발(짚신)도 3켤레를 놓아둔다. 부잣집에서는 망인이 저승길에 쓸 노잣돈도 놓아둔다. 사자상은 사흘간 그대로 두었다가 발인하는 날 치운다. 물과 밥을 한데 담아서 상여 나간 뒤에 버린다. 상 위의 제물은 망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아무도 손대지 않는다.

발인하는 날에는 댓돌 위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그 옆에 청수 한 그릇을 떠놓는다. 안방에서 마당으로 운구(運柩)할 때 맨 앞에 선 사람이 바가지를 밟아서 깬다. 그래야만 초상집에 몰려든 잡귀 잡신이 그 소리에 놀라 달아난다. 댓돌에 떠놓았던 청수도 마당에 뿌린다.

과거에는 마을에 염병(장티푸스)이 돌아서 목숨을 잃는 이들이 많았다. 일제강점기에는 이웃에 전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환자들을 한곳에 모여 있게 했다. 염병 환자들의 간이 막사였다. 마을에서는 이곳을 '염병집'이라고 불렀다. 이곳에 실려 간 이들 중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고 극소수만이 살아 돌아왔다.

식구 중에 염병으로 죽은 이가 있으면 이는 악상이나 진배없었다. 우선 병이 옮는 것을 두려워하여 초상집을 찾는 이가 없었다. 아무도 상여를 메려고 하지 않아서 상여를 쓸 수도 없었다.

오래전 마을에 염병으로 죽은 이가 있었다. 인적이 드문 공동묘지에 화장할 장소를 마련하고, 땔감을 잔뜩 지어다 두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에 땔감을 쌓아 두고, 그 위에 시신을 모셨다. 식구들이 슬피 울며 화장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예로부터 "마을에서 까마귀가 울면 초상이 난다."는 말이 있다. 까마귀는 인간보다 먼저 죽음을 예지하는 영물이라고 한다. 여우도 마찬가지로 영물이다. 어려서 어른들이 "까끄매[까마귀]가 우니, 초상나려는가 보다." 혹은 "우연히 여수[여우]가 우니, 초상나려는가 보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어린 마음에 어째서 초상이 나느냐고 물었더니, (영물들이) 사람보다 먼저 초상나는 것을 걱정한다는 답이 돌아왔다.

집안에 소·돼지·개 등 가축이 새끼를 낳으면, 여느 때와 달리 식구들 모두 조심해야 한다. 잘못하면 부정이 들어서 새끼들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 특히 돼지가 부정이 들면, 새끼를 무는 수가 있다. 이웃에 초상이 난 경우에는 문상 가서도 시신을 보아서는 안 된다. 혹여 장지에 갔더라도 하관(下棺)은 보지 말아야 한다. 초상집에 잘못 다녀오면, 틀림없이 가축이 해를 입는다.

그가 어려서 직접 겪은 일이다. 집안에 쌍둥이를 낳은 부인이 있었다. 아들·딸 이란성 쌍둥이였는데, 두 아이가 무럭무럭 잘 컸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었다. 부모는 돌연 아이가 사망하자 혹여 남은 아이마저 잘못될까 싶어서 무당을 찾아가서 방법을 물었다. 무당은 죽은 아이 옆에 짚으로 사람 형태의 허재비[허수아비]를 만들어서 함께 묻으라고 일렀다. 부모는 그 방법을 따랐다. 예로부터 "쌍둥이 중 한 아이가 먼저 가면, 남은 아이도 데려간다."는 말이 있다. 쌍둥이는 한 탯줄에서 생겨났기에 운명도 같다고 믿었다. 그래서 한 아이가 잘못되면, 남은 아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이처럼 뱅이를 한 것이다.

그는 오래전에 외할머니로부터 죽다 살아난 사람의 일화를 들었다. 외할머니는 이곳

저곳 바구니를 팔러 다녔다. 이웃 마을에 친구가 살아서 그 집을 자주 찾아갔다. 그날도 우연히 친구 집에 들렀는데, 그 남편이 사망한 뒤였다. 외할머니는 물건을 팔러 다니던 터여서 상갓집에 오래 있지 못했다. 이웃 마을에 들러서 볼일을 보고, 저녁이 되어서 다시 초상집을 찾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죽었던 이가 되살아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친구는 남편이 갑자기 눈을 떴다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남편은 저승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딘가에 저승사자들이 모여 있고,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대왕이 사자들을 질책하고 있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 데려오라는 망자는 안 데려오고, 애먼 이를 데려왔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데려오라는 사람은 이웃 마을에 사는 사람이고, 잘못 데려온 사람은 자신이었다. 한참 질책이 끝나자 한 사자가 다가와서 냇가에 저릅대[겨릅대의 방언-껍질을 벗긴 삼의 줄기] 하나를 놓고 그 위로 건너가라고 일렀다. 그는 사자가 시키는 대로 대 위로 올라섰고, 그 순간 대가 부러졌다. 마치 잠에서 깨어나듯 대가 부러지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더욱 놀라운 일은 꿈에서 대왕이 데려오라던 이웃 마을의 모 씨가 그날 밤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 **이화용**(1938년생) 서산시 운산면 와우리 |



꿈에 만난 가족들

이화용의 고향은 와우리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6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고, 어려서 맏형이 큰집으로 양자로 보내져 실제로는 장남이나 마찬가지였다. 본래 1938년생인데, 3년(1941년)이나 늦게 호적을 올렸다. 마을에 홍역이 돌면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던 시절이었다. 아이가 온전히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부모들은 적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기다렸다가 호적 신고를 했다. 원평초등학교에 입학 해 3년을 다니다 6·25전쟁이 벌어져 학교를 온전히 졸업하지 못했다. 다행히 부친이 서당을 운영하고 있어 어려

서부터 한학을 배웠다. 형님이 큰집으로 양자를 간 후 부친과 함께 대가족 생계를 책임졌다. 24세에 혼인하였고, 부인으로 당진군 정미면 덕마리 사람을 만났다. 그는 부인과 함께 평생 부모를 봉양했다. 모친은 향년 80세, 부친은 향년 91세에 별세하셨다.

이화용의 부인은 3살에 친정아버지를 여의었다. 훗날 어른들께 들으니 아버지가 염병(돌림병, 장질부사)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다. 당시 동네에 염병이 퍼졌다. 이웃에서도 아이가 앓다가 죽었는데, 그 시신을 아버지가 함께 운구하여 그 집에 다녀오신 뒤로 사흘을 앓다 결국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길을 그리워하며 어린시절을 보내다 시집을 가서 시부모에게 귀여움을 받고 살고 싶다는 꿈을 꾸었다. 23세에 혼인하여 시댁에 왔더니, 누구보다 따뜻한 시부모가 계셨다. 시어머니도 성품이 고우셨고,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더욱 살뜰히 아껴주셨다.

시어머니가 향년 80세에 돌아가셨을 때 고연방에 백일 동안 정성껏 상식을 올렸다. 그러면서 한편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잘 챙겨드리는 게 진짜 효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생전에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돌아가신 뒤에는 간단히 49제만 지내기로 했다.

시간이 지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저녁을 드시고 자리에 누우셨는데 그 길로 세상을 떠나셨다. 생각지도 못하게 급작스런 상황에 마음의 준비조차 할 수 없었다. 장례를 정성껏 모시고, 49일간 상식을 올렸다. 마지막 제사를 모시던 날 정리를 마치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그녀의 꿈속에 시어른들이 나오셨다. 두 분이 흰옷을 깨끗이 차려입으셨다. 시아버지가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안방에서 나오시며, “애미야, 나는 니 (시)어머니하고 먼 데로 여행간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두 분이 대문 밖으로 나가셨다. 꿈을 꾼 뒤에 못내 서운한 마음이 들어 백일을 꼭 채워서 상식을 올렸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5일장을 치렀다. 이웃 마을에 사는 지관(김영삼 옹)에게 물으니, 어머니와 합장을 하려면 발인 날짜를 뒤로 미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합장하려면 망인이 돌아가신 시운도 살펴야 하고, 먼저 고인이 된 분의 운도 살펴야 한다. 가릴 것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5일장을 지내게 되었다.

발인일에 먼저 가신 어머니 묘소에 아버님을 합장했다. 예로부터 남좌여우(男左女右)라고 하여, 아버님의 우(右) 편에 어머님을 모셨다. 봉분 한쪽을 허물고, 먼저 가신 분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조심스럽게 땅을 파 내려갔다. 이처럼 합장을 한 뒤에 내외분이 소통하실 수 있도록 중간에 작은 구멍을 냈다.

예전에 초상이 나면 방문객들은 음식을 가져왔는데 친한 이웃에서는 팥죽 한 동이를 쑤어다 준다. 팥죽은 찬이 없어도 한 끼니 든든한 양식이 된다. 부모상을 당하여 식음을 전폐한 상주들의 입맛을 돋우기에도 적합하다. 이웃에서 보내온 팥죽은 염습 전에 모두 먹어야 한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염습이 끝난 뒤에는 팥죽을 조문객 상에 내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부녀자들은 방에 모여서 수의와 상복을 짓는다. 집안에 어른이 계시면 윤색(윤달)이 드는 해에 미리 수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화용의 모친은 바느질 솜씨가 좋으셨다. 초상이 나서 수의를 꿰맨다고 하면 제일 먼저 가서 일을 거드셨다. 모인 사람 중에서 솜씨가 제일 좋은 이가 마름질을 해서 주면, 나머지 사람들이 꿰맸다. 수의는 물론이고, 이를 꿰매는 실도 나일론이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나일론이 조금이라고 섞여 있으면 썩지 않아서 고인께 해롭다. 수의를 꿰맬 때는 실 끝을 꼭 묶지 않는다. 이를 "옹치지 않는다."라고 표현한다. 끝을 꼭 묶으면 망자의 저승길이 편치 않아서 반드시 풀러 달라고 꿈에 보인다는 말이 있다. 또한 일상복을 꿰맬 때처럼 박음질은 하지 않는다. 바느질의 방향이 앞으로만 가야지 뒤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수의를 꿰맸던 바늘은 잘 보관해 둔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티눈이 박힌 곳이 있으면 이 바늘을 쓰면 효험이 있다고 한다.

오래전에 큰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들 가족들이 모두 초상집에 다녀왔다. 어머니도 함께 갔다 집에 와서는 그날부터 이유 없이 앓아누우셨다.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 단골무당을 찾아가 물었더니 상문 부정이 들었다고 일러주었다. 부정을 풀기 위해서는 날을 잡아서 경을 읽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결국 무당을 불러 하루 저녁 부정을 풀었다. 다른 제물보다 떡 한 시루만 정성껏 쪄놓으라고 하여 무당이 일러주는 대로 따랐다. 그날 저녁 무당이 경을 한 석 외고 상문 부정을 풀었다. 신기하게도 어머니는 이튿

날부터 기력을 찾으셨다.

한편, 양자로 간 형님이 어느 해 여름, 친구들과 저수지에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 음력 6월 20일이 제삿날이다. 돌아가신 뒤에 무당을 불러서 저수지에서 넋을 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부인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주버님이 물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었다. 꿈이 심상치 않아 큰댁에 일렀고, 그 뒤에 날을 잡고 무당을 들여서 길을 닦아 드렸다. 망인을 위해서 깨끗하게 옷 한 벌을 마련하여 상 밑에 두었다가 마지막에 태웠다. 이처럼 길을 닦아 드린 뒤에는 망인이 꿈에 보이지 않았다.

부잣집에서는 초상이 나면 발인 전날 상두꾼들을 불러서 술과 안주를 푸짐하게 대접한다. 상두꾼들은 바깥마당에 상여를 꾸며 놓고 한참 술판을 벌인다. 해가 지면 상두꾼들은 빈 상여를 메고 마을을 한 바퀴 돈다. 실제로 발인할 때처럼 요령잡이가 앞에서 구성지게 소리를 메기면 상두꾼들이 뒤에서 “어허이 어하!” 하고 받는다. 상주들도 상여 뒤를 따른다. 이처럼 발인 전날 저녁에 빈 상여를 메고 온 동네를 도는 풍습을 ‘상여 울리기’라고 한다.

| **최정식**(1941년생)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



상엿소리를 잘하는 사람

최정식은 어려서부터 집안 형편이 무척 가난했다. 겨울철이면 부친이 대산면 왕산 포구에서 굴을 해서 원평리에 팔았다. 모친은 옷감 짜는 솜씨가 좋아 쉬지 않고 무명·베를 짜 식구들 옷을 지어 입히고 팔기도 했다. 부부가 건실하게 돈을 모아서 작은 집을 한 채 마련했다. 그렇게 7남매를 키웠다.

집을 장만하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염병(장질부사)에 걸리셨다. 당시 전염병에 동네 사람들 9명이 목숨을 잃었다. 어머니는 섣달 초사흘에 결국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

니가 별세하시기 며칠 전에 이웃에서 초상이 났고 그 집에서 아침 일찍 인절미를 가져왔다. 어머니는 이날 외출할 정도로 차도를 보이며 며칠 전에 사둔 장독을 깨끗이 닦아두셨다. 그리고 그 인절미를 드셨는데 그게 화근이었다. 인절미가 내내 목에 걸린다고 하시더니 이튿날 끝내 눈을 감으셨다.

다른 때 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눈이 많이 왔다. 염병을 앓던 것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선뜻 문상을 오는 이가 없었다. 그런데 아버지 후배가 형수님이 병으로 가셨는데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며 손수 염을 해주었다. 그는 어린 마음에 그분의 마음이 너무나 고마웠다. 그분이 대단해 보였고, 앞으로 염하는 방법을 배워 이웃에 베풀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당시 염병으로 사망한 이들은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장지를 미리 봐두고 언 땅을 불을 지펴서 녹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땅을 팔 수 없었다. 혹여 병이 옮을 것을 두려워하여 식구들만 조촐히 장례를 치렀다. 발인하는 날도 눈이 많이 내렸다.

그는 28세에 25세 부인을 맞아 혼인하고 첫아들을 낳았다. 슬하에 2남 3녀를 두었고, 30대에 대가족 살림을 책임지려고 서울과 서산을 오가면서 목수 생활을 시작했다. 장장 27년간을 공사 현장에서 뛰어다녔다.

환갑을 맞고 2년 뒤에 막내딸을 시집보냈다. 그러자마자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니 간암이었다. 청천벽력 같은 비보였다. 투병 생활이 시작되었고, 6차례의 수술을 이겨내야 했다. 투병 생활 중 동갑내들이 농사를 짓고 일하는 모습을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노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어려서부터 노래에 소질이 있었으므로 우선 민요를 배워보기로 했다. 서산 시내에는 민요 강사들이 제법 많았다. 그렇게 이정예(여, 68세)와 인연이 닿았다. 이정예는 민요도 잘 가르쳐 주지만, 강습을 받으러 갈 때마다 무엇이고 음과 양으로 정성껏 챙겨주었다. 따뜻한 성품의 선생을 만난 것이 복이었다.

민요에 빠져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암도 이겨냈다. 음악은 환자라는 생각을 잊게 했다. 다행히 청도 좋은 편이어서 전국 민요 경창 대회에 나가서 수상도 여러 차례 했다. 민요

를 시작하고 좋은 선생과 동료들을 만나면서 새 인생을 살게 된 셈이다.

마을에서 초상이 날 때마다 어른들께 염습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시신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고인을 뵐 때마다 한 번도 무서움을 느껴본 일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자 어느 집이고 초상이 나면 으레 그를 불렀다. 어떤 때는 새벽에 부고를 듣고 나가는 일도 있었다. 가서 보면 자손들이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몰라 헤매는 게 보였다. 그럴 때면 조용히 칠성판과 천을 준비하라고 이르고 수세(收屍)를 걷어주었다.

이처럼 초상집의 염습을 도맡은 지도 40년이 다 되어간다. 환갑 직후에 몹쓸 병(간암)에 걸렸지만, 이를 완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망자들의 도움 때문인 것만 같았다. 수많은 친지·이웃의 마지막을 정성껏 보내드린 것이 그에게 복으로 돌아온 것이다.

행상시에는 요령잡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구성진 상엿소리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야 한다. 상엿소리는 특별히 가사가 없다. 요령잡이가 가사를 창작하여 소리를 메기면, 상여꾼들이 일제히 "오호~ 오호~" 하고 소리를 받는다.

망인의 생애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요령잡이를 맡는다. 상두꾼을 비롯하여, 요령잡이도 행상에 앞서 술을 한 잔씩 마신다. 그래야 소리도 잘 나오고 상여를 멨을 때 덜 힘들다. 망인이 일평생 선행을 베풀고 이웃을 따뜻하게 맞았으면, 그에 맞는 가사를 창작하여 상엿소리를 한다.

상엿소리가 가장 안 나올 때는 친한 친구(지인)를 보낼 때이다. 몇 해 전에 친구 장례를 치렀는데 당시 친구 생각에 목이 메서 소리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자꾸 울음이 복받쳐 소리를 할 수가 없었다. 친구를 보낸 뒤로 아무래도 상엿소리에도 특정한 가사가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여러 차례 연습한 끝에 원래 상엿소리 곡조에 새 가사를 지어 붙였다.

| **문완주**(1949년생) 서산시 팔봉면 어송리 |



좋은 땅의 운명

문완주는 가난한 집안의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서 어린 나이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하고, 중학교에 갈 형편이 못 되었는데 부친은 장남을 공부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서당에 보냈다. 다행히 훌륭한 스승인 송곡 신기신을 만나 어송2리에 있던 서당에 다니며 한학을 배웠다. 당시 수업료로 봄철이면 보리 한 말, 가을철이면 벼 한 말을 냈다. 그것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내지 못했다.

신기신은 한학은 기본이고, 오행학·한의학·풍수지리학 등에 대단히 밝은 분이어서 다

양한 학문을 가르쳤다. 신기신이 10여 년 전 작고하기 전까지 그는 선생과 함께 팔봉산, 백화산 일대 길지(吉地)를 직접 찾아다녔다. 이처럼 좋은 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것을 '답산(踏山)'이라고 한다. 여러 곳을 답산하며 풍수지리학이 결코 허사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유명한 지사들이 써놓은 각종의 풍수서들을 다시 보면서 각각의 풍수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현재도 끊임없이 연구 중이다.

1971년 22세가 되던 해에 혼인하여, 슬하에 5자녀를 두었다. 20대에는 농사도 짓고, 품도 팔아 돈을 모으다 30대 초엽에 채소 도매업을 시작했다. 근동에서 생산된 채소를 서울 용산 시장에 팔았다. 처음에는 잘 되는 듯싶었는데,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채소 값이 오를 것을 염두에 두고 빚을 지면서까지 대량으로 구매했더니 채소 값이 폭락했다. 빚까지 진 상태여서 빚쟁이들이 몰려왔다. 당장 집에 있을 수가 없어 서울로 피신하다시피 올라갔다. 서울에서 방황하다 우연히 '선데이서울' 잡지에 실린 운명 철학을 하는 유명한 선생들의 이름을 보고, 직접 찾아가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잡지에 이해월 선생이 을지로 3가 명보여관 5층에 기거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었다. 지면 광고를 보고 무작정 을지로 3가로 향했다. 이해월 선생을 뵙고 사주를 봐달라고 했다. 이 선생은 가만히 사주를 보더니, 애초에 장사할 사주가 아니니 공부를 시작하라고 했다. 기왕에 구학문을 배웠으니 풍수지리·한의학·오행학 등을 하면 언젠가 이름이 널리 알려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름이 나는 것은 돈을 버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였고, 재물에 욕심을 내면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당시 이해월과의 만남이 계기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풍수지리학 등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 성실히 일하여 빚을 청산하고, 신기신에게 풍수지리를 배웠다. 풍수지리상 길지(吉地)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묏자리 중에서도 길한 자리가 있고 흉한 자리가 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그곳에 묻힐 고인이 덕이 없으면 발복(發福)이 어렵다. 평생 좋은 일을 많이 하여 덕을 쌓은 사람만이 길지에 묻혔을 때 발복이 된다. 만약 죄인이 명당에 묻혔다면 하늘이 노하여 뇌성벽력을 내려 그 자리를 파괴한다. 일례로 한서대학교 뒤편 신성동에 명당자리로 알려진 곳이 있었다. 이곳에

유 씨들이 함부로 묏자리를 썼다가 벼락을 맞았다.

풍수지리상 명당(明堂)은 매우 드물고, 찾기도 쉽지 않다. 명당은 하늘이 내는 것이다. 악인이 명당을 차지하려고 하면 그 자리는 반드시 하늘이 감춘다. 평생 덕을 베푼 사람만이 명당을 차지할 수 있고, 그 후손에게도 복이 미친다. 예로부터 조상의 덕을 '음덕'이라고 하고, 음덕을 입은 후손들도 덕을 베풀어야만 대대손손 편안하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조선의 전통을 말살시키려고 풍수지리상 길지마다 혈(穴)을 찾아서 끊어 놓았다. 반드시 이어져야 할 곳에는 일부러 도로를 내고, 산정에는 쇠말뚝을 박았다. 서산에도 일본인들이 혈을 끊은 곳이 곳곳에 있다. 서산과 태안 사이의 차리 고개에는 길을 내고, 고갯마루에 쇠말뚝을 박았다. 독립운동가가 탄생한 묏자리에도 쇠말뚝을 박았다. 팔봉산, 부석산과 같이 서산에서 유명한 산마다 정상에 쇠말뚝을 박아 산의 정기를 끊어 놓았다. 일본인들이 길지에 악랄하게 도로를 내고 쇠말뚝을 박은 이유는 조선에서 더 이상 유명한 인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국운이 쇠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선의 풍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을 정도였다.

제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지관이어도 망인에게 딱 맞는 묏자리를 잡아줄 수 없다. 아무리 길한 자리여도 망인과 맞지 않을 수 있고, 망인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명당을 잡았어도 발복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관이 묏자리를 정해줄 때는 추길피흉법에 기초하여 신중히 잡는다. 곧 길한 것은 쫓고, 흉한 것은 최대한 피하는 방법이다. 발인일을 정할 때도 망인의 운을 고려하여 흉한 것을 우선 피한다. 발인일을 정할 때 우선 중일·복일·중상일(중복일)을 가린다. 여기서 중은 거듭 중(重)을 말한다. 길사는 더욱 길하고, 흉사는 더욱 흉하다. 따라서 이날 혼인을 하면 복이 있지만, 초상이 나서 발인하게 되면 집안에 화가 미친다.

오래전에 중상일을 피하지 않아서 화를 당한 이가 있었다. 지인의 당숙모가 작고하셔서 발인 날짜를 정하는데, 서울에서 유명한 풍수지리 교수가 내려와서 날짜를 잡아주었다. 그런데 그 날짜가 아무래도 이상하여 지인이 찾아왔었다. 그가 날을 가려보니, 불행히도 중상이 닿는 것으로 나왔다. 그 사실을 지인에게 알렸지만 상주들이 장례를 그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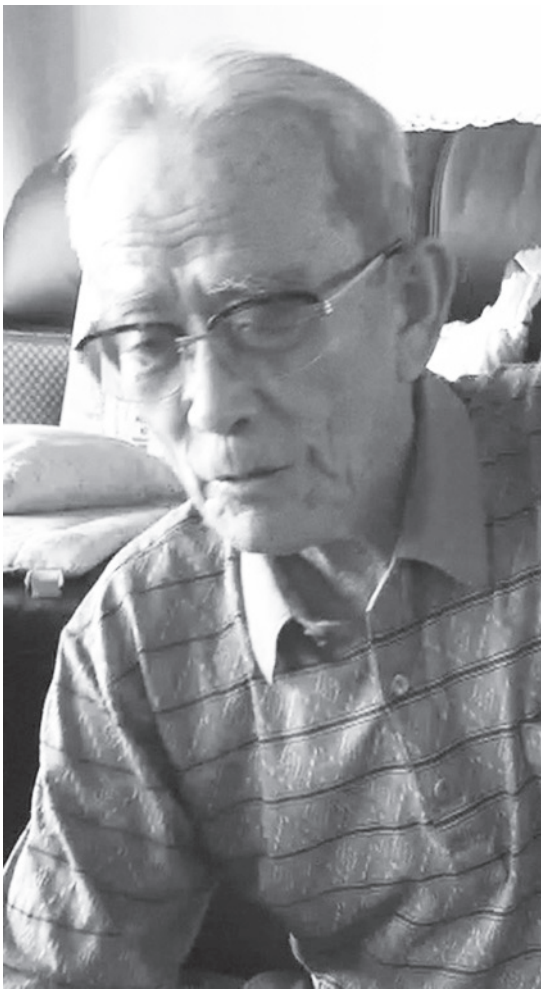
짜에 치르기로 이미 결정한 뒤였다. 정한 날짜에 발인은 잘 마쳤으나, 삼우제를 모시는 날 상주가 급작스럽게 목숨을 잃고 말았다. 친구들에게 답례로 식사 대접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난 것이었다.

안방에서 마당으로 운구할 때나 하관할 때 주당이 닿는 사람들은 자리를 피해 있어야 한다. 주당이 닿으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이를 호충(또는 호충살)이라고도 한다. 혼례를 치를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당이 닿는다. 신랑·신부가 초례청에 들어설 때나 신부가 시가에 들어갈 때 주당이 닿는 사람들은 자리를 피한다. 지관은 미리 살이 닿는 이들의 띠를 일러준다.

오래전에 지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찾아간 일이 있었다. 분명히 지인에게도 살이 닿으니 뒤돌아 있으라고 일러주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하관을 지켜보았다. 하관하자마자 지인이 광중 안으로 쓰러졌다. 서둘러 병원으로 데려갔으나 뇌진탕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 뒤로 장지에 갈 때마다 살을 피해야 할 사람들을 힘주어 알려준다.

| **박주현**(1934년생) 서산시 동문동 |

지곡면의 상장례



박주현의 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었고 한학에도 조예가 깊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풍수지리, 사주보는 법 등을 배웠고, 지가서(地家書)를 물려받았다. 선친은 풍수지리를 잘 볼 줄 안다고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지만, 여간해서 다른 사람들의 묏자리나 집터를 봐 주지 않았다.

집안에 늦둥이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제종형의 글방 수영당에서 한문을 공부하다가 중학교에 들어갔다. 그는 중학교를 다닐 무렵 환갑을 넘기신 아버지가 농사일에 애쓰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집안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이후 주경야독(晝耕夜讀)하며 모든 일에 열심히 매진하였다.

국상(國喪)은 인간이 맞이하는 가

장 이상적인 죽음의 형태이다. 국상이 되려면 우선 망자가 수(壽)를 다하고, 정침(正寢)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살아온 삶이 온전하게 편안해야 한다. 특히 생전에 못 볼 일을 보지 않아야 한다. 자신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죽는다는 것이 행복한 일은 아니지만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는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상이다. 반면에 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등 젊은 사람이 죽게 되면 횡사(橫死)이자 악상(惡喪)이다. 하지만 젊어서 죽었다고 해서 모두 횡사이고 악상은 아니다. 태어날 때 타고난 명이 짧아 자연스레 앓다가 예견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것은 요사(夭死)이다.

그의 아버지는 1963년에 7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그때 마을 사람들로부터 "수(壽)를 다했네."라는 말을 들었다. 장수(長壽)를 했다는 것이다. 그의 제종형은 83세에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은 돌아가신 제종형을 두고 "반신선수(半神仙壽)를 했다."고 했다. 신선이 사는 것의 반만큼은 살았다는 의미로, 그만큼 오래 살았다는 뜻이다.

노인들은 자신의 죽음을 느끼기 시작하면 정신이 맑을 때 유언을 한다. 대개 자식들에 대한 애정을 이야기한다. 다투지 말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고 당부한다. 그리고 가장 측은한 마음이 드는 자식을 걱정한다. 부모는 아직 시집·장가를 못 보낸 자식이 있으면 그 아이에 대한 측은한 마음이 배가 된다.

그는 10남매 중 여덟째이다. 누나가 7명이고, 여동생과 남동생이 각각 1명이 있다. 그런데 그의 남동생이자 집안의 막내는 군 제대를 3개월 앞두고 죽었다. 당시 남동생은 부대 임무를 마치고 여인숙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 동생의 죽음은 석연치 않았다.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었다. 정신없이 동생의 장례를 치르고 몇 해 지난 후 아버지의 장례 날짜를 따져 보니 상주들에게 주당이 닿아 있었다. 그는 아버지 장례 다음 해에 어머니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다음 해에 군에 있던 동생이 죽었다. 끝이 아니었다. 한 해가 지나서는 매부가 죽었다. 그는 상문주당이 동생을 그렇게 앞세우게 한 것만 같은 죄책감이 들었다.

집안에 노인이 있으면 자식들은 미리 부모의 죽음을 대비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의

(壽衣)를 준비하는 일이다. 수의를 팔러 다니는 장사꾼들이 있어 구입을 해 놓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자식이 정성을 다할 것 같으면, 직접 베를 짜서 수의를 만든다. 반드시 윤달에 수의를 장만한다. 기성품을 구입할 때도 윤달에 한다. 윤달은 아무것도 꺼리지 않아도 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안방이다. 집안 어른이 곧 돌아가실 것 같으면 우선 안방으로 모신다. 이를 정침(正寢)이라 한다. 자식들은 부모가 내쉬는 숨을 숨죽여 지켜본다. 마지막 숨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종신'이라고 하며, 종신을 한 자식을 '종신자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종신자식은 종신을 자신의 팔자에 타고난다. 자신이 종신할 수 없는 팔자로 태어났으면, 정침에 든 부모 옆을 몇 시간씩 지키고 있다가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모는 죽음을 맞이한다.

발인을 하면 관을 상여에 올리고 장지로 향한다. 상여 앞에 용여[요여(腰輿)]를 든 사람들이 먼저 길을 나선다. 그 뒤를 상여꾼들이 상여를 메고 따라간다. 이어 명정(銘旌)과 만장(挽章)을 든 사람들이 따른다. 상주와 복친들이 그 뒤를 따라 나선다. 용여[요여(腰輿)]는 망자의 혼백을 모시고 가는 가마이다. 지금은 사진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혼백을 쓰지 않고, 용여[요여(腰輿)]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다. 만장(挽章)은 망자를 위로하기 위한 한시를 종이나 천에 써서 긴 장대에 매단 것이다. 만장의 글은 아무나 지을 수 있지만, 한시를 지을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 아무나 지을 수 없다. 박주현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종형이 한시를 지어 주어 만장을 만들 수 있었다. 상여 행렬에는 만장과 함께 명정(銘旌)이 나간다. 명정과 만장은 그 크기가 같고, 색이 다르다. 명정은 빨간색을, 만장은 흰색을 사용한다. 주로 인조천 같은 것을 사용하는데, 만장은 종이에 쓰기도 한다. 만장은 죽은 사람을 밝히는 것으로 망자의 벼슬과 성씨를 쓴다. 예를 들어 월성박씨의 만장에는 '학생월성박공지구(學生月城朴公之柩)'라고 쓴다. 망자의 성별에 따라 남자는 '학생(學生)', 여자는 '유인(孺人)'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여자는 '공(公)' 대신 '씨(氏)'를 쓴다.

명정, 만장과 유사한 공포(功布)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긴 장대에 베를 걸어 둔 것이다.

박주현 씨의 기억에 따르면 공포는 상여 행렬에 따라가지 않는다. 이것은 일꾼들이 가지고 있다가 관을 하관한 후에 덮는 용도로 사용한다.

예전에는 초상을 치를 때 상가의 사정에 따라 3일, 5일, 7일장을 하였다. 4일장은 상례의 원칙에서는 어긋난다. 하지만 상가(喪家)의 사정으로 인하여 더러 행해지기도 하였다. 박주현의 아버지도 4일장을 했다.

장택일(葬擇日)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6자가 들어간 날을 피한다. 음력으로 6일, 16일, 26을 가리는 것이다. 다음 신일(辛日)을 가린다. 중복중상일(重服重喪日)은 장례를 치를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한다. 이날 초상을 치르게 되면 집안에 사람이 거듭거듭 죽어 나가는 수가 있다. 정말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복중상일에 초상을 치러야 하면 반드시 황도시(黃道時)에 하관을 한다. 황도시에는 살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다.

| **김영상**(1937년생) **조정옥**(1937년생) 서산시 운산면 원평리 |





운산면의 상장례

김영상은 운산면 신창리 사람이다. 부친은 당진에서 태어나 조부모와 함께 서산 운산면 가좌리로 터전을 옮겼고 신창리로 다시 이사를 했다. 해방 직전 둘째 아들을 징용으로 보내야 했던 할머니는 큰아들인 그의 아버지마저 징용에 끌려갈까 노심초사하였다. 결국 아버지를 데리고 피난하듯 원평리로 도망을 쳤다.

김영상은 신창리에 살 때 잠깐 해미초등학교에 다녔다. 원평리로 이사를 오고 난 다음에는 학교 대신 글방에 다니며 한문을 배웠다.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부모가 자식을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글방에 보내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원평리 집에서

40리 길, 고덕 호음리 재호지(在湖地)에 있는 글방으로 한문을 배우러 다녔다. 재호지는 작은 못이 있어 붙은 지명이다. 호음리에는 징용에서 돌아온 작은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글방에서는 명심보감(明心寶鑑)을 시작으로 소학(小學), 맹자(孟子), 공자(公子)를 차례차례 공부하였다. 학장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열심히 배웠고, 학채는 형편 되는대로 냈다. 돈이 있으면 내고 쌀로 내기도 했다. 잘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못사는 사람은 적게 내던 시절이었다. 그가 글방에 4년을 다니고 나니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원평리 집으로 돌아왔고 18살 경 원평리에 스스로 글방을 만들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또래 청년들과 함께 한문을 공부하며 책을 읽었다.

그의 부인 조정옥은 태안군 원북면 대기리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집은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이 잘 사는 편이었다. 그의 고모부는 원북면장이어서 조정옥의 아버지와는 막역한 사이였다. 원북면장의 중매로 혼인을 했다.

그의 집안에 『인자수지(人子須知)』라는 지가서(地家書) 필사본이 전해 내려온다. 그는 일평생 이 책을 즐겨 보고 있으며, 이 책을 통해 묏자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다. 『인자수지(人子須知)』는 명나라 초기 서선계, 서선술 형제가 쓴 책이다. 형제가 50여 년간 강천을 떠돌며 직접 보고 공부하여 쓴 지가서로 산소 자리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이 그림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책에 소개되고 있는 명당으로 '구자십장수'라는 자리가 있다. 명당자리는 우선 산세가 좋아야 한다. 구자십장수는 구봉정수(九峯呈秀)의 산세인 곳에 있다. 아홉 개의 봉우리 중 가장 높은 봉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일직선상에 있는 맞은편이 바로 명당이다. 이 명당은 정승을 낳게 하는 자리이다. 이곳에 바른 날짜에 주당이 닿는 이 없이 산소를 쓰면 그 집안에는 정승이 열 명이 나올 수 있다. 그는 서산에는 팔봉산이 있어, 서산 땅에도 분명 구자십장수의 명당자리가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그가 처음 지관(地官) 일을 하게 된 것은 47살 때였다. 누가 자리를 봐 달라고 부탁하면서 시작되었다. 지관은 우선 산세와 땅의 모양을 보고 좋은 산소 자리를 정한다. 그리고 시신 묻을 자리를 반듯하게 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산소 자리가 좋다고 하여 무턱대고 시신을 묻으면 그 자리는 명당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이 서쪽에서 내려오

고 있으면 시신은 동향으로 놔야 한다. 반대로 산이 동쪽에서 내려오는 형국이면 시신을 서향으로 놓는다. 이는 산의 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시신이 이어가는 것이다. 이를 잘못하게 되면 산줄기가 끊기고 묏자리는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자취가 나타난다. 공자가 죽던 날에는 대들보가 무너졌다고 했다. 평범한 사람들도 죽음이 임박하면 주변에서 느닷없이 '쾅!'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 소리만 들릴 때도 있고, 물건이 떨어지는 등 어떤 현상이 나타날 때도 있다. 서산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지덕'이라고 말한다. 집에 있는 귀신이 자취를 남기는 것인데, 사람이 죽으려 할 때도 지덕 같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사람이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것이 정침(正寢)이다. 이때 머리 방향을 동쪽에 둔다. 사사여사생(事死如事生) 사생여사사(事生如事死)라 하여, 죽은 사람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게 하라는 것이다. 사람은 어디서고 잠자리에 들 때에는 동쪽에 머리를 두는 것이 좋다. 정침에서 돌아가신 분은 장례를 치를 때까지 시신을 안방에 모신다. 그리고 장지에 시신을 묻고 혼백을 모셔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안방에 고연을 모신다.

북쪽의 일곱 별 칠성은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남쪽의 여섯 별 남두육성은 살생을 담당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칠성판을 놓고, 그 위에 시신을 올리고 수세를 걷는다. 수세를 걷기 위해서는 숨이 끊어진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망자의 코 밑에 솜이나 풀씨엄을 놓고 그것이 움직이는지를 살핀다. 풀씨엄은 누에에서 나오는 가는 실이다. 솜이나 풀씨엄은 아주 미세한 바람에도 움직이기 때문에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숨이 끊어진 것이 확인되면, 수세를 걷기 시작한다. 수세는 시신의 체온이 떨어져 굳어 버리기 전에 망자의 몸을 반듯하게 펴는 일이다. 제때 수세를 걷지 못하면 시신을 펴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 하는 곤란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40~50년 전 원평리에서 젊은 여자가 죽었는데, 그녀는 집에 혼자 있다가 죽었다. 벽에 기대어 앉은 채로 죽었는데, 죽은 지 한참 지난 뒤에야 발견되었다. 이미 시신이 굳어 버려, 수세를 걷지 못한 채 그대로 묶어서 장례를 치러야 했다.

서산에 살던 지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루는 글방에 가려고 마을 고개를 넘어 가

는데,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해 여의주를 가지고 놀면서 지영이를 놀렸다. 어느 날 변신한 여우를 힐끔 쳐다봤는데 구슬을 땅에 흘렸다. 지영이는 얼른 그것을 주워서 삼켜 버렸다. 그러자 사람으로 변신했던 여우가 다시 제 모습이 되어 그녀의 얼굴을 사정없이 할퀴고는 사라졌다. 그 후 그녀는 이상하게도 땅 속까지 눈에 훤히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개골이라는 곳을 넘어가다 소로 변해 버린 후 그만 죽어 버렸다. 그 전에 땅 속을 훤히 보던 지영이가 남겨 놓은 비결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신경용우정미범즉망외손당(申庚龍后丁未犯卽亡外孫當)'이다. 이는 산세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 나온 산에 묘 자리를 정좌(丁坐)나 미좌(未坐)를 놓게 되면 사위는 잘 되고 친손자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이내윤**(1948년생) 서산시 운산면 와우리 |

와우리 사람들 이야기



와우리(臥牛里)는 소가 누워 있는 지형이다. 와우1리는 황소 형국이고, 와우2리는 암소 형국이다. 마을의 지세(地勢) 때문인지 옛날부터 와우1리 사람들의 근력이 세다. 와우1리에는 단군전이 있고, 전주최씨들이 많이 살고 있다.

와우2리로 들어오려면 운산에서 들어오는 방향과 덕산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하나씩 있다. 이곳에는 각각 암소고개와 눈고개가 있다. 두 곳 다 지세가 험해 옛날에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풍수지리상 눈고개는 황소의 목이고, 암소고개는 암소의 고개라 한다. 따라서 고개를 깎거나 자르면 안 된다. 옛날부터 마을 어른들은 이 고개를 건드리면 30년간 발복(發福)이 안 되고, 해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한창일 때 경운기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길을 넓히겠다고 암소 고개를 건드렸다. 이것을 주도한 것이 이내윤의 형이었다. 심지어 길을 넓히는 사업을 3번이나 강행하였다. 그 때문인지 정말 그 집안은 점차 가세가 기울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

이내윤은 운산면 와우리에서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서울에 살던 전주이씨 14대 조가 와우리로 낙향했고, 지금까지 대를 이어 와우리에 일가(一家)들이 살고 있다. 과거 와우2리는 전주이씨 집성촌이었다. 한창 가구가 많을 때는 50여 호가 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점차 도시로 나가고 노인이 되어 죽고 하여 지금은 22호가 남았다. 지금은 과거 집성촌도 기세도 다 사라지고 각성바지 마을이 되었다.

와우2리에는 골골이 마을 이름이 있었다. 아랫말, 잣나무골, 피아골, 웃말, 행자무골, 안터, 뒷굴, 섭실, 호박굴, 갓골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다. 이제 행자무골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던 안터도 5가구밖에 남지 않았다.

이내윤은 부모를 모두 전통방식의 상·장례로 모셨다. 아버지는 1973년경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노환으로 3년 정도를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때로 기운이 나면 앉아 정강이를 손으로 눌러 보셨다. 무릎에서부터 정강이를 따라 손가락으로 눌러 내려가기 시작했다. 손가락이 매끄럽게 뼈를 따라 내려가다가 막히는 지점이 생기면, 조금 더 아래를 가리키며 "야, 나 이게 여까지 가면 죽는다. 죽어." 라고 하셨다. 그의 어머니뿐 아니라 옛날에 죽음을 앞둔 어른들이 자주 하는 행동이었다.

종신 경험이 많은 사람은 죽으려는 사람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다. 우선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숨이 거칠어진다. 눈동자가 갑자기 흐릿해지다가 눈이 뒤집힌 것처럼 검은 눈동자가 사라지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용을 쓰기도 한다. 더러 숨을 거두기 직전 용을 쓸 때 피를 토하는 등 토사물이 나오기도 한다. 이것을 수세할 때 깨끗이 닦아 드린다.

죽는 것도 사람 팔자에 타고 나는 것이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더구나 요즘은 의료

가 발전해 가만두면 죽을 사람도 호흡기를 달아 3년이고 5년이고 더 살린다. 잘 죽는다는 것이 더욱 어려운 시절이 되었다. 가장 편안하고 좋은 죽음은 수를 다하고 죽기 전에 2~3일 정도만 앓다가 자손들이 다 같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직하는 것이다.

수세는 그처럼 이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 우선 칠성판을 준비한다. 시신을 반듯이 칠성판에 눕힌다. 구부러지거나 꺾인 곳은 반듯하게 편다. 이어 시신의 배 위로 양손을 가지런히 올려 양쪽 엄지손가락을 맞대어 묶는다. 다리도 반듯이 펴서 양쪽 엄지발가락을 맞춰서 묶는다. 이와 같이 시신을 반듯이 하였으면 묶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끈으로 당겨 팽팽하게 묶기도 한다.

수세를 걷어 시신을 모신 칠성판을 아랫목에 놓는다. 물론 이때 시신의 방향을 따져야 한다. 방으로 들어가는 문 쪽이 상(上)으로, 시신의 머리가 문 쪽을 향하게 두어야 한다. 칠성판을 모실 때는 방바닥과 칠성판 사이에 짚베개를 만들어 괸다. 칠성판이 바닥에 닿지 않고 뜰 수 있도록 칠성판 상·중·하에 짚베개를 하나씩 끼운다. 장례를 치르는 기간 동안 바닥의 뜨거운 기운이 시신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 놓는 방편으로, 시신의 부패를 늦추기 위한 현실적인 이유이다. 짚베게로 돋움까지 마치면 시신 위에 얇은 홑이불을 덮어 둔다. 수세를 걷는 동안 여자들은 사잣밥을 만든다. 쌀밥을 지어서 놓고 고무신을 놓는다. 망자에게 잘 먹고 가라는 의미이다.

집안에 돌아가실 만한 노인이 있으면 군색[윤달]이 드는 해, 군색 달에 동네 사람들을 청해 수의를 미리 만든다. 자식이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 같으면 당사자가 직접 동네 사람들을 모아 만들기도 한다. 초상이 났을 때 자식들이 당황하지 않고 좀 수월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다. 수의는 보통 4~5명이 하루면 만들 수 있다. 바느질을 할 줄 아는 노인들은 대개 수의도 만들 줄 안다. 그래서 노인이나 아주머니들에게 청해 수의를 만든다. 수의를 만드는 날에는 이를 청한 집에서 먹을 것들을 잘 대접하여 보답한다. 수의는 남자 것으로 바지, 적삼, 두루마기, 버선 등이 있다. 손과 발에 장갑처럼 끼우는 것이 있고, 얼굴을 덮는 것도 있다. 여자 것도 비슷하다. 수의를 다 만들면 하나씩 잘 접어 바람이 들지 않게 꼭 묶어 항아리에 보관한다. 수의는 농속에 넣지 않았는데,

좀먹기 쉽기 때문이다. 또 귀신이 꺼내가기 어렵게 하려고 항아리에 보관한다는 말도 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주들은 곧바로 죄인이 된다. 예전에는 상주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꽤 많았다. 반면 해야 하는 것들도 많았다. 염을 하기 전까지 남자들은 입고 있는 두루마기의 한쪽 팔을 뺀다. 그리고 부모의 시신을 모신 방 앞을 떠나지 않고, 죄인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여자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꾸미지 않는다. 염을 마치고 나면 상복인 굴건제복으로 갈아입는다. 상주는 상장(喪杖) 막대를 짚는데, 오동나무나 대나무로 만들어 사용했다.

| **유호진**(1949년생) 서산시 갈산동 |

동부시장 사람들의 상장례



유호진은 어려서 부모와 함께 인천에서 살았다. 선친의 고향은 서산시 음암면 상홍리였으나 인천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다. 평범한 어린시절을 보내던 중 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조부모와 작은아버지가 계신 서산 동문동으로 보내져, 줄곧 그곳에서 자랐다. 서산초등학교를 다니며 낮에는 학교를 가고, 하교 후에는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어물가게에서 일을 배우며 점차 점원이 되었다.

그는 현재 상포가게 겸 제수용품 가게 유대상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자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장례문화라는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각 지역마다 다르고, 또 집안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옳다고 고집하지 않는다. 더구나 지금은 시대가 변해 옛날 풍속의 장례문화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 어물전에서 일하던 청년들이 하나 둘 자기 가게를 차리기 시작하였다. 거북상회, 수현상회, 성덕상회, 대우상회, 대영상회 등의 어물가게가 새로 생겨났다.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방법으로 직접 손님을 찾아 시골 마을로 들어가 먼저 인간관계를 맺었다. 일종의 협약과 같은 것이었다. 어물가게의 젊은 사장들은 시골 어른들을 찾아가 상호 약속 하에 마을에 필요한 상여나, 엠프, 차양 등을 새로 장만해 주거나 수선해 주었다. 때론 마을 잔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릇들도 한가득 마을회관에 선물했다. 마을 사람들은 잔치, 회갑, 초상 등이 나면 물건을 대준 어물 가게를 이용했다.

그도 시골 마을에 상여나 앰프를 구입해 주고, 암묵적인 약속 하에 거래를 한 마을들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새 상여가 도착하는 날 마을 잔치를 벌인다. 상여소리를 잘하는 요령잡이가 나서서 상여꾼들을 모아 상여를 메게 한다. 시끌벅적하게 풍물도 치며 한바탕 놀이가 펼쳐진다. 어떤 마을에서는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을 상여에 태워 마을 한 바퀴를 돌기도 한다. 모두들 생전에 상여에 올라타면 장수한다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 주의를 기울이며 잠깐만 태운다.

1960년대 이전의 상여는 나무 장식이 복잡하고 꾸미기가 어려웠다. 봉(鳳)과 용(龍) 무늬 같은 나무 장식이 많았고, 이를 책책이 꽂아야 했다. 이외에 다른 장식들도 많았다. 옛날 어른들은 상여의 세부 명칭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지금은 그런 어른이 거의 돌아가셨다.

마을에서는 평상시 상여를 상엿집에 보관하였다. 상엿집은 대개 마을에서 떨어져 외진 곳에 위치했다. 상엿집이 통풍이 잘 되지 않고 습하면 곧바로 곰팡이가 슬고 썩어 부러진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책임지고 이를 관리할 사람을 정하여, '상여장모'라 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여는 점차 기성품으로 바뀌게 되었고, 조립이 간단해지고 가벼워졌다. 겉에는 종이꽃 장식이 많아졌고, 점차 '꽃상여'가 되었다. 그는 천안에서 꽃상여를

구입해서 마을에 전달해 주기도 하고 판매도 하였는데, 주 거래처는 대경상회였다. 꽃상여는 그 구성이 꽃반과 장강이다. 꽃반은 안에 관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밖을 꽃으로 장식하였다. 장강은 꽃반을 올려놓는 나무 장대를 말한다.

동네에 노환으로 병석에 계신 어른이 있으면 마을 사람들은 오가며 그 집에 들러 어른의 상태를 살폈다.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도 돌아가시려고 하면 일부러 집으로 모셔왔다. 부모를 객사(客死) 시키는 것은 불효를 저지르는 일이었다. 더불어 객사한 망자는 자신의 죽음에 원과 한을 가져 자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모두 꺼렸다.

마을에서 노인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수세[수시(收屍)]를 걷는다. 망자의 시신이 굳기 전에 반듯하게 펴 놓는 일이다. 집에서 초상을 치르던 때에는 수세를 잘 걷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수세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상이 나면 곧바로 어물가게 사장에게 연락하기도 하였다. 그는 상·장례의 전통문화가 장례식장에서의 현대식 장례로 바뀌어 가는 시기에 마을에 가서 수세를 걷고, 장례 절차를 봐 주는 일을 많이 했다.

수세를 걷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시성판에 올린 시신의 몸을 닦는 것이다. 그리고 시신을 반듯이 편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혀 드리고, 시신의 가슴과 허리를 시성판과 일자가 되게 놓는다. 그리고 시신의 양 손가락과 양 발가락을 각각 맞대어 묶는다. 수세는 염을 하기 전까지 가족들이 망자와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모셔 두는 것으로 방의 아랫목에 모신다. 수세를 걷으면 신체를 얇은 홑이불로 덮어 둔다.

수세를 걷는 일은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시간을 다투는 일이기에 마을에서 연락이 오면 서둘러 시상판을 들고 마을로 들어간다. 시상판과 칠성판은 장례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그 용도가 다르다. 시상판은 막 운명하신 분의 신체를 올리는 것이다. 칠성판은 이장을 위해 묘를 파고, 묘에서 나온 뼈를 추릴 때 사용한다. 땅 속에서 걷어낸 뼈를 형체를 맞춰 칠성판에 가지런히 올리면, 베로 칠성판과 뼈를 잘 감싸서 흩어지지 않도록 묶는다. 이를 '감포'라고 한다. 시상판에는 숨이 떨어진 신체를 올리고, 칠성판에는 살이 떨어진 뼈를 올리기 때문에 그 너비와 길이가 다르다.

옛날 어른들은 초상을 치르는 첫날 아궁이에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였다. 특히 고양이 같은 날쌔고 작은 동물이 들어가면 불길하다. 만약 아궁이로 짐승이 들어가면 안방에 모셔둔 시신이 벌떡 일어나 앉는다고 했다. 가족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는데, 이 자체가 상문살이 될 수 있다.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복을 입는다. 상복을 입는 것이다. 과거 복이라는 것은 아랫사람, 즉 자손이 입는 것이었다. 혹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 부모는 자식의 복을 입지 않았다. 상복은 이제 현대사회의 장례문화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상·장례문화가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부모의 복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게 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안타까워한다.

| **김익제**(1939년생) 서산시 석남동 |

김익제 법사가 겪은 상장례



김익제는 1939년 대천 보령 남곡리에서 1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호적상으로는 1942년생이다. 아버지는 그가 갓난아기일 때 징용을 갔다 해방 후 잠시 집에 돌아왔지만 다시 징병을 당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대로 소식이 끊겼다.

어머니는 소문난 영신이었다. 1950년대만 해도 신을 받아 무당이 된 여자들을 '영신' 또는 '신도자'라고 불렀다. 그의 어머니가 사는 동네가 탑동이어서, 어머니는 '탑이영신'이라 불리며 소문이 자자했다. 독경을 잘해서 여기저기 찾는 이들이 많았다.

아버지가 실종된 후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둔 채 재가하였고 그는 작은아버지 댁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살았다. 청룡초등학교 2학년을 다니던

때 6·25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끝난 뒤에 간신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진학은 못했다. 집은 가난했지만 작은아버지 내외는 그를 무척이나 아끼고 돌봐주었다. 그가 신풀이를 할 때에도 작은어머니는 정성껏 뒷바라지를 해 주셨다.

그는 28살이 되던 해에 신풀이를 하였다. 대천에서 유명했던 유희종 법사를 모시고, 보살 두 분이 함께 그의 신풀이를 해 주었다. 그 후 그는 대천에서 법사로 활동하다가 청주를 거쳐 서산에 정착했다. 그는 법사 유희종과 법사 김문겸에게 기본적인 경문과 설경 제작 방식을 배웠으며, 태안군 송암에 살았던 법사 한상학에게 기문축사(奇問逐邪)를 배웠다.

노환으로 시름시름 앓는 노인들은 마지막으로 치성을 드리고 싶어 한다. 해원경의 내용에 보면 죽은 망자가 염라대왕 앞에 도착했을 때, 염라대왕이 "너는 죽기 전에 경(經)을 읽고 왔느냐?"라고 묻는다. 그래서 읽고 왔으면 자식들에게 봉양을 잘 받았으니, 바른 생을 살았다 여겨 극락왕생할 수 있게 해 준다. 자식들은 늙은 부모가 독경을 하고 싶어 하면 법사를 불러 부모님이 원이나 없게 지성을 드려 달라고 청한다.

노인이 아픈 집으로 불려간 법사들은 환자지성으로 독경을 한다. 여느 독경과 마찬가지로 집안의 신령들에게 먼저 독경하는 사정을 고한다. 차례로 독경을 하고 나면, 성주대를 잡아 재가에서 궁금한 것들을 묻고, 환자의 재생여부를 확인한다. 그런데 만약 노인의 병세가 시급을 다투고 있다면 아예 첫 번째 조왕에서 조왕대를 잡는다. 성주대를 잡으려면 조왕을 거쳐, 당산, 성주로 가야 해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경을 시작하자마자 조왕에서 대를 잡아 환자의 생사 여부를 묻는다.

예전에는 마을마다 대잡이가 있었다. 독경을 할 때 사용되는 대는 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무구(巫具)이다. 사람들은 대도 법사가 잡고, 질문도 법사가 하면 서로 짜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더러 그런 일도 있었다. 그래서 짜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대를 잡을 수 있는 마을 사람이 있었다. 대잡이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신체험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했다. 법사는 병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해 독경을 하고 성주 앞에서 대잡이가 성주대를 잡는다. 법사가 환자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성주대의 머리 부분이 아랫목 쪽으로 향하면 그것은 환자가 죽을 것이라는 예고이다. 반대로 윗목 쪽으로 향하면 환자가 고생을 하게 되더라도 병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법사들은 성주대가 눕는 방향을 보고 독경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였다. 환자가 죽는다는 가리가 나오면 이를 재가에게 알리고 지성을 그만둔다. 괜히 지성드리고 환자가 죽게 되면 실력 없다는 소문이 나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집안에 사람이 죽으면 가장 먼저 사자상을 놓는다. 집 마당이나, 문 앞에 차린다. 사자는 망자를 데리고 가는 이다.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 황천사자, 벼락사자, 천둥사자 등 그 역할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한다. 그런데 사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셋이 함께 다닌다. 어떤 사자가 망자를 데리러 오는지 명확하진 않다. 경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망자를 데리러 오는 사자는 월직사자, 일직사자, 시직사자이다. 노인의 숨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면 망자의 적삼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와 '복, 복, 복'이라고 외치며 적삼을 지붕 위에 던진다. 이 적삼은 염을 할 때 지붕에서 내린다.

초상을 치르고 나면 수일 내로 초상으로 인한 부정을 걷어 내기 위해 법사를 불러 자리걷이를 하는 집이 있다. 뒤걷이라고도 한다. 대개는 초상 치르고 3일 안에 하는 것이 좋다. 자리걷이는 망자뿐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좋게 하려는 일이다. 망자를 데리고 간 사자들이 집안에 남아 있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지 않도록 집안을 깨끗이 하는 것이다. 법사 2명이 오전에 자리걷이를 시작하면 저녁에 끝낼 수 있다. 여느 독경과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며, 혹 망자가 병을 심하게 앓았거나 오래 앓았으면 별도로 팥죽을 끓여 부정을 걷어 내기도 하였다.

산은 모두 그 내력이 있다. 좋은 산소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산의 내력을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지관(地官)의 능력이다. 지관은 땅의 기운과 모양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음택과 양택을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음택은 묏자리이고, 양택은 집자리이다. 좋은 산은 용호해설이라 하여, 현무(玄武)·백호(白虎)·청룡(青龍)·주작(朱雀)이 잘 맞아야 한다. 용호해설이 잘 맞아 떨어지는 산은 삼합(三合)이 맞은 것이다. 산에 묏자리

를 쓸 때 좋은 장소를 찾는 것은 오합(五合)이 맞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다. 지금은 오합이 맞는 명당자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는 청주로 미친경을 하러 간 적이 있었다. 청주에 사는 여고생이 어느 날 갑자기 실성을 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옷을 벗고 동네를 돌아다녔다. 그 부모는 너무 놀란 나머지 청주에서 아는 법사를 찾아갔다. 청주 법사가 그를 청해 함께 여고생을 위한 미친경을 읽었다. 며칠간 독경을 하고 신장대를 잡기 위해 대잡이를 불렀다. 그 동네에 살던 면서기가 와서 대를 잡았다. 신장대가름[신장대잡이]을 하였는데, 여고생의 올케를 묻은 묏자리에서 탈이 생겼다는 가리[공수]가 나왔다. 독경을 모두 마치고 법사와 집안사람들은 여고생 올케의 산소에 갔다. 묏자리에는 물이 흥건하게 고여 있었다. 결국 이장을 하고 일을 마칠 수 있었다.

| **조부원**(1950년생) 태안군 소원면 법산리 |

망자를 편히 보내는 길



조부원은 1950년 태안군 소원면 법산리에서 2남 4녀 중 다섯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조복록은 그가 5살이 되던 해에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바로 아래 여동생은 유복녀로 태어났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아버지는 위장병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도 법사가 되기 전까지 여러 신병의 증세가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고통은 소화 기능이 떨어져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는 돌이 지나서부터 아프기 시작했다. 주변 사람 모두 그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간신히 연명했고, 어머니는 다 죽어가는 7살짜리 아들을 살리기 위해 경(經)을 읽었다. 이때 산신의 신명(神明)이 아이에게 내렸다는 공수를 들었다. 독경을 하고 난 뒤 아이의 병세는 차차

좋아졌다. 9살에는 학교도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그가 13살이 되던 해 신풀이를 하고 보살이 되면서 집안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다.

그는 허약한 몸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고, 15살 무렵 동네에 있던 서당을 2년간 다니며 한학을 배울 수 있었다. 이즈음 대잡이로 유명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는 1971년 국가 주도로 실시된 '4H 운동'을 하다가 입대하였다. 제대 직후 어려서부터 아프던 몸이 더 심해졌다. 그는 홀로 집 뒷산에 올라 산신기도를 시작하였다. 기도를 시작한 지 5일째 되는 날 그는 병경(病經)을 하는 집에 불려갔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경을 읽었고, 후에 법사가 되었다. 3년 후 천제(天祭)를 올리고, 어머니 법당을 물려받았다.

그는 망자의 길을 닦으려고 할 때 마포를 바닥에 깐다. 이때 흰색 필목을 먼저 깔고, 그 위에 노란색 마포를 깐다. 그가 망자를 저승으로 데리고 나갈 때 흰색 필목인 이승길을 밟고, 노란색 마포인 저승길을 갈라 몸으로 찢으며 나간다.

어떤 목적의 경을 읽든 대부분 사자풀이를 한다. 특히 병경이나 우환경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사자풀이가 들어간다. 사자풀이는 그 집을 향해 오는 사자에게 뇌물을 쓰는 것이다. 사자는 집안사람 누군가를 잡아 오라는 명을 받고 움직이기 때문에 집 근처에 도착한 사자에게 제물을 차려 상을 올리고, 노잣돈과 신발을 챙겨 드린다.

초상집에는 상문살, 상문수배, 상문사자가 머문다. 그래서 문상을 다녀올 때 이것들이 따라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특히 상문사자가 따라오면 그 사람의 집에도 초상이 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신문(神門)이 열려 있는 사람은 문상을 잘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꼭 문상을 가야 하는 사이라면 뱅이를 통해 상문살을 피하려고 노력한다. 상가에 갈 때 주머니에 쑥을 넣어 가거나, 문상을 다녀오고 3일 동안 법당에 들어가지 않는다.

상문살이 닿은 사람은 몸에 오한이 생기고, 감기처럼 앓는다. 또 어떤 사람은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몸의 고통이 심하기도 하다. 옛날에는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가족 중 한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 문복(問卜)하고 상문풀이를 한다. 오래 되지 않은 상문살은

어렵지 않게 풀어 낼 수 있다. 법사는 간단히 음식을 차리고 상문수배대로 상문살을 걷어 낸다. 음식으로는 팥죽과 막걸리를 각각 3그릇 준비한다. 홀수로 차린다면 몇 개를 떠 놓아도 무방하다. 팥은 부정을 쫓아내는 힘이 있어, 부정을 가시고자 할 때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상문수배대를 법사가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상문수배대는 사자대와 유사한 모양으로 만든다. 사자대와 차이가 있다면 상문수배대에는 베 조각이 묶여 있다는 것이다. 베는 망자의 수의로 쓰이기 때문에 상가의 상징이 된다. 요즘은 베 조각 대신 부정풀이용 오색천을 잘라서 묶기도 한다.

법사는 팥죽과 막걸리를 차린 쟁반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상문수배대를 잡는다. 상문이 든 사람 앞에서, 고장소리에 맞춰 주문을 외며 상문수배대로 그 사람의 몸을 곳곳이 쓸어내린다. 한참을 쓸어내려 상문살이 걷어졌다 여기면 상문살이 든 사람에게 막걸리나 팥죽 그릇에 침을 뱉게 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 넣고 법사는 집 밖으로 나간다. "헛세, 헛세." 소리를 지르며 팥죽과 막걸리를 대문 밖에 쏟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칼을 던진다. 칼끝이 밖을 향하면 상문살이 나간 것이다.

산소탈은 조상의 산소로 인해 자손들에게 생기는 좋지 않은 일들이다.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자꾸 생기면 법사를 찾아 점복하고, 산소탈이라는 점괘가 나온다. 만약 산소를 이장할 수 없는 상황이면 법사는 산소탈을 잡기 위한 독경을 한다.

산소탈 독경의 과정은 여느 독경과 유사하다. 다만 산소탈을 잡기 위해 직접 산소에 가서 하는 과정이 추가된다. 법사는 '오색 다후다'를 준비한다. 청색·적색·황색·백색·흑색의 다섯 개 천으로, 신풀이나 천제를 지낼 때 많이 사용되는 것이다. 산소에 도착하면 다섯 개의 천을 각각 가운데가 봉분에 닿게 하고 산소를 덮어 길게 늘어뜨린다. 색깔과 방향을 맞추지는 않는다. 그리고 산소 앞에는 소창을 펼쳐서 길게 늘어뜨린다. 봉분 앞에 간단히 제물을 차리고, 이곳에 짚신 세 개를 놓는다. 오색 천과 소창의 끝에는 고운 빛깔의 종이꽃이나 생화를 둔다. 이러한 준비가 끝나면 법사는 산소 앞에 좌정해 조상축원을 한다. 조상위안경·축원·천수경·법성게·반야심경 등을 읽고, 마지막에 백살경을 읽는다. 축원이 끝나면 법사는 산소를 덮었던 오색 천을 하나씩 들어 가운데를 갈라 찢

어 낸다. 찢어진 오색 천을 손에 들고 산소를 싹싹 쓸어내려 부정하고 불편한 것들을 다 걷어낸다.

자손들은 망자의 산소를 살피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고 3일 동안 산소를 다녀와 우제를 지낸다. 산짐승이 묘를 파헤치는 일이 생기지 않게 3일 동안 산소를 살필 수 있도록 우제와 삼우제의 법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산소를 돌보고 난 후에 장례를 치르면서 생겼을 각종의 부정들을 걷어 내기 위해 자리걷이를 한다.

자리걷이는 망자의 뒤끝을 맑히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망자의 시신을 모셨던 방, 그 자리에 하얀 종이를 펼치고, 그 위에 쌀을 깐다. 그 위를 마포나 소창으로 살포시 덮어 둔다. 삼우제를 지내고 고연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 상을 간단히 차리고 축원을 한다. 망자의 극락왕생을 빌며 천수경·팔양경·고왕경·해원경 등의 경문을 읽는다.

논산시

| **정민재**(1919년생) 논산시 강경읍 |



근현대사와 함께한 인생

정민재는 전라북도 황등 태생으로 1919년생이니 올해가 백세다. 형제는 4형제가 있었는데 어려서 다 죽고 막냇동생은 서울대학교를 나왔다. 아버지는 선비였는데 강경으로 와 살았다. 어린 정민재는 은진보통학교를 다녔다. 학생 중에 여학생이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교사 임동규의 딸이었다. 한 반에 12~13명이 공부했다. 50호 정도 되는 새터골 토양리에서 살았는데 학교 다니는 친구가 일곱밖에 없었으니까 초등학교 다니기가 지금의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웠다.

정민재는 은진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강경에 있으면 지원병으로 끌려갈 것 같았다. 지원병이 안 되면 기차도 못 탈 정도로 압력이 심했다. 얼마 후 그는 1년 후배의 아버지가 함경북도 나진에서 함바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함바는 일제강점기에 토목공사장이나 광산에서 밥을 해주는 장소였다. 그는 후배를 불러 나진으로 가자고 꼬였다. 집에서 그 당시에는 큰돈인 30원을 들고 떨면서 강경을 떠났다. 나진까지 가는데 무척 힘들었다. 먹는 것 기찻삯은 모두 그가 부담하였다. 나진에 도착해서 후배 아버지에게 이곳에 오래 있을 테니까 있을 데 좀 알아봐 달라고 사정했다. 그랬더니 식당으로 밥 먹으러 온 일본인에게 말해서 그곳에서 3년간 일을 했다.

정민재는 나진에서 공산으로 왔다가 무산으로 왔다가 금산으로 왔다가 철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곳에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말하자 평양에 회사가 있으니 평양으로 가라고 말해서 평양으로 갔다. 평양에서는 말관리를 했다. 말 발톱을 손질해 주고 말을 닦아 주는 일을 했다. 거기서 한 1년 8개월 근 2년을 있었다. 연백에 사는 사람이 경마장에서 폐기 처분된 피마를 사서, 그를 따라 연백으로 가서 말 타는 것을 배웠다. 8·15 해방 당시 연백과 개성은 이남이었다.

해방 되고 2년이 지나 그는 이제 강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해서 당시 큰돈인 천백 원을 주고 밀선을 타고 서울 마포로 왔다. 그렇게 강경으로 내려왔는데 할 게 없었다. 그래서 서울에서 천혜이불이라고 누비이불 장사를 했다. 천혜이불은 전라도로 광주로 백화점에 납품도 하는 공장이었다. 외사촌이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돈을 같이 대고 하다가 나중에 외사촌은 손을 떼고 그가 맡아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났다.

그의 이불 가게는 종로 3가에 있었고 공장은 청파동에 있었다. 그때 대동청년단이라는 우익 단체가 몇 번 찾아와 감투를 씌워주었다. 전라도 고흥 사람을 직원으로 썼는데 말도 적고 사람이 괜찮았다. 그런데 한국전쟁 때 이 점원이 사라져 버렸다. 인민군이 서울로 쳐들어왔을 당시 대동청년단 감투를 쓰고 있어서 죽었구나 생각하고 이불을 둘러쓰고 있었는데 전쟁이 나자마다 사라졌던 점원이 찾아와 절을 하면서 피하라는 것이었

다. 통행증이 없으면 다닐 수 없다고 말했다. 돈이 있냐고 묻기에 300만 원인가 있다고 했더니 돈 생각 마시고 그것만 챙겨서 가라 하면서 빨간 줄이 그려져 있는 무료 통행증에 도장을 찍어서 주었다. 게다가 밥 먹는 것까지 모두 해결해 줘서 안전하게 피해 다닐 수 있었다.

그는 강경에 내려와 수복 후 소방서에 들어가서 마을 치안 유지를 하였다. 월급 한 푼 받지 않은 봉사였다. 그 소방서는 지금의 경찰하고 똑같았다. 수복 후에 누가 아군인지 적인지 분간이 안 되어 외가가 있는 평촌 들판으로 피해 다녔다. 하루는 저녁 6~7시 쯤 되었을까 제방으로 일곱 명 정도가 오는 것을 보았는데 불길한 생각이 들어 그 자리를 피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늘더니 시간이 지나 밤 12시쯤 되니까 채운산 위로 세상이 밝아지면서 난리가 났다. 빨치산이었다. 한참 총소리가 나고 멀리 들판에서 보니까 불이 날아다녔다. 날이 새니까 조용해졌다. 10시쯤 강경 시내에 가보니 시체가 여기저기에 쌓여 있었다. 철도 옆에 쓰러져 죽은 사람, 읍사무소 옆에 쓰러져 죽은 사람이 무척 많았다. 경찰도 죽고 시민들도 죽었다. 죽은 사람들을 읍사무소 옆에 둠벙에 묻었다.

전쟁이 끝나고 먹고살기 위해 미곡상을 하였다. 그러다가 대전일보 기자인 이인식과 가서 보자고 한 곳이 민생무진이라는 회사였다. 지금의 금융업 같은 회사였다. 민생을 보호한다고 예금을 받아서 대출해 주고 이자를 주는 그런 회사를 다녔다. 업무과장을 하다가 차장까지 했다. 당시에 땅을 잡혀서 돈을 쓰고 갚지 못하면 땅이 날아가 버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은 죽으려고 해서 구제해 줄 방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 땅을 근저당해서 돈을 대출해 주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

자유당 시절에는 정치에 발을 들여놓기도 했다. 당시 중앙 자유당 정치훈련소 3기를 수료하고 충청남도 논산군에서 두 살 위의 김한수와 땅을 팔아가면서 정치에 뛰어든 적도 있었다. 그 후에 충남관광이라고 큰 차 16인승 7대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 최영한이란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서 동선관광이라고 이름도 바꾸고 87세까지 현역에서 활동하였다. 강경 번영회 회장을 하기도 하고 법원에서 감찰위원을 하면서 지역에서 억울하

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걸 선도해 주는 활동도 하였다.

40대 때에는 박봉래 경찰서장이 경찰학교에서 축구 선수를 했다고 강경 조기 축구회를 만들었다. 기관장들 친목도 도모하고 건강에도 좋고 해서 60대까지 축구를 했다. 예순세 살 때는 논산시 대표로 대전에서 열린 대회에 나가기도 했다. 그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걷기 운동을 주로 하고 있다. 슬하에 자녀를 6남매를 두었는데 큰딸이 70살이고, 큰아들은 경상남도 창원에서 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아들은 논산고등학교 2기로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지원을 해서 갔다가 제대하고 일본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막내아들은 강경상업고등학교를 나와서 건설회사 이사를 하고 있다. 자식들도 잘 키우고 100세까지 살아서 여한이 없다고 한다.

| **나병국**(1960년생) 논산시 강경읍 |

논산시 지정 향토유적 제1호 덕유정



나병국은 강경 사람이다. 오래전에 덕유정에 입회하여 국궁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다. 지금은 회원 수가 90명 되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순번이 매겨진다. 그는 20년 전에 51번으로 입회했는데, 총무를 11년 재무를 16년 하는 등 임원을 오래 하면서 덕유정의 역사와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한다.

200여 년 전 옥녀봉에서 활을 쏘던 사람들이 지금 자리에 사정을 짓고 덕유정이라 이름을 붙였다. 당시에는 양반들이 활을 쏘았지만 일반 주민도 있었다. 활을 쏠 수 있는 사람들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당시에는 활 쏘는 사원이 있었을 뿐 아니라 활을 쏘지 않고 모임만 하는 덕유계원이 있었다고 한다. 그 덕유계원들은 강경에서 장사하는 큰 상인들이었다. 거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강경에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 덕유계에 많이 들어왔다.

덕유정에 대한 자세한 역사는『활터 덕유정』이란 책에 잘 나와 있다. 이 책은 2007년 8월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간한 책이다. 책에 나온 덕유정 연혁을 보면, 연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덕유정의 사계(射稧)가 1828년에 창설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요 사항을 보면, 1865년 고종 2년 옥녀봉에서 덕유정 현재 자리로 입주했고 1883년 고종 20년에 이은국 사백이 옥녀봉에서 관해루를 옮겨왔다. 1920년 강경 궁술회를 개최하였고, 1927년 전조선 궁술대회를 개최하였다. 1960년 정재구 접장이 사비로 관해루를 중수하였고, 1986년『사원좌목』12부를 작성하였다. 1992년 10월 28일에는 덕유정이 논산시 지정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되었다.

사계란 사정에서 사원끼리 하는 계로 각궁계 같은 것은 각궁을 사려면 큰돈이 들기 때문에 매달 잔돈을 걷어서 돌려가면서 한 명씩 사주는 계를 말한다. 덕유정 사계도 이와 비슷한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덕유계가 언제 처음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덕유정에 남아있는 문서 중 가장 오래된 1828년 사계좌목에 보면 나온다. 1828년에 사계가 조직된 것은 활터의 중수와 운영이 목적이었으며, 18년 뒤인 1846년 계전의 낭비로 부실하게 운영되었던 사계를 재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흩어지고 계전이 다 없어졌다. 1866년 당시 은진현감이자 덕유정 사백이었던 김종규에 의해서 크게 일어났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1870년과 1884년에 다시 복설하였다.

사계의 운영을 보면 가입은 원칙적으로 활터의 중수와 운영을 위한 덕유계에 동의하는 사람은 모두 가입하도록 하였으나, "사계에 들어오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됨됨이와 능력을 상세히 살펴야 하며 적정한 명하전을 정한 후에 사계에 참여시킬 것을 알린다. 만일 신분이 불온하면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모든 계원은 각각 100푼 (1냥)을 내며 이 돈으로 계를 만든다. 이미 계에 들었던 사람은 다시 1냥을 내고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은 따로 5냥씩을 내어 옛 사계에 이어 새로운 사계를 만들었다."라고 명하전의 규모도 정확히 명시하였다. 명하전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관련된 사람들에게 각각의 몫을 배당하여 거두는 돈이다.

사원에 강제 조항을 보면 덕유정의 사원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입사했더라도 사정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운영에 있어서 무리를 일으키는 사원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핑계를 일삼고 사정없이 불참한 일이 조사를 통하여 나오면 '용추'라는 방망이로 벌을 주었다. 그리고 덕유정의 권한은 상상 외로 컸다고 한다. 강경 포구의 조세권, 즉 세금을 덕유정 사원들이 걷었다. 그래서 일부는 은진현에 내고 어느 정도 배정받아 덕유정에서 썼다. 또 조그마한 소액 재판 같은 것은 은진현감이 직접 오지 않고 덕유정 사백에게 맡겨 처리하기도 했었다. 사백의 말이면 그냥 법이었다고 한다. 사백은 회비가 잘 걷히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기부 받기도 하고 자기 재산도 내놓았다고 한다.

초창기에는 양반들이 주도적으로 덕유정을 이끌어 나갔지만 장사를 하는 큰 상인들, 거상들이 이 강경에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참금이든 입사금이든 냈다. 그렇게 축적되어 지금까지 물려 내려온 재산이 30억 원 정도 된다.

덕유정에는 1년에 3대 행사가 있다. 첫 번째 행사는 과녁제이다. 과녁제는 음력 정월 열나흗날이고 두 번째는 양력으로 5월 1일 일명 권무잔치라고, 그냥 총무잔치라고 하는 건축 기념일, 세 번째는 음력 7월 15일 백중날 정기 총회를 하고 역대 사백님, 접장님 그러니까 회장을 지낸 분과 부회장을 지낸 분, 그분들의 제사를 지낸다. 지금 그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되니 제일 장관이라고 한다. 제사를 지낼 때는 각각 위패를 병풍처럼 마련해 놓고 그 앞에 각각 잔대에다가 술을 한 잔씩 120분을 다 부은 다음에 그 앞에서 모두 절을 하는 것이다. 이 행사 이름을 사백제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제목을 선생안제라고 이름을 붙였다.

덕유계첩에는 활 쏘는 사람의 본관, 이름, 생년월일, 그리고 맡은 직책은 언제부터 맡았는지를 기록하였다. 그리고 행사의 내용도 기록했는데 언제 열었고 몇 명이 참석했고 경비가 얼마 들었다는 내용도 기록하고 있다. 현재 14권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 계첩은 계속해서 한자로 쓰고 있으며 붓글씨를 잘 쓰시는 어른께서 쓰고 있다.

어릴 적에 덕유정은 매우 높은 장벽으로 덕유정에 들어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고 한다. 지금은 스포츠 개념으로 국궁이 전국체육대회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활 쏘는 인구가 늘었다. 국궁은 보기보다 배우기 힘든 운동이다. 활은 처음에 가르치는 사범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옛날부터 사범 제도가 있어서 기초부터 착실히 익혀야 된다. 활 쏘는 것을 궁도라고 한다. 도라는 것은 정신적인 문제인데 활을 쏠 때는 잡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호흡을 잘 하여 활시위를 놓았을 때 관중이 되면 마치 볼링에서 스트라이크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아진다. 사정거리가 145m 15발 쏴서 15발 맞추면 전국대회 일등감이다.

| **서병석**(1937년생) 논산시 강경읍 |



밀짚모자의 원산지 강경

서병석은 1937년생으로 채운면이 고향이다. 강경 산양초등학교를 걸어서 다녔다. 강경상업고등학교 앞 강경천을 건너면 바로 집이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깨에 보자기 가방을 메고 장난치면서 학교에 다녔다. 산양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립 강경고등보통학교라는 게 있어서 다녔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일제강점기에 그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다. 그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 초에 군대에 가서 26살에 제대를 했다. 결혼 전 그는 남의 집에서 일하는 것보다 주인으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저곳 찾다가 옆집에 살던 이종일이라는 친구가 밀짚

모자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그 길로 마음을 굳혔다. 처음에는 친구가 도와주었다. 만드는 것부터 판매하는 것까지 잘 가르쳐 주었다. 그와 기술자 한 명 그렇게 둘이서 재봉틀 한 대로 하루 밀짚모자 250개 정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런 공장이 강경에 많다 보니 큰돈은 벌지 못하고 바듯이 먹고살았다.

강경에는 한 70~80대 정도의 기계가 있어서 거리에는 밀짚모자 만드는 소리가 꽉 찼었다. 만든 물건은 강원도 삼척부터 저 멀리 제주도까지 팔려 나갔다. 그러니 우리나라 밀짚모자의 원산지는 강경이다. 밀짚모자는 말만 밀짚이지 사실은 미루나무를 얇게 깎아서 그것을 재봉틀로 박아 만든 것이었다. 밀짚은 약하고 재료도 많지 않아 미루나무로 바꾸었다. 또 사시나무도 사용했다. 강원도에서 사시나무를 갖다가 대패로 문질러 깎아 썼다. 머리를 땋듯이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연무대에서도 여산에서도 사 가지고 갔다. 재료를 저울로 달아서 팔면 그것으로 모자가 생겨났다.

밀짚모자 기계는 모두 일본에서 들여왔다. 국산은 하나도 없고 일본에서 처음 백남근이 가져왔다. 지금 기계는 100년은 된 것이어서 강경 역사관에 갖다 놓았고 나무를 깎아 재봉틀로 박아놓은 재료도 거기 있다. 일본산 기계는 처음 시작할 때 쌀 다섯 가마니 값 정도 되었으니 꽤 비싼 것이었다. 고장 나면 부속품은 깎아서 썼고 아니면 일본에서 큰 상업을 하는 이종오 씨 작은아버지가 구해서 보내주곤 했다. 얼마나 편리한지 그냥 재봉틀로 동그랗게 붙이면 모자가 되니 만들기도 쉬었다. 처음에는 수동으로 했는데 이 기계가 반자동화하게 만들어 주었다. 또 밀짚모자 재료도 많이 만들었다.

재료가 되는 이태리 포플러 나무는 박정희 대통령 때 전국에 심게 했는데 무척 빨리 자라서 한 5년만 크면 잘라다가 재료로 사용하였다. 가장 좋은 부분은 밀짚모자 공장으로 그 다음 좋은 것은 남성 성냥 공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나무젓가락 공장이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전주에 있는 제지 공장에서 가져가서 펄프로 사용했다.

당시 강경에서는 공장을 조금씩 늘려서 1년에 30만 개 정도 생산을 했다. 모자 하나가 도매로 60원에 팔려 나갔다. 당시 강경에 있는 70~80대 정도의 재봉틀이 쉬지않고 만들었다. 엄청난 양의 모자가 쏟아져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안 가는 데가 없었다. 주로 모

내기용이어서 모내기철에는 물건을 다 뎰만큼 생산이 어려우니 11월~12월에 미리 만들어 창고에 보관했다가 전국에 팔았다. 배달은 전적으로 기차 수하물로 배달을 했다. 밀짚모자 주문 양이 지역마다 그리 크지 않으니 수하물로 보냈다. 그 당시 매일 통운이 엄청난 양을 운송했다. 제주도, 광주, 여수, 순천, 같은 대도시에는 트럭보다는 통운이 편리했다. 그때 당시에 강경에 너무 많은 공장이 있어 가격이 경쟁 심해 박리다매 하다 보니 그는 생활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밀짚모자 원료 조합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지금도 밀짚모자 만들던 생각을 하곤 한다. 먼저 미루나무를 얇게 대팻밥처럼 깎아서 국수가닥처럼 8mm정도로 재료가 나오면 그것을 잘 추려가지고 모자 틀에 맞춰서 다시 재봉틀로 박으면 밀짚모자 하나가 완성된다. 밀짚모자 머리 부분에는 옛날 영화 필름을 잘라서 모양을 냈는데 그 필름에 금인지 은인지 나온다고 귀해져서 비닐로 교체해 버렸다. 그 모자 틀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모자도 다양하게 나왔다. 만든 모자의 색깔은 하얀 나무 색깔이었는데 나중에는 염색을 해서 유치원 모자로도 만들었다. 그러다가 IMF 때부터 수요가 계속 줄었는데, 그 이유는 모내기 이앙기가 나와 사람이 많이 없어도 되니까 모내기용 밀짚모자는 팔리지 않게 되었다. 또 비닐 모자도 나와서 점점 어려워졌다. 게다가 중국, 베트남에서 싸구려 물건이 들어오고 직원들 인건비 부담도 심해져 공장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시절 강경장은 어마어마했다. 장날 상시장과 하시장은 사람이 바다를 이루었다. 당시 인구가 3만이라고 했는데 아마 10만 명은 족히 움직이는 것 같았다. 장이 서면 연무대, 여산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강경장에 왔다. 배가 대흥천 따라 안으로 들어왔는데 바로 옆에 신진상회에서 어물들을 팔았다. 어릴 때 홍교리에서 살아서 장날 구경을 많이 왔다.

그는 한국전쟁 때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다. 언젠가 강경경찰서 경찰들과 북한군이 싸우는 것을 목격했다. 지금 강경상업고등학교 제방 근처였다. 북한군들이 제방에서 방공포로 쏘고 전투가 치열했는데 싸운 사람들이 경찰인지는 몰랐다. 9·28 수복 후에 빨치산들이 또 강경으로 쳐들어 왔다. 그때는 미군 비행기인 B29가 철로, 제방, 강경시장에

폭탄을 투하해서 불바다가 되었다. 그 후에 그는 연무대로 피난을 갔다.

강경은 양말 공장, 밀짚모자 공장 다음으로 시보리, 개성베 같은 공업도 성했다. 양말 공장 같은 경우는 군납으로 들어가고 전국으로 팔려 나갈 정도였다. 그는 한 30년 정도 공장을 운영하다가 2008년에 그만두고, 2009년에는 이장을 맡기도 하고 또 노인회장도 했다. 그렇게 한 10년 사는 동안 나이를 먹었다. 그는 밀짚모자 공장에서 청춘을 다 보냈다. 지금 그가 기대하는 것은, 강경역사문화거리에서 강경 야행이나 강경젓갈축제 때 예전에 만들던 밀짚모자 제조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 **임춘만**(1937년생) 논산시 강경읍 |



소문난 솥 공장

임춘만은 1937년 강경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때 아버지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솥 공장의 총책임자로 지냈고, 위로 형 한 명과 아래로 남동생 둘, 여동생 둘이 있는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다. 당시 일본말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어야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가 겨우 일본말을 더듬으며 입학한 강경초등학교는 일본말만 하도록 했다.

그의 부모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다. 당시는 공출이라는 것이 있어서 쌀이 금싸라기만큼 보기 어려운 시절이었다. 만약 공출하지 않으면 볏간을 뒤져서 꺼내가곤 했다. 그래서 부모님은 솥 장사처럼 소달구지에 솥을 싣고 아래 솥에는 쌀을, 윗 솥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은 채 운반해서 흩어져 있는 친척들에게 나누어주곤 했다고 한다. 그런 부모 덕분에 남들이 잘 먹지 못하는 사탕도 먹고 옷감도 고급으로 옷을 지어 입고 지냈다.

해방 후 그의 아버지는 주물 공장을 인수해 직접 운영을 하셨는데 늑막염에 걸려서 병원에 계시다가 한국전쟁이 났다. 당시 그는 13살의 어린 나이로 가족들과 함께 병든 아버지를 리어카에 싣고 황화로 피난을 갔다. 외가에 형이 있었는데 아버지 병간호로 고생이 많았다. 옻에다가 개를 넣고 삶은 '개칠개'라는 국물이 염증에 좋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해 드셨는데, 신기하게도 정말 그것을 먹고 나았다. 수복된 뒤에 아버지는 솥 공장을 팔아 그 돈으로 피난을 다니면서 썼다. 1·4 후퇴 때는 다시 상월로 피난을 갔는데 어린 나이에 계룡산에 들어가 나무를 해다 팔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일제강점기 시절 솥 공장은 사장이 일본인이고 사무요원 모두 일본이었다. 아버지는 솥을 만드는 기술자로서 공장을 관리하는 책임자였다. 300평 정도 솥 부리 공장이라고 부른 공장 안에는 용광로가 있어서 쇠를 녹여 주물로 솥을 주로 만들고 쟁기도 만들고 남은 찌꺼기로는 아령을 만들기도 했다. 일제 말기 전쟁 중이라 쇠가 무척 귀했는데 어디서 구해 왔는지 공장은 쉬지 않고 돌아갔고 만든 솥들은 전국으로 팔려 나갔다. 근방 군산에 작은 공장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곳이 가장 큰 솥 공장이었다.

솥 공장에 대한 그의 기억에는, 솥을 만드는 틀이 20~30개 정도 있었는데 20개 이상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공장이었다. 솥도 1통부터 6통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 중에 가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밥해 먹는 솥이 4통인데 이 크기가 가장 많이 팔렸다. 큰 건 6통짜린데 가마솥을 말했다. 주물 공장에는 솥의 재료가 되는 쇠를 용광로에 넣고 녹였다. 용광로에 붙어 있는 수도꼭지 같은 것을 열면 빨간 쇳물이 나왔다. 위에 있는 불순물을 걷어 내고 말간 쇳물만 바가지 같은 곳에 넣고 들고 와 틀에다 부어서 솥을 만들었다.

1년 중에 가을이 가장 바빴다. 쇠는 주로 고물장사에게 사 오고 달구지에 싣고 왔다. 실어 온 쇠는 용광로 옆에다가 모두 쌓아 놓았다. 솥 만드는 공장 옆에는 쇠를 연마하는 방이 따로 있었다. 당시에는 쎈방이라고 했는데 쇠를 잘 다듬는 일을 했다. 기술자 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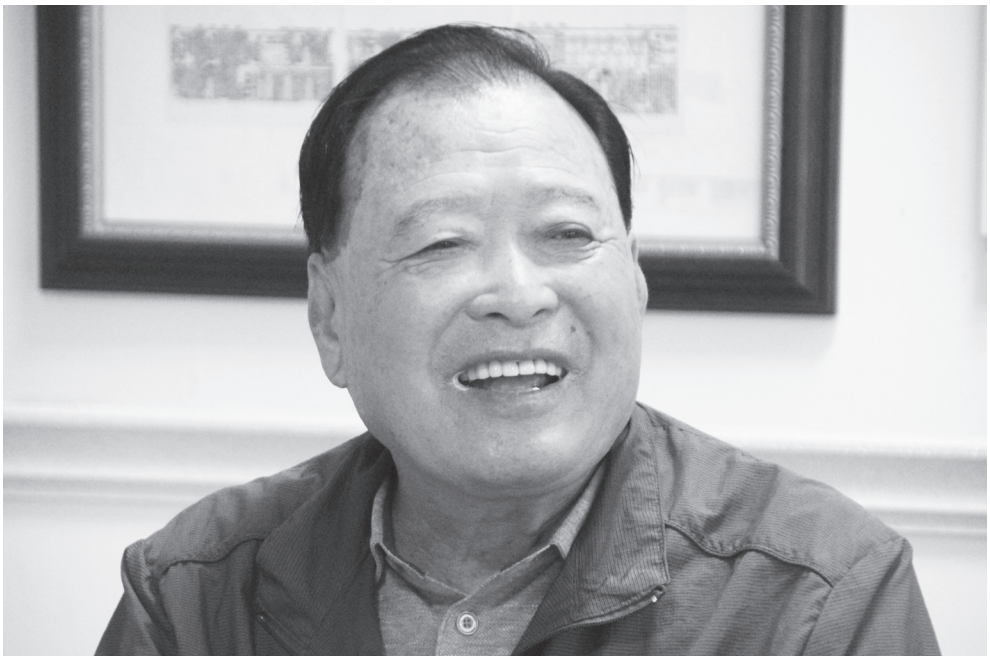
이 오는 물건을 다 깎았다. 주물은 보통 흙이 아니고 마치 떡가루 같은 흙, 개흙인데 손에 넣어서 꽉 쥐면 그 모양이 그대로 있어 쥐었다 놔도 흩어지지 않는 흙이었다. 이 흙으로 틀을 만드는데 솥 모양의 틀이 두 개로 아래 모양과 윗 모양의 틀로 만들었다. 그 위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곳으로 쇳물을 부었다. 그 때 쇠똥이라고 부르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한 사람이 재껴주고 한 사람은 맑은 쇳물만 부었다. 그런데 쇠똥이 들어가면 그 찌꺼기는 돌이기 때문에 솥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헛일을 했고 다시 녹여서 솥을 만들었다. 주물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다.

그의 공장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솥을 만드는데 그전에 솥의 본을 떠서 잘 마르도록 했다. 그게 잘 마르면 솥 만드는 날 윗것을 올려 접합시킨 후 거기다가 쇳물을 붙고 식혀서 흙을 제거하면 솥이 되었다. 일주일에 40~50개 정도이고 한 달이면 거의 100개 넘게 나왔다. 당시 직원이 20~30명으로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솥 공장이었다. 직원들은 임금을 올려달라고 농땡이를 부릴 때도 있었고 수금이 어려워 자금이 잘 돌지 않아서 힘든 적이 많았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몸이 좋지 않으셔서 대신 이모부가 공장 사무를 보고 외삼촌이 총괄 관리를 했지만 아버지가 직접 공장을 돌보지 못하니 끝내 공장을 팔아야 했다. 공장은 서울에 사는 김영도라는 사람이 매수하였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운동을 해서 강원도의 춘천대학을 졸업하고 군대 가서 태권도 사범을 했다. 제대하고 학비를 벌기 위해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동생에게 지금 아내를 소개를 받아 27살에 결혼을 했다. 결혼하고 재봉틀 가게 점원으로 취직을 하고 2년 있다 독립하고 나와서 가게를 개업했다. 장날이 되면 재봉틀이 잘 팔렸다. 가을이 성수기 여름이 비수기였다. 재봉틀은 손으로 하는 기계가 있고 발로 하는 기계가 있는데 주로 발로 하는 것이 많이 나갔다. 수금할 때가 되면 주로 공주면 공주장, 경천이면 경천장, 양촌이면 양촌장 등 장날을 찾아갔다.

지금 솥 공장의 흔적은 없지만 그가 태어나고 아버지가 사시던 곳이라 13년 전에 다시 인수해서 그 자리에 집을 지었다. 옛날 쎈방이 있던 곳에 집 세 채가 들어앉았고 20평짜리 창고가 자리하고 있다.

| **임상덕**(1933년생) 논산시 강경읍 |



양말 공장 시절

1933년생인 임상덕은 부여 옥산에서 살다가 1972년 강경으로 이사 왔다. 그때 나이 서른아홉 살이었는데 아들 셋 딸 하나 잘 키울 목적이었다. 당시 명문학교인 강경상업고등학교를 나오면 전국의 은행에 취직하여 지점장도 되던 때라 아들들을 강경상업고등학교에 진학시키고 싶은 꿈이 있었다.

그가 부여에서 농사를 짓다 강경에 와서 한 일은 손으로 짜는 양말 공장 운영이었다. 중앙동에서 4년간 운영을 했는데 손으로 짜는 수직 기계로 어린아이 방울 달린 양말을 주로 만들었다. 실을 넣고 손으로 돌려 짜는데 발뒤꿈치를 짜려면 다시 바늘을 올려 주

고 한 번 돌리고 또 올려주고 돌리고 하면서 짜야했다. 그 당시 수직 기계로는 번 돈이 지금으로 치면 하루에 몇 만 원 정도였다.

1976년 북옥동 옛날 고아원 자리에서 김부천이라는 사람이 기계로 짜는 양말 공장을 하였는데 그 공장을 인수받았다. 돈이 많이 들어갔지만 갖고 있던 논 열일곱 마지기는 팔지 않았다. 논 값이 한 마지기에 쌀 여섯 가마, 일곱 가마 할 정도로 무척 쌌고 또 농사지어야 별 수입이 없다고 하여 사는 사람도 없었다. 돈이 모자라서 농협에서 대출도 받았다. 수직 기계 3대로 양말을 짜다가 이제 자동 양말 기계 8대 갖고 본격적인 양말 공장을 시작하였다. 자동 기계는 전기 스위치를 넣으면 모터로 피대가 돌아가서 착착 양말을 짜 주었다. 먼저 고무줄을 넣고 양말을 짜고 발뒤꿈치도 자동으로 짰다. 기계 보는 기사에다가 옆에서 도와주는 일꾼 하나 붙여 주었다. 그리고 물건을 많이 생산할 때는 실 감는 사람, 양말 짜는 사람, 양말을 꿰매는 사람, 양말을 다려서 포장하는 사람 등 한 20명이 일을 했다. 원료인 나일론 실은 서울에서 사 가지고 왔다. 실을 사오면 해사공이 실을 풀고 다시 감아서 기계에다 넣으면 '착착착' 하며 기계가 돌아가 양말을 짰다.

양말이 완성되면 잘 다려서 상표를 붙이고 포장을 해 '신창양말'이라는 상표를 달고 전주, 목포, 여수, 홍성, 광천, 서산 그리고 서울로도 팔려 나갔다. 양말을 납품할 때는 주로 열차 소화물을 이용하였다. 역까지는 자전거 짐차에 실어서 보냈는데 직접 싣고도 가고 일꾼을 보내기도 했다.

강경역 수화물계에서 물건 중량을 달아 요금을 받았다. 강경역에는 수화물계 옆에 리어카꾼이 한 20명 있어서 그 사람들이 물표를 보고 목포행이면 목포행 홈에다 갖다 내놓아 기차에 실었다. 당시 수화물 가격은 무척 쌌다. 목포에 큰 덩어리 한 짝 보내면 한 4,000~5,000원 정도 했다. 또 물건이 도착하면 수화물을 리어카에 실어서 집에까지 배달해 주었다. 몇천 원 정도 주었는데 그 사람들 덕분에 참 편하게 장사했다. 지금은 늙어서 다 돌아가셨다.

양말 장사가 강경에 와서 사 가지고 가는 양도 엄청나게 많았다. 양말을 몇백만 원어치 사 가지고 가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팔고 또 사러 왔다. 그래서 강경장날이면 그는

밥도 못 먹고 장사를 했다.

강경은 양말 공장이 많아 전국에서도 유명한 양말 생산지였다. 당시에 삼광양말 공장, 동양양말 공장, 남신양말 공장 등 네댓 개의 공장이 있었다. 남신양말 공장은 면사부터 짰다. 그런데 그 공장들이 다 문을 닫고 나서도 신창양말은 2000년도까지 한 20년간 공장을 운영했다.

양말 공장은 1년 열두 달 다 돌리는 것이 아니라 9월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하고 또 팔월에 추석 대목을 보려면 5월부터 양말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추석과 설 대목을 보려고 1년에 한 6개월 정도만 운영했다.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지만 그 사이 양말의 모양새가 바뀌면 옛날 물건이라고 팔리질 않았다. 기술 좋은 기사들이 디자인도 바꾸고 꽃 모양도 넣고 해야 잘 나갔다. 그리고 시장에 나가 잘 팔리는 제품을 사서 기사한테 주면 조금씩 모양 바꾸어서 만들기도 했다.

하루에 기계 한 대가 어른 양말은 일곱 타를 짜고 아이들 것은 열두 타 정도 짜니까 한 타에 열두 켤레라 대략 200켤레 정도 짰다. 특품 한 켤레 소매로 1,500원 정도 했고, 아이들 것은 600원도 하고 700원도 했다.

양말 공장이 자동화가 되고 점점 발전하니까 대기업들이 상표를 자기네 것으로 달아 전국적으로 팔았다. 당연히 소규모 공장은 소비가 위축되고 하청만 하다가 결국은 문을 닫게 되었다. 신창양말은 끝까지 신창양말 상표를 달고 만들어 냈는데 그가 허리 디스크 수술하느라 공장 문을 닫았다. 병원에서 퇴원하고 6~7개월 만에 거래처에 가 보니 환경이 바뀌어서 새로운 기계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고 있었다. 새 기계를 장만할까도 생각해 보았는데 그때 나이가 예순다섯이라 젊은 사람들과 같이 다닐 수 없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 이제 그만두어라. 그래서 디스크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갖고 있던 낡은 기계를 고철로 팔아 버렸다.

그의 자식들은 모두들 성공해서 잘살고 있다. 큰아들은 수원에서 운수 사업을 하고 있고, 둘째는 딸인데 남편이 충청북도 한전 지점장이고, 셋째는 한국화약 대전·세종·충청남도 3개 시도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넷째 아들도 성공해서 회사의 인사부

장을 맡고 있다. 자식들 가르친다고 몇 대씩 살던 고향을 떠나기가 쉽지는 않았다.

그는 평생을 양말 공장, 농사 등을 하면서 부지런히 살았지만 사회 활동도 빠뜨리지 않았다. 열거하자면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자 회장,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 농협협동조합 이사, 조합장 직무 대행, 조합장, 4H 후원회장, 충청남도 도정평가단, 경제통상분과원 원장 등을 맡아 봉사했다.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후회는 없다. 1970년대 강경 번영회장도 했는데 지금은 강경의 인구가 점점 줄어서 안타깝다. 인구가 자꾸 줄어 만 명도 안 된다. 그가 지금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사방 100m에 여섯 집이 비어 있고 200m 안에는 열네 집이 비었다. 또 이웃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어 그는 슬프기도 하다.

| **송옥례**(1936년생) 논산시 강경읍 |

옥녀봉의 추억



송옥례는 1936년생이다. 대전에서 장사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초등학교까지 졸업했는데 8·15 해방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맞이했다. 초등학교 때의 기억은 거의 없고 집에서 살림을 배우다가 6·25 한국전쟁 후 25살이던 해에 시집오면서 옥녀봉에 살게 되었다. 당시 공장을 다니던 남편의 집이 옥녀봉에 있는 현재의 집이라 자연스럽게 눌러산 셈이 되었다. 도중에 대전으로 나가 살다가 큰아들 낳고 논산으로 오기도 했는데, 큰딸을 낳고 다시 강경 옥녀봉으로 올라왔다. 당시는 옥녀봉에는 스무 집도 넘게 사람들이 살았다. 대개 강경포구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나 잡은 물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주로 살았다.

그녀가 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시아주버니 가족과 같이 살아서 손윗동서와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다. 옥녀봉 바로 아래 강경포구가 있어서 배가 들어오니 매우 시끄러웠다. 아

래를 내려다보면 배가 엄청 많았다. 눈앞에는 배가 수십 척이 보였다.

동네에는 사람이 많이 살았다. 지금 옥녀봉 꼭대기 고목나무 아래 있는 의자 있는 곳에도 사람이 살았다. 바로 아래 조선산업 사장 윤길중의 집이 있었다. 지금 잔디밭 아래 하얀 집이다. 옛날 시집와서 처음 그 집을 보니까 굉장히 부잣집이었다. 그런데 그 집 보고 박과부네 집이라고 불렀다. 윤길중은 일제 때 죽고 박 과부라는 사람이 집을 사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집 안에 굴이 있었다. 그 굴에는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했다. 일제강점기 땐가 한국전쟁 때인가 거기서 사람들 시체가 나왔다고 했다. 지금 남아 있는 집은 소금집이라고 하는 집인데 그 집에 사는 부부도 배가 들어오면 일해서 먹고사는 사람이었다. 그 집 아줌마는 교회를 다녔는데 아이들이 많아 집이 비좁아 이사 가고 그 뒤에 혼자 사는 아저씨가 와서 살다가 죽어서 그때부터 집이 비었다.

이곳에 신사가 있었다. 일본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를 했다. 당시에 손을 씻던 돌로 된 물건이 여기 있었다. 그 돌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는데 돌절구로 사용했다. 이곳이 공원이 된다고 보상받고 이사 가라고 하니까 고물 사러 다니는 사람이 팔라고 해서 그녀는 그것을 팔아 버렸다. 그리고 계단 위에도 석재가 두 개가 있었는데 누가 들고 가 버렸는지 그것도 없어져 버렸다.

옥녀봉 바로 아래 큰 바위에 산신이라는 글씨와 무언가 조각해 놓은 바위가 있는데 누군가 와서 촛불을 켜고 기도한 흔적이 있다. 그곳에 옛날 예비군 중대장을 하던 사람이 살던 집이 있었다. 옛날에는 위 쪽 바위에서 큰 굿도 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술 사 가지고 가서 비는 사람도 있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고 그냥 인사만 하고 가곤 한다.

여기를 처음에 봉오재라고 불렀다고 한다. 봉홧불을 올리는 곳이라 봉오재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봉수대가 없었다. 그리고 옥녀라는 선녀가 놀았던 장소라는 이야기도 있다. 선녀가 하늘에 못 올라가고 떨어졌다는 이야기였다.

그녀의 기억에는 밑에도 집이 한 채 있었다. 그 집은 전라도에서 왔는데 너무 못살아서 처음엔 작은 굴에서 살았다. 그 굴에 부엌 하나 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살다가 이

사가 버렸다. 그런데 그 아랫집 아저씨가 굴에 김치를 넣어두고 저장고로 썼다. 그 부부가 죽고 막내아들이 살면서 굴을 자꾸 파길래 큰아들 동창이라 우리 집 무너진다고 그만 파라고 했더니 굴을 더 이상 파지 않았다. 공원 작업할 때 메워져 지금은 없다.

옥녀봉 아래에 학교가 있었는데 강성고등공민학교인가 그랬다. 그녀의 시아주버니가 거기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말 먹이는 집이 있었고, 이층집 소금 부잣집도 있었다. 강경에 물난리 났을 때 아래를 보니까 소금집 앞 도로에 가마니로 막아 놓았다.

동네 인심은 참 좋았다. 물고기를 잡으면 나누어 먹었다. 여자들은 모내기를 도와주면서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리고 동네 모임을 했다. 예비군 중대장 했던 사람의 부인이 가장 나이가 어려서 모임을 잘했는데 돈을 조금 모으는 계를 했다. 옛날이라 우친계라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부의금으로 쓰고 또 혼인계도 있었다.

옥녀봉은 공원이 되기 전에도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왔다. 배가 들어오지 않기 시작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소풍도 많이 왔었다. 그녀는 집에 보리수나무가 있어서 꺾어서 놓고 팔아봤더니 잘 팔려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여름에 선풍기 있는 집이 없어서 더우면 옥녀봉에 올라오는데 앉을자리가 없을 정도였다.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정말 장사가 잘 되었다. 동네 처녀 총각들도 놀러 오고 외지에서도 놀러들 많이 오고 해서 과일도 갖다 팔고 장사가 무척 잘 되었다.

그 후에 계속 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한 집 두 집 빠져나갔다. 배를 타고 나가야 고기도 잡고 장사도 하는데 배가 못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공원으로 만든다고 보상하고 지금은 근처에 그녀의 집밖에 없다. 공원이 되니까 영화 촬영도 했다. 배우 강부자가 온 적이 있는데 시어머니 뒷집에 살아서 가게 평상에 앉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옛날에는 소풍을 오면 그냥 걸어와서 어쨌든 이곳에서 점심을 먹고 가서 장사가 잘 되었는데 지금은 차를 타고 와서 구경만 하고 가니까 장사가 잘 안 된다. 강경에 사람이 많이 줄어들어 그녀는 안타깝다. 처음 살러 왔을 때 시끌벅적하던 옥녀봉이었는데, 이젠 외딴집이 되어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혼자만 남아 그저 적적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다.

| **손상용**(1935년생) 논산시 강경읍 |



추억의 정미소

손상용은 1935년 강경에서 태어났다. 어린시절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만 9남매 중 여섯만 생존하는 슬픈 일도 겪었다. 어린시절 그는 일본 아이들에게 "조센징, 조센징" 무시당하며 자랐다. 당시에는 서울, 대전 같은 큰 도시 말고는 네온사인을 보기 어려웠는데, 강경에는 강경중앙초등학교 앞 전원사진관부터 강경극장 들어가는 사거리까지 거리가 훤할 정도로 네온사인이 꽉 차 있었다.

강경은 지하수에 염분이 많아 물이 귀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주로 수돗물을 먹었다. 강경 사람들은 남교동에 오래된 우물이 있어 모두 그리로 와서 물을 길어 갔다. 밤새도

록 긁어내고 물이 고이면 또 긁어내 퍼가던 그 우물은 지금도 잘 보존되고 있다.

그는 강경상고 31회 졸업생으로 서른의 나이에 결혼했다. 그의 형님이 젊은 시절부터 정부미 도정공장을 했다. 한때 그는 충주에서 정부미만 찧는 도정공장을 8년간 다니며 기술도 익히고 경영방법도 익혔다. 그리고 나이 60에 강경으로 내려와 1,300만 원으로 정미소를 인수하였다. 그때가 1990년대였는데 지금 강경상업고등학교 앞인 남교리 36번지이다.

정미소는 일 년 중 가을이 가장 바빴다. 이 동네는 농토가 넓어 쌀이 많이 나와서 주로 채운면 농가가 주 고객이었다. 말이 끄는 달구지에 볏가마니를 싣고 정미소에 오면 밤새 벼를 찧었다. 강경에는 마차가 30대 정도가 있었는데 조합이 만들어져 있었다. 마차로 나르면 한 가마에 600원 정도 주었다. 경운기가 나온 뒤로는 500원에 날랐지만 경운기가 많지 않아 급할 때는 비싼 마차를 이용했다. 정미소가 바쁘지 않을 때는 기관사와 뒷일 하는 직원 1명이 있었지만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여 정미소를 돌렸다. 바쁠 때는 경운기 5대도 부족했는데 가을에 고용한 인부들은 주로 벼를 나르는 일을 했다. 당시는 길이 좋지 않아 비가 조금 오면 진흙탕이 되는 통에 일하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래도 일감이 많아 밤을 새우면서까지 일을 했다. 한 가마니 빼려면 기계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세 바퀴, 네 바퀴는 돌아가야 했다.

벼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껍데기를 벗기는 기계로 들어간다. 들어가서 껍데기를 벗겨 가지고 다시 승강기를 타고 탱크로 들어가서 쌀 만드는 기계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한 번 분리기로 들어간다. 백미와 현미를 갈라놓고, 현미만 다시 탱크로 들어가면 쌀로 나온다. 마지막으로 돌을 고르면 완성된 살이 된다. 지금은 더 좋아져서 벼가 들어가면 그냥 하얀 쌀이 나오면서 돌도 다 골라 나왔다. 그리고 쌀을 씻지 않아도 되게 수증기로 닦아서 나오는 기계도 있다. 기계를 한 번, 두 번 돌리면 7분도, 세 번 돌리면 9분도 쌀이 되는데, 쌀이 모자라니까 7분도 쌀로 누렇게 먹으라고 했다. 아기 낳은 산모가 먹기 좋으라고 조금 더 깎았는데 그래서 9분도가 나오게 된 것이었다.

그는 일을 열심히 해서 밥을 안 굶고 살았다. 한 가마니 도정해 주면 서 되를 받았다.

그러나 강경에는 정미소가 13개나 있어서 사업이 쉽지만은 않았다. 성동면, 채운면, 부여 세도, 전라북도 망성면까지 다 강경으로 모여들었다. 겨울에 세도에서는 금강이 얼면 그 얼음 위로 마차를 끌고 왔다.

그에게 힘든 일이 많았다. 사람들은 벼 한 가마니만 맡겨도 곡식 주인이라고 행세를 하고 쓸데없이 억지를 부려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다. 오죽하면 정미소 하는 놈은 '개○○'라고 했고, 사람들도 공공연히 "정미소하는 놈들은 개백정만치도 못하다."라고 했을까. 돈도 돈이지만 멸시 당하면서 할 일이 아니었다. 벼를 말리면 주인은 벼 한 가마 나르는데 돈이 얼마니까 그걸 한 푼이라도 덜 들이려고 하고, 거기다가 길은 푹푹 빠지지, 논바닥은 질어서 들어가지 못하지, 먼 데서 밀고 나오는데 인건비는 또 들어가니 애로가 겹쳤다. 그래도 곡주들은 필요하면 돈을 빌리러 정미소로 왔다. 많이 빌려 주었다. 이자는 받지도 못했다.

일제강점기 때는 낮에 전기를 주지 않아서 밤에만 기계를 돌렸다. 그런데 공출을 내지 않으면 기계도 못 돌리게 했다. 일본 사람들은 강경에서 나는 벼를 거의 다 공출로 가져갔다. 공출을 내지 않으면 집을 뒤지고 거름 자리까지 팠다. 어떤 사람은 겨울에 남교리 철교 밑에 가마니에다 벼를 넣고 물속에 넣어 두었다. 공출 나갈 때는 쌀값을 제대로 쳐주지도 않고 반값에 빼앗아 갔다. 공출이 끝나면 숨겨 놓은 벼 한 가마니나 두 가마니씩 쪄 갖고 갔다. 쌀이 없어서 굶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았다. 먹을 것이 없으니 깻묵과 만주에서 나는 콩을 먹었다.

강경은 배가 많았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군산으로 배 타고 수학여행을 다녀올 정도였다. 6학년 때 선운회사 배를 타고 군산에 갔는데 하루에 두 번씩 물길 따라서 가는 여객선을 타고 갔었다. 지금은 공원이 되어 버린 강경포구가 배 타는 곳이다. 군산까지 배를 타면 한 두세 시간 걸렸다. 수학여행이라고 군산에서 배에 내려서 밥만 먹고 물때를 맞춰 바로 강경으로 돌아왔다.

한국전쟁 때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아버지와 형이 공무원 일을 하셔서 연무대로 피난 갔다. 쌀을 구할 수가 없어서 중학교 2학년인 어린 나이에 쌀을 등에 메고 하루에 한 번

씩 곡식을 날랐다. 강경에 빨치산들이 쳐들어와 새벽에 강경역을 불태우고 경찰서 옆 창고에서 수십 명을 죽여 달구지로 싣고 와 시체를 태웠다. 그렇게 죽은 사람을 역 앞에 둠벙에 집어넣었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배가 고프긴 마찬가지였다. 그러다가 통일벼가 나와서 조금 나아졌다. 그것은 안남미라고 하는 수입쌀보다 좋았다. 필리핀에서 종자를 개발해서 가져온 것인데 다수확을 하다 보니까 맛이 없었다. 나중에 다시 종자를 개발해서 많이 수확하고 맛도 좋은 벼가 나왔다.

당시 그는 정미소 발동기로 15~20 마력짜리 엔진을 썼다. 그것이 바퀴를 돌리고 피대를 움직여 벼를 쪘다. 그래서 원 없이 벼를 쪄 보았다. 지금은 정미소도 기계화 되어서 모두 없어지고 강경에는 두 개만 남아 있는 상태다. 10년 전부터 사양길로 접어든 정미소 사업은 적자 때문에 그만두었다. 그는 자식들이 정미소를 한다면 기계화 된 정미소는 한 번 해볼 만할 것이라고 웃으며 말한다.

| **김중희**(1938년생) 논산시 강경읍 |



행복한 역무원 생활

김중희는 함열에서 1938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강경에서 50년을 살았다.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스물일곱 살에 결혼했는데, 1970년쯤 어느 지인의 소개로 강경 역무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다. 당시 아이 셋에 부부까지 다섯 식구였는데 함열에서 강경으로 옮길 때 아이가 많아 방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철길 건너 변두리에 힘들게 방 하나를 구해놓고 겨우 살림을 시작하였다.

그가 처음 역무원을 시작한 1970년대에는 강경역에 증기기관차 다녔다. 증기기관차는 강경에서 연무대까지 주로 다녔다. 강경역에 하루 화물차까지 70~80회 기차가 지나

갔는데 증기기관차는 한 20편 정도였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에 증기기관차가 없어지고 급수탑도 사라졌다. 디젤 기관차 시대로 바뀐 것이었다. 그때 가장 고급 기차는 새마을호였다. 그 다음 특급열차로 경부선에는 통일호, 호남선에는 백마호, 여수행 전라선은 풍년호라고 불렀다. 그러나 대부분은 완행열차였다. 대전에서 군산까지만 운행하는 미군 전용 기차가 있었는데 RTO라고 불렀다.

그때 기차표는 대략 100원으로 대전에서 강경까지 통학하는 사람, 논산과 연산에서 강경으로 오는 사람들은 모두 기차를 이용하였고 인원도 무척 많았다. 처음 기차표를 팔았을 때 70년대에 서울까지 통일호 요금이 850원, 입석은 750원이었고, 완행인 비둘기호는 용산까지밖에 가지 않았는데 410원이었다. 강경은 그래도 큰 도시라 모든 열차가 다 정차했다. 강경역은 직원이 30명 정도이고 레일 수리공까지 포함해서 강경역에서 먹고사는 사람이 대략 200명 가까이 되었었다. 통운에 30명 정도, 선로 고치는 보선반이 한 20명이 있었다. 또 객화차라고 입대하는 군인들을 태우는 기차가 있는데, 객차가 한 60량 정도 되었다. 이 차는 부산 등 전국을 다 다니면서 입대 군인을 수송했다. 칸칸마다 역 직원들이 타기 때문에 대략 70~80명 있었고 전기 부서까지 있었다.

그가 강경역에서 주로 한 일은 기차표 매표였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1,200에서 1,300명 정도가 출입했다. 그때는 논산역보다 강경역이 규모가 더 컸다. 80년도까지 논산역의 집계 현황을 강경역으로 보고하고 총합 집계 결과를 대전으로 보고했다. 명절 때였는데 76년인가 77년인가 하루에 팔백만 원을 올렸다. 당시 귀성객들은 대개 기차를 이용했다. 그 덕에 강경역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각 역마다 최고 수입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었다. 논산역은 당시 600만 원, 강경역은 800만 원으로 1등을 하였다. 그 날은 명절 때라 강경역에 임시열차가 배치되었다. 게다가 관례상 어느 역에는 얼마만 팔라고 배당이 내려왔다. 그런데 10년간 표를 팔아 본 경험으로 스스로 판단해서 표를 무제한으로 팔아버렸다. 강경역 플랫폼에 기다리는 사람이 꽉 차는 일이 일어났다. 역장이 나와서 깜짝 놀랐다. 하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임시열차가 들어와서 그 많은 승객을 다 태우고 갔다. 구관이 명관이라고 명절 때는 으레 임시열차가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배당을 무시하고 표를 팔아 하루에 팔백몇만 원의 표를 판 것이었다.

그는 매표도 하고 개표, 검표도 했는데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돈 없이 기차를 타서 잡고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았다. 아주 불쌍한 경우는 훈방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은 역전 파출소에 고발했다. 기차 안에는 질서를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공안들도 있었다. 공안들은 두계까지 왔다갔다 했다. 학생들의 무임승차도 많았다. 역 가까이 오면 기차가 서행을 하는데 이때 가방을 먼저 던지고 뛰어내리는 학생이 있었다. 어떤 때는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생기기도 했다. 역 업무 중에서 명절이 되면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다. 새치기하다 싸움이 나고 쓰레기는 아무 곳에나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기듯 버린 쓰레기가 고역이었다. 명절이면 워낙 많은 사람이 역을 찾으니 대합실도 꽉 차고 입석표마저 없는 경우가 있었다. 표를 못 구한 사람들도 미어터질 것 같은 기차에 무임승차하기도 어려웠다.

강경역에는 좌석 배정표가 있는데 몇 장 되지 않았다. 한 차에 10장 많으면 20장 정도였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점은 법원, 검찰청, 경찰서에서 갑자기 좌석을 달라는 것이었다. 강경역의 화물은 주로 소화물이었다. 양말이나 밀짚모자 그리고 옷감 같은 것이 수송되었다. 소화물은 리어카로 끌고 나가서 차마다 소화물 칸이 있어서 거기다 실었다. 비료나 시멘트 같은 대화물은 화차로 왔다, 옛날에는 고구마가 나갔고 금성산업에서 쓰던 옥수수와 비료들이 많이 왔다.

그의 근무는 아침 여덟 시 반에 출근해서 퇴근은 이튿날까지 24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은 하루 쉬었다. 그 시절에는 큰 대야를 머리에 이고 장사하러 다니는 아주머니들이 대략 삼사십 명 정도가 되었다. 남쪽으로 정읍, 장성까지 북쪽으로는 신탄진, 조치원, 부강까지 그리고 경부선으로는 옥천, 영동까지 장사를 나갔다. 매일같이 젓갈을 머리에 이고 팔러 다녔다. 또 그쪽에서는 강경으로 젓갈을 사러 오기도 했다.

강경역에서 역무원으로 일하면서 그는 자식 네 명을 키웠다. 24시간 맞교대 근무로 아이들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지만 아이들 스스로 잘 커 주었다. 큰 아이는 강경상고, 수원대학교를 졸업하였고, 큰 딸은 강경여고를 나와 서울 예술대학교에 진학했다.

셋째는 서울대학교에 낙방하고 재수를 해서 카이스트에 들어갔는데 20대에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넷째는 논산서 학교를 안 다닌다고 해서 안양고등학교에 갔고 나중에 인천 인하대학교를 졸업했다. 성실한 아들들 덕분에 미국도 가보고 런던 올림픽도 구경하고 베를린, 오스트리아 빈, 헝가리를 여행했으며 다뉴브강에서 배도 타 보았다.

그는 역장의 배려로 강경에서만 13년 6개월을 근무했다. 매표소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 행복했다. 나이를 먹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지금은 폐역이 된 부황역을 지원해서 2년을 다니고 다시 강경역으로 복귀해 10년간을 더 근무하기도 했다.

| **한상희**(1935년생) 논산시 강경읍 |



양조 기술자로 보낸 일생

한상희는 본래 논산시 광석면에서 태어나서 광석초등학교에 다녔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졸업을 하지 못했다. 그 뒤로 농사를 짓고 살다가 열아홉 살에 처음 논산의 조화양조장에 입사하였다. 조화양조장에서 생산하는 청주 〈조화〉는 품질이 우수하여 품평회에 나가면 번번이 1등을 하여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던 술이었다. 조화양조장은 규모가 큰 편이라 술을 빚는 일을 하는 사람이 20여 명, 술을 병에 넣어 상품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20여 명, 합하여 종업원이 40여 명이나 되었다. 입사한 직후 그는

양조장의 잡부로 허드렛일을 하였다. 그러다가 눈치로 일을 배워서 술밥을 찌고 술을 해 넣는 일을 맡게 되었다. 스물한 살에 결혼을 해서 그해 아들 쌍둥이를 낳았다.

스물두 살이 되던 해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를 거쳐 강원도 인제에 주둔하는 5사단에서 3년간 복무하고 스물다섯 살에 제대했다. 제대 후에 강경의 선화양조장에 취직했는데 일을 잘한다고 칭찬을 들었다. 일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논산 조화양조장에 근무할 때에 손위 처남이 함께 근무했었는데, 그가 일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다. 선화양조장은 청주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는데 임금은 6,000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불룩 나온 사람들 서넛이 사무실에 찾아왔다. 그들은 한상희가 기술이 좋다는 말을 듣고 스카우트를 하기 위해 동해시에 있는 양조장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보수는 2만 원으로 쌀 열 가마니를 살 수 있는 큰돈이었다. 당시 군수나 경찰서장의 월급이 1만 3천 원 정도였으니 그들보다도 더 많은 보수였다. 그래서 그는 집에 들러서 직장을 옮긴다는 말을 하고, 아내와 아이들 5남매를 고향에 둔 채 동해시로 갔다.

동해시의 주조장은 직원이 십여 명에 불과한 작은 곳이었는데, 주인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일체를 그에게 위임했다. 그래서 그는 제품 생산과 판매까지 도맡아 했으며, 직원들의 보수도 자신이 결정할 정도로 모든 권한이 있었다. 동해시에서 많은 보수를 받아 집으로 송금하면 형님이 사채를 놓거나 논을 샀다. 그런데 시대가 변하여 한상희와 같은 회사원들의 월급은 인상되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여 월급이 쌀 다섯 가마니를 살 정도로 실질 가치가 적어졌다.

한상희는 기차에서 동해에 사는 강경 출신의 여인을 알게 되었다. 그들 부부와는 매우 친하게 지냈다. 그러던 중에 아내가 병이 났는데 그가 직장에 매인 몸이라 아내의 치료를 맡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 부부가 아내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함께 다녔다.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서울까지 갔어도 아내의 병은 낫지 않았다. 그 여인의 아버지가 대전의 유명 인사였는데, 대전의 한 산부인과를 소개하여 치료받았는데 놀랍게도 완치되었다.

그러던 차에 그는 강경의 중앙양조장에서 다시 오라는 제의를 받았다. 월급도 그리 많지 않았고, 아내도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롭기도 하여 강경으로 되돌아왔다. 그의 나이 서른일곱 살 즈음이었다. 그때 그는 이제 양조장의 일류 기술자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해시에서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었다. 새로 옮겨 온 양조장의 직원은 그를 포함하여 세 명뿐이었다. 이제 시설이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양조장에서는 생산만 하고 판매는 다른 곳에서 했다.

당시에 강경에는 네 군데의 양조장이 있었다. 태안양조장, 대흥양조장, 중앙양조장, 채산양조장이었다. 주조장별로 생산량을 배정받아서 생산하고 판매를 했다. 그러다가 전국적으로 합동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태안양조장과 채산양조장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중앙양조장과 대흥양조장 두 군데에서만 제품을 생산했다. 당시에는 막걸리의 수요가 많았던 시절이라 하루에 20리터 800통을 생산하여 판매했다. 강경에서 생산한 막걸리는 채운면과 부여군 세도면까지 판매되었다.

그러다가 생산 시설을 채산양조장 한 군데로 옮겼다. 그런데도 생산 시설이 기계화되어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오 명에 불과했다. 판매하는 배달꾼들이 십여 명이 있었다. 그들은 자전거를 이용하여 배달하였는데, 힘이 좋은 사람은 한꺼번에 열 말 넘게 싣기도 했다.

한상희는 생산에 관한 책임을 지고 있었지만 보수는 적었다. 한때는 군수보다도 더 많은 보수를 받았었는데 역전되어서 읍장보다도 적은 월급을 받게 되었다.

동해시에서 많은 보수를 받아 고향인 광석에 서른 마지기 가까운 논을 샀었다. 그런데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아내의 병 치료를 위해서 고향에 사 두었던 논을 많이 팔았다. 자녀들이 잘 성장했고 아내도 건강하기 때문에 현재에 만족한다고 했다.

68세에 퇴직하였는데, 사무 능력이 있어서 경로당 총무 등으로 봉사를 하였다. 돈을 잘 쓰는 편이라 주위에서 여러 단체의 회장을 하라고 하여 여러 직책을 맡기도 했다. 지금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 **최호정**(1935년생) 논산시 강경읍 |



강경의 직물 공장

최호정은 송악산 줄기 만월대 부근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본 사람들의 과수원에서 일했다.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과수원을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떠났다. 동네에 선생님들이 몇 사람 살고 있었는데 최호정의 어머니는 그들을 매우 부러워하였다. 그래서 7남매 가운데 제일 공부를 잘하는 최호정을 개성사범학교에 진학시켰다. 사범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열일곱 살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부모와 누이는 개성에 그냥 있고, 형들과 그는 서울로 피난을 왔다. 1·4 후퇴 때에 열아홉 살인 형은 군대에 붙

들려갔다. 군에 입대한 형은 대구에서 훈련을 받고 소위가 되었다.

홀로 된 최호정은 전쟁이 끝나면 빨리 고향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에 고향과 가까운 강화도로 갔다. 강화도에는 개성 사람, 연백 사람 등 황해도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의지할 곳이 없는 그는 두어 달 동안이나 구걸을 하며 살았다. 학교 강당에 들어가 멍석을 깔고 가마니를 덮고 잠을 잤다. 어느 날 같은 또래의 아이가 옆에서 바닥에 아무 것도 깔지 않고 가마니만 덮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 밤에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은 것이다.

강화도에는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고, 다만 민간인들이 유격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유격대에는 피난을 온 개성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유격대는 처음에 1개 대대가 100명 정도로 구성된 2대 대대가 있었다. 강화도에서 유격대가 조직되어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은 황해도 사람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다가 몰려들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3개 대대가 되었다. 굶주림에 지친 최호정은 심부름을 할 테니 밥이나 먹여 달라고 유격대에 들어갔다. 유격대는 배를 타고 북한 지역에 들어가 인민군과 전투를 벌이기도 했다. 전투 중에 김포에 주둔하는 우리 해병대가 지원해 주는 박격포가 그의 옆에서 터지는 바람에 고막이 터져서 그 뒤로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

강화도에 미8군사령부가 진주했다. 최호정은 중학교를 다녀서 영어를 알기 때문에 선발되어 미군부대에서 경비를 서는 일을 했다. 그러던 중에 형 친구를 만나 작은아버지가 강경에서 개성직물이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편지를 했더니 형이 돈을 가지고 와서 주었다. 그리고 강경에 내려오면 상업학교에 넣어 준다고 했다. 미군부대에서 도망을 나와 서울, 대전을 거쳐 강경에 도착했다.

강경에서 작은아버지는 베를 짜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국전쟁 전부터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경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당시에 강경에는 예닐곱 개의 공장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열한 군데가 되었다. 작은아버지의 공장은 직조기 20대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공장은 10대 정도의 규모였다.

최호정은 강경에 도착하여 머리가 좋아서 곧장 직조공장의 기사가 되었다. 직조기는

처음에 손으로 짜는 수직기(手織機)였다가 발로 짜는 족직기(足織機)로 발전하였다.

그는 스물한 살 때에 훈련소에 입대하였다. 군대에서는 기계를 다루어 본 경력을 인정받아 춘천비행장에서 경비행기를 정비하는 일을 했다. 3년간의 군대 생활을 마치고 강경으로 돌아와서 다시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던 개성직물에서 7년간 기술자로 일했다. 직조기가 발전하여 한 사람이 직조기 2대씩을 담당했다. 당시 개성직물에는 베 짜는 사람과 염색을 담당하는 사람을 합하여 3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강경직물(개성직물의 명칭이 바뀜)에서 근무하다가 작은아버지 부부가 사망하자 그 아들과 며느리가 공장을 경영했는데, 경영상태가 점점 어려워졌다. 그래서 최호정은 공장을 나와서 두 아들의 이름자를 따서 영재직물이라는 회사를 창업했다.

일본에서 수입한 서상록직기가 있었지만 그의 공장은 수직기와 족직기였다. 하루에 한 사람의 기사가 짜는 베의 길이는 한 필 반인데, 한 필은 서른 마이다. 또 한 마는 석 자(1자는 30.3cm)이니 한 필의 길이는 대략 27미터 정도이다. 베는 실의 굵기에 따라 풀질이 달랐다. 23수, 30수, 40수가 있는데, 23수의 굵은 실로 짜서 거친 느낌을 주는 베를 개성베라고 한다. 개성 사람들이 공장을 많이 운영한 데서 연유한 이름이다. 개성베는 한때 이불 홑청 등으로 서민들이 널리 이용하던 베이다. 원래 대구가 직물이 유명한데 개성베는 강경이 유명하였다. 그래서 대구에 있던 사람들도 강경으로 이전하였다.

그는 가끔 서울의 백화점에 가서 일본에서 나오는 옷감의 무늬를 보고 와서 제품을 생산했으므로 다른 공장의 제품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기술이 뛰어나서 40수로 짜서 와이셔츠의 원단이 되는 고급 제품을 생산했다. 다른 공장에서는 생산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따라서 가격도 높았다. 물건이 없어서 팔지 못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현재 그는 아들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켜 초등학교 교장 등으로 출세시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제껏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다고 했다.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에 공장에 다니던 아가씨와 그냥 함께 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매우 침착하고 연구심도 많다. 재력이 없진 않지만 요즘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하루 삼만 원을 번다고 했다.

| **박노익**(1927년생) 논산시 강경읍 |



마부

박노익은 1927년 생으로 강경의 마차조합에서 마부 생활을 하였다. 그의 고향은 충남 서천군 한산면이다. 그가 세 살 먹던 해에 강경읍 황산리 황산날맹이로 이주하였다. 아버지는 일용 노동자였는데 대동조합에서 쌀을 말리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 노임을 받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박노익이 열두 살 되던 해에 강원도 삼척으로 이사했다. 삼척에서 3년 정도 살았는데, 역시 생활이 어려워 다시 경기도 인천으로 이사했다. 인천에서 생활하던 중, 그가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에 일본 군대에 징집영장이 나왔다. 그는 군대에 끌려가

지 않으려고 도망을 쳐서 다시 강경으로 이사했다.

당시 강경은 일제가 많은 쌀을 수탈해 가는 기지였으므로 벼를 정미소로 운반하기도 하고, 또 배로 강경까지 와서 기차에 실어 보내기도 하여 쌀을 운반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운반 수단인 마차를 많이 필요로 했다.

마차에 관한 일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마차조합이 결성되었다, 마차조합은 마부들이 모여 일거리가 생길 때까지 대기하기도 하고, 마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정리해 주는 사무를 담당했다. 당시에 강경마차조합에서 일한 마차는 50대 정도였다. 50대 중에서 반절 정도는 일본인 소유이고, 반절은 한국 사람의 소유였다.

박노익은 강경으로 이사하였으나 뚜렷이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일본인의 말을 빌려와 마차를 끌기 시작했다. 일본 사람들이 제주도에서 말을 가져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직접 마차를 끌지는 않고, 마부는 대개 한국사람이었다. 일본인에게 말을 빌려와 말을 사육하면서 마차를 끌었다. 마차로 일한 대가를 받으면 말 주인 일본인이 4할을 차지하고, 마부가 6할을 차지하였다.

한국인 마부가 하루 동안 마차를 끌어서 받는 돈은 일본인에게 주는 돈을 제외하면 쌀 한말 정도가 되었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수입이 되었다. 한 번에 마차에 싣는 쌀의 양은 열 가마니 정도였다. 힘이 좋은 말은 이보다 많이 실어서 더 많은 삯을 받았다.

그는 가끔 배로 들어온 소금을 실어 나르기도 하였다. 소금은 전매품이었기 때문에 그 관리가 철저했다.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정 반출된 소금을 운송하기도 했는데, 주로 밤에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이는 불법행위였으므로 발각이 되면 엄한 처벌을 받아 징역을 살아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 이런 경우는 더 많은 삯을 받았고, 그것은 일본인 말 임자에게 주지 않고 모두가 마부의 수입이 되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도 이 일을 하기도 했다.

말의 발굽이 길어지면 깎고 나서 대장간에서 발굽에 박았던 편자를 갈아야 했는데 이 일을 말에게 신을 신긴다고 하였다. 편자를 새로 갈아 신기는 일은 두어 달마다 하여야 한다. 네 발의 편자를 가는 비용은 쌀 두 말 값이 될 정도로 상당히 비쌌다. 강경에는 말

이 많아서 이런 대장간이 두 군데가 있었다. 한 곳은 마차조합 옆이고, 하나는 강경상업학교 옆이었다. 해방이 되자 일본인들은 그 말을 그냥 마부에게 주고 황급히 일본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박노익은 자기 소유의 말을 가지게 되었다.

스물한 살 되었을 때에 마차 끄는 집에 색시가 있어서 결혼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다. 스물세 살이 되었을 때에 영장이 나와서 입대하여 삼년간 강원도 인제에서 복무하였는데, 한국전쟁 중이라 매우 위험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다. 휴전이 되고 스물여섯 살에 제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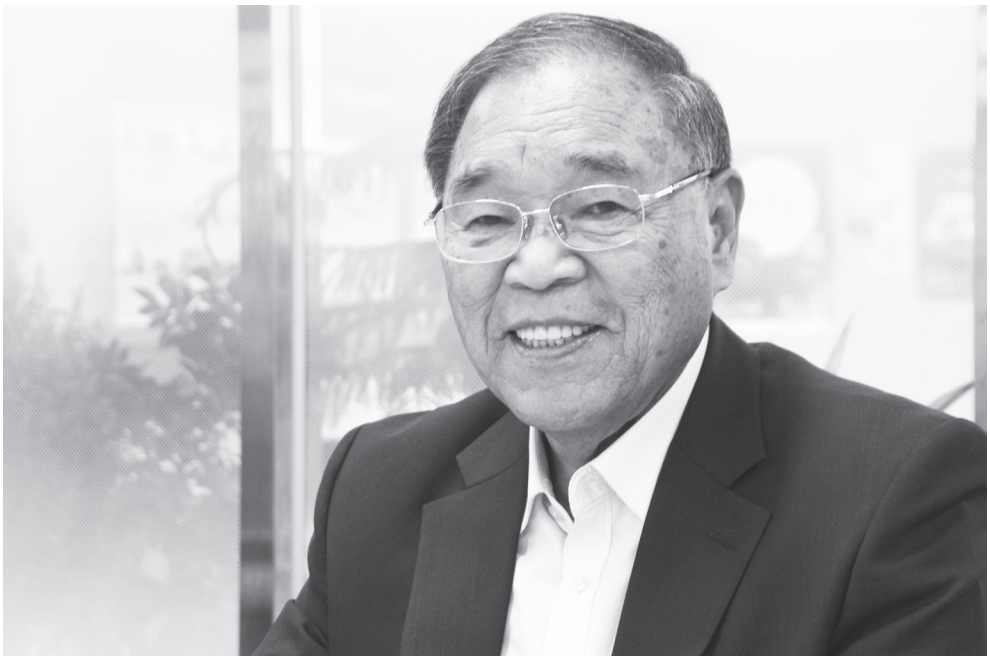
제대 후에 쌀장사를 시작했다. 트럭 한 대에 쌀 80가마 정도를 싣고 서울에 가서 판매를 했다. 판매는 당일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다음 날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벌이가 시원치 않았다. 그래서 쌀장사를 그만두고 한국산업사 정미소에 취직을 했다. 이 정미소는 일제강점기에 다카하시정미소라 하였는데, 이 지역에서 생산한 벼를 도정하여 그 쌀을 일본으로 가져갔다. 한국산업사에는 10여 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쌀을 차에 실어주고 푸는 일을 했다. 하루 품삯이 쌀 한 말 정도로 대우가 좋았으나 매우 힘이 들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특별히 힘이 좋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었다.

그가 정미소에 근무할 때는 도정 기술이 발달하여 쌀에 돌이 섞여 있지 않았으나, 전에는 쌀에 돌이 섞여 있어서 판매를 하려면 돌을 골라내야 했다. 그래서 정미소에는 쌀에서 돌을 고르는 여성 근로자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

그는 한국산업사에서 십오륙 년가량을 근무하였다. 근무 중에는 대우가 좋아서 자녀들의 학비를 주었기 때문에 모두 공부를 시킬 수 있었다. 퇴직할 때는 퇴직금으로 600만 원을 받았는데, 쌀값으로는 80가마 정도의 금액이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강경에 신사를 짓기 위하여 원목을 가져왔던 일에 대해서도 말했다. 선창이 있던 노동조합 옆과 바깥의 강에 이십여 개의 원목이 있었는데, 그 굵기가 두 아름은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 해방이 되어서 일본인들이 물러가자 그 원목은 제재소에서 켜서 목재로 사용했다고 한다.

| **정현수**(1941년생) 논산시 강경읍 |



강경의 일꾼

정현수는 전남 영광이 고향이다. 고향에서 중학교를 다닌 뒤에 익산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녔다. 대학 졸업 후에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사업에 뜻을 두어 선배를 따라 강경에 오게 되었다 그때 나이는 삼십대 초반이었다. 그 선배는 강경에 있던 금성산업사라는 전분 공장과 관련된 사업을 하였는데, 정현수는 전무로 근무하였다. 전분 공장은 고구마로 전분을 생산했는데, 하루에 고구마 수십 톤을 가공하였다. 고구마 철이 지나면 마른 옥수수를 원료로 이용하여 전분을 생산하였다.

정현수는 선배의 회사에서 십여 년간 근무하였는데 선배가 사업을 그만두었다. 그래

서 그가 신원사업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했다. 전분 공장에서 전분을 추출하고 나오는 고구마와 옥수수의 찌꺼기를 이용하여 가축 사료를 만드는 일이었다. 여러 가지 성분을 배합하는 것을 배합 사료라고 하고, 그 한 가지만으로 만드는 사료를 단미 사료라고 한다.

그는 사료공장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하였다. 직원의 소개로 익산에 있는 하림식품을 찾아갔는데 사장이 고등학교 후배였다. 선후배 관계라 사장이 적극 지원하여 통닭에 사용하는 소스 공장을 창업했다. 회사의 이름은 부인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지어 주었는데, 주님이 경영하는 회사라고 하여 주영식품이라고 정했다. 이 사업으로 성공하여 사료공장을 하면서 발생했던 부채도 완전 상환하고 다섯 딸들을 교육시킬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그는 지역의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의 육성회장을 했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학교의 육성회장을 했다. 그럴 즈음에 쇠퇴하는 강경을 부흥시키기 위한 강경 되살리기 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그는 강경 지역의 일을 맡아 하면서 좋은 평판을 받아 1998년에는 강경번영회장을 맡았다. 번영회장은 2003년까지 6년간 재임했다. 그는 그때를 회고하면서, "제가 마치 강경을 되살리는 기수인 양 활동을 했습니다."라고 회상할 만큼 열정적으로 활동했다고 한다.

그는 충남지사를 만나서 강경의 금강둔치 개발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 과장이 공주에 이미 둔치 개발을 했었는데 기대 효과에 못 미쳐서 실패했다고 부정적으로 대답했다. 그러나 강경은 접근성이 좋아 성공을 확신한다고 도지사를 설득하여 마침내 개발이 이루어졌다. 2001년도에는 그동안 강경의 학교에서 하던 젓갈축제를 개발이 완료된 금강둔치에서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조성된 금강둔치는 야구, 롤러스케이트 등이 가능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이용되었다. 어느 날은 유치원생들이 금강둔치로 소풍을 와서 노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다.

금강둔치 개발 사업을 성공리에 마치고 그는 큰 보람을 느꼈다. 지역을 위해 또 무슨 일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던 끝에 강경에 대학을 설립해야겠다고 판단했다. 마침 당시 국

회의원이었던 김범명의 선거 공약에 대학 설립이 있었으나 막상 당선되고 나서는 추진하지 않았다. 그래서 김범명에게 강경에 기능대학을 설립해 달라는 청원서를 냈다. 기능대학은 노동부 소관이라서 노동부에도 제출했다. 그러나 아무런 답신이 없었다. 후에 이 대학 문제를 김범명이 동의하여 노동부장관을 만나 기능대학을 강경에 설립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전을 계획하던 한전지점도 그대로 강경에 존속하게 되고 대학까지 설립한다는 내용이 신문에 보도되어 강경읍민들은 크게 고무되었다. 그러나 대학 설립에 관하여 추진되는 바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당시 강중선 시의원과 함께 노동부에 찾아가 독촉하였다. 그래서 기능대학 학원 이사들이 현지답사를 하였다. 강경읍 산양리에 있는 공동묘지에 학교를 짓기로 하였는데, 공동묘지에는 대략 3만 기의 묘지가 있었다. 그중에는 연고자가 밝혀진 유연(有緣) 묘지도 있지만 무연(無緣) 묘지도 상당수가 있었다. 경기도 의정부까지 묘지 연고자를 찾아가서 묘지를 이전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무연 묘지가 더 큰 문제였다. 그래서 그 처리 방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여 해결하였다.

묘지 이전 문제는 논산시에서 담당하고 있었지만,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그가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그렇게 열성을 보인 이유에 대해 그는 "내가 불을 질렀으니 불이 잘 타도록 내가 불쏘시개 노릇을 해야지요."라고 말했다.

2004년에는 강경경찰서(현 논산경찰서)와 법원, 검찰청을 논산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강경경찰서는 한국전쟁 때에 경찰관 83명이 순국한 역사적 장소이고, 경찰서를 비롯하여 법원과 검찰청이 이전하면 강경이 급속히 쇠퇴할 것으로 예측하여 강경읍민들의 반대가 극심했다. 번영회장을 하면서 개인 돈을 많이 써 가면서 헌신적으로 번영회장 직무를 수행한 것을 읍민들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또 경찰서와 법원, 검찰청의 강경 존속을 위한 투쟁을 담당하는 삼청사 강경존속추진위원장을 맡아야만 했다.

이런 난국을 해결할 사람으로 그가 가장 적합하다고 읍민들이 뜻을 모았다. 그는 다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일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은 한 푼도 없었다. 그런데 그가 위원장에 취임하자 돈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몇백만 원의 큰돈

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2~3만 원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왔다. 짧은 기간에 성금 6,000만 원이 모아졌다. 그는 이에 크게 용기를 얻어 해당 기관장을 만나고, 경찰청장까지 방문하여 강경 존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강경청년봉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찰서 사수〉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삽과 곡괭이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기도 했다. 그 결과 3청사를 강경에 그대로 존치시킬 수 있었다.

강경제일감리교회 윤석일 목사의 제안으로 강경역사문화연구원을 창립하여 원장을 맡았다. 기획실장 윤석일, 연구부장 김무길이 참여하여 강경의 근대 문화와 역사에 대한 연구와 홍보에 힘쓰게 되었다. 또 강경읍민들에게 강경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자는 취지에서 강경역사문화학교를 2014년에 처음 개설했다. 매주 하루씩 야간에 강좌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100여 명이 참여하였다. 그 후 해마다 역사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그동안 자서전과 수필집을 간행하기도 했다.

| **김무길**(1943년생) 논산시 강경읍 |



강경의 옛길

김무길은 아버지 때부터 강경에서 살기 시작한 강경 토박이이다. 따라서 강경에서 태어나고 강경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 다녔다. 그가 군대생활을 한 30개월과 초등학교 교사로 보령에서 2년을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강경에서만 살았다.

그는 강경읍 중앙리 강경천주교회 바로 앞이 집이었으므로 강경의 중심지에서 자랐다. 일곱 살에 강경중앙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가 놀이터였다. 강경 중심부의 도로는 오늘날의 도로와 같았다. 강경중앙초등학교에서 강경극장으로 가는 길과 한일은행 앞 길, 홍교리, 삼진한약방 앞의 도로가 예전 그대로이다. 그중에서

삼진한약방 앞길이 가장 넓었다.

해방 후에 북한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모아서 6사단을 창설했다.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군 최강 부대이던 6사단이 공주-논산-강경-전주-진주로 진격하였다. 그래서 미군이 강경에 심하게 폭격을 해서 강경 시가지의 많은 건물들이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때에 강경중앙초등학교 강당, 옛 한일은행 등이 불탔다. 그리고 수복 후에 강경의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대동전기상회, 화신상회 등의 시가지가 재건축되었다.

한국전쟁 중에 강경에서는 전투가 치열하여 많은 건물이 불탔다. 강경중앙초등학교도 전소되었다. 한일은행과 학교 강당은 벽돌로 된 외벽만 남았다. 그래서 학생들은 경찰서 옆의 미곡창고와 강경상고, 강경중학교에서 수업을 했다. 강당을 재건할 때에는 학생들이 목재소에서 목재를 나르고, 선생님들이 목수들과 함께 건축을 하다가 어떤 선생님은 떨어져서 크게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의 건물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은 홍교리, 남교리, 서창리이고, 강경역 관사, 전매서 관사 등이 남아 있어서 현재 강경에는 250여 채의 일본집이 남아 있다.

강경은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 시장을 상시장과 하시장으로 구분했다. 상시장은 웃장터라고도 불렀는데, 북옥리·홍교리가 중심이었고, 서창리와 중앙리의 일부 지역에 형성되었다. 상시장에서는 주로 곡물과 가축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시장은 아래장터라고도 불렀으며, 연수당한약방을 중심으로 한 중앙리가 대부분이었고, 홍교리 일부 지역에 형성되었다. 대나무와 소쿠리를 비롯한 죽제품·솥 등의 주물·철물·사기그릇·비단을 비롯한 옷감 등이 거래되었다. 하시장이 상시장보다 품목도 다양하였으며, 따라서 상권도 크게 형성되어 거래량이 많았다.

일본인들은 홍교리 하시장 부근에 많이 살았다. 또 중국인들도 강경에 화교학교를 설립할 정도로 많이 살았는데, 이들의 주거 지역은 주로 중앙리에서 태평리로 가는 지역이었다. 이들은 비단 가게라든가 빵집, 음식점을 경영했는데, 통계에 의하면 한때는 300명이나 되었고 70년대까지 상당수가 살았다. 1952년에 화교학교를 개축했는데 군산 등지에서 축하 화분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다. 화교학교 학생은 60명 정도였다고 한다. 현재

는 중국인이 2명, 중국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7명이 살고 있다.

강경장날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강경이 가장 번창하였을 때 인구가 3만인데, 장날은 5만이라는 말도 있었다. 강경의 상권은 부여군에서는 석성, 세도, 입포, 양화에서 배를 타고 오고, 육로로는 전라북도 익산시의 망성, 용안, 여산까지, 심지어 부여의 홍산면, 서천군 한산면에서까지 강경장에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장날에는 서 있을래야 서 있을 수가 없이 사람에게 떠밀려 다녔다거나, 서로 어깨가 부딪혀서 통행하기 힘들었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강경장의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오랜 가뭄이 들면 장터를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장이 섰다. 일종의 기우제라고 할 만하다.

옥녀봉 서쪽을 세편(서편)이라고 불렀다. 옥녀봉 산비탈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는데 일반 주택도 있었지만 대개가 술집이었다. 배가 들어오면 배에 널빤지를 걸치고 노동자들이 목도하여 생선을 하역하였다. 조기는 당시에도 비싼 생선이었고 홍어나 상어의 가격이 저렴했다. 그래서 장꾼들이 홍어나 상어를 사서 지게에 매달고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 마차조합에는 마차를 끄는 말이 30여 필 있었다. 이때까지도 운반 수단은 주로 말이었는데 점차 소로 교체되었다. 물동량이 많아서 짐을 옮겨 주고 삯을 받는 리어카꾼이 시장 가까이 중앙장로교회 옆에서 늘 대기하고 있었다. 그 인원도 30여 명이나 되었다니 강경장의 물동량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알 수 있다. 또 인력시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서 모내기 등에 필요한 일꾼들을 구할 수 있었다. 중앙양조장 옆에 지점집이라고 불리는 막걸리 판매점이 있었는데, 이 집에서는 외처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스승의 날 발원에 대해서는, 김무길이 초등학교 근무시에 동료였던 남우직(후에 충청남도교육위원회 의장)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일각에서는 스승의 날 제정의 단초가 된 교사 윤야중을 병문한 학생이 윤석란이라는 말이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윤야중이 한 1개월 정도 병석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문병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윤석란이 스승의 날 제정을 발원했다고 한다.

| **김병오**(1941년생) 논산시 강경읍 |



강경 우체국

김병오는 농업을 하시는 아버지 아래 8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강경중앙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추억을 갖고 있다. 먼저 시인 김관식과 학교는 같이 다니지 않았지만 한 동네에 살았다. 김관식네 집안은 원래 연무대 쪽에서 살았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장충단약방이라는 간판을 걸고 약방을 경영했다. 또 여배우 강부자와는 학교를 같이 다녔다. 김병오는 6학년 2반, 강부자는 6학년 4반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 기억을 잊지 않고 있다.

강경중앙초등학교는 6·25 전쟁 때 학교가 불이 나서 그 이후에 교실이 없어서 임시장

소에서 공부를 했었다. 지금의 경찰서 옆에 강남젓갈 자리에 커다란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6학년 때까지 공부를 했다. 그 창고는 아주 커서 칸막이를 해서 공부를 했다. 그렇지만 전체 학생들이 다 못 들어오기 때문에 분산되어 공부를 했다. 일부는 강경상업고등학교에서 공부하였고, 그 옆에 목욕탕 자리에서도 공부했다.

그가 학교 다닐 때 많은 학생들이 잘 먹지 못했다. 그래도 그는 다행히 끼니를 거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군 입대 전에 우체국에 입사했다. 1960년대 초라고 기억되는데 전신계, 우편계, 환금계, 교환 등 모든 업무가 한 군데에서 처리되었다. 처음 들어간 곳이 통신 계통으로 소년 전배를 했다. 소년 전배는 우체국에서 어린 사람들을 뽑아서 전보를 배달하는 일을 맡기는 것이었다.

군대 제대 후 결혼하고 나서 맡은 일은 우편 배송이었다. 우편물을 전부 수합해 벌집통 같은 분류함에 주소별로 나누어 넣는다. 다른 지역으로 가는 우편물은 목적지를 적어서 기차로 보내고 기차로 온 것은 분류해서 배달을 하였다. 강경우체국의 관할은 서쪽으로는 서천, 장항, 북쪽으로는 부여 석성, 남쪽으로는 전라북도 망성면까지였다. 충청남도에서 가정 먼저 생긴 우체국이라 규모도 컸고 담당하는 지역도 매우 넓었다. 강경 관할은 강경우체국에서 배달을 한다. 그러니까 강경 시내는 직접 배달을 하고 다른 곳은 분류해서 우편물 뭉텅이로 보내준다. 그러면 우편물을 받은 곳에서는 다시 분류를 해서 각 집으로 배달을 한다. 강경우체국은 담당하는 지역으로 우편물을 보내주는 일까지 하였다.

우체국의 위치는 일제강점기 때 북옥동 교회 자리였는데 지금 건물을 뜯어서 교회 주차장으로 쓰고 있다. 그러니 일제강점기 때부터 우체국 규모가 매우 컸었다. 한국전쟁 때 우체국 건물이 불이 나서 다음으로 태평동으로 이전을 했다. 그곳은 임시 건물이라 공간이 부족해서 세무서 자리에서도 일부 업무를 보았다. 그리고 다시 황산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창동 건물을 지을 때 직원이 가장 많았다. 1층에다가 사무실을 만들고 굵은 각목을 이용해서 2층을 올렸는데 이층이 내려앉았다. 나무가 휘니까 너무 위험해서 파이프를

대서 다시 밀어 올렸다. 2층에는 교환실이 있고, 기계실, 보수반, 서무과 그리고 교환 숙직실까지 있어서 무척 무거웠다. 1층은 현업 창구, 우편, 환금계, 전신계, 우편 작업실이 있었다.

전화가 교환식이라 교환원이 주로 여자였는데 무척 많았다. 왜냐하면 교환은 24시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2교대, 3교대 하다 보니 직원 수가 많았다. 강경우체국 최고 전성기 때 직원 수가 80명을 넘었다. 우편 분류, 배송하는 직원이 15명 정도, 전신계가 4 명 등 많은 인원이 근무를 했다. 교환원들은 전화를 교환해 주다가 목소리에 반해서 결혼한 경우도 있었고, 교환을 빨리 해 주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일도 있었다. 우편은 우체국 직원이 직접 우체통에서 우편물을 수거해서 우체국에 가져오면 주소 별로 분류를 하고 먼 곳은 기차로 보내고 강경 시내는 직접 배달을 했다. 우편배달은 가까운 곳은 걸어 다녔고 먼 곳은 지금처럼 오토바이가 없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

전화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가장 빠른 것이 전보였다. 전보는 보낼 사람이 전보용지에 다섯 자 기준으로 글을 써서 보내는데 이 다섯 자가 기본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받았다. 전보는 보낼 내용을 전신계 직원이 모스 부호로 보내면 받는 곳에서 다시 전보 내용을 기록하여 배달을 했다. 그 당시 전보 가격은 10원, 100원, 1000원으로 우표 가격 4원, 10원보다는 많이 비쌌다. 전보는 급한 사람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았다.

전보는 일반 전보, 지급 전보, 특사 전보가 있었다. 특사 전보라는 것은 특사란 사람을 사 가지고 보내는 전보인데 연락을 받자마자 집에까지 전해 주는 전보가 있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택배인 셈이다. 특사 배달할 때 그의 기억에 남아 있는 사건이 있다. 밤늦게 특사 전보가 도착했는데 지금의 채운면 삼거리가 목적지였다. 특사 전보는 받는 사람의 도장을 받아야 했다. 그는 깜깜한 밤이라 외등도 없는 곳에 자전거 타고 갔다. 집을 찾을 수 없어서 이장댁에 들러 알아보았다. 그런데 전보를 받은 부인이 그냥 누워버리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내일 남편 있는 곳으로 이사 갈 준비를 마쳤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전보가 온 것이다. 남편은 강원도에서 트럭 운전수로 열심히 일해 기반을 잡아 아내

를 강원도로 불렀다. 살림살이도 일부 채운역에서 강원도로 보냈는데 덜컥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져 버린 부인의 얼굴이 그는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가 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월급은 많지 않아서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웠다. 그래서 직원들은 일을 하다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만둔다고 성질을 부리는 일도 있었다. 지금같이 신분이 보장되는 직업이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어려움이 많았다. 우체국에는 국장과 계장이 있었고 그 밑으로는 모두 직원이었다. 진급 가지고 경쟁하려는 사람도 있었지만 묵묵하게 근무하여 정년퇴직할 때 체신청장하고 호봉이 같았다. 그래서 우체국을 나올 때 무척 보람이 있었다.

그는 우체국 직원의 박봉으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살았다. 강경에는 부업거리가 많았다. 홀치기도 있었고 양말 코 만드는 것이 있었다. 아내가 그런 것들을 부업으로 해서 네 명의 자녀를 모두 대학에 보낼 수 있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도 연금으로 갚아 나가가고 있다.

| **강중선**(1943년생) 논산시 강경읍 |



보세가공 홀치기

1943년생인 강중선은 채산5리인 낭청에서 태어났다. 농사를 짓는 아버지 밑에 1남 3녀로 위로 누나 하나 아래로 여동생 둘이 살았다. 당시 동네 아이들은 거의 황산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사촌형제들과 산양초등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10시까지 과외공부를 하느라 늦게 집에 돌아오면 누나나 식구들이 등불을 들고 마중 나왔다. 그는 산양초등학교를 13회로 졸업했다.

일제강점기에 큰아버지가 홀치기를 했다고 한다. 사업 파트너였던 일본 교토에 있는

다쿠마라는 회사하고 사업을 했다가 해방이 되어 일본과 교류가 끊어지자 작업이 중단되었다가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고 나서 다시 거래를 했다. 홀치기는 일본 말로 시보리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입는 기모노 만드는 원단에다가 무늬를 넣기 위해 실로 뜨는 것이었다. 홀치기된 옷감을 일본에서 염색하여 옷을 만들어 팔았다. 그러니까 홀치기는 원료를 가공하는 일종의 보세가공이라 볼 수 있었다.

홀치기는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인 62년부터 민간 차원에서 원단을 수입하여 작업을 하였다. 그래서 그가 학교를 졸업한 해부터 큰아버지가 하는 홀치기 사업을 1년 반 정도 도와주다가 군대에 입대하였다. 군대에서 휴가 와서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엄청나게 번성하였다.

일본 오사카가 섬유도시라 홀치기 하는 회사가 많았고 교토에도 있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곳에서 물건을 받아 홀치기를 하여 전량을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당시에는 충청남도 강경과 경상북도 대구가 대부분의 일을 다 하였다.

홀치기도 수출 산업이라 수출 기한을 지키는 것이 무척 중요하였다. 원단이 몇만 장씩 나오면 그것을 홀치기 하는 가정으로 분배한다. 출장소나 회사가 있으면 총대리점 총대가 있고 반장이 있다. 그 총대는 많은 양을 갖다가 반장한테 나누어주면 반장은 자기가 관리하는 동네에 나누어 준다. 만약에 10월말에 선적을 해야 한다면 일본에서 강경으로 보내준 원단을 집집마다 나누어 주고 기한에 맞추어 다시 수거해 와서 검수하고 포장하여 일본으로 보내 주었다. 어쩌다가 불량품이 나와 일본 본사에서 클레임을 걸면 변상해 주기도 하였다. 또 여러 집에 나누어주다 보니까 수거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한 번에 5% 정도는 분실했다. 그러면 일본에다 변상을 하였고 우리나라에서 원단을 짤 수 있게 되었을 때는 다시 원단을 구입하여 다시 짜 주기도 하였다.

홀치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다. 어느 동네에 어떤 홀치기를 하고 어느 동네에서는 어떤 홀치기를 잘한다는 정보를 알게 되면 직접 홀치기 틀을 들고 동네를 다니면서 분배를 해 주었다. 일본에서 원단이 들어오면 직접 바쁘게 다니면서 나누어 주고 또 걷어오고 하였다. 원단에다가 꽃이나 구름을 그리고 점 하나하나를 홀치기 틀에 넣고 홀

치기를 한다. 그리고 염색을 하면 매듭이 져 있는 부분은 물이 들지 않아 꽃무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 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홀치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으로 만들지 않아서 일본에서 전량 수입, 전량 수출을 하였다. 원단도 일본에서 보내주고 모양도 보내주었다. 홀치기는 공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하는 가내수공업 형태였다. 그래서 강경에는 홀치기를 하지 않는 집이 없었다. 홀치기는 1985년까지 성했는데 1990년도부터는 줄어들다가 지금은 홀치기 하는 집이 없어져 버렸다.

홀치기 재료는 비단 원단과 실이었다. 실은 당시 강경에서도 만들었다. 가늘면 60수 굵으면 40수라고 하였다. 무늬는 일본에서 보내왔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고 샘플도 보내온다. 원단이 오면 강경, 논산, 부여, 전주, 안양, 서울까지 여러 집에다 맡겼다. 정확히는 몰라도 대략 몇만 가구에다가 분배하였다. 홀치기 하는 공장 수가 15개로 남선, 한광, 이성, 삼미, 큰 공장은 미왕 등이 있었다. 본사는 서울에 있고 강경에는 모든 회사의 출장소가 다 있었다. 이렇게 많으니까 서로 경쟁이 되어서 아래로는 전주 임실까지, 위로는 안양 서울까지 보냈다. 임실은 직접 가서 가르쳐서 홀치기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발하였다.

가장 어려운 것은 농번기였다. 모심을 때나 가을에 추수할 때는 물량 맞추기가 무척 어려웠다. 그러나 농한기가 되면 생산량이 많이 나왔다. 홀치기를 하면 장당 200-300원 정도를 주었다. 비싼 것은 한 필 짜는데 2만 원 정도 주었는데 원단도 크고 무늬도 어렵고 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돈을 많이 주었다. 기술이 좋은 사람들은 서로 경쟁이 되니까 2만 원짜리면 2천 원 정도 웃돈을 주기도 하였다.

그의 집은 직원이 4명 정도 있었다. 홀치기를 나누어 주고 걷어 오려면 오토바이가 가장 좋았다. 좁은 길도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안양까지 간 적도 있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원단 나누어 주고 완성품 수거하고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다. 납품할 때는 지금처럼 자동차 운송이 없어서 주로 대한통운을 이용했고, 서울 본사에서는 그것을 받아 포장을 해서는 부산까지

는 비행기로, 부산에서는 배로 일본에 보냈다.

강중선은 큰집에서 공장을 운영했다. 그래서 자연히 큰집 일도 하였고 대구에 있는 큰 공장 하청도 대리점 식으로 운영을 했다. 당시 공장을 한 사람들은 백만 불 수출까지 했는데 보통 홀치기 하는 물량이 출장소를 갖고 있는 회사보다 더 많이 했다. 1년 수입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했고, 홀치기 사업은 강경 지역의 경제 발전에 일익을 했다. 홀치기가 강경을 먹여 살린다고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수입 유발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들이 오니까 여관업, 식당업, 운수업 등도 덩달아 장사가 되었다.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강경을 위한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사단체인 라이온스클럽에 가입하게 되었고 회장까지 하였다. 또 강경중학교 육성회장도 했고, 강경읍 번영회장도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였다. 그 결과로 초대부터 5대까지 시의원에 선출되어 고향인 강경의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였다.

계룡시

| **정제환**(1936년생)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기억하다

정제환은 1936년생이지만 출생신고 상으로는 1938년 12월 13일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 금암리(현 충청남도 계룡시 금암동) 출생이다. 부모님은 원래 논산군 가야곡면 조정리에 사셨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탑정리 수리조합을 결성하고 저수지를 축조하는 통에 금암리로 이주하였다. 탑정지는 1941년부터 공사하여 1944년 무렵 조정리 일대에 축조되었다.

그의 기억에는 부모님이 사시던 조정리의 지명과 저수지에 대한 흥미로운 일화가 있

다. 조정리는 한자로 '낚시 조(釣)' 자에 '정자 정(亭)'이다. 즉 낚싯대를 드리우는 정자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저수지가 없던 시절의 지명이 이러했는데 공교롭게도 일제가 부모님이 사시던 터전에 수리조합을 결성하고 훗날 저수지가 그곳에 생긴 것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풍수지리설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한다. 풍수지리에 대한 그의 관심은 수도 내지 국가중요기관의 계룡시 이전 열망으로도 표출된 적이 있다.

그는 3남 1녀의 4남매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다. 위로 큰형은 30대에 돌아가셨고, 둘째 형과 바로 위 누나는 몇 년 전에 모두 돌아가시고, 형제 중에는 자신만 남은 것에 대하여 제일 못난이가 명만 길다고 자조하며 아쉬워하였다. 비록 춥고 배고프던 시절이었지만 어린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애쓰시던 부모님의 지극한 사랑을 잊지 못한다. 그는 어렸을 적 어머님이 끓여 주시던 콩죽을 여섯 그릇까지 먹을 정도로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을 좋아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장수하면서 잘 살아 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하늘의 도움 덕분이라고 여긴다.

그는 후덕한 인상과는 달리 치열한 현실인식과 확고한 정치적 신념을 지녔고 누구에게든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사람이다. 그에게 현실인식의 출발점은 언제나 일제강점기이다. 그는 보릿고개가 여전하였던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쌀뒤주까지 뒤져서 쌀을 공출해가고, 특히 일곱 살 때 자신이 쓰던 예쁘게 생긴 놋 식기를 빼앗아간 것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현실에 대한 그의 비판 의식은 군대시절에 성장했다. 포천 26사단에 복무하다 전후방 교체로 전주 35사단으로 와서 있을 때 겪은 3·15부정선거이다. 갑자기 연병장에 병력을 모아놓고 "이승만과 장면에 대해서 화랑담배가 낫다. 건빵이 낫다. 장면도 이 박사보다 못한 인물이 아니다." 등의 내용으로 ○×를 해서 소원수리를 거두어 간 적이 있었다. 이후 그에게 "너는 이 박사 찍을 놈이 아니다"라며 투표권이 나오지 않았다. 일제의 만행과 자유당정권의 부정부패에 비판적이었던 그는 '국민을 배고픔에서 면하게 하겠다'는 명분으로 등장한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정책에 강렬하게 호응하였다.

우리나라의 산림은 해방 이후 무분별한 남벌로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6·25전쟁을 거

치면서 전국의 임야는 요즘 북한의 민둥산처럼 황폐해졌다. 1960년대부터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녹화사업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국토를 푸른 강산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녹화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원조 밀가루를 효율적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박정희 정부는 시골의 농민들에게 묘목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산에 일정량을 심으면 원조 밀가루를 수고비의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통일벼가 나오기 전인 1960년대까지만 해도 보릿고개를 면치 못했던 절대 식량부족의 시절이었다. 그런데 미국에서 무상으로 원조 받은 밀가루를 그냥 나누어주기보다는 농민들이 나무를 심는 대가로 지급함으로써 녹화사업의 추진과 농촌의 식량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았던 것이었다. 더군다나 지금과는 달리 밀가루는 옛날에는 매우 귀한 식재료였다. 그래서 그는 국수, 부침개, 수제비 등 밀가루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만들어 먹었다.

절대 식량이 부족했던 시절에 식목사업을 농민들을 강제동원에 그치지 않고 원조 밀가루를 식목에 대한 대가 형태로 지급한 것은 요즘 말로 '신의 한수'에 가까운 정책이었다. 전국적으로 헐벗은 민둥산에 나무를 지속적으로 심으면서 그 반대급부로 헐벗은 농민들의 주린 배를 원조 밀가루로 채울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중학교 1학년만에 학업을 끝내고 군대에 가기 이전까지 객지에서 경제활동을 했다. 26살에 군복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고향인 금암리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로타리클럽을 비롯 농촌활동을 시작하여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운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하여 마을의 도로확장과 지붕개량사업 등을 주도하였다. 28살에는 결혼적령기를 지난 아들을 염려하는 어머니의 성화로 같은 마을에 살던 전주이씨 집안의 처자와 혼인하여 본가에서 신접살림을 시작하였다. 그는 곧 동네 사랑채 하나를 얻어 분가하여 이곳에서 1남 3녀를 낳았다.

그가 평생 영유해 온 영농활동 가운데 가장 빛나고 성공적이었던 일이 있다. 바로 계룡시(당시 논산군) 최초의 비닐하우스 재배를 시작한 것이다. 불과 2백여 평의 농사를 짓다가 처음으로 동네 텃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참외나 수박을 심기 시작하였다.

그가 비닐하우스 재배에서 대박을 터뜨린 것은 상추를 심으면서부터였다. 상추는 전형적인 여름 채소인데다가 배추 같은 야채에 비해 보관 또한 쉽지 않아서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상추는 계절과 상관없이 언제라도 신선한 상태에서 공급이 가능했고 육식이 점차 보편화되던 시기와 맞물려 생각 이상의 커다란 수입을 안겨 주었다. 상추 하루 매출 수입이 당시 면서기 한 달치 임금과 같을 정도였다고 한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주민들에게도 비닐하우스 재배를 부지런히 권유하였고,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고소득을 올리며 자녀들까지도 고등교육을 시킬 수 있었다. 그의 비닐하우스 재배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판하던 주변 마을들도 나중에는 비닐하우스 재배에 점차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부모님이 원래 살던 지역과 마찬가지로 비결(祕訣)이나 구전으로 전하는 계룡시의 수도설에 대한 당위성 및 풍수지리적 견해를 강하게 믿고 있다. 이미 행정수도로 지정된 세종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그는, 굳이 수도가 이전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청와대라도 계룡시에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최용규**(1933년생) 계룡시 신도안면 석계리 |



내 고향 신도안

최용규는 본관이 전주최씨이고 1933년 2월 4일 생이며 신도면 석계리 155번지에서 누나가 다섯인 1남 5녀의 6남매 중 막내이자 외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계룡시의 토박이로서는 특이한 가정환경을 지녔다. 할아버지는 원래 서울 종로구 주교동에서 거주하며 관직 생활을 하던 중 일제의 지배가 시작되자 인척이 사는 진잠(원내동)으로 낙향하였다. 서울에서 가져온 가산을 밑천으로 요즘의 주식거래에 해당하는 미두(米豆)에 투자하여 한때 수천 가마니의 미곡을 운용하였으나 투기자본의 유입으로 미친듯이 폭등하던 미두값이 폭락하자 수천 석의 손실을 입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삼형제의 장남이었던 아버지는 신도안이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시 두마면 신도안, 숙부는 양촌면 신양리로 각기 이주하였고, 미혼인 고모는 진잠에 남았다. 아버지는 한학을 제대로 수학하여 신도안으로 이주한 후에 면서기 등을 지냈다. 어머니는 신식군대의 장교였던 외할아버지의 슬하에서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재원으로 어려운 가정형편을 타개하기 위해 교사가 되어 양촌초등학교, 연산초등학교, 부여초등학교 등지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집안의 장손이자 외아들이어서 엄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서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신여성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아홉 살 때 어머니의 명으로 밥을 짓는 것을 배웠을 정도였다.

그는 1940년 신도안의 신도초등학교에 입학하여 6회로 졸업하였다. 1940년대의 초등학교 시절은 전시총동원체제여서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어로 수업을 받았으며 교사들이 칼을 차고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체벌도 심하였다. 그런 탓에 지금까지도 일본어를 잘 한다. 그는 여덟 살에 입학하였는데 당시 동기들 중에는 그보다 연배가 몇 살 높은 나이배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에 종군위안부와 관련한 기억이 있다. 6학년 때 장가를 간 친구가 둘이나 있어서 궁금했었는데, 어린 여성까지 종군위안부에 끌려갈까봐 조혼(早婚)을 한 것이었다. 신도안에서도 '정신대'라는 명의로 위안부를 차출했는데 마을마다 인원을 배당하였다. 다행히도 마을에서 끌려간 사람은 없었다. 그는 당시의 생생한 기억과 함께 끌려간 소녀들이 누나와 같은 연배여서 더 깊은 연민을 느끼고 살았다.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여 5년간 공부를 못하였다. 수업은 안 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관솔을 채취하는 일에 동원되거나 모내기에도 동원되었다. 이외에도 풀베기, 퇴비 만들기 등 강제노역을 하였다. 남벌로 인해 계룡산 국사봉을 중심으로 나무가 없는 빨간 산이었다. 해방될 무렵에는 있지도 않은 미군폭격에 대비하여 6학년 학생들이 조를 짜 원두막에 모여서 하늘을 감시하였다.

당시 신도안에는 천도교 계열의 신도초등학교와 불교 계열의 신성초등학교 등 두 개

의 초등학교가 운영될 정도로 인구가 번성하였다. 그가 입학하던 1940년에는 입학생이 80여 명이었다. 당시 신도안은 종교적 이유로 전국에서 가산을 정리하여 모인 사람들이 거주하였고 두계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5일장이 섰다. 부남리 대궐터가 당시 신도안 장터로 엿공장과 냉면집이 많았다. 냉면집은 아마 충청남도에서 최초였던 것 같다. 신도안에 냉면 먹으러 강경경찰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왔을 정도였다. 엿공장도 성황이었다. 밤새 목포에서 올라오는 열차에 엿을 실어서 남대문 시장에서 판매하였는데, 공장은 대체로 소규모 가내수공업 형태였다.

그가 고등학교(6년제 대전공업중학교) 2학년 때 6·25전쟁이 터졌다. 그는 학교가 있던 대전에서 집으로 돌아와 산속에 숨어 있었다. 북한군에게 끌려갈까봐 매일 도시락을 싸들고 지게 지고 산에 가서 하루 종일 나무를 해서 내려왔다고 한다. 인천상륙 이후에는 신도안에 미군과 국군이 주둔하면서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이 되었다. 신도초등학교와 천도교 회당에 북한군이 집결하여 약탈을 하였고, 계룡산에서 학살을 하였다는 북한군의 진술을 듣기도 하였다.

그는 당시 학생신분이라 머리를 박박 깎았는데, 그 모습이 북한군처럼 보였는지 대전의 도청 앞마당으로 끌려갔다. 영락없이 포로수용소 행이었는데, 마침 미군통역을 하고 있는 학교 영어담당 교사 김용목 덕분에 네 명이 구사일생으로 풀려났다. 다른 학교 친구들은 거제포로수용소 끌려가서 생사불명 되었는데, 그 중에 곽흥원이라는 마을 친구가 포로수용소에 끌려간 이후 행방불명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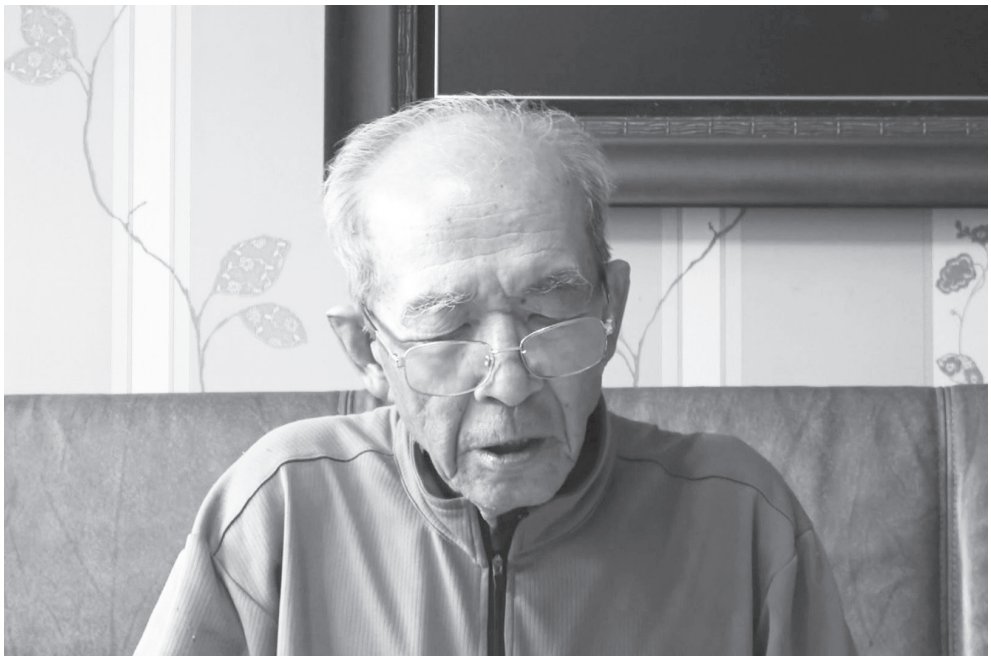
아버지가 술과 담배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지병인 천식으로 1947년 사망한 이후 그의 집안에는 큰누나가 엄마 역할을 하였다. 누나는 서울에서 간호원으로 근무하면서 초등학교 입학선물을 보내주기도 했고 해방 후 고향으로 내려와 산파 일을 하면서 그를 챙겼다. 신도안에서 최 산파 모르면 간첩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하였다고 한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충남대 물리학과에 입학하였으나 중퇴하고, 고려대 농학과에 편입하였다. 졸업한 후에는 서대전 네거리 근처 기독교 농민학원 교사로 부임하여 계몽, 농촌지원, 농촌교육을 하였다. 특히 젖소가 한 마리도 없을 때 선교사가 미국에서 가축

을 수백 마리 들여오면 분양하는 일을 맡았다. 청소년기부터 기독교에 관심이 있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대학 졸업 후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그는 대학 졸업 이후 은퇴할 때까지 외지에서 사느라 신도안에 대해 관심을 갖지 못하였으나 은퇴 이후 계룡시로 내려왔다. 고향에서 하우스시설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 키우기도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있다.

| **최재영**(1936년생) 대전시 유성구 덕명동 |



신도안을 지켜온 선비

최재영은 전주최씨이고 본래 1936년생이지만 호적상 1937년생으로,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에서 태어났다. 형제는 2남 4녀 6남매로 위로는 형과 세 명의 누나,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가 있다. 형이 환갑도 못 넘기고 일찍 돌아가셨고 장조카와 셋째 조카도 세상을 떠서 외아들처럼 지냈다. 남선리는 그의 16대조가 조선초기 단종(端宗) 때 입향하여 대대로 세거한 곳으로 16대조의 묘소가 있다. 그의 16대조는 태조 이성계의 셋째 아들인 익안대군(益安大君)의 손자사위이기도 하다. 따라서 남선리의 유력 성씨 중 하나인 전주이씨와 매우 가까운 사이이다.

그가 6살이 되던 해에 홍역을 앓던 중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사업하던 숙부의 초청으로 도일(渡日)하여 현지에서 5년간 거주하다가 해방되기 전에 귀국하였다. 원래 자식이 없던 작은아버지가 차남이었던 그를 아들 삼아 일본에서 대학교육까지 시킬 계획이었으나 해방이 되면서 무산되었다. 태평양전쟁 때 야마구치에 거주하던 시절, 그곳의 지명들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가 만난 일본인들은 친절한 편이었다. 또한 고모부가 제일 먼저 일본에 유학으로 정착하게 되어 어머니와 함께 기차를 타고 도쿄에 살던 고모댁을 방문하였던 일도 기억에 선명하다.

현재 그는 젊은이들과 농담 주고받는 것을 즐기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다. 어려서 일본에서 돌아와 남선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전중학교와 대전고등학교를 마쳤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면서기를 할 수 있었던 시절에 당시로서는 충청남도와 대전의 명문이었던 대전고등학교까지 마쳤다는 것은 요즘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 학력이다.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대학진학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모님의 가업인 농사를 물려받고 부모님을 모셔야 했기 때문이었다. 대전중학교에 진학하게 되면서 기차를 타고 통학하였다. 당시에는 두계역에서 친구들과 함께 통근열차를 이용했다. 통근열차는 석탄을 때서 수증기의 힘으로 가는 기차여서 오르막 구간에서는 열차가 뒤로 밀리는 일도 많았다. 그래서 설령 출발 시간을 놓쳤어도 오르막 구간까지 재빨리 뛰어가면 기차에 올라 탈 수 있었다. 대전중학교 재학 당시 6·25전쟁이 났는데 학교에서는 수업을 중단하고 모두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다. 그날 예기치 않게 학교가 일찍 파하자 철길을 따라 대전에서 신도안까지 걸어왔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후 군대를 다녀왔다. 우리나라 중동부 최전방인 강원도 철원에 김일성고지와 오성산이 보이는 곳에서 근무하였다. 군복무 중 천운(天運)으로 목숨을 부지한 불발탄 폭발사건을 경험하였다. 6·25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치열한 전장이었던 전방에서는 겨울철에 지뢰나 불발탄이 폭발하는 사고가 비일비재하였다. 당시 그의 부대 근처에는 로켓포 사격장이 있었는데 사격 후에 떨어지는 로켓탄 파편의 재질이 양은이어서 값이 꽤 나갔다. 군인들은 이것을 주워다 팔

아 휴가비나 막걸리 값에 충당하고는 했다. 당시 동료 하사 둘이 파편을 주우러 같이 가지고 하기에 조금 있다 가겠다고 하고 기왕에 식사나 하고 가자고 식당 문에 들어서는 순간 로켓포 사격장에서 폭발음이 났다고 한다. 아마도 파편들을 줍다가 불발탄을 잘못 건드려 폭발한 것이라 하였다. 한 사람은 현장에서 폭사하고 다른 한 사람은 병원으로 운송 도중에 사망하였다고 한다. 그때 당시 그 현장에 갈까 말까 망설였던 상황을 떠올리면 그는 아직도 아찔하다.

그는 경상도 출신의 아내와 스무 살 무렵에 결혼하여 여섯 남매를 두었다. 본관이 영춘이씨인 부인은 원래 경상북도 안동지역이 본거지였으나 빨치산의 준동을 피해 할아버지가 일가를 이끌고 신도안 백암동으로 이주하였다. 신도안으로 이주하게 된 데에는 불법을 배우기 위해 계룡산에 먼저 들어와 살던 삼촌이 있었던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신도안에 온 후 체장사 할머니의 주선으로 부인의 조부와 그의 어머니가 약조하여 한 달 만에 전통혼례를 올리게 되었다. 당시 그의 집안 형편은 어느 정도 넉넉한 편이었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소작을 주거나 일꾼을 집에 두기도 했을 정도였다. 또 오토바이를 타고 대전 수통골로 놀러 다닐 만큼 술과 풍류를 꽤나 좋아하고 즐겼다.

1983년 전두환 정부에서 시행한 이른바 620사업으로 대대로 살아온 터전이었던 마을과 농토가 전부 국방부에 수용되면서 토지보상을 받고 이주하게 되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계룡대 뒤 쪽에 5정보 정도 되는 임야가 남아 있는 것이다. 또 8대조와 증조의 묘소는 보상에서 제외되어 1년에 추석과 설에만 성묘를 간다. 대대로 살아온 터전을 수용 당한 것에 반대하는 마음조차 품을 수 없었던 것은 전두환 정권의 압력 때문이었다. 낙천적인 기질을 지닌 그는 그나마 "조상님들 유업으로 전부 보상 받아서 애들 교육시켰지 거기 있으면 아마 애들 교육 못 시켰을껴."라며 620사업으로 계룡시로 발전하고 자녀들 모두 고등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슬하에 4남 2녀의 6남매를 두었다. 자녀 셋은 대학을 졸업시키고 나머지 셋은 대학원까지 공부를 가르쳤다. 지금도 한 집안에서 자녀 한두 명 대학 보내는 것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일인데, 30여 년 전부터 여섯 자녀를 대학은 기본이고 대학원까지 가르

쳤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토지보상금으로 남들처럼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회지에 나가서 건물 또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안락한 삶을 누리는 대신에 백년대계라 할 수 있는 자녀교육에 투자한 것이었다. 아마도 자신이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가업을 잇느라 대학진학을 포기해야 했던 아쉬움을 자녀의 교육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 **김용호**(1933년생) 계룡시 엄사면 광석리 |



광석리 토박이

김용호는 광산김씨이고 1933년 3월 6일생이다. 그에 의하면 광산김씨는 20대조가 낙향하여 지금의 논산 일대에 입향하였고, 그의 집안은 할아버지가 양촌면에서 두마면으로 이주하여 지금까지 살게 되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와 그는 모두 광석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1남 1녀의 남매로 태어나 위로 누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다. 증조할아버지나 할아버지는 양반 집안이라고 직접 농사는 짓지 않았고, 할아버지는 한일병합 전에 말단직 공무원으로 종사하였으나 그마저 그만두었다.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는 1936년

경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7년 정도 체류하였고, 그의 어린시절 기억에 아버지와의 추억은 별로 없다. 아버지는 한문과 비결에 능통했던 할아버지 형제들이 일본이 망하니까 화를 입기 전에 들어오라고 해서 1943년에 귀국하였다. 일본에서 돌아온 아버지는 수리사업의 일환으로 두마면에 최초로 수리시설을 만들어서 저수지를 축조하였다. 저수지를 축조한 이후로 광석리는 논농사에서 앞서가는 마을이 되었고, 인근 지역은 해방 이후에 비로소 저수지 시설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여덟 살에 도곡리에 있던 도곡간이학교에 입학하여 2년 다닌 후 졸업하고 신도초등학교 3학년으로 편입하여 다니다가 해방 후에는 5학년 때 두마초등학교로 전학하여 그곳에서 졸업하였다. 해방시기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어서 해방되고는 오히려 더 살기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5·16 이후부터 형편이 조금씩 나아졌다.

초등학교 졸업 후 대전의 성산중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아버지가 1947년 무렵 사망하는 바람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우선 어린 나이지만 집안에 유일한 남자라 호주 노릇을 해야 했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수업료를 부담할 형편이 되지 않아 몇년 후에 복학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학교를 그만 두었다.

그러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여 배움의 기회는 더욱 멀어져 갔다. 그럼에도 그는 강의록으로 독학을 하여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여 당당히 합격하고 서산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쌀 서 말 값에 해당하는 공무원 월급으로는 도저히 하숙비조차 충당이 되지 않아 포기하였다. 논산이나 대덕으로 발령만 내주었어도 공무원 생활을 이어갔을 것이다.

스무 살에 중매로 정장리 토박이였던 전주이씨 집안의 부인과 결혼하였고 스물셋에 경기도 1사단에 입대하였다. 그러나 독자인데다가 부양식구가 많아 1년 만에 의가사 제대하였다. 자녀는 군 입대 전에 둘을 낳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모두 죽고 현재 남매만 있다.

5·16 이후 그는 정치활동과 농촌운동을 병행하기 시작하였다. 주변의 권유로 당시 국

가재건최고회의에서 조직한 공화당에 입당하여 정당활동을 시작하였다. 농촌운동은 상록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는데, 상록회는 이후 4H운동으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는 새마을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그는 도로개량, 주택개량, 관정공사, 사방공사, 교량공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진행한 관정공사로 인해 광석리의 논농사는 일대 혁신을 가져왔다.

그는 1960년대부터 농촌의 발전을 위한 정당 활동과 새마을운동 경험을 발판 삼아 1980년대 이후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헌신하였다. 우선 농협조합장을 20여 년간 맡았다. 계룡시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논산군정 자문위원을 맡아 유동리의 공동묘지 이장을 추진하여 인근 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였다. 1990년부터는 지역의 시 승격을 목표로 계룡시추진위원장을 맡아 14년간 활동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계룡시에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대전시청과 협의하여 대전 시내버스 노선 세 개를 유치하였다.

그는 광석리의 지명이 원래 우리말로 비단을 널었다는 뜻을 지닌 '나분들'이었고, 한자로는 넓을 광(廣) 자를 썼는데 일제가 빛 광(光) 자로 바꾸었다고 한다. 광석리는 전통적으로 동계를 결성하여 두레를 행하였고, 정월 보름날에는 산신제를 지냈는데, 나중에는 미신이라 하여 산신제는 폐지되었고 산제당도 파괴하였다고 한다. 대보름에는 쥐불놀이를 했는데 이웃 유동리와 논두렁에 불을 놓고 사흘 혹은 나흘에 걸쳐 마을대항전을 펼쳤다. 여름에는 칠월 칠석 이후에는 백중날 동네끼리 씨름대회를 벌였고 가을에는 학교운동회와 추석날 축구시합을 벌였다.

옛 계룡시에서 가장 큰 장터였던 두계장에 대해서는 두계장 국밥의 추억이 특별했다. 특별히 볼거리나 먹을거리가 마땅치 않던 시절에 두계장의 국밥이 유명해서, 시골사람들이 장에 오면 그것을 먹고 갔다. 국밥은 조선 후기 장시가 발달하면서 발생한 우리나라 최초의 패스트푸드로서 조선 후기 화가 김홍도의 〈단원풍속화첩〉 중 '주막도(酒幕圖)'에는 국밥을 먹는 모습이 묘사될 정도로 서민들의 인기 외식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한 국밥의 전통이 두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었다. 한편 두마면의 명물인 팥거리

에 대해서도 유래와 현황을 알고 있다. 태조 이성계가 신도안에 도읍하기 위해 공사를 하는데 당시 인부들에게 팥죽을 쒀서 팔았던 데서 유래하였고 현재는 1년에 한 번 '팥거리축제'를 연다.

신도안과 당시 모여 살던 종교인들에 대한 그의 기억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이다. 우리나라 십삼도 사람들이 신도안에 다 살았는데 생각해 보면 대체적으로 선량했다. 또한 일제의 학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라 신앙심이 강하고 물건을 놓고 와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었다. 다만 일부 교주들이 혹세무민하고 신도들의 재산을 착복하는 일이 왕왕 있었던 것은 요즘 부정부패한 목사나 승려에 비견할 만하다. 여기서 살림이 어려운 주민들이 엿을 고아서 대전 등에 내다 팔았다.

| **우종성**(1939년생)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



농소리의 열두 대실

우종성은 본관이 단양우씨이고 농소2리 49번지에서 태어나 현재는 농소2리 231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다. 선대의 거주지는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동이었으나 해방 전 할아버지가 부여로 피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농소리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는 2남 2녀의 셋째로 위로는 6살 터울의 형과 3살 많은 누나, 밑으로는 여동생이 있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충청남도 건설국장 밑에서 촉탁 형식으로 일을 맡은 목수였다. 아버지도 목수 일을 배웠지만 그렇다고 목수 일에만 전념한 것은 아니고 집안에서 농사도 많이 지었다.

그는 조부모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고 자랐다. 특히 할아버지와의 추억이 많았다. 어린

그는 조부모와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먹기 싫어하는 보리밥을 할아버지가 드시고, 당신의 밥을 손자에게 주었던 일이 많았다. 또 밖에서 사고를 치고 와서는 부모에게 분명히 혼날 것이 두려워 할아버지가 계시는 사랑방에 숨었던 일도 있었다. 그렇게 손자를 아끼셨던 할아버지는 그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삼형제의 막내인데 큰아버지는 큰집에 양자로 들어가셨고, 둘째큰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신 데다가 둘째큰어머니도 재가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사촌들까지 건사하면서 실제적인 집안의 장남 역할을 도맡았다.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인자하고 정이 많은 분이어서 집을 보수하거나 수리해야하는데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집에서 며칠씩 무료로 집을 고쳐주었다.

그는 집에서 3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두마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당시 큰집의 사촌형이 대전고무공장 총무부장으로 있으면서 때로는 어머니를 비롯한 식구들에게 고무신을 가져다주었다. 그때 당시 고무신은 매우 귀한 것이었다. 해방 무렵에는 당시 마을 일을 보던 아버지가 배급으로 콩깻묵을 가져와서 그것을 먹기도 했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 6·25전쟁이 났는데 학교가 폭격을 맞아서 김장생 고택에서 수업을 받았다.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기억에는 없지만 선생님이 발가벗겨서 학생들 앞에 벌을 세우기도 했다.

두마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산중학교에 입학하였지만 형이 군대에 입대하는 바람에 집안의 농사일을 돕기 위해 1년을 휴학했다. 중학교 때 통학은 두계역에서 연산역까지 통근열차를 타고 다녔는데, 통학패스 끊으라고 받은 돈을 친구들과 함께 빵을 사먹고 20여 리 길을 걸어 다녔다. 그런 덕에 중학교에서 마라톤 선수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고등학교는 공부하기 싫어서 진학을 포기했다.

그의 아버지가 장가를 일찍 보내려고 하여 열아홉 살 때부터 중매를 열여섯 번이나 봤다. 그 중에 당시 논산군 광석면 항월리에 사시던 장인어른이 그를 어떻게 잘 봤는지 나중에 인연을 맺게 되었다. 본래 그는 군대 갔다 와서 직장도 잡은 연후에 천천히 결혼하려고 하였는데 회갑을 앞둔 아버지의 강권으로 우여곡절 끝에 결국 결혼하였다.

처갓집에는 훗날 경찰대학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사촌처남을 비롯하여 경찰에 투신한 처남들이 많았다. 결혼 전 대전역에서 근무하던 아내가 극장 구경을 갔는데, 처남의 주선으로 극장에 가서 처남과 인사하고 영화상영 중에 방송으로 아내를 불러서 첫 대면을 했다. 슬하에 자녀는 4남매를 두었는데, 큰아들이 스물두 살 무렵 회사 야유회에서 물놀이 중 불의의 사고로 죽어서 현재는 삼남매다.

그는 1960년대의 4H활동을 비롯하여 15년간 새마을지도자 등을 하면서 마을에 창고를 건축하였다. 또 지역에서는 초기에 농민들이 회피하였던 통일벼를 처음으로 재배하는데 성공하여 다수확 상을 세 번이나 수상하기도 하였다. 47세 이후에는 경찰에 있는 처남의 동창인, 송전철탑공사 사업을 하는 사람을 소개받아 그 밑에서 5급 공무원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다.

종교단체를 내보내기 전의 신도안은 질서가 굉장히 문란했다고 기억한다. "일례로 쉽게 얘기하자면, 애 못 낳는 사람들 와서 기도드리면 이게 애를 낳잖아요. 이런 것이 다 그게 문란한 짓이거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그의 발언은 반갓집 부녀자들이 사찰로 불공드리러 가는 것을 금기시하였던 조선시대에도 회자되었던 이야기이다. 그때의 신도안 모든 종교집단들이 다 그러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다만 일부 신흥종교에서 드러났던 현상이었을 것이다.

농소리는 태조 이성계가 신도안에 도읍을 하기 위해 내려와서 처음으로 도착하여 산신제를 지낸 곳이다. 이성계가 농소리에서 제사를 지낸 설화는 이른바 '열두 대실(大室)'의 지명이 탄생하는 배경이 되었다. 예로부터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 하여 농소리라는 지명이 붙었다 하고, 농소리에는 예전부터 '열두 대실'이라 하여 사자골, 원터, 가자골, 노동, 화재실, 용성말, 진말, 범말, 호염동, 섯밭 등 열두 마을이 있었다. 대실은 신도안이 도읍이 되면 고관대작들이 사는 큰 집을 뜻하며, 언젠가는 이 동네에 큰 마을이 생긴다 하여 이러한 지명이 생긴 것이었다. 동네에 있는 산의 지명이 '수당골'인데, 풍수지리설에 들어맞는 것인지 묘하게도 현재는 그곳에 계룡시에서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가 설치되었다고 한다. 또한 실제로 계룡시의 개발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이 되면 농소리는 전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그밖에 농소리의 전주이씨들은 화골에 거주하여 '화골이씨'라고도 부른다. 이 집안의 시조되는 분이 죽을 무렵에 자손들에게 농소리에 운중반월이 있으니 거기에다 자신의 묘를 쓰라고 하였다. 자손들은 고생 끝에 묫자리를 찾아서 묘를 쓰는데 까마귀 두 마리가 차례로 묘혈에서 날아오르는데 두 번째 까마귀를 누르고 거기다 묘를 써서 이후로 화골 사는 전주이씨 자손 중에 절룩다리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왕대리에서는 백중놀이를 한다. 예전에는 왕대리가 제일 높아서 왕대리의 깃발이 농소리로 오면 동네 기가 왕대리 기에 절을 하고 수건을 걸어주었다. 또 말을 타고 가는 사람들도 왕대리 기 앞을 지날 땐 말에서 내려 절을 하고 가도록 강제할 정도였다. 지금 유명한 연산의 백중놀이도 왕대리 백중놀이가 뿌리였다.

| **민병천**(1952년생) 계룡시 엄사면 도곡리 |



도곡리 애향심

민병천은 여흥민씨로 1952년 1월 12일 도곡리 배울에서 태어났다. 35가구 정도가 살던 배울은 한자로 '이동(梨洞)'이라고도 부르는데, 30여 년 전에 한 부자가 와서 산에 배나무를 많이 심은 데서 유래되었다. 그의 형제는 총 3남 6녀의 9남매로 그는 차남이다. 학력은 도곡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5회로 졸업하였다. 그가 14세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경제사정으로 더 이상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였다.

어린시절 학교에서 소풍을 갔던 향한리의 맨재골에는 거북바위, 용마바위가 있었고,

향한리 위에는 충남대학교 총장을 지낸 이정호가 세운 향적산방이 있다. 그는 논산군 씨름대회에 출전하여 4등에 입상한 적이 있었다. 30대까지는 대회에 줄곧 참석했다. 군대는 24살 되던 해에 입대하여 경기도 가평군 현리에서 35개월 복무하고 1976년에 제대하였다. 이른바 맹호부대라고 불린 수도기계화사단에서 군생활을 하였다.

그는 최연소 이장을 맡을 정도로 청년시절부터 마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여 많은 공적을 세웠으나 개인적인 삶은 그다지 순탄하지 못하였다. 그는 군대 제대 후 27살에 현재 대전국립묘지가 위치한 동네(현 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1동) 출신의 처자와 중매로 결혼하였다. 그의 아내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슬하에 네 자녀를 낳았으나 8년간 와병 끝에 결혼한 지 14년 되던 해에 사망하였다. 그는 부인의 치료를 위해 재산을 모두 처분할 정도로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부인 사후에는 4천만 원에 달하는 빚이 남았고 그것을 갚기 위해 고생하였다. 그는 부인 사후 3년이 되던 해에 재혼했다.

20대 최연소 이장이 된 그는 마을에서 새마을운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바탕으로 '종잣돈'의 마련이 큰 추진력이 되었다고 하였다. 즉 1976년무렵 박정희 대통령의 하사금과 관청에서 출자해 준 소득근거자금이 새마을운동의 경제적 밑천이 되었다. 당시 농협의 여신금리는 24% 정도의 고율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농민들은 엄두를 못 내던 상황에서 두 개의 자금은 마을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특히 대통령 하사금은 일개 면에서 한 군데만 책정되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획득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마을개량사업에 후배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참여시켰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 이웃 농소리와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정부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두마면에서는 그의 도곡2리와 농소리 두 군데가 대통령하사금을 받는 마을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오로지 자신을 잘 따라준 후배들과 매사에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준 마을 어른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한다.

그는 당시 자금을 활용한 사례 중 가장 잘 한 일로 한 마리에 8만 원가량 하던 소를 매입하여 한 가구당 한두 마리씩 소를 분양해 준 것을 꼽았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인 소를 가구마다 무상으로 분양하는 것은 매우 큰 일이다. 마을회관 부지

천백 평과 현재 '고향맛집'이라는 마을식당을 운영하는 부지 삼백 평을 매입하여 마을의 공동소유로 하는 등 마을의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밖에도 일부 개인이 소유하면서 방치되었던 5만 6백여 평의 동유림(洞有林)의 소유권을 마을공동재산으로 환원시켰고,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도곡리의 마을 발전에는 숨은 은인(恩人)들의 공로도 많았다. 그는 이들의 실명(實名)과 공적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특히 마을에 간이상수도를 자발적으로 설치하고, 학교 부지를 희사한 두 인물에 대해 크게 감사하였다. 도곡리가 예로부터 물이 좋기로 소문난 동네였다고 한다. 계룡산 치마바위로부터 발원하여 흐르는 도곡리의 물은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수량도 풍부하여서 기묘년(1939)의 큰 가뭄에도 도곡리에는 물이 마르지 않아 쌀농사를 지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한다. 그가 군대 가기 전인 1971년 무렵 마을에는 광산김씨 가문의 마을 유지였던 김용규가 간이상수도를 설치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전에는 마을에 위장병을 앓는 주민들이 많았는데 간이상수도 설치 이후로는 15년가량 수도물을 마시면서 모두 병을 고쳤다고 한다. 현재도 김용규의 자손이 마을에 거주하면서 마을주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도곡리에 있었던 간이 도곡초등학교는 김영천이라는 인물이 학교 부지를 기증하였기에 설립이 가능하였다. 지금은 폐교되었지만 학교 앞에는 김영천 공덕비가 세워져 있다. 김영천의 자손도 현재 계룡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제인 김정수는 현재 계룡시 노인회장 등을 맡아 지역에 봉사하는 등 지역의 일원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다. 특히 김영천은 현재도 그 후손들이 계룡시의 부자로 살 정도로 엄청난 땅을 소유한 대지주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존경의 말을 아끼지 않는다.

그가 어렸을 때 밖에서 일하다가 들 바닥에 앉아서 그대로 밥을 먹고는 했는데, 김영천은 말을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땅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 모습을 보고는 이내 말에서 내려 말고삐를 붙들고 걸어서 지나갔다고 하였다. 즉 말을 타고 가면 흙먼지가 날려서 아이들의 밥그릇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였던 것이었다.

| **김원호**(1936년생) 계룡시 엄사면 유동리 |



소라실 효자

김원호는 김해김씨이며 1936년 2월 19일에 7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광석리에 살던 부모님을 따라 소라실로 이주하였다. 아주 어렸을 때 일본에는 일봉에서 살았었다. 그는 다섯 살 되던 해인 1940년경에 부모님을 따라 일본 홋카이도로 이주하여 해방되던 해에 귀국할 때까지 5년간 살면서 일본의 현지 소학교에서 4학년까지 다녔다. 원래 그의 아버지는 광석리의 부자였는데 집안에 잘못된 일이 있어 가지고 가세가 기울자 돈을 벌기 위해 홋카이도의 탄광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서 온 가족이 일본으로 이주하였던 것이

었다.

그는 일본으로 갈 때 배의 갑판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귓속에 들어가 귓병을 자주 앓게 되었다. 일본에서 병원에도 다니고는 했지만 일찍 손을 쓰지 않아 결국 한쪽 귀의 청력이 매우 약해졌다. 일본에서의 삶은 대체로 만족했는데 학교나 병원시설이 잘 되어 있어 좋았다. 또 홋카이도에는 한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눈이 쌓이면 제설차가 치우는 광경도 어릴 적에는 매우 신기했다. 그곳에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쉬는 날 동포지간에 술 먹고 서로 싸우는 일이 많았다. 아버지는 원래 광산에 취업하여 돈도 벌고 아들을 대학까지 보낼 심산으로 일본에 갔지만 해방되면서 귀국했는데, 그는 서운한 마음에 아버지가 일본서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나오셨냐고 물었다. 아버지의 답변은 일본 사람에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1930년대 이후에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낸 80대 전후의 노인들이 추억하는 일제강점기는 1970년대까지 인구에 회자되었던 '왕년이 좋았지!'라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다시 말해서 광복 후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 거기에 더해 한국전쟁의 상흔과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일제강점기는 나름대로 그들에게 안정된 시기로 여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복 후 귀국하여 마을로 돌아온 그는 마을 사람들과 적응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심지어는 연배가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일본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의미가 담긴 '니뽄징'이라는 소리까지도 했다. 한편 아버지는 홋카이도 탄광에서 일하여 번 돈의 일부를 당숙이자 그의 종조할아버지가 되는 집안의 어른에게 꾸준하게 송금하였다. 종조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밭 4백 평과 논 천 평의 땅을 매입하여서 귀국한 후 가족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논의 경우에는 마을에서 가장 비옥하고 위치가 좋은 땅을 매입하여 나중에 이 논의 일부는 새마을운동 할 때 도로를 새로 내는 일에 기증하기도 하였다.

귀국하여 마을에 안착하는 과정에 가정에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는 일이 발생하였다. 당시 30대였던 아버지가 억울하게 좌익으로 지목되어 경찰서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 이후로 아버지는 74세에 운명을 달리할 때까지 정상적인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여생을 보내야 했다. 6·25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그의 가정은 좌우익이 극렬하게 대립하는 국면에서 이념분쟁의 제물이 되는 비극을 겪은 것이었다.

아버지가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져눕게 되자 그는 학교 수업료도 낼 처지가 되지 않아 초등학교를 중도에 그만 두어야 했다. 이후로는 가정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농사에 전념하였다. 더군다나 집안의 장손인 큰아버지에게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딸만 둘이 있어 그는 큰아버지의 양자로 입후(入後)되어 두 부모를 소라실에서 모시고 살았다.

그는 21살 되던 1957년 무렵 군대에 입대했다. 당시 지금의 이장에 해당하는 구장일을 보시던 아버지의 도움으로 좋은 곳에 배치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최전방에 배치되어 근무했다.

제대 후 그는 25살에 이모님의 중매로 양촌에 사는 주씨 성의 처자와 결혼을 하고 아들만 다섯을 낳았다. 그는 자녀교육 등에 필요한 경비 마련 방안으로 벼농사 외에 딸기농사를 시작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였다. 당시 딸기값이 좋아 딸기 '한 다라' 값이 쌀 한 가마 값과 같았다. 그 덕에 아들 다섯을 모두 고등학교에 보냈고, 아들 둘은 대학을 졸업했는데 특히 서울대 대학원에 다닌 막내아들은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그는 비닐하우스 딸기농사를 7~8년간 지속하였다. 지금의 '논산딸기'라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있기까지 그는 피땀 어린 정성으로 농사일에 전념했다.

광석리는 박정희가 정권을 잡고서 마을길을 넓히기 전까지 미나리가 특작물로 유명했다. 당시 미나리는 고급 반찬의 재료로 여겨져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는데 큰 몫을 담당한 작물이었다. 그의 집 앞에도 미나리꽝이 있을 정도로 미나리를 많이 심었던 광석리는 미나리마을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었다.

| **이상구**(1937년생) 계룡시 연화동 |



연화동 토박이

이상구는 전주이씨이고 1937년 1월 8일 생으로 지금의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정동에 해당하는 송정리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이후 그의 부모는 개울 건너 현재 살고 있는 집터로 이주하였다. 형제는 2남 3녀의 장남으로 완고하고 엄한 아버지 슬하에서 쌀농사와 인근 팔백 평가량 되는 밭을 일구면서 부모님을 봉양하고 평생을 살았다.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집은 부모님이 송정리에서 이사오면서 목수를 불러 직접 지은 집이다. 집 짓는 목재도 금산군 진산이라는 곳에서 수송하였다. 이 집에서 그의 동생들이 모두 태어났다. 그도 결혼하여 부모, 동생들과 이 집에 거주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가 거주하고 있는 연화동은 마을에 연꽃이 자라는 연못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집 뒤 감나무가 있는 자리는 예전에 광산김씨 부잣집이 정원을 꾸미면서 조성한 연못이 있던 자리이다. 엄사리라는 지명도 이 동네에 옛날에 엄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어서 지명이 거기에서 유래되었다고 알고 있다. 엄사리와 이웃한 신도안에 예전부터 삼백 몇 개가 넘는 다양한 종교집단이 위치하였던 것과도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연화동이나 엄사리가 모두 불교와 관련 있는 지명이기 때문이다.

그의 어머니는 함경도 사람이다. 그의 어머니가 고향인 함경남도 단천군에서 대전 근처까지 시집을 와서 인연을 맺은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이북 출신이어서인지 그가 어린시절 어머니가 해주셨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음식이라든지 혹은 외갓집에 갔던 일이 큰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어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가운데 삶은 감자에 호밀가루를 섞어 치대서 만든 감자범벅을 가장 맛있게 먹었다. 이 감자범벅은 쌀이나 보리농사를 거의 지을 수 없는 산지지형이 대부분인 함경도와 강원도 지방의 대표적인 향토음식이다. 또 부모님이 두계장에 장보러 다녀오시면 겨울에는 명태를 사가지고 오셨다. 명태 또한 함경도와 강원도의 동해안에서 잡히는 대표적인 수산물로 명태 말린 것을 지칭하는 북어(北魚)도 북쪽지방의 물고기, 즉 함경도에서 많이 잡히는 물고기라 하여 조선시대에 붙여졌던 명칭이다. 함경도 출신의 어머니는 고향의 생선인 명태를 사다가 무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조림을 하거나 찌개를 끓였다.

그가 어렸을 때 어린 여동생을 업은 어머니와 외갓집이 있는 함경남도 단천까지 여행하였는데, 함경남도 단천과 충청남도 대전까지 직선거리로만 따져도 무려 480㎞에 육박하는 장거리였다. 그는 어머니와 기차를 타고 올라와서 열차를 환승하기 위해 서울역에 내렸다. 12월이어서 어머니는 추위에 떠는 아들을 치마폭으로 폭 싸고 기차를 기다렸다. 서울역에서 경원선으로 갈아타고 종착역인 함경남도 원산(현 강원도 원산시)에서 내린 다음 원산에서 함경북도 종성까지 이어지는 함경선을 갈아타고 단천까지 갔다.

그는 집에서 2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두마초등학교에 입학하여 26회로 졸업하였다. 학교는 집으로부터 걸어서 삼십 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고, 동생들도 모두 같은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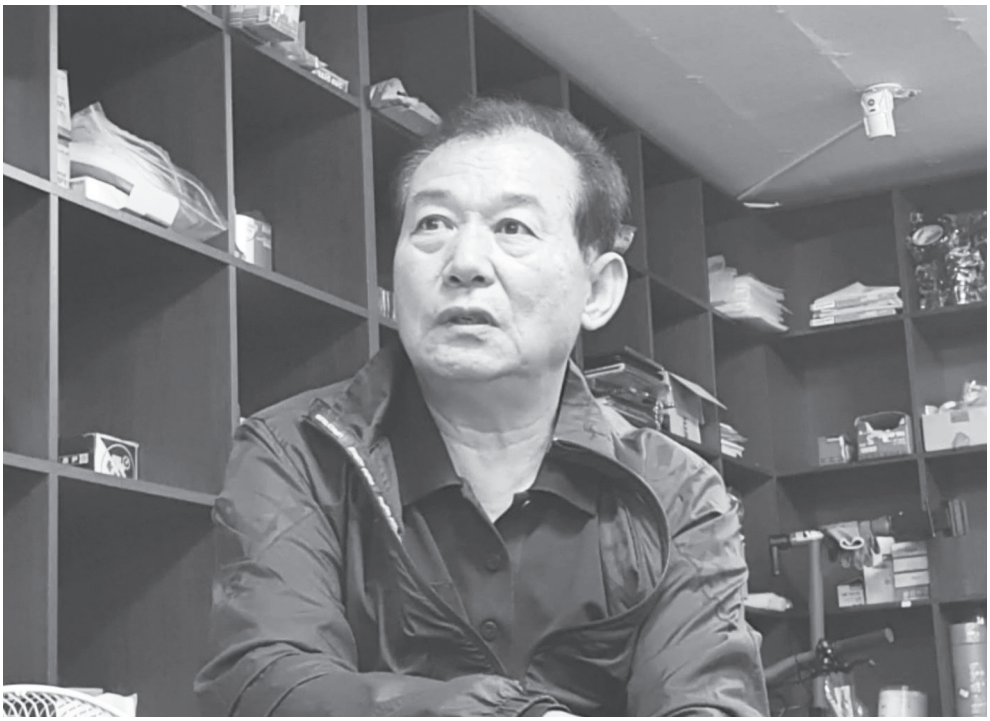
를 다녔다. 초등학교의 추억으로는 현재는 계룡대 관내에 있는 암용추로 소풍갔던 것이다. 암용추는 폭포와 웅덩이로 이루어진 계곡의 소(沼)로서 인근에 삼신당이나 제석당과 같은 절이 많은 곳이다. 그뿐만 아니라 계룡시의 다른 사람들도 어린시절 기억에 남는 소풍 장소로 암용추를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대전의 한밭중학교와 대전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원래 한밭중학교와 대전공업고등학교는 6년제 대전공업중학교였는데 학제개편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각기 분리된 것이다. 중학교는 통학과 하숙을 병행하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집에서 대전으로 통학하였다. 통학하는 교통편은 주로 두계역까지 걸어가서 통근열차를 이용하였다.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한 그는 장래 동생들의 진학문제 등을 고려하여 빨리 취직하여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 당시 유망해 보이던 광산과를 전공하였다. 그러나 친구와 함께 강원도 태백에 실습을 가서 열악한 근로환경을 체험하고 돌아온 후 취업을 하지 않는 대신에 부모님을 보시고 농사짓는 일과 가축 사육, 양계 등을 평생의 업으로 삼고 살게 되었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에 입대하였으나 훈련소에서 일주일 후에 귀향조치 되었다. 훈련소에서 입소한 장정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어렸을 때 손가락을 다쳐서 삔 것을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였던 것이 부적격 사유가 되어 면제를 받게 된 것이었다. 군복무 면제를 받고 나자 집안에서 혼인을 서둘렀다. 스물한 살에 유성 지족리의 처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자녀는 2남 3녀를 두었는데 어느덧 큰아들이 62세가 된다.

그는 한때 유선방송업에 해당하는 스피커 설치사업을 했다. 196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농촌에는 라디오를 보유한 가정이 드물었다. 그는 라디오에 증폭기를 연결하고 각 집마다 선을 깔아서 스피커를 연결하여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설비사업을 3~4년간 운영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국내 라디오생산이 급증하였고 5·16 군사정부의 '농촌라디오보내기운동' 등으로 라디오가 보급되면서 스피커 설비업을 중단했다. 스피커 설비업을 그만둔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하면서 5백 수 정도의 닭을 키워 계란을 생산하는 양계업을 하여 대전 등지에 내다팔아 소득을 올렸다.

| **이정기**(1954년생) 계룡시 두마면 왕대리 |



왕대리 효자

이정기는 무남독녀 외동딸이었던 어머니를 대신하여 5세 때부터 외가인 왕대리에서 외조부모를 모시고 아들이 없는 외갓집의 장손 역할을 도맡아 살아왔다. 그는 전주이씨로 선대의 고향은 논산군 가야곡면 양촌리다. 부모님이 결혼한 후 외갓집이 있는 왕대리 291번지에서 1954년 3월 16일 태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광산김씨의 무남독녀 외동딸로 집안에 손이 없다보니 그를 다섯 살 무렵 외가에 보냈다고 한다. 그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쪽에 와서 말벗이라도 하라고 데려다 주신 것이 이제까지 안 가고 여기서 있는

거예요."라며 연유를 밝혔다. 그는 7남매 중 장남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외가에서 살아온 탓에 바로 밑에 동생이 집안의 장남 역할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두마초등학교에 입학하여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통학하였다. 동네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냈고 친구들이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한다. 어렸을 때부터 외가의 지극한 사랑을 받은 그는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이라도 당할라치면 외증조할머니가 가만히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초등학교 졸업 후 그는 대성중학교에 입학하여 대전으로 통학하였다. 두계역에서 통근열차를 타고 서대전역에서 하차하여 학교까지 걸어갔다고 한다. 고등학교는 외조부모를 봉양하고 외가의 농사일을 도맡아야 했기 때문에 진학을 포기하고 17세부터는 본격적으로 농사에 종사하였다.

그는 군대에 입대하지 않고 방위복무로 군역을 마쳤다. 처음에는 중대본부에 배치 받아 주간근무를 하였는데 농사짓는 일에 지장 받는 것을 고려하여 2년 동안 파출소 무기고에서 야간경비를 서는 일로 대신 했다. 방위 복무를 마친 그는 1976년 4H연합회 논산지역 회장으로 활동하는 중에 당시 4H에서 만난 처녀와 1977년 결혼하여 3남매를 두었다. 부인도 광산김씨이고 그의 친가와 동향인 양촌리 출신이다. 그런데 그의 부인 항렬이 외할아버지보다 더 높았다고 한다. 이렇게 외가에서 외조부모를 모시고 살며 광산김씨의 부인까지 얻으니 주변의 광산김씨로부터 늘 좋은 평을 받고 살았다.

왕대리의 새마을운동은 그가 총각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할 무렵까지 전성기였다. 왕대리 새마을운동의 가시적인 성과로는 도로정비와 지붕개량이었다. 그는 1970년대부터 4H연합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논산지역 4H연합회 회장까지 역임하였다. 1982년에는 전두환 정권에서 육성한 전국 농업인후계자에 선발되어 선도농업을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 그는 지금의 계룡시 일대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비닐하우스 딸기농사를 시작하였다. 그밖에 1994년부터 4년 동안 이장 일을 보았고 농업경영회장 등을 하면서 마을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1990년대 이후로는 마을을 벗어나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에도 투신하였다. 2003년도에는 신도시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을 맡아 도청유치운동을 비롯한 시 승격을 위한 활

동을 펼쳤다. 결국 심대평 지사 시절 국회에까지 가서 입법 활동을 돕는 등 천신만고 끝에 계룡시로 승격을 보게 되었다. 한편 그는 계룡시 승격을 위해 노력한 산증인이면서도 계룡시가 비대화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예컨대 소비를 감당할 만한 지역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상권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자칫 외화내빈의 위험에 빠지는 것을 우려한다고 하였다. 그는 현재 상태에서 계룡시가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면서 계룡시의 승격에 물적 기반이 되어준 군부대와 지역이 상호 협조하여 계룡시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그는 공직생활을 시작하면서 농사는 거의 짓지 않았고 부인이 엄사중학교 인근에 독서실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차에 인쇄업을 하던 친구의 권유로 우연찮게 그 친구의 인쇄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현재는 두 아들이 물려받았다. 그는 최근까지도 지역 발전을 위한 활동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특히 계룡시가 "기왕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직접 실천에 옮겼다. 그러기 위해 만학도로서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수학한 다음 계룡시 푸드뱅크를 설립하여 500가구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하였다. 또 이동식 세탁차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등 지역 내 저소득층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차상위 계층의 생활향상을 위해 현재도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다.

그는 왕대리의 대표적인 민속으로 음력 7월 15일의 백중놀이를 꼽았다. 현재 연산백중놀이도 원래 왕대리의 것을 차용한 것이라 한다. 옛날에는 논산 일대에서는 왕대리가 제일 어른마을이었고 백중놀이의 백미인 마을의 깃발도 제일 컸다고 한다. 구술자는 아무래도 왕대리에 좌의정의 묘소가 있고 광산김씨 가문의 위세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래서 백중놀이를 할 때면 주변 마을의 작은 깃발들이 죽 모여서 왕대리 깃발에 절을 하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었다. 그는 시의회에 연산에서 가져간 왕대리 백중놀이를 원래대로 고증을 받아 제대로 재현시켜 보자고 건의하여 예술단체들이 무대를 가설하고 재현하는 것은 실현되었으나 동네 마을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

왕대리는 '산소마을'로 불릴 정도로 광산김씨의 문중 묘소가 많은 마을로서 가히 광산김씨 마을이라 이를 만한 동네이다. 그가 태어나고 거주한 외갓집 바로 옆에는 세조(世祖) 때 문신이었던 광산부원군 김국광(金國光)의 사당인 모원재(摹遠齋)가 있다. 김국광은 조선후기 사상계와 정계를 주도하였던 충청도 광산김씨의 터전을 닦은 인물이다. 그는 세조 즉위와 이시애의 난 진압에 공훈을 세워 좌의정에까지 올랐으며, 그의 부인 황씨도 세종 때의 명재상 황희의 손녀로 일약 명문가를 이루었다. 김국광의 5대손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은 이율곡의 적전문인으로 기호유학을 계승한 인물이다. 그 문하에는 아들인 신독재(愼獨齋) 김집(金集)과 '호서 5현'으로 불리는 송시열, 송준길, 이유태, 윤선거, 유계 등 기라성 같은 제자를 배출하였다. 이들과 그 후학들이 조선후기 사상계와 정계를 주도하였던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다. 또 인근 왕대리 299번지의 신원재(愼遠齋)는 김장생의 아홉 번째 아들인 김비의 재실이다. 신원재는 김장생 사후에 김비의 형제인 김집과 형제들이 1632년 함께 건물을 짓고 이곳에서 그의 조부 및 부친인 김장생의 저서 등을 정리하고 편찬하였던 유서 깊은 곳이다.

| **김영복**(1952년생)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



입암리 전화집

김영복은 김해김씨로 1952년 12월 10일 두마면 엄사리에서 2남 2녀의 4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다. 시집가기 전까지는 친정인 엄사리 연화동을 벗어난 적이 없는 엄사리 토박이이다. 그녀는 큰 오빠하고 띠 동갑일 정도로 나이 차이가 있어서인지 어렸을 때 고명딸처럼 자랐다. 배도 곯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그래서 그녀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잘 지냈다. 큰오빠는 그녀가 9살 되던 해에 결혼하였고, 둘째 오빠와 언니는 현재 대전에 살고 있다.

집에서는 당시 벼, 고구마, 콩 등을 농사지었는데 도시락으로 조밥을 싸주었다고 한다. 그녀는 갖고 가기 싫어서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은 적이 많았다. 그때 쌀밥을 싸갖고 온 친구가 자기는 조밥을 좋아한다면서 조밥을 싸갖고 오라 하여 서로 바꿔 먹었다고 한다. 또 그녀가 집에서도 조밥을 먹기 싫어하자 논산에서 시집 온 큰올케언니가 핀잔하지 않고 어린 시누를 위해 고구마를 쪄주기도 하였다. 그녀는 자기를 살뜰하게 챙겨주었던 큰올케언니에 대해 지금도 고마워한다. 아무튼 그녀의 어린시절 기억에 가장 싫었던 음식은 조밥과 뜨거운 국수였다. 그런데 그녀는 나이든 지금 어렸을 때 그렇게 먹기 싫었던 조밥과 국수가 좋다.

그녀는 두마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지금도 대전에 사는 학교 친구들을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난다. 어렸을 때는 공기놀이, 사방치기, 고무줄놀이 등 요즘 어린 여성들도 알 법한 놀이를 하고 놀기도 하고 당시 머리에 꽂는 실핀을 튕겨서 하는 놀이인 '삔놀이'도 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이었던 이현 선생님 외모가 그녀와 비슷하게 생겨서 '우리 외삼촌'이라 했는데, 아이들이 곧이곧대로 믿는 표정이 그녀는 우스웠다. 또 소풍도 암용추를 비롯하여 송정리 개바위, 왕대리 산소마을, 입암리 선바위 등 여러 곳을 다녔다. 운동회 때는 달리기를 잘 해서 학급 대항전이나 청백전에 선수로 나가기도 하였다.

집안에서는 두 명의 오빠를 가르치느라고 그녀는 중학교 진학을 못했다. 큰오빠는 대전에서 중학교까지 마쳤고 작은오빠는 대학교까지 졸업하였다. 그 당시만 해도 친정어머니가 아들 위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인데, 다른 집에서 딸을 대학교육까지 시키는 것을 본 친정어머니가 그때 그녀를 더 가르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것을 보고 위로를 삼았다고 한다. 진학을 하지 못한 그녀는 주로 집에서 1남 6녀를 출산한 올케언니의 아이들 즉 조카를 돌봐주는 일로 시간을 보내다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

같은 혈육이지만 한편으로는 남녀차별에 대해 억울하기도 하고 원망도 많을 법한데, 그녀는 한글을 모르던 사람들이 더 많았던 당시에 자기 이름 석 자 쓸 수 있도록 한글을 깨우치고 사칙연산 정도를 알 수 있게 해주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이상의 욕심은 없다고 하였다.

그녀는 23살에 결혼하였다. 평소 왕래가 있던 남편의 외할머니가 그녀를 눈여겨 두었다가 혼기가 차면서 시댁 쪽에서 서둘러서 혼인을 추진하였다고 한다. 그녀의 시댁은 경기도 안성시를 본관 소재지로 하는 양성이씨로 입암리는 집성촌이고, 그녀가 46년째 거주하고 있는 가옥도 남편의 증조부 때부터 4대에 걸쳐 거주한 고택이다. 결혼하기 전 남편을 대전에서 처음으로 대면하여 밥도 먹고 차도 마셔 본 그녀는 남편의 첫인상을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았다. 착한 남편은 차남이었지만 형이 외지로 나가는 바람에 농사와 제사 등 실제적인 장남의 역할을 도맡게 되니 그녀도 평생을 입암리에서 살게 되었다.

시부모가 좋은 분들이어서 그녀는 시집살이를 하지 않았다. 시집온 초기에는 1남 2녀의 아이들을 낳고 키우느라 시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다. 이후 시어머니가 편찮아지면서 그녀가 살림을 하게 되었지만 여느 집과는 달리 고부간에 가사를 분업하였다. 집에서 밥하고 반찬 하는 것은 그녀가 맡고, 장에 나가서 물건 사오는 것은 시어머니가 한 것이다. 그녀의 기억에는 어른들을 모셨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반찬이 있어야 해서 고등어를 많이 먹었다.

시누이와도 사이가 좋아서 임신한 그녀를 위해 시어머니에게 새언니 사탕 좀 사다주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사탕과 껌도 사다주었고 한다. 또 시어머니가 사 주었던 모직 원피스를 이후로 꽤나 오래 입었다고 하였다. 다정하던 시어머니가 고관절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대소변을 받아내고 뼈에 좋은 음식으로 1년간 정성껏 간호하였다. 그러나 환자에게는 워낙 불편한 시골집 구조 때문에 부득이 서울의 시아주버니 댁에서 모셔갔고, 이후 시어머니는 서울에서 치료를 받으며 7년간 지내다가 돌아가셨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서울로 올라간 날과 돌아가셨을 때 아쉽고 서운해서 펑펑 울었다고 하였다.

그녀가 시집왔을 때 시댁에서는 벼농사와 상추농사를 하였는데, 남편이 입암리에서는 제일 먼저 상추재배를 시작하였다. 상추의 수익이 좋아서 나중에는 철근으로 하우스를 크게 짓고 상추재배를 확장하였다. 그 덕분에 세 명의 자녀 모두를 대학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는 무릎관절이 나빠져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마친 후에는 상추농사를 그만 두었다. 최근에는 소일거리 삼아서 쑥갓을 심는다고 하였다.

입암리는 1970년대 후반에서야 전기가 들어올 정도로 오지였지만 시댁이 오래전부터 입암리 우편취급소를 했기 때문에 전화는 결혼 전부터 있었다. 우편물 취급 외에도 동네 주민이 외부와 연락할 일이 있어서 그녀의 집으로 와서 의뢰하면 우체국의 교환을 호출하여 전화를 연결시켜 주고 비용을 받는 일도 하였다. 또 우편배달부가 퇴근한 밤중에 긴급전보가 오면 남편이 대신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 때부터 동네에서 '전화집'이라 불렀는데 지금도 그렇게 부른다.

| **전봉선**(1946년생)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



천직 이발사

전봉선은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건장한 남성이다.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발사로서 이용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1946년 10월 9일 생으로 논산군 두마면 두계리 44-1(현 도로명주소로 계룡시 두마면 팥거리 1길 12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랫장터라고 하는 지역의 현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는 형제 없이 무녀독남 2대독자로 자랐다. 아버지는 충청북도 출신으로 진천읍에

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당시 명문이었던 강경상고를 나왔다. 금융업 고위층에 근무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병으로 그가 여섯 살 되던 해에 일찍 돌아가셨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다. 그는 사실상 어머니의 고향에서 나고 살았다. 선산이씨 집안의 어머니도 두계에서 태어났고 두마초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심지어 외갓집도 그의 집에서 불과 백 미터 정도 거리에 있었다. 한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도 그는 부유했던 외갓집이 덕에 크게 고생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여덟 살에 두마초등학교에 입학하여 35회로 졸업하였다. 집에서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여서 심지어는 점심도 집에 와서 먹었다고 한다. 당시 몇 킬로미터의 거리를 걸어서 통학하였던 친구들에 비하면 시내에 살았던 그는 매우 행복한 측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중학교는 연산면에 있는 연산중학교에 입학하여 11회로 졸업하였고 고등학교는 공고를 좀 다니다가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중퇴하였다.

군대 가기 전에 기술을 하나 익혀야겠다는 생각에서 그는 대전시 은행동 소재 동림고등기술학교에서 이발 교육을 받고 스무 살에 이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처음에는 대전 고려극장 인근에서 일하였다. 고려극장은 대전 동구 소제동에 위치하였던 1970년대 대전 동부지역에서 유일하게 큰 극장이자 재개봉관으로 대전 동부지역의 소제동, 신흥동, 대동, 자양동, 용운동, 가양동 등 주민들이 주로 찾는 유일한 영화관이었다. 이후 고향에 내려와 집에서 개업한 이후 총 54여 년을 이용업에 종사하였다.

그가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이용업을 선택한 이유는 친구의 권유로 양복기술을 배울 수도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발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지금 와서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양복이나 구두 기술이 당시로서는 평생 할 것만 같았지만 어느 새부터인가 공장에서 쏟아져 나온 기성복과 기성화에 밀려 쇠락하였다. 하지만 이용기술만큼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처럼 꾸준히 할 수 있는 직업이었다. 다만 이쪽 분야도 다양한 콘텐츠의 유사 업종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면서 손님이 예전 같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다.

그는 손이 귀한 집안의 2대독자로서는 의외로 결혼을 늦게 하였다. 서른 살 무렵에 결

혼을 하였는데 당시의 결혼 적령기를 봐서는 상당히 늦은 나이에 속한다. 부인 유명애는 대전 출신으로 결혼 무렵 포항에 거주하였는데, 중매로 대전에서 만나 선을 보고 신식결혼식을 올렸다. 결혼 후 부인은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슬하에 1남 4녀를 두었다. 손이 귀한 집안인지라 첫 자녀로부터 넷째까지 내리 딸만 넷을 낳고 다섯째로 아들을 얻었다. 본래는 아들을 한 번 가진 적이 있었는데 시사(時祀)를 가느라고 비가 내리는 날 임신한 부인이 경운기를 타고 농로를 가다가 유산한 적이 있다고 한다. 아마도 울퉁불퉁한 농로와 서스펜션 장치가 없는 경운기에서 고스란히 전달된 충격이 유산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은 두마초등학교와 용남중학교, 용남고등학교를 마치고 두 딸은 대학에 진학하였다. 특히 외아들은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아버지에게 이발 기술을 배워 현재는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월 삼백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직업관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풍토에서 대개의 부모들은 자신이 하는 일을 물려주기보다는 자녀들이 좀 더 나은 위치에서 출세하고 잘 살기를 바란다. 그 반면에 요즘 젊은이들은 넥타이 매고 책상물림하는 것도 좋지만 각기 개성에 따라 자신의 성취도를 중시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의 경우에는 특히나 3대독자인 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취했고, 아들 또한 기술을 잘 습득한 후 독립하여 자신의 입지를 단단하게 구축해 나가는 모습이 만족스러웠다.

그가 살던 집 근처가 예전에는 두마면의 시내권으로 가장 번화하였었는데, 계룡시가 개발된 이후로는 제일 낙후된 동네가 되었다. 예전에 두계에는 윗장터와 아랫장터의 두 곳에 장이 설 정도로 번화하였다. 냇가에도 장이 선 적이 있었는데 지역 어른들의 증언에 의하면 전염병이 돌아서 그것을 피하느라고 냇가에 선 것이라 하였다.

두계장터의 명물음식으로 그는 '국밥'을 꼽았다. 예전에는 두계장 옆에 쇠전[소시장]이 들어서 소의 부산물을 이용해 끓인 국밥이 그렇게 맛이 좋았다. 당시 두계 소시장은 논산군 벌곡면, 대전시 유성구 등 여러 지역에 장에 올 정도로 제법 규모가 컸다. 장날

이 되면 하루에 소를 한 마리 치울 정도였고, 기생을 둔 술집과 허름하지만 여관도 세 개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외지 사람들로 북적였던 두계장도 쇠전이 없어지면서 점차 장이 서지 않게 되었고 규모도 줄게 되었다.

고향에 대한 추억으로는 소풍 장소가 있다. 두마초등학교 다닐 적에 소풍으로 간 명소는 암용추 숫용추를 비롯하여 왕대리 개바위, 어느 때는 계룡산 상봉까지 갔었다. 두마초등학교 친구 중에 왕대리에 살던 박찬원이라는 동창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두마초등학교 교사로 부임을 와서 제자들에게 계룡산 상봉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해주니까 제자들이 믿지를 않기에 그가 자기 동창이니까 가서 물어보라고 하였다. 실제로 그 제자들이 이용원까지 찾아와 묻길래 사실이라고 했더니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갔다.

| **박용규**(1932년생) 계룡시 신도안면 석계리 |



평생을 신도안과 함께한 농민의 삶

박용규는 본래 조상들이 세거하였던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면 목교리에서 태어나 다섯 살의 나이에 조부모 및 부모를 따라 신도안으로 이주해 왔다. 본관은 밀양박씨로 1932년 압해도 부농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다섯 살 되던 무렵 모든 가산을 매각 정리하여 신도안으로 이주한 조부모와 부모를 따라 네 살 어린 동생과 함께 신도안에 정착하였다. 박용규는 '종로터'라 불리던 석계1리에 정착한 이래 1983년 전두환 정권에서 시행한

620사업으로 이듬해인 1984년 신도안에서 퇴거할 때까지 47년간 신도안의 성쇠와 명암을 몸소 체험한 산증인이다.

박용규의 집안이 신도안으로 이전하게 된 동기는 증조부 때부터 동학을 믿으면서 김덕경이 압해도에 포교하러 왔을 때 아버지가 상제교에 심취하여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한다. 상제교(上帝教)는 1925년 동학 제2대 교주 최기형의 수제자 중 한 명이었던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이 1925년 신도안에서 창시한 것이다. 김연국 사후에는 그의 아들 김덕경(金德卿)이 제2대 교주가 되면서 박용규의 아버지는 그 측근에서 활동하였는데, 6·25 전쟁 무렵에는 상제교의 2인자인 상제교 청년단 단장까지 역임하였다.

이렇게 아버지를 중심으로 집안 전체가 신도안으로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용규는 '불행의 씨앗'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상제교에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그에 의하면 상제교는 김구암과 김덕경 부자가 2대에 걸쳐 신도들을 이용하고 혹세무민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에는 '도덕성립'이라는 구호를 내세워 누구나 다 '천자'가 될 것이라고 하자 신도들이 너도나도 집과 땅을 바쳤다고 하였다. 당시 박용규의 집에서도 가장 큰 재산이었던 황소와 수레를 처분하여 바쳤다고 한다.

박용규의 아버지는 동네 씨름대회에서도 여러 번 입상할 정도로 힘이 장사였고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의 아버지는 박용규가 태어나자 일본놈들 꼴 보기 싫다고 집안의 보리 몇 가마니를 머슴을 시켜 매각하고 중국으로 밀항하려 하였으나 인천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받는 바람에 배를 놓쳐 실패한 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 광복 무렵에는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박용규의 어머니가 벽장에 있는 서류뭉치를 꺼내어 불살랐는데, 독립자금을 조달하는 인물이 일경에 피체되는 바람에 관련 서류를 불태운 것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얼마 후에 광복이 되었다.

6·25 한국전쟁이 터졌을 때 신도안에서는 이념적 성향이 다른 마을 주민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이 벌어졌다. 전쟁이 터지자 박용규는 아버지와 집을 나와서 한동안 산으로 피신하거나 다른 동네를 전전하였다. 그리고 수복이 되자마자 40대의 아버지가 향토방위대를 조직하여 대장을 맡아 북한군들이 버리고 간 무기로 무장을 하고 지서를 도

와 치안유지에 힘쓰는 한편 좌익분자 색출에도 활동하였다. 당시 좌익분자로 분류된 30여 명을 색출하여 임시로 만든 유치장에 수감하고 감시하였는데, 아버지와 박용규가 자리를 비웠을 때에 강경경찰서에서 파견 나왔던 형사들이 세 사람만 남기고 모두 죽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박용규는 그 살아남은 세 명이야 말로 진짜 좌익이었다고 기억한다. 한 사람은 남로당원 출신의 교사였고, 또 한 사람은 천석꾼의 아들로 일본유학을 다녀와 북한군 치하에서 자위대장을 맡았던 인물이었다. 당시를 떠올리면 아무리 사상과 이념이 달랐어도 친척 같은 이웃을 서로 죽였던 폭력성과 기만성에 허탈하기만 할 뿐이다.

박용규는 여러 언론매체에 의해 신도안이 사이비 종교의 소굴인 양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된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신도안은 여느 다른 지역과도 전혀 다를 바 없는 특정 종교성을 갖지 않는 일반적인 마을공동체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0여 년 전 상제교가 신도들에게 재산을 갈취하자 가난해진 신도들이 차츰 신도안을 떠났고, 70년대 이후부터 신도안에는 종교적인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본다.

종교와 관련한 박용규의 삶에서 이례적이라 할 만한 사실은 그가 천주교 신자라는 점이다. 박용규는 20대 때부터 가톨릭에 입문하여 논산성당에 출석하여 미카엘이라는 영세명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다녔고, 성당에 요청하여 신도안에 천주교 공소까지 설립하였다. 아버지의 지나친 종교활동으로 가세가 몰락하는 바람에 상급학교 및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였던 박용규는 훗날 마을에 독서회를 조직하는 등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하였다. 성당 출석도 천주교 수사가 되어 수도원에서 독서하고 글쓰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한편으로는 박용규가 전쟁에서 깨달은 이념의 폭력성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지나친 종교 활동과 상제교의 비위에서 드러난 허구성에 대한 일종의 안티테제로서 천주교를 택하였던 것으로도 추정된다.

박용규는 한국전쟁 후 서울의 해태제과에서 3년간 근무한 후 20대 후반에 신도안에 내려와 지금까지 줄곧 이장을 맡아왔다. 1960년대는 사방사업과 토지개량사업을 벌여

땅이 척박하였던 신도안을 일구었고, 사방사업에서 식목을 통해 과실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대신 토지 소유주인 원불교로부터 쌀 20가마를 받아 마을기금으로 조성하였다. 또한 계룡조림조합을 결성하여 1984년 620사업으로 조합을 청산할 당시 국가에서 받은 보상비를 조합원에게 배분하여 이익을 안겨 주기도 하였다.

또한 620사업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 1983년 620사업을 공포하고 신도안 주민들에게 동년 12월까지 이주하라는 명령에 반발을 한 것이다. 통상 추수를 마치면 알곡을 마감하는 데는 12월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이를 무시한 것은 물론이고 이사철이 아닌 겨울에 주택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간도 고려하지 않은 당국의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여 1984년 봄에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도 하였다.

박용규는 신도안을 떠나 대전으로 이주하여 약 27년 정도를 대전에서 거주하다가 8년 전 계룡시로 이주하기를 원한 자녀를 따라 다시 돌아왔다. 박용규가 620사업 이후 비록 장기간 신도안을 떠나 있었지만 사실상 초기부터 신도안의 명멸을 지켜 온 장본인으로서 신도안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

| **배명희**(1950년생)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 |



자신의 삶을 개척한 논산 소녀

배명희 씨는 1950년 논산군 상월면에서 무남독녀 외동딸로 태어났다. 친가는 논산시 상월면이고 외가는 논산시 노성면이다. 상월면과 노성면은 면소재지 거리가 5리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인접해 있고, 현재 배명희가 거주하고 있는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의 서쪽 약 12㎞ 지점에 위치한다. 배명희의 아버지가 스무 살, 어머니가 스물한 살에 결혼하여 6·25전쟁이 나던 해에 그가 태어났고, 아버지는 전쟁에 징집되어 중동부전선인 철원지역 전투에서 전사하였으나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전사통지만 받았다.

큰아버지가 배명희를 대신 키우겠다고 나서자 어머니는 반발하며 아이를 데리고 외가인 노성에서 지내게 되면서 배명희는 노성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아버지와 함께 참전했던 작은아버지가 생환한 후 조카인 배명희를 키우겠다고 어머니를 설득하여 이후 배명희는 대전 신흥초등학교으로 전학하였다. 이 무렵 어머니는 서울에 사는 아는 언니의 권유로 서울에서 지내다 재혼을 하였다.

한편 공부를 곧잘 하였던 배명희는 작은아버지 밑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한밭여중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작은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서울로 이주하게 되자 배명희는 둘째큰아버지 댁으로 들어가서 대전여고를 졸업하였다. 둘째큰아버지에게 경제적인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영자신문을 팔아서 용돈을 충당하기도 하고 수학여행도 가지 않았다고 추억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작은아버지, 둘째큰아버지 댁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고 학업을 이어온 불안한 환경과 여의치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결국 대학을 포기하였다. 곧 서울로 올라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어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새아버지 가족과 어울리지 못해 결국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고, 방적공장의 경비실 사무원으로 취직하였다.

둘째큰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배명희는 독립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기숙사에서 여공들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가톨릭교회에도 열심히 출석하며 주일학교 교사, 청년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성당에서는 수녀가 되라는 권유를 받기까지 하였다.

성당 청년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한 자매와 그 어머니가 평소 배명희를 친언니, 친딸과 같이 대해 주었는데 이 집에서 맞선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 무렵 배명희의 어머니는 비구니가 되어 불우한 가정환경과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였기에 결혼할 마음이 없었다. 주선자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어 맞선을 보기는 했으나 거절의사를 표시하였는데, 몇 달 후 시어머니와 시숙모가 찾아와 간곡히 부탁을 하고, 남편도 공장에까지 찾아와 프러포즈 한 끝에 1974년 24살에 결혼식을 올렸다. 슬하에 딸 넷을 낳고 39세에 늦둥이 아들

을 낳아 5남매를 두었다.

배명희는 결혼하고 바로 두마면 두계리의 시댁으로 와 남편이 집에서 운영하던 이발관의 직원들 밥을 해주는 등 시집살이를 하였다. 그런데 시어머니와의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 시어머니는 두계리의 부잣집 외동딸로 어려운 것 모르고 살아온 데다가 남편이 일찍 죽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의지하면서 92세까지 장수하였으니 배명희로서는 오랜 세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온갖 마음고생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남편이 2대독자인 손이 귀한 집에 내리 딸만 셋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로부터 천주교를 믿어서 아들을 낳지 못하니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가출하였던 일도 있었다. 그러나 친정엄마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남편에게 다짐을 받고 다시 돌아 왔다고 한다.

결혼 이후에 두계와 대전을 오가면서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였다.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 대전역 앞에서 식당을 차려 10개월 정도 장사하였고, 출산 후에는 한정식집을 열었다. 셋째를 낳은 후 두계로 들어왔다. 큰딸이 충남대에 입학하고 막내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IMF 무렵에는 충남대학교 앞 궁동에 분식집을 차려 8~9년 정도를 운영하였다. 이때는 1990년 초에 취득한 운전면허로 두계에서 대전까지 출퇴근하였다고 한다.

배명희는 1974년 결혼한 이후 시댁이자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두마면 두계리에서 46년을 살았지만 대전에서 주로 경제활동을 하였던 추억이 대부분이다. 신혼 무렵 성당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부부동반으로 암용추와 숫용추에 놀러갔던 일이 있었다. 그런데 현지사정을 몰랐던 배명희와 친구는 하이힐을 신고 갔다가 결국 남편과 서로 신발을 바꿔 신었던 일이 있다.

신도안에 대해서는 독립운동의 현장이란 시각을 갖고 있다. 계룡시와 신도안에 무속인이나 종교인으로 위장하여 숨어 지낸 독립운동가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 증거로 지금은 계룡대 안에 있는 암용추 밑에 바위에 독립운동가들이 새겨 놓은 문구들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배명희의 자택 인근에 있던 두계장터에서 삼일운동이 벌어졌을 때 천여 명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생생하게 들었다고 한다. 당시 시골 면소재지에서 시위대가 천여

명 정도이면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었다.

대전에서의 경제활동을 정리한 이후인 2006년 무렵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계룡시지회를 조직하여 2019년 6월까지 13년간 지회장으로서 활동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순탄치 않은 불우한 삶을 살았던 것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아버지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노년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전몰군경유족의 일원으로서 봉사활동에 투신하게 되었던 것이다. 배명희는 유가족 연금 수령, 지역 보조금으로 유가족 돕기, 6·25 전사자 유해 찾기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였다. 특히 삼군본부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상 군부대와 결연하여 위문금 모금이나 유가족 위로 초청행사 등이 부대 내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는 데도 일조하였다.

| **오태창**(1942년생) 계룡시 두마면 입암리 |



왕대리 토박이의 노익장 투혼

오태창은 5대째 왕대리에서 세거한 해주오씨 종가의 6남 1녀의 7남매 중 넷째 아들로 1942년 태어났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글을 읽고 시조에 능했던 선비적인 삶을 살았던 탓에 농사를 직접 짓거나 하지는 않았다. 또한 큰형은 일찍이 서울의 강문고등학교(현 용문고등학교)에 진학하여 고려대까지 다닐 정도로 공부를 하였다.

이러한 집안 환경 탓인지 넷째 아들이었던 오태창은 두마초등학교만 졸업한 후 더 이상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줄곧 40여 마지기나 되는 집안의 농사를 맡아 지으면서

성장하였다. 당시로서 40여 마지기 농사면 상당한 부농에 속했는데도 오태창은 쌀밥 대신 콩나물죽을 먹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오태창의 할아버지가 쌀이 있다고 밥을 지어 먹으면 그렇지 못한 남에게 누가 된다며 검소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강조하셨기 때문이었다. 인정(仁政)에 바탕을 둔 인정(人情)의 함양을 중시하였던 유교적 사회관계에 충실하였던 집안임을 알 수 있다.

오태창이 태어나고 성장한 왕대리는 충청도 광산김씨의 본향이다. 왕대리는 세조(世祖) 때 문신 광산부원군 김국광(金國光)의 사당인 모원재(摹遠齋)와 김국광의 5대손인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의 아홉 번째 아들 김비(金棐)의 사당인 신원재(愼遠齋)를 비롯하여 광산김씨 문중 묘소가 집중된 지역이다. 오태창은 어렸을 때 김국광 묘소 부근에서 매일 친구들과 뛰어놀던 것과 모원재 주변이 동네아이들의 놀이터였던 것을 기억한다.

오태창은 큰 장터였던 두마면의 두계장과도 깊은 인연이 있었다. 두계장은 인근 대전이나 연산, 대덕 등지에서도 인원이 왕래하였고 우시장까지 설 정도로 규모가 큰 장이었다. 조선후기 이후 지방장시가 확대되면서 근대에 이르러서는 우시장이 서는 큰 장시에는 국밥문화가 발달하였는데 두계장의 국밥도 인근 지역에서는 꽤나 맛있기로 명성이 있었다. 오태창의 증조할머니도 두계장에서 국밥집을 하였는데 별도의 점포를 얻어 간판을 내걸지는 않고 장이 서는 날에만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밥을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또한 보리쌀을 찧기 위해 두계장에 있는 방앗간에 들르곤 했는데 한 군데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밤을 새기도 하였다. 오태창은 그 방앗간의 주인이 당숙이었는데도 별다른 특혜 없이 순번을 기다려 도정을 했던 일을 기억하였다.

1942년생인 오태창은 일제 말기와 해방을 겪었지만 워낙 어린시절이라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 다만 일본인들이 군수물자로 쓰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여 관솔을 채집하게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설탕을 배급하였던 일이 있었고 일제의 무단공출을 피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담장 근처에 항아리를 묻고 거기에 쌀을 감추어 두고 자손들의 식량으로 삼았던 모습을 기억한다.

6·25전쟁 중에는 오태창이 두마초등학교 3학년 때였고 전쟁때문에 학업이 중단되었

다. 당시 서울에 있는 친인척들이 왕대리로 피난을 오는 통에 오태창 집의 피난민들이 먹고 지내는 피난처가 되었다고 한다. 9·28 수복 후 왕대리에는 태백산으로 퇴각하기 위해 대둔산으로 집결하는 인민군들이 마을에 들어왔다. 당시 북한군들은 주민을 해코지하거나 괴롭히지 않고 물이나 밥을 요청하여 얻어먹으면 고마워하였다. 또한 무고하게 인명을 살상하지도 않았다고 하였다. 오히려 인명 살상은 지역에서 활동하던 좌익분자들이 빨치산이 되어 많은 사람을 죽인 데서 많이 발생하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왕대리의 빨치산들은 주민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자수를 하지 않는 바람에 토벌 과정에서 군경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오태창의 앞집에 황인태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집에 빨치산들이 숨어 있다는 첩보를 통해 토벌대가 급습하자 숨어 있던 인원 중 황인태와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잡혀가 감옥살이를 했다고 기억하였다.

전후 벼농사를 짓고 4H에서 활동하면서 회장을 역임하였고 새로운 농업교육을 통해 과수재배와 전지, 수확 등에 관한 기술을 익혔다. 오태창은 습득한 기술지식을 바탕으로 단감, 복숭아 등을 심었고 딸기농사를 몇 년간 짓기도 하였다. 지금도 손자들에게 신선한 과일을 먹이고 싶어서 예전에 익혔던 기술을 살려 소일거리로 사과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스무 살 무렵 줄곧 농사만 지어왔던 오태창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다가왔다. 도편수로 일하던 외숙의 권유로 목수 일을 배우고 외숙을 따라 여러 지방을 다니며 건축업에 종사하게 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목조건축물을 지었던 우리나라 전통건축에서 목수는 중요한 직업군에 속했고 경제적 수입 또한 높았다. 다행히 목수일이 적성에 맞았는지 의욕적으로 배운 결과 기술을 빨리 익혔고 결혼 전에는 서울과 부산을 중심으로 한옥을 짓고 집을 수리해 주는 일들을 하였다. 현재 오태창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도 15년 전에 손수 지은 집이라고 하였다.

오태창은 비교적 늦은 나이인 29살에 어머니의 주선으로 아내와 결혼하여 왕대리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직업 특성상 늘 외지에 나가 있는 남편을 대신하여 아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가사를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굶어죽어도 좋으니 집에 같이 있자"는 아내의 간청으로 40세 무렵에 고향으로 내려와 정착하게 되었다.

오태창이 고향인 왕대리를 떠나 입암리에 정착하게 된 것은 16년 전 왕대리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살던 곳이 개발지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이었다. 입암리는 어린시절 왕래하던 옆 마을로 오래전부터 입암리에 있던 저수지에 대한 추억이 있다. 입암리 저수지는 오태창의 고향인 왕대리까지도 물을 공급하던 중요한 수원이었는데 큰 비가 내려 물이 넘치면 둑이 무너지는 사고가 잦았다. 그래서 당시 농민들은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일종의 부조를 조성하여 둑이 터지면 보수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그도 20대 때 입암리 저수지 보수공사에 참여하여 흙을 날랐던 기억이 있다. 또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논에 물을 댈 시기에는 왕대리가 먼 탓에 물 대는 날을 하루 더 받았음에도 중간에 물을 마구 대는 통에 효과가 없자 마을 청년들이 물 대는 날에는 수로 중간 중간에 서서 물 대는 것을 지켰다고 한다.

80을 바라보는 희수(喜壽)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오태창은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다. 다시 벼농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가까운 연산에 매입한 팔백 평의 농지 외에 추가로 2천 평을 더 매입하여 농사를 지을 예정이다. 그야말로 왕대리 출신 토박이의 노익장 투혼은 완료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 **나상현**(1948년생)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



계룡시에 뿌리내린 두 번째 삶

나상현은 계룡시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와는 다른 토박이로서의 삶을 살아온 인물이다. 논산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학업을 마치고 외지에서 살다가 20대 무렵 시험공부를 위해 계룡산 향적산방이라는 산중서실(山中書室)에 들어왔다. 그곳에서 정역(正易)을 공부하며 지키고 있는 주인의 사위가 되어 40년이 넘게 향한리에 살아왔다.

나상현의 성관은 나주나씨로 1948년 논산군 벌곡면 어곡리에서 외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6·25전쟁 통에 사망하였고 이후 홀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초등학교는

벌곡면 한삼천리에 소재한 벌곡초등학교를 다녔다. 그런데 아버지가 두마초등학교 출신으로 두계장에 장보러 다니기도 했으므로 예전부터 계룡시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전의 충남중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는 대전에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입주 가정교사를 하면서 숙식을 해결하였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대전 동구 자양동에 위치한 대전상업고등학교(현 우송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 예전에는 실업계고등학교가 금융권 등 유망 직종에 취직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았고 그중에 대전상업고등학교는 충청권 실업계 명문으로 인식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대전과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시험공부를 하기 위해 고모부의 소개로 1967년 향적산 국사봉 자락에 위치한 향적산방에 들어오면서 계룡시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나상현이 직장을 그만두게 된 배경에는 연좌제의 영향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행방불명된 당숙으로 인해 나상현의 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종형제가 모두 연루되어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나상현이 최초 시험공부를 찾아간 향적산방은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국사봉 아래에 위치한 서실이다. 본래는 구한말 유교의 주요 경전인 주역(周易)을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정역(正易)으로 체계화한 일부(一夫) 김항(金恒) 선생이 국사봉에서 제자들을 양성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정역사상은 외세의 침범이 노골화 되던 구한말 시기에 기존 유학의 해석과는 달리 종교적이고 미래학적 관점에서 후천개벽사상을 역리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후 정역의 후천개벽사상은 인근의 신도안이 새로운 도읍이 된다는 정감록과 같은 비결과 더불어 근대 이후 신흥종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향적산방은 김항 선생의 도통을 지키기 위해 1960년 송철화가 움집을 짓고 정역을 연구한 곳이다. 나상현의 말에 의하면 초기의 향적산방은 움집에 불과하였지만 충남대학교 3대 총장을 지낸 학산 이정호 선생이 집을 건축하고 제자들에게 정역을 강의하였다. 이후 향적산방에는 적지 않은 정치인, 종교인과 대학교수 등이 와서 정역을 공부하고 거쳐 갔다. 나상현이 증언한 대표적인 종교계 인물로는 불교계에서는 학승(學僧)으로 유명한 탄허스님과 기독교계에서는 명지대학교 설립자이자 총장을 지낸 유상근 박사 등이

자주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학계에서는 이정호 총장 외에도 정신문화연구원장을 지낸 유상묵 박사, 충남대 공대학장을 역임하고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를 지낸 육종철 박사 등 많은 학자들이 전공을 불문하고 향적산방에 머물면서 정역을 공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향적산방의 주인이었던 송철화의 사위가 되었다. 나상현은 장인어른이 병약했던 그를 측은하게 여긴 것이 사적인 인연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 결혼 후 대전과 서울에서 생활하면서 2남 4녀의 6남매를 두었는데, 막내만 향한리에 들어와서 낳았다.

외지에서 생활하던 중 건강이 나빠지자 큰아이가 중학교 3학년 2학기가 될 무렵에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향한리 맨재골로 들어와 흙집을 짓고 살게 되었다. 전기와 수도는 물론이고 어떠한 문명의 이기도 없었던 오지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아이들은 험하고 먼 길을 걸어서 통학을 해야 했고 농사를 지을 땅도 여의치 않아서 척박한 산지를 손수 개간하여 다랭이논을 만들고 곡식을 심어 식량을 조달하였다.

다소 독특한 이력을 지닌 나상현은 향한리에 들어온 이후 지역주민과 융화하며 마을과 지역 발전에 여러모로 헌신을 하였다. 그는 향한리 맨재골의 반장을 맡아 12년간 봉사하였고, 이후에는 이장을 맡으면서 계룡시 이장단 초대 협의회장까지 지내면서 활동하였다. 또한 열두 마을로 이루어져 열두 향한리라 불리는 향한리를 결집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산신제에 구심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본인 스스로가 산신제의 유사(有司)가 되어 직접 제사를 주관하여 나중에는 마을 동계인 송계(松契)에서 감사패를 받았다고 한다. 또한 계룡시 유치위원회에서도 적극 활동하여 국회에서 계룡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는 날 밤에는 자동차를 타고 계룡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계룡출장소가 계룡시로 승격되었다는 방송을 하였다.

외아들로 태어나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2년간 반장을 도맡으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처리하였던 나상현이 변하게 된 계기는 장인어른의 감화 영향이 컸다. 나상현은 생전에 장인어른이 '이타(利他)'를 많이 주장하고 실천을 강조하였다고 하였다. 그 작은 실례로 장인어른은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반말을

하지 않고 존대말을 썼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한 예의범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인간관계를 중재하고 상생으로 이끄는 것이었다. 이를테면 누군가에게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해라"가 아닌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더라"라고 하면 상대방은 대화중에 본인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타라는 것이 남에게 이득을 주므로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이롭게 하는 '이오(利吾)'로 돌아온다고 하였다. 즉 그 반대급부가 당장 나에게 오지는 않지만 언제 어디에선가 반드시 내가 남을 위해 베푼 것이 나에게 득으로 되돌려진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해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利己)'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어느덧 고희(古稀)를 넘긴 나상현의 철학과 살아온 삶의 궤적에서 "70세에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따르더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라는 논어의 구절이 떠오른다.

당진시

| **김진용**(1933년생) 당진시 고대면 |



초등교육자로 퇴임한 중흥리의 산 증인

김진용은 당진 고대면 용두리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공부하고 성장하였고 대학을 서울에서 다닌 것 이외에 당진과 떨어져서 지내본 일이 없는 토박이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초등학교를 입학하여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교육을 받았고, 해방이 되어서는 서당에 들어가서 유교 교육도 받았으며, 이후 당진중학교와 당진농업고등학교를 거쳐 서울시립대 농업토목과에 진학할 때까지 참으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특히 그의 시련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그의 진로 결정에 장애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고향

으로 내려와 본의 아니게 만 6년간을 농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이는 그의 공직생활이 매우 늦게 출발했던 것을 의미하며 더 많은 노력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평교사로 퇴임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

교사가 된 김진용은 당시에 배웠던 기억을 떠올리며, 특히 서당에서 배운 학문의 내용을 평생의 지침으로 삼아 좋은 제자를 길러낼 수 있었다고 회고한다. 특히 그가 고대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기억하고 있었던 신사참배의 모습과 신사의 위치는 지금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당진의 최고 학교였던 당진농고에서의 생활은 대학에 진학하여 연구기관으로 진학하려는 그의 꿈의 본산이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다른 길이 평생의 업이 되었지만 그를 키워준 학교는 그의 역량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제자들에게 발현되었고 착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길러내는데 충분한 밑거름이 되었다.

김진용은 해방과 동시에 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배운 학문은 평생 그의 삶의 나침반이 되었으며 현재 당진향교에서 유림 대표가 된 것에도 바탕이 되었다. 현재 성균관 부과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는 한학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한자전문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송악면 중흥리 경로당에서 충효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시에도 늘 충효를 바탕으로 바른 인성을 기르기 위해 힘써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퇴임한 지 오래된 현재까지도 자신이 근무했던 송악초등학교에서 한자교실을 열고 제자들을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게다가 한자교육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안한 학습 자료를 가지고 단계별로 체계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 방법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젊어서 철봉과 씨름 등 운동에 소질이 많아서 운동선수를 도맡아 관리하기도 하였고, 글씨를 잘 쓰는 관계로 늘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자녀들의 학업에도 신경을 써 대학교 교수가 되는 등 올바른 가정교육을 통해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냈다.

김진용의 기억은 일제강점 아래 식민교육의 실태와 해방 이후 당진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 그리고 당진의 최고 학교였던 당진농고에 대한 이야기 등이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의 증언에서 가장 아껴서 들어야 하는 내용은 바로 송악산에 있었던 송악산성의 흔적을 오래전에 직접 눈으로 확인한 바를 정리하여 훗날 발굴하거나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낸 것이 첫 번째 중요한 점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던 1960년대 초반 자신이 점유하고 있었던 땅 가운데 국유지로 되어있었던 450평 국유지를 예산세무서로부터 처분하고자 하니 불하받으라는 공문을 받고, 당시 쌀가마 반을 들고 달려가 불하받았던 이야기이다. 당시 숭학사 터에 대한 가장 생생하고 확고한 증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그곳에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데 한쪽에는 깨진 기와조각이 무더기로 나와 절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던가 주춧돌에 관한 이야기, 석탑의 보주로 추정되는 유물을 캐내어 집에 보관하다 당시 전대초등학교 교장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사료라고 아니할 수 없다.

| **허용세**(1944년생) 당진시 송산면 |



맨손으로 일군 삶

허용세는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도문리에서 태어나 이른 나이에 결혼한 후 의정부에서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해 도시에서의 생활을 접고 처가인 송악 부곡리로 내려왔다. 가진 것 없이 맨손으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 허용세는 처가 일을 돕고 마을 품일을 하며 생각했다. 둑을 쌓아 바닷물을 막으면 내 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무작정 둑을 쌓기 시작했다. 다행히 처갓집 바로 앞의 바닷가는 육지 쪽으로 쑥 들어간 해안이라 원둑을 쌓기만 한다면 간척하기 적합한 곳이었다. 삽으로 흙을 옮기

고, 지게로 산에서 잔디, 돌 등을 옮겼다. 일꾼도 없이 혼자 제방을 쌓는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주변 품팔이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면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짓이 못 된다며 하루하루가 힘들었음에 말을 잇지 못하였다.

하지만 오로지 가족을 위해 버텼고 3년 만에 제방을 완성했다. 이후 간기가 빠지고 제대로 농사를 짓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백중사리 때는 둑이 터지는 일도 서너 번 있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그를 보고 자기도 한번 바닷물을 막겠다고 간척 사업을 시도하는 사람도 생겼다. 그러나 그들은 번번이 둑을 터치고 포기하였다고 한다. 그즈음 송악에서 간척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그가 유일했다.

땅을 일궜으나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간척지였기에 절차를 거쳐야 했다. 80년대 초 간척업자들이 충남 국회의원 심현직을 찾아가 건의를 한 일을 기억했다. 자기가 만든 무허가 간척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였다. 주로 서산 사람들이 많았고 당진은 삼월리, 성구미 쪽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다. 그 때의 건의는 무산되었지만 몇 년 뒤 당진 군청에서 연락이 와서 200만원의 돈을 내고 본인의 땅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처음 부곡리에 내려왔을 때는 처갓집 한켠에 자리 잡았기에 아이들은 큰집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본인의 집을 가지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 그가 부곡리에 정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다. 허용세는 지붕개량에 참여하고 조수로 일하며 건축일 또한 익혔다. 그 뒤 자신의 힘으로 집을 지었다. 97년에는 주택자금을 지원받아 새 집을 짓기도 했다. 이때도 손수 집을 지었고 현재도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송악은 농지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주민들은 굴을 따고 게를 줍는 등 맨손어업을 많이 했다. 염전에서 일하는 주민들도 많았다. 그도 비는 시간에 바다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하고 맨손어업을 했다. 고기는 명절 외엔 먹기 힘든 음식이었으므로 단백질 보충이 힘들던 그때 망둥어로 국을 끓여 영양보충을 했다고 한다. 주민들이 농사를 짓게 된 것은 삽교천을 통해 농업용수가 공급된 것이 크다. 또한 해바라기 농장(제일 농장)이 조성되면서 송악의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주었다. 논농사가 활성화되고 수로 시설도 정비되면

서 염전에서 일하고 바다로 나가던 주민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

그리고 90년대 후반 부곡공단과 이주단지 조성으로 주변 땅들을 보상받게 되었고 허용세의 간척지도 정부의 보상을 받고 팔게 되었다. 본인이 정성들여 일군 땅을 넘긴다는 생각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 보상으로 인근의 정비된 땅을 다시 사고 농사짓기도 한결 편해졌다. 간척지는 현재 공단이 들어서서 옛 흔적을 찾을 수 없다. 그래도 그는 그곳을 지날 때면 예전 생각이 자주 떠오른다. 많은 고생을 했지만 아이들 모두를 가르치고 가족 모두 건강하게 살아온 것에 감사하는 마음뿐이다.

송악은 바다에 접해 있어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공단이 들어서면서 환경오염이 심해졌다. 공단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은 지역민에게 좋은 일이었지만 공단이 들어온다면 맨손어업을 하던 사람들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래서 마을마다 맨손어업 보상이 있었다. 하지만 맨손어업의 보상이 제대로 배분되지 않아 마을 사람들의 골이 깊어졌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 돈 관계의 이해가 얽히면서 예전만 하지 못하게 된 것에 아쉬움이 크다고 그는 전했다.

당진은 제철소, 화력발전소가 들어서면서 꾸준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인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발전에 따른 혜택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환경을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그는 생각한다. 대기오염은 물론 폐수로 인한 바다 오염도 심각한 수준이다. 당진의 옛 모습을 알고 있는 그는 안타까움이 더 크다. 자연으로부터 얻어 생활하던 그때를 생각하며 더 늦기 전에 환경을 보존해야한다.

마을 부곡리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곡리는 심훈의 필경사가 있는 곳으로 과거 농촌 계몽운동이 일어났었다. 현재 여러 문화사업이 진행되며 심훈을 기리는 만큼 필경사도 재정비되고 있고 매년 행사가 치러진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그 정신이 녹아들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마을이 색채를 잃은 게 아닌가 싶다. 과거 허용세가 부곡리로 내려온 이후의 삶은 고생뿐이었다. 원망도 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다. 그런 그를 지탱해 준 것이 마을 사람들이었다. 서로를 돕고 생각하던 그때가 그립다. 앞으로도 부곡리와 당진은 변해갈 것이다.

| **김형환**(1938년생) 당진시 신평면 |



농촌운동

김형환은 경주김씨 좌랑공파 28세손으로 아버지 김동식과 어머니 박임순 사이에 2남 2녀 중 셋째로 1938년 당진군 신평면 금천리 384번지에서 출생하여 성장하였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제의 강제노역으로 징발되어 편모 슬하에서 자랐지만, 할아버지가 농사를 크게 하고 어머니가 음식점과 여관을 경영하여 가정환경이 여유로웠다. 향리에서 신평초등학교, 예산중학교를 다녔고, 고등학교는 서울 용산고등학교를 나왔다.

그는 남달리 농촌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고등학생 때부터 서울 시내 몇몇

고등학교 학생들이 조직한 한얼동지회에 참여하여 겨울방학 중 고향인 신평의 외딴섬 행담도에서 계몽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 무렵에 한정협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한정협회란 한국에서 정말(덴마크)을 연구하는 단체로 한국의 '한'과 정말의 '정'을 따서 한정협회라 하였다. 김형환은 이 단체에 나가 공부하면서 덴마크 청소년들이 농촌에서 1년 동안 체험을 하여 사회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안 후에 대학에 진학한다는 교육제도에 감명을 받고 삶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었다. 그리하여 덴마크 학생들이 하는 것처럼 실천하기로 결심을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을 하지 않고 바로 고향으로 내려와 머슴을 내보내고 농사에 뛰어들었고, 거산감리교회에 등록을 하고 청년활동도 시작하였다. 거산감리교회 중등부 교사를 하면서 중학교에 진학 못한 아동들을 위하여 소년회를 조직하고 지도교사를 하기도 했다.

고향으로 내려와 4H구락부를 조직하였는데 이것이 '내기4H구락부'이다. 마을에서 조직이 안정되고 기반이 잡히자 '신평면4H연합회'를 결성하는데, 무슨 모임이든지 시간을 엄수하였다. 그 외에도 금주, 금연, 농사개량, 생활개선 운동 등을 하였다. 신평면 연합회의 자리가 잡히자, 이번에는 '당진군4H연합회'를 결성하였다. 이때가 1957년이다. 연합회를 결성하면서 초대회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1969년 충남 4H업적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중앙 업적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이후 3년 연속 충남경진대회 최우수상, 중앙경진대회 우수상을 받게 되었다. 이때 활동상 중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으니 부원 결혼식에 도시락 가지고 가기 운동 같은 것까지도 하였다. 그만큼 검소하고 열심히 살자는 뜻이 있었다. 그 후에 '충청남도4H연합회'도 조직하였으니 그는 4H조직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1962년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산 46번지의 옛날 1930년대에 야학을 하던 야학당을 개보수하여 상록학원을 개원하는데, 이때 기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모금하고 노력 봉사를 하여 자력으로 이루어 내는 자립정신은 놀라운 바가 있다.

상록학원은 농촌운동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표방하였는데, 그도 강사의

일원으로 강의에 임하면서 일면 수강생으로도 등록하여 다른 강사의 강의를 듣기도 하는 1인 2역의 역할을 하였다. 아쉽게도 상록학원은 2기의 수강생을 내고 폐강하게 되었으나 상록학원 출신들은 이후 각지에서 농촌운동의 큰 역할을 하였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덴마크의 교육제도를 본받아 1년 농촌 체험 후 대학에 진학한다는 결심으로 뛰어든 농촌체험과 농촌활동은 계획보다 길어져 7년간 계속되었다. 그가 농촌 운동을 접고 대학에 진학한 것은 1964년이다. 그해 중앙대학교 경상대학 농촌사회개발학과에 진학하여 체계적인 학업을 하게 되었으며 1968년에 동 대학을 졸업하고 이어서 같은 학교 사회개발대학원에 진학하여 1979년에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대학원 졸업 후 농촌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하며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였다.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에 침잠하여 장로 안수를 받는 등 개인적인 신앙에도 열심일 뿐만 아니라 광림교회창립40년사 편찬위원장을 맡아서 광림교회의 역사를 조명하였다. 또 '광림뉴스레타'라는 소식지를 펴내는 일도 맡아 하는 등 여러 편찬 작업에도 두각을 나타내었다. 그러면서 (주)우림기공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농촌운동이 아닌 경제활동을 개척하였으나 이러한 일들은 그다지 성공적이지는 못하여 오래 지속하지는 않았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에 배어있는 농촌 운동관이 농촌을 살리는 길이라는 그의 신념은 초지일관 변함없다. 사단법인 심훈상록수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그 정신을 이어가고자 애쓰고 있으며, 그러한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자 상록수 정신문화지 《상록수》를 편집 발간하고 있다(현재 16호까지 간행되었음).

그의 활동 영역은 역시 농촌운동이다. 만년에 초락도에 귀농하여 약쑥재배에 열정을 쏟으면서 개인 영농뿐만 아니라 초락도의 농가소득 증대를 고심한 결과 초락도 약쑥을 특화하기 위하여 작목반을 결성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아내어 약쑥을 상품화하기 위한 여러 시설들을 갖추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약쑥도 원재료를 상품화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상품개발을 시도하여 좌훈 뜸, 약쑥환 등을 개발하여 상품화하여 가공 생산 하는 단계까지 발전시키며 오늘도 노구를 이끌고 더 풍요로운 농촌을 위하여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는 인간 상록수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 **윤성의**(1939년생) 당진시 송산면 |



진짜 당진 사람

윤성의는 당진시 송산면 도문리와 매곡리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토박이이다. 그의 어린시절은 기억할 만한 것 없이 평범하다. 바람 불면 누웠다 일어서는 풀잎처럼 조용히 성장했다. 굳이 기억하자면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소치고 꼴 베며 송산초등학교를 졸업했다. 동네 이장님으로부터 주경야독한다는 칭찬을 받은 것이 최고의 상이다. 당진중학교에 들어갈 때 공부도 잘 못한 채 입학했다. 고등학교는 당진상업고등학교에 들어가 상과를 전공했다.

윤성의가 태어난 마을은 동네 이름이 숨어골(隱谷)이다. 숨어골에 얽힌 이야기는 송익필 선생과 관련 있다.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송익필 선생의 옛날 묘갈에 면천 마양촌 김진려의 장사(별장 또는 농막)에서 숨어 살았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후대에 묘비명을 본 학자들은 김진려가 그 마을에 살았으니 송익필 선생을 감춰준 마을이라 하여 숨어골이라고 불렀다 한다. 하지만 그는 서너 가지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한다. 먼저 그 동네를 마양촌이라고 부른 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김진려의 장사(별장, 농막)에서 살았다고 그랬는데, 숨어골은 김진려의 살림집, 즉 본가다. 따라서 김진려의 장사와 본가는 다르므로 숨어골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음으로 송익필 선생 산소가 있는 원당동을 지금도 마터라고 부르는데 그곳이 구봉 선생의 은거지라고 후손이 이야기한다. 실제 송산면 매곡리 숨어골에는 송익필 선생의 자손이 전혀 없지만, 원당리에는 후손이 많이 산다고 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는 숨어골 이름의 유래를 지형에서 찾고 있다. 마을에는 승주산이 있는데 북쪽 구석진 곳이 숨어골이다. 즉 승주산이 꼭꼭 숨겨 놓은 마을이라 하여 숨어골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가 해군 75기 복무를 마치고 잠시 쉬는 중에 중학교 은사님의 부름으로 '한국비소주식회사'에서 사회생활 첫발을 내딛었다. 경리업무 담당이지만 회사경영이 지지부진하여 월급을 받지 못해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맘먹을 때였다. 마침 은사님 친척분이 서울시청 총무과에 들러 공무원시험 원서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서대가 없다는 말에 자신도 접수한다 생각도 못했는데 어찌 시험을 치게 되어, 재경직 5급으로 합격하고 1966년 11월 15일 홍성우체국으로 첫 발령을 받았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창고에 들어가 그 전에 보고한 장부를 다 꺼내와 맞춰본 후 공식을 만들어 정산했더니 단 한 번에 통과할 만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일을 했다. 우연히 시작한 공직자의 길이지만 홍성, 강경, 논산, 금산을 거쳐 당진군내 우체국으로 돌아왔다. 그 능력을 인정받아 대전체신청장 표창, 2회에 걸친 체신부장관 표창,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근정포장을 받고 32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였다.

그는 1986년 1월 15일, 면천우체국에 발령을 받고 근무하던 중 전보만 배달하는 직원

이 면천에 고린장(고려장터)이 있다는 말을 전하였다. 궁금하여 업무를 마친 후 그를 앞장세워 따라갔더니 정말로 도굴된 세 기의 석곽묘가 있었다. 삼국시대 이전의 고분군이라고 생각되어 향토사학 내포문화에 발표하면서 면천 지역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때마침 홍석표, 신양웅, 안승환 등 당진을 사랑하는 향토사학자들이 찾아와 함께 연구하자고 하고 면천면장을 지낸 인팔환이 면천면 서고를 정리하다가 조선시대 읍지를 발견하여 영인해서 나눠주어 향토사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2010년경 『당진읍지』를 쓸 무렵, 천도교 신자인 동창 이동초(이종린 선생 손자)가 모동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달라는 전화가 왔다. 3·1운동의 주역 손병희 선생이 피해 다니던 1898년 8월~1899년 10월, 1년 3개월 동안 숨어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모동을 찾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구술자에게 전화하기 전 이미 향토사학자 홍석표에게 물어보니 '모동과 저동은 글자가 비슷하다며 저동이라는 지명이 있는 당진 고대면에 가서 찾아보자고 했단다. 하지만 저동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그 흔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는 이동초(이종린 선생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 집의 특징을 물었다. '집 앞에 우물이 있다. 우물이 말라 손병희 선생이 쌓인 낙엽을 다 치우고 땅을 좀 파니까 물이 나와서 청수로 사용했다. 손병희 선생이 떠난 후 다시 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조선시대에 나온 읍지를 살펴보니 당진 수청리가 모동이라고 나왔다. 수청리 띠울마을 이장에게 전화를 걸어 안내를 부탁했다. 마침 당진시청 남광현 팀장이 이종린 선생이 살던 집을 알고 있냐고 물어서 이종린 선생이 살던 집을 안내해주고 손병희 선생이 살던 집에 같이 가서 찾아보자고 했다. 이종린 선생이 살던 집은 완전히 쓰러졌다. 아픈 마음을 뒤로하고 100년 이상 된 오래된 낡은 집을 찾았다. 우물이 있는 집을 찾자 단번에 찾을 수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우물은 필요 없어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무를 심었다. 100년 넘은 집을 사진 찍어서 〈당진시대〉에 독자 투고를 했다.

그는 문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어렸을 때부터 읽고 쓰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1981년 당진이 자랑하는 이근배 시조시인과 홍윤표 시인을 길에서 만나 《나루문학》 창간호를 출판하고 2집을 준비 중이라며 함께 활동하자고 권한다. 「집배원의 하루」라는

시조를《나루문학》2집에 발표하면서 문인의 길을 걸었다. 무엇이든 한 번 시작하면 적극적이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성격인지라 1990년 농민문학 신인상(시조부문)으로 문단에 등단한 후 나루문학 회장, 한국문인협회 당진지부장, 심훈문학상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시조집『꽃은 지기 위해 피느니』와 육필시조집『나를 찾습니다』를 펴내고 그 외에도 다수의 공저 시집을 펴냈다.

마지막까지도 그의 소망은 자신이나 가족에 두지 않는다. 당진시 향토유적 보호에 온 관심을 쏟는다. 이미 헐려 버렸지만 윤곤강의 집을 복원해야 한다고 한다. 계성초등학교 옆에 있던 빨간 기와집과 시곡리에 있던 윤곤강 아버지의 집이 지금까지도 눈에 선한 것이다. 가늘게 눈을 뜨고 기억을 되새기는 원로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친다. 윤곤강은 징역을 살고 와서 요양할 때 시곡리 아버지 집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의 묘지는 현재 갈산리에 있다.

| **남상섭**(1929년생) 당진시 송악읍 |



우리 마을

남상섭은 선대부터 당진에 자리를 잡은 유서 깊은 당진 지역민이다. 11대조 남세근 할아버지가 경기도 광주에서 당진으로 내려와 자리를 잡고 큰할아버지댁은 공주로 내려갔다. 의령남씨 집안의 경우 조선시대의 유명한 무관을 다수 배출했다. 특히 남이흥 장군이 가장 유명한 조상이고 남상섭은 남이흥 장군의 방손이다. 예로부터 충과 효를 중시하는 가풍을 이어받아 집안 전체에 충과 효의 기운이 넘친다. 남상섭의 아버지는 마흔에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한문을 비롯한 구학을 아들에게 전수하여 집안의 가풍을 전승

할 수 있었다. 남상섭의 어머니는 전주이씨 여흥대군파 출신으로 서산에 자리 잡은 전주이씨 집성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는 한학과 함께 자라왔지만 어린시절부터 현대 문물을 접하기도 했다. 유년시절 신평에 있는 심상소학교에서 수학을 하고 졸업은 송악초등학교에서 하게 되었다. 그때 당시의 복잡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학문 정진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집안의 경제 환경은 자작논이 있을 정도로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 지식인층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지식의 중요성을 어린시절부터 알았던 것이다. 어린시절에는 통통배를 타고 평택이나 인천을 왕래했던 기억도 있었다. 도로 교통의 발달로 인해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춘 그 시절 여객선 운항에 대한 상세한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다. 특히 항만을 따라 발달했던 많은 옛 마을들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소중한 역사다. 지금은 작은 항구 마을이 되어버린 한진포구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그에게는 어린시절 일제강점기에 소학교 교육을 받은 기억이 생생하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대해 침략과 수탈 외에 신식 교육과 신문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기억이 더 강렬하게 남아 있다.

남상섭은 새마을운동 당시에 양잠농가 대표로 양잠사업을 널리 알리는 일에 적극 앞장섰다. 물론 개인이 양잠에 뜻이 있어서였지만, 새마을운동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양잠산업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시책을 따른 것이었다. 전국 규모의 홍보 행사에도 우수사례 발표자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새마을운동 이전의 마을은 도로정비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수레도 다니기 어려워 항상 지게로 짐을 옮겨야 했었다.

새마을지도자 시절 마을 도로정비에 따라 개인의 토지를 몰수당해야 했던 당시 상황,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책임과 마을 주민으로의 삶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어린시절 한학을 수학했기 때문에 공문 작성을 잘 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새마을지도자 역할을 맡게 되었다. 또 정부의 전시 정책으로 8일묘 농사법을 직접 시행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었다. 또 값싼 인건비를 활용하여 경지를 정리하고 토지를 더욱 늘릴 수 있게 되기도 하였다.

학문 수학의 중요성을 평생을 거쳐 몸소 느낀 남상섭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역에 초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주민들이 무던히 노력하였는데 전대초등학교를 개설하기 위해 주민들이 현물을 모아 기부했던 것이다. 부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공공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피나는 노력이 학교를 만들어 낸 것이었다.

부모 세대에 이어 아이들도 그 학교를 다니며 대를 이어 전대초등학교와 연을 잇고 있다. 설립 이후에 육성회장을 오랫동안 맡아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다. 그는 삶을 돌아보면 윤리 도덕교육이 가장 중요한 듯하다고 생각한다.

| **이수용**(1933년생) 당진시 정미면 |



유학은 내 운명

이수용은 정미면 봉생리(당시 서산군)에서 태어나, 평생 봉생리를 떠나 본 적이 없는 정미 지역의 주요 인물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순전히 식민교육만 받을 수밖에 없었던 시절 학창 생활을 시작하였다. 학교는 봉생리에서부터 정미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20여 리 거리에 있었다. 당시 일본어 교과서로 공부를 하여 졸업 후에는 바로 서당에 들어가 한학을 수학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때까지도 한글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때 시작한 공부가 평생의 업이 되었다. 서당에 다니던 중 해방을 맞고 중학교에

입학해 한글을 배우기 위해 천의초등학교 6학년에 다시 편입하여 1년을 재수학하고 졸업하였다. 그 후 당진중학교와 당진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

주위의 강력한 권유로 청운의 꿈을 안고 상경하여 단국대학교 법학과에 적을 두고 법학도로서 공부에 전념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채 고향에 내려왔다. 그러다 정미초등학교 교사 자리를 얻게 되었고 호서고등학교에서 교사생활을 하며 원만한 교직생활을 위해 고려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에 입학하여 수학하기도 했다. 교직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았고 명휘학원 호서고등학교에서 1995년 정년퇴임을 하였다.

이수용은 일제하에서 마지막 남은 유교 전통교육인 서당에 입학하면서 인생의 좌표가 설정되어 평생을 유학과 함께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수용의 청년 시기는 바로 20세기 전반에 전환시대에 즈음하여 근대교육의 강화에 맞물려 퇴색하는 전통교육의 명맥이 끊어지려는 순간이었다. 현재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 놓은 글들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는 우리의 역사 단절이 시작된 것이며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그는 한탄한다.

이수용은 꾸준하게 유학을 공부하여 전국적으로 실시된 성균관 알성시에서 장원급제를 하며 실력을 드러내었고, 이후 당진향교에서 장의와 전교를 맡아 향교의 운영과 번영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정년퇴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명심보감과 사서삼경을 꾸준하게 강론하며 후진양성을 위해 애쓰고 있다. 또 행동하여 모범을 보이기 위해 공적으로 다양한 역할을 맡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는 이 땅에 선비의 계보를 잇고 있는 인물 중 한 사람이라 스스로 자부한다.

그는 당진에서 태어나 당진에서 대를 이어온 신평이씨의 후손이다. 비록 일제강점기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 풍족하게 배우고 살지는 못하였지만, 교육열만큼은 탁월하여 어려운 시기에도 초등교육과정을 성실하게 마쳤으며 전통교육까지 섭렵하였다. 한학을 중심에 두고 평생을 공부하며 살아온 그는 '몸에 유학의 인이 박혔다'고 말한다. 이제야 순천(順天)의 방법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고도 말한다. 그리하여 직접 순천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베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역의 뜻있는 청년들을 모아 근재학

당을 열고 제자 양성에 힘을 쏟는다. 비록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6~9명의 인재를 모아 자택에서 서당을 열고 13년간 무상으로 성심을 다해 가르쳤다. 지금도 그때 공부한 제자들은 그들이 공부한 장소를 근재학당이라고 말한다. 그는 배운 바를 아낌없이 성실하게 베풀어 주려는 선한 본성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지역의 대표적인 한학자이며 유생이며 선비다.

| **김기상**(1939년생) 당진시 송악읍 |



흰 꽃, 소금을 피우다

김기상은 충남 당진시 송악면 복운리 출신이다. 대대로 복운리에서 6대를 살아온 경주김씨 집안으로 어릴 적엔 시향을 크게 지낸 기억이 있으며,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며 3형제를 키우셨다. 서당에서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 대학 등 한학을 익혔고 그로 인해 초등학교 입학이 늦었다. 11살에 송악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7살에 졸업한 뒤 합덕중학교를 다녔다. 당시 유명했던 합덕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합덕에서 하숙을 했다. 하숙비로 쌀 열 말을 주고 묵었는데, 차도 없던 시기라 집을 오갈 때면 새벽부터 출발해 갯가를 한

참 걸어야 했다.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위해 주말마다 집을 오가며 그 갯가를 걷고, 때론 하숙집 쌀을 짊어지고도 걸었다. 그렇게 20살에 합덕중학교를 졸업하고 용산고등학교에 원서를 넣었으나 군대를 가게 되어 그 이상의 학업은 포기했다.

21살에 군생활을 시작해 의무병으로 24살까지 복역했다. 당시는 1960년대 초반으로 이승만 정부의 퇴진과 5·6 군사정변 등의 사건이 있던 시기였다. 그는 가평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와 형들을 대신해 아버지 곁을 지켰다. 복운리는 농지가 정비되지 않아 농사일이 많지 않았다. 그 대신 한참 천일염전이 만들어질 시기라 주변의 권유로 염부 일을 얻었다. 그것이 그가 40년 일해 온 염전 일의 시작이었다.

1950년대에 송악엔 구지염전, 한진염전, 광양사염전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염전들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이 염전들은 천일염전으로 바닷물을 바람과 햇빛으로 증발시켜 만드는 방식이었다. 그 이전의 방식은 갯벌에서 농축된 바닷물을 끌어와 불을 때 바짝 졸여 만드는 방식이었다. 이것을 전오염(자염, 벌염)이라고 했다.

당진 서북부 해안은 갯벌이 넓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전오염을 생산하기에 좋았다. 벌막(염막)을 세워 전오염을 생산하는 곳이 많았는데, 당진에 '벌'이 들어가는 지명은 대체로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갯벌에서 소금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 소금은 천일염보다 고우며 더 깊은 맛이 난다. 전오염을 생산하기 위해선 물이 빠진 갯벌을 갈고 말린 뒤 구덩이를 파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 구덩이에 지푸라기를 엮어 통(통자락)을 만든다. 그 통도 흙으로 메운다. 그러면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서 벌흙을 통과하며 깨끗하면서도 염도가 높은 함수가 모인다. 그 함수를 퍼다가 벌막에서 졸이는데 불을 때기 위해서 나무도 많이 필요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한눈 팔 수 없는 작업이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소금을 합덕장에 내다 팔면 쌀과 맞바꿀 정도로 가격이 좋았다고 한다.

천일염전은 저수지, 제1증발지(느태), 제2증발지(난치), 결정지로 구성된다. 바닷물의 염도는 저수지에서 2도로 증발지를 거치면서 올라간다. 난치에서 15도 이상으로 끌어올린 후 결정지로 넘어가면 4~6시간 후 25도쯤으로 진해지고 서서히 소금꽃이 피어오른

다. 소금이 가장 예쁘게 올 때는 2~3시, 오후 3~4시쯤 되면 소금이 소복이 쌓인다. 염전은 눈처럼 하얀 소금꽃으로 가득 찬다. 이후는 채염 과정으로 소금을 소금창고에 옮긴다.

김기상은 36헥타르(10만평) 크기의 광양사염전에서 일했다. 총 10구역, 남1~5호, 북1~5호로 10개의 호에서 소금이 나오며 호마다 반장이 있었다. 그는 크기가 큰 남5호를 도맡고, 남2호도 거들었다. 호에는 대략 4~5명씩이 한 팀이 되었으므로 전체 40~50명 정도의 염부가 소속되어 있었다. 사람이 많으니 사택도 있었고, 소금이 많이 나는 6~7월에는 마을 사람들의 손을 빌리기도 했다.

염전일은 무척이나 고되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일이 계속되었다. 수차를 돌리는 일부터, 목도를 메고 소금을 옮기는 것까지 기계가 없던 그때는 모든 것이 수작업이었다. 그는 은퇴 이후 몸이 성치 않아 폐암 수술, 허리·골반 수술을 하였다. 현재도 어깨가 좋지 않은데 소금을 지고 나르던 어깨가 성할 리가 없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 묵묵히 일을 한 지 2년이 되던 해, 염반장 제의를 받고 남5호 반장이 되었다. 이후엔 임대를 받아 그가 직접 염전을 운영했다. 24살 제대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염전일을 하며 딸 둘, 아들 둘의 4남매를 두었다. 자식들을 키우다 보니 40년의 세월이 금방이었다.

그 세월 동안 염전도 많이 바뀌었다. 초창기엔 손으로 물을 푸던 것을 수차가, 그리고 나중엔 양수기가 대신했다. 평생 짊어졌던 목도도 요즘엔 없어졌다.

송악엔 염전이 무척 많았다. 염전이 많이 생기자 소금값도 예전만 못하게 되었다. 위치가 좋아 염전이 많이 생겼지만 삽교천 물이 들어오고 해바라기 농장이 생기면서 바닷물이 직접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마을이 발전되면서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주단지가 조성되었다. 염전이 위치하던 곳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염전은 점점 줄어들었다. 광양사염전은 그래도 오래 지속된 편이었다. 하지만 그가 퇴직할 즈음에는 인원도 많이 줄었다.

그의 어린시절엔 농사짓기 힘든 땅이었지만 농업용수가 들어오게 되고 농지도 정비되어갔다. 굴, 바지락을 캐며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자연의 혜택을 많이

본 마을이었다. 그랬던 마을이 정말 많이 발전하였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생기자 건설 현장에 나가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톨게이트, 휴게소 시설 등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다.

허허벌판이던 변두리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외지인들이 들어왔다. 공장들도 생겨났다. 뱃일을 하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한동안은 염전 일을 이어가던 사람도 많았고 소금이 복운리의 중요 생산물이었지만 지금은 염전이 남아 있지 않다. 대신 그 자리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물류단지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다. 마을은 변하지 않는 듯 변하고 있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줄어가고 발전에 따른 부작용도 존재한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세상의 이치인 걸. 소금을 만들며 자연이 주는 대로 살던 그때처럼, 세상의 변화에 순응하고 살아야 한다고, 그는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 **안승환**(1944년생) 당진시 송악읍 |



당진을 위한 나와 선대의 삶

안승환은 당진에서 태어나 당진 고대리 지역에서 어린시절을 보내고 서울로 올라가 수학하고 대학 졸업 후 지역사회로 돌아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의 선대들은 지역사회의 명망 있는 유지다. 선대는 당진 부수리에서 고대리로 내려오면서 정착을 하였고 간석지 개답을 통해 농토를 넓혔다. 선대들은 서울에서 공직에 있기도 하였다. 광주안씨 집안 하면 고대 지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명망 있는 집안이었으므로 조상의 음덕을 이어받아 유복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에게 언제나

베푸는 삶을 살았다.

그들은 동학농민운동시기, 일제강점기, 6·25전쟁, 근대사회와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거치면서 지역민과 함께 어울려 산 고대 지역 역사의 산증인이다. 동학농민운동시기 지역의 많은 양반가들이 수탈을 겪었지만, 안씨 가문 사람들은 호의적인 평판으로 인해 가혹한 수탈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 6·25전쟁 후 좌우 이념대립이 심했던 시기에도 주민들과 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했던 선대들의 지혜가 인상적이다.

특히 그의 아버지가 6·25전쟁 이후에 마을 치안대장으로 활동하던 이야기가 매우 극적이다. 지역 주민들이 공산당의 부역에 동원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문과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버지의 소신 있는 행동으로 많은 지역민들의 목숨을 살렸던 사연이 있다.

물이 가득 차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 안승환과 그의 선대 조상들은 지역민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실천하였다. 특히 안승환이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던 시기는 도로정비 사업이 한창이었다. 토지를 무상으로 국가에 헌납했어야 했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땅이 도로로 변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시기였다. 그는 고대 지역 새마을지도자로 활동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 간의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보며 자신의 문중에 있는 넓은 토지들을 도로정비 사업을 위해 거리낌 없이 내놓았고, 이에 지역주민들은 원만하게 도로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원칙과 명분을 중시하는 학자 집안의 후손답게 불의를 보고 굽히지 않고 맞설 줄 아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군사독재 시절에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해 그냥 받아들이며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군사독재 시기에 자신과 가문의 부귀만을 생각하지 않고 나라와 지역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 고된 것을 마다하지 않는 훌륭한 지역발전의 선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안승환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상록문화제 집행위원장으로 지낼 때 소신 있는 활동들을 하였다. 상록문화제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전통

문화제와 현대문화제를 분리하자는 운동을 펼쳤다. 당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서는 전통문화와 관련된 문화를, 상록문화제는 현대문화를 관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자는 것이 그의 의견이었다. 이러한 활동과 더불어 심훈 문학상을 만들어 지역의 문인들을 발굴하기도 하였다. 특히 당진 지역의 명망 있는 작가 남경현을 심훈문학상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잊혀졌던 근현대 문인들을 다시 역사의 전면으로 이끄는 작업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 문화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며 평생의 숙원으로 여겼던 일이 있다.

그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광주안씨 문중에 남아 있는 많은 문예 작품들과 화첩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인, 화가들과 소통한 광주안씨 문중에는 소소한 자료들이 소중한 사료로 남아 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료는 훼손의 위험성이 높아 보존하고 전승에 더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중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석봉 선생, 서애 유성룡 선생의 글씨, 백광훈 선생의 글씨 등이 남아 있고, 특히 정약용 선생과 추사 김정희와 관련된 서찰이 가문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다고 한다. 윤두서와 관련된 화첩, 부채 등도 소장하고 있고 이를 이용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박물관을 만들고자 한다.

또 구술자의 아버지는 1940~60년대 한국 농구의 시작을 함께하셨고 농구 역사 발전의 초석을 다진 사람이었다. 런던 올림픽과 그 다음 올림픽에 한국 대표선수로 출전해서 선수로 활약하고 이후에는 여자 프로농구 팀의 창단에 관여하고 감독으로 한국 농구 발전을 위해 일한 사람이다. 안승환은 아버지가 남긴 대한민국 농구 초기의 기록들과 사진들을 다량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초창기 농구 박물관을 세우려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 **신양웅**(1940년생) 당진시 석문면 |



육영사업에 바친 일생

신양웅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어려움 모르고 학업을 마쳤다. 사회생활도 평탄하였으니 부친이 설립한 삼봉학원 석문중학교에 교사로 사회의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교사에서 학교 최고 책임자인 교장에 이르기까지 난관 없이 근무하여 정년으로 퇴임할 때까지 순탄했으니 복이 많은 생애라고 할 수 있다. 교직에 몸담으면서 사소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겠지만 그것은 사회생활의 한 과정일 뿐이었다.

그는 사학과 출신답게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한편 사회 활동으로 향토사에도 일

찍 눈을 돌려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회에 입회하여 지역의 향토사 연구에도 선구자 역할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일찍이 향리에서 출토되는 유물에도 관심을 가지며 일찌감치 1970년대에 고향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수집하여 학교에 향토유물관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책에서 배운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교육을 실천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의병 활동을 하다가 소난지도에서 희생당한 의병들의 무덤 정화사업을 하여 행정기관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학생들을 정비 사업에 참여케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선대들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 번영된 조국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체험하게 하였다. 그야말로 산교육을 실시하였음은 오늘을 사는 모든 이들의 귀감이라 할 수 있다.

지역의 역사 기록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여 당진군지를 비롯하여 대호지면지, 당진읍지, 면천면지, 석문면지 등 군·읍·면지 편찬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이들 역사 지리서들이 발간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설립한 삼봉학원 석문중학교를 알차게 경영하여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도록 해 학생들로 하여금 학업에만 전념하도록 전심전력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보듬어 모범학교로 만들고 있다. 비근한 예로 석문중학교 학생 중에는 흡연을 하는 학생이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향토사연구 전국협의 회원, 당진향토문화연구소 회원, 당진문화원 부설 당나루 향토문화연구소 위원으로 80세의 노구임에도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연구에만 그치지 않고 연구 자료를 확보하여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선왕조실록에 당진 관련 기사를 발췌하는 등 그 결과를 당진문화원에서 책자로 발간하기도 하였다. 또 당진군지를 비롯한 대호지면지, 면천면지, 석문면지의 집필에도 적극 협력하여 지역사의 편찬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애썼다.

| **조선형**(1948년생) 당진시 석문면 |



왜목 개발은 내 필생의 사업

조선형은 광복 직후인 1948년에 인천에서 태어났으나, 1950년 한국 전쟁으로 부모의 생활 터전을 잃고 고향인 당진으로 피난을 내려왔다. 생활기반이 없는 고향에서 어린시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

고향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였으나 가정 형편상 외지의 고등학교 진학 형편이 되지 않아 중학교 졸업 후 집안일을 도왔다. 성인이 된 후 군에 다녀와 고향이 바닷가임에 착안하여 김양식업을 시작하고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 그리하여 당진에 호텔을 경

영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해안 개발 사업으로 석문방조제, 대산방조제 등의 사업과 발전소가 들어서는 등 바다에서의 생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는 지역민들과 힘을 합쳐 바다에서의 생활기반 붕괴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일정 부분 성공하였으나, 그것은 생활 터전을 잃은 데 대한 경제적인 보상일 뿐 고향 마을의 생활 터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남다른 애향심이 있어 보상금으로 생활 터전을 바꾸는 일을 하지 않았다.

그는 주어진 환경에서 살고 고향 마을을 좋은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고심했다. 그런 과정에서 고향 마을에서 노적봉 위로 떠오르는 일출을 눈여겨보고 이를 사진에 담았다. 그것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그는 이 사진을 가지고 행정기관에 찾아가 보여주고 이를 잘 활용하면 왜목마을을 관광지화 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때마침 충청남도에서 굴뚝 없는 산업, 즉 관광 산업 활성화 정책과 맞아 떨어져 관광지화 사업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진입로가 확장되는 등, 관의 지원을 받게 되었고 왜목이 일출명소로 전국적으로 유명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는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다. 고향마을 왜목이 모래가 없어 해수욕장으로는 적지가 아님에도, 이를 극복할 방법을 모색하다가 외지에서 모래를 반입하여 포설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이를 논문으로 작성하고, 실행에 옮겨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외지에서 많은 모래를 실어다 바다에 포설하여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의 이러한 피나는 노력으로 그의 고향 왜목은 연말이면 일출을 보기 위한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곳으로, 여름이면 해수욕장으로 인파가 몰려드는 관광지가 되었다.

2014년 국제로터리 3,620지구(충남) 총재로 추대되어 봉직하면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 없을까 고심 끝에 지구 내 다문화가정 100가정을 선정하여 로터리클럽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 2박 3일간 제주도 리허니문(묵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게 하는 일을 기획, 주관하여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돌보는 뜻 있는 행사를 하였다. 이를 위해 솔선수범하여 적지 않은 경비(2천만 원)를 솔선하여 투척함으로써 다른 회장

들의 협조를 이끌어 냈고, 스스로 앞장서서 봉사함으로써 한국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신부들이 한국에 애정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데도 솔선수범하고 있다.

그는 왜목뿐만 아니라 당진의 관광산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당진문화관광연구회를 조직하여 회장을 맡으면서 당진지역 관광산업진흥 및 관광자원 개발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 **임창묵**(1932년생) 당진시 대호지면 |



당진 지역운동

임창묵은 당진군 대호지면 출포리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을 지켜온 토박이이다. 일제강점기에 대호지면에 있는 조금초등학교를 14회로 졸업하였는데 당시 초등학교는 1학년에 일본어와 한국어를, 2학년부터는 일본어만 배우고 사용하게 했다. 그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가야 하는데 한글을 잘 몰랐다. 그래서 한글을 수 개월간 배워 6년제로 되어있던 서산농림중학교에 입학하여 3년에 졸업했다. 마침 중학교가 6년제에서 3년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기에 3년제 고등학교 제도가 생겼다. 대호지 집에서 학교까

지 거리는 40km로 왕복 80km를 2년간을 책보를 둘러메고 집에서 통학하였고 3학년 1년은 하숙을 했다. 3학년부터 학도호국단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3학년 여름에 6·25전쟁을 겪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쟁에 참여하라는 소집 명령을 받고 대전으로 모였으나 해제가 되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귀향하여 3학년을 마치고 인천 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달리기 특기생으로 갔다. 그는 달리기 선수로 전국 대회에서 활약했다.

졸업 후 고려대학 역사학과에 입학한 후 2년 다니다 결혼했고, 군대에 지원, 입대하여 의무병으로 제대했다. 제대 후 돈이 없어 대학교 복학을 못 하고 대호지 고향에 정착한 그는 한때 양계도 했고, 농사를 하며 농가 소득을 올리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나룻배 목선을 구입하여 앞바다에서 인천을 왕래하는 연락선 칠복호, 삼조운호 등의 큰 배에 물건 또는 사람들을 운반해주는 일, 바다를 막아 농토를 넓히는 간척사업 즉 방조제 축조공사에 돌을 운반해주는 일 등을 하였고 대호지 번영회장을 맡기도 했다.

임창묵은 당진군으로부터 당진군 재건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으로 발탁되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근무를 하게 되었다.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 하는 일은 글자 그대로 재건학교 교육의 재건, 푼돈 모아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금고 재건, 즉 온 국민이 잘살아 보자는 새마을운동이었다. 당시 그는 새마을운동 재건교육의 일환으로 당진 지역에 중학교가 없는 석문면·송산면·고대면·순성면·당진읍·대호지면·송악면 7곳에 학교를 세웠다. 그 유형은 돈 없어 중학교에 진학 못하는 학생에게 무료로 주야로 교육시키는 것이었으며, 교장 이하 교사들 모두 무보수로 봉사였다. 재건학교 유형은 문교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로서 그 본부는 재건운동본부 중앙회 소속이었다. 그는 송악면 중흥리에 상록재건중학교를 설립, 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또한 대호지 재건중학교 건립 교사로도 활동하였는데 이때도 당진 재건국민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겸직해 활동하였다.

재건국민운동본부에서는 당진 지역 7곳에 마을 단위로 새마을금고를 결성하여 운영하였고 새마을금고 당진연합회 사무국이 설치되었다. 그는 새마을금고 당진연합회 사무국장으로 20년간의 생활을 해오면서 당진 지역의 발전, 대호지 지역 발전에 평생을 이바지해왔다. 새마을금고 당진연합회 운영 구조는 여직원 1명, 남자직원 2명으로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당진군으로부터 3만 원이 나왔다. 그 적은 운영비로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많았다. 반 이상은 그의 자비와 사비로 충당해야만 되었다 한다.

임창묵은 그렇게 일하면서도 당진총력안보협의회 당진지부 사무국장도 겸직하였다. 1967년 재건국민중앙회에서 표창을, 1970년 내무부장관 감사장을, 1970년과 78년에는 충남도지사에게 감사장을 받는 등 크고 작은 상을 많이 받았다. 그 후 재경부 인가를 받아 오늘날 인기 높은 당진 새마을금고와 세계인에 각광받는 새마을단체가 된 것이었다. 그는 새마을운동 사업의 산증인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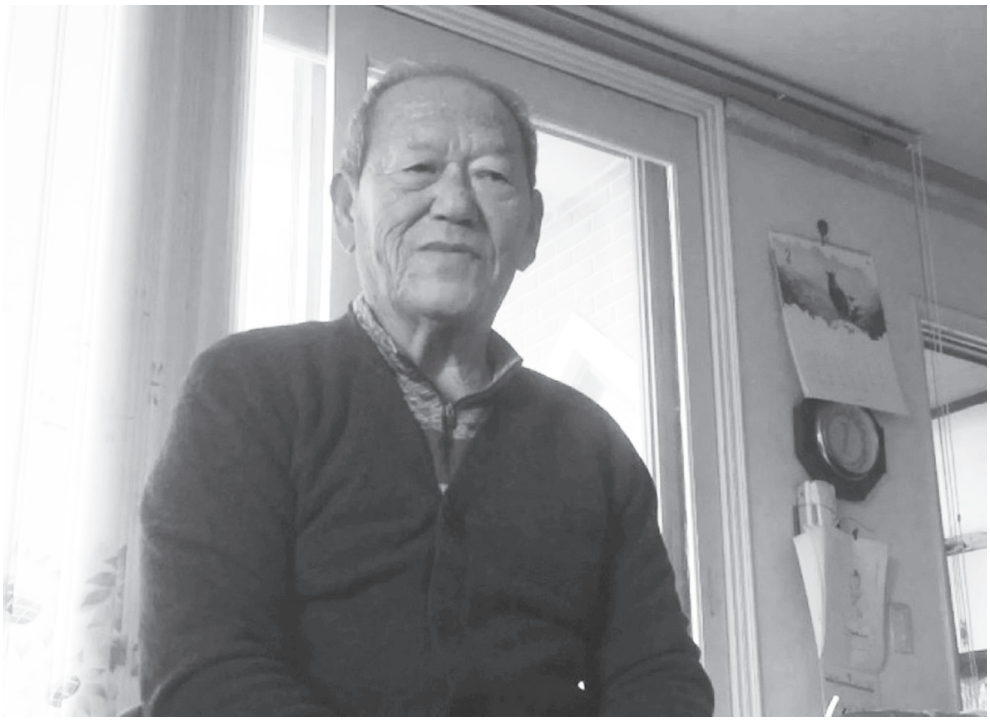
그의 유년시절 대호지는 육로보다 해상으로의 이동이 발달한 해변 마을이었다. 5일에 한 번 서는 당진장날에는 볏짚으로 만든 가마니 안에 돼지새끼를 넣어 등에 지고 당진까지 등짐지게로 지고 다녔고 송아지는 당진장까지 끌고 왔다갔다했다. 대호지 면민들은 논 밭농사와 함께 부업으로 해산물을 잡고 채취하여 살림에 보탰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도이리, 사성리, 적서리, 조금리, 출포리가 간척되어 농토가 늘었으며 상류에는 저수지가 설치되었다. 가뭄이 오면 늘 물 걱정이 많았던 지역에 수로를 개설, 설치하여 문제가 해소되었다. 그나마 농지면적이 적은 대호지에서는 바다를 막아 염전으로 생업을 하는 농가도 있었고 적서리 차영해는 개인이 바다를 막아 염전을 운영하기도 했다. 적서리의 새마을지도자 송세동을 주축으로 새마을사업으로 간척하여 농토를 확장, 대통령상까지 수상하였다.

또한 적서리 뱃 마을에는 샘표간장 회사가 들어와 간척하여 염전을 조성하였다, 그 시기 대호지면 조금리에도 간척을 하였고, 그의 동네 출포리에도 온양에 사는 개인 사업자가 들어와 간척을 하였다. 이 당시 그에게는 작은 배가 있어 방조제를 막을 때 해변 주변의 돌을 배에 실어 운반해 주었다. 특별히 그의 집 앞 출포리 간척사업을 할 때는 온양에서 온 간척 사업자들이 그의 집에 기숙하며 공사를 하였다. 하지만 그네들은 결국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서 떠났다. 이에 그와 아우 임현묵, 새마을지도자를 주축으로 임창묵이 사는 동네 동민들이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힘을 합쳐 공사를 마감하여 간척된 토지는 출포리 마을 사람들의 개인농토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토지에

대해 욕심을 내어 소송까지 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그는 적서리 뱃 마을에서 있었던 일화를 전했다. 샘표간장 회사에서 간척하고자 돌을 채취하던 바로 그 산에 장수구멍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불을 때면 바다 건너 서산 미사일기지가 있는 망일산 꼭대기에서 연기가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 장수구멍 안에 가보면 상투 자욱이 뚜렷이 있고 다섯 손가락을 집은 자국, 발을 디뎠던 자욱이 선명히 있었다고 한다. 대호지면 해안에는 인천으로 왕래하는 연락선이 정착하는 뱃터가 있었는데 그곳은 서산 명천, 대호지 사성리, 해창, 오섬, 천의 등으로 그곳에는 쌀을 반출 못하도록 뱃터마다 해안 초소를 설치하여 경찰이 제재를 했다고 한다. 식량증산과 비축미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정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후 대호방조제가 완공되어 글자대로 대호(大湖) 큰 호수가 되었고 대호지면 농가들은 대호만 간척으로 인하여 많은 농토를 분양받아 많은 쌀을 생산하는 곡창지대로 변하여 지금은 집집마다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

| **장기천**(1935년생) 당진시 송악읍 |



기지시줄다리기의 산 증인

장기천은 당진군 송악면 기지시리 시장통에서 태어났다. 5~6세에 현재 거주지인 안틀모시로 이주하여 80여 년을 살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8·15 광복이 되고, 이후 월사금을 낼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농사일을 하고 있던 아버지를 돕던 중 6·25전쟁이 벌어지자 17세 이상 남자는 의용군으로 징집되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16세라서 1살이 부족하고, 체구가 좋았지만 사람들 뒤에서 구부정하게 키를 줄여 징집되지 않았다. 6·25전쟁 때는 지역 도처에 수탈이 심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21세에 군 입

대를 했는데 군악대에 들어가 총명한 기억력과 음감으로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였다. 이후 26세에 중매로 결혼하게 되었다. 송악 의용소방대에서 30여 년간 활동하였는데 기계 분야와 훈련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서 훈련부장으로 20여 년 이상 활동하였다. 그 외에도 예비군 창설대, 민방위대 창설대로 활동하였고 지금의 자율방범대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향토방위대로 강도를 잡기도 하는 등 지역 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

지금은 기지시 시장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기지시 시장이 매우 번성했었다. 근처에서 기지시장이 가장 활성화되었는데 외곽도로(32번 국도)가 생겨나 교통이 발전함에 따라 상권이 당진으로 넘어가면서 시장이 쇠퇴하게 되었다. 기지시에 장이 설 때면 우시장 등 가축시장과 다양한 시장이 있었고, 수백 년 동안이나 시장이 번성하다 보니 억세거나 거친 사람들도 많아 다른 지역에서 기지시 사람이라면 어려워했다고 한다.

기지시줄다리기 행사와 겹치는 줄난장은 더욱 대단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돈이 많이 돌다 보니 노름하는 사람도 많았다. 줄난장은 농악대회, 씨름대회, 기지시줄다리기 등으로 구성되었다.

오랫동안 기지시 시장의 쇠퇴로 지역이 침체하였으나 2000년대부터 아파트 개발이 활성화되었는데 그는 난개발로 느끼고 있다.

그는 5~6세경 어릴 때부터 기지시줄다리기의 줄 제작에 참여하던 아버지와 주민들의 심부름을 거들면서 기지시줄다리기에 간접적으로 참여하였다. 성인이 되면서 그도 아버지를 이어서 줄 제작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당시에는 마을 한가운데 시장통에서 줄을 제작하였는데 이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어야 했지만, 주민들이 이해한 건 대동약방 이우영의 덕망 때문이었고, 이우영이 죽은 뒤 줄 제작은 마을 외곽으로 이전하여 진행되었다.

줄다리기를 위해서는 수상, 수하 두목을 선정하는데 이들은 어느 정도 지역에서 재력을 가진 사람들로, 줄 제작을 비롯한 행사 비용 확보와 지원을 담당하였다. 상인들이 행사 이후 비용을 각출하여 행사비에 보탰는데, 조달에 문제가 생기면 두목이 해당 비용

을 부담했다. 또한 지역의 재력가들이 짚을 지원해주기도 하였다. 기지시줄다리기의 문화재 지정 이후에는 도비와 시비를 지원받아 행사를 추진하였다. 그전에는 인근 안섬의 어민 이득천이 와서 줄 제작을 도와줬는데 그때는 지금같이 줄이 크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는 20대 이후부터 줄 제작 전면에 나서면서 자체적으로 줄을 제작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50여 년 이상 줄을 제작하면서 줄 제작 방식과 형태에 혁신을 가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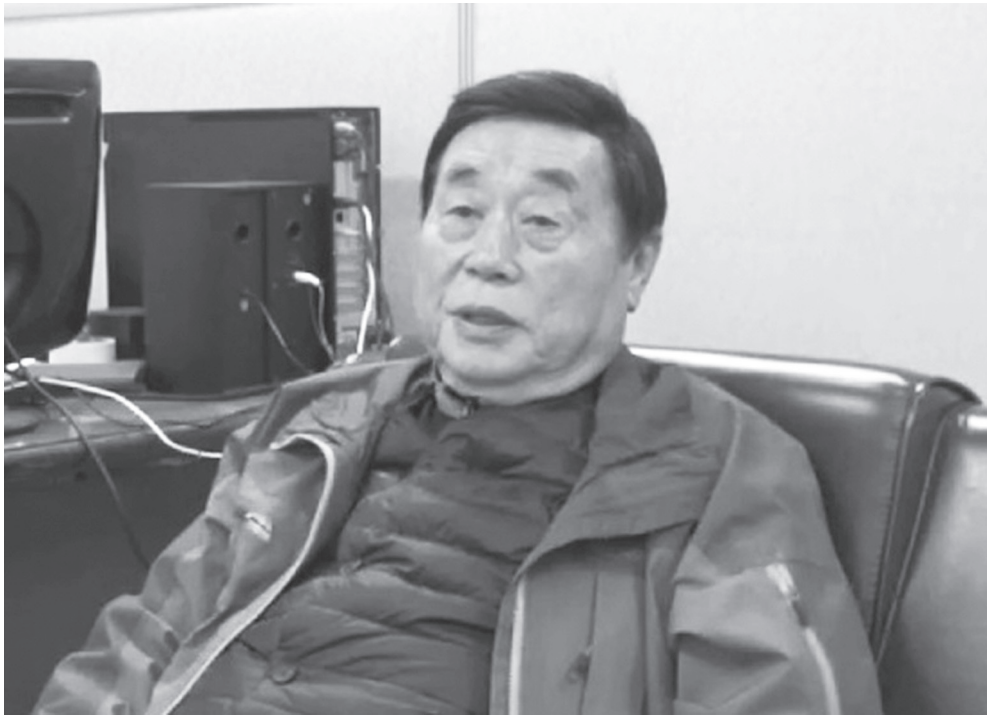
줄을 만드는 줄틀은 본래 큰 둠벙에 보관하였는데, 이후 초등학교 옆 연못에 보관하다가 최근에는 박물관 내로 이전하였다. 기지시줄다리기는 6·25전쟁 때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이후에는 윤년마다 지속되어 열렸다. 기지시줄다리기에서 그는 두목(장군)을 오래 하였으며 육성과 호각을 사용해 지휘하였다. 줄다리기 축제 때 오늘날에는 방송장비와 징을 울려 축제의 시작을 알리지만 과거에는 예비군 중대장이 공포탄이나 조명탄 등을 쏘아 줄다리기 시작 신호를 하기도 하였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지역 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 많은 행사에 참여하였다. 백제문화제와 대전, 서울의 효창운동장 및 왜목마을 등 각 지역행사에 가서 행사를 선보였다. 국풍81 행사에 참여했을 때의 기억이 그는 생생한데, 당시 줄 운반 과정에서 적재위반으로 고속도로 진입이 거부되는 등 어려움을 겪으며 서울로 운반하였다. 이후 여의도광장에서 서울의 구 대항으로 9일간이나 줄다리기가 진행되어 많은 고생을 했다.

한편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때 많은 유명인이 오기도 했고, 기지시줄다리기가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보존회가 결성되어 전보다 체계를 잡아나가게 되었다.

그는 1987년에 기지시줄다리기 이수자가 되고, 2001년에는 기능보유가 되는 등 이제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역사의 산증인이 되었다. 기지시줄다리기가 2015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으므로 관련된 지원도 많이 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 **이홍근**(1942년생) 당진시 읍내동 |



당진 발전의 조력자

이홍근은 당진 대덕리에서 태어나 상업과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님을 따라 4~5세에 읍내리에 있는 현 거주지로 이사하여 성장하였다. 비교적 순탄한 학창 시절을 보냈으나 고등학교 재학 중 부친의 사망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모친의 강한 의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는 대학에 진학하여 학업을 이어나갔다.

그는 대학에서 ROTC를 선택, 졸업 후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였다. 전역 후 호남비료 등 기업체에 입사하여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지방근무와 장남으로서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 고향인 당진으로 귀향하였다. 군에서 장교로서 활동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75년 당진 지역에서 예비군 중대장으로 활동하면서 안보 분야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또한 예비군 안보교육 강사를 맡아 지도하게 됐는데 이후 민방위 강사까지 도맡으면서 안보교육 분야에 20년 넘게 종사하면서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처음에는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할 정도로 여건이 정비되지 않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환경이 좋아졌다고 한다. 학교 강당을 이용하면서 교육 여건이 개선되었고, 안보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 대부분이 몇 년을 하다가 그만두었지만, 그는 20년 이상 꾸준히 활동하였다. 이후에도 자유총연맹 활동 등 안보 분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통일교육전문위원에 위촉되어 안보교육 분야의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홍근은 지역의 성인 남성들이 필수적으로 접촉해야 하는 예비군과 민방위교육 강사로 꾸준히 활동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졌고 91년 지방자치제가 실행되면서 도의원에 당선되어 이때부터는 정치인으로서 활동하였다. 특히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당진에 방문했을 때 지역위원장으로서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었다. 그는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러한 강사 경력이 기반이 되어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이후 그는 도의원으로 활동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당진군수에 출마하기도 하였으나 낙선하였다.

그는 지역에서 개발위원장,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발전과 관련한 굵직한 사업들을 추진하였다. 우선 대학 건립과 대학 유치사업을 진행했는데,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인사는 물론 출향 인사들을 직접 찾아가 대학 건립 의사를 타진했고, 그 중 이병하 당시 신성레미콘 대표와 협의하여 토지매입과 대학설립 인가 등 대학 건립과 관련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었다.

1997년 당진군개발위원장을 맡아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당진항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고, 한보철강이 부도나자 7~8년간 민간단체를 조직하여 '한보 살리기'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보의 제철소 공장이 IMF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정부에서 분리매각 방침이

논의되자 이를 반대하고, 종합제철소로 한 번에 매각되도록 정부와 민간기업에 건의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는 서해대교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유치에도 기여하였다. 90년대 지속적인 중앙으로의 건의와 활동으로 당초 평택-예산-홍성으로 잡혀있던 고속도로를 당진을 거쳐 지나가도록 하여 지역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그는 지역의 문화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데 남이흥장군숭모제 집행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기획, 진행했고, 서울의 '황학정'을 본따 '충장정'이라는 활터를 남이흥 장군 묘소 일대에 조성하여 남이흥 장군의 정신을 기리는 데 앞장섰다. 상록문화제의 경우도 당시 문화원장과 함께 행사를 기획하고 제안하여 오늘날 지역의 도심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4·4 독립만세운동기념탑 역시 교수 김창희와 협력하여 지역의 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조형물로 건립하였고, 상록탑 건립 및 크고 작은 문화행사의 유치와 운영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그의 진술을 통해 90년대 당진의 핵심적인 발전 요소였던 당진항, 한보철강의 성황과 부도 이후 현대제철로의 전환, 서해대교와 서해안고속도로의 유치 과정, 신성대학교의 설립 과정, 남이흥장군문화제와 상록문화제 등 각종 문화행사의 시작 등 급변하는 당진의 변천사를 구술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당진이 하나의 완성된 도시의 인프라를 갖추는 과정과 모습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아울러 그러한 기반 아래 2012년 당진군이 당진시로 승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손창식**(1954년생) 당진시 고대면 |



대장장이

손창식은 고대면 대촌리에서 8남매 중 6째이자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에서는 1890년대부터 4대째 대대로 대장장이 일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당진에서, 그는 나머지 가족과 고대에서 거주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중에도 대장간 일을 하는 아버지와 형을 도와 풍구를 불거나 심부름을 하는 등 일을 거들었다. 그때는 당진 읍내를 근거로 하고 석문, 기지시, 고대 할미당 등 각 읍면의 장터에 천막으로 오두막을 짓고 장터마다 다니면서 대장장이 일을 했다. 어릴 때 대장장이 일을 배우다 불똥이 튀어 구경하던 아이

가 다치기도 하였고, 용광로에 쓸 숯을 만드는 나무를 해오기도 했던 경험이 있었다. 지금도 눈이 오는 날 고대면 장터에서 당진읍까지 걸어서 오던 기억이 난다.

대장간 일은 아버지, 형과 그가 함께 하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30여 년 전 형이 빠지면서 이후 현재 자리에서 그가 혼자 대장장이 일을 이어가고 있다. 대장간은 지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시장의 위치가 변경될 때마다 계속 이전하였다. 처음에는 60년대까지 1교 다리 뒤쪽 천변에서 하다가 70년대는 1교와 2교 다리 사이에서, 80년대 현재 당진시장 한가운데, 마지막 90년대 지금의 위치로 이전했다. 세 번째까지는 시장이 이전될 때 함께 옮긴 것이고, 현재 자리로 온 것은 소음 문제 때문이었다.

당진장은 당진이 급속히 발전하고 도시화 되며 시장이 계속 위치를 바꾸게 되었다. 당진시장에는 예전에는 가축시장도 있고 대장간도 여러 개 있을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되었었다. 말굽, 마차, 농기구, 어기구 등 다양한 항목을 취급하며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대장간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가 운영하는 당진대장간 하나만 남았다. 60~70년대에는 읍면 지역 시장마다 다니는 버스와 화물차량에 상인들이 함께 다녔고, 혹은 짐자전거로 다니기도 하였다. 그때까지 읍면장에는 천막으로 지은 오두막이 있어 그곳에 부피가 큰 물건은 두고 이동시에는 간단한 공구 상자(궤짝)만 가지고 다녔다.

그는 23세부터 본격적으로 대장장이 일에 투신하였다. 물론 어릴 때부터 계속 거들기는 하였지만, 군대에 다녀와서부터 운영에 참여한 것인데 처음에는 손님이 맡긴 호미나 농기구를 부러트려 황토로 다시 붙여주기도 했고 호미와 자루를 맞추는 것을 헛갈리기도 하였으며, 6~7년 전에는 손을 크게 다치기도 했다. 형님과 함께 처음에는 대장간에서 고철을 사용해 철 제품을 제작하며 여러 사람이 일일이 모루에 제품을 달구어 두드려가는 전통적 제작방식을 따랐지만 70년대 프레스 기계를 도입하면서 하루에 호미의 경우 600~700개 정도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 대량생산이 가능해지며 전국으로 호미나 농기구 등을 납품하였고 대장간이 번성하였다. 당시만 해도 호미 등 농기구 수요가 있어서 밤새 제작을 해도 수요를 맞추지 못할 정도였다. 가을에 선주문을 받아 겨우내 제품을 만들어서 화물차로 전국의 철물점에 납품하기도 하였다. 당시는 아침 6시부

터 저녁 9시까지 근무했고, 휴일 없이 일했었다. 지금도 폐차장의 판스프링을 구해서 이를 가공해 호미나 각종 기구를 만들고 있다.

제작 품목은 대부분의 대장간과 같이 호미 등 농기구였고, 바다를 끼고 있는 당진 지역의 특성상 창, 닷, 조새 등 어구도 많이 제작하였다. 동네에서 사용하는 가래 등 함께 쓰는 도구는 취향에 맞게 주문 제작하기도 하였다. 목수가 사용하는 큰 자귀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수평이 맞지 않거나 담금질이 잘못되어 이가 나가면 와서 항의하기도 하였다. 예전에는 손님들이 와서 함께 풍구도 불어주고 망치질도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사라졌다. 가공하는 연료는 나무로 숯을 만들어 사용하다 70년대부터 문경탄이라는 석탄을 사용했고 2000년대부터는 중국산 석탄을 사용하고 있다.

지금은 유압기, 레이저 등 첨단시설을 사용해 만들고 저렴한 중국산 제품이 도입되면서 사실상 가격 경쟁력을 많이 상실한 상태이다. 특히 중국산 제품은 가격 차이를 맞추기 어렵고 제품의 품질도 예전에 비해 질이 좋아진 상태라 대장간에서 판매하는 도구 역시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가격을 올리기 어렵다 보니 하루 매출이 6~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대장간을 찾는 주 고객 역시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인근 한보철강이 생겨나며 함께 하던 인력이 유출되어 하루 생산량도 크게 떨어져 호미 30~40여 개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 아울러 과거에는 어구들을 많이 제작하였으나 해안에 공장이 들어오고, 방조제가 생겨나면서 이러한 어구들의 수요가 급감하였다. 지금도 몇몇 철물점에서 계속 주문이 들어와 꾸준히 납품하고 있지만, 중국산 도구에 맞게 단가가 책정되어 월수입도 100여만 원 내외라 사실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지만 130년 이상 4대에 걸쳐 대장장을 전승해 온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일부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후 아들에게 월 1~2회 정도 전수를 하고 있으나 대장장으로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장기적으로는 체험교육, 전시장 등을 통해 형태를 바꾸고 지원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 **이춘의**(1937년생) 당진시 면천면 |



면천 사랑

이춘의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당진(면천)에서 태어나 당진에서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였다. 고등학교 때에도 한학에 매진했다. 군생활 시절과 공직 초기 몇 년을 제외하고 당진에서 공직에 봉직하면서 늘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고 고향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였다.

이춘의는 일제강점기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시대적으로는 세계 2차 대전과 조국광복, 6·25전쟁 등 격변기를 겪으며 자랐다. 한학을 숭상하는 집안 분위기에 따라

어려서부터 한학을 공부하는 한편, 현대교육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강습소 그리고 면천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광복 후 6·25전쟁 무렵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을 마쳤다. 중학교 졸업 후에는 공주사범학교에 가고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마침 고향에 신설된 면천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하였다.

그는 국방의무를 마치고 제대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 당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충남도청에 몇 년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고향 당진에서 공직생활을 영위하며 고향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왔다.

그는 특별히 면천이 유서 깊은 고장임을 늘 자랑으로 생각하며 애향심을 갖고 있다. 면천을 깊이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왔고, 지금도 면천을 떠나지 않고 살고 있다. 특히 유서가 깊은 고장인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문화유적이 고향에 많이 남아 있음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는 공직에 봉직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자랑스러운 면천의 문화유적을 잘 보호하고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였다. 역사적으로 백제 때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면천이 당진보다도 오히려 유서가 깊은 고장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왔다.

그런 그가 1993년 당진군 조례로 향토유적 제도가 생기자마자 군자정을 당진군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한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군자정은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기 전에도 기회가 있을 때 예산을 투입하여 보수하는 등 애정을 많이 쏟아온 터였다. 면천 군자정은 고려 때 곽충룡이 조성한 군자지와 그 군자지에 1803년에 유한재 군수가 건축했다가 멸실된 것을 융희 기원후 기해년에 재건했다. 그는 군자정에 대한 애정이 지극하여 1994년 번듯하게 중건하였는데 면천의 문화유적에 대한 깊은 애정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애착이 지나치다 보니 군자정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크고 화려하면 좋은 것으로 생각하여 원정자의 주초석이 원형대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원형과 괴리되는 건축물로 재건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였다. 어찌 보면 지나친 애향심의 발로였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원래 주초석을 빼버리지 않고 그 위에 시멘트로 덮어 기단을 조성한 것은 먼 후일이라도 원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공직에 근무한 이춘의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극정성으로 헌신하였다. 특히 예산을 확보하여 당진 공설운동장을 개설하여 전 당진시민이 유용하게 사용하게 한 것이라든지, 아미산 등산로를 개발하여 당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게 한다든지, 난지도에 청소년 수련원을 개설한 것 같은 일은 아무나 생각해 낼 수 없는 일로 그의 고향에 대한 열정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고향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 일에도 힘을 다하여 도로 확포장에 많은 공헌을 하였고 면천면장에 부임하여 농지경지정리 사업을 유치하여 시골 다랑이 논을 기계화 농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향 사랑을 말없이 실천하면서, 마을마다 마을 공용 토지를 조성하여 공용주차장을 확보한 것 같은 일은 아마 전국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창의적인 행정이라 할 만하다.

그는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향을 떠나지 않고 고향에 수석전시관을 개관하여 고향 사람들의 문화 향수에도 일조하고 있다.

역사는 기록에 의하여 후세에 전해진다는 철학을 가지고 기록을 남기는 자세 또한 이춘의의 신념이다. 1919년 3월, 모교에서 일어났던 학생만세운동 사실을 조명하고 이것을 돌에 새겨 '3·10만세운동 기념비'를 세운다든지 면천면의 경지정리를 끝내고 이를 돌에 새겨 후세에 기록으로 남겨 물려준 것 같은 일들은 다음 세대에 길이 기록으로 남겨 주고 또 역사에 책임진다는 자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금산군

| **설재용**(1936년생) 금산군 부리면 방우리 |



쌀 한 톨 빼먹도 못하고

설재용은 새벽 3시에 기상해서 6km가 넘는 무주군 대차리에 가서 볏단을 지게에 지고 왔다. 아침에 가서 중간 지점에 한 번 한 지게 가져다 놓고, 다시 가서 한 지게 지고 집으로 왔다. 아침을 먹기 위해서였다. 아침을 먹고 다시 가서 중간에 가져다 놓고, 다시 대차리 가서 지고 집에 가서 점심 먹었다. 이렇게 3일만 하면 문지방을 기어서 넘어야 했다. 무릎 관절이 아프기 때문이었다. 방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 하늘만 보이는 방우리에서 살려면 이 고생을 반복해야 했다. 방우리 처녀들은 쌀 서 말도 못 먹고 시집 갈

정도라 했다.

마을주민 설병환의 주도하에 금강물을 돌려 농토를 만들기로 했다.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사람들이 원방우리 들어가는 선바위 쪽에서 농원으로 넘어오는 염재 밑으로 양쪽에 30m 정도를 파놓은 굴이 있었다. 물길을 터널로 돌려 현재의 농원 자리인 금강 가자갈밭을 논으로 개답하자는 취지였다. 관의 허가를 받아 일을 시작했다. 처음 계획은 지렛여울 건너 7채, 농원자리에 18채 집을 짓고 25가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갈선산에서 나무를 베어 강에 띄워 농원으로 운반해서 6채씩 3줄로 간단하게 집을 짓고 열여덟 식구가 입주했다.

설재용은 밤낮으로 굴 뚫는 일을 했다. 품삯은 없었다. 식량으로 배급받는 옥수수가루가 전부였다. 옥수수가루로 끼니를 해결하며 공사가 끝나면 1000평씩 생긴다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어려움을 참고 일했다. 개답이 되면 1000평씩 분배받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연일 이어지는 고단한 작업은 감내하기 어려웠다. 양쪽 굴 가까이에 대장간을 마련해 놓고 정을 빌어 가면서 일했다. 두 명이 한 조가 되어 한 명은 정을 잡아주고 한 명은 함마로 쳐 바위에 구멍을 내고 화약을 넣어 터트려 바위를 깼다. 바위가 워낙 강한 화강석이라 어려웠다. 부인들도 동원되어 돌을 날랐다.

이렇게 6년 만에 터널을 뚫었다. 열여덟 가구가 애초에 약속한 1000평이 아닌 800평씩 분배받았다. 그러나 자갈밭을 논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것을 논으로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눈물을 머금고 하나둘씩 분배받은 땅을 헐값에 팔아넘기고 내빼듯 농원을 떠나갔다.

게다가 고통과 눈물로 만든 터널은 재차 확장공사를 해야 했다. 소수력발전소를 만들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였다. 문제는 기존의 터널이 작다는 것이다. 물이 차 있는 터널에 들어가 다시 확장작업을 했다. 눈물 나는 노력으로 다른 지역보다 일찍 등잔불에서 전깃불로 바꾸게 되었다.

강물이 겨우 빠져나가는 길옆에 마을이 형성된 방우리는 피난고지라해서 전쟁도 피할 만한 곳이라 했다. 어느 곳보다 들어가고 나오기 어려운 곳이 이 방우리이다. 강과 산으

로 막혀 다른 곳으로 소통하기 어렵게 된 지형 때문에 마을이 있다는 것이 얼핏 보기에도 의아한 곳이다. 그래서 전쟁 첫머리에는 외지인들이 피난을 왔었다. 그러나 이곳 방우리는 인민군들이 지나가는 길목이 되어 고통을 많이 받았다. 전쟁 후에도 공연히 멸시를 받아야 했다. 좌우익의 구별이 엄연히 존재했던 시절이라 아무 말도 못 하고 수모를 감내해야 했다.

마을 앞 병풍산에 인민군들이 숨어 있었다. 곧 인민군들은 사살되었고 여자 하나만 생포됐다. 그 여자는 젊은 여자였는데 진주가 고향이라고 했다. 경찰들이 여자를 데리고 철수한 뒤에 그날 새벽 3, 4시경 밖에서 다급하게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 나가보니 부상을 입은 인민군이었다. 부상을 당한 채로 강물로 들어가 목숨은 부지했던 모양이다. 상처를 치료한 후 아침이 되자 어디론가 떠났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금강을 건너 굴천 쪽에서 죽었다고 한다.

농원은 버스가 들어오지 않은 곳이다. 고갯길이 험해서 대형 차량은 통행에 불편이 있다. 그나마 길다운 길이 난 것은 소수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였다. 그동안은 바위를 기어서 올라가는 그런 험한 길이었다. 원방우리도 길이 나기 전에는 들어가기 어려운 동네였다. 지금 선바위에서 염재 중간까지 올라와서 비스듬히 내려가야 원방우리로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나왔다. 오솔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벼랑길을 소를 몰고 가던 사람이 소가 미끄러지면서 소고삐를 놓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그 사람은 척추를 다쳐 거동을 일체 하지 못하다 죽었다.

사람들은 염재를 넘어 무주에 가서 소금을 사오기도 했다. 농원 지렛여울에서 농사를 지어 볏단을 지어 나르기도 했다. 통행하기 얼마나 어려웠으면 산 중턱에서 터널을 뚫자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아예 강물을 돌려 버리고 무주 내도리를 감도는 금강을 개답하자는 의견도 나왔었다. 모두 불발로 끝났지만 염재 확장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다행인 것은 소수력발전소 직원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1976년 6월 8일 비가 유난히 많이 왔다. 학생들은 일찍 귀가하라고 서둘러 하교시켰

다. 내도리, 방우리 학생들이 집에 가기 위해 앞섬나루에 몰려들었다. 배는 학생들과 어른들을 태우고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강물이 세차에 내려와 직선으로 가기 어려워 좀 더 올라가 대각선으로 배를 띄우기 위해서였다. 그래야만 강 저편 나루터에 배를 댈 수 있었다. 나루터 위쪽 칠암에 이르러 배를 돌리는 순간 뱃전으로 물이 넘쳐 들어왔다. 급하게 물을 퍼냈지만 배는 중심을 잃었다. 남학생들은 헤엄을 쳐 나왔지만 여학생들은 급류에 휩쓸려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당시 시신조차 찾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등에 지고 있던 가방의 부력으로 강물에 떠내려가다 지나가던 우체부가 발견하여 구조된 여학생도 있었다. 그 여학생은 시집갈 때 자기를 구해준 은인에게 옷 한 벌을 선물했다. 사고로 희생된 학생들을 위해 방우리로 들어오는 산기슭에 추모공간을 마련했으나 시간이 흐른 요즈음은 유가족의 발길도 뜸하고 찾는 사람도 없다.

사고가 난 앞섬마을 나루터에서 조금 아래쪽에 대통령의 지시로 다리를 놓았다. 다리가 놓인 후 슬픔 어린 나루터도 사라지고, 배사고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이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 **길준열**(1938년생)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



금강과 더불어 살아온 삶

어린시절 늘 배고픔을 달래기 어려웠다. 토지가 별로 없었던 강가에 자리한 마을 수통리는 논이 많지 않은 곳이라 쌀밥은 더욱 구경하기 어려웠다. 대부분 밭작물로 연명했다. 연무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양구로 배치받았을 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좋았다. 육체적으로 어려워도 밥을 먹으니 이만하면 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휴가 오기는 만만치 않았다. 군용버스로 춘천까지 오고, 열차로 용산역까지 와서 1박했다. 그리고 군용열차로 대전에 도착하여 금산에 가는 차편을 만나면 운이 좋은 것이다. 걸어서 금산까지 와서 또 수통리까지 걸어왔다. 집에 도착하면 한밤중, 며칠 지나면 귀대 일이었

다. 또다시 귀대하면서 이틀을 보낸다. 10일 휴가에 나흘이나 이동하느라 허비했다. 33개월 21일 만에 제대하여 고향에 정착했다.

제대 후 아랫마을 평촌리에 사는 여자와 중매로 백년가약을 맺었다. 얼굴도 못 본 상태에서 결혼하게 되었는데 마침 평촌리에 사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색시 잘 골랐다고 하여 좋았다. 마을 앞 강가는 비가 오면 물이 쓸어나가는 곳이라 농사에 적합지 않았다. 새마을운동 때 둑을 막아 개답하여 농토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후로 먹고살 만한 동네가 되었다.

취사와 난방을 위해서는 나무를 해야 했다. 인근 산은 모두 벌거숭이로 변해 멀리 무주까지 땔감을 하러 갔다. 여러 명이 함께 나무를 하러 다녔다. 거리도 멀거니와 무주 사람들의 텃새도 있어 여럿이 가는 것이다. 나무를 해서 뗏목을 만들어 싣고 왔다. 칡으로 얽어맨 뗏목은 거친 물살과 물가의 바위 등으로 인해 대단히 위험하였다. 깊은 곳에서 잘못 조종하면 나무도 잃고 사람 목숨까지도 위험했다. 이렇게 가져온 나무는 물기를 말려 땔감으로 사용하였다.

배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한 곳이 수통리다. 나무로 만든 배는 10년 내지 15년이면 교체하여야 한다. 그 사이 5년이면 수리를 해야 한다. 물이 닿는 부분이 쉽게 상하기 때문이다. 이 때도 배 수리용 목제를 구하기 위해 무주로 갔다. 통나무를 베어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

배는 마을에서 힘 좋은 사람을 사공으로 삼아 운영하도록 했다. 사공은 배를 떠나지 않았다. 대부분 강 건너 농사처에 일하러 왕래하는 마을 주민들로 정해진 시간 없이 이용했기 때문이다. 사공을 위해 일찍 귀가하였지만 때로는 일을 하다가 늦는 경우가 많았다. 사공은 늦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출렁다리를 놓았다. 아무런 지원 없이 타 지역의 출렁다리를 보고 와서 제작하였으나 장마로 유실되었다. 유실되면 다시 놓기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외부에 요청하여 지원을 받아 현재의 다리를 가설하였다. 자체적으로 출렁다리를 놓았다는 점에 있어 마을주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

강가 마을의 장점은 물고기를 언제나 잡아서 식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없는 물고기가 없었다. 쏘가리, 꺽지, 빠가사리(동자개) 등 그리고 씨알도 굵었다. 그물보다는 철사로 만든 작살로 잡았다. 깊은 곳에 잠수하여 작살로 잡았다. 여름이면 남녀노소 없이 강가에서 천렵을 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렇게 금강은 마을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주었다.

작살뿐만 아니라 불법이지만 약을 풀어서 잡기도 했고, 깡이라고 해서 다이너마이트를 구해 잡기도 했다. 위험한 방법이었지만 단번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 좋았다. 군 시절 무기고로 배치를 받아 휴가 때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나와 사용하기도 했다.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고향에서 물고기 잡던 생각에 잠시 이성을 잃었었다. 우여곡절 끝에 사고 없이 고향까지 운반했고, 그것을 사용하여 고기를 잡았다. 군법에 저촉되는 행위인데 말이다. 당시 다이너마이트를 잘못 사용하여 불구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천만다행으로 아무런 사고가 없었음에 감사한다.

마을 앞으로 'C'자 형으로 강물이 돌아 나간다. 제방이 없었을 때는 민가가 있는 곳까지 물이 들었다. 경작지로 적합하지 않은 땅이 넓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곳에 아무것도 심지 못했다. 너무나 아까운 마음에 플라타너스와 소나무를 심었다. 나무가 좀 자랐을 때 군청에서 개답을 한다고 나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청에서 나무를 베어준다고 해서 허락했고 그 돈으로 땅을 샀다. 나무를 심었던 그 땅은 노임으로 당시 미군사령부에서 지원하는 밀가루를 받고 개답해 논으로 변했다. 또 포플러가 수입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강가에 심어 재미를 보았다. 그 땅이 또 개답되는 바람에 나무를 베어 팔아 돈을 벌었다.

남들보다 먼저 생각하여 실행에 옮긴 결과였다. 군 시절 훈련 때 한강 백사장을 처음 보고 이렇게 넓은 땅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의아해 했다. 장영자라는 사람이 그 땅을 샀다는 뉴스를 보고 대단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한 수 배우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그 후 돈이 될 만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일제 때 지어진 구옥이 많이 있었다. 관리가 안 되어 폐가가 된 경우는 매매가가 매우 헐했다. 그런 집을 사서 되팔아 재

미도 보았다.

종중 땅을 싸게 사서 다시 팔아 돈을 남기기도 했다. 본래 적벽강의 바위, 즉 적벽이라 불리는 곳이 종중산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외지인의 소유가 되었다. 금강유역의 경관 좋은 땅이 그 당시 부동산투기 바람으로 인해 외지인의 손에 많이 들어갔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형님의 사업 실패로 다 써버렸다. 형님은 인삼을 판매하였는데 투자를 잘못하여 어렵게 되었을 때 도와주었다. 동기간은 수족이라는 생각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깝지 않았다. 남들처럼 배우지는 못했어도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었고 또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사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 **길상하**(1940년생) 금산군 부리면 수통리 |



대한민국에서 땅이 제일 귀한 동네

수통리 도파는 하늘 아래 첫 동네도 아닌데 농사지을 땅이 없었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땅을 적게 가진 사람도 없었다. 모두 비슷한 처지였다. 토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도회지처럼 땅값이 비쌌다. 60년 전에는 도파 땅 한 평 값이 대도시 두 평 값과 맞먹는다는 말까지 나왔다. 현재 도파의 부동산 시세는 예전과는 달라졌다. 금강 가의 토지는 천정부지로 올라 있으나 거래는 많지 않다. 한때는 부동산 투기가 도파까지 불어 외지인들에게 팔려 나갔으나 현재는 귀촌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부동산 거래가 뜸하다.

논으로 활용할 농지가 없다보니 밭곡식 위주로 농사를 지었다. 보리, 밀, 고구마, 조, 옥수수 같은 작물을 재배하여 끼니를 해결했다. 수통리 앞 금강가를 개답하여 토지로 만들기 전까지 무척 어려웠다.

수통리와 도파는 한 마을이지만 강을 사이에 두고 있다. 시멘트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나룻배나 다리를 놓아 소통하였다. 하절기에는 물이 많아 나룻배를 이용하였고, 가을과 겨울에는 물이 줄어 배를 사용하기 어려웠다. 가을걷이 전에 나무다리를 놓아 다음해 장마로 유실되기 전까지 사용하였다. 가을에는 강 건너에서 거둬들인 농작물을 날아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다리를 만들었다. 도파에서는 섶다리라 하지 않고 징검다리라고 했다.

수통리가 외부와 소통하려면 이곳 도파나루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통리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이 보이나 사실은 도파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한다. 네 계절 모두 양각산에 의지하여 나무하고 거름용 풀을 채취해야 하는 도파 주민들에게는 나룻배와 다리가 생활과 생업에 직결되었다. 그래서 다리를 놓을 때 수통리보다 도파가 조금 더 많이 담당했다. 대략 3분의 2 정도는 도파가 담당했다.

다리에 소용되는 나무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각 호에 할당하여 준비했다. 다리발, 멍에, 발채라고 하는 재료가 모아지면 강 양쪽 선창에서 다리를 놓기 시작하여 가운데서 만나는 식으로 작업을 했다. 강 양쪽은 흙을 모아 다리와 연결하였는데 그것을 선창이라 했다. 다리발을 세우고 멍에로 연결한 다음에 발채를 깔았다. 발채 위에 솔가지로 깔고 다시 위에 떼를 떠다가 뒤집어 깔아서 완성했다. 이렇게 다리를 놓아 다음해 큰물에 유실되기 전까지 유용하게 이용하였다.

강은 인간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일로 아픔이 되기도 했다. 여름철 물놀이를 왔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강의 생리를 모르는 외지인들이 수영 미숙으로 일을 당하거나 다슬기를 잡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는 무주에 가서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결박하여 강물에 띄워 타고 내려오다가 뒤집히는 바람에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잘 알고도 당하는 것이 미시기물이었다. 멍석말이, 덥석말이물이라고도 불렀던 미시기물은 예고 없이 닥치는 물이기 때문에 금강에 있다가 피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하는 수가 있었다. 금산 지역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는데 무주나 용담, 장수에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 갑자기 물이 밀려온다. 강가에 나갈 때는 언제나 미시기물 조심하라고 주지시키지만 미시기물이 언제 올지 모르는 일이라 항상 경계해야 했다. 한번은 미시기물로 고립되어 있던 주민을 헬리콥터로 구조한 적도 있었다.

도파에서는 금강을 부를 때 금강이라 하지 않고 큰물이라고 했다. 산에서 내려오는 지류는 또랑물, 개울물로 호칭했다. 강에는 여울이 많았다. 방우리와 경계가 되는 곳에 지렛여울이 있었고, 도파 위를 윗여울, 도파 앞 여울을 아랫여울, 마을로 들어오는 입구 압수 앞을 도테여울이라 하였다.

여울을 돌로 가로 막아서 고기를 잡았는데 살이라 불렀다. 돌로 여울의 얕은 곳을 팔(八) 자 모양으로 막아 물이 넘치는 곳에 싸리로 만든 통살을 대어 고기를 잡았다. 물이 약간 고여 있는 곳에서는 담이라 하여 돌무더기를 쌓아 놓아 고기가 그곳에 들게 한 다음 그물을 둘러치고 돌을 들어내면서 고기를 잡았다. 그물이 없는 경우에는 가마니를 사용하기도 했다.

길준열은 횃불을 만들어 밤에도 고기를 잡았다. 석유가 귀했던 시절이었지만 고기 잡는 데는 아까운 줄 몰랐다. 밤에는 물고기가 강가로 나와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잡기가 쉬웠다.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작살로 잡았다. 주로 큰 물고기인 쏘가리나 꺽지, 빠가사리를 잡았다. 빠가사리, 꺽지, 쏘가리, 눈치, 돌고기, 똘쭝이, 어름치, 장어, 모래마주, 추사 등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었다. 흔했던 물고기들이지만 이제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물이 오염이 되었는지, 댐을 막아서 그 여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예 자취를 감춘 고기도 있다.

도파리의 생활은 단순하다. 얼마 되지 않는 토지라도 농사는 농사다. 일 년 내내 바둥바둥 살려고 노력하지만 좀처럼 좋아지지 않는 것이 살림이었다. ○○○의 할아버지는 늘 '지게자리 잘 못 놓았어'라는 말씀을 하셨다. 대처에, 들이 넓은 곳에 자리잡지 못하

고 궁색한 골짜기인 도파에 자리잡았다는 뜻이다.

집안에 아버지와 큰형이 농사를 함께 지었는데, 큰형은 힘써서 농사를 거들지 않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바쁜 농사철만 조금 도와주고는 전혀 간여하지 않았다. 군입대 했을 때 일손이 부족하다고 돈을 써서 군면제까지 시킨 사람들이다.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지만 그 당시에는 개의치 않았다. 부모님이 17살 때부터 결혼을 권했지만 농사 때문에 사양했다. 결혼시키면 농사짓지 않는다는 결의를 보였기 때문에 부모님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지겟자리 잘 못 놓은 것을 나중에 깨닫기 시작했다. 도파리라는 곳이 대한민국에서도 찾기 어려운 오지라는 것을 늦게 안 것이다.

| **양동엽**(1946년생) 금산군 부리면 평촌리 |



미금이 깔려 땅이 숨을 못 쉬어

양동엽은 아침 일찍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겨우 아침 먹고 등굣길에 올랐다. 금산까지는 20리, 중학생에겐 만만치 않은 거리였다. 금산중고등학교면 그래도 쉽겠다 생각했다. 거기서 또 20~30분은 더 가야하니까 어린 심정에는 더 멀게 느껴졌다. 누구나 다 걸어 다니니까 그리 어렵다고는 생각지 않았었다. 책가방 둘러메고 잽싼 걸음으로 형들을 따라갔다. 올 때는 몇몇이 동행이 되어서 갔던 길을 그대로 되짚어 왔다. 집에 도착하면 해는 벌써 지고 어둑해졌다. 저녁을 먹고 피곤하여 곯아떨어졌다.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 지각하지 않으려고 경보하듯이 빠른 걸음을 걸어야 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개울이 불어 못 가게 되면 부리면 소재지 있는 큰길로 돌아가야 했다.

평촌 앞은 곧바로 금강과 연결되는 곳으로 제방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수침이 많았던 마을이다. 개답하기 전에는 주로 밭작물을 재배했다. 한 번 수침이 되면 고운 모래(미금)가 곡식을 덮어 죽게 했고, 흙도 시멘트처럼 굳어져 작물을 재배할 수 없었다.

아이들에게는 강물이 가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었다. 매일 강에서 살다시피 했다. 수영을 하다 지치면 강물 속에 있는 바위를 디디고 서서 쉬었다. 황새를 닮았다고 해서 마을에서는 황새바위라고 했지만 물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아무리 가물어도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아서 마을 사람들만 알고 있는 바위다.

강물엔 물고기가 많았다. 족대나 활치를 가지고 강바닥을 훑어 잡아 올렸다. 꽃같이 예쁘다고 해서 꽃고기, 진달래가 필 무렵이 가장 맛이 있다고 해서 꽃고기라고 했다. 그러나 그 물고기의 정확한 이름을 알 수가 없다. 분명 지방에서 부르는 말이 아닌 물고기의 이름이 있을 텐데 말이다. 활치는 활대라고도 부르지만 이곳에서는 활치로 통한다. 'Y' 자 모양의 나무를 가지고 삼각형처럼 나무를 대고 그물을 매어 만든 활치는 바닥을 끌어서 고기를 잡는다. 주로 작은 물고기, 즉 꽃고기 같은 작은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한다.

어항이 나오기 전에는 양재기 같은 그릇에다가 천을 덮고 고무줄로 묶어 한 가운데를 뚫어서 어항처럼 물고기를 잡았다. 보쌈이라고 불렀는데 안에 된장을 넣고 물살이 세지 않은 곳에 놓으면 피라미 같은 물고기가 들어왔다. 물이 깊은 곳에서는 작살을 사용했다. 철사를 구해 고무줄로 묶어 만든 작살은 쏘가리나 꺽지 등 큰 물고기를 잡았다. 집에서 만든 물안경을 쓰고 잠수를 해서 깊은 물 속 바위틈에 있는 놈들을 잡아 올렸다. 싸리를 이용해 통발도 만들었다. 강가에 많이 자라는 야관문이라는 풀의 줄기를 주로 사용하였다. 돌을 쌓아 놓고 그물을 두른 다음에 돌을 드러내서 잡는 것을 담이라고 했다. 심심풀이로 물놀이를 하면서 돌을 무덤처럼 쌓아 놓고 3일정도 기다렸다가 담을 헐어 고기를 잡는다. 그물이 없을 때는 가마니를 대고 잡기도 했다. 가마니를 대면 어두우니까 물고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평촌에서는 살(어살)로 고기를 잡지 않았다. 강이 넓고 깊어서 살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마가 쓸고 간 자리에는 매금(고운 모래)이 깔렸다. 이런 토질에 맞는 작물은 무와 배추였다. 벌말(평촌)의 배추와 무는 금산 읍내와 근동의 김장을 위해 소비되었다. 직접 와서 사 가는 경우도 많았지만 지게로 지고 나가 읍내에서 팔기도 하였다.

배추로 수입을 올리기도 했지만 꺼풀삼으로 돈을 벌기도 했다. 쉽게 말해서 대마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삼베를 생산하여 수입을 올렸다. '배추로 천 냥, 꺼풀삼으로 천 냥, 베로 천 냥' 이렇게 삼천 냥의 수입을 올렸다는 말이 회자되었다.

예전엔 이장에겐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마을 자체에서 수곡을 거둬 이장의 수고비로 충당했다. 그 당시 이장은 마을의 대소사를 다 담당했다. 아이들 이름을 호적에 올리는 일도 이장이 담당했다. 마을 앞 평촌나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곡을 냈다. 이것을 '수곡', 또는 '뱃수곡', '뱃거둠'이라고 했다. 봄에 보리타작 후 겉보리 한 말, 가을에는 나락 한 말을 냈다. 그리고 일 년 동안 배를 이용하는 것이다.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당연히 내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발비도 수곡이라고 했다. 뱃수곡과 마찬가지로 곡식으로 한번 내고 일 년 동안 이발을 했다.

풍년이 들었건 가뭄이 심해 수학의 양이 줄었건 가을 타작을 마치면 감사의 표현으로 햅쌀로 떡을 해 먹었다. 그렇다고 크게 굿을 하는 것도 아니고 소박하게 시루떡을 해 집안 곳곳에 조금씩 담아 놓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했다. 이것을 도신떡이라 했다. 도신떡을 할 때는 우선 대문에 금줄을 치고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았다. 그리고 깨끗한 황토흙을 구해와 대문밖에 여섯 개의 작은 무더기를 만들어 놓았다. 이를 액맥이라고 불렀다. 붉은색은 악한 것, 부정한 것을 막는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시절에 도신떡은 아이들을 즐겁게 했다. 도신떡을 해서 이웃 간에 나누어 먹었다. 아이들은 도신떡 하는 집 안마당에 보자기를 던져 놓는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그 보자기에 인심 좋게 떡을 담아 내놓는다. 아이들은 도신떡을 가져다가 나누어 먹으며 추억을 만들었다. 가을은 이렇게 풍성하고 넉넉함한 계절이었다.

| **양찬규**(1939년생) 금산군 부리면 신촌리 |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신촌

신촌은 금강으로 서쪽과 북쪽이 막힌 동네이다. 면이나 읍소재지를 가려면 반드시 나루를 이용해야 했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으면 뱃사공 혼자는 배를 띄울 수 없었다. 학교는 가야 하고, 배는 뱃사공 혼자서는 운행이 어렵고, 그러면 여러 명이 힘을 모아 가래라는 것을 이용하여 강을 건넜다. 먼저 배를 끌고 상류로 올라갔다. 곧바로 직선으로는 배를 몰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대각선으로 해야만 강 건너 목적지 나루터에 배를 댈 수 있었다. 큰물은 물살이 강해 장대로 배를 몰기 어려워 가래를 이용해 건넜다. 송

판때기 넓은 것을 끈을 달아 여럿이 당기면 배가 곧잘 앞으로 나아갔다. 반대편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강을 건넜다.

보리수매를 할 때였다. 소와 마차를 함께 싣지 못해서 짐 따로 마차 따로 배에 옮길 때 소가 마차를 달고 강물에 빠졌다. 소도 잃고 마차도 잃고 모두 다 잃었다. 당시 소는 재산목록 1호였던 때라 손해가 매우 컸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소가 떠내려가다가 어재리 앞에서 물 밖으로 나와 살았다. 사건이 생긴 이후에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었다. 물 건너 평촌보다도 먼저 커다란 양곡창고를 지었다. 양곡을 모아 놓았다가 물이 줄면 실어내면 편하지 않겠는가라는 설득에 양곡창고를 짓게 된 것이다.

이장 선출은 매우 어려웠다. 후보자도 많았고 누구 하나 사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추천을 받아 후보에 올랐지만 이장을 못하겠다고 숨어 버렸다. 뱃사공 집에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되었다. 사람들이 배턱에 와서 배가 건너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탐문해서 발각된 것이다. 붙들려가다시피 해서 마을회의가 열리는 초등학교 교실로 가보니 하루종일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다른 후보들이 하나 둘 사퇴하고, 동네 서기를 보았던 양반하고 둘만 남았다. 나중에는 그분도 사퇴하고 이장을 해야 될 판국이 되었다.

그는 노름을 마을에서 추방하는 데 협조하면 이장을 하겠다고 이장직을 수락했다. 신촌리는 오지여서 외지인들이 들어와 도박판을 벌였다. 자연스럽게 마을 주민들도 도박판에 빠져버려 집안 사촌, 육촌지간에도 판을 벌이고 있었다. 가족들도 지켜보고 있다가 돈을 따면 기다리고, 돈을 잃으면 끌어내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먼저 확성기를 설치하여 매일 방송을 했다. 아침이면 '아침에 집에 들어갈 때 식구들 보기 좋습니까?'라고 귀가 아프게 방송을 했다. 그래도 도박은 근절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으면 강하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가 없었다. 단속을 나와도 잡을 수가 없었다. 나루터 주막에서 도박을 하다가 단속반이 오면 사공이 '배 건너와요'라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노름판이 술판으로 바뀌어 검거가 어려웠다.

신촌리는 워낙 오지다 보니 길을 낼 생각을 안 하고 살았다. 산을 넘어가 나룻배 타고

건너는 것만 생각했다. 이제 다리를 놓고 길을 내는 것이 마을의 숙원사업이었다. 먼저 다리를 놓아야 하는데 자금이 필요했다. 우선 마을 소유의 산을 팔고, 지원을 받아 7, 8년 걸려서 우여곡절 끝에 다리를 놓았다. 다리를 놓아 편해졌지만 차가 들어올 수가 없었다. 겨우 리어카 정도만 다닐 수 있는 길만 있었기 때문이다. 산 위 고개로 다니지 말고 길을 내자고 했더니 부모님 세대들은 모두 반신반의, 길을 내서 버스가 들어오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 말에 더욱 오기가 생겨 반드시 길을 내고 버스가 들어오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먼저 군청에 가서 버스가 들어오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허락을 얻었다.

삽과 경운기로 마을 진입로를 냈다. 중장비가 없던 때라 모든 일을 인력으로 해냈다. 강에서 자갈을 가져다 깊은 곳은 메워 길을 냈다. 드디어 길이 만들어지고 버스가 들어왔다. 처음 버스가 들어오는 날 마을잔치를 했다. 이제 신촌리 어재리는 섬마을을 면하게 된 것이다. 버스가 들어와 읍내도 마음껏 다녔다. 마을 사람들은 버스가 들어올 줄 상상도 못 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편리해졌다고 좋아했다.

신촌 북쪽 금강 가에 곱게 자란 소나무 숲이 있었다. 인근 초·중·고 학교의 봄, 가을 소풍지로도 유명했던 곳이기도 했다. 금강물이 급하게 마을 쪽으로 휘도는 곳이라 강물의 피해를 막고자 심었던 소나무가 마을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캠핑문화가 자리잡기 이전에 이곳은 외지 사람들에게 천렵과 피서지로 유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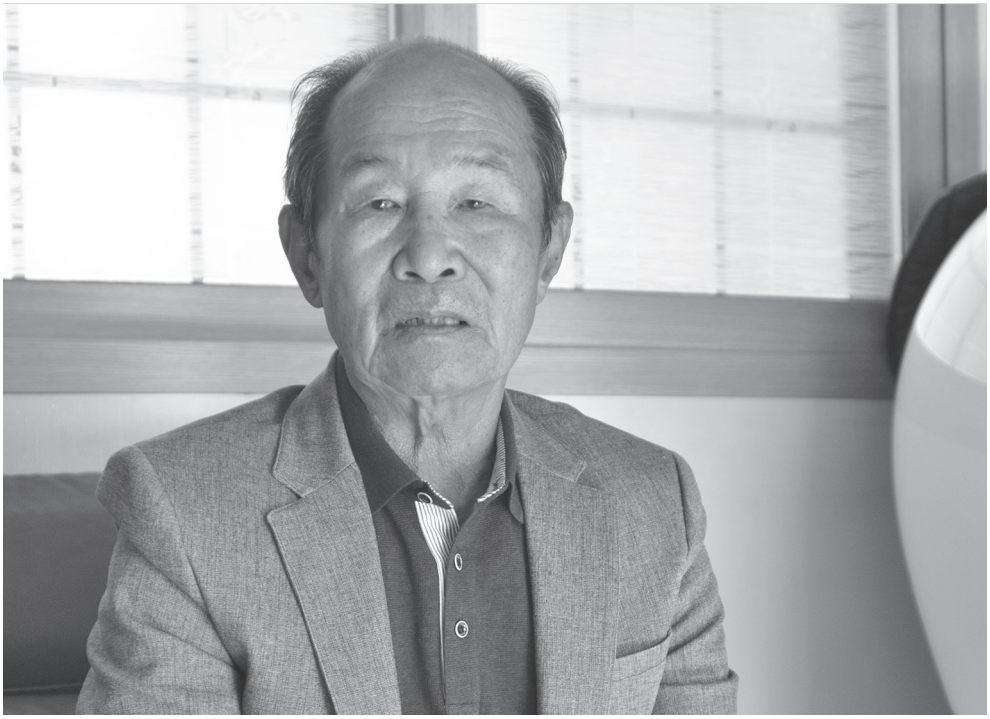
놀러온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양념이나 그릇, 멍석 등을 요구했고, 그것을 거절하면 해코지를 일삼았다. 마을에 젊은이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 도회지에서 주먹깨나 쓰는 놈들을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당해 낼 수가 없었다. 빌려서 마음껏 놀고 돌아갈 때는 돌려주지도 않고 가버리는 바람에 마을로써는 골칫거리가 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남녀간 내외가 심했던 시절에 팬티 바람으로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외지인들 때문에 고통이 심했다. 급기야는 몽둥이와 쇠스랑을 들고 대처했지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마을 회의를 통해 아예 소나무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읍내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베어가고 논으로 개답해 주는 조건이었다. 나무를 베어내고 개답을 한

후 외지인의 발길이 끊겼다. 마을 주민을 괴롭히던 문제는 해소되었지만 그 빈자리가 너무 컸다. 그때 어렵더라도 참고 남겨 놓았으면 영동 양산면 송호리 솔밭에 버금가는 좋은 경관을 보여줄 텐데 하는 아쉬움만 남았다.

평촌의 서쪽과 북쪽을 휘도는 금강은 풀 하나 없는 하얀 모래밭이 길게 펼쳐져 있었다. 이름도 다 기억할 수 없이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있었고 여름이면 더위를 피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놀던 곳이기도 했다. 얼마나 깨끗한지 흰 팬티를 입고 모래밭에 굴러도 더러워지지 않았다. 다슬기는 없는 곳이 없었다. 여울에 사는 다슬기는 동글동글하니 맛이 있었고, 물이 많이 고여 있는 곳에서 자라는 다슬기는 길쭉길쭉하게 생겼으며 끓여 놓으면 쓴맛이 났다.

모래 아니면 자갈만 있었던 금강이 이제는 풀과 나무로 덮여 접근하기도 어렵다. 어렸을 때는 강에서 놀다가 목이 마르면 강물을 그냥 마셨다. '배가 볼록해지도록' 먹었다. 그래도 탈이 없었다.

| **장재룡**(1938년생) 금산군 부리면 어재리 |



농바우끄시기

장재룡은 6·25전쟁으로 인해 힘겹게 초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전쟁이 나자 학교는 휴교에 들어갔다. 마땅히 할 일도 없어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나무만 했다. 그렇게 4학년에서 5학년으로 그냥 진급해 버렸다. 그리고 더 이상 학교 진학은 못했다.

어재리는 '느재'라는 지명의 한자어이다. 마을 동쪽에 위치한 성주산은 작은 산이 아니다. 그래서 골짝도 많다. 성주산과 양각산 사이 골짜기 위쪽 고개를 큰 고개라는 의미로 느재라 불렀다.

성주산이 관심을 끈 것은 일제강점기에 청석을 채굴하면서였다. 일본사람들은 청석을 채굴해서 일본으로 가져갔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어재리 사람들은 모두 청석 채굴에 동원되었다. 작업 책임량은 한나절에 두 자 반 내지 석자 길이의 구멍을 내는 일이었다. 청석맥을 만나면 일은 한결 수월했다. 청석맥을 따라 굴진을 하다 보니 갱도를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팔 수밖에 없었다.

다이너마이트로 돌을 깨어 내면 여자들이 청석과 잡석을 선별한다. 어재리 입구에는 제련장이 있었다. 이곳에서 제련을 해 가지고 배로 천내리로 운반했다. 압수나루는 주민들의 이동보다도 제련된 청석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었다.

청석광은 광복 이후에도 채굴을 이어 나갔다. 일본사람들이 놓고 나간 장비를 그대로 활용해서 한국인 운영자가 채굴했다. 어재리 주민들은 일자리가 없었던 때에 청석광의 덕택을 많이 보았다.

장재룡은 군복무 이전부터 청석광에서 일을 했고, 전역 후에도 다시 청석 캐는 일을 했다. 그 일자리도 감독자의 눈밖에 나면 얻지도 못했다. 아침 일곱 시에 가서 저녁에나 집에 왔다. 밤낮 교대로 24시간 채굴을 했다. 품삯은 한 달에 한 번 주었다. 일거리 없던 시절에 그나마 큰 힘이 되었다. 그는 경험을 살려 더 벌어 보려고 강원도에 가서 탄광에서 일했다.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였다.

하늘만 바라보고 살던 옛사람들에게 이앙 적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그해 농사는 어렵게 된다. 하지까지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냈다. 마을 북쪽으로 흐르는 금강 가 산기슭에, 예전에 어느 장군이 갑옷을 벗어 갈무리했다는 농바위와 갓을 벗어 놓았다는 갓바위가 있다. 이 농바위에 세 가닥 동아줄을 매어 산 아래에서 끄시기(끌기)를 했다. 농바우끄시기가 끝나면 금강 가 개여울에 가서 날궂이를 한다. 참여한 여자들이 알몸으로 목욕을 하고 키로 물을 까불르며 날궂이를 한다. 오로지 여자들만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기우제이기 때문에 성인 남성은 얼씬도 하지 않는다. 성인 남성들은 동아줄을 틀어 농바우에 매어 주는 일만 한다.

날궂이가 끝나면 각자 집 삽작에 정종병에 물을 담아 솔잎으로 병 주둥이를 막아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마치 빗물이 떨어지듯이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게 해 놓는다. 제일 먼저 어재리에서 농바우끄시기가 끝나면 근동에서 마을 단위로 농바우에 와서 날궂이를 했다. 하루에 모두 마치는 행사가 아니라 연이어서 이루어지는 마을 행사였다.

임진왜란 때 왜군이 영동을 거쳐 금산으로 진격해 왔다. 권종 군수는 1592년 6월 20일 왜적이 금산 제원 천내리로 온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금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기로 했다. 200여 명의 병졸과 제원찰방 이극경이 거느리고 온 약간의 역졸과 함께 밀려오는 적을 상대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다. 22일 마침내 왜적이 대거 몰려오자 하루 종일 분투하여 적을 막아냈으나 다음날 아들 권준과 함께 순국하였다.

권종 군수는 금강의 물 깊이를 속이기 위해 묘안을 냈다. 강 상류에서 흙탕물로 강물을 흐리게 하여 강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계책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정신없는 여자가 밥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치마를 약간 걷어 올리고 여울로 유유히 건너왔다. 강이 깊지 않음을 안 왜병이 그 여울로 강을 건너게 되어 결국 패하고 말았다. 이 여자는 권종을 사모하다 죽은 여자의 화신이라는 이야기가 전한다.

권종 군수가 흙탕물을 흘려보낸 곳이 어재리 북쪽 금강을 건너 붉은댕이라는 산기슭이다. 행정구역상 용화리인 이곳은 흙색이 붉은색을 띠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흙색이 유난히 붉은색을 띠고 있어 전설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어재리는 오지라 6·25전쟁 때 피해가 없었을 것 같은 동네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피해가 많았다. '이 동네는 그때 거지가 되었다'는 말처럼 다른 곳보다 피해가 심했다. 전쟁의 막바지에 금산의 600고지에 있었던 인민군(빨치산)은 대거 이동을 했다. 어재리는 그들의 이동 통로에 있었다. 게다가 청석을 채취했던 광산이 있어 은신하기에 좋은 곳이었다. 낮에는 경찰들이 들이닥쳐 주민을 다 집합시켜 놓고 수색을 하면서 좋은 것은 다 집어 갔다. 밤에는 인민군들이 내려와 먹을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마을은 쑥대밭이 되었다. 총을 들이대고 밥을 해 내라는데 죽지 않으려면 해 줄 수밖에 없었다.

이웃 마을 신촌리에선 소를 끌어다가 성주산 골짜기에서 잡아먹었다. 그래서 생긴 골

짜기 이름이 '소구워먹은골'이다. 누구네 무엇이 있는 것을 귀신처럼 알아냈다. 마을 사람 몇명이 그들에게 끌려갔는데 그들을 통해 알아낸 듯하다. 그 중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 사상이 물든 것이다.

아침에 학교 가던 학생 하나가 그들에게 붙잡혔다. 그때는 전시여서 학교에서 군사훈련을 시켰다. 상의 등 쪽에 위장을 위해 만든 망을 단 옷을 입고 가다가 잡힌 것이다. 결국 성주산 쪽으로 끌려가 목숨을 잃었다.

| **육일수**(1938년생)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



봄이면 천렵을 하는 가마골

봄이 되면 토지는 없더라도 매우 바쁘다. 그전에는 모든 것을 손으로 직접 했기 때문에 쉬는 사람이 없었다. 주로 파종 시작 전인 단오날에 마을에서 행사를 했지만 그래도 좋은 때는 여름이었다. 이제 바쁜 일은 거의 해치우고 짬을 내어 의기투합해서 금강 가로 천렵을 갔다.

용화2리 가마골은 금강과 가까이 있다고는 하지만 금강과 접하고 있는 용화1리와는 다르게 금강하고는 거리가 있었다. 뒷산 고개를 넘어가야 금강을 만날 수 있어 직접적으

로 금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마을이다. 육일수는 주로 늪물이라는 곳에서 천렵을 많이 했다. 늪믈은 큰물이 가면 물이 넘쳐 통하지만 평소에는 늪처럼 물이 갖혀 있어 물고기가 많았다. 어죽 끓일 도구를 챙겨서 뒷산 달고개를 넘어갔다. 달고개를 넘으면 뒤넘어라고 부르던 곳이 나오고 그 언저리에 늪물이 있었다. 늪물은 꽤나 깊었다. 깊은 곳은 2미터 넘는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1미터 정도 되는 둠벙이나 마찬가지인 소(沼)였다. 늪물에서 고기를 잡아 어죽을 끓여 먹었다. 당시에는 금강물을 그냥 퍼서 식수와 취사용으로 사용했다. 그래도 아무 탈이 없었다.

가마골은 20호 정도 되었던 마을이었다. 다른 마을에 비해 규모는 적었다. 골짜기에 다랭이논으로 만든 논은 가뭄에도 큰 영향 없이 농사를 지었다. 산 사이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마을이지만 땔감은 언제나 부족했다. 밥만 먹으면 지게를 짊어지고 나무하러 다녔다. 지게가 등허리에서 떨어질 날이 없었다. 들이건 산이건 언제나 지게를 지고 다녔다. 용화1리 앞 금강을 건너 지웃재라는 고개를 넘어가서 나무를 해왔다. 때로는 마을 뒷산 달고개를 넘어 금강을 건너가서 어재리에서 나무를 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는 주로 용화1리 용화나루의 나룻배를 이용하여 나무를 해왔다. 소가 있는 집은 그래도 소를 끌고 가서 해 오기 때문에 사정이 좀 좋았다. 그러나 소죽을 끓여서 먹여야 하기 때문에 땔감 소비는 비슷했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해 넘어가야 집에 도착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겨울이면 난방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나무를 해야 했다. 여름이면 소 풀을 베어 와야 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웃마을 김성리도 나무가 없어 그는 다른 곳으로 나무하러 가야만 했다.

통일벼가 보급되면서 농촌은 크게 달라졌다. 당시 일반벼는 논 한 마지기에 쌀 세 가마 먹으면 농사 잘 지었다고 했다. 통일벼는 다섯 가마니 정도 나왔다. 일반벼는 마구 다루어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통일벼는 스치기만 해도 나락이 떨어졌다. 게다가 짚이 짧고 억세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단점이었다. 농촌에서는 짚이 많이 쓰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벼 베는 기계도 없었을 때라 손으로 가만 가만 베어서 발로 밟아서 탈곡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그는 통일벼를 심어서 3년 연속 다수확상을 받았다. 600평을 기준으로 600kg이 나와야 상을 받을 수 있었다. 세 군데를 정해 놓고, 벼가 익으면 세 군데를 베어서 훑어 가지고 평가를 하였다. 다수확상의 상금으로 당시 10만 원을 주었다. 10만 원이면 쌀 80kg짜리 9가마 가격이었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었다. 다수확상을 받으면 2년 농사 짓는 폭이 된다고 했다. 내 농사 소출에다가 상금으로 9가마 받았으니 두 곱이 된다는 말이다. 당시 그는 젊은 나이여서 일을 잘했다. 통일벼 재배로 수확도 많았고 다수확상으로 상금까지 받았으니 농사지으면서 그렇게 기분 좋았던 때가 없었다.

새마을운동으로 마을의 모습이 확 달라졌다. 볏짚으로 지붕을 이었던 것을 이제는 슬레이트가 대신하게 되었다. 통일벼 볏짚으로 이엉을 하지 못하자 그 대용으로 나온 듯 절묘하게 시기가 맞았다. 초가지붕이 이제 함석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이 되어 매년 연례적으로 행하던 지붕을 해 이는 일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논둑길, 밭둑길로 겨우 자전거 하나 다닐 정도였던 마을길도 곧게 잡히고 넓어졌다. 새마을지도자의 말이라면 그대로 수용하고 땅을 내주었다. 그 당시는 보상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했다. 동네에 자동차가 들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시절에 길을 곧게 잡고 넓혀 자동차가 들어오게 되면서 세상이 달라졌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시멘트가 집집마다 분배되어 시멘트 블록을 찍어 창고도 짓고 담도 치고 했다. 금강에서 모래와 자갈을 실어다가 사용하였다. 흙담, 흙벽으로 지었던 집을 시멘트 블록으로 지으면서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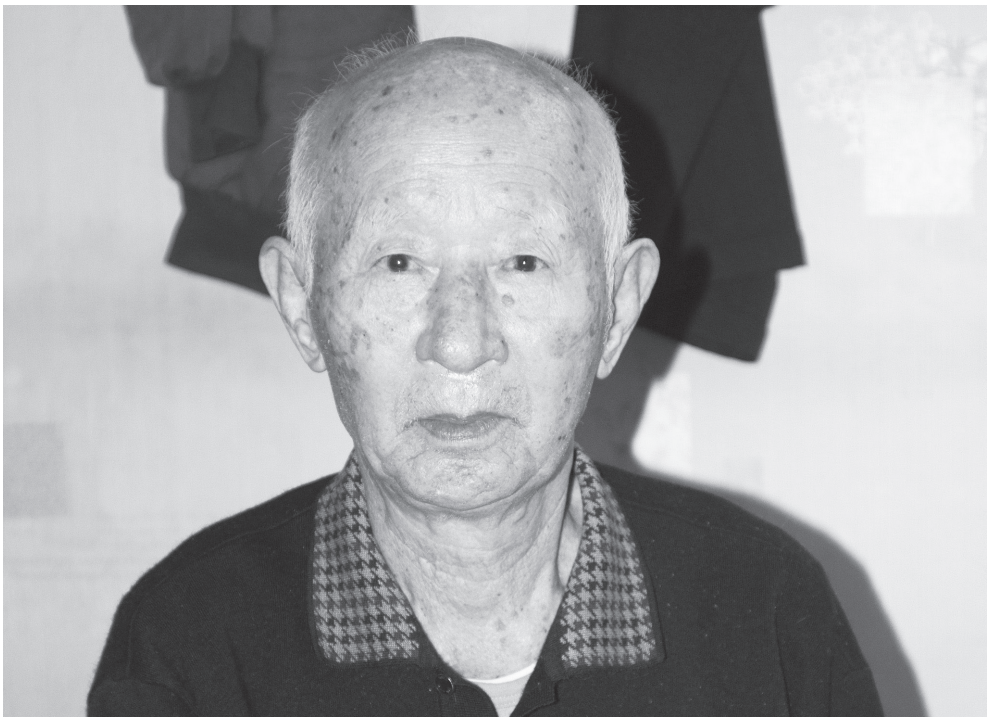
농사지을 때 막걸리는 필수였다. 집안 잔치나 상을 당했다든지 대소사에 막걸리가 빠지질 않았다. 여유 있는 집에서는 양조장에서 제조한 막걸리보다 가용주를 담아서 일할 때 쓰기도 했다. 가용주는 명절이나 제사 때 쓰기 위해 담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는 제사라고 하더라도 많은 제수를 마련하지 못했다. 여유가 없어서 최소한으로 제사상을 차리기 때문이다. 제삿날 10시쯤 되어야 일가친척이 제사에 참석하는데 제사상을 차려 놓고 새벽닭이 울기 전까지 놓아두었다. 닭이 울면 혼이 왔다가 간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동안 흠향(歆饗)하라는 의미에서였다. 하룻밤을 꼬박 새웠다.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고, 현재도 그 풍습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아침이 되면 제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도 모두 불러 아침을 먹었다.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차례이기 때문에 제사와는 달리 술 단 잔만 올리고 끝낸다.

금산은 다른 곳보다 바다와 멀다. 그래서 금산이 전국에서 썩은 생선 치우는 곳이란 소문이 돌았다. 심지어 논산까지 가서 소금을 지고 왔다고 한다. 논산 강경까지 가서 소금을 사서 지게에 지고 왔다는 이야기다. 새벽에 떠나야만 당일로 다녀올 수 있었다. 장날 생선 한 마리 사오면 동네 사람들이 누구네 집 어떤 생선 먹는지 다 알았다. 생선을 꿰어서 지게에다 매달고 오기 때문에 다 알게 되는 것이다. 소고기는 먹기 어려운 고기였지만 돼지고기는 그래도 자주 접할 수 있었다. 돼지는 집에서 흔히 키웠기 때문에 돌배기라는 것을 해서 잡아먹었다. 돌배기는 주로 명절 때 여러 사람이 돼지를 사서 도축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몇 근씩 필요한 대로 나누고 남은 고기는 팔기도 했지만 그 밖에 내장 등은 요리를 해서 여럿이 나누어 먹었다.

| **김현칠**(1931년생)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



글보다 몸으로 배운 공부

김현칠의 할아버지는 창씨를 하지 못하게 했다. 아버지는 그 당시 제원면사무소에서 부면장을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그까짓 부면장 안 해도 괜찮고, 학교에 못 가도 괜찮다고 창씨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소학교 때는 창씨를 하지 않는다고 중국 되놈이란 놀림을 많이 받았다. 그는 중학교 시험에 떨어져서 못 가고, 다시 1년 뒤에 금산농중에 입학했다. 중학교를 진학할 때 창씨를 안 했다는 이유로 진학이 거부되었었다. 할아버지는 학교 못 가도 괜찮다고 하셨다. 할아버지는 한학을 하셨다. 얼마나 학문이 깊으

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 아버지는 창씨를 안 해 제원면 부면장직이 위태로워도 전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농고 1학년 때 6·25전쟁이 났다. 1·4 후퇴 때 인민군이 내려오는 바람에 제2국민병에 편성되었다. '제2국민병'으로 차출되어 금산에서 남원으로 해서 운봉재 넘어서 함양, 산천, 사천까지 걸어갔다. 잘 곳도 없었고 쉴 곳도 없었다.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아무 집이나 들어갔다. 얻어먹으면 다행이지만 못 얻어먹으면 그냥 굶었다. 그때는 몇 명인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어도 몰랐다. 전투에 투입하기 위해 훈련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처음 인민군들이 내려왔을 때 인민군에 가담하거나 차출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모두 끌고 내려가 미리 단속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렇게 사천까지 가서 초등학교에 자리를 정하고 거기서 한 달 남짓 있었다. 훈련할 여건이 갖추어지지도 않아 훈련도 없었다. 그는 밥도 멍석 위에 죽 늘어놓은 주먹밥을 먹었다. 한 달 뒤에 방위산업학교 시험을 보고, 또 사천서 진주로, 진주에서 동래 범어사까지 걸어갔다. 그곳에서 사관학교를 수료하고 대구사령부에 가서 계급장 받고 탄을 실은 열차를 타고 영동까지 와서 걸어서 금산 집으로 왔다. 그는 부리면에 2개 소대를 편성하고 소대장으로 근무했다. 3, 4개월 끝나고 해체되었다. 그 후에 군에 가라고 하였는데 장남이고 해서 가지 않았다. 제2국민병이 해체되고 학교로 복귀했는데 2학년은 건너뛰고 3학년만 다니고 졸업했다. 대학은 돈이 없어 진학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쉰다섯에 지병으로 할아버지 생전에 세상을 떠나셨다. 임종이 가까워지자 당신 자식들과 아내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생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 불효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들이 죽고 손자가 가정을 이끌게 되자 그의 할아버지는 '나는 괜찮다. 네 에미한테나 잘해라'라는 말씀 이외에는 하지 않았다. 아비 죽어 어려운 손자를 생각해서 당신의 집안 형편이 좀 나은 작은아들 집에 가서 살다 돌아가셨으면 좋았으련만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아들 집을 한 번도 찾지 않고 돌아가셨다. 손자하고 살면서 작은아들네 집에 가서 밥 먹고 드러누워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거 지애비 죽으니까 자기 할아버지 내쫓았다는 손가락질할 거 아니냐"는 생각이셨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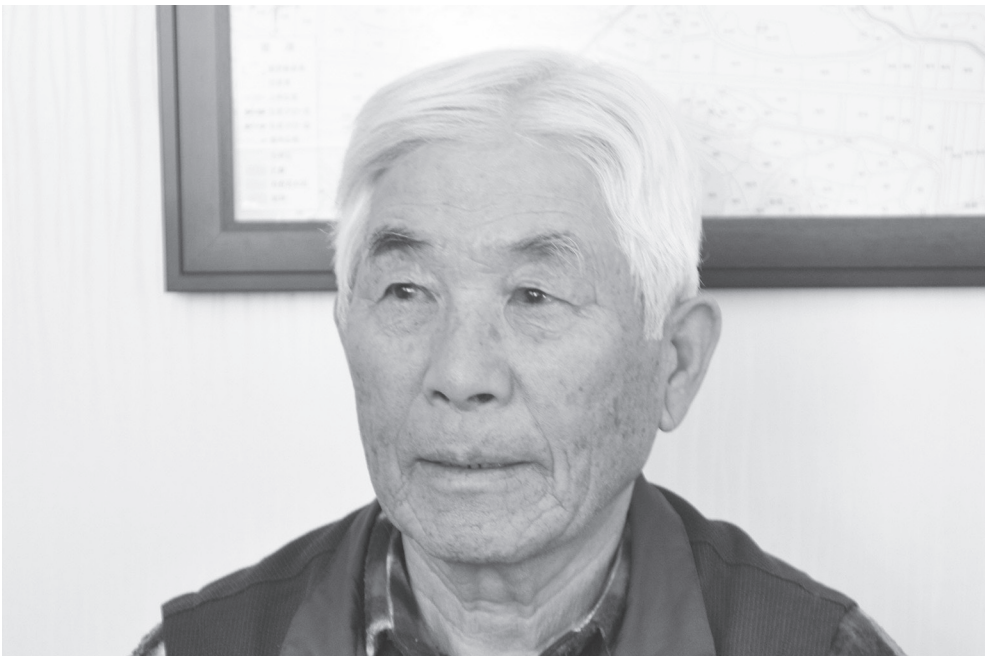
손자가 삼장을 하고 있는데 풀 하나 뽑아주면 좋으련만 '내가 삼장 풀을 뽑아주고 싶은디, 인제는 안 뽑을란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셨다. 몸이 고단해서 쉬고 싶다는 말씀이 아니었다. 손자가 하는 삼장 고랑이에 늙은이가 앉아 풀 뽑고 있으면 손자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느냐는 깊은 뜻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글로 배운 것보다 더 절실하게 그의 가슴에 남아있다.

용화리에서는 나루터를 뱃가라고 했다. 용화리의 나루는 일반인들을 도강시키는 기능보다도 마을 주민들이 강 건너 화상동과 지웃재 넘어 나무를 해 오기 위해 이용했다. 나루터의 위치는 해마다 바뀌었다. 큰물이 지면 강물이 마음대로 강의 물흐름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배를 대기 좋은 곳이면 나루터가 되었다. 용화리 나루터는 다른 곳에 비해 나루터의 위치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강이 산과 산 사이를 통과하여 직선으로 흘러내리는 곳에 나루터가 있었기 때문에 양쪽 강안이 크게 유실되지 않았다.

용화리 뱃가는 사시사철 용화리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의 주민들까지 가세해서 나무나 바닥풀을 해오기 위해 붐비던 곳이다. 금강을 건너 영동과 경계인 지웃재 너머까지 가서 나무나 풀을 채취해 왔다. 돌아오는 길에 나룻배로 건너 잠시 쉬어가는 곳이 시탕뿌리였다. 시탕뿌리는 강을 건넌 뒤에 잠시 쉬면서 숨을 고르던 장소이다. 이제는 집까지 무거운 나뭇짐을 지고 가면 된다. 그래서 그랬는지 시탕뿌리는 땔나무 시(柴) 자에 끓일 탕(湯) 자를 쓴다.

섣달그믐경에는 마을 대동회에서 다음 해 배를 부릴 사람을 뽑았다.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는 수곡이라도 받을 요량으로 뱃일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대여섯 명이 경합을 벌이게 되면 마을 분위기는 달라진다. 한 표가 향방을 가르는 판국이라 사공을 해보겠다는 사람들은 암암리에 은밀히 접근하여 자기 표를 확실하게 해두고자 했다. 마을 주민들은 후보자 중에서 좀 더 어려운 사람 중에 성실한 사람으로 사공을 정한다. 사공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용화리 나루터는 늘 나무꾼의 왕래가 끊이지 않던 곳이라 더욱 사공이 필요했다.

| **고광우**(1939년생)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마을 앞 금강에 삼각주처럼 섬이 하나 만들어졌다. 마을에서는 뚝섬이라고 불렀고 천내리에서는 닥실섬이라고 했다. 닥실 사람 중에 사유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냥 버려두기가 아까워 습지를 가꾸어 나무를 심기로 했다. 뜻이 맞는 주민 열 명이 가까이에 있는 봉황대에서 이름을 차용하여 1975년도에 봉황회란 작은 모임을 결성했다. 봉황회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보자, 우리 한번 이 습지를 가꾸자'는 취지로 천내강 43번지인 뚝섬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래와 자갈로 되어 있어 활착이 어려

웠다. 고광우는 생각 끝에 고운 흙인 미금을 가져다가 뿌리를 싸서 심었다. 해마다 큰물이 지나가면 쓸려나가고 죽고 어려움이 많았다. 그럴 때마다 다시 나무를 사다가 심기를 반복하여 숲다운 면모를 갖추었다. 3만 평의 멋진 숲이 되었다. 80년대쯤 먹고살 만해지자 야유회 문화가 생겼다. 잘 가꾸어진 뚝섬은 그들의 야유회 장소로 변했다. 심지어는 읍내 음식점과 술집, 그리고 막걸리집이 여름 한철 장사로 자리 잡았다. 연일 고성방가에 시달리는 것은 근처에 있던 금강초등학교였다. 아침 일찍 자리를 잡고 떠드는 바람에 학교에서는 골칫거리였다.

1989년도에 민원이 발생하자 군에서는 그 나무를 아무 통보도 없이 베어냈다. 나무를 심었던 봉황회는 황당했다. 고발하려고 고발장을 썼지만 회원 중에 교사가 있어 자칫 불미스런 일이 생길까 염려해서 고발은 하지 않았다. 그 후에 군에서 마을회관에 의자 50개를 기증하고 마을길은 포장해 준다는 조건을 내세워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봉황회는 더 이상 사업을 벌이지 못하고 2009년도에 해체되었다.

닥실도 땔감 나무를 하기에는 가까운 산이 없었다. 용화에서 배를 타고 양산 쪽으로 가서 나무를 했다. 그런데 다른 마을 배, 즉 용화리 배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기가 마을 소유의 배가 아니어서 마음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마을 산판을 팔아 배를 마련했다. 나루터는 개티에서 용화리로 가는 금강 가 길로 오다가 닥실로 들어오는 마을 입구 조금 위쪽에 있었다. 천내리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용도보다는 용화리로 나무하러 가기 위한 용도로 많이 썼다. 전에는 징검다리를 놓았었는데 해마다 장마철에 유실되어 불편했다. 우선 산판을 팔고 또 수곡을 해서 배를 묻는데 충당했다.

가까이에서는 큰 나무를 구할 수 없어 무주에서 아예 배를 묻어 가지고 왔다. 사공은 다른 마을과 달리 일거리 없는 사람이 원하면 하게 했다. 수곡도 정해 놓고 준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주었다. 특혜라면 마을 입구 나루터 근처에 사공 집을 지어 준 것이다. 또한 사공의 수고를 고려해서 나무를 가더라도 여럿이 모여서 한꺼번에 다녀오도록 노력했다. 배도 한 번에 열 짐을 싣고 운행할 수 있을 정도로 컸기 때문에 나무를 해오는데 유용했다. 석유로 연료가 대체되자 나무를 해 오는 것이 중단되면서 나루터의 기능도 상

실되기 시작했다.

농촌에서 소는 재산목록 1호였다. 예전에는 이렇다 할 비료가 없어 비료 대용으로 두엄을 얻기 위해 소를 키우기도 했다. 소는 길들여야 쓸 수 있었다. 그것도 아무나 길을 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을에 소 길들이는 전문가가 판단하여 길을 들여 준다. 길들이는데 수고비는 따로 없었다. 한 마을에서 소를 서로 사용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소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키우게 했다. 소를 키워 팔아서 돈으로 주인과 키운 사람이 나누는 것이 어우릿소이고, 송아지를 구매하여 키워서 새끼를 내어 소 어미는 주인을 주고, 새끼는 키운 사람이 갖는 것을 배냇소라고 한다. 소는 1년 정도 키우면 새끼를 낳기 때문에 어우릿소나 배냇소는 소를 마련하기 좋은 방법이었다.

금강을 끼고 있는 마을은 장마 때면 물이 불어 통행이 불편했다. 강을 건너야 등하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상시에는 물이 떨어져 직선으로 건널 수 있었지만 물이 불면 상류로 끌고 올라가서 대각선으로 떠내려 와야 반대편 나루터에 배를 댈 수 있었다. 천내나루 같은 경우 닥실나루터까지 배를 끌고 올라가서 배를 띄웠다. 사공의 장대질로는 강하게 흐르는 물살을 제어할 수 없었다. 배에 동승한 사람들이 가래라는 나무판을 이용해 사공을 도왔다. 여럿이 힘을 합해 가래질을 하면 수월하게 배가 앞으로 나갔다.

대개 3, 4일이면 평상시의 물 높이로 돌아왔지만 해마다 겪는 일이어서 주민들은 크게 고민하지도 않았다. 건너 배 턱에서 손님이 부른다고 무조건 배를 띄우진 않았다. 배 있는 쪽에 배를 탈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 쪽 나루터에 손님이 없으면 사람이 더 모이길 기다리면서 쉴 곳이 필요했다. 개티는 나루터와 길이 만나는 곳에 있어 일찍 주막이 자리 잡았다. 본래 개티는 민가가 없었는데 주막이 자리를 잡아 마을이 형성되었다. 용화리, 김성리, 저곡리, 천내리는 금산읍에 가려면 이곳으로 거쳐야만 했다. 또한 영동이나 무주에서도 금산장을 보려면 이곳 천내나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개티는 늘 사람이 많이 모였다. 배를 이용할 사람이 모이길 기다리는 시간에 막걸리 한 잔으로 목을 축이며 어죽으로 요기를 했던 곳이 개티다. 그때부터 개티는 어죽마을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 **고태기**(1938년생) 금산군 제원면 저곡리 |



인삼 어울이

고태기의 할아버지는 무척 엄했다. 출타했다가 자고 오면 반드시 절을 하게 할 정도였다. 그러나 생산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인지 할아버지 형제들은 모두 일을 안했다. 할아버지는 용화리 용강서원에서 소일하는 것이 일과였다. 재복을 타고 나셨다고 하지만 당시 있었던 살림을 다 해 먹었다. 논과 밭을 다 팔고 선비로 고결하게 지냈던 분이었다. 언제나 의복은 깔끔하게 차리고 여름에도 반드시 버선을 신고 다녔다.

할아버지는 집이 좁아 잘 곳이 없어 잠은 큰댁 사랑방에서 자고 아침에 와서 아침 먹고 용강서원으로 출근했다. 용강서원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면서 하루 종일 소일했다. 점

심은 용강서원에서 제공하였다. 당시 용강서원은 용화리 화상골에 논 열 마지기가 있어서 그 논 열 마지기 부쳐 먹으면서 서원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 서원에서 곗날에는 잔치를 열었다. 인근의 육씨, 김씨, 고씨들이 다 모여 잔치도 했다. 외지인도 왔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양산 송호리에서도 왔었다는 것이었다. 송호리 사람들은 지웃재를 넘어 금강, 즉 용화강이라 불렀던 곳에서 용화나루를 건너 서원 출입을 했다.

용화리에도 나루터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용화리에서 화상골, 지웃재까지 나무하러 다녔다. 당시 지웃재 넘어에 용화리에서 관리하는 마을 산, 용화1번지라는 산이 있었기 때문이다. 용화리 사람들은 이곳에서 주로 나무를 해다 밥을 지어 먹기도 하고 금산장에 내다가 팔기도 했다. 용화나루의 나룻배는 외지인들이 도강하던 배가 아니라 용화 주민들이 나무를 해 나르던 배였다.

고태기는 가까운 곳에 땔감이 줄자 더 먼 곳으로 다녀야 했다. 점심을 싸 가지고 용화리, 닥실, 김생리, 영동 광촌 사람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던 30만 평의 산이 있어 그곳까지 가서 나무를 했다. 일제 치하에 있을 때는 감시가 강해서 겨우겨우 나무를 해다 땠는데 광복 후에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산이 민둥산이 되었다. 그는 아침에 가서 장작을 패서 쌓아두고 저녁 때 한 짐 지고 돌아왔다. 나무가 어지간히 마르면 집에 져다 놓았다. 그리고 금산시장에 지고 나가 팔았다. 15, 16살 때 아버지를 따라 금산시장으로 자주 팔러 나갔다. 현재 인삼전시관이 있는 곳이 예전에 나무전이 있었던 곳이다.

그는 아침 일찍 나무를 지고 구레기로 해서 나무전으로 갔다. 그곳에서 하루 종일 나무 팔리기만 기다렸다. 언제든지 팔아야만 집에 갈 수 있었다. 집으로 지고 올 수 없기 때문이었다. 금산 읍내 사람들은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었다. 아침에는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다. 나무를 헐하게 사려고 저녁때를 기다려 사러 나왔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서운하지만 좀 싸게 팔았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땅이 없다. 그러면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사정하여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그것을 금산에서는 '어울이'라고 하였다. 농사를 지어서 땅 임자

와 농사 지은 사람이 한 해 농사의 수확을 반씩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땅 임자는 농사에 전혀 간여하지 않는다. 작물에 필요한 거름이나 인건비 등 모든 것은 농사짓는 사람 몫이다. 심지어 풍년이건 흉년이건 고려하지 않았다. 농사를 지으면 타작은 땅 임자내 집에 가서 했다. 타작 후에 나오는 짚도 임자가 갖게 되기 때문이다. 어울이 농사를 지은 사람은 짚도 차지하지 못했다. 좀 여유 있는 사람은 조금 남겨 주어 지붕이라도 해 이게 했다. 땅 준 사람은 전혀 농사에 신경을 안 쓰고 절반을 차지했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량이었다. 할머니는 일찍이 일제강점기 때 돌아가셨다. 그 후 할아버지는 재혼을 안 했다. 살 집도 없었기 때문에 재혼은 염두에 두지도 못했다. 일흔두 살에 작고하시기까지 혼자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마흔다섯에 농사에서 손을 떼셨다. 보통 그 당시에는 오십이면 어른으로 취급하던 시대였다. 육십 환갑도 못 치르는 사람이 많았던 때이기도 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예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고 농사에서 물러났다. 마흔다섯에 농사를 그만두신 아버지는 예순아홉에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은 인삼 어울이었다. 지인에게 삼씨를 어울이 해주셔서 삼농사 8년만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 인삼을 재배했을 때는 인삼 가격이 대단했다. 삼 대여섯 근이면 웬만한 땅은 살 수 있었다. 삼밭 같은 자리는 인삼 두세 근이면 살 수 있었다.

고태기는 스물두 살 때 용화리 김씨네 사위가 되었다. 어린 나이에 삼일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곱게 본 양쪽 집 할아버지의 주선으로 결혼했다. 처가에서는 지금은 없이 살아도 고생은 안 시키겠구나 하고 낙점을 준 것이었다. 할아버지는 혼자 오래 사셨어도 손자 덕에 꽃상여를 타셨다. 마을에서 처음으로 꽃상여를 만들어 할아버지를 모셨다. 돌아가시기까지 할아버지는 아들, 손자 덕에 호강하시고 가셨다.

| **박길석**(1941년생)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



고인돌과 배묻이굿

마을 앞들을 신들이라 했다. 개답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일찍 개답한 들은 구들이라 하고 여기는 신들이라 했다. 이곳에는 용과 호랑이를 닮은 석상이 서 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주민들은 들어왔다. 그렇다고 용호석이 마을을 수호하는 의미로 이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마을에서 특별히 보호하거나 위하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 치성을 드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큰 의미를 두진 않았다. 최근 들어 전문가들에 의해 문화재로 평가되어 보호받게 되었다.

마을 뒷산에는 여덟 개의 바위가 있다. 고인돌인데 마을 주민들은 이 명칭보다는 팔선

녀바위라고 부른다. 이 돌도 최근 들어 고인돌로 판명되기 전까지는 단순한 바위로 취급되었다. 이곳 팔선녀바위 앞에 살았던 사람이 딸만 여덟을 낳았다고 한다. 딸이 여덟이라 팔선녀바위라고 했는지, 팔선녀바위의 기운으로 딸만 여덟 명 두었는지는 상고할 수는 없지만, 이곳 천내리에 상고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곳에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천내리 천내나루는 금산과 영동 양산을 잇는 영금선의 도로에 있었다. 따라서 장날이면 통행하는 사람이 많았다. 금산장날이면 모두 이 나루를 이용하여 장으로 갔다. 뱃전에 물이 넘칠 정도로 많은 사람을 태우고 강을 건넜다. 장에 가는 사람들은 장에 늦지 않으려고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사공은 사람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배를 운행했다. 다행스럽게도 이곳 천내나루에서는 배 사고는 없었다.

학생들의 통학에도 나룻배는 필요했다. 당시는 아이를 많이 낳던 시절이라 학생이 많았다. 등하교 때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사공은 이때가 가장 바쁠 때였다. 학교가 제원에 있어 일찍 강을 건너야 했다. 배에서 내려 또 한참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이다. 강 건너 마을 닥실에 금강초등학교가 들어오면서 훨씬 시간적 여유는 생겼지만 장마철 큰물이 들면 배를 놓지 않아 학교에 못 가는 날도 많았다.

천내리 사람들은 농토가 강을 건너 개티에 많이 있었다. 농사를 지으려면 천내나루를 이용해서 강을 건너야만 했다. 농사철인 여름에는 강물이 많아 여울로 건너기는 무리였다. 가을에는 좀 물이 떨어져 나루 아래에 형성된 여울로 볏단을 지어 나르곤 했으나 주로 나룻배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도강 방법이었다.

천내나루는 사람뿐만 아니라 차도 도강을 해야 했다. 자동차만 실어 나르는 배가 있었다. 물론 당시 차량 통행은 많지 않았지만 차가 오면 배에 싣고 건네주었다. 나루에는 모래와 흙으로 둔덕을 만들어 배의 앞부분과 접지를 해야 배에 오를 수 있었다. 그것을 노도라고 불렀다. 배를 노도에 대면 자동차가 배로 올라왔다. 출발할 때는 장대라는 것을 사용하여 지렛대처럼 들어 올려서 배를 띄웠다.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도 쉽게 밀어낼 수 있었다. 배에는 항상 장대가 실려져 있었다.

박길석은 20대 초반에 나룻배 일을 잠깐 보았다. 뱃일을 하던 분이 다치는 바람에 뱃일을 보게 된 것이다. 천내리 사람들은 농토가 대부분 강 건너 저곡리 개티에 있어 매일 배를 타야만 했다. 천내나루 나룻배는 20~30명 정도 태울 수 있는 배였다. 당시는 노를 저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장대라고 하는 것으로 강바닥을 밀어서 갔다. 비가 많이 와 큰 물이 들면 배를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 물살에 배를 맞기고 떠내려가 나루터에 배를 댔다. 배 안에서는 가래라는 것으로 배를 추진시켰다. 가래를 끈으로 매어 여럿이 당기면서 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었다. 배를 부리는 사공은 일 년에 한번 가을철에 뱃고사를 지냈다. 뱃고사는 탈 없이 뱃일을 보게 해달라는 것인데 대개 저녁에 하였고 떡을 준비하고 소지도 올렸다. 뱃고사 떡은 마을 주민들과 나누어 먹었다. 천내강에 다리가 놓이면서 나룻배는 기억 속으로 사라졌다.

나무로 만든 배는 수명이 짧았다. 소나무로 만든 배는 해마다 보수를 해서 사용기한을 연장했다. 물에 잠겨 있는 부분은 그래도 덜 상하는데 물과 접하는 부분은 쉽게 상했다. 부분적으로 보수해서 쓰기도 했지만 7, 8년이 지나면 배를 새로 묻어야 했다. 배를 묻으려면 큰 나무가 필요했다. 큰 나무를 가까이에서 구할 수 없어 무주에 가서 구해왔다. 많은 돈이 드는 일이어서 마을에서는 매년 배걸립굿을 하여 돈을 마련했다. 천내리 배묻이굿은 전국에서도 유일하다.

풍물을 앞세우고 천내나루에서 배를 이용하는 이웃 마을을 돌면서 걸립을 했다. 예전부터 천내리 농악, 즉 풍물은 유명했다. 현재는 금산 인삼축제에 길놀이로 그 맥을 잇고 있다. 매년 걸립굿에서 얻어지는 돈은 뱃삯으로 지불하는 수곡과는 다른 개념이다. 수곡은 사공의 보수이고, 걸립굿에서 걸립된 돈은 배를 묻을 때 소용된다.

국내에서 유일했던 천내리 배묻이굿, 배걸립굿은 더 이상 나룻배를 제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승되지 못하다가 금산군의 지원을 받아 인삼축제의 길놀이로 전승의 길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배걸립굿을 직접 하였던 주민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노령으로 전수를 못하고 있다.

| **한봉석**(1938년생)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



천내강 나룻배

내안 앞 벌판은 놀기 좋은 곳이었다. 지금이야 제방을 쌓아 개답하여 옥토로 변했지만 예전에는 마을 안쪽으로 물이 안 닿는 높은 곳만 밭이었다. 용석과 호석만 모래밭 위에 덩그렇게 서 있었다. 용호석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고려 후기 공민왕이 홍건적의 난을 피해 영국사로 왔던 적이 있었다. 그때 자신의 사후지로 정하고 용호석을 만들었으나 미완의 형태로 전해왔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말이다. 그렇다고 마을에서 크게 위하면서 보호한 것도 아니다. 언젠가는 큰물이 들어 용석

이 넘어간 경우도 있었다. 특별히 지반을 다지고, 기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 놓았기 때문에 물에 휩쓸려 넘어졌다.

마을 주민들이 다시 세워 놓았는데 방향이 전과 같은지 문제가 되었다. 당시 장비를 가져다가 고증을 해서 세운 것도 아니고 인력으로 세웠을 터인데 방향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이 오랫동안 보아 왔기 때문에 방향은 별반 틀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어쨌든 현재 호석은 신안골 쪽을 바라보면서 마을을 보호하고, 용석은 강 건너 봉황산을 바라보면서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악한 것을 막아주는 비보 역할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신안골이 깊어 호랑이도 출몰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어, 호석이 고개를 신안골 쪽으로 돌려 맹수를 막아준다는 해석이 그럴듯하다.

한봉석이 25살 때인 70년대 초, 제원면 천내리 내안과 저곡리 개티를 다리로 연결했다. 그동안 천내강이라고 불리는 이곳 금강에는 나루터가 있어 배로 건너다녔다. 사람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실어 나르는 배도 있었다. 사공 2명이 한 장(場)도막씩 교대로 뱃일을 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작은 마을을 다리로 연결해 주리라 생각도 못했다. 배로 어렵게 건너다니는 것으로 만족했었다. 사실 이 도로는 금산과 영동을 연결하는 영금로로 일제강점기 때 신작로로 개설된 일차선 좁은 도로였다. 당시에는 차가 많지는 않았지만 간간이 통행하는 차량도 배로 실어 옮겼다.

당시 토목공사를 순전히 인력으로 했다. 나무를 베어다 지줏발을 세우고, 아래에서 시멘트를 개어서 위로 올리면 손수레로 실어다가 붓고, 그렇게 해서 다리 공사를 했다. 공사 중에 큰물이 와서 유실이 되면 다시 복구해서 공사를 했다. 인력이 남아도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을 하면 일을 못하게 했다. 하루 품삯 200원을 받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아침, 저녁은 집에서 먹고 공사장에서 제공하는 점심을 먹었다. 그나마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들은 점심도 집에서 먹고 와야 했다. 다리가 놓이고 금강을 건네주던 나룻배는 기억에서 사라졌다. 나무로 만든 나룻배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물과 접촉하기 때문에 쉽게 썩는 것이 단점이다. 2, 3년이야 그럭저럭 보수하면서 쓴다고 해도, 5년 이상이 되면 교체해야 한다.

배를 하나 묻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이른 봄에 시작해서 적어도 반 년 이상을 소비해야만 한다. 동네에 배를 묻는 사람이 없으면 외지의 목수를 초청해야 한다. 목수가 기거할 수 있는 집도 마련해 주어야 하고, 목수 혼자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일꾼들의 인건비도 생각해야 한다. 어려운 처지를 누구나 다 아는 상황에서 배를 만든다고 목돈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배를 타고 건너는 데 지불하는 삯인 '수곡'과 '선계'는 사공의 수고비이지 배를 묻기 위한 돈은 아니었다.

따라서 내안에서는 천내나루의 나룻배를 묻기 위해 매년 배걸립굿을 해왔다. 천내나루를 이용하는 근동의 각 마을을 돌면서 성의껏 추렴을 해서 자금을 마련했다. 마을 사람들은 풍물을 앞세워 걸립을 다녔다. 현재는 걸립굿의 길놀이만 금산인삼축제 때 시연되고 있다. 걸립굿 전체를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유에서 길놀이만 공연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번 공연에 적어도 50명 이상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로 천내리 마을 주민으로는 어렵다. 군과 인근 마을의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걸립굿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배걸립으로 돈이 모아지면 배 제작을 할 목수를 초빙한다. 일반 목수들은 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배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목수를 데려온다. 용화리에 사는 목수가 한 번 배를 묻은 적이 있었다.

목수가 정해지고 배를 만들 나무를 구해오는데 가까이에는 큰 나무가 없어 무주 쪽에서 베어서 뗏목처럼 강물에 띄워서 가지고 왔다. 생나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바짝 말려서 배를 묻어야 뒤틀림이 없다. 7, 8월 장마를 감안해서 일찍 서둘러 시작한다. 거상으로 켜서 하는 작업이라 쉽지만은 않다. 반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휘어서 배 모양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설계도가 있어 설계도대로 작업하는 것도 아니다. 순전히 목수의 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해 배를 만든다. 배는 절대로 쇠못을 사용하지 않는다. 쇠못을 사용하면 쇠못 자리부터 썩기 시작하기 때문에 나무못을 만들어서 사용한다. 배 바닥은 좀 두껍게 하고, 양쪽 섶은 좀 얇게 하지만 세 겹을 댄다. 세 겹을 대기 때문에 자못 섶이 높아진다.

| **황상문**(1947년생)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



어죽과 도리뱅뱅이

황상문은 어렸을 때부터 농사에 이골이 났다.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군 제대 후 강에서 고기를 잡아 어죽 장사를 시작했다. 그 당시만 해도 허가 없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가 있는 사람만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이라 경쟁자가 많았다. 그러나 당시는 인심이 좋아 돌려가면서 어로작업을 했다. 그것도 고기 잡는 구역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 그 장소에서만 허락되었다. 부엉산 아래 원골 금강이 ○○○의 허가 구역이었다. 이곳은 어렸

을 때부터 더듬고 다녔던 곳이라 손금 보듯 훤했다. 어느 곳에 어떤 고기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다.

그물을 놓으려면 배가 필요했다. 배가 있어야만 어로권을 주었기 때문이다. 허가 규정에 맞는 배를 논산 강경에서 주문하여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목선을 사용하였지만 나중에는 철로 만든 배를 제작하였다. '원골호'라는 이름으로 등록하고 어로작업을 했다. 원골에는 비가 안 와도 무주나 용담, 장수에 지역성 폭우가 오면 갑자기 물이 불었다. 금산에서는 이것을 '미시기', '멍석말이' 물로 부른다. 이때 미처 배를 올려놓지 않으면 떠내려가기 쉽다. 한번은 영동 아래까지 떠내려간 것을 끌고 오기도 했다. 그물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그는 35년 동안 한 곳에서 식당을 했다. 주 메뉴는 당연히 어죽이었다. 색다른 어죽을 생각하고 인삼을 넣었는데 쓴맛이 심했다. 인삼 맛 때문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예 생삼을 썰어 놓아 기호에 따라 넣어 먹게 하였다. 차차 소문도 나고 인삼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당연히 인삼이 들어가야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그가 처음에 피라미 튀김요리를 내 놓았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다. 피라미는 풀을 먹기 때문에 쓴맛이 났다. 손님 한 분이 배를 따지 않은 빙어를 사용해 보라는 조언을 했다. 빙어로 튀김을 하니 맛이 좋았다. 그 후로 강원도에서 빙어를 가져다가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간장으로 양념을 했다가 맛이 나지 않아 양념장으로 바꾸고 모양도 보기 좋게 프라이팬에 돌려놓아 요리했다. 그 후 도리뱅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효자 상품이 되었다. 이제는 전국에서 도리뱅뱅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고 있다.

물가 마을은 매년 익사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곳 원골은 여름이면 피서객으로 넘쳐났다. 인근 대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몰려들었기 때문이었다. 교통도 불편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이유는 맑은 물과 백사장, 그리고 아름다운 경관 때문이었다. 원골 앞 금강 가는 여름 내내 텐트촌이 형성되었다. 들에서 일하고 있으면 헐레벌떡 찾아왔다. 사람이 물에 빠졌으니 건져 달라는 것이었다. 물에 빠진 지 얼마나 됐냐고 먼저 물어보면 대부분 시간이 지난 후라 생명을 구하기 어려웠다. 그

러면 익사체를 찾아야 했다. 누구보다도 물속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략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물이 굽도는 곳을 잠수해 들어가면 그곳에 있었다.

익사체를 건져 놓아도 문제였다. 지금처럼 구급차가 와서 곧바로 영안실에 안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놀러 온 사람들이어서 월요일에나 시신을 옮길 수 있었다. 월요일 일과가 시작되어야 법원에서 지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시신을 옮기지 못하고 밖에 그대로 두어야 했다. 유족들은 24시간 밖에 있을 수 없기에 식당을 이용하여 숙식을 하도록 했다.

사람들이 놀러와 버리고 간 음식물 때문에 파리가 기승을 부렸다. 강가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파리가 달려들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 면의 도움을 청했다. 치우는 것은 알아서 할 터이니 장비를 가지고 와 웅덩이만 파 달라고 했다. 쓰레기를 모으고 운반하기 위해 이웃에서 돈을 빌려 경운기도 샀다. 생업을 제쳐 놓고 여름 내내 쓰레기를 치우는 데 매달려야 했다.

소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당시는 기타나 전축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 마음껏 소리 높여 즐기는 시절이었기 때문이다.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환경을 정화하는 것으로 관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었고, 여러 차례 수상하는 영광도 있었다.

강가 마을이라고 하나 날이 가물면 전답이 타들어 가는 것은 매일반이었다. 이웃 부리면의 여러 동네는 농바우끄시기라는 기우제를 지냈다. 원골에서는 농바우끄시기에 참가하지 않는다. 마을 자체적으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었다. 우선 남자들이 나무를 해오고 추석봉이라는 금강 가의 봉우리에 나뭇단을 쌓아 놓았다. 그리고 나뭇단 위에 강가에서 가지고 온 동그란 돌을 올려놓고 불에 구웠다. 한여름 더위에 불을 놓아 돌을 구워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 돌이 구워지면 산 아래 강물로 굴렸다. 워낙 급한 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돌은 잘 굴러갔다. 달궈진 돌이 강물에 닿으면 수증기가 일어났다. 그때를 기다렸다가 강 건너에선 여자들의 키질이 시작되었다. 곡식 키질이 아니라 물을 키에 넣고 물방울을 만드는 것이었다. 정성에 감동했는지 하늘은 곧잘 비를 내려주었다.

예전에는 참 살기 어려웠다. 겨울이면 나무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 나무야 사시사철 해야 하는 일이지만 겨울에는 난방용으로 쓰이니 더욱 감당하기 어려웠다. 그래도 즐거운 것은 늘 동무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었다. 밤이나 낮이나 함께했다. 아지트는 원골 친구네 사랑방, 밤마다 만나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마을에 제사가 있는 집이 있으면 더 즐거웠다. 간식이고 주전부리가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기다리는 날이었다. 남의 제삿날을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렸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구니다. 바구니를 그 집 안마당에 던져 놓으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기만 기다렸다. 제사를 지낸 집에서 바구니의 뜻을 알아서 음식을 담아 놓는 것이었다. 그렇게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긴 겨울밤 기다렸다가 먹는 음식은 꿀맛이었다.

| **강신권**(1938년생)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



물가의 한 시절

강신권은 어려운 시절에 태어난 것이 죄라고 생각했다. 참으로 먹고살기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 초등학교를 겨우 마치고 집안 사정이 나빠 진학을 하지 않고 가사를 도왔다. 그래도 뭐든지 배워야 한다는 누나의 충고로 서당에 다녔다. 그는 그때 소학, 대학, 통감 등을 훈장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다. 그날 배운 것을 이해하고 암기했던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총명했던 모양이다. 서당은 닥실에 있었는데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나룻배를 타고 건너가 공부했다. 이해가 빠른 날은 진도를 더 많이 나갔다. 통감을 세 번이나 읽었다.

책거리하는 날 시골에서 준비할 것이 없었다. 그래도 자식이 공부해서 책을 떼었는데 보답은 해야 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부모님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생각이 나질 않는다. 그는 서당을 한 3년 다니고 중학교에 진학했다. 중학교 3학년 때 큰형이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사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학을 하지 못했다. 차남인 그가 졸지에 장남이 되었다.

집에는 사계절 술이 떨어지는 날이 없었다. 어머니는 항상 가용주를 담갔다. 아버지가 잘 드셨기 때문이지만 그때는 가정에서 술을 담아 제사에도 사용하고 일꾼들에게도 먹여야 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술주정이 심했다. 어린 나이에 큰 상처가 되었기에 나는 술을 안 먹는다 결심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고 술을 접했고 20살 전후에 마작에 심취했었다. 밤새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젊은 날 방황을 했다.

처음 통일벼가 나왔을는 수확량을 보고 이제야 뭔가 살 만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다. 쌀을 구경도 못하던 사람들의 입에도 밥이 들어가니 감개무량했다. 밥맛은 별로였지만 수확량이 매력이었다. 벼 생산량이 수요량보다 많아 강제로 심지 못하게 하였다. 통일벼 못자리를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나와 엎어 버렸다. 통일벼 다음에 새누리 품종이 나왔고, 최근에는 삼강벼를 주로 재배했다. 매상에 좋은 등급을 받을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도 새누리 품종이 섞였다고 받아주질 않은 적도 있었다. 새누리 품종을 재배하지 않은 지가 몇 년 지났는데 새누리 품종이 섞여 나온다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결국 매상을 하지 못했다. 논농사가 어려워 일부 논은 아예 삼장으로 바꿔버렸다.

그는 도슬비(다슬기의 방언) 잡는 게 재미는 있어도 이제 기력이 딸린다. 예전에는 물이 오염되지 않고 깨끗해서 다슬기가 지천이었다. 큰물이 가 흙탕물이 지면 다슬기가 강가 얕은 곳으로 전부 기어 나온다. 어떤 놈은 너무 기어 나와 물이 없는 곳까지 나와 있었다. 아마도 물이 계속 불어 그곳까지 올라오리라 생각한 놈이겠다. 그때는 '외'라는 것으로 죽 훑으면 서너 사발씩 잡혔다. 얼마 전에 비 왔을 때 나가서 잠깐 사이에 몇 망 잡아 왔다.

가라지(혼인색을 띤 피라미 수놈)는 배에 무지개색의 예쁜 무늬가 있다. 꽃무늬처럼

아주 빨간 무늬가 있다. 암놈은 그냥 피리라고 불렀는데 이놈들은 색은 예쁘지만 맛이 별로다. 뭐니뭐니 해도 물고기 중에서 고기 맛 좋기로는 빠가사리가 최고다. 일단 삶아서 가시를 제거하고 추어탕처럼 매운탕 해 먹으면 맛이 그만이다. 그래서 빠가사리 이외는 먹지 않고 이웃에 다 나눠주었다. 투망이 잘만 펴지면 물고기가 한 사발씩 잡힌다. 고기가 많을 때는 투망이 펴지지 않아도 물고기가 죽 딸려 나온다. 그렇게 물고기가 많았던 천내강이었다. 투망은 힘이 있어야 한다. 힘껏 요령 있게 던져야 잘 펼쳐진다. 한 30분만 연습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얼마 전 투망질 하려다 힘들어서 못했다.

젊었을 때 그는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15kg 정도는 되었을 것이었다. 투망을 쳤는데 그놈이 잡혔다. 힘이 얼마나 쎈지 감당을 못해 뒤로 넘어졌다. 얼른 강가로 안고 나와 돌멩이로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켰다. 강 물고기는 저수지 물고기에 비해 힘이 세다. 그놈을 가져다가 부모님께 매운탕 해드렸다. 몇 년 전에는 물고기 큰 놈 잡아서 막내딸 준다고 냉장고에 넣어 두었다가 못 주고 얼마 전에 꺼내 삶아서 개를 주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호사를 누리게 했던 곳이 금강이다.

지금이야 재배기술이 좋아지고 기계도 많이 나오고 해서 삼농사가 쉬워졌지만 예전에는 전부 손으로 작업을 했다. 예를 들어 인삼재배 초창기에는 삼딸(삼씨)을 싹틔워서 일년을 키워서 심었다. 하나하나 사람 손으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다.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는 약 400평 정도밖에 못 했다. 그러나 요즈음은 직접 파종을 한다. 기계로 직접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전 작업량의 삼분의 일 정도밖에 안 된다.

금산에서는 볏짚의 쓰임이 많았다. 외지처럼 가을에 지붕에 이엉을 해야 했고, 소먹이로 비축해 두는 것 외에 삼밭에 들어가는 볏짚의 양이 대단했다. 삼장발을 엮을 때 짚으로 새끼를 꽈서 사용하기도 했지만 얼마 안 가서 썩는 것이 단점이었다. 짚보다 오래 가는 것이 산에서 나는 미듭이었다. 미듭으로 새끼를 꼬아 사용하면 3년 가도 안 썩었다. 서리가 오기 전에 산에 가서 미듭을 베어다가 말려서 미듭 이파리만 이용하여 새끼를 꼰다. 대봉만 많은 숫미듭보다는 이파리가 많은 암미듭을 주로 사용하였다.

| **김한중**(1942년생)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



천내강의 추억

천내3리는 1리와 한동네였다가 늦게 분구가 되어 3리가 되었다. 2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이전에 천내리는 1, 2구로 되어 있다가 1리가 인구가 많아 분리되었기 때문이다. 즉 2리 난들은 기존에 있었던 마을이라 바꾸지 못해서 1리가 1리 3리로 분구된 것이다. 3리는 예전에 인흥동이라 불렀다. 이 지명은 현재 도로명에만 사용하고 있다.

천내리는 금강의 동쪽에 인접해 있었지만 수침이 되는 지역이라 오랫동안 농사를 짓지 못했었다. 먼저 천내3리 쪽 금강변에 제방을 쌓고 경지정리를 하여 농지로 바꾸었다.

후에 천내리 내안 즉 1리 쪽도 제방을 쌓고 개답하였기 때문이 천내1리는 나중에 이루어졌다고 신들이라 하고, 상대적으로 일찍 개답이 된 3리 쪽은 구들이라 붙인 것이다.

서쪽에서 북쪽으로, 다시 동쪽으로 꺾여 돌아 흐르는 금강을 천내강이라고 했다. 천내리를 경유하여 흐르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천내리 동쪽에 자리 잡은 마을은 그래서 강의 안쪽이라 하여 내안이라고 하였다. 천내강이 끝나는 부근인 광석리, 즉 낙안들에 접해 있는 금강은 광석강이라 달리 불렀다. 현재의 원골유원지가 광석강이라 불리던 곳이라 보면 된다. 천내강에는 천내나루, 광석강에는 광석나루라 부르던 나루가 있었다. 천내나루는 영금선을 잇는 나루였기 때문에 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금산과 영동으로 이동하려면 천내나루를 이용하였다. 광석나루는 주로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는 나루로 작은 동선이 있었다.

천내리 주변 금강은 현재의 모습과는 다른 고운 모래가 죽 펼쳐진 아름다운 곳이 많았다. 날씨가 조금 더워지면 모래밭은 사람으로 북적였다. 여름 내내 피서차 찾는 사람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강가 주민들은 4, 5월부터 천렵으로 분주했다. 솥단지 들고 남녀노소 없이 달려가서 물고기를 잡아 어죽을 쑤어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쌀 조금 넣고 물고기 잡아 죽을 쑤어 먹는 것은 외지사람들 부럽지 않은 최고의 보양이었다.

더우면 그냥 강물로 뛰어들어 몸을 식히면 되었다. 물놀이가 싫증이 나면 돌을 모아 쌓아서 담을 만들었다. 돌을 수북이 쌓아 놓으면 돌 사이에 물고기들이 찾아들었다. 고기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한 십여 일 두었다가 그물을 담 둘레에 둘러치고 그물 밖으로 담을 쌓았던 돌을 하나하나 들어냈다. 장어나 꺽지, 쏘가리 등이 숨어 있다가 잡히는 것이다. 담이 있다고 누구나 돌을 들어내고 잡으면 안 된다. 담은 쌓은 사람이 임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쌓은 것이 아니면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담은 여울보다는 조금 깊은 곳에서 손쉽게 물고기를 잡는 방법 중 하나이다.

금강에는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물고기가 모이는 것이 계절마다 다르기 때문에 잡는 방법이 다양하다. 담은 물속에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여름에

만 한다. 여름에는 각각 흩어져 있던 고기도 가을철 싸늘해지기 시작하면 깊은 곳으로 모여든다. 이때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서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잡는 것을 '깡'이라고 했다. 당시에도 이것은 불법어로로 단속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쉽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서 몰래 사용했다.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면 온갖 고기가 다 배를 보이면서 떠오른다. 기절하는 놈도 있고 아예 죽어 버린 놈들도 있었다. 다이너마이트로 고기 잡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있었다. 불을 붙여 들고 있다가 고기가 흩어지는 바람에 무심결에 안 던져 터지는 것이다. 그러면 팔이 잘려나가는 큰 부상을 입었다.

꽃고기라는 고기는 활치로 잡는다. 꽃고기는 봄에 나오는 물고기로 진달래가 필 때 잡는다. 여울에서만 사는 물고기라 활치로 훑어서 잡는다. 여울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죽 훑어 올라오면 한 주먹씩 잡혔다. 이 고기는 주로 회로 먹었다. 끓여서 먹기도 했지만 꽃고기는 회로 먹어야 맛있다. 봄철 꽃고기를 찾는 미식가들이 금강 가로 모여들었다.

작살을 잘하는 사람도 많았다. 철사를 가지고 작살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고무줄로 만든 조잡한 작살이지만 요령이 있어 잘 잡아냈다. 꺽지 같은 고기는 그 자리에서 초장에 찍어 회로 먹었다. 추사라는 물고기는 아주 똘똘했다. 피라미보다는 크고 똘방한 것이 맛이 있었다. 추사는 주로 초여름 밤에 잡았다. 횃불을 들고 원골에서부터 용화리 앞까지 죽 훑어 올라가면서 잡았다. 겨울에는 얼음을 깨고 망치로 큰 돌을 때려 고기를 잡았다. 바위 속에서 고기가 충격을 받고 나왔다.

팔뚝만 한 고기도 잡았었다. 용화리 앞에 진둠벙에서 잉어 두 마리를 잡았다. 그때가 열여덟이나 열아홉 살 때였다. 사람들이 고기복이 있다고 했다. 아무나 그런 큰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큰 고기는 임자가 있다는 말도 있다.

천내리 금강 가는 논보다는 밭이 많았다. 수박밭 참외밭도 많았다. 서리를 감시하기 위해 원두막을 지어 놓고 지켰지만 서리를 막지는 못했다. 초저녁에 마음이 맞는 몇 명이 작정하고 서리를 했다. 옷을 모두 벗고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서리를 해 먹었다.

부여군

| **김연소**(1953년생) 부여군 부여읍 |

내포제 시조를 지켜가다



김연소의 아버지는 여주면장을 지내고 증평 중리에서는 한약방을 운영하셨다. 증평의 중리는 집안이었던 안동김씨가 200가구 정도 사는 집성촌이었다. 아버지는 동네 어른들과 시조를 많이 불렀는데, 그때는 시조가 유행가처럼 많이 불렸었다.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약방에 시조하는 분들 수십 명이 와서 며칠씩 묵어가면서 시조를 부른 적도 있었다.

그가 살았던 마을은 충청북도 청원군 증평읍 중리였는데, 중리초등학교 바로 앞이었다. 부지가 천 평 정도여서 텃밭이 많았고 마을에 영화패가 들어와서 노천 상영을 할 때는 그의 집을 빌려서 천막을 치고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였다. 초가집이었지만 동네에서 제일 새로 지었고 사랑채에는 한약방도 있었기 때문에 마을 사랑방 역할을 했다. 중리마을은 초정약수도 가깝고 백중 때는 씨름이 열리기도 했다. 초정약수터에는 돈을 내고 입장하면 팔목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어릴 때 그는 도장이 지워져서 다시 입장을 할 수 없어서 울었던 기억도 있다.

여주면장을 역임하신 뒤 한약방을 운영하셨던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서 그의 집안은 청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전매청에 다니던 형이 청주에 있어, 청주 석교초등학교에 다녔다. 어머니가 석교동에서 국밥집을 열어 운영하시다가 탑동으로 옮겨서 소를 먹여 생계를 꾸렸다. 송아지 사다가 한 달 동안 잘 키워서 우시장에 가지고 가서 팔고 그 차액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는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기술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니던 세광고등학교(2학년)를 중퇴하고 17세에 서울로 올라갔다. 누님이 아는 사람을 통해 미아리의 문화사진관을 찾아갔는데, 마침 문화사진관의 주인이 미아리와 서울의 문화촌에 사진관을 가지고 있어 그 사진관에 취직하였다. 사진관에서 숙식을 하며 기술을 배우던 차에 연탄가스 사고를 당해 6개월 정도 일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비록 6개월밖에 근무하지 못했지만 눈썰미가 좋고 그림에 소질이 있어 당시 사진작업에 가장 중요한 수정작업을 3년 이상 배운 사람의 수준을 갖게 되었다.

연탄가스 사고로 청주로 귀향한 후 친구 아버지의 가구점에 취직하였다. 가구점에는 7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힘든 사포질과 독한 화공약품 접착제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겨 퇴사하였다. 이후 서울 문화사진관에서 익힌 기술로 청주의 칠공주사진관, 충주의 무지개사진관을 거쳐 서울 청량리에 오케이사진관을 인수하여 서울에 자리잡았다. 오케이사진관을 인수하여 사업상 성공가도를 달리게 되었으나 21세의 젊은 나이에 너무 많은 일에 지쳐서 돈도 싫을 정도였다. 오케이사진관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부여에 와서 팔경사진관에 취직하였다. 이 사진관은 나중에 그의 처갓집이 되었다. 그는 팔경사진관에서 하던 일을 접고 천일예식장을 열어 직접 경영하였으며, 천일예식장에서 1976년에 혼인하였다. 이후 사업이 안정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었다.

사업에 여유가 생기고 그는 국악에 관심을 가졌다. 아버님이 예전에 시조창을 하셨던 모습 등을 생각하고 국악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1983년에 부여국악원에 들어갔다. 당시 국악원은 지금과 같이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옛날 집이었다. 원장 박홍남을 만났으며, 박홍남에게서 장구와 경기창, 판소리 등을 5년간 배웠다. 부여국악원에 다니며 국악에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국악원 옆에 있던 시조회관에도 관심이 조금씩 생겨 드나들게 되었다. 당시 시조회관에는 소리하는 사람들이 백여 명씩 있었는데, 와서 들어보니 어릴 때 아버님이 하시던 시조와 비슷한 소리였다. 당시 소리를 배우던 사람 가운데 그에게 장구를 배우던 강근병이 있었는데, 처음 시조를 가르쳐주었다. 강근병한테 열흘간 시조를 배웠는데, 시조회관 사람들이 소동규에게 인사를 하러 가자는 제안을 했다. 소동규는 목이 보통 사람의 두 배나 굵었고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다. 소동규를 만나니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나서 큰절을 했다. 소동규는 그에게 소리를 한 번 해 보라고 해서 시조를 했는데, 시조만 배우면 대성할 사람이라는 좋은 평가를 해 주었다.

그렇게 시작한 시조 공부는 아침저녁이 없었다. 소동규에게 시조를 배우면서 때를 가리지 않고 매일 와서 배웠으며 소리가 되지 않으면 소동규가 취침하는 시간에도 찾아갈 정도로 시조 공부에 매진하였다. 열심히 시조 공부에 매진하던 중에 목이 쉬어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성대가 망가진 것 같다는 소견을 들었다. 따뜻한 곳에 가서 쉬고 와서도 목이 낫지 않고 목소리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새벽 네 시까지 소리를 질렀더니 목에서 고름과 피가 터져버리고 그 이후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소동규에게 와서 시조회관에서 담배연기를 많이 쐬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시조를 배우지 않겠다고 했다. 이후 소동규는 담배를 끊었고 시조회관 안에서 그 누구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했으며 재떨이까지 전부 버리도록 했다.

김연소가 입문하던 당시 시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시조회관은 소동규가 거주하면서 시조강습을 해 주는 곳이었다. 건물이 세 동 있었는데, 소동규의 거주 공간과 강습하는 곳, 주방이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 시조회관에는 월례회가 열리면 250~300명이 왔었고, 월례회비 천 원을 받아 돼지머리를 삶

아 국밥을 해먹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조의 인기가 매우 떨어져, 시조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도 매우 적다. 그가 1994년 문화체육부장관상을 받았을 당시 출전한 사람에 비하면 지금 시조대회에 참가하는 사람은 불과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서양의 빠른 음악에 적응하면서 느린 시조는 졸립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하다.

때를 가리지 않고 열심히 시조를 배웠던 끈기와 성실함으로 1994년에 그는 전국시조경창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1998년에는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17호 내포제 시조 후보자가 되었으며, 2010년에는 보유자가 되었다. 그는 시조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전국시조경창대회를 열고 있으며, 시조 부흥을 위해 어릴 때부터 시조를 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공영방송에서도 시조를 내보내지 않고 있는데, 어린 나이부터 시조를 접할 수 있도록 시조가 방송되기를 바라고 있다.

| **김영구**(1946년생) 부여군 부여읍 |

백제의 노래 산유화가



부여읍 정동리에는 지금도 물을 바가지로 퍼서 사용할 수 있는 용샘이라고 불리는 샘이 있다. 정동리의 샘골이란 마을 이름은 거기서 비롯되었다. 음력 7월 보름날이 되면 마을 어른들이 조를 짜서 마을과 우물 청소도 하고, 떡과 술, 국수를 많이 준비하여 두레풍장을 치며 놀았다. 정동리의 샘골은 약 300가구 정도였는데, 광산 김씨가 약 100여 가구였고, 진주소씨가 약 40여 호 있었다.

김영구는 부여초등학교를 마치고 부여 인삼창에 근무하면서 부여실업중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갔다. 이 학교는 중학교 과정으로서 성결교회 교단에서 운영하였는데, 교회를 다

니는 중고등학교 교사 몇 명이 주축이 되어 학비가 없는 야간과정으로 운영하였다. 약 5년 정도의 부여실업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쳤는데, 역사과목을 좋아해서 인생에 중요한 도움이 되었다.

1968년 그는 군대 입대 후 베트남 파병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보병으로서의 복무 기간이 부족하여 6개월 동안 베트남어를 배우는 과정을 마치고 베트남에 갈 수 있었다. 베트남에서의 근무는 나트랑의 민사심전대로서, 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베트남 근무 당시 그는 베트남어 능력을 통해 근무 기간이 자동 연장되어 약 2년 가까이 근무하였으며 근무 수당 외 통역 수당까지 받을 수 있었다.

1970년대 국내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국내 관광안내원 국가고시 제도가 생겼다. 그는 관광안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 여행업에 종사하였다. 당시에는 전세버스를 얻어 관광안내원이 관광객들을 태우고 관광지로 다니며 안내와 오락 등을 전부 담당하던 시절이었다. 며칠 동안 관광객들을 모시고 안내하기 위해 공부도 많이 해야 했고, 가요 외에도 다양한 오락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가 국악에 관심을 갖게 된 처음의 동기는 관광안내를 위한 것이었고, 이를 계기로 부여국악원을 찾게 되었다.

부여 국악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박홍남은 여성 농악단장을 역임하였던 인물이다. 1959년경 단원 40여 명을 이끌고 부여에 공연을 하러 왔다. 명덕하숙에 짐을 풀고 거기서 연습을 하면서 공연을 준비했으나 매 장날마다 비가 와서 공연을 한 번도 할 수 없어 흥행에 크게 실패했다. 단원들이 실의에 빠지고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안에 있던 자기 토지를 팔아 단원들에게 출연료를 나눠주었다. 그러나 하숙비는 여전히 해결할 수 없어 풍장과 판소리, 남도 민요를 가르치며 비록 어려운 생활여건이었지만 부여 사람으로 정착하여 부여 국악의 대부가 되었다.

백제의 노래로 알려진 산유화가는 세도의 한 잔칫집에 초대받은 박홍남에 의해 1972년 우연하게 발굴되었다. 부여국악원에 세도에 사는 이병호와 이금순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초대로 박홍남이 세도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동네 어른들이 방안에 모여 막걸리를 먹고 노래를 주고받으며 즐기는 자리였다. 그러던 중 세도에 사는 두 사람이 일

어서서 노래를 하는데, “산유화야 산유화야 궁야평 너른 들에 논도 많고 밭도 많다. 씨 뿌리고 모 옮기어 진실허게 가꾸어서 성실허게 맺어 보세.”라는 내용의 소리를 듣고 박홍남은 매우 흥분했다. 부여박물관장이었던 홍사준과 향토사학자였던 부여여고 영어교사 이양수로부터 백제의 노래인 산유화가가 어디엔가 남아 있을 것이며, 찾게 되면 알려달라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산유화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던 차였다. 박홍남은 초대받은 세도의 마을 사람 가운데 홍준기의 소리를 듣고 산유화가임을 알고, 홍사준을 부여국악원으로 불러 산유화가를 발굴하게 되었다

김영구는 1972년 산유화가 발굴 당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당시 관광안내원으로 활동하기 위해 소리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기민요나 남도민요, 판소리를 한 곡이라도 더 배우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산유화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늘 산유화가에 골똘한 박홍남을 보면서 관심을 갖고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여러 제자 가운데 가장 탁월한 실력을 갖추어 1996에는 박홍남과 홍준기 등을 이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4호 산유화가 보유자가 되었다.

| **김영만**(1941년생) 부여군 부여읍 |

백제의 세 충신을 모시는 삼충제



김영만은 1941년 8월 17일생으로 부여읍 구교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부잣집 막내아들로 자라 그림과 글씨에 조예가 깊었고 서당 훈장을 오랫동안 했었다. 1950년을 전후로 아버지는 극단을 만들어 충청남도 부여 군내를 공연하러 다녔다. 아버지가 마당쇠 역할을 했던 바람에 김영만이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기도 했다. 아버지의 극단은 운영이 어려워 전답을 팔고 살던 집의 함석지붕을 뜯고 초가지붕으로 바꿀 정도였다.

부여초등학교에 다닐 당시 김영만은 그림에 소질이 있었다. 학교에서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으로 선발되어 학교에 붙

이는 그림을 많이 그렸다. 글씨도 잘 썼던 재주 있는 학생이었다. 그러나 당시 초등학교에 다닐 때 생활이 어려워서 아침과 저녁은 먹었지만 점심은 거의 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일이 허다했다. 한편, 아버님이 6·25전쟁 때 인민군에게 끌려가 맞은 일을 계기로 항상 병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다닐 때 2년간 학교에 가지 못했다. 2년간 학교를 쉰 탓에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8년이 걸렸다.

그가 초등학교를 마치고 들어간 부여중학교에 다닐 당시 매주 일요일은 나무를 하러 다녀야 했다. 특히 겨울에는 땔감이 제일 문제여서 토요일과 일요일은 나무하러 다니는 날이었다. 나무는 부여에서 가장 먼 은산 나령리로 가서 해 왔는데, 일요일 새벽 네 시에 일어나 아침밥을 조금 먹고 누룽지를 한 덩이 싸 가기고 출발했다. 새벽 네 시에 나가도 9시 30분이나 10시가 되어야 도착했고, 나무 한 짐을 해서 돌아오면 하루가 다 지나갔다. 소달구지에 나무를 잔뜩 싣고 돌아오는 사람이 가장 부러웠던 시절이었다.

그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큰집이 있는 논산의 논산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경제사정이 여의치 않아 2학년까지 다니고 학교를 그만 두었다. 논산에는 이모부가 경영하는 영풍농약사가 있었는데 농약과 씨앗을 판매하는 가게였다. 영풍농약사에서 장부정리와 배달 일을 하다 군대에 입대했다. 군대에서도 담배나 술을 입에 대지 않을 정도로 알뜰하게 생활했었는데, 영풍농약사에서 받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거의 쓰지 않고 집에 가져갔다.

군대에 가기 전 근무했던 이모부의 영풍농약사는 김영만이 군대 제대 후에 문을 닫았다. 그는 농고를 다녔고 이모부의 가게에서 근무경험도 있어서 농약 판매상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친척에게 백만 원을 빌려 점포를 하나 얻어 대전의 도매상과 거래를 트고 농약사를 운영했다. 농약사를 운영한 지 4년 만에 자신의 점포를 마련하게 되었고, 열심히 경영하여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농약사를 운영하다 약 2년만인 25세에 혼인하여 현재 맏딸이 쉰두 살이 되었다.

삼충사는 백제의 좌평 성충공, 좌평 흥수공, 달솔 계백장군을 모시는 사당이다. 2019년은 백제문화제에서 삼충제를 지내는 것이 65회째인데, 김영만은 24회 때부터 제사

에 참가했다. 그가 삼충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된 것은 1978년에 청년회의소 회장을 할 무렵이었다. 그때까지는 유림회에서 삼충제를 담당했었는데, 유림회의 회원들이 고령이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아 삼충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1978년 제24회 백제문화제 때 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에서 청년회의소가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 삼충제를 맡아서 지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고, 이를 수락하여 지금까지 삼충제를 모시고 있다. 삼충제 봉행의 수락 당시 그는 성균관에 가서 2주 동안 교육을 받고 왔다.

삼충사는 1957년에 지어졌다. 김영만이 삼충제를 처음 맡아서 지낼 당시 백제문화제는 삼충제가 중심이 되는 행사였고 백제문화제 하면 삼충제가 최고라는 인식이 있었다. 삼충제가 열리는 때에는 풍물패는 물론 음식을 싸 가지고 오는 사람도 많아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그가 청년회의소 회장을 역임하면서 1978년 삼충제를 맡아 지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삼충제에 참여하였고, 부여중학교나 부여고등학교 학생들 100명과 수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하였다. 언젠가 학생 하나가 삼충제에 왔다가 쓰러지는 바람에 지금은 부여 인근의 군부대에서 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부여의 인구가 많이 줄어들었고 관광객 또한 크게 줄어들어 삼충제에 대한 관심이 예전과는 크게 다르다. 백제문화제선양위원회의 지원에 따라 해마다 제사와 제물을 마련하고 삼충제에 오시는 분들의 식사까지 준비하고 있으나, 유교문화를 멀리하는 문화가 가속화되면서 삼충제 제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영만은 제사는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한 의례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뿌리 문화를 찾기 위해 유교문화가 계속 계승되기를 바라고 있다.

| **김요산**(1933년생)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

부여의 오지마을 장벌리 마을신앙



은산면 장벌리는 부여에서도 가장 오지로 알려진 곳이었다. 마을에서 면 소재재인 은산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마을 앞 높은 산을 넘어 난 소로가 전부였는데, 이 길을 넘어 은산까지 가는 중간에 대양초등학교가 있었다. 학교까지 가는 길은 6km나 되었고, 마을 앞 고개는 나무도 우거져 무서웠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두렵고 험한 길이었다.

김요산이 아홉 살 때 학교를 마치고 오면서 이 고개에서 멧돼지 일곱 마리를 만난 적이 있었다. 차마 무서워서 고개를 넘지 못하고 있을 때, 인근 오번리 마을의 어른이 고갯마루까지 데려다 주고, 김요산이

고개를 다 내려올 때까지 고갯마루에서 기침소리를 내 주셨다. 마을 앞의 고갯마루로 넘어가는 길이 넓어지고 포장된 2차선 도로가 되면서 오지였던 장벌리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옛날이야기가 되었다.

김요산은 초등학교 4학년을 다니다 자퇴하였다. 중학교나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할 바에는 이미 한글과 구구단을 배웠으므로 더 이상 학교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었다. 자퇴서를 직접 써서 학교에 제출하니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다. 학교를 자퇴하고 나서는 낮에 농사일을 하고 밤에는 한문을 익혔다. 첫 해는 천자문을 떼고 둘째 해에 명심보감을 마쳤다.

그는 1951년에 은산면 나령리 출신의 신부를 맞이하여 5남 1녀를 두었다. 혼인을 하고 군대에 다녀왔다. 자녀들이 어린시절에는 형편이 어려웠다. 그러나 그가 어릴 적에 가난하여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업만큼은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녀들 모두 학업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성장하여 뿌듯한 마음으로 노년을 보내고 있다.

김요산은 40대 무렵부터 새마을지도자와 마을의 여러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장을 많이 맡아서 했다. 장벌리에 전기가 들어올 때도 추진위원장을 맡았고, 새마을운동 시기에는 마을 안길을 넓히고 골짜기마다 농로를 내는 일의 추진위원장을 역임했다. 토지주들과 전부 협상하여 마을 앞의 고갯길을 확장하는 일에도 앞장섰는데, 이 일은 방송으로도 소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벼를 개발하여 식량 생산이 늘어났고 농촌 경제도 나아졌다. 그러다가 장벌리에는 특용작물로 맥문동 재배가 도입되었고, 장벌리의 산에는 모두 밤나무를 심어 가꾸었다. 벼농사보다는 맥문동과 밤나무로 인한 소득이 나았다. 장벌리의 세 마을은 크게 발전하였다

장벌리의 탑제는 정월보름에 지내는 장벌리 장재울 마을의 마을제사이다. 정월 열나흘에 집집마다 농악을 치고 다니며 걸립을 해서 불밝이 상에 차려지는 쌀을 받아 제사 비용을 마련했다. 탑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금기가 엄해서 목욕재계와 정성을 들였다. 그러나 지금은 탑제를 지내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에 의하면 30여 호 되는 마을에서 젊은

이들이 줄어들고 교회에 나가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예전과 같이 농악대가 집집마다 걸립을 다니거나 하는 것은 어렵고 유교식 제사만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장벌리에서는 장재울과 벌말의 아랫말과 웃말 등 세 곳에서 각각 동화제를 열었었다. 동화제는 주로 싸리나무로 동화대를 만들고 아홉 마디로 묶어서 세웠다. 동화대의 꼭대기에는 장가를 가고 싶어 하거나 아들을 낳고 싶어 하는 등 소원을 가진 사람이 불을 붙였다.

김요산은 장벌리 장재울의 동화제를 폐지하고 벌말 동화제도 두 마을에서 각각 하지 말고 한 곳에서만 하도록 하는 의견을 마을 사람들에게 건의하였다. 예전과 달리 동화제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동화제 운영을 위해 벌말의 동화를 장벌리 마을 전체의 동화로 인식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의 제안대로 현재는 벌말에서 지내는 동화제로 지내고 있다.

장벌리의 탑제와 동화제는 각기 다른 자연마을을 기반으로 전승되어 오던 마을제사로서, 보존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는 탑제와 동화제의 보존회를 통합하여 합동보존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현재 탑제와 동화재는 부여군 향토유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동화제의 경우 인근 청양 지역의 사례가 이미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탑제의 경우 충청남도 금산 지역에만 있고 부여나 청양 지역 등에는 없으므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문화재 지정이 된다면 앞으로 없어지지 않고 잘 보존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송건호**(1946년생) 부여군 부여읍 |

백제 무형문화유산



송건호는 은진송씨로서, 현재 7대째 부여군 용정리에 거주해 오고 있다. 아버지 송도헌과 어머니 김을순 사이의 3남 3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6대조 할아버지 때 쇠코뚜레가 한 짐이었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부농이었으나 할아버지나 아버지 대에는 빈한해졌다. 아버지는 벼 2000뭇이 생산되는 약 2000평 정도의 농토를 소유하는 것을 꿈으로 여기고 사셨는데, 소박한 꿈이지만 농부로서 평소에 가졌던 꿈을 이루셨다.

송건호가 부여초등학교 재학 시절 용정리 4H클럽에 가입하여 부여 정림사지 나무 심기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이

때 부여군수의 선물로 토끼를 받아 집에서 토끼를 키웠다. 가정 형편상 중학교 과정은 3년 과정의 부여실업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공부를 이어나갔고, 용정리 마을 내 야학당에서 한문을 수학하기도 하였다.

부여 용정리 인근 청마산에는 백제시대의 산성 유적이 남아 있다. 청마산성에는 성문 자리가 있었는데, 부여 용정리를 지나는 신작로를 만들기 위해 청마산성의 돌과 흙을 파내어 조성하였다. 또 공주나 논산에서 부여로 들어오는 입구의 로터리에는 마름방죽이 있었는데, 식량 생산을 위해 농토를 마련한다는 이유로 마름방죽을 메웠다. 백제의 토성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것이나 방죽을 메운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는 17세까지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지냈으나 농촌에서는 비전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서울로 올라갔다. 특별한 계획이 없이 상경하였으므로 초기에는 응암동에서 농사일과 쌀가게 점원 등의 일을 하였다. 이후 친척 형님의 소개로 삼양라디오 공장에 취직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여유도 생겼다. 삼양라디오에 근무할 당시에는 도금을 하는 부서에 근무하였는데, 하루에 배정된 업무량을 마치면 시간적 여유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재미있는 직장생활을 영위했다. 또한 삼양라디오 재직 당시 젊은 사람들의 로망이었던 손목시계를 쌀 다섯 말 가격을 주고 구입하기도 하였다.

안정되고 즐거웠던 시절을 주었던 삼양라디오는 작은아버지가 정릉에 개업하신 사진관에 근무하게 되는 것을 계기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사진관은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 시점이었고, 3년 후에는 사진관 문을 닫게 된다. 안정된 보수와 즐거운 직장생활을 영위하다가 특별히 보수도 없었던 사진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던 그는 마침내 귀향을 결심하였다.

부여에 귀향한 이후 친구가 운영하던 사진관을 세를 얻어 운영하였다. 송사진관으로 간판을 건 그 가게는 처음에 장사가 잘 되지 않았으나 '큰돈 버는 것 생각 않고 내가 소일꺼리가 있다'는 것만 해도 괜찮다 생각하고 열심히 운영하였다. 1년후 추석에는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사진관이 호황을 맞았다. 그러나 건물 주인이 가게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진관을 그만두게 되었다. 가게 주인의 요구로 호황을 맞던 사진관

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뒤 약 1년 동안 예식장도 운영하였으나 신통치 않았다. 이후 경제적인 문제는 세탁소를 열어 성실하게 운영함으로써 회복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때 친목회 모임에서 부여국악원의 원장 박홍남을 만나게 되면서 국악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본격적으로 배우는 길을 가게 되었다.

그는 탈춤보존회장으로도 활동을 하면서 백제미마지탈춤의 복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구드래에 미마지 현창비를 보고 복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충청남도의 예산지원을 받아 전문가 등을 초청한 세미나를 개최였으며, 약 3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탈춤의 복원에 앞장섰다. 현재 백제 재현단지가 있는 가로등 밑에서 연습을 하기도 하였으며 여름의 삼복더위에 사자탈을 쓰고 연습했다. 섬세한 탈을 만들기 위해 소꼬리를 한 부대를 사다가 다 빨아서 그 수염을 써 보려고도 하였다. 미마지탈춤의 복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송건호 보유자는 미마지 탈춤의 복원에 아쉬움과 다시 한 번 정리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 **송병일**(1948년생) 부여군 은산면 |

은산별신제의 추억



송병일은 어려서 주로 외갓집에서 지냈다. 외가에 맡겨진 게 아니라 갈 데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외가에 가서 놀았다. 아버지가 독신이고 할아버지 형제는 삼형제였는데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다 공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가 내왕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도 외가가 가장 가까운 집안이었다.

외가는 상당히 부유했다. 외할아버지 내외와 큰외삼촌 가족이 살던 집은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집인데 무척 크고 방이 많았다. 외가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과일나무가 많아서 과일을 따 먹고 싶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송병일의 친가는 어느 한 해에 할아버지 할머니 큰아버지 등 일곱이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크게 기울었다. 살림 형편이 어려웠던 것은 아니나 일곱이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병원비로 진 빚을 논을 팔아 해결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규암의 석우리에 살았는데, 처가가 있는 곳으로 오시면 좀 낫게 살까 해서 은산에 오게 되었다. 그러나 외가의 할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어 송병일의 집은 상당히 어렵게 살았다. 어려운 살림은 어머니가 은산시장에 나가 국수장사를 하기 시작한 이후로 좀 나아졌다. 오일장에 하루 나가 벌어서 5일을 먹고 살았다. 아버지도 일을 하시거나 산에서 나무를 해 보태긴 했으나, 그 당시에는 농촌에 일이 없었다.

그는 열한 살에야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집의 형편이 학교를 보내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를 학교에 보낸 건 옆집에 세를 얻어 사셨던 교사 이재만이었다.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송병일의 손을 이끌고 입학을 시켰는데, 당시 출생신고도 되어 있지 않아 출생신고 먼저 하고 입학해야 했다.

초등학교 졸업 이후 송병일은 백제중학교에 입학시험을 봐서 7등으로 합격하였다. 장학생이었지만 책값을 내야 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책값을 낼 형편이 되지 않아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중학교 입학이 무산된 이후 그는 아버지가 일을 하시던 우체국장 집에 들어가 살면서, 병풍을 주문 받아 만드는 우체국장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며 우체국장의 아버지로부터 소학까지 배웠다. 이후 우체국에서 전보 배달을 하기도 했으나 몸이 아파 그만두었고, 농협에서 2년가량 근무하기도 했다. 농협에 재직 당시 도둑이 든 일을 계기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을 이장 한 분이 자신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서 이장을 도우며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 우체국장의 아버지로부터 배운 한문 실력을 바탕으로 마을 사람들의 호적을 필사하는 등의 일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 리 서기 등을 하며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은산별신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에 은산장은 매우 컸다. 명절 때 장을 보러 가면 사람한테

밀려서 길을 맘대로 갈 수 없을 정도였다. 은산장의 이러한 규모는 당시 은산 인근의 중석광산과 구봉광산, 금광 등에서 비롯되었다. 금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삶의 근거지가 되었고, 청양의 장평과 규암, 외산 등에서도 은산장을 보러 왔다. 그래서 부여군에 제일 큰 장으로 은산장이 꼽혔다.

은산장날에는 곡식과 술 등 생필품을 트럭으로 5~6번씩이나 구봉광산으로 실어 나를 정로로 광산의 영향이 매우 컸다. 광산에 필요한 생필품을 싣고 간 차가 나올 때에는 장사하는 사람을 싣고 와서 내려주고, 양조장에서 만드는 소주를 한 트럭씩 싣고 갔다. 은산장은 모시전과 우시장, 나무전, 싸전, 채소전 등이 있었다. 또한 은산의 양조장에는 배달하는 사람을 열 명이나 두었다.

그의 어머니가 국수장사를 하실 때 4킬로그램 1관짜리 국수를 하루에 30개씩 팔았을 정도였다. 은산장은 구봉광산 월급날하고, 벼와 담배 수매를 하는 날에 더욱 번창했다, 담배와 벼 수매가 겹칠 때는 부여금융조합에서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한국은행 대전지점에 가서 돈을 가지고 왔고, 총을 장착한 차량에 현금을 운반하기도 했다.

별신제하면 난장을 트는데, 난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목표치만큼 돈이 벌리지 않으면 날짜를 늘려달라고 부탁하여 상당의 꽃을 내리지 않았다. 은산별신제에는 볼거리도 많았다. 여기저기 공터에 무대를 만들고 천막을 치고, 박동진 명창이나 김소희 명창의 무대도 열리고, 영화관 서커스도 열렸다. 그 외 씨름대회도 열렸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공책을 부상으로 주었고 씨름대회에 우승한 사람에게는 소 한 마리가 부상으로 주어졌다. 주변 지역의 중심지로서 은산의 지정학적 위치도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나 구봉광산이나 화산광산 등 광산이 만든 지역경제 요소도 매우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은산별신제 때 장이 열리면 각종 노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소매치기가 돈을 훔쳐서 도망가다 놓친 돈을 새벽 장마당에서 주울 수도 있었다.

| **윤구병**(1938년생) 부여군 세도면 |

태평소 명인의 꿈



윤구병은 1938년생으로 세도면 동사리 상경말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셨던 분으로 집을 지으러 다녔다. 윤구병이 태어난 상경말은 예전에 어른들이 두레풍장을 치던 곳으로 이름난 곳인데, 지금은 두레풍장의 보유자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는 풍장의 기물조차 건들지 못했다. 지금 80이 넘은 사람들은 전부 다 똑같이 어린시절에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 와야 살 수 있었다고 한다. 어려운 시절이었으므로 그는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일본 사람이 교장으로 있던 학교에 조금 다니긴 했지만 그만두고 서당에서 한문을 배웠다. 그의 집은 대여

섯 마지기의 농토와 간간이 있었던 아버지의 목수일 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형이 군대에서 사고로 다쳐 죽는 바람에 일찍 돌아가신 형을 대신해 집안일을 도와야 했다.

6·25전쟁 당시 세도면에는 강경에 큰 폭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이 상경말 뒤쪽에 있는 산으로 가기도 했다. 이때 할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셔서 같이 가지 못했고, 할아버지 스스로도 가지 않으셨다. 1·4후퇴 때는 충화로 피난을 갔다. 피난을 간 충화에는 이모네와 당고모가 있었다. 계란과 쌀가루를 만들어 당고모 댁으로 피난을 갔더니, 그곳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피난을 가려던 참이었다. 상경말의 대부분 사람들이 충화로 피난을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죽을 데로 피난을 왔다고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기도 했다. 그의 가족은 상경말에 남아 계신 할아버지 때문에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세도에도 피난민들이 와 있었다.

그는 21세에 이웃에 사는 사람의 중매로 전라북도 금산 출신의 신부와 혼인하였다. 충청도에서는 여자들에게 농사일을 시키지 않았다. 전라북도 금산에서 충청도에 가면 농사일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시집을 왔지만 그의 아내는 혼인 후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농사일을 하게 되었다. 그가 한창 피리를 배우러 다니거나 외지로 나가 활동하느라 농사일에 전념하기 어려웠으므로, 사람을 사서 일하도록 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사람을 사서 쓰지 않고 직접 농사일을 다 했다. 연주에 매진하기 위해 아침 일찍 농사일을 최대한 도왔지만, 평생 뒷바라지에 힘쓴 아내가 현재는 요양병원에 있어 안쓰러운 마음뿐이다.

윤구병은 농사일을 하며 듣기 위해 트랜지스터라디오를 가지고 다녔다. 농사일을 하다 점심을 먹고 둑방에서 라디오를 듣다 시나위를 듣게 되었다. 그 소리를 듣고 저걸 나는 못 배우나 싶은 고집스런 생각에 피리를 배우게 되었다고 한다. 피리를 배우려고 마음먹고 처음 찾아간 사람은 논산에서 피아노학원을 했던 임대식이었다. 대금과 태평소, 향피리를 불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태평소를 배우고 싶다고 하자 향피리를 먼저 배우도록 일러주었다. 그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으므로 기량이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 배우라고 하였다.

배우고자 하는 마음에 윤구병은 전국으로 스승을 찾아다니며 기량을 닦아갔다. 대금의 명인 이생강, 부산에서 동해안 별신굿의 악사로 이름난 김석출, 국립국악원의 서용석 등 대가들을 직접 찾아가 배움의 길을 이어갔다. 이 때 비싼 수업료도 부담스러웠지만, 아침저녁으로 농사일을 해 나가며 힘든 학습의 과정을 이어가야 했다. 농사일은 시기가 있어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농사를 망칠 수 있으므로 농사일도 게을리 할 수 없었다. 대가들에게서 받은 수업내용을 녹음하고, 배운 것을 밤새도록 연습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했다.

여러 대가 중에서 가장 많은 가르침은 서용석 선생에게서 받았다. 이런 노력으로 윤구병은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더 배우고자 하는 욕심에 국악고장인 전라도까지 진출하여 이리농악에서도 오랫동안 태평소를 불며 활동하였으며, 영화 촬영 및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등에 출연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태평소를 잘 불기 위해서는 늘 입에 물고 있어야 할 정도로 엄청난 연습이 필요하다. 기억에 남는 제자 가운데 강경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 처음에는 수강료를 받고 가르쳤으나 밤이고 낮이고 배우러 오는 열정에 나중에는 방을 비워두고 수강료 없이 가르치기도 했다. 그가 세도 두레풍장의 보유자가 되면서 마음껏 연습할 장소가 생겼으므로 수업료 없이 무료로 가르쳐줄 의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손을 뗀 상태다. 부여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제한이 없이 외지에서 오는 제자들도 무형문화재 제도의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 **인국환**(1943년생)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 |

송국리 유적 지킴이



인국환은 교동인씨로 딸만 여섯인 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강경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친 후 대학에 진학하고자 했으나, 일제강점기에 전주사범학교에 다녔던 형이 영양실조로 건강을 잃어 죽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반대로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다. 대를 이어야 하는 중요한 임무가 있는 독자였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여 공부를 더 하거나 출세를 하거나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으셨고 건강을 잘 지켜서 대를 이어야 한다는 어머님 말에 따라 학업을 더 이어가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는 30년 이상 마을 구장으로 지내면서 평생 마

을을 위해 덕을 베푼 사람이었다. 어려운 이들에게 논밭을 경작을 하게 해 주고, 식량이 궁할 때는 식량을 나눠주거나 동네 젊은 사람들이 출생을 하면 그 때마다 미역하고 쌀을 가져다주어 축하하기도 했다. 동네 송국리 구장을 역임하면서 출생하는 사람의 이름 짓기, 출생신고까지를 맡아서 하는 등 동네 모든 일을 도맡아서 했다. 송국리를 위해 덕을 베풀었던 그 선행은 지금까지도 송국리 마을 사람들에게 자주 거론되고 있다. 현재 인국환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잘 보호하여 지역 활성화의 중요한 기반으로 삼고자 송국리 유적 정비추진위원장 등 마을일에 앞장서 오고 있는 것도 부모님 본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1970년에는 식량 생산 증대가 가장 시급한 문제로, 농지확대 사업을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초촌면의 지형은 밋밋한 야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 송국리를 중심으로 해서 산직리와 소사리가 약 800헥타 정도가 야산이었다. 이곳을 개발해서 농경지를 확보하려고 했다. 지금 송국리 사적지가 있는 곳이 가장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농경지 개발을 시작하여 농로를 만드는 계획이 있었는데, 농로를 만드는 과정에 곳곳에서 유구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식량 증산이라는 큰 목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당시 유적 보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중요한 유구가 계속 발견되어, 중요한 식량증산을 위해서라도 국가에서 이건 중단해야 된다는 그런 학계의 강력한 건의가 있기 때문에 송국리 일대의 농경지 개발 사업은 중단되었다.

이를 계기로 1974년 공주박물관과 공주대학교에서 우선 발굴을 해서 석관묘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요녕식 동검 등을 발굴하여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1975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발굴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청동기를 밝히고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인국환은 송국리 유적의 발굴현장을 찾아 온 각계각층의 손님들에게 안내를 해주었고 그런 역사적 현장을 지켜보았다. 그때부터 그는 송국리 유적의 중요성이나 또 맨 처음 송국리 유적을 볼 수 있었다는 행운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유적 정비 복원에 앞장서야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국회의원, 도지사 등을 만나 유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비·복원

을 촉구해왔다. 그의 활동이 보다 힘을 얻게 된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의 도입으로 민선군수를 뽑는 것이 계기가 되었다. 초대 민선 부여군 군수인 유병돈의 지원으로 송국리 유적지의 안내판이 세워졌다. 군수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고 송국리 유적 정비 기본계획을 세운 뒤 세계에서 청동기 유적으로는 정비복원이 가장 잘 된 곳인 일본의 요시노가리 유적을 답사하기도 했다.

국가에서 10개년 정비계획이 2004년도에 시작되었다. 유적정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가를 상대로 정비복원을 건의하고, 국가의 예산으로 사적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매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설득하는 일이었다. 유적 정비를 위한 사적지 매입에 대해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다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 마을 주민들의 원망도 들어야 했다. 그러나 꾸준하게 설득을 하고 이해시켜서 지역민 모두가 그런 일관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줬다. 그 결과 당초에 2004년도 이전에 사적지의 면적은 약 2만 7천평이었다. 2004년도에 문화재청에 확대 고시를 건의를 했고, 문화재청에서 10년 동안에 350억이 투입되는 계획과 동시에 16만평으로의 확대고시를 발표했다. 이후 2004년부터 송국리 유적정비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매입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국비로 송국리유적자료관을 건립했다. 현재 16만 6천 평 중에 지금까지 약 12만평, 4분의 3을 매입했다.

2006년부터 격년으로 8년 2010년까지 1년에 약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목적으로 축제를 했다. 선사음식체험, 물고기 잡기, 농사체험 등 청동기의 생활상을 체험해 보는 축제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 긴축재정을 사유로 청동기문화축제는 중단되었다. 2015년도가 송국리 유적 발굴 40주년이어서 40주년 기념행사로 청동기문화축제를 열었다. 2015년의 청동기 축제 이후로 청동기 축제는 종료되어 다시 열지 못하고 있고 대신 풍년기원제가 열리고 있다.

풍년기원제는 말 그대로 송국리의 생업인 농사가 주된 것이고 청동기시대에 송국리가 논농사의 기원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이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정비추진위원회를 하게 되면서부터 전통을 잇는 행사를 생각한 때문이었다.

1960대까지는 가뭄이 계속 된다든지, 지역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민들이 나서서 고인돌 앞에 가서 정성을 들이는 일이 있었다. 송국리 유적의 최남단에 있는 고인돌 앞에서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고 지역민이 화합하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19년 금년까지 12회 풍년기원제를 추진했다. 춘분 때가 되면 모든 작물이 소생을 하고 농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반드시 춘분날 3월 20일에 풍년기원제를 지내고 있다. 풍년기원제의 중요한 부분은 합수의식이고 이 합수의식의 중요한 테마는 물이다. 송국리 농사의 근원이 되는 금강과 백마강 물을 떠다 합하는 의식을 통해 자연의 섭리와 지역민의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풍년기원제가 열린 처음에는 고인돌 앞에서 몇십 명 정도가 모이는 규모였으나 점차 확대되었다. 군에서 군수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어 2019년에는 약 500명 정도가 모이는 큰 행사로 자리잡았다.

| **조복만**(1952년생) 부여군 은산면 |

종이꽃을 만드는 사람



조복만은 은산별신제의 풍물과 걸립 소리를 듣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의 기억에 남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은산별신제 때 걸립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풍물 소리였다. 그래서 방에서 시멘트 종이로 바른 문을 두드리면 장구 치는 소리가 났는데, 그걸 두드려가면서 즐겨 들었다.

어린시절부터 각인된 이러한 풍물소리로 인해서 1991년에 풍물로 은산별신제에 입문할 당시, 누구한테도 풍물을 배워보지 않고도 칠 수 있었다. 어릴 때부터 좋아해서 마음에 새겨진 소리였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 있었던 것이다.

어린시절에 은산별신당 주

변에는 공터가 많았다. 은산별신제가 열리면 이 공터를 활용하여 서커스와 농악단 등이 들어오고 난장이 크게 열리기도 했다. 풍물을 무척 좋아했던 초등학교 4학년 무렵에는 은산에 풍물을 치러 온 아가씨에게 호감을 품기도 했다. 그는 1991년 풍물로 은산별신제에 입문하였다.

초등학교 졸업 후 15살 무렵부터 그는 나무를 해서 집안 생계를 도왔다. 나무를 하기 위해 식전에 출발해 청양 쪽으로 가서 나무를 해 와야 했다. 30리가 넘는 곳으로 가서 나무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 하루가 다 갔다. 해 온 나무는 그 다음날 은산장의 나무전에 가서 팔았다. 나무를 팔아서 마련한 돈은 30원이나 40원에 불과했다. 이 돈으로 쌀을 사게 되면 한 되나 한 되 가웃 정도밖에 살 수 없었고, 나무 판 돈으로 쌀을 사면 식구들이 겨우 한 끼 먹을 정도의 양에 불과했다. 그래서 쌀보다는 양이 많은 국수를 사서 먹었다. 국수를 사면 서너 뭉치를 살 수 있었는데, 한 뭉치면 온 식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나무 장사는 약 19세 정도까지 했다. 이후 구두닦이와 벽돌 제작 현장, 농협 창고 등에서 근무하였다. 구두닦이는 손님이 하루에 세 명 정도에 불과했다. 손님을 찾아 부여로 나가 보기고 했으나 텃세가 심해서 부여읍에서는 구두닦이를 할 수 없었다.

조복만은 혼인 후 8개월 만인 1980년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유원건설 현장으로 갔다. 타북이라는 곳이었는데, 가기 전에 이미 벽돌을 만드는 일을 해 본 경험도 있었고 눈썰미가 뛰어난 탓에 처음에는 잡부로 갔음에도 기계를 다루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도입한 기계의 컨트롤박스의 작동법을 3일 만에 익히기도 하였으며, 회사 측에서 연장근무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신혼 8개월 만에 아내와 떨어져 살았던 그는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귀국하였다.

그는 어린시절에 꽃을 만들어 집에 시주를 왔었던 스님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솜씨가 있었다. 이 스님은 인근 장곡사에 계신 분인데, 나중에 조복만이 장곡사를 찾아가 꽃 만드는 법을 배워오기도 했다. 당시 장곡사에서 꽃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 분은 어린시절에 집으로 시주를 왔던 스님인지 아닌지 잘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솜씨는 이후에도 계속 발휘되었다. 마을 사람들이 졸업식에 거는 화환을 제작하는 경우

도 있어 지속적으로 꽃을 만들어 왔었다. 이런 사유로 마을 사람들이 그에게 꽃을 만들라고 권하였으나, 장의사로서 은산별신제측의 주문을 받아서 꽃을 만들었었던 홍용표 등 기존에 지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었던 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화 제작에 나서지는 않았다.

은산별신제의 지화 제작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최왕재로부터 지화 가운데 국화 제작을 전수받았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꽃은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만든 것이다. 그는 차진용 보유자가 활동할 당시까지 꽃 만드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은산별신제의 지화는 노루지라고 해서 이미 색이 있는 종이로 만들었었다. 그런데 어른들께 여쭤봤더니 은산별신제에 사용하는 꽃은 흰 종이에 물을 들여 썼다는 이야기가 있어, 현재는 한지를 사서 물을 들여 제작하고 있다. 그런데 천연염색법을 이용하여 한지에 물을 들이는 것을 시도했으나, 색을 내기 위해 여러 번 염색을 할수록 더 어두워지고 충충한 느낌이 났다. 그래서 천연 염색제 대신 화학 염색제를 사용하고 있다.

은산별신제의 지화는 인사동의 거래처에서 종이를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45일 가량 걸리는 긴 작업에 돌입하여 준비한다. 은산별신제의 꽃을 만들기 위해 45일 동안 아침 8시 반에 시작하여 밤 12시까지 만들기도 한다. 은산별신제에 사용하는 꽃은 연꽃이 소연과 대연으로 2가지, 모란, 작약, 소국, 목련, 나팔꽃 등 6가지이다. 그 외 화등도 제작하고 있다. 그는 지화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지화의 제작법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접근해 보고 있으며, 일부 제작법 등을 개선하기도 했다. 이렇게 만든 꽃에 대해 은산별신제에 온 사람들이 꽃이 예쁘다는 칭찬을 많이 해 주고, 무속인들 가운데는 별도로 주문을 하기도 한다. 그는 지화 제작이 단순히 꽃을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신에게 올리는 제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몸을 정갈하게 하고 부정이 들지 않도록 금기를 지키며 정성을 다하고 있다.

| **차병천**(1939년생)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 |

짚신을 삼아 다져진 솜씨가 마을의 유산이 되다



차병천은 1939년생으로 서천군 시초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의 나이 50세에 낳은 늦둥이다. 위로 두 분의 누님이 계셨는데, 다 작고하였다. 아버지는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소 한 마리를 팔아서 서천군에서 태안군 근흥면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러나 유일한 재산인 소를 팔아 산 태안의 농토에는 소금기가 많아 농사를 지을 수 없어 그가 여섯 살 때 홧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차병천은 어머니와 가회리로 오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 남의 집 일을 다니며 데리고 다녔다. 그러나 바

닷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었다. 가회리는 어머니의 친정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가회리 지역은 논이 많이 없었고 갈대밭이 많았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어머니는 땅콩 밭을 매 주는 일을 주로 하였다.

가회리에 살면서 차병천은 열두 살 무렵부터 나무를 하러 다녀야 했다. 나무를 하러 다니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동네 훈장에게 천자문을 배웠다. 나무를 하러 다니기 위해 매일 두 켤레의 짚신을 삼아서 신어야 했다. 아버지나 형이 있는 집안에서 자란 또래의 친구들은 짚을 다뤄서 도구를 만드는 기술이 그보다 나을 수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짚신을 만들던 솜씨는 현재 장군제의 가장 중요한 장군을 만드는 기술의 밑바탕이 되었다. 그는 17살부터 강경으로 건너가는 도선장의 임시직원으로 취직을 하였다. 하루 품삯이 당시 500원이었다. 도선장에는 3년 정도 근무하였는데 벌이가 괜찮았다고 생각했던지 한때 마작에 정신이 팔린 적도 있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작방에 발길을 끊었다. 혼인은 1960년도인 22살에 했는데, 이어 군대를 갔다. 군대에 갈 당시 아이들 둘을 비롯해 네 식구를 두고 입대하였는데, 어려운 가정 사정을 들은 군대 동기들이 월급을 조금씩 거출해서 도움을 주기도 했다.

제대 후 그는 건축업에 종사하였다. 가회리 인근 근방의 집들은 거의 모두 그가 지었을 정도였다. 그러나 40세가 되던 해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 디스크에 걸리고 건축업도 부도가 났다. 이 일을 계기로 건축업을 그만 두고 1983년부터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사일을 시작했다. 당시의 방울토마토는 전부 일본 수입산 씨앗을 사용했으나 그는 국산인 풍농의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여 크게 수확을 거두었다. 이를 계기로 성공적인 농업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경제적으로도 재개할 수 있었다.

1987년에는 큰 수해로 가회리 마을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 한편, 이를 계기로 차병천은 마을이장을 역임하며 피해 지역의 지원금품을 합리적으로 관리 지급하면서 마을 사람들의 신임을 얻었다. 이후 6년 동안 더 마을이장을 역임하였고, 농협대의원과 농협이사 등 지역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차병천은 비교적 젊은 시절부터 가회리 장군제에 참여하였다. 또한 어린시절부터 하루

두 켤레씩 만들었던 짚신 제작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회리 장군제의 중요한 주인공인 장군의 제작을 맡아 왔다. 아버지나 형님이 계신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직접 짚신을 심거나 짚풀로 물건을 만들 필요가 없어 짚풀로 도구를 만드는 제작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탓에 짚풀을 다루는 솜씨가 생겨 가회리 장군제의 장군 제작을 도맡아 왔다.

가회리의 장군은 가회리 마을 앞에 많이 자랐던 자오라기를 이용해 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장군을 만드는 재료를 가회리 근처에서 구하기 어려워 서해안쪽으로 가서 구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예전처럼 해마다 만들지 않고 한 번 만든 것을 잘 보관했다 사용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에게 장군 만드는 방법을 전수해야 하는데, 이것을 전수받을 사람이 없어 걱정스럽다고 한다. 그는 자비를 들여 가회리 장군제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지역 구성원들의 변화 등의 우려로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지정을 간절하게 희망하고 있다.

| **박종만**(1943년생) 부여군 충화면 |

충화의 독립 정신



박종만은 밀양박씨 12대 손으로 6남매 중 셋째아들로 1945년 팔충리에서 태어났다. 임진왜란 때 청주로 피난을 온 할아버지 이래로 가족이 부여군 팔충리에 삶의 터를 잡았다. 박종만은 스물세 살 때까지 팔충리에 거주했다.

그의 큰형은 당시 중학교 교사였다. 그 당시 집안에 교육자가 있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리하여 집안의 학풍 덕에 그도 학업에 뜻을 이어가고자 초등학교 졸업 이후에 중학교까지 진학을 하였다. 당시 충화리 근처에 있는 중학교는 가기가 불편하였기 때문에 대전에서 중학교 교사로 있던 큰형 집에서 대전 소재 중학교까지 통

학을 하였다. 당시 결혼을 한 큰형 집에는 형수도 있었으며 큰형 집에서 중학교 졸업을 마쳤다. 중학교 졸업 이후 대전고등학교 진학을 하여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였다. 시험을 위해 열심히 독학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고 재수도 해보았지만 결국 원하는 학교를 가지 못하였다. 다른 학교에 진학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지 않아 가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성인이 된 후 강원도 홍천에서 포병으로서의 군 생활을 하였다. 군을 제대한 이후 아버지가 매입하신 정미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원래 아버지는 30마지기 정도의 중농이었고 머슴까지 두었기에 생활은 어느 정도 풍족하였다고 한다. 스물아홉 살 때 그는 네 살 어린 신부를 선으로 만나 한 달 만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계속해서 정미소 일을 하였으나, 전망이 없자 그의 아버지는 정미소를 팔았다. 그 후 박종만은 1974년 당시 제1회 부여군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 위해 학업에 열중하였다. 9급 공무원 시험으로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세 과목이었으며 네 달간의 공부 끝에 삼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였다.

충화면사무소에서 처음에는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호병계장업무를 하였다. 후에는 세금징수를 하는 재무계장을 하였고, 이후 부여읍에서 2년간 근무를 하다가 다시 충화면사무소로 와서 총무계장을 하였다. 이후에 부여군청으로 가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기획실, 민방위과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을 하였다.

글씨를 잘 썼던 그는 충화면사무소에서 호병계장, 총무계장을 하면서 충화면 사람들의 출생신고, 주민등록, 사망신고를 직접 일일이 적었는데, 당시 전산화 작업이 되지 않았기에 글씨를 잘 쓰던 그는 면사무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 그 때 에피소드 중의 하나로, 누군가가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면사무소에 찾아오면 사망신고를 한 이후에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서 새 이름을 등록해주는 방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독립운동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에 따르면 1919년 3월 1일에 서울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어찌 충청남도까지 전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이튿날 저녁인 3월 2일 저녁에 독립선언서 여러 뭉치가 마을까지 전해졌다고 한다. 당시 손병희

선생이 49일 기도라고 해서 일본을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해서 올리는 등 마을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불씨가 커졌고 충화에서도 독립운동 갈 사람을 모집하게 되었다. 모집 당시 각자의 가정이나, 살림이 걱정되는 사람은 애초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였다. 결국 독립운동에 대한 열망과 희생정신이 강했던 충화의 최후의 50인이 참여하기로 하였다. 당시 임천시장에서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백여 명 정도가 보통학교, 면사무소, 그리고 헌병대 앞에 가서 만세시위를 하였다. 그 후 주동자 일곱 명은 즉시 체포되어 부여헌병대로 이송되었다.

한편 천도교들의 활동 덕에 충화에서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당시 박종만의 아버지가 천도교도였고 그 분의 영향으로 그도 천도교에 신앙이 있다고 하였다. 당시 일본 사람들이 천도교도들을 특히 못살게 굴었다고 한다. 한편 천도교도들의 제사는 제사상을 별도로 차리지 않고 물 한 그릇을 떠다 놓고 기도를 올리는 방법으로 행해졌지만, 그 집안의 경우에는 음식까지 차려놓고 같이 기도를 올렸다고 한다. 시간은 천도교들의 수칙을 따라서 낮 열두시에 제사를 올렸다.

박종만은 임천시장에서 일어났던 독립운동 7인 중 박용화, 박성요(?) 선생이 11대조에서 갈려서 나온 같은 씨족이라고 말한다. 한편 당시 일본의 포악한 행태로 인하여 독립운동 7인에 대한 정보는 극비에 다뤄져 알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는 독립운동 7인에 대해서 주변에 여기저기 물어보았다고 한다. 큰형까지 정보보관소, 검찰청 등 여러 정부기관을 찾아다녔지만 비밀리에 부쳐진 정보를 찾기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부산 정부문서보관소에 보관된 한 재판기록에서 범죄인명부를 발견하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결과적으로 독립운동 7인에 대한 정보를 찾았고, 비를 세우겠다는 사명감은 더욱 더 확고해졌다.

그의 아버지는 정부 차원에서 이 분들을 위해 비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군청을 통하여, 국회의원을 통하여 여러 번 건의를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뿐이었다. 이곳저곳 타진하던 중에 기회가 왔다. 달구지에 실려 비포장도로를 달려온 7인의 빗돌은 1973년 3월 6일, 53년 만에 고인의 한을 풀어주기 위한

상징물로 우뚝 서게 되었다. 비에는 서천에서 만세운동을 했던 양재홍과 7인의 이름과 함께 '임천 헌병대 총칼 앞에 무서움을 무릅쓰고 발휘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이 잘 보존하자' 라는 의미가 담긴 문구가 적혔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당시 마을에 복지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건축부지로 비가 있던 산밖에 없다고 하였다. 면사무소에 근무를 했던 그는 결과적으로 복지회관을 산에 짓는 걸 볼 수밖에 없었다. 복지회관이 지어진 이후 비들을 건물 앞에 옮긴 후 주변에 꽃도 심고 잘 가꾸었지만, 비에 금방 풀이 덮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어떤 비인지 알 수가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그가 면장에게 건의를 한 끝에 비를 관리할 명목으로 2005년도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얻어내었다. 한편 이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단체가 아닌 일반인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2005년도 10월 30일에 선양회를 조직하였다. 2013년 그와 뜻을 같이했던 당시 선양회장은 기념식장에서 다른 지역들처럼 군, 도 차원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여 2014년부터 부여군청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 **류희열**(1932년생) 부여군 부여읍 |

부여의 유림 정신



류희열은 1932년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에서 태어났다. 당시 세도에 있었던 심상소학교에 다녔는데, 방공호가 없었기 때문에 비행기가 오면 학교 뒤에 있는 수로에 숨었다. 그는 어릴 적 노래를 잘 불렀기 때문에 2학년 때 1학년 교실에 가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과 일본군이 싱가포르 점령을 기념해 준 고무공으로 운동장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다.

심상소학교를 마친 후 중학교에 입학을 해야 하나 할아버지가 시절이 수상하니 조금만 기다리라 하며 중학교 입학을 만류하셨다. 일제강점으로 중학교에 가 봐야 군사훈련과 일

만 하게 될 것을 걱정한 것이었다. 그가 14살 되던 해에 해방이 되고, 1945년 10월에 대전중학교에 입학했다. 나중에는 다시 강경상고로 전학을 갔다. 약 200석 정도의 소출을 낼 수 있는 형편이었지만, 그와 더불어 삼촌과 사촌 등 집안에 학비를 내야 하는 이가 넷이나 있었는데 아버지의 위장병이 악화된 터라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다. 강경에다 할아버지가 조그만 집을 하나 장만해서 그곳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강경상고 졸업반 때 6·25전쟁이 발발하였다. 강경상고의 교사가 폭격을 당해 권투실에서 수업을 했고, 3월에 졸업을 하지 못하고 8월이 되어서야 졸업을 했다. 전쟁 시절에 졸업을 하게 되어 졸업장을 받기는 했으나 졸업사진 한 장도 없다.

6·25전쟁으로 권투실에서 수업을 받은 강경상고 학생들 50명은 진학반과 취업반으로 나뉘었다. 류희열은 할아버지의 권유로 교직에 나갔다. 실업학교였던 강경상고에서도 이웃한 강경여고에서 교사를 초빙하여 교육학 수업을 실시했는데, 당시 교사가 부족하여 120시간의 교육학 이수자에게는 교사자격증을 주었다. 졸업과 동시에 준교사 자격증이 나왔고 모교인 세도초등학교로 부임하게 되었다.

그는 모교에서 다재다능한 소질을 바탕으로 음악과 수학, 국어 등 여러 과목을 가르쳤다. 또한 6학년 담임을 두 번이나 역임하여 쉬지 않고 몸을 혹사해가며 좋은 중학교에 제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힘썼다. 그 탓에 결핵으로 각혈을 하고 휴직을 했으며 나중에는 마산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마산요양소에서 돌아온 이후 학교에는 사직원을 냈다.

사직 후 그는 리마다 있었던 이동조합을 통합할 때 선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세도농협으로 통합을 했다. 이후 부여군에서는 가장 먼저 생긴 세도연쇄점의 지배인이 되었다. 고양군에 있는 농협대학에 가서 지배인 자격증을 따고 농협 옆에 연쇄점 건물을 설계하여 개점했다. 세도연쇄점에는 직원이 네 명 있었으며, 중앙농협의 생활물자 구매사업소에서 생활물자를 들여와 판매하였다.

연쇄점 지배인은 약 2년 정도 종사하였다. 이후 강경에서 담배를 받아서 담배하차장으로 배달을 맡아하던 중앙상회를 운영하고, 봉정양수장에서 물을 퍼 올려 강경을 거쳐

익산까지 가는 수로인 석성연락수로 공사를 하청받아 하기도 했다. 그외 대일건설에서 하청을 받아 자왕지구의 경지정리 일을 하기도 했으나 적자가 발생했다.

자왕지구 경지정리 사업으로 적자를 본 이후 그는 부여읍으로 와서 인쇄소를 경영했다. 안정적으로 인쇄소를 경영하며 서예의 스승 정향 조병호를 만났다. 당시 문화원장이었던 이석호의 도움으로 조병호를 모셔 부소산 아래의 유림식당을 빌려 서예강습을 했다. 필법을 다시 배우고 특히 전서와 팔분체를 많이 익혀 비문을 많이 쓰게 되었다.

이후 부여향교에서 부여서도회를 만들어 활동했는데 부여군수 전준기가 회장을 맡고 류희열이 지도했다. 향교의 명륜당에서 여름에 시원하게 문을 열어놓고 글씨를 가르치기도 하고 조병호를 초청하여 글씨를 배우기도 했다. 이렇게 배운 서예의 솜씨로 홍산대첩비와 삼일운동추모비 등의 비문을 썼다. 그 외에도 부여박물관 안에 있는 사비루의 건축기 등이 있어, 부여 곳곳에서 그의 글씨를 볼 수 있다.

서예활동을 하면서 그는 유림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타지에서 왔지만 부여향교의 장의로 추천을 받아 임명장을 받았다. 1978년부터 약 10년 동안 부여향교의 장의를 했다. 부여향교에 장의를 역임하면서 부산서원을 복원하는데 이사로 활동하였다. 그 외 부여향교에서는 충효교실을 개설하여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가 유림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에는 할아버지로부터의 영향도 있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임천항교의 직원으로 있었는데,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유림회에 종사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간곡서원 제향 때 당시 이용우 부여군수가 참석하여 부여 군내의 유림들의 통합조직이 구성되면 적극 지원을 하겠다는 의견에 따라 부여 군내 4개 향교의 전교들이 모여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부여유림회가 2013년 1월에 창립되었다. 성대하게 창립식을 열고 충청남도청에 사회단체로 정식 등록하였다. 부여유림회에서는 서원을 보존하고 제향 기능을 살리며 퇴폐해가는 도덕성을 회복하고 무너져가는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를 위해 후계자 양성을 위한 유림지도자 연수회를 하고 있으며, 우리 조상 가훈 찾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일구**(1947년생) 부여군 은산면 |

은산별신제를 지키는 무녀



이일구는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정좌리 좌동에서 1947년에 태어났다. 광산에서 채굴한 돌을 깨뜨려서 금을 찾는 기계가 있는데 아버지는 금을 찾는 일을 하셨다. 할아버지도 산판에 다니시면서 벌목을 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어린시절은 집안이 유복했다. 집이 마을 한가운데에 있고 찾아오는 손님이 많았다. 이일구는 큰딸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아 어려서 병원에 다닐 때 늘 업혀 다녔다고 한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병원을 다닌 것은 이일구가 앓았던 신병(神病) 때문이었다.

어린시절 집안은 유복했으나

계집애가 너무 영악하고 똘똘하다고 해서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도 공부를 매우 잘했으나, 여자를 너무 많이 가르치면 시집가서 편지질이나 한다는 이유로 2학년 때는 사친회비를 주지 않아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었다. 공부를 더 하지 못하는 서러움에 한복 치마 세 벌을 껴입고 가출을 했다. 청양에서 하루 종일 걸어 예산역에 도착했는데 저녁이 다 되어, 기차에서 내리는 낯선 할머니에게 부모님이 공부 안 가르쳐줘서 서울로 가려고 나왔는데 하룻밤만 재워달라는 부탁을 했다. 예산역에서 만난 할머니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그 할머니가 딸이 사는 서울 집에서 청소와 가게 일을 도울 수 있도록 주선해주어 그녀는 서울에서 살게 되었다. 이일구는 그곳에서 5년을 살며 고향에 소식을 보내지 않았는데, 고향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전해진 딸의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와 5년 만에 가족이 상봉했다.

그녀는 다시 고향집에 내려갔다. 그녀를 찾느라 많은 재산을 쓴 아버지는 딸을 자신의 친구 아들의 며느리 자리로 소개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부담을 느껴 더 이상 고향에서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다시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나 그해 가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으로 내려가 열여덟 살에 가장 노릇을 하였다. 아버지가 진 빚을 다 갚고 다시 서울로 올라온 이일구는 서울 할머니의 집에서 며느리 제안을 받았지만, 이북 집안이라는 이유로 어머니가 반대하였다. 결국 스물한 살, 충남에서 시고모부의 중신에 따라 결혼을 하였다. 부잣집 대종손며느리로 들어간 그녀는 스물셋에 아들을 낳았다. 그러고 몇 달 후 남편이 죽었다.

시어머니랑 아들과 셋이 살던 그녀에게 어느 날 편지가 왔다. 집안의 고모가 보낸 것이었다. 그녀는 시누이의 손에 이끌려 가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모든 것이 그녀를 재혼시키려는 꾸밈이었던 것이었다.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집에 한 발짝도 들이지 말라고 하였다. 울고불고 하며 시어머니와 일주일을 싸웠다. 싸우다 지쳐 그녀가 잠에 들었는데, 잠든 사이 시어머니가 애기를 업고 야반도주를 하였다.

이일구는 그 때 보았던 남자와 재혼을 했다. 새로운 시어머니가 애기 한 명은 업고, 한

명은 그녀 앞에 내놓더니 그 아이를 보며 '이게 너희 엄마다, 너희 엄마가 병원에서 얼굴도 고치고 아픈 것도 나아서 온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때 그 아이는 당시 여섯 살이던 큰딸이었고, 업혀 있던 아들은 네 살이었다. 갑자기 아들을 빼앗기고, 모르는 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 운명에 처한 그녀는 갑자기 하늘이 노래진 끝에 자신의 혀를 깨물며 새로 온 자식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다짐을 했다.

스물아홉, 어렸을 때 났던 신병이 다시 들기 시작했다. 혼수상태에 빠지기 일쑤고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보다 못한 이웃집 할머니가 점을 한번 쳐보자고 하였다. 남편은 당시 교회를 다녔던 그녀에게 당신이 사는 게 목적이니 한번 가보라고 하였다. 점집에 간 그녀는 보살로부터 '친정할머니가 너를 살려놓고 갈려고 잠시 네 몸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돈 12만원을 주고 굿을 했다. 굿을 하는 도중 그녀의 몸에 천상옥황상제님이 들어와 '내 새끼 살려주십쇼!'라고 하며 그녀의 말문이 트였다. 이튿날 아파트 앞에서 굿을 다시 했는데, 여러 장군님들이 그녀의 몸에 들어왔다. 국사장군이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내려왔다고 하였다. 알고 보니 그녀의 친정할머니가 옛날에 청양에서 유명한 무녀였다고 한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친정할머니의 신기의 영향을 받은 이일구는 무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울산에서 일을 하다가 부여로 다시 이사를 와서 본격적으로 점을 치기 시작하였다.

이일구는 점으로 번 돈으로 아이들 학비까지 다 낼 정도로 이름이 점점 났다. 집에서 앉아서 손님을 받았던 그녀는 선생을 만나야 여기저기 굿판을 다닐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부여로 작두만신을 찾아가 함께 굿판을 다니며 49재, 조상갈이, 넋굿, 신굿 등등 닥치는 대로 다 했다. 그녀의 덕을 본 손님이 또 그 다음 손님을 데려오고, 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데려오는 등 손님이 끊이질 않았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영웅마냥 이름이 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울산에서 이사를 오고 난 후, 은산별신제 무녀를 뽑는다는 소식을 들었다. 남편은 굿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에게 당신이 은산별신제 무녀로 선정됐다고 전하며 동네 다방으로 가보라고 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로서 수천 명을 상대해야 하는 일에 부담을 느낀 그녀는 고민을 하였

지만, 다방에서 중앙대 임동권 박사를 만난 후 마음이 흔들렸다. 며칠 뒤에 은산별신제 전수생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최종 확정을 받았다.

은산별신제 전수생으로 선정된 이후, 그녀는 차진용의 도움으로 일을 배웠다. 9월부터 황남희로부터 일을 배우게 되는데 책에 있는 글씨를 다 외우라는 명을 받았다. 그러나 외우는 것에 힘이 부친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을 바라봤는데 구절이 다 보였다. 그 글이 별신당 글문이었다. 놀란 그녀는 황남희에게 가서 녹음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 때 그 녹음본을 가지고 노래를 배우듯이 금방 배웠다. 6개월 만에 공부를 마친 그녀는 그 이듬해에 하당굿 등등 여러 굿을 다 했다.

현재 그녀에게는 제자 세 명이 있다. 제자들의 나이는 각각 쉰여섯, 쉰셋, 쉰둘이다. 잘못할 경우에는 이 부분은 빼고 저 부분은 늘리고 하라고 가르친다. 조교로 활동하면서도 다른 신굿에도 활발하게 다니고 있다.

| **이규환**(1949년생) 부여군 초촌면 추양리 |

추양리 두레풍장의 쇠잡이



이규환은 전주이씨로 1949년도 부여군 초촌면 추양리에서 태어나 평생 살아오고 있다. 조상들은 손이 귀해 독자로 내려오다가 아버지 세대부터 자손이 번창했다. 아버지 이용희, 어머니 전복순 사이에서 5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그는 어렸을 적 공부보다 무언가를 만드는 걸 좋아했다. 또한 당시 별 놀 거리가 많지 않아 팽이치기, 자치기, 돼지오줌보로 공차기, 옥수수 대로 총 쏘기를 하며 놀았다. 초등학교는 집에서부터 약 1km 정도 거리가 있는 초촌초등학교를 다녔으며 학생들이 너무 많아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뉘어 수업을 받았다.

이규환은 가정 형편상 중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다. 성인이 되어 군 생활은 강원도 양구에서 하였고 병기담당을 맡았다. 1974년도에 군을 제대하고, 양송이 재배 공장에서 현재의 부인을 만나 1978년도 29살이 되던 해에 결혼을 하였다. 양송이 재배 공장에서는 양송이를 채취, 가공, 수출 작업을 하는데 그때 남녀 할 것 없이 몇백 명이 함께 일을 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인연을 만나 현재의 아내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 후 약 10년간은 양송이 재배를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초반에는 월 1만원의 월급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 한 달 월급이 3만원이 되었다. 60세 초반까지 양송이 재배를 하다가 지금은 벼농사를 하고 있다. 현재는 양송이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줄었다. 마을에서도 두 농가만 양송이를 재배하고 나머지는 논농사를 많이 한다. 양송이 재배는 일반 농사 방법과 비슷한데, 볏짚을 비료하고 혼합 후 발효시켜 몇 차례에 걸쳐 뒤집기를 해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불을 때서 고온으로 발효를 시키고 가스를 빼낸 후 그곳에 씨앗을 뿌리면 15일 후에 싹이 자란다. 그 때 흙을 3cm 두께로 펴면 균이 퍼지는데 그 때 물을 주면 된다. 환기를 잘 시키고 약 보름 후에 버섯이 자라나 수확을 한다.

초촌에 양송이 공장이 생기며 돈이 돌기 시작했다. 그러다 농어촌개발공사가 양송이 공장을 개인에게 인수를 했는데, 개인은 수출을 할 수가 없어 국내시장에 양송이가 시판되었다. 초반에는 양송이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았으나 과잉생산이 되는 바람에 수요는 늘지 않고 가격만 떨어졌다.

추양리는 이씨 집성촌이다. 14대 선조 할아버지, 엄호장군 이성명이 추양리를 지나가다가 허 진사를 발견하였는데, 이성명이 허 진사를 맘에 들어 해서 사위로 삼았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추양리에 입향하게 되었고 자손이 많이 퍼졌다. 추양리에 있는 솔밭과 산들은 모두 이씨 종가 소유이다. 이성명이 서 마지기 정도의 시제답을 만들어 놓았고 현재는 경작하는 사람이 시제 준비를 한다. 태조 이성계의 이복동생 의안대군의 사남이 영천군인데, 성남에 산소가 있었다. 그런데 성남이 도시개발을 하면서 산소를 추양리에 모셔왔다. 그러면서 무령사도 같이 지었는데, 현재 무령사에 열 분 신주가 모셔져 있다.

두레풍장 전수관은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졌다. 시발점은 '농어촌 신바람놀이' 프로그램에서 시작되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 있는 풍장들이 지원을 받아 활성화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추양리 두레풍장 시연을 하는 도중에 청와대 문화수석이 추양리에 방문하여 공연을 보고 난 후 바라는 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래서 두레공연 전수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업비 2억을 받았다. 그러나 풍물연수비, 자재구입비 등으로 1억을 써야 했기에 강당을 짓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군수와 면담을 했는데, 운이 좋게 반납된 사업비 3억이 생겼고 그 돈을 체험관을 짓는 데에 배정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조립식 2층 건물을 짓게 되었다.

추양리에는 안말, 넘말, 새터, 장단골, 음지짝, 양지짝, 채정말, 말랭이의 여덟 뜸이 있다. 과거엔 도로가 발달되지 않았고 골목길도 많았다. 우스갯소리로 혼인 때 신랑을 달고서 끌고 다니다 어딘가에 놓으면 집에 찾아가지 못했다. 또 좀도둑이 들어 쫓아 몰면 좀도둑이 나갈 길을 찾지 못해 결국 붙잡힌다는 소리도 있었다.

한편 고추골은 고추가 많이 난다고 해서 고추골이 아니라, 추양리가 지형이 높기 때문에 높을 '고' 자를 쓰고, 가래나무가 마을 앞에 있다 하여 추나무 '추' 자를 써서 고추골이라고 불린다.

추양리는 이씨 집성촌이다보니 양반이 많았고 그렇기에 머슴도 많았다. 허드렛일, 풍물은 사실 머슴담당이다. 추양리에서는 매년 당산제를 지냈다. 정초가 되면 움막을 짓고, 당산제를 지내는 사람을 선정해서 일주일 전부터 외출을 금지시키고 목욕을 깨끗이 시킨다. 당산제는 제단이 따로 없고 움막 안에서 제를 지낸다.

추양리 일대에는 문화재가 많이 발견되기도 했다. 예전에 농사를 짓다가 야산을 돌아다닐 때 돌칼, 독을 많이 봤다. 어렸을 때는 그것들이 귀한지 모르고 갖고 놀다가 내던지던 기억이 있다.

두레풍장은 논일을 할 때에 주로 하는데, 특히 꼼뱅이라고 할 때 농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데 그 때 일꾼들이 나와서 '풍장하라!'라고 하면 풍장들이 풍장을 친다. 그

러면 영기 둘을 앞세워 나가고 나팔수가 나가고,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순서대로 나가 목적지까지 도달한다. 장구를 맨 사람을 못방구라고 하는데 노래를 잘하는 이 사람이 소리를 해준다. '여보시게 샌님네들 어서 하고 집에 가세' 또는 '어느새 벌써 해가 서산 너머로 다 넘어갔네'라는 소리들을 해주면 모내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받아서 농사일을 한다.

2002년 전에 두레가 유명무실했을 때, 당시 이규환을 비롯한 젊은 청년들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 재기를 결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용익 선생이 상쇠 지도를 하면서 다시 풍장이 살아났다. 이규환은 장구로 풍물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농악의 우두머리인 꽹과리를 잡았다.

| 이석호(1927년생) 부여군 규암면 |

평생을 백제와 함께



부여문화원장을 지낸 바 있는 이석호는 1927년 일본 오사카에서 이찬손과 김진숙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오사카시 히라카다구 나가미야는 백제왕을 모시는 신사인 중궁사가 있는 곳이었다. 이석호의 본향은 충청남도 공주인데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이름이 높았던 이회영과 이시영 등이 그의 선조였다. 경주이씨인 그의 고향 공주에는 일가친척도 많았다. 일제강점기에 고향에서는 살기가 어려웠던 탓에 이석호의 아버지가 일본으로 가게 되면서, 오사카의 나카미야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다.

일본에서 태어난 이석호는 다섯 살 무렵 한국으로 돌아

왔다. 귀국한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다. 오사카에서 가을 추수 후 벼를 털어서 쌓아 놓은 곳에 불이 붙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아버지가 괴롭힘을 당하였고, 아버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었다. 이후 아버지는 다시 일본으로 갔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매우 깊었던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일본으로 데려가 함께 살았다.

자식을 남달리 사랑했던 이석호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수레를 끌고 야채를 팔며 생계를 꾸렸다. 이석호가 살았던 오사카의 히라가타구는 백제와 관련된 유적이 많이 남아 있던 곳이었다. 왕인 박사의 무덤도 있었다. 훗날 부여문화원장으로 재직중 오사카시의 왕인 박사 묘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같이 간 사람들과 함께 풀을 뽑고 주변을 정비한 기억이 있다.

이석호는 중학교에 다닐 당시 학교에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중학생이었지만 해군용 어뢰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며 선반을 돌리기도 했다.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었기 때문에 중학생임에도 군인 취급을 받았다. 해군 장교가 와서 감독을 했고, 하루에 일정한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심하게 학대하였다.

히라가타구 하이누까조에서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가서 역에다 묶어놓고 공장에 갔다. 무 1개를 사기 위해서도 증명서가 있어야 할 정도의 식량 부족으로 제대로 된 식사도 어려운 탓에, 중학교 학생이었던 그는 결핵에 걸려 각혈을 했다. 당시 공장에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결핵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구르메에 있었던 일본국립결핵요양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긴 건물이 줄지어 있는 결핵요양소는 군인들의 막사와 비슷하게 생겨 미군의 폭격을 받기도 했다.

1945년 8월 일본 패망 후 누이의 만류를 뿌리친 채 고향인 공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일본에서 걸렸던 폐결핵이 완전하게 낫지 않은 상태로, 고향 마을인 공주 웅진동 강가에 나와 솔내음과 바람소리를 들으며 문학의 꿈을 키워나갔다. 1968년도에는 「두더지의 노래」라는 작품으로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기도 하였다.

6·25전쟁이 일어났던 20대 중반에는 부산 대동에 있는 중석 광산에서 일을 했다. 그

곳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는데, 전쟁통에 아들을 잃은 슬픔에 밤이 되면 울고 있던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후에 그 노인은 이석호의 장인이 되었다. 당시 하숙집 인근에 우물이 있었고, 그 주변에는 해운대에서 양복을 만드는 공장에 다녔던 아가씨들이 많이 있었다. 문을 열면 바로 우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물에 오는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없었다. 평생을 같이 한 부인을 그곳에서 만났다.

이후 우체국에도 정직원으로 근무하다 다시 고향 공주로 돌아왔다. 공주에서는 〈조선일보〉에 근무하면서 작가로서의 활동 범위도 점차 넓혀갔다.

이석호는 1959년에 부여에 정착하였다. 어려운 형편에도 문맹퇴치운동에 앞장섰고 부여의 시골마을로 다니며 문화영화 상영회도 열었다. 교통사정과 숙박사정이 열악해서 시골에서 문화영화 상영회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현지의 마을 집에서 잠을 자고 이가 옮아 고생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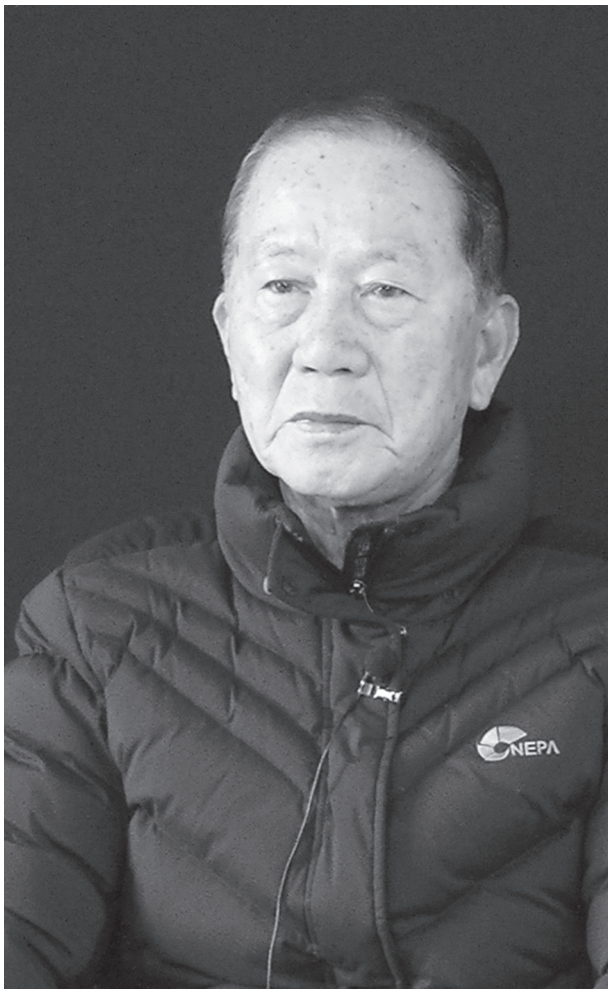
한편, 오오가 하스[大賀蓮]는 세계 최고(最古)의 연꽃으로 일본의 식물학자인 오오가 이치로 박사가 1951년 3월 지바시 도쿄대학 운동장 유적지에서 2천년 전의 연씨 3개를 발굴한데서 비롯되었다. 발굴한 연꽃 씨앗의 발아에 성공하여 1952년에 연꽃을 피운 것이다. 오늘날 부여 궁남지에 심어진 대하연은 이석호가 일본에서 구해 온 것이다. 일본의 모대학에 강의하러 갔던 그가 강연료 대신 오오가 하스 뿌리를 줄 것을 부탁해 어렵게 구해왔다. 오늘날 성황리에 열리는 부여 궁남지의 연꽃축제는 이렇게 어렵게 구한 연꽃뿌리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백제문화연구 자체가 국내 사학계나 고고학계에서 거의 황무지 상태였던 시절부터 심혈을 기울여 온 이석호는 부여문화원을 설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백제 연구는 오늘의 국내외 백제문화연구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서천군

| **유진선**(1939년생) 서천군 서면 |

마량리당제는 마량의 삶



유진선은 서면 마량리 사람이다. 마량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살고 있다. 가까운 친척들도 마량에 어울려 지내고 있다. 서면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천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그가 40대 초반부터 마량리당제에 참여하였으니 어느새 사십여 년이 지났다. 어릴 적 엄숙했던 마량리당제의 기억 때문인지 화부나 화장은 한 번도 맡지 않았다. 화주나 화장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화주, 화장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엄청 힘든 거예요' 하면서 고개를 젓는다.

이곳 사람들은 대부분 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의 안전과 마을의 안녕을 위한

마량리당제는 매우 중요하고 모든 주민들의 삶의 한 부분이다. 마량리에서 당제가 열리면 마을 사람 전부가 참여한다. 그런 당제가 지금에 와서 다소 시들해졌다. '뭐,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어요'라고 하지만, 당제의 분위기가 많이 풀어졌다고 그는 생각한다. 당제의 행사 자체는 관광축제마냥 외부 사람도 오고 관광객도 와 규모가 커졌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예전엔 무당도 여럿 불러서 사뭇 진지하고 폼도 났었는데 이젠 무당도 한두 명 불러서 다소 간소해진 듯해'라고 한다. 떠들썩해졌지만 당제의 진지함은 다소 가벼워진 듯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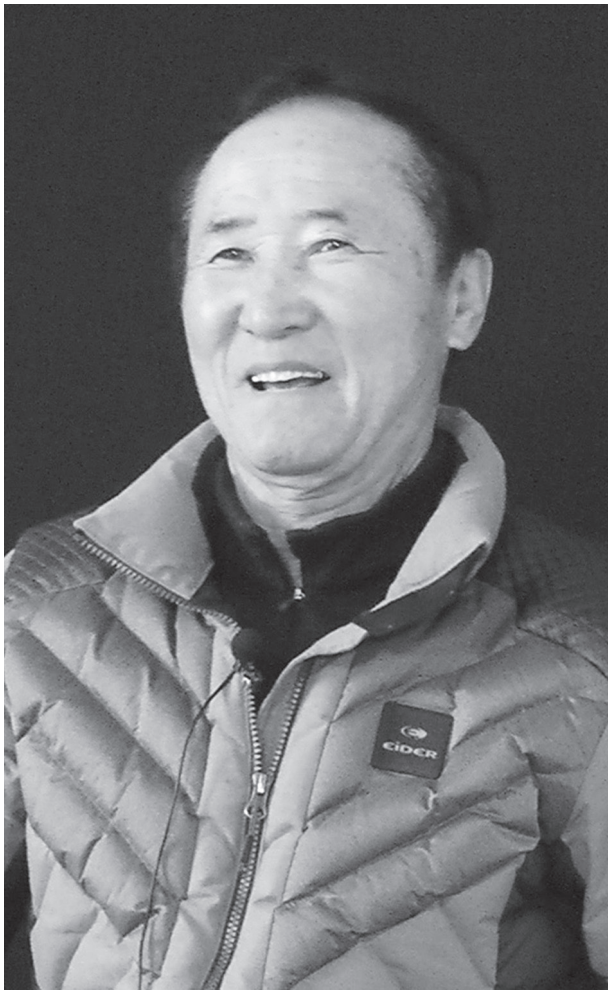
옛날 당집에 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조금 왜소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화주나 화장을 지내지 않았던 탓인지 모시는 신에 관한 정확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 예나 지금이나 같은 신을 모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낭신 부부와 그 자제 부부 그리고 스님과 마부까지 당집에 모셔서 마량리당제를 올린다.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쉽지 않다. 그가 잠시나마 이장을 지내면서 직접 마량리당제를 진행해 보니 제를 올릴 때의 제물과 각종 물건들을 당집까지 들고 오르기가 어려웠다. 운송수단을 개선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마량리당제의 특징 중 하나를 꼽자면 대내림이다. 남들은 짜고 하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곳 신이 어찌나 영험한지 주위의 무당들이 인사를 오곤 한다. 당제 당일 대잡이에게 내려지는 서낭신의 뜻에 따라 마량리당제의 마지막 제인 거리제 날짜가 정해진다. 절대로 미리 짜거나 말을 맞춰서 정하는 것이 아니다. 해마다 대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화제가 될 정도다. 그래서 서로 대잡이를 하지 않으려고 도망 다니기도 하고 한바탕 소동을 치루고 나서야 대내림을 한다. 대내림을 하고 나면 서낭신의 영험함을 받은 덕인지 그 큰 당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동백정을 쉽게 내려오곤 하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마량리당제는 단순히 당제라기보다는 '자기 조상 모시듯' 하는 마량리 사람들이 지켜나가야 할 마량의 삶 그 자체이다.

그가 기억하는 옛 마량리를 떠올려 보면 지금은 훨씬 살기 좋아졌다. 아쉬운 점은 지금은 없어진 동백정 해수욕장이다. 동백정과 마량리 해안가의 아름다움이 빼어나다.

| **조귀춘**(1943년생) 서천군 서면 |

당골네의 멋진 수염



조귀춘은 마량 사람이다. 그것도 그냥 마량 사람이 아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마량리당제에 다닐 정도로 마량에 대한 애정이 깊다. 지금은 사라진 오래전 당집을 기억한다. 당집 밖은 물론이며 안의 서낭님들에 관한 기억도 생생하다. 마량리 서낭님이 이 부근에서는 젤 쎈 어른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하다.

그의 머릿속에 어릴 적 마량리당제를 주관하던 당골네의 모습이 생생하다. 어찌나 수염이 길고 멋있는지 바람에 수염이 날리는 모습이 그림 같았다. 긴 수염을 휘날리며 풍채 있는 모습으로 엄하게 당굿을 이끌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없어 아쉽지만 마량리당제는 마량리 사람들의 삶속에 묻혀 있는 보석 같은 것이다. 잘 숨겨 놓았다가 가끔씩 꺼내 보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그가 아버지를 따라 올라간 당산에는 흙 블록으로 쌓아 놓은 작은 당집이 있었다. 둘레를 성처럼 차돌 같은 것으로 둘러 쌓아 놓고 당집 안에 서낭님을 모셨다. 오백년이네 육백년이네 하지만 그것까진 몰라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지냈다는 마량리당제는 매우 오래된 전통이었다.

옛 당집은 작아서 기어 들어가야만 했다. 그 속에서 당제를 올렸다. 예전엔 밤새워 지냈다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60여 년 전에 들어가 본 당집의 내부에는 지금처럼 서낭신 부부와 자제 부부, 스님, 마부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나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다. 30~40년 전쯤 기독교 신자들이 서낭신을 버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다시 만들어 모신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조귀춘은 서낭신의 영험함이 대단하다고 하다. 어릴 적에는 당집에 올라 오줌도 못 누고 나왔다. 당집에서 오줌을 누면 탈이 난다고들 하고 실제 탈이 나서 고생을 한 사람도 있었다. 그것만이 증거가 아니다. 마량리 서낭님께 주위의 무속인들이 매년 수시로 찾아와 인사를 드린다. 멀리서도 온다. 당제의 틈에 제물함을 만들어 놓았는데 매년 수십 만 원도 놓여 있고 백만 원 이상도 놓여 있기도 했다. 달리 말해 서낭신 중에는 꽤 높으신 분이란 반증인 것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마량리에 배 사고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마을의 안녕과 배 사고가 없길 기원하는 마량리당제이니 이만큼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도 다 영험함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마량리당제의 영험함은 종교적 해석을 떠나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회 다닌다고 서낭님을 몰래 버려서는 안 된다. 마을의 정신적인 화합을 위한 상징과 같은 것이다. 갈수로 나태해지는 당제의식은 잘못이 아니다. 시대적 흐름이 있으니 급격한 형식의 변화보다는 조금씩 현대화 돼가는 느낌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 모두를 묶어 상생하는 길이라고 그는 생각한다. 어릴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열광하던 때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모두가 함께 하는 마량리당제가 그는 좋다. 각박해지는 현대 생활 속에서 이렇게라도 붙잡고 있어야 함께하는 기회가 늘어 가는 게 아닐까 싶다.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을 모두를 위한 것이다.

마량리는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해수욕장, 그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 연탄분진이 날아다니는 게 현실이다. 마량리의 자연 경관을 다시 살려놓았으면 좋겠다.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마량리에 남아 있는 당제처럼 우리 마량리가 옛 모습을 잃지 않기를 그는 오늘도 기대한다.

| **박성용**(1945년생) 서천군 서면 |

500년 된 마량리당제



박성용은 마량에서 태어나서 마량에서 살고 있다. 박성용의 어릴 적 기억엔 1년 중 마량리당제가 제일 큰 행사였다. 마량리당제는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의 여자들도 참여한다. 여자가 당제에 참여하게 된 것이 그가 이장으로 있을 때 마을 사람들과 논의하여 결정한 일이고, 자신이 잘한 일 중 하나라 자부하고 있다.

그가 어릴 적 마량리당제를 쫓아다닐 때의 기억은 어른들이 굉장히 엄했다는 것이다. 옛 당집은 작고 쓰러져 가는 흙집에 차돌담이 둘러 있었다. 마량리 마을에서 제일 큰 행사였던 당제는 주민 모두 함께 참

여하는 대동제였다. 다른 마을에선 당제가 간단하였다. 그러나 마량리는 섣달 그믐날 선창제를 시작으로 정월 초하루부터 초사흘까지 당제 본제를 지내고 대내림으로 결정되는 거리제까지 지내면 짧게는 십여 일, 길게는 보름 가깝게 지내는 대제였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열댓 살쯤부터 마량리당제에 참여했다. 아마 그 전 어릴 적에도 갔었을 법한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가 지금 생각나는 건 우물이다. 빨래도 하고 식수로 썼던 우물이 있었는데 당제를 지낼 때면 그 물을 길어 화주가 목욕도 하고 제사 물로 사용했다. 지금은 한전 시설 내에 포함되어 쓰지 못한다.

예전에 마량리당제를 지내려면 며칠 전부터 엄했다. 시대가 변하면서 편하게 하고는 있지만 우물이 사라진 후에 샘제가 없어지고 해서 당제가 많이 간편해진 느낌이다. 원래 샘물에 목욕하고 당집에서 며칠씩 자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당제 본날에만 올라간다. 마량리당제가 다소 편해졌다고는 하나 예나 지금이나 마량리 마을의 기둥 같은 행사다.

당제 때가 되면 온 마을이 들썩이고 모두들 참여하려 애쓴다. 그 어떤 곳에서도 이런 당제는 없다고 자부한다. 마량리당제가 점점 주변에 알려지자 관광객도 오고 군수, 농협장 등 여러 내빈이 참석하여 손님들께 대접을 해야 할 것 같아 부녀회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장을 잠깐이나마 보면서 남자들만 참여하던 마량리당제에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500년을 내려온 마량리당제는 샘제도 사라지고 여자들도 참여하고 단골네도 바뀌고 이렇게 변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왜 변화시키느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다행이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존중하면서 변화를 맞는 모습이 진정한 마량리당제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월 초이틀 당집에 뱃기를 올릴 때면 누구랄 것도 없이 앞다투어 서로 뱃기를 올려 세워 준다. 어릴 때 기억엔 선주들이 뱃기를 들고 달려서 올라가 세웠다. 예전엔 마을에서 동백정까지 뱃기를 짊어지고 갔으나 지금은 한전 때문에 멀리 돌아서 와야 하니 결국 차로 올 수밖에 없다. 너무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개인 뱃고사도 찾아보기 힘들고 마

지막 거리제도 간략히 지낸다. 500년을 내려왔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까 십지만 요사이 몇십 년 사이에 너무 많이 달라졌다. 당제 근처에선 오줌도 못 누던 어린시절과는 전혀 다르다.

마량리당제의 서낭님이 용하디 용하다고 하는 것은 대내림에서 그 이유를 찾아 볼 수 있다. 정월 초사흗날 당제 본제날 법사가 열두 석을 마치면 동백정 앞마당에 나와 당대를 잡을 사람을 청하고 대잡이가 결정되면 대내림을 한다. 서낭님께 마을 부정도 풀고 거리제 날을 받는다. 미리 짠 것도 아닌데 매년 날이 다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날도 나온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신기해한다. 주위의 무속인들이 이곳 서낭님이 서낭님들 중에 높으신 분이라 말들 한다. 그런 것이 마량리가 지금까지 큰 탈이 없이 지내는 이유일까 싶다. 더욱 기쁜 일은 이제 여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마량리 서낭님이 여자들 참여를 허락하신 모양이다. 이제 진정한 모두의 당제가 되어 안녕을 기원해 본다.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후배들이 끝까지 당제를 잘 모셨으면 한다.

| **이순자**(1943년생) 서천군 서면 |

부녀회가 있어 좋은 마량리당제



이순자는 보령 주산면 삼곡리에서 태어나 스무살에 마량리로 시집을 왔다. 시아버지께 들은 이야기로는 마량리당제가 굉장히 엄한 행사였다. 당제에 구경을 갈라 치면 부부간에 동침도 해서는 안됐다. 임산부도 참석하면 안 되는 대상이었다. 집에서 송아지를 받은 사람이 당제에 갔다가 병을 얻은 적이 있던 만큼 최소한 목욕은 하고 참여했다고 한다. 이곳에서는 '지골 맞았다' 한다. 지골을 맞으면 큰 병을 앓는다고 한다. 여자들은 원칙적으로 참여를 못했었는데, 지금은 새 시대가 되어 여자들도 함께하며 많이 좋아졌다.

그녀가 시집왔을 때만 해도

여자들이 범접 못하던 마량리당제에 부녀회 활동을 하면서 직접적인 참여를 하게 되었다. 그게 한 20년 전쯤 같다. 부녀회가 참여해 군청에서 직원이 오면 국도 끓여주고 차도 끓여주고 하면서 대접하고 있다. 사실 마량리당제에 직접 참여하기 전까지는 의구심이 많았다. 무당이 마량리 배들과 뱃사람들 무사하라고 비선도 하고 대잡이에게 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본 뒤론 생각이 바뀌었다. 막연히 마을을 지켜주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마량리당제가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 준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그녀는 당제 행사에 부녀회가 참여하게 된 것은 참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멀리서 느끼던 것보다는 함께 참여해서 손님들 음식 대접이라도 하니 부녀회원 모두들 좋아한다. 그런데 이젠 육십 대 후반 나이가 되어가 당제 음식 차리기에서 제외되었다. 젊은 부녀회에서 일을 하고 여자 어른들은 마을회관에서 있다가 식사잔치에 함께 음식 먹는 것으로 바뀌었다. 함께한 10년이 참 재미있었다.

당제는 처음 참여했을 때보다는 많이 편해져 가고 있다. 제사상이야 정해져 있지만 손님들께 나가는 음식이 좋아졌다. 요즘은 회도 떠 나간다. 반찬들도 여러 가지 마련하고. 부녀회에서 준비하는 음식은 당제의 제사상 음식과는 확연히 다르다. 제사상의 음식은 화주와 화장이 정성스럽게 처음부터 끝까지 따로 만들어 당제를 지내고 부녀회는 오로지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이나 군청 손님과 마을 사람들 식사대접에만 집중한다. 완전히 따로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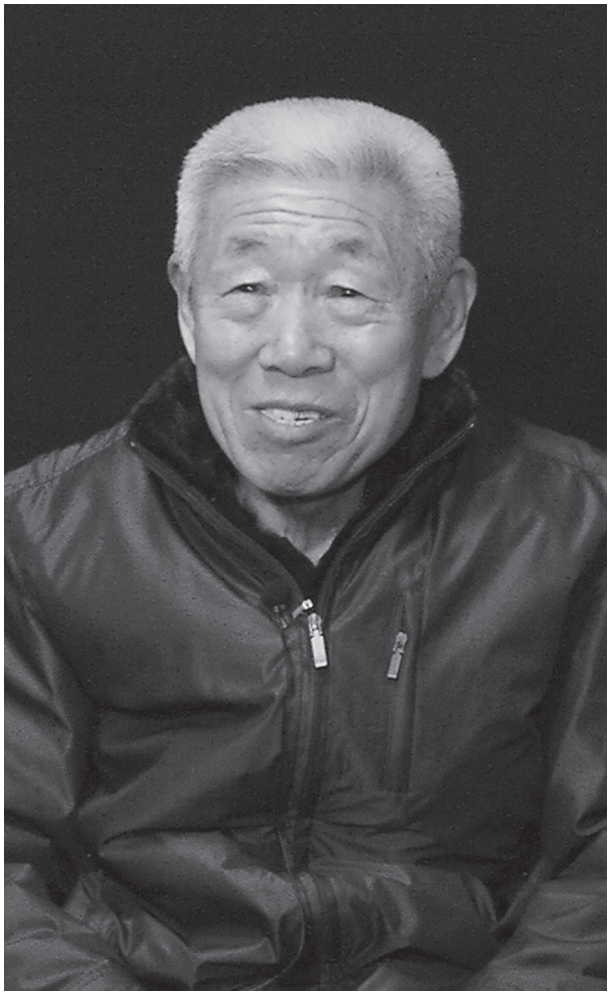
여자들이 참여는 하지만 제사상에 손대지 못하는 것을 보아서는 여자들로 인하여 부정 탈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마량리당제에 외지의 사람들이 참관하면서부터 규모가 커졌고, 부녀회의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다. 시대적으로 변화를 맞는 것이다. 2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는 남녀노소 모두 어울리는 당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여자들은 다같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차리고 남자들은 엄숙하게 당제를 지낸다. 무당에게 소지를 받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얼마나 진지한지 모른다.

그녀는 동백정에 동백꽃이 피면 놀러간다. 예쁜 꽃들도 보면서 놀다가 당집을 지날 때면 내가 몸가짐 마음가짐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 요즘 동백꽃 구경을 가면 탄가루

에 덮혀 옛날 동백꽃이 아니다. 예전에 바로 걸어 다녔던 동백정이었건만 이제 한전 때문에 멀리 차로 돌아 와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동백정에 오를 때면 한마디씩 한다. 동백꽃이 예전 같지 않다고. 그래도 마량리당제는 끝까지 가야 한다고 그녀는 생각한다. 마량리당제야말로 이 마량리를 지켜주는 것이라 믿고 있다.

| **윤덕선**(1938년생) 서천군 서면 |

마량리당제는 계속해야 한다



윤덕선은 파평윤씨로 마량리에서 태어나 나이 80이 넘은 지금까지 고향을 떠난 적 없는 마량리 사람이다. 마량리는 살기 좋은 동네다. 인심 좋고 이웃 간에 정이 넘치는 곳이다. 이곳 사람들에게 마량리당제는 그냥 조상 모시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마을 사람들 끼리도 어른 모시듯이 한다는 것이다. 어른 모시듯 조상 모시듯 여긴다는 것이 당제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마량리당제에 따라 다녔고 그로 인하여 마량리당제가 치러지는 며칠간을 같이 한 적이 많다.

그는 나이 열 살 무렵부터의

마량리당제 기억이 많다. 6·25전쟁 때에도 당제는 멈추지 않았다. 옛 당집은 기와를 올린 작은 집이었다. 돌로 쌓은 담이 성처럼 빙 둘러져 있던 모습이 생생하다. 어릴 적 바닷가였던 까닭에 마을에 중국 사람들이 다녀서 그런지 중국 그릇이 많아서 그걸로 제사 지낼 때 썼던 것 같은 기억이 난다. 옛 당집에 그릇들이 많았다.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어릴 적 어른들과 당집에 오면 오줌도 못 누었다. 엄했다. 지금은 그렇게까진 않는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섭섭하거나 그렇진 않다. 마량리당제는 지낸 것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마량리당제는 조상 모시듯 하는 것이다. 유교식으로 진행하며 소도 조상 모시듯 귀하게 대했던 기억이 난다. 어쩜 소는 조상보다 더 모셨던 것 같은 때도 있었다. 이곳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처럼 믿는 것은 아니다. 그냥 몇백 년 내려온 마을의 의례라고 보면 된다. 그저 잘되자고 하는 것이다.

뱃사람이 대부분이었던 마량리에선 당제가 큰 행사였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함께 진심으로 안녕을 기원했다. 정월 추운 날씨에 화주나 화장이 빼샘골에 목욕하고 제사에 참여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을 위하여 묵묵히 하는 모습을 보면 모두들 감사해 한다. 지금은 물통에 물 조금 가져다가 손과 얼굴 닦고 만다. 간단해졌다. 당제 지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마량리 사람 그 누구도 서운해 하거나 따지지 않는다. 그들 모두는 당제를 지낸 것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내용이 달라지고, 당집을 새로 지었어도 옛 당집의 기억이 생생하다.

예전엔 동백정 동백나무에 떡이 열렸었다. 지금은 색 바랜 동백정이 안쓰럽지만 올해도 마량리당제가 열렸다. 누구 한 사람도 빠지지 않으려들 한다. 왜 당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모른다. 동네 어른들 따라 동백정에 올라 지내온 80년을 되돌아보면 그는 행복하기 그지없다. 마을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서 며칠을 지낸다. 서로에게 덕담을 나누면서 골고루 음식을 나누고 함께 새해를 맞이한다. 한때 서낭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벌어졌어도 마을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면서 다시 만들어 모셨다.

마량리당제가 마량리의 무엇인지 표현이 어렵지만 동짓달이면 마을회관에 모여서 당

제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운다. 누구랄 것 없이 조금씩 내놓고 누구랄 것 없이 나선다. 당제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젊은이들도 많이 참여한다. 주변엔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어도 종교 같은 건 따지지 않으니 잘 모른다. 마량리당제는 끝나지 않는 마량리 그 무엇이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

| **김광희**(1945년생) 서천군 서면 |

함께하는 마량리당제



김광희는 서천군내 도둔리에서 태어나 자랐다. 1968년에 마량리로 시집오면서 마량리당제를 접하게 되었다. 그때만 해도 당제가 엄했다. 여자들은 부정 탄다고 접근을 금했기 때문에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었다. 마량리 인근에서 태어나 친정에서도 배를 탔기 때문에 마량리당제의 소문은 익히 듣고 있었지만 시집와서도 직접 참여하진 못했다. 그러던 중 1990년경부터 마을 이장의 결정으로 부녀회가 손님들 접대를 맡았고 당제에 직접 여자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막상 참여해 보니 신기한 것이 많았다. 그때 마을의 부녀자들은 남정네들만 하는 당제에 함께하게

되었다고 대부분 반기는 분위기였다. 그녀도 남편이 배를 타 늘 가슴 졸이고 살았기 때문에 당제에 정성을 들일 수 있어 반겼다.

1968년에 시집온 후 마량리에서 살게 된 지 어느덧 40년이 넘었다. 세월도 빠르지만 마량리당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제일 큰 변화는 한전발전소 때문에 해수욕장도 사라지고 당제의 내용도 간략해진 것이었다. 옛날 옛적에 엄했던 마량리당제는 찾아 볼 수 없고 많이 편해졌다고들 한다. 여자로서 큰 변화는 여성의 참여다. 90년도 경에 당시 마을 이장이 앞장서서 부녀회를 참여시켰다. 마량리당제가 조금 느슨해지면서 관광객과 군 관계자가 오기 시작했고 손님 대접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면서 당제의 규모는 양적으로 커졌다. 그녀가 보기에 부녀회가 참여하면서 화주나 화장도 조금은 더 편해 진 듯하다. 20년 가깝게 여성이 참여하면서도 탈이 없는 것은 마량리 서낭신이 용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자가 오면 부정 탄다던 생각이 없어지고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다 같이 당제를 지내고 있다.

당제 때에는 화주나 화장이 제일 고생을 한다. 마을 전체가 참여하지만 화주나 화장으로 선출하려 하면 다들 고개를 젓는다. 그런 연고에서 부녀회가 참여하게 된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부부가 함께 정성을 들이면 더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을의 큰 잔치에 오시는 손님들의 접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한다.

당제를 하려면 예전에는 화주와 화장이 참여하는 마을 남자들을 위한 약간의 음식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수십 명이 아니라 많을 땐 몇백 명이 되는 경우가 있어 화주와 화장만의 준비로는 턱도 없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부녀자들 사이에 소통의 장도 마련되기도 한다. 음식을 준비하면서 서로 덕담과 못 다한 소식을 나누기도 하니 부녀회의 참여는 반길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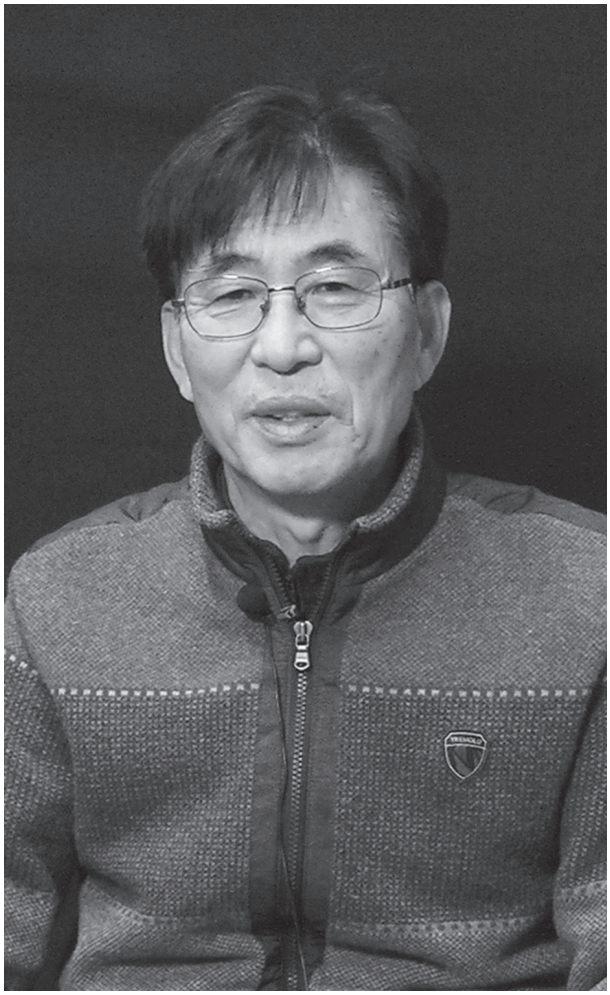
그녀는 옛날에 보았던 신할아버지의 굿이 선하다. 용하다는 신할아버지가 굿을 하면 마을 사람들이 엄숙하게 지켜봤다. 지금은 다른 분이 굿을 하지만 대잡이를 할 때면 매년 보아도 신기하다. 남편이 선주였던 까닭에 뱃기를 들고 당제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배가 무사하길 같이 기원하곤 하였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배 사고 없이 잘 살아왔다.

그리 크지 않은 배였지만 늘 뱃고사를 지냈었다. 지금은 남편을 하늘로 보내고 마량리당제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원한다. 혼자된 지 15년이 지났어도 당제 때면 남편 생각이 나곤 한다. 마량리당제는 지금 더 좋아졌다. 모두들 그렇다 말한다. 재미있어지고 규모도 커졌다. 이유야 많겠지만 부녀자들의 참여가 마량리당제를 더 좋아지게 만든 게 아닐까. 사람들은 신할아버지를 당할아버지라 불렀던 것 같다. 당할아버지가 뭐가 잘못됐으니 고쳐라, 하면 '네' 하면서 반성한다.

마량리당제는 새해를 맞는 마량리 사람들의 결심을 다짐하는 행사이기도 하다. 주민 전체가 참여한다. 젊은이들도 적극적이다. 그들 마을은 마량리당제로 뭉치는 무엇인가 있는 것이다. 부녀회원들도 마을회관에 모여 며칠씩 준비를 한다. 남자들만의 마량리당제에서 남녀노소가 다 참여하는 마량리당제가 된 모습이 그녀는 보기 좋다. 이제 젊은이들이 이 마량리당제를 이끌어 가길 그녀는 기대하고 있다.

| **홍성돈**(1954년생) 서천군 서면 |

마량리당제



홍성돈은 마량리 사람이다. 10살적 당제하던 날 신장대를 넘어 가던 동네 아이가 혼났던 것을 기억한다. 직장 때문에 10년간 고향을 떠나 지내기도 했지만 그때 말고는 고향을 지키고 있다. 어린시절 옹달샘에서 물을 길어 먹던 일과 어른들 따라서 구경했던 마량리 당제의 기억이 많이 남아 있다. 지금은 매년 마량리당제를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물론 마량리에서 당제에 빠지는 사람은 별로 없다. 당제는 마량리 사람들의 삶 그 자체다.

그가 아버지를 따라 올라갔던 마량리당제는 재미있었다. 어린시절 놀 거리가 많지 않던 때라 마을잔치가 벌어지면 동

네 꼬마들은 뭉쳐 몰려 다녔다. 신장대를 넘어 갔던 그의 친구는 동네 어른들께 꾸지람을 들었다. 지금과는 달리 많이 엄했다. 당집 부근에서는 소변도 못 봤다.

동네에 옹달샘이 있었는데 이곳 사람들은 뼈샘골이라 불렀다. 그 물을 길어다 먹었던 것을 그는 기억한다. 당제가 열릴 때면 화주나 화장은 뼈샘골에서 목욕을 하고 당제에 참여했다. 그러나 발전소가 건설되면서 샘물이 사라졌다. 그래서 지금은 화주도 화장도 뼈샘골에서 목욕을 하지 않는다. 많이 편해졌지만 지금도 엄격하게 화주나 화장을 뽑는다. 그래도 당제 준비를 도맡아 하는 일 때문에 서로들 피한다. 화주나 화장은 정말로 마을을 위하여 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하지 않으면 하지 못한다. 그래서 예전엔 화주나 화장에겐 동백정에서 떨어진 나뭇가지 등 땔감도 가져다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고 한다.

그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전해주신 동백정 서낭 이야기는 신기한 어린시절의 동화였다. 그러나 지금은 막연한 동화가 아닌 마량리의 실화로 존재한다. 500년이나 내려왔다는 동백정 서낭님 이야기는 마량리 사람이라면 동화라 말하지 않는다. 예전에 마을 사람들 전체가 어업을 할 때에는 이 당제를 풍어제라고 불렀다. 어업을 하지 않아도 마량리당제를 귀하게 여겼다. 모두들 종교적 의미로 보지 않고 마을 공동신앙으로 생각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마량리당제는 한마디로 마량리가 가지고 지켜나가는 대동제라는 것이다. 배가 있든 없든, 종교가 있든 없든 다 참여했다. 그리고 같이 두 손 모아 기원했다. 모두들 잘 지냈으면 하고 말이다.

그의 기억에 한때 어떤 이가 우상숭배라고 서낭신을 가져다 버렸다. 그러나 서낭신을 종교적으로 섬겼다면 지금껏 마을 전체가 합심하여 지켜 오지 못했을 것이라 그는 확신한다. 마을의 불화가 될 번한 일도 해결되었다. 지금은 누구도 탓하거나 헐뜯지 않으려들 한다. 잘은 모르지만 주위의 무당들이 마량리 서낭님을 높이 받든다니 더욱 신기하다. 당집에 가면 문 틈새로 돈이 수북이 쌓여 있다. 관광객이나 무속하는 분들이 와서 돈을 놓고 간다. 그 돈은 당제 때 쓰인다. 돈 넣고 가라고 누가 시킨 사람이 없다.

밤에 지내던 선창제도 이젠 저녁 무렵에 지내고 샘제도 없어졌고 예전처럼 거창하게

마을이 들썩이진 않는다. 장승제도 축소되어 간단히 지낸다.

보통 마을제는 하루나 이틀 지낸다. 그러나 마량리당제의 기간은 열흘이 넘는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마량리 사람 누구도 불만이 없다. 그렇게 해온 것이란다. 몇백 년을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보수파와 이것 없으면 큰일 난다는 고집쟁이파 정도로 나뉠 뿐 하지 말자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현대에 들어 지역마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이 부담스러워 없애버리는 사례가 많은데 마량리는 걱정이 없다. 마량리에서는 어떤 행사를 치루더라도 단결이 잘되는데, 이것이 모두 마량리당제의 결집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마량리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마량리당제가 아닌 우리나라의 마량리당제가 되길 기원한다. 이유는 마량리 사람들처럼 잘 결집이 되길 바라기 때문이다.

| **신은성**(1954년생) 서천군 서면 |

마량리당제의 추억



신은성은 어린시절에 아버지가 당제의 화주를 하셨던 기억이 있다. 먹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던 옛날에 당제를 다녀오시는 아버지가 가져다주시는 사과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 신은성은 마량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마량리를 지키고 사는 마량리 사람이다. 화주를 하셨던 아버지 덕에 당제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 많다.

열일곱 살 무렵 정월 초사흗날이면 새벽에 당집에 올라 떡국을 얻어먹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편탕제의 떡국이란 것인데 그때부터 마량리당제에 참여하게 된 것 같다. 하얀 차돌로 둘러싸 있는 옛 당집은 그리 큰 것 같지 않았지만 기와집으로 되어 있었다.

오래전에 화주가 목수여서 서낭님을 감나무로 깎아서 놓았었다 한다. 신기했었던 기억만 난다. '아버지의 사과'만은 못하지만 말이다.

당제는 섣달그믐부터 시작했다. 이때가 되면 배를 가진 사람들은 그믐 며칠 전부터 모두 집 앞에 뱃기를 만들어 세웠다. 그랬다가 정월 초사흘 12시가 되면 뱃기를 들고 동백정에 올라가 세웠다. 서로 일찍 세우려고 서둘러 달려갔다. 복을 더 받는다고 해서다. 그래서 뱃기를 올리는 날이면 서로 눈치도 많이 보고 일찍 올라가려고 밤을 새우기도 했다. 선창제를 지내려 할 때가 되면 집집마다 황토를 놓고 액운이 오지 못하도록 하면서 마을의 분위가 무르익는다. 지금은 뱃기 올리는 경주가 없어 조금 밋밋하다.

60년대 말까진 무당이 작두를 탔다. 매년 마량리당제에는 통돼지를 직접 잡았다. 근처의 외연도 풍어제에서는 소도 잡는데 마량리에서는 통돼지를 잡아 선창제부터 당제 장승제까지 제사와 음식에 사용했다. 무당 한 번 부르면 돈도 많이 들어갔다. 그가 이장을 보던 시절에 3백만 원에 사정사정해서 부른 적도 있다. 통돼지를 잡아서 무당이 작두에 꽂아서 세우기도 했던 것을 무속인이 바뀐 후로는 하지 않는다. 작두 타고 돼지 세우고 하며 무척 화려했던 굿이었으나 지금 맡은 분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

빼샘골 의식도 사라졌다. 화주나 화장은 정월초사흗날 당집에 오르기 전에 빼샘골에서 목욕하고 오른다. 추위를 참느라 고생 많이 했다. 지금은 발전소가 생기면서 샘이 사라지고 샘제는 지내지 않는다. 당집에 오를 때 화주 집에 세워 두었던 당대를 짊어지고 올라간다. 정월초하루에 당대를 세우고 초사흗날 뱃기를 올리는 것이나 지금은 당대 올릴 때 뱃기도 올려 세운다. 당제 당일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다. 이렇듯 사라진 것들도 있고 간단해진 것도 있어서 엄했던 옛날보다는 많이 편해진 것이 사실이다.

요즘 당제의 굿은 열두 석을 지낸다. 무당이 사당 안에서 열 석 하고 나와서 두 석을 해서 열두 석을 하면 당제가 끝나는데 나와서 하는 두 석 중 하나가 마당제고 대맞이 대내리기다. 매년 대맞이는 신통한 당제 과정 중 하나이다. 당대를 세우고 대받이가 대를 잡으면 무당이 대받이에게 정성 같은 것을 물어보고 복을 내려 준다. 그때에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집중해서 바라본다. 대잡이에게 서낭님 신이 내린다 하는데 가끔씩 대받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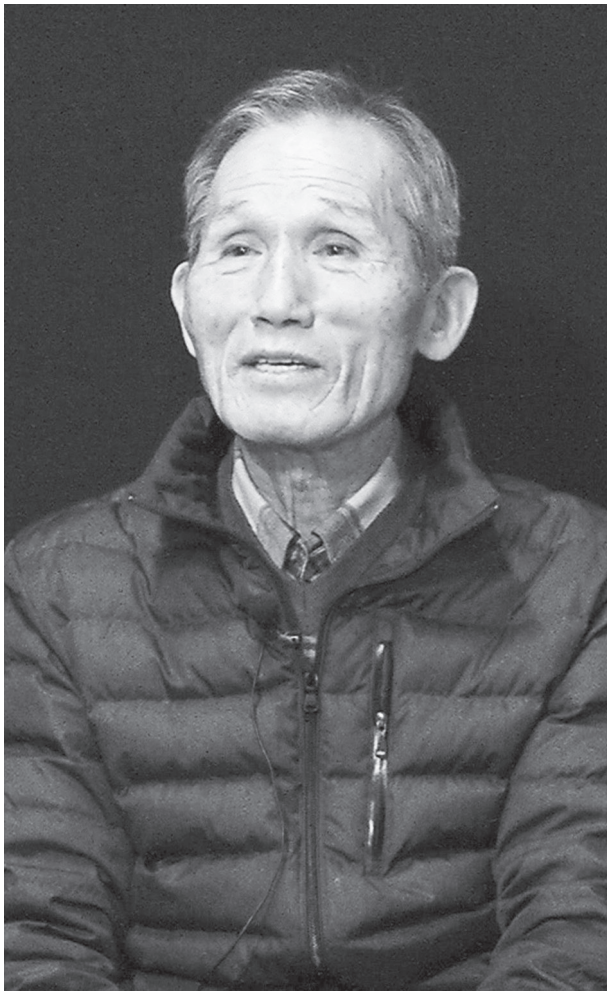
에게 서낭신이 내려서 고생한 적이 많다.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기까지 한다. 그리고 대잡이 과정에서 마을의 장승제 날짜가 내려온다. 무당과 마을이 협의를 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대잡이 과정에서 서낭신이 날짜를 가르쳐 주는데 매년 날짜가 꼭 같지 않다. 이렇듯 당제에서 열두 석을 마치면 당대를 앞세우고 동백정을 내려와 동백정 옆 바닷가에 나가 용왕제를 지내는데 용왕제를 마치면 당제 당일의 당제가 끝이 나는 것이다.

용왕제를 다 마치면 선주들은 각자 자신의 배로 가서 당맞이라는 작은 뱃고사를 지낸다. 그리고 마을회관에 모여서 한바탕 먹고 논다. 전체적으로 당제를 할 때면 모든 과정마다 시작 전후에 풍물을 치면서 한바탕 놀고 당제가 진행되는데 상쇠가 계승되지 못해 풍물이 다소 아쉽다. 옛날 상쇠 하시던 분이 신명나게 꽹과리를 치면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춤추며 놀곤 했었다. 요사이 간편해진 당제로 당맞이 기분이 많이 줄었다. 당맞이 맛이 안 난다. 당제 분위기를 버려 놓은 건 발전소 때문이란 생각이다. 발전소가 생기면서 마량리당제는 많이 변했다. 가장 큰 이유는 마량리 마을과 동백정 사이에 발전소가 들어서서, 오가던 길을 단절시켰기 때문이다.

인간은 뭐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인지 한때 교회 사람들이 서낭님을 훔쳐다 버린 적이 있었다. 그래서 탱화로 모시기도 했다. 지금의 모습은 삼사십 년 전부터 이어온 것이다. 당제는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마을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전통문화인 것이다. 이곳 마량리 사람들은 배 사고 없이 잘 지내는 것을 마량리당제 덕이라 생각한다. 미신이라 말하기 전에 마량리당제를 통해서 하나 되는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서로 합심하고 서로 의지하여 마량리가 무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당제 굿을 하는 사람도 몇 번 바뀌었지만 결과는 같다. 마량리당제는 미신이 아니고 마량리에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라고 봐야 한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도 잘 따라오고 있어 다행이며, 앞으로 관광적으로 발전 계승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 **유병진**(1946년생) 서천군 한산면 |

민속의 계승, 마량리당제



유병진은 서천 한산 사람이다. 한산에서 나서 한산에서 자라고 고향을 지키고 있다. 고향을 지키고 있는 탓에 민속 문화와 전통에 관하여 관심이 많다. 그러던 중 한때 한산향교의 전교로 일을 보면서 유교와 전통문화에 관한 관심이 깊어졌다. 특히 지역의 향토사에 관심이 많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민속이니 전통을 잘 모른다. 그런 안타까움에 민속에 관한 자료를 조금씩이라도 만들어 놓고 서천 지역의 향토자료에 관심을 쏟고 있다. 고향을 지키는 삶의 한 방편으로 말이다.

그의 기억으로 60년대 말쯤 한 마을의 기우제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요즘 서천의 마을을 다녀보면 마을제가 거의 사라졌다. 우리들의 민속 전통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마량리당제는 시대의 변화를 겪지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그는 위안을 삼는다.

마량리당제를 할 때면 마량리 젊은이들도 많이 참여하고 온 마을이 시끌벅적했다. 당제를 지내려면 며칠 전부터 준비하고 분주했다. 화주 화장은 며칠을 당집에서 기거하고 힘든 당제를 치루었다. 그러나 몇십 년 전부터 하나둘 간편해지고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마량리당제의 제의 과정이 조금씩 소략해졌다. 샘제 같은 것이 없어지기도 하였다.

동백정이 관광지로 각광받으면서 마량리당제는 관광객들도 참여하고 인근의 마을 사람들과 군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큰 동네 행사가 되었다. 언젠가 한산모시 행사에 마량리당제가 재현되었다. 100여 개의 뱃기가 장대히 가는 모습을 보고 그는 큰 감명을 받았다. 우리 고장에 이런 것이 있다니 반갑고도 기뻤다. 배를 앞세우고 가면서 뒤로 100여 개의 뱃기를 들고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따르는 모습은 웅장하기까지 했다. 뱃기에는 각자 자신들의 배 이름을 적어 풍어와 안녕을 기원하는 마량리당제의 모습을 재현한 것이다. 그는 우리들이 지켜내야 할 전통 예술이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누군가는 민속신앙이란 말도 하지만 종교적인 것으로 한계를 가지지 말고 당제를 보았으면 한다.'고 말한다. 민속신앙으로 이어지면 미신으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기만 한 것이다. 물론 종교적인 행위가 들어가야 당제의 제의과정을 지켜나갈 수 있다. 우리의 민속이나 전통 예술도 그렇게 이해하길 그는 바라고 있다. 어느 나라건 문화 전통예술이 사라지면 그 민족은 사라져 가는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마량리당제가 유지 계승 발전되길 그는 간절히 기원한다.

서천의 마을제가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마량리당제가 계승 발전을 하는 것을 보면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한다. 마량리 주민들은 다행히도 마을 젊은이들도 많이 참여하여 좋아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힘주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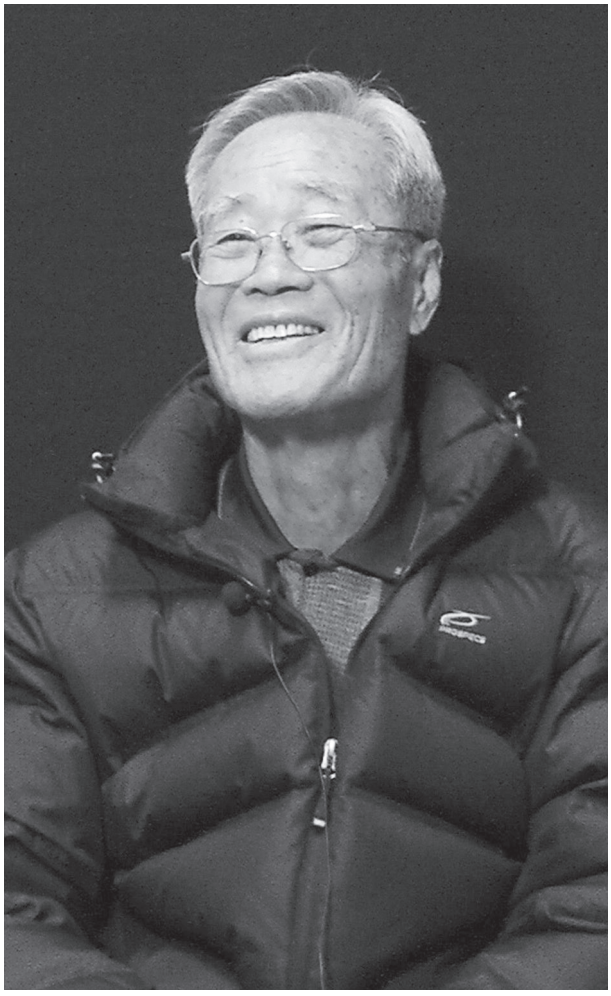
"젊은 사람들이 이어가야 할 전통예술 즉 민속 말이오. 누군가에게 한 해의 소망이요 삶의 방법 중 하나였을 마을제가 종교적 해석 때문에 점점 사라져 가잖아요. 기성 종교

의 확산은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일지 모르지만 오천년 역사의 우리들은 이미 불교도 유교도 선교도 들여와 가슴속에 간직해 왔단 말입니다. 그 무슨 신은 종교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마을 사람들의 공동의 화합을 만들어 내는 대동단결의 정신 같은 그 무엇이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 계승 발전시키는 것은 결국 젊은이들의 몫이라고. 강요로 유지된다면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그러나 참 다행스러운 것은 마량리 젊은 사람들이 마량리당제를 잘 이끌어 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 **최영환**(1932년생) 서천군 서면 |

변화된 마량리당제



최영환은 마량리처럼 살기 좋은 곳이 없다고 잘라 말한다. 마량리당제의 덕도 있을 거란다. 경주최씨인 최영환은 마량리에서 태어났고 지금도 마량리를 지키고 살고 있다. 이곳은 참사또 이대복이 살았던 곳이란다. 주변 마을에 비해 옛날엔 군기창도 있었고 곡식 창고도 있었고 그래서 해적들도 들어왔던 곳으로 여러 가지 사연이 많았던 곳이란다. 마을 인심도 좋고 이곳 마량리가 이 부근에선 제일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는 힘주어 말한다.

500년인지 600년인지 전해내려온다는 마량리당제는 이곳 마량리 사람들의 자랑거리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섣달

이면 마을 사람 모두가 마을회관에 모여 올해 마량리당제를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한다. 6·25전쟁 때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당제는 지금까지 마량리를 지키는 마을 제사다.

그가 어릴 적 당제를 떠올려보면 화주란 분은 끼니도 잘 못 먹고 화장실만 다녀와도 목욕을 했다던 기억이 난다. 그 추운 정월 초하루에 당집에 올라가 초사흘까지 삼일을 당집에서 잔다. 예전에 당제에서 굿을 하려면 지금보다 오히려 푸짐했던 기억이다. 마을 전체가 풍성한 잔치였다. 당제를 하는 무당이 마을 사람들에게 호통도 치고 찬물도 뿌리고 했다. 구경 오는 사람들도 서천 사람 다 모였다 싶을 정도로 많았었다.

바다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면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했다 그래서 마량리 어른 꿈에 신의 꿈을 따라 동백정 밑의 바닷가에 가보니 궤짝에 서낭님이 들어 있었단다. 그래서 마량리당제가 시작이 된 것이다. 전설의 마량리당제가 600년이란 세월을 지나 오늘에 이른 것이다. 옛날 당집은 작은 기와집이었다. 방이 두 칸으로 한쪽은 굿을 하고 한쪽은 서낭을 모셨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무당의 굿이 이어지고 한밤중에야 내려왔다.

마량리 서낭님은 이야기도 많다. 일 년에 한 번씩 서낭님 옷을 새로 지어 드리는데 한 거지가 작년에 벗어놓은 서낭님 옷을 훔쳐가려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전설도 전해온다. 주변의 무당들은 물론이고 멀리서도 이곳 서낭님이 높으신 서낭님이라고 인사를 온다. 서낭님의 용한 이야기들이 많다. 지금도 당집에 가면 문틈 사이로 복돈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현재 당집에는 서낭님 내외분과 자제 부부 그리고 스님과 마부 이렇게 모셔져 있다. 그의 어릴 적 기억엔 옛 당집에 서낭님 내외분과 마부뿐이었다. 60년대 말과 70년 초에 교회 다니는 분들과 큰 사건이 있던 후에 서낭님을 다시 만들어 모시면서 그렇게 된 듯하지만 정확치 않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 누구도 따지거나 말하지 않는다. 아마 무당들이 맡아 하는 과정에서 추가한 듯하다. 마량리 사람들은 당집에 서낭신을 모시는 것을 신성시하되 무당들이 하는 것을 대체로 따른다. 그런 과정에서 변화했다고 보면 된다.

마량리당제는 변화하고 있다. 그가 볼 때 어릴 적 당제가 아니다. 옛 당집이 허물어지고 새 당집이 지어지고, 한때 종교적 갈등으로 큰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마량리 사람들

은 마량리당제를 버리지 못한다. 서낭님의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것처럼 종교적인 당제보다는 마을의 화합을 위한 당제이기 때문이다. 마량리당제를 지내려면 섣달 초에 마을회관에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러나 날짜만 확인하고 화주·화장을 선출하곤 내용에 관해선 따져 들거나 협의하지 않는다. 이장을 비롯한 화주·화장의 뜻을 존중하고 따른다. 마을의 화합을 위한 행사란 것이다. 종교적으로나 그 어떤 과정을 중요시하진 않는다. 마량리 마을 사람들은 신식으로 변화하는 것이란다. 하나같이 동의한다. 신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 **윤교진**(1954년생) 서천군 서면 |

마량리당제는 대동제



윤교진은 마량리 현 이장이다. 그래서 제주의 역할을 한다. 마량리당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다. 어릴 적 어른들 따라서 당제 잔치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다. 그는 지금 마량리당제 전체를 도맡아 하고 있다. 예전에는 당제가 엄해서 새벽 제사에는 못 올라갈 때가 많아서 당제가 끝나서야 과일과 떡을 얻어먹었다.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당제는 예나 지금이나 마량리 잔치다.

사십대 초반부터 당제에 정식으로 참여를 하였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은 모두가 잘 안다. 마량리당제는 섣달 그믐날 선창제를 시작으로

정월 초하루에 당대와 뱃기를 세우고 초사흗날에 당제와 용왕제를 지낸다. 당제날 대내림 때 장승제의 날을 받아 장승제를 지내면 마량리당제의 전체 일정이 끝난다. 그 옛날 할아버지께 내려오던 마량리당제의 순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과정이 그가 아버지에게 들은 당제의 과정이다. 발전소가 들어오기 전에는 당제 올라가기 전날 샘제가 있었으나 발전소 안으로 샘이 들어가면서 없어졌다.

근래 큰 변화는 없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최대한 전해 내려오는 당제의 모습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굳이 따지자면 엄했던 당제의 조건들이 시대에 변화에 따라 편해졌다는 것이다. 예전에 화주나 화장은 추운 정월 날씨에 목욕하고 당집에 올라 삼 일을 잤다. 이런 불편했던 사항들을 없앤 것이다. 제일 큰 변화 하나는 여자들의 참여가 아닐까 한다. 여자들이 오면 부정 탄다던 마량리당제의 큰 틀이 깨져서 이젠 당제 당일날 마을의 부녀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당제에 참여하는 마을 사람들과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 함께한다. 서낭님이 좋게 보셨는지 부정 타지 않고 마을이 무탈하다.

동네 어른들이 '이젠 신식으로 해라' 말씀하신 까닭이 아닌가 싶다. 그가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해 지고 난 뒤에 방파제 바닷가에 횃불을 밝히고 지내던 선창제도 해지기 전에 간략히 지내는 것으로 바뀌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 하던 당 굿도 시간이 짧아졌고 밤에 하던 장승제도 늦게까지 하지 않는다.

마량리당제의 큰 맥은 풍어제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하던 때에는 당제를 마치면 뱃기를 뽑아 자신들의 배로 가서 뱃고사를 지냈다. 아직도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뱃고사를 지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다 편하게 바뀌어 지낸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누구도 허튼 마량리당제란 사람은 없다.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간편해졌지만 당제에 올리는 정성까지 줄어든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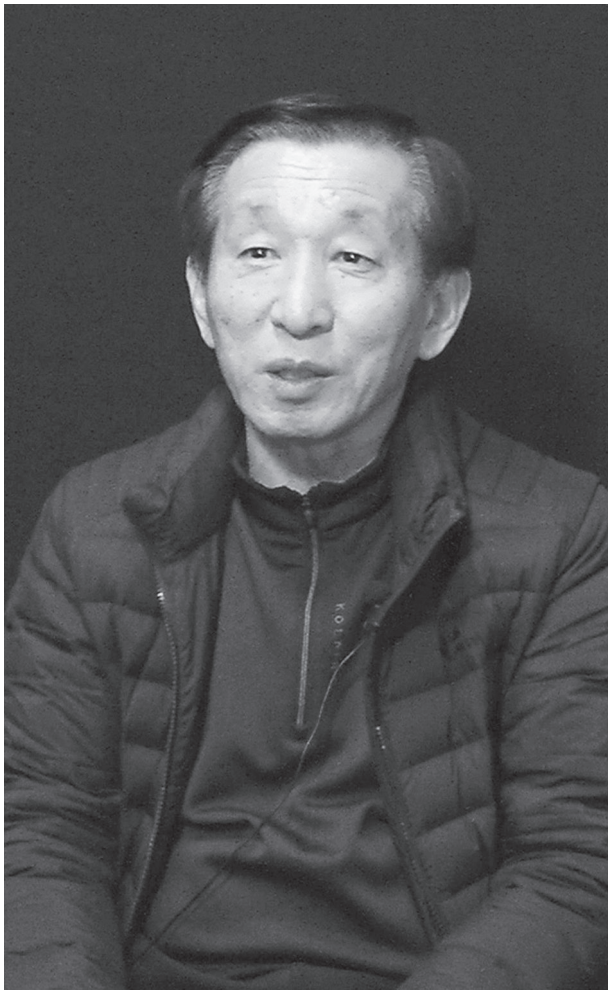
한때 종교적으로 미신이라 말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마량리 사람들에게 당제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마을의 화합을 위한 대동제라 여겨진다. 매년 섣달이 오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당제 어떻게 하냐고 물어오고 제물들을 내놓는다. 단골내도 모시고 제물도 차리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전 마을의 집집마다 얼마씩 내놓는다. 몇백 년을 추렴해서

지내온 것이다. 이렇게 600년을 함께 화합을 이루어내는 마을이 없을 것이라 자부한다.

마량리당제가 편해졌다 하나 마량리당제는 열흘이 넘는 날을 지낸다. 그렇게 길게 당제를 지내는 곳은 없을 것이다. 당제 기간 내내 마을 사람들은 몸가짐도 조심하고 서로에게 한 해의 시작과 함께 복을 나누려 노력들 한다. 대내림 때 받은 장승제 날이 되면 모두가 마을회관에 모여서 잔치를 한다. 음식도 함께하면서 한바탕 논다. 장승제는 마량리당제의 마지막이다. 마을 입구에 장승을 세우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면 마량리당제의 대장정이 끝이 난다.

| 박수환(1954년생) 서천군 서천읍 |

마량리당제의 큰 뜻



박수환은 서천의 문화를 꿰고 있다. 서천군청에서 공직생활을 하면서 문화관광에 관한 일을 하다가 퇴직하였다. 동백정의 역사와 마량포구에 관하여 한참을 이야기하고도 본인이 조사한 동백정 자료를 건넬 정도다.

서천 지역에 많았던 옛 마을 제라든지 역사적 민속문화가 하나둘 사라져 가고 잊히는 현실이 못내 아쉽단다. 그런 가운데 마량리당제가 남아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강조한다. 박수환은 서천이 고향이다. 고향의 역사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국사편차위원회 사료조사위원직과 서천군 향토문화연구회

회장을 맡아 열정을 쏟고 있으며 지금 서천문화원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10년 전쯤부터 마량리당제 당일에 참여해 왔다. 정월의 추운 날씨인데도 전 주민들이 나와서 정성껏 제사를 모시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다. 음식도 같이 나누고 풍어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것, 마량리당제의 참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마량리에 오면 마량리 사람들의 정신을 만날 수 있다. 몇 번의 참관이지만 밝고 좋았던 모습이었다.

마량리는 예전에 섬이었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섬이었는데 언제 육지가 됐나 싶다. 그래서 이곳 서면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바다가 생활터전이다. 이런 이유로 바다의 신에게 풍요를 빌려고 하였고 고려시대부터 왜구의 출몰이 잦아 마을의 안녕이 절실했던 곳이기도 하였다.

1655년도에 보령 남포에 있던 수군진영이 마량리로 옮겨지면서 이곳 마량리가 군사적으로 정치 행정적으로 지역의 요충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수군진이 오면서 백사 이항복이 동백정에 올라 수군진영을 둘러보고 갔다는 기록 등 마량리당제의 전설과 동백정의 기록들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옛 기록에 남아 있는 동백정에 관한 역사를 보면 동백정에 두 개의 건물이 있었다. 하나는 정자요, 하나는 당집으로 추측된다. 역사적으로 확증적인 기록이 없으나 예컨대 동백정 관련 기록만으로도 당제 역사가 400~500년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척박한 삶 속에서 마량리 사람들은 용왕님께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 시대에 달리 위탁할 곳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다.

동백정의 풍광은 예부터 유명해서 옛 문인이며 시인들도 다녀갔다. 지금도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이다. 동백꽃도 아름답지만 풍광과 어우러지는 낙조는 장관이다. 옛 정자의 모습이 있으면 더욱 빛이 발했겠지만 아쉽게도 옛 정자는 헐어 사라졌다. 없어진 기록마저 정확치 않다.

지금의 동백정 정자는 서천군에서 한산군에 있던 조선시대 건물을 1960년대에 가져다 복원한 것이어서 예스러움과 역사를 취할 수 있다. 해체하려던 한옥을 동백정의 정자로 다시 세워 우리 곁에 남긴 것이 큰 다행이다.

서천 사람들은 육지에 살면 당산제를 지내고 산을 끼고 있으면 산신제를, 바다에 삶을 기대면 풍어제를 지내 왔다. 그러나 신종교가 들어오면서 하나둘 사라져 갔다. 마을제가 사라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의 조선 문화 말살 정책으로 미신으로 치부한 것이다. 그 영향으로 지금도 미신이라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는, 우리의 마을제를 단순히 미신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몇백 년 몇천 년 역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위로받기 위하여 서로가 위로하고 화합을 과시하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마을제이다.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있었다. 그러나 마을제는 특정의 신을 향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그래서 그는 마을제를 종교적인 것으로만 해석을 해선 안 된다 생각한다. 많은 현대의 학자들과 향토사학자들은 마을제는 민속신앙과 대동제로 규정한다. 마을마다 이어 나갈 대동제란 것에 크게 동의한다.

| **김현길**(1955년생) 보령시 남포면 |

마량리당제



김현길은 마량리 당골네이다. 200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마량리당제를 맡아 주관하고 있다. 중간에 한 번 못한 적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어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 번 빠질 적에 조금 아쉬웠던 것들이 생겨났었고, 아무나 당굿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당굿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앉은경과 선거리굿이 다르다. 마량리당제는 앉은경이 잘 맞는 듯하다. 앉은경은 선거리굿에 비해서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훨씬 세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가 마량리당제를 도맡아 한지 15년~16년 되었다. 마량리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 바다를 토대로 살아가는 마량리 사람들에게 당제는 풍어제로 중요시 여겨진다. 몇백 년 전통의 마량리당제를 맡은 이후 별 탈 없이 지내고들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요즘 세상에 옛것을 지켜가면서 중요한 풍어제를 지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이유에서 옛 전통을 살리고 토속신앙을 지키고 있는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당굿을 맡기 전엔 규모가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나 주위에 풍성한 풍어제였다는 소문은 많았다. 당주나 화주나 화장의 어려움은 많이 편해진 것은 확실하고 그 외에 굿의 내용은 직접 맡은 2004년부터는 앉은경으로 지내고 현재까지 당굿을 하는 방법이나 제상 규모는 변하지 않고 있다.

무속인의 입장에선 해이해진 것을 느낄 때 그는 제일 서운하다. 시대가 변한다고 너무 간편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토속신앙에 관한 믿음이 사라져가는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대 따라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에서 안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당제의 모든 내용은 당굿에서 결정이 된다. 자신마저 해이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매년 정성을 다하고자 노력한다. 믿고 맡겨준 마량리 사람들과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다. 그렇다고 더 욕심을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 당굿을 맡은 동안에는 더 화려해지려 하거나 요란해지지 않으려 생각하고 실천한다. 당제 제사는 그가 맡아 하는 앉은굿이 전부라 생각해야 한다. 정성이 전부다. 그는 앉은굿을 하는 동안 마량리 사람들의 안녕과 풍어만 기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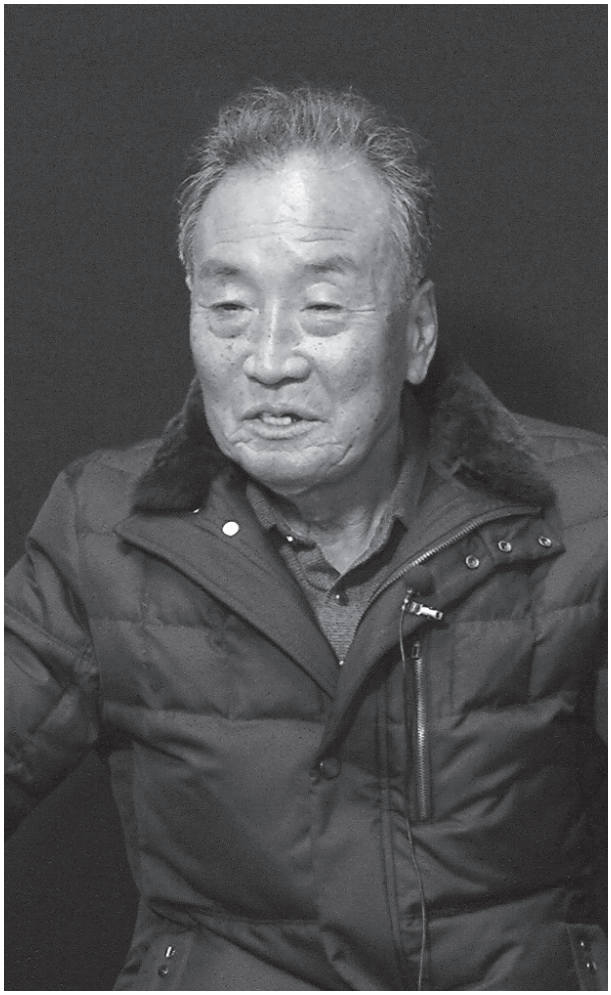
그가 2004년 처음 시작할 때엔 부처님도 계셨다. 다음에 가니 부처님이 치워져 있었다. 연유는 모르나 마을의 당제는 마을의 상황에 따라서 변해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 그러나 기본적인 맥은 민속신앙 토속신앙이란 것에는 모두들 동의할 것이다. 우리의 것,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 중 하나가 토속신앙 민속신앙이다. 그는 무속인의 한 사람으로 우리의 토속신앙을 지키고 주관하는 사람으로 자부심이 있다. 마량리당제는 우리의 토속신앙이 주가 되어야 하며 많은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생각한다.

초사흗날 본 당제에서 열두 석이 끝나면 당제도 끝이 난다. 그리고 마당에 나와 두 석과 당내림 굿을 한다. 대내림이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가장 높다. 다른 경과 굿에는 마

을 사람들이 보기엔 표가 나지 않지만 대내림에서 장승제의 날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다. 해마다 날짜가 다르게 나오는 것을 신기해한다. 대잡이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기 때문에 마량리 서낭님이 용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누가 미신이라 말하는지 모르나 마량리당제의 대내림을 직접 와서 접한다면 미신이라 단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도 서낭님의 뜻을 모른다. 단지 정성으로 전할 뿐이다. 올해는 전부의 예상을 깨고 초닷새에 장승제 날이 잡혔다. 심지어 신이 내려 대잡이가 혼절을 하면서 횡설수설하기까지 했다. 그때 동백정 마당에는 마량리 마을 사람과 외부 손님들까지 수십 명이 함께하고 있었다.

| **신동일**(1939년생) 서천군 서면 |

어깨가 무거운 마량리당제 화주



신동일은 화주를 여러 번 했다. 지금 생각해도 고통이고 어려운 것이었다. 제물도 차려야 하지만 혹시 마을 사람들에게 화가 미칠까봐 몸조심해야 하고 당제가 끝날 때까지 힘든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지금의 화주는 좋아졌다. 몸도 마음도 많이 편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 눈치 보는 건 매한가지일 것이다.

옛날 어른들은 먹고살기 바빠서 어려운 데다가 그나마 돈 때문에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언제가부터 화주에게 돈 주는 것이 없어지자 서로 안 하려 했다. 지금은 화주에게 조금씩 주는 모양인데 그것 가지곤 서로 안 하려 하지만 그나마 많

이 편해진 덕에 서로 떠밀려 한다. 화주는 한 달 전부터 궂은 데를 다니면 안 된다. 가까운 친척이 상을 당해도 가질 못했다. 대동을 위해서 화주가 감당할 일들이 많았다. 그만큼 엄하고 힘든 것이 화주다. 자식이 해산달이 오면 화주 하고 싶어도 못한다. 마을 사람들이 화주를 귀하게 여기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섣달그믐날 돼지를 잡아 선창제를 지낸다. 용왕제다. 선창에 가서 지내는 용왕제여서 선창제라 부르는데 마량리당제의 시작이 선창제다. 그리고 정월 초하루가 되면 동백정에 당대를 올린다. 당주집에 세워 두었던 당대를 당집에 올리는 것이다. 옛날엔 그때부터 화주가 당집에 올라가서 잠을 자면서 떡도 찧고 제물 음식들도 만들고 당집에서 잤다. 정월 초하루 추운 날씨에 당집에서 기거를 하면서 당제를 준비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는 뼈샘골 샘에서 물을 길어다 음식을 하려면 추위에 덜덜 떨었던 기억이 난다. 많이 간소화된 것이 화주를 해 본 사람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한다. 당집에서 하룻밤을 청하고 있을 무렵 날이 밝기 전부터 단골금사가 올라오면서 굿을 한다. 단골이 오면 부정풀이부터 한다. 이젠 마을의 무당이 돌아가시고 못하게 되자 다른 곳의 법사를 청해서 경을 한다. 하는 방법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것 같다. 부정풀이하고 축언하고 14석을 한다. 1년 열두 달 굿을 하니 12석에 1석은 마당제하고 내려가서 용왕제 1석하고 그래서 14석 하는 것 같다.

마량리당제에서 재미있는 건 대가림인데 마당제에서 단골네가 대잡이에게 내려온 신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있다. 이때 마을의 안녕도 기도하고 뱃사람들 안녕도 기도하고 서낭님이 섭섭한 것 없는지 물어보기도 한다. 그러면 대잡이가 답을 하는데 신기하기까지 하다. 대잡이에게 내려온 서낭신이 장승제 날짜도 잡아 주고 떠난다. 그러면 동백정에서의 당제가 끝이 나는 것이다. 동백정에서의 윗당제가 끝이 나면 대잡이와 동네 청년들이 함께 당대를 짊어지고 내려와 동백정 옆 바닷가에서 용왕제를 간략히 지낸다. 그러면 초사흗날의 당제는 끝내고 마을회관에 모여 한바탕 먹고 논다. 그리고 며칠 후 대잡이를 통해서 결정해준 날에 장승제를 지내는 것이다. 장승제는 마을의 입구에 매년 새로

운 장승을 깎아 세운다. 선창제부터 이어온 마량리당제의 마지막 제의다. 오전에 마을회관 앞에서 장승을 깎고 한바탕 놀고 먹는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마을 입구로 가서 장승을 세우는 것으로 마량리당제를 마무리한다. 마량리에 전해 내려오는 마량리당제는 당일 간단히 끝내는 당제들에 비하면 엄청 기간이 길다. 열흘 정도 걸리는 당제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의 화합은 더 좋아지는 듯하다.

그는 아버지가 화주를 하셨던 기억이 있다. 직접 화주를 몇 해 하면서 아버지 생각이 더욱 난다. 마을 사람들을 위한 대동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을 지금에 와서야 이해가 간다. 어릴 적 화주 하시는 아버지를 뵈러 올라가면 몰래 떡을 떼어 주시곤 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른다. 그는 지금 아이들은 줘도 잘 먹지도 않을 것 같은 옛 떡이 그립다. 이제 마량리당제가 많이 초라해진 듯하다. 한바탕 놀며 당제를 하나씩 할 때면 마을은 열흘간 큰 잔치 분위기였다. 그는 지금의 마량리당제는 당제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당제가 너무 조용해졌다.

| **조기환**(1956년생) 서천군 서면 |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화주



조기환은 2019년 화주이다. 2017년부터 몇 년째 화주를 맡고 있다. 화주란 배에서 사용하던 말로 배의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마량리당제 기간이 되면 매년마다 화주 한 명과 화장 한 명을 선출한다. 이때 마을회의에서 선출되어 몇 년째 하는 화주지만 화주는 사명감 없인 할 수 없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마을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배워 간다. 작은 희생으로도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27년 정도 당제에 참여했고 화장·화주를 대여섯 번 한 것 같다. 어릴 적 당제를 쫓아 올라갔을 때 그의 아버지가 대를 잡은 것을 보았

다. 지금 생각하면 마량리 사람들 모두가 참여하고 화주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랬다. 그는 화주를 여러 번 하면서 마을의 무탈을 기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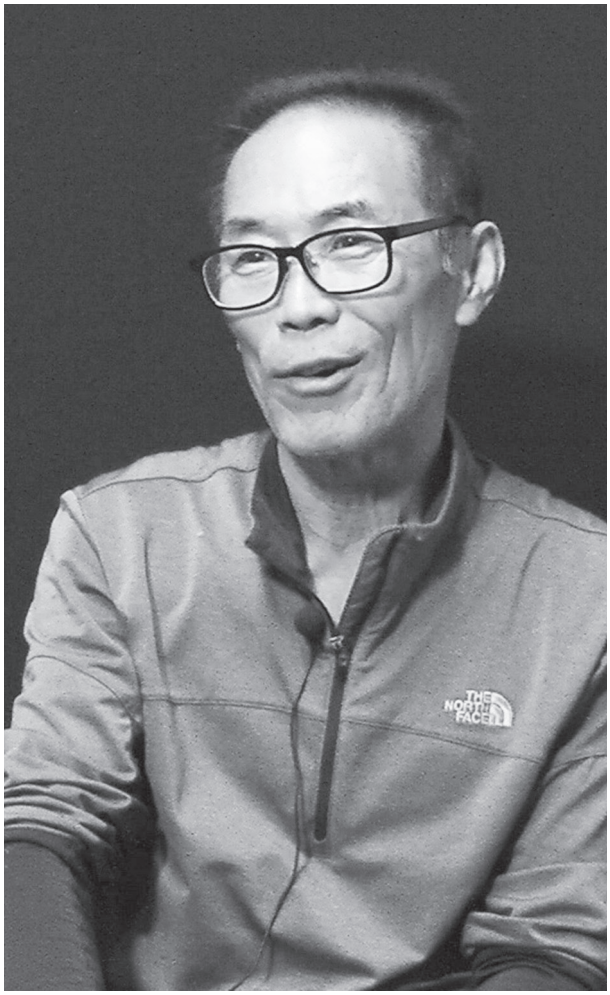
화주는 당제 기간의 모든 음식과 제물을 준비하고 윗당제를 제외하곤 제사도 지낸다. 그러나 마량리당제의 제일 큰 제사인 윗당제는 무속인이 주관한다. 마을에서 유명한 단골네라 부르는 무당을 불러다 지내는 것이 윗당제다. 단골네가 차리는 당집 안의 제사상차림은 단골네에 따라서 정하지만 화주가 차리는 제사상 차림은 모두 같다. 선창제나 용왕제나 거리제나 제사상의 차림이 같다. 마량리당제의 특징이 있다면 제사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다 흔시한다. 고수레 같은 것으로 이곳 마량리에서는 다 바친다는 뜻으로 선창제와 용왕제, 거리제를 지낸 모든 음식을 전부 모아 흔시한다. 오랜 기간 내려온 것으로 왜 그렇게 하는지 그는 그 내용은 모른다. 직접 화주가 되면서 전에 화주에게 배운 것이다. 이렇게 마량리당제는 몇백 년을 내려온 대로 지낸다. 어른들 이야기로는 변한 건 없다고 한다. 시대에 맞추어 편해진 것이 전부라고 말하니 그대로 따르는 것이다.

발전소 때문에 샘제는 사라졌다. 옛날엔 옹달샘에 가서 목욕재계하고 당제에 참여했다. 발전소로 인하여 마을에서 동백정으로 직접 가던 길이 사라지고 차로 돌아서 가야 한다. 마을부터 뱃기를 메고 가던 모습도 샘제에서 목욕하면서 정성을 다하던 모습을 볼 수 없어 그는 못내 아쉬워한다.

그가 아버지를 따라 나서던 마량리당제가 이젠 수십 년이 훌쩍 넘었다. 어느 때부터인지 마을회관에서 화주를 뽑을 때면 밀리듯 화주가 된다. 해도 뜨지 않는 새벽에 마을회관에 나와서 제물 준비를 할 때면 짜증이 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지나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시끌벅적해지고 웃음소리가 들릴 때가 되면 언제 짜증이 났는지 싶다.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그는 마음을 정했다. 당제가 진행될수록 수고한다는 마을 사람들의 격려가 힘을 내게 했다. 마량리당제는 마을의 화합을 만들고 일 년의 무탈을 기원하는 자리이다. 그런 자리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는 기뻐한다. 그래서 해마다 마량리당제에 나가 그는 기원하고 기원한다. 모두 무탈하라고 말이다.

| **최병출**(1957년생) 서천군 서면 |

화장만이 느끼는 행복



최병출은 서면 도둔리 출신으로 30대 초반(1990년경)에 마량리로 이사를 와서 지금까지 마량리를 지키고 있다. 30년을 지냈으니 이젠 마량리 사람이다. 최병출은 쾌활한 성격으로 2018년과 2019년 마량리당제의 화장을 맡았다. 그는 마량리당제 기간 동안 화주를 도와 뒤처리 허드렛일을 한다. 설거지도 하고 음식재료 떨어지면 사다 주고 당제 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한다. 중간중간에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계속 체크해야 한다. 쾌활해 보이는 성격에 활달한 모습으로 당제 기간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 마을 사람들과 꽤 친숙해 보였다.

화주와 화장은 마을을 위하는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자리이다. 그 중 화장이란 더욱 그렇다. 화장이란 뱃사람들의 용어로 배의 머슴이다. 배에서 허드렛일을 했던 사람을 칭하는 것으로 이곳 바닷가의 마을제에선 종종 사용하는 용어이다.

많은 것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마량리당제의 화주나 화장을 하면 동백정의 땔감나무라도 가져다 쓰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은 땔감 때문에 화주나 화장을 하진 않는다. 힘든 탓에 서로들 미루다 하는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등 떠밀려서 화주나 화장을 한다고 대충 하지는 않는다. 마을을 위하는 마음 없이는 못하는 일이다. 화장을 하다 보면 당제날 당집에 7~8번 오르내린다. 그가 젊을 땐 몰랐는데 이젠 벅차 많이 힘이 든다.

옛날 당집에서 지내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은 전기도 들어오고 새로 지은 당집이어서 많이 편해졌다. 화주와 화장이 당집에서 2박 3일씩 지내던 것도 사라지고 해서 정말 좋아졌다. 옛날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옛 당집은 초라했다. 다 허물어져 가는 좁은 공간에 서낭신이 모셔져 있었다.

그는 이것의 종교적인 과정은 잘 모른다. 그때나 지금의 당집이나 안에 모신 서낭님의 형태는 같은 것으로 기억한다. 그 기억이 30년 전이다. 물론 모든 당제 기간에 정성을 다하지만 화주와 화장만으로 정성의 시간을 가지는 일이 있다. 그것은 서낭님의 옷을 새로 입혀 드리는 시간인데 정월 초이튿날 오전에 뱃기들이 올라오기 전에 새 옷으로 입혀 드린다. 서낭님 내외분, 자제분 내외분 그리고 스님 이렇게 모두 새로 맞춘 옷을 해드리는 것이다. 한 분 한 분 입혀드릴 때마다 마량리 마을의 무탈을 기원하면서 옷을 입혀 드린다. 서낭님의 헌옷을 훔쳐가려던 도둑이 도망가려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도둑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마량리 바다에 풍랑이 일고 사람들이 죽게 되자 노인의 꿈에 나왔던 바닷가에 가보니 서낭님과 스님이 든 상자가 나와서 그때부터 마량리당제를 올리기 시작했다고들 한다. 전설로는 500년이라 하는데 그것이 몇십 년 전이니 500년이 훨씬 넘어간 것이라 생각한다.

섣달 스무아흐렛날 돼지를 잡는다. 그 돼지로 선창제부터 윗당제 장승제까지 당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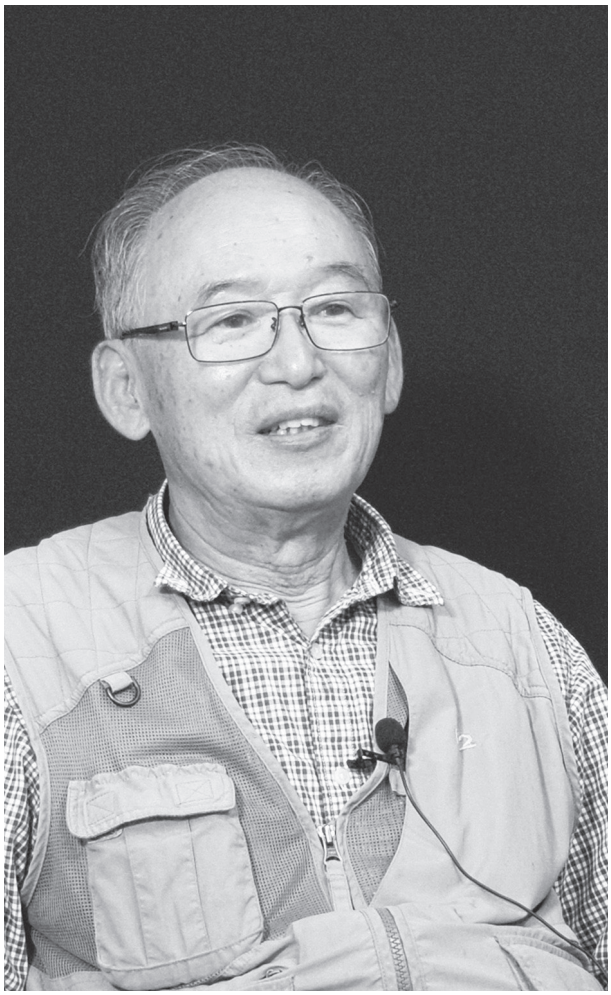
간 동안 제물로 사용한다. 이 때 화장이 일을 제일 많이 한다. 돼지도 직접 잡는다. 마을 사람들이 하긴 어렵다. 돼지를 잡으면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이야기꽃을 피우고 제사상에 올릴 돼지머리며 중요 음식 부위를 정리하고 남은 고기를 나누어 먹으며 풍물도 치고 한바탕 논다. 그러면 실질적으론 마량리당제가 시작되는 것이다. 마을 선후배들이 어울려 한 잔씩 술도 권하며 온 마을이 떠들썩해지기 시작한다.

마량리당제는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장승제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당제 내내 서로에게 덕담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흥을 돋운다. 이런 흥겨움을 보면 화장만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이 있다

청양군

| **유재은**(1942년생) 청양군 정산면 신덕길 |

시골에 와서 더 젊어지셨어요



유재은은 정산에서 태어나 정산초등학교와 정산중학교를 졸업하였다. 부모님의 교육열이 있어 서울로 가고 싶었지만 8남매의 맏이어서 그는 형편상 큰집이 있는 부여고등학교를 거쳐 충북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사와 석사를 마쳤다.

충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명지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교수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하였다. 현재 명지대학교 명예교수로 되어 있으나 잊고 지낼 법한 고향에 돌아와 애향심을 돋우며 살고 있다.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짓고 고향을 지키는 것이 그의 희망이었다.

교수로서 대학생활을 하면서 늘 어머니께 들은 외할아버지

의 독립만세운동 이야기는 그에게 올바른 삶의 지표가 되곤 하였다. 한학을 하셨던 외조부께서는 효심도 두터우셨고 또한 굉장히 부지런하셨다. 그런 까닭에 동네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러한 외조부님에 대해 말씀해 주시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교직생활에도 자긍심을 높여 가르침에 모범이 되고자 했다. 더욱이 아버지 어머니의 효심도 지극하여 외할아버지를 직접 모셔서 어릴 적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그의 어머니는 외조부 이야기를 자주 하셨다. 1919년 스무 살의 외할아버지는 서울에서 그리고 각지에서 3·1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정산에서도 만세운동을 해야 한다는 결심으로 큰형님께 만세운동을 하겠다고 하고 '사람을 많이 모으려면 장날에 하자' 하여 정산장날 만세운동을 하기로 사람들과 뜻을 같이했다. 그렇게 만세운동을 하다 왜경에 체포되어 고초를 겪으셨다.

외할아버지가 태형 70대를 맞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들것에 실려 집으로 오셨다 말씀하시면서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시었다. 공식적인 기록에 외조부가 태형 70대를 맞으신 걸로 돼 있어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 독립유공자 예우법에 태형 90대 이상만 인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2018년 말부터 태형 70대도 독립유공자 서훈이 된다는 소식에 정산만세운동 후손들과 2019년 3월 말에 홍성 보훈지청에 외조부의 수형자 명부와 함께 서훈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올 연말에 서훈이 된다니 그의 마음은 뒤늦게나마 기쁘기 그지없다. 지금 이 좋은 소식을 어머니와 함께 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고 마음을 털어놓았다. 3·1절이 돌아오면 그는 늘 일주일 전부터 태극기를 게양하고 나라사랑과 외조부를 그린다. 그에게 외조부를 자랑스럽게 말씀해 주시던 어머니도 그리워진다.

외할아버지의 삶이 후손들에게도 미치는지 그는 무사히 교직생활을 마치고 귀향길에 올랐다. 농사일이 어려울 것이라 말리는 선후배 동료들의 노파심을 뒤로하고 정산으로 내려왔다. 그는 요즘 밤농사도 하고 소도 키운다. 소는 몇백 마리가 된다. 처음엔 도전하면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웃음을 잃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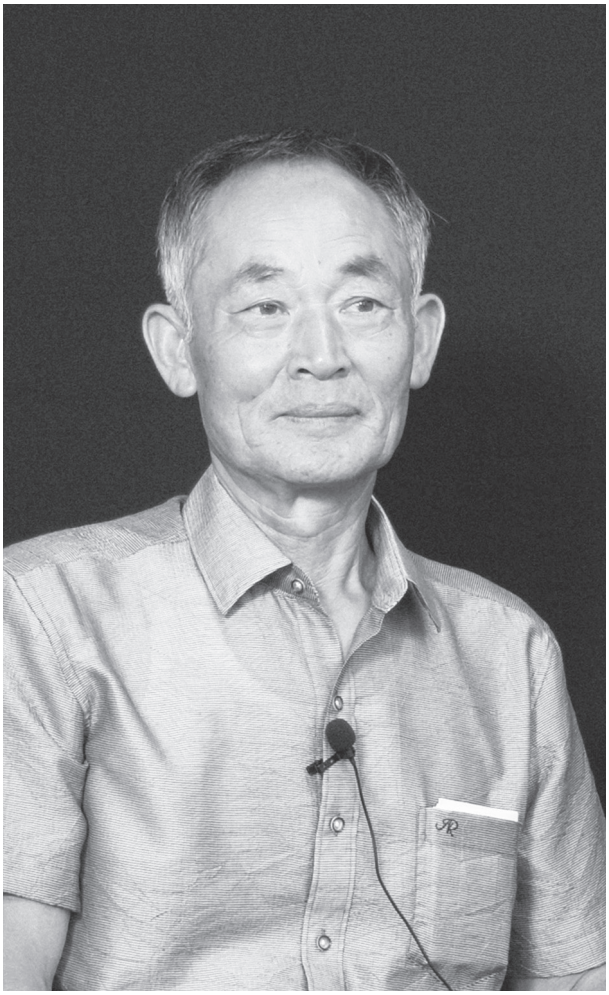
않고 땀 흘리며 고향을 지키고 있다. 가끔은 후배 교수들과 정년한 교수들이 찾아온다, 기대하지 않고 왔다가 잘 지내는 그를 보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한다.

"어? 선배님. 시골에 와서 더 젊어지셨어요."

그는 감사함을 느낀다. 그를 품어주고 받아준 고향에 감사하고 지금도 어디에선가 그를 지켜주고 계시는 외할아버지가 그립고 감사하다.

| **이봉업**(1948년생) 청양군 정산면 서정1리 |

독립운동하신 우리 할아버지



이봉업은 정산에서 태어나 정산을 떠나 본 적이 없다. 3·1 정산만세운동에 참여한 이정길의 손자다. 아버지 이명해의 장남으로 지금도 고향 정산을 지키고 있다. 나이 70이 넘도록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지만 아쉬움은 없다. 증조부, 그 선대로부터 고향을 지켰으니 족히 100~200년의 세월이다.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여 초등학교만 다니고 말았지만 2남 1녀를 거느리고 현재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이봉업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자주 해 주셨다. 원래 할아버지는 쌀 두 가마니를 짊어질 수 있는 건장한 분이셨다고 한다. 이정길 할아버

지는 1919년 4월 5일 전국적으로 번져가던 3·1만세운동이 정산 지역에도 알려지자 독립을 갈망하는 애국심에 정산장에 가서 만세운동을 하셨다. 그때 나이 스물아홉이었다. 낮에는 정산장에서 만세운동을 하고 4월 6일 밤에는 서정리와 신정리 사이에 있는 만세봉에 올라 많은 사람들과 횃불을 밝히고 만세를 불렀다. 그는 적극적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로 인해 왜경에 체포되어 헌병대에서 매를 맞고 풀려났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수도 없이 들으며 컸다. 마음속에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구나' 하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담고 살았다. 십 수 년 전에 정산만세운동 독립유공자 서훈과 관련해 수형인 명부가 발견되었고 그 속에 할아버지 이름이 있어 아버지로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독립유공자의 기준은 수형생활을 3개월 이상 하거나 태형의 기준 90대 이상으로 되어 있어 70대를 맞으신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하였다. '태형 20대가 뭐라고!' 70대나 90대나 태형을 맞았다는 기록을 보면 명확히 만세운동을 하여 태형을 받은 것이고, 70대 정도면 가벼운 형도 아닌데 그 같은 구분만 가지고 서훈을 나눈다는 것이 그는 못내 서운했다.

할아버지가 태형을 받고 집에 실려 오셨는데 옷하고 살이 다 짓이겨 붙어 있었다고 한다. 그 후유증에 골병이 들어 수년간 앓았고 녹록치 못한 살림에 병원을 가지 못하고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골병에 좋다는 인분 치료를 받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았다. 이후에도 왜경들의 감시와 모진 핍박을 받았다고 한다. '태형 20대가 뭐라고!' 못내 아쉬움을 삼키면서 지역의 독립유공자 분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서로 위로하며 지내고 있던 중 올해(2019)부터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다소 낮아졌다는 소식에 3·1정산만세운동 관련자 분들 중 서훈 기준이 맞는 분들과 함께 홍성지청에 독립유공자 서훈신청을 하였다. 이제라도 수형인 명부에 그냥 '범죄자 이정길'이 아닌 '독립운동가 이정길'로 명예회복이 된 것을 그는 고맙게 생각한다.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하다.

왜놈들의 핍박에 녹록치 못한 가정을 꾸려온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태형의 후유증에 시달리신 할아버지의 삶의 무게가 아버지에게 전해지고 그의 유년시절 또한 어려움

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셨다'라는 자랑스러움을 간직하고 유년시절을 보냈다. 그는 이제라도 서훈을 받아 기쁘기 한이 없다고 한다. 자식들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좋다고. '왜 상장이 없어?' 하고 물어볼 손주들에게 유공자 표창을 보여줄 것이라고. 그리고 그에게는 자식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다. '너희도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앞장서길 바란다'고.

| **이강용**(1955년생) 청양군 정산면 관생리 |

독립운동가 이덕현의 손자



이강용은 아버지의 열화에 외지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무학의 한이 많았던 그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애정이 많으셨다. 그 당시 정산에는 고등학교가 없어서 공주로 유학을 할 수밖에 없었고 외지 생활은 그리 쉽진 않았다. 당시 공주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교육도시였다. 대학을 마치고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된 뒤에도 고향 쪽에서 근무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서 부여로 와 명예퇴직을 하였다. 대학원까지 마치고 공직생활을 한 것이 모두 아버지 덕이다. 아버지가 못 배우셨다는 한을 그가 푼 것이지만 실제론 장남에 남다른 애정이 있으셨다. 그는 지금 고향에서 봉

사하며 산다. 의용소방대 활동이 제일 재미있다. 의원 생활도 광복회 생활도 사람들과 부딪치면서 사는 것이 쉽진 않지만 그래도 고향 사람들이 최고인 것 같다고 그는 말한다.

그는 지금도 아버지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하다. '독립운동하신 할아버지만큼만 하거라' 하면서 들려주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자부심과 긍지 그 자체였다. 할아버지 이덕현은 1919년 당시 31살의 나이로 동네분들과 같이 정산장에 가서 만세운동을 하다 권홍규 의사가 순국하자 직접 상여를 메고 장례를 치렀다. 그러다가 헌병에 끌려가서 모진 고문과 태형 90대를 맞았다. 지게에 실려 집에 오는 길 내내 할머니는 우셨고 집에 온 할아버지는 태형을 이기지 못하시고 몸져누워 몇 해를 앓으셨다. 그 당시 가정 형편이 좋지 못해 치료도 못하고 오랜 기간 태형의 후유증에 시달렸다. 결국 해방도 보지 못한 채 1943년에 돌아가셨다. 부부금슬이 좋으셨는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할머니도 돌아가셨다. 얼마나 집안 살림이 어려웠는지 장례 치를 돈이 없어 상여도 못 메고 지게로 모셨다고 아버지는 애통해 하셨다. 특히 해방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일을 가장 안타깝게 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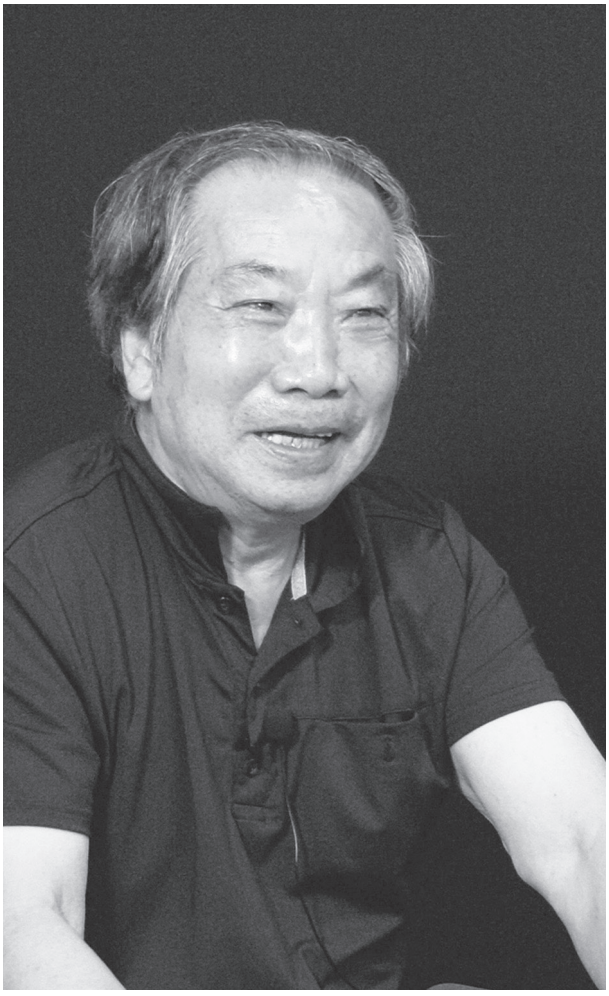
할아버지께선 2004년 8월 15일 광복절에 국가유공자 서훈을 받으셨다. 늦게나마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고 몹시 기뻐했다. 돌아가시고 몇십 년 만에 받게 된 서훈을 아버지와 함께 하지 못하여 못내 아쉽기도 했다. 매년 3·1절이 되면 3·1정산만세운동 현창회에서 치루는 행사에 참여한다. 할아버지도 그립고 감사하지만 아버지 생각도 함께 떠오른다. 올해는 그동안 함께 하면서도 예우를 받지 못하던 태형 70대 유족회 자손들의 서훈이 이루어진다니 더욱 뜻깊은 해이다. 그동안 위로받지 못했던 현창회 회원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이젠 3·1정산만세운동 행사에 자부심과 긍지가 더욱 높아져 내년에는 더 큰 행사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간 광복회와 유족회로 나누는 행태가 부끄러워 많이 아쉽고 송구하였다. 이제 정산이 하나로 뭉쳐 3·1정산만세운동의 정신이 더욱 공고히 뿌리내리고 전승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서울과 천안 등 특정 지역 외에 이렇게 많은 만세운동가의 역사가 정확히 기록된 곳은 없다. 3·1정산만세운동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사의 한편이라 그는 자부한다. 늦게나마 광복회원이 되시는 유족회원들께 그는 다시금 위로와 축하의 말을 전한다.

그는 공직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고향에 오고 싶어 고향 부근에서 근무하기를 자청해 왔다. 그러한 그의 고향에 관한 애정 때문인지 일찍 명예퇴직을 하고 부랴부랴 고향으로 돌아왔다. 농사가 체질인지 고향이 좋아서인지 이만큼 행복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농사만 짓지 못하고 아는 게 병인지 주변에 이것저것 도울 일이 있으면 나서게 되고 고향 발전에 뛰어들어 지방자치 의원도 하면서 갈수록 애정이 깊어짐을 느낀다. 그러나 의회 활동도 그의 열정을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들이 많아 그만두고, 그의 아내도 의원을 했었다고 한다. 이 근방에는 부부 의원이 없다. 남들이 한 명만 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는 부부가 의원 출신이다. 그래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고. 고향 사람들이 그를 아껴줘서 고맙고 이게 할아버지 덕이 아닌가 싶다고 고개를 숙인다. 아니 행복하고 고마운 만큼 고향에 뼈를 묻고 더 잘해야겠다고 말한다.

| **김윤종**(1939년생)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

마지막 봉사



김윤종은 정산에서 태어나 정산초·중학교를 나왔다. 서울로 올라가 고등학교를 다녔다. 그의 나이 아홉 살에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에게 어머니가 들려주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항상 독립운동을 하셨다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독립운동을 하신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셨다. 할아버지께선 일본 사람을 보면 "쪽바리 새끼 지나간다." 하시면서 소금을 뿌렸다 할 정도로 애국심이 깊었다고 한다. 서정리에 가면 '자오교'라는 독다리가 있었는데, 그 독다리에 마을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일본 사람들에게 대항할 궁리를 상의하곤 하셨다 한다.

아마 그곳이 3·1정산만세운동의 시발지였을 것이라 하셨다. 독다리를 중심으로 일본 학생들과 싸움도 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싸우다 일본경찰에 끌려가면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막 소리치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놔주었단다. 그 독다리에서의 작은 항일정신이 정산3·1만세운동의 씨앗이 된 것이라 그는 믿고 있다.

3·1정산만세운동에 참여한 할아버지 김일봉은 일본경찰에 끌려가서 태형 70대를 맞았다. 끌려가서 돌아올 땐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 얼마나 맞았는지 때굴때굴 구르면서 맞았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에게 업혀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계시다가 해방도 못 본 채 돌아가셨다고 어머니는 서운해 하셨다. 어머니는 일본 쪽발이에게 맞고 항일투쟁을 하신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셨고 그 이야기를 듣는 나는 감격했다. '우리 집안에도 이런 훌륭한 할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늘 자랑스러웠고 자긍심 또한 높았다.

늘 그렇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라 왔지만 할아버지는 독립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했다. 일본인의 수형인 명부에 엄연한 기록이 있는 만세운동가인데도 태형 70대라는 형벌이 독립유공자의 기준에 부족하단 이유에서였다. 그동안 할아버지의 법적 지위는 일본인들의 단순 범죄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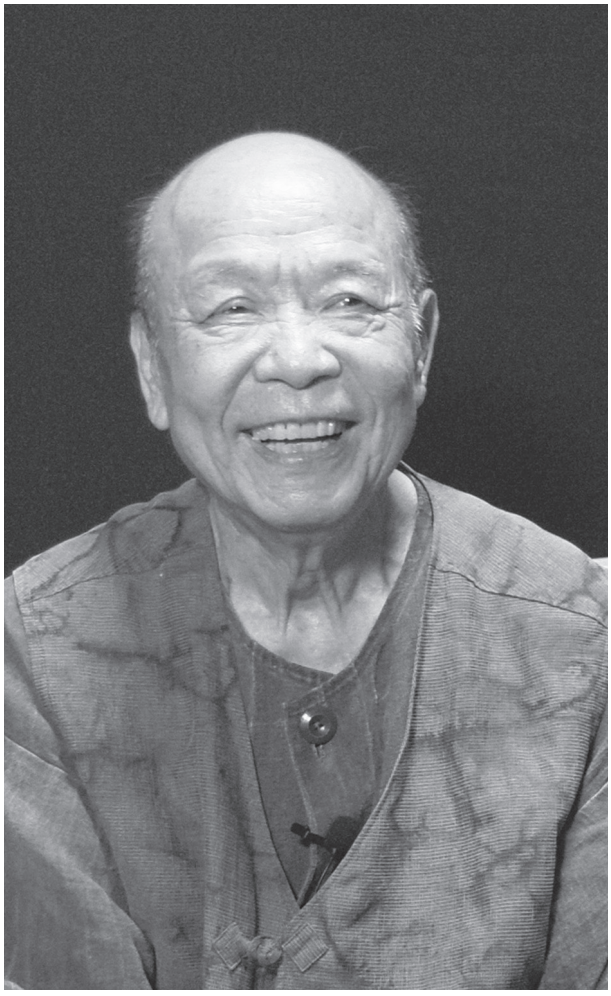
그러다 정산면의 독립운동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3·1정산만세운동 탑이 세워지면서 할아버지의 이름이 기념탑 비석에 새겨졌다. 그는 그 때를 잊지 못한다. 그나마 할아버지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와 불리게 된 것 말이다. 그는 기쁘고 행복하게 유족회 활동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기리는 행사에 참여하고 자식들에게 할아버지 김일봉의 자랑스런 만세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왔다. 이제 8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나라에서 할아버지의 독립유공자 서훈이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온 것은 기쁘기 끝이 없다.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범죄자'로 남느냐 '애국투사'로서 가치를 인정받느냐는 큰 차이가 있다. 명예회복의 길이 열린 것이다.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외지에서 작은 사업을 했지만 마음 한켠에 가지고 있는 고향살이가 그리워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왔다. 따뜻한 환대 속에 자리잡은 고향은 그에게

고마운 삶의 터전이다. 미곡상을 하다가 지금은 요양원을 한다. 미곡상보다 쉽진 않다. 그러나 고향의 어르신들을 돌본다는 명분이 마음에 든다. 어머니가 전해주신 '할아버지께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의리 있는 사나이이셨다'는 말이 그에게 이런 삶을 주신 것 같다고 한다. 내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기억되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되도록 노력하며 살겠다고 그는 다짐한다.

| **윤홍수**(1933년생) 청양군 정산면 효자길 |

정산의 독립운동가들



윤홍수는 청양 목면 사람이다. 어려서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부터 유학을 하였고 중앙대학교를 나와 신풍중학교에서 교편생활을 시작하였다. 한문을 유달리 좋아한 덕에 한약업자 시험에 붙어서 지금은 정산시장 앞에서 연세당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다.

1970년 즈음, 그가 교편생활을 그만두고 고향에 약방을 차리고 있을 때 정산면에서 정산읍지를 만들자는 제의가 들어 왔다. 당시 한문이며 향토사를 잘한다고 평을 듣고 있어서 그런지 면의 유지들이 하나같이 그를 추천했다. 그래서 시작된 정산읍지 작업에 월남파병자도 넣자, 분묘 등 토지 내

용도 넣자 해서 그동안 묻혀 왔던 정산의 옛 일들이 조금씩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대정 8년 4월 5일 정산시장소요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일본인들의 범죄자명부인데 수형자 명부라고도 부른다. 그 안에서 '정산시장소요사건'이 나오는 것이다.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날 때 서울이며 천안 같은 대처에서만 크게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산장에서 일어난 '정산만세운동'은 잘 모른다. 당시 2만 정도의 정산 인구로 볼 때 그 정도라면 오늘날에 견주어도 많은 사람이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을 기록으로 알 수 있다.

정산만세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 수형 태형을 당했다. 정산이 150명이고 목면이 50명이니 이것만도 200여 명이 넘는다. 역사는 추측도 있고 증언도 존재하지만 상대편의 기록만큼 정확한 것이 없다. 그것도 힘없는 백성에 관한 자료는 더 신뢰가 가지 않겠는가. 그 어떤 곳에서도 정확한 기록이 많지 않다. 우리의 독립운동사의 역사적 평가도 일본인들이 작성한 수형자 명부 같은 것들에서 기초하고 있다. 이곳 정산에서 소요사건이 일어났고 일본인들은 '4월 5일 정산시장소요사건'으로 기록해 놓았다. 많은 사람을 잡아다 고초를 주고 심지어 맞아 죽는 사람도 나온다. 정산시장의 비무장 비폭력 만세운동을 하는 우리 백성들에게 총을 쏘아 죽이고 피로 물들인 것도 부족하여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상여를 멘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다고 한다.

어디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이들의 만행은 역사가 심판하겠지만 우리가 그 날을 잊지 말고 전해야 한다. 그는 이 분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도 정산면지에 더욱 매진하여 완성시켰다. 그 후 3·1정산만세운동을 대내외에 알리고 역사에 전하기 위해 현창회를 발족하여 지금까지 '3·1정산만세운동 현창회' 회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다. 그러나 마음 같지 않게 그를 불편하게 만든 것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아내는 돈도 안 되는 일에 힘을 쏟는다고 성화고 예산이 없어 책도 얼마 만들지 못해서 안타깝다. 더욱 그를 힘겹게 하는 것이 자료의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인데 아직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한다.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워서 옛 자료들을 하나둘 파일로 저장하고 있다.

한약을 다루다보니 몸에선 감초 냄새가 난다. 감초향은 마음도 다스려 주는 듯하다.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감초 냄새도 좋듯 감초 같은 삶도 좋기만 하다. 매년 3·1절 날이면 정산면사무소에서 열리는 정산만세운동 추모제에 참석한다. 올해가 3·1 만세운동 100주년이다. 더욱 뜻깊은 한해를 맞이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고 싶다. 그는 이곳 정산은 우리나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말한다.

| **김재풍**(1951년생) 청양군 정산면 내초리 |

정산의 만세운동



김재풍은 경주김씨이고 정산에서 태어나 자랐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어머니가 재혼을 하신 후 할머니 손에 자랐다. 초등학교마저 이곳저곳을 전전하다 다 마치지도 못했다.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할아버지 김동은은 1937년에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일본인이 작성한 수형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 어릴 적 할머니가 자주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하셨다. 왜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하시면서. 어느 날 만세운동 한다고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았는데 저녁에 사람들이 와서 '주재소에 가서 할아버지 찾아오라'고 해서 가보니 심하

게 맞아 쓰러진 할아버지가 있었다 한다. 허리도 못 펴고 쭈그려 앉아 있는 할아버지를 마을 사람들과 업고 왔다고 한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그때부터 정신줄을 놓으시고 정신착란 증세로 집을 자주 나가셨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셨다. 말도 잘 못하고 두려워하며 문을 닫아둔 채 그런 증세를 보이시다가 돌아가실 때에도 마을의 뚝방 아래서 발견되었다 한다. 이런 고초가 그들의 범죄자 명부에 있었다.

3·1정산만세운동의 유공자란 기쁨은 김재풍에게 잠깐이었다. 할아버지의 기록이 태형 70대여서 독립유공자의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소식에 못내 아쉬웠다. 태형 90대로 기록되어 있는 분들은 국가유공자로 바로 인정을 받았지만 태형 70대는 국가유공자가 아니란다. 할아버지는 일본경찰의 고문과 고초에 시달리다 돌아가신 것인데, 서운하고 괴로웠지만 언젠가 인정을 받을 것이라 위로하며 지냈다.

그는 정산 지역의 3·1 만세운동에 관한 유족들이 많아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지내고 있다. 서로 아껴주며 위로하고 매년 열리는 3·1정산만세 충혼제에 참석해서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있다. 그러던 작년(2018)에 태형 70대의 유공자들에게도 정식 서훈이 내려진다는 기쁜 소식이 내려오고 늦게나마 마을 전체가 시끌벅적해졌다. 그동안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과 지청에 서류를 내고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흐뭇했다. 이제라도 국가에서 할아버지의 명예회복을 해준다니 기뻤다. '우리 할아버지도 범죄자가 아닌 독립운동가 김동은이다!'라고 하면서 말이다.

할머니의 말씀도 있었지만 30여 년 전 백곡리 구충사의 비석에서 실제로 확인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보고 그는 할아버지가 정말 만세운동을 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나마 이제라도 할아버지의 만세운동에 대한 대접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현충원에 모실 수도 있다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3·1정산만세운동이 현실적으론 마을 사람들을 둘로 갈라놓았다. 한 편은 유족회고 한 편은 광복회다. 태형 70대와 태형 90대란 기록이 마을을 갈라놓은 것이다. 사실 애국이란 걸 설명할 능력이 없다. 배우지 못한 것이 아픔이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 표창을 손주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기쁘다. 늦게나마 독립유공자의 공로를 인정해 준 정부에 감사한다.

| **김희자**(1944년생) 청양군 정산면 충신길 |

열정으로 지킨 고향



김희자는 서울 동구여상을 졸업하고 체신부 교환으로 근무하다 고향으로 내려왔다. 정산에서 태어나 어린시절을 보냈으나 중학교 갈 무렵 동네 어른들이 '여자가 뭔 중학교여!' 하시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던 오빠를 따라 서울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하는 행운까지 가졌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체신부 교환원 생활을 하다가 건강이 좋지 못해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휴양하라는 의사의 말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이런저런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정산면 백곡리의 홍세표 외할아버지 묘소 밑에 땅을 마련하여

살고 있다. 외할아버지 묘소도 자주 돌보고 고향의 흙과 지내는 삶이 힘들고 고단하지만 마음은 행복하다. 지금도 가끔 정산초등학교 동창회를 여는데 서울에서 오는 동창들이 그녀의 얼굴을 보고, "새카말 줄 알았는데 안 까맣네", 하면서 놀린다.

그녀는 나라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아주는 독립운동가 집안의 손녀다. 의병장 홍범석의 가족이다. 그래서 가족들이 일본인의 감시와 핍박을 유독 많이 받았다 한다. 3·1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 나가려 할 때 일찍 소식을 들은 외할아버지 홍세표는 백곡리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 준비를 하고 주위의 여러분들께 함께해 달라고 전한 뒤, 4월 초순에 정산장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렇게 청양 만세운동이 확산된 것이라 한다.

3·1정산만세운동은 정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였다고는 하지만 원래 백곡리에서 그녀의 외할아버지 홍세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서 시작된 만세운동이다. 그런 연유로 외할아버지께서는 일본헌병에 체포되어 수형생활을 하다가 비참히 돌아가셨다. 외할아버지는 공주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시다가 매를 맞아 돌아가시게 될 때쯤 집에 데려가라 해서 어머니가 교도소에서 모시고 오셨다고 한다. 매를 얼마나 맞으셨는지 구렁이가 온몸을 감은 듯 심한 상처로 뒤덮여 있었다고 한다. 몸에 온통 멍이 들어 있던 외할아버지는 집에 오셔서 바로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머니는 슬픔의 눈물을 많이 흘리시면서 이런 일들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지금도 외할머니의 곱던 얼굴을 그녀는 기억한다. 얼굴이 동그랗고 눈에는 쌍까풀이 있어 예뻤다. 나라에서 유공자 표창과 연금이 나왔지만 어머니는 돈을 못 썼다. '어떻게 아버지 피로 받은 돈을 쓰냐, 난 못 쓴다' 하시면서 그녀의 오빠에게 전부 맡겼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할아버지 연금은 직접적으로 한 푼도 쓰지 않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묘소에 합장을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이유가 생겨 아쉽게도 하지 못하였다.

외할아버지 생전에 그렇게 외동딸을 아꼈다고 늘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어머니는 아흔일곱에 세상을 떠나시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정신을 놓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외할아버지가 일찍 억울하게 돌아가셔서 외할아버지 몫까지 살고

자 하셔서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어머니 돌아가시는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 외할아버지와 합장을 못시켜 드린 것이 못내 아쉽고 언젠가 꼭 합장을 해드릴 것이라 한다. 독립운동가의 딸로 한 맺힌 삶을 살아오신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하고 있다. 딸에게 친정어머니란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지금도 잘 모른다. 그저 문득 그리움이 밀려올 뿐이다.

그녀는 마을 부녀회장도 몇 년하고 적십자 봉사도 하지만 몸이 좋지 못해 봉사를 많이 못한다. 농업인대학도 다니면서 열심히 산다.

| **정명교**(1939년생) 청양군 목면 건지동길 |

독립운동가의 후손



정명교는 영일정씨로 목면에서 태어나 지금도 목면을 지키고 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할아버지께 응석을 부리며 컸다. 가정이 넉넉지 못하여 초등학교만 마치고 농사를 지으며 살았지만 동네에선 성격이 원만하고 후덕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이장을 9년이나 지냈다. 슬하에 3남 3녀가 있어 잘들 성장해 주었다고 자랑한다.

어릴 적 살던 집은 마을 가운데에 있었다. 그래서였는지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놀았다. 옛 집엔 사랑방이 하나 있었는데 어머니가 할아버지 손님들 대접하느라 애를 많이 쓰시던 기억이 선하다. 낮에는 누룽지를 끓여 드리기도 하고

수제비도 끓여 손님들을 대접하였다. 그런 덕에 사랑방에는 손님들이 늘끓었다. 할아버지는 '인심이 후덕해야 잘산다' 하셨다. 그래서인지 가족들이 내내 무탈하게 지냈다.

그는 4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 정구화의 품에서 외롭지 않게 컸다. 할아버지의 막걸리 심부름을 하면서 뒤에서 몰래몰래 한 잔씩 맛보던 기억이 생생하다. 할아버지는 만세운동을 하시다 일본헌병에게 잡혀가서 매를 맞았다. 매를 맞은 할아버지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업혀서 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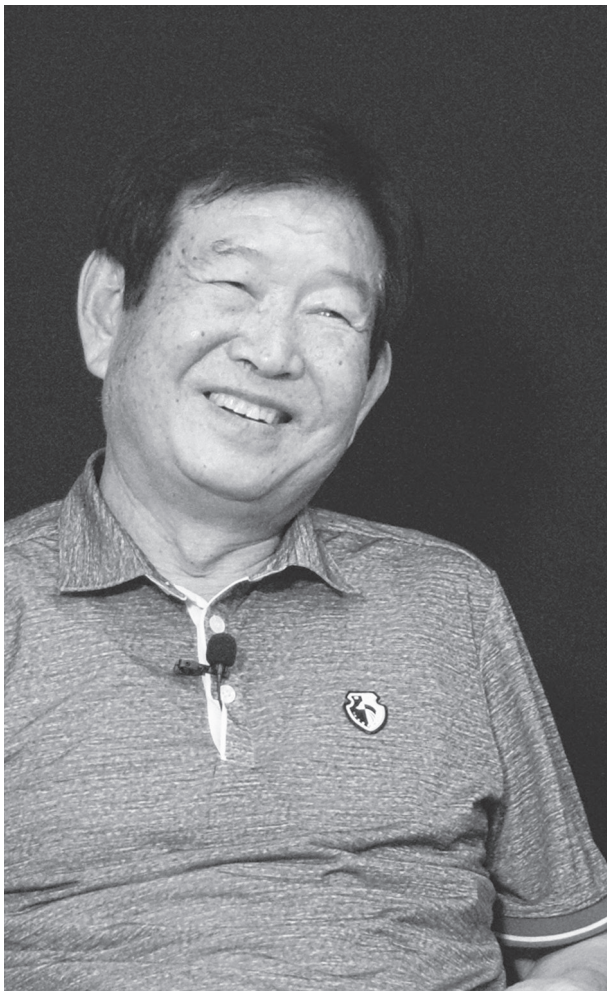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때 그는 초등학교에서 '가라스카와 메이코'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해방이 되고 나니 다시 정명교라는 한국 이름으로 불렸다. 나라 없는 서러움을 어릴 적에 겪었던 그는 일본이 싫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가 만세운동을 하셨으니 유공자 신청을 하라는 것이었다. 할머니나 어머니께 들어온 이야기가 사실로 다가온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처음엔 어리둥절하였다. 곧 할아버지에 대한 수형인 명부와 기록을 통하여 할아버지가 만세운동을 하셨고 매 90대를 맞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덕에 지금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되어 살고 있다.

매달 연금도 나오고 이것저것 돈도 받는다. 나라를 위해 애쓰시고 고초를 겪으신 할아버지께 늘 감사를 드린다. 가족 모두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아무리 바빠도 몸이 불편해도 광복회 모임에 참석해서 같이 하려고 노력한다. 광복회의 고문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어서 더욱 모범적으로 생활하려 하고 있다.

우리 정산에 살아있는 3·1정산만세운동 정신이 잊혀지지 않고 영원히 남았으면 한다. 대통령 표창을 받는 날 '아이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장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이런 상도 받는 구나!' 하고 표창을 받았다. 손주들이 집에 올 때면 '우리 집안은 대통령 표창을 받은 집안이다. 독립유공자 집안이다. 나라에서 나온 돈이지만 '정구화' 할아버지가 주시는 용돈인 것이다. 너희가 고조부를 잘 둔 덕에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나라를 지키며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그는 가르친다. 이번 방학에도 손주들이 온다. 그는 손주들에게 또 그 자랑스런 이야기를 하려 한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답게 자랑스럽게 살자!'고.

| **박기진**(1947년생)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

고향에서 찾은 할아버지 명예



박기진은 교정공무원 출신이다. 정산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부터 유학생활을 하여 공주시 공무원을 시작으로 교정공무원으로 자리를 옮겨 타지에서 27년여를 지내다 고향에 돌아왔다. 세상이 3번 바뀐다는 30년 세월이지만 고향은 변함없이 그를 반갑게 맞았다. 뒤늦은 유족회 활동이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어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다.

불행하게도 5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일찍 가장이 되어버린 그는 할아버지 박철용 슬하에서 성장하였다. 할아버지는 큰 나무처럼 그의 곁을 지켜주셨다. 스무 살로 성장하는 동안 할아버지께서는 건재하

셨고, 아버지가 없는 그늘을 대신 채워 주셨다. 할아버지는 키도 크고 수염도 멋있게 기른 어른이셨다. 엄하신 할아버지는 특히 성묘를 가면 윗대조 할아버지 산소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돌도록 했다. 가끔 만세운동하신 이야기를 하셨지만 단순한 이야기로만 들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만세를 부르다가 일본 헌병에게 매 맞고 왔었다고만 말씀하셨다. 아팠던 기억이라 다시 생각하기 싫으셨는지 우리에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곤 그 이상 이야기를 안 해 주셨다.

퇴임 후 얼마 되지 않아 정산면에서 연락이 와 할아버지 박철용의 만세운동에 관하여 듣게 되었다. 대단한 소식이었다. 할아버지가 큰일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향에 와서 새로운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이후 3·1정산만세운동 유족회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고, 더 부지런히 살고 있다. 그런데 더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게 한 것은 똑같은 유족인데 태형 70대를 맞은 분들과 태형 90대를 맞은 분들의 후손에 대한 처우가 다른 것에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였다.

태형 90대 맞은 분들의 후손은 광복회란 이름으로 예우를 받으며 지냈고, 태형 70대 맞은 분들의 후손은 그저 유족회란 이름이 전부였다. 그 어떤 지원과 예우가 없었다. 그 불공평을 도지사에게 따지고 군수에게 따지고 해서 미운털이 박히지나 않았는지 모른다. 마침내 올(2019) 11월 17일에 태형 70대를 맞으신 분들께도 서훈이 내려진단다. 그는 매우 기뻤다. 대단하신 할아버지가 계셨다는 자부심은 노년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나라사랑의 길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지를 그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그는 그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에 대해 겉으론 속을 드러내지 않는다. 유족회와 광복회가 3·1절 행사 때 같이 모이면 환하게 웃으면서 담소를 나눈다. 그러나 속으론 유족회와 광복회가 반목을 가지고 있어서 늘 부담이 많았다. 심지어는 같이 행사를 하면 안 된다는 말들도 나오기까지 하였다. 이제 11월 17일이 지나면 다 같이 광복회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니 몹시 기쁘다. 유족회이면서 독립유공자라는 공식적인 이름이 없었던 분들께 늦게나마 국가에서 유공자 인정을 해 주셔서 참 다행이다. 그는 이제 '우리도 떳떳한 독립유공자의 후손들 입니다!' 하면서 힘껏 외치고 싶다.

| **한철상**(1948년생) 청양군 정산면 대박리 |

애국의 고초와 보상



한철상은 정산에 태어나 정산에서 중학교를 나왔으나 군대를 제대한 후 고향을 떠나 10여 년간 타지에서 생활하였다. 젊은 혈기에 고향을 떠나 뭔가 자신 있게 해보고 싶었으나 오래 견디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초가였던 옛집의 지붕을 함석으로 올리고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 함석지붕이 많이 상해 있었다. 그것을 슬라브로 고치면서 마음 한켠에는 고향으로 돌아온 그를 반기는 옛집이 너무 좋아 이젠 끝까지 고향을 지키리라 다짐했다. 방황하던 그를 반겨주는 곳은 역시 고향뿐이었다.

어릴 적 효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할아버지의 방에 군불을

때던 생각이 난다.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셨고 부지런하셨다. 건강한 동안 일없이 놀면 안 된다고 이것저것 일을 하셨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틈틈이 가마니를 짜 정산장에서 파셨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놀고 게으르게 지내는걸 보기 싫어하셨다. 정산장에 가서 무엇인가를 팔고 오실 때는 꼭 생선이라도 사들고 돌아오셨다. 키가 크셨던 할아버지가 외출하실 때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나가시던 뒷모습이 그는 아직도 생생하다. 부지런하고 억척스러웠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언제나 깔끔하셨다. 할아버지와 화롯불에 밤나무를 넣었다가 가스 연기에 고생했던 기억이 지금도 그립다.

말수가 적었던 할아버지는 만세운동을 하고 겪은 고초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해 주셨다. 젊은 몸이었다지만 태형 90대라면 죽을 만큼 맞았다는 이야기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위한 만세를 불렀는데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고초가 컸을까. 그때 그 일이 악몽이 되어 늘 마음속에 어두운 기억, 아픈 기억을 떠올리기조차 싫었을 것이다. 심지어 아버지께도 할아버지의 만세운동에 관하여 듣지 못했다.

2000년대 들어와서 3·1정산만세운동의 발굴과 계승사업이 벌어지자 그때서야 전모가 밝혀졌다. 나라를 위해 독립만세운동을 하고 그 고초를 겪었으나 시골의 촌부는 어떻게 나라에 보상해 달라 이런 것들을 할 줄 몰랐다. 마음속에 아픈 기억을 담고 있으면서도 국가가 할아버지에게 어떤 예우를 해 주어야 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아니 할아버지께서는 나라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른다.

그는 자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정산은 만세운동을 크게 했다네!' 정도로 들으면서 컸지만 그 정산만세운동에 주인공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기에 가능했다. 3·1만세운동이 재조명되면서 그의 삶도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광복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고초로 이 나라를 지켜냈고 할아버지의 애국정신이 가족에게 대물림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다. 그의 가족들 모두는 '한천봉' 할아버지의 만세운동에 감사와 존경을 드리고 독립운동가의 후손답게 애국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한다.

| **이두영**(1939년생) 청양군 장평면 구룡리 |

서훈의 날이 오면



이두영은 장평 사람으로 장평을 지키며 산다. 중학교를 마치고 장평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일찍이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나 장평농협으로 옮겨 25년 정년퇴임을 하였다. 부여중학교도 집과의 거리 때문이지 외지로 나가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아쉽게도 조부께서 국가의 유공자 인정이 안 되었지만 유족회 활동을 하며 자긍심을 갖고 있다.

아버지는 늘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 하셨다. 할아버지 이만용은 체구가 장대하고 인품이 좋았으며 가족에게 잘하고 마을 사람들의 일에도 나서서 도움을 많이 주는 분이었다. 1919년 3·1정산만세운동은 서

울보다 조금 늦었지만 전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격렬했던 지역이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만세운동하면서 일본인들과 싸우다 붙잡혀 가셨다는 이야기를 해 주시곤 했었다.

할아버지는 1919년 4월 5일부터 정산장에서 7일 동안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들고 만세운동에 참여하고 청양 헌병분견소에 끌려가 태형 70대를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할머니가 모시고 왔다고 한다. 할머니와 가족들이 정성으로 치유하였으나 태형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다가 3년 만에 돌아가셨다. 그 때 아버지 나이가 17세로 일찍 가장이 되어 고생을 많이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두영은 어린 마음에 그런 상황을 잘 모르고 컸다. 그냥 '우리 할아버지도 만세운동을 하셨대!' 하며 잊고 지내오던 2000년 초에 3·1정산만세운동 현창회 회장 윤홍수로부터 3·1정산만세운동에 관한 전말을 듣고 찾아가 정산읍지에 3·1정산만세운동 관련 수형인 명부에 '이만용' 할아버지의 이름이 실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땐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누구와 이 일을 함께 하기엔 당황스러웠지만 수형인 명부에 나온 후손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명예회복을 기리며 보훈처를 찾아갔다. 보훈처에선 태형 90대를 맞은 분들까지만 유공 서훈을 하고 태형 70대를 맞으신 이만용 할아버지와 많은 유족들에겐 유공 인정이 안 된다 했다. 그래도 이만용 할아버지의 이름이 일본인의 수형인 명부에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고마웠다. 나라를 위하여 만세운동을 한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자긍심이 우러났고 일본인에게 태형을 받으시느라 고초를 겪으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다. 더욱이 할아버지가 태형의 후유증으로 앓다가 3년 만에 일찍 돌아가셨다 하니 일제의 만행에 분노가 끓어올랐다. 일찍 가장이 되어 고생하셨을 아버지도 생각이 났다.

태형 70대에도 돌아가신 분인데 왜 태형 90대와 차별하는지 탄원서도 써 보았으나 소용없었다. 그래도 나라사랑의 뜻을 기리고자 유족회를 만들어 매년 3·1절이 되면 충혼제를 올리고 유족들과의 단합을 위해 서로 돕고 지내려 노력했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2018년 말에 나라에서 태형 70대 맞으신 분들께도 유공 인정을 해 주신다 하니

늦게나마 다행이 아닐 수 가 없다. 유족회 모두가 잔치 분위가 되었지만 그 누구도 유공자가 된다는 기쁨보다는 '죄수인 명부'에 실린 할아버지가 아닌 '독립유공자'라는 명예회복에 감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애국지사들에게 나라는 어떤 예우를 해야 하는지 다시금 돌아볼 때가 아닌가 싶다.

그동안 유족회장 직을 수행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보듬으며 지내왔다. 광복회와의 차별적 처우가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었지만 나라사랑의 마음은 유족회나 광복회나 한결같다고 늘 회원들에게 강조해 왔다. 그러던 차에 이제나마 유공자 서훈이 이루어진다 하니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광복회나 유족회나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선조들의 뜻을 비교하지 않고 지내 왔다고 자부한다. 이제 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한 유족회분들의 서훈의 날이 다가 오고 있으니 좋다. 모두들 지청에 서류를 내고 오면서 한마디씩 하였다. 앞으로 더욱 잘해 보자고.

| **조태준**(1952년생) 청양군 정산면 새울길 |

죄인 아닌 독립운동가의 후손



조태준은 청양군 정산이 고향이며 정산을 떠나 지낸 적이 별로 없다. 지금도 정산에서 농사를 지으며 산다. 아버님은 엄하셨지만 할아버지 조재창의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 손주를 평생 너무도 아꼈던 할아버지가 만세운동을 하셨고 독립유공자 된 것이 무척 기뻤다.

어린시절 기억에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버지와 비슷했던 걸로 기억한다. 할아버지 아버지 두 분 다 덩치가 크시진 않았다. 아버지도 그랬지만 할아버진 시조를 잘하셨던 걸로 그는 기억한다. 가끔 저녁 무렵이면 마루에 앉아 시조를 하시곤 했는데, 마을 분들이 몇 분들이

오셔서 같이 듣던 기억이 난다.

할아버지는 만세운동에 관한 말을 하지 않으셨다. 일본경찰에게 끌려가셔서 맞았던 고통의 시간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리가 없었다. 할아버지의 만세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아버지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가 할아버지의 만세운동 때문에 겪은 고초에 관한 이야기를 할머니께 들어서 알게 되었다.

1919년 만세운동 때 할아버지는 삼형제 분들과 같이 정산장에 가셔서 만세운동을 하고 도망쳐 오곤 했다 한다. 저녁이면 만세봉에 모여 횃불을 들고 만세운동을 하였다. 그런데 정산장에 갔다가 일본경찰에게 붙잡혀 끌려갔다고 한다. 이 때 삼형제가 다같이 끌려갔다. 모두 태형 70대를 맞고 돌아오셨다. 조재창, 재명, 금복 이렇게 삼형제가 다 같이 만세운동에 고초를 함께 겪은 것이다. 그 때 마을에서 한 가족 모두가 참여한 유일한 집이었다고 한다. 조재창 할아버지는 태형을 받은 후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노망이 와서 돌아가실 때까지 전 가족이 고생을 했다. 이에 할머니는 늘 일본인들이 할아버지를 그리했다며 억울하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러나 어린시절의 이야기는 단순히 할아버지가 고생하셨고 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는지 몰랐다.

2004년 정산에 3·1만세운동에 관한 재조사와 발굴사업이 진행되면서 마을 어른들로부터 '조재창'의 이름이 나오고 할아버지가 만세운동을 하셨다는 진실이 세상에 밝혀진 후 정산면지에 정산만세운동에 관해 기록되었고 그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니. 그러나 그 당시의 현실은 일본인의 죄수 수형인 명부에 할아버지의 제목은 죄인으로만 기록된 것이 전부였다. 태형 70대를 맞으신 분들은 독립유공자가 아니라는 소식에 그저 죄수로 남아야 하는 현실이 몹시 안타까웠다. 그때 정산에서는 태형 90대를 맞아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분들과 태형 70를 맞아 단순히 만세운동 참가자로 격하된 분들이 유공자는 광복회로 단순 가담자는 유족회가 되어버린 웃지 못할 현실이 되어 마을 사람들끼리 서먹한 충혼제를 지낸 일이 생겨났다. 유족회의 가족 대부분은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2018년 말 햇빛 같은 소식이 정산에 들려 왔다. 이곳 정산에는 만세운동을 하고도 태

형 70대여서 독립유공자가 되지 못하고 죄인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조태준은 늘 마음속에 감추고 지내온 슬픔을 딛고 이제 나라에서 태형 70대를 받으신 분들의 명예회복을 해 주신다 하여 유족회 분들과 지청에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제라도 죄수의 후손이 아닌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살아갈 날들을 기대해 본다. 이제 어깨를 펴고 후손들에 나라 사랑의 길을 설명하고 나라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가르쳐 주고자 한다.

| **윤일수**(1954년생) 청양군 목면 오살뫼길 |

청양군 광복회



윤일수는 청양 목면에서 태어났으나 일찍이 외지에서 수학하였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대전에서 공부한 뒤 전매청을 다니다 보세 사업을 하다가 모두 접고 고향의 애경산업에서 정년을 하였다. 고향은 결국 돌아오는 곳이다. 잠깐 화양리 이장도 해보고 지금은 부여, 서천, 청양 연합지회 광복회 일을 맡고 있다.

19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지에서 공부하다 온 아들에게 어머니는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해 주셨다. 할아버지 윤기원은 기골이 장대하여 돌아가신 후 묘소를 국립묘지로 이전하는데 관이 커서 애를 먹었다 한다. 그런 분

이 일본헌병에 끌려가셔서 태형 90대를 맞고 돌아와 장독으로 3년가량 앓다가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고, 어머니는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다. 할아버지가 만세운동하다 체포되어 태형을 받는 사건으로 집안은 일본경찰에게 불온자 가족으로 찍혀 헌병의 감시와 핍박 속에서 살아야 했기에 아버지는 왜정 때 학교도 못 다니셨다. 더욱이 집안에 홍주의병 등 독립운동하신 분들이 있어 곤란을 겪으며 살았다고 한다.

일본경찰한테 만세운동하다 맞은 억울했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할머니께서 우셨다는 이야기가 그에게 현실로 다가온 것은 2004년~2005년경에 3·1정산만세운동에 관한 조사를 한다며 현재 3·1정산만세운동 현창회 회장 윤홍수의 권고로 같이 찾아보았을 때다. 할아버지에 관한 기록을 보고 그때부터 그는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 후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당시 어머니가 왜 할머니의 한 맺힌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지 알게 되었고,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나라의 예우를 받는 게 감사했지만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고초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래서 지역의 독립 유공자 후손들을 위하여 봉사해 보고자 결심하고 광복회 지회를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다.

당장 광복회 지회를 설립하려니 설립조건에 인원이 부족하여 부여로 서천으로 다니면서 부여, 서천, 청양 연합지회를 설립하였다. 조금이나마 할아버지의 나라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고자 열심히 광복회 연합지회를 위하여 일했다.

최근 더욱 감사한 일은 올해부터 태형 70대를 받으셔서 유공자 후손의 예우를 못 받으셨던 유족회분들의 서훈이 이루어진 것이다. 3·1만세운동 기념일이나 현창회 모임에서도 보이지 않는 서먹함이 있어 늘 불편했었기 때문이다. 이제나마 독립운동가분들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고 후손들이 예우를 받게 되었으니 기쁘고, 유공자 유족회가 아니고 광복회 활동을 함께 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기쁘다.

막상 광복회 연합지회가 설립되고 광복회 활동을 하려고 보니 청양군민 대부분이 3·1정산만세운동에 대한 '이 지역의 커다란 자랑'을 잘 모르고 있었다. 2005년 연합지회를 창립한 광복회는 애국 함양의 운동으로 집집마다 태극기 보급운동을 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어려움 속에서도 '태극기 나눔의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엔 청양군의 지원도 받게 되어 훨씬 수월해졌지만 매년 광복회의 주머니를 털어 사업을 진행하느라 어려움이 많았다. 집집마다 태극기가 휘날리길 바라며 '태극기 나눔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청양의 독립운동가분들의 산소 돌보기, 유적지 정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종국**(1954년생) 청양군 정산면 와촌리 |

소문난 효자 집안



이종국은 9대째 독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서인지 할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여름에 낮잠을 자려 하면 손주가 벌레한테 물릴까봐 늘 곁에서 부채질을 해주셨다. 당시 어른들이 장수한 덕분에 4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으로 살면서 어릴 적 증조부를 모시는 집안에서 자랐고 부근에서는 보기 드문 효자 집으로 소문이 나서 효자상을 대대로 받았다.

증조할아버지 이명하는 성격 좋고 건강해서 마을의 두레패 좌상도 지내셨다. 1919년 정산 만세운동 당시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권 의사 장례식에 갔다가 일본헌병에 체포되어 태

형 70대를 맞았다. 만세운동 당일 처음에는 300명 정도였던 마을 사람들이 700여 명으로 불어나자 일본헌병대가 위협을 느껴 총도 쏘고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다. 그때 여럿이 돌아가셨고, 증조할아버지도 헌병대에 끌려가서 고초를 겪었다. 이때의 기록이 일본인들의 수형인 명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태형을 맞고 돌아오는 길에 거동이 힘들어 겨우 집으로 올 수 있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병원을 못 가고 집에서 찜질하며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를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다행히 오랜 투병생활을 겪진 않았지만, 일본헌병의 감시를 받는 생활이 여전히 끔찍했었다고 한다.

그는 어린시절, 증조할아버지의 장례식에 온 동네 주민이 참석해 함께해 주었던 기억이 난다. 증조할아버지에 관하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말씀해주긴 했지만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서 산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그렇게 하셨단다' 정도로 여기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3·1정산만세운동의 발굴 사업이 진행되면서 증조할아버지의 명예회복이 되어가니 모두들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하지만 당시 기쁨은 잠시뿐 태형 70대는 국가독립유공자로의 자격이 미흡하여 서훈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며 오히려 마음이 착잡했다. 그냥 독립운동도 하셨다 정도로 알고 말 걸 그랬지 일본 수형인 명부에 범죄자로 적힌 것을 알게 된 순간 오히려 뭔가 잘못된 듯한 마음이 들어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다. 정산의 만세운동엔 많은 분들의 희생이 담겨 있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태형 70대는 유공자 인정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조금은 답답했다. 3·1절에 한데 모여 같이 추모 행사를 한다지만 유족회와 광복회간에 뭔가 비교되는 마음 한편을 감추지 못했다. 일본헌병들에게 당한 것을 생각하면 같이 억울하고 같이 고통을 받았는데 태형 20대의 차이로 서훈이 되고 안 되었으니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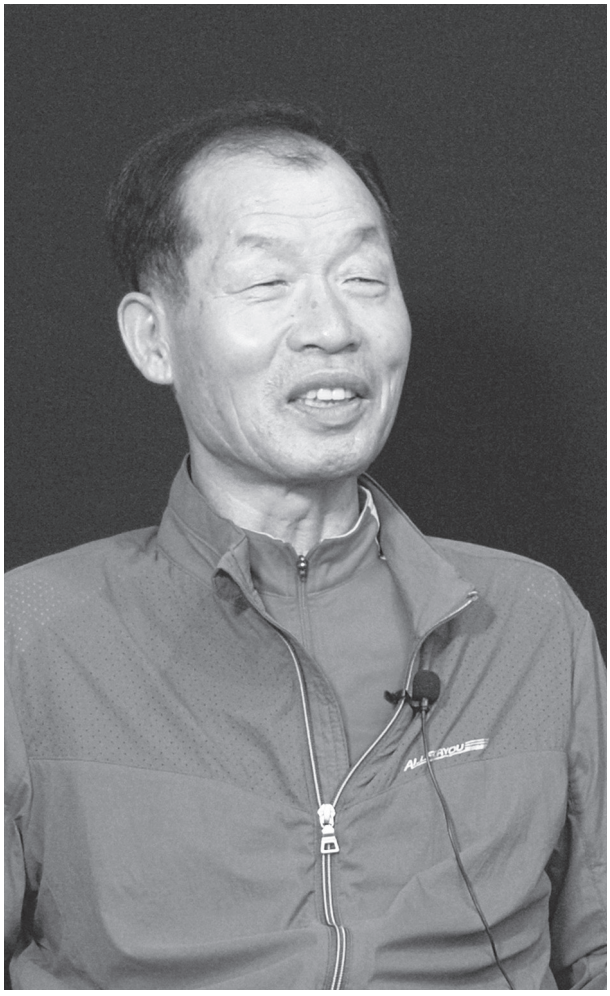
2018년 국가 유공자의 서훈 기준이 다소 하향되어 태형 70대도 유공자 인정을 한다는 소식에 마을이 들썩였다. 그동안 유족회와 광복회로 나뉘어 서로가 서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번 서훈 조정을 크게 환영하였다. 부랴부랴 유족회에서 서류를 준비하고 홍성지청에 서류를 제출하고, 뜻을 같이 했던 사람들과 서로 위안하며

내려오면서 늦게나마 증조할아버지의 명예회복에 마음이 놓였다.

그는 이 일로 당연한 일을 하고도 위로 받지 못하는 세상이 얼마나 슬픈 세상인지 알게 되었다. 이곳 사람들은 그 명부를 수형인 명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죄수인 명부라고도 부른다. 유족회 분들의 대부분은 죄수인 명부로 남았다고 한스러워 하였는데 이제 '범죄자 이명화'에서 '독립유공자 이명화'의 증손으로 거듭나서 그는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대대로 효자 집안으로 자랑하며 살았던 집안, 이젠 당당히 효자 독립운동가 집안으로 그는 더욱 멋진 생을 살려 한다.

| **임용대**(1953년생)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

독립운동가의 후손



임용대는 풍천임씨로 정산 토박이다. 정산 서정리에서 태어나 정산을 떠난 적이 없다. 그가 마을에서 어떻게 살아 왔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 것 같은 인심을 가진 시골 동네에서 이장만 24년을 한 사람이다.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이지만 마을의 궂은 일을 도맡아 했다. 친근한 미소와 구수한 사투리로 고향을 지키며 봉사고 있다.

2005년~2008년에 정산면 사무소에 3·1정산만세운동 기념비를 만들어 세울 때 할아버지 임득행이 만세운동을 한 유공자인 것을 알았다. 어릴 적

에 간간이 들었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동네 사거리에서 주막 같은 식당을 하셨다는 것, 주막에 마을 분들이 모여 일본 놈들 욕을 많이 했다는 것, 만세운동을 하셨다가 곤욕을 치르셨다는 것 정도였다. 그러니 기념비 건립 소식은 놀라웠고 그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자부심도 생겨났고 고향에 대한 애착과 책임감도 생겨났다. 그래서 유족회의 발족과 함께 유족회의 사무장 등 총무를 맡아 유족회의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였다.

그런데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기쁨도 잠시뿐이고 알고보니 그의 할아버지는 일본인들의 수형인 명부에 단순히 범죄자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분명히 3·1 만세운동 때 정산장에서 만세운동을 하였다가 일본헌병대에 끌려가셔서 태형을 맞은 기록이 존재하는데, 단지 태형이 70대여서 유공자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다. 태형 90대는 유공자로 인정을 받는데, 70대라고 안 된다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보훈지청에 따져 보았으나 안 된다는 말만 되돌아왔다.

그는 유족회 총무를 보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에 청양군에 가서 소란을 피웠던 일이 있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연간 200만원씩 나오던 유족회 지원금이 400만원으로 올랐다. 광복회는 연간 1,000만원을 받는다. 물론 규정에 따라 구분을 하는 것이겠지만 나라 위해 투신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하는 생각에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일제시대의 수형자 명부에 남아 있는 '범죄인 임득행'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열렸다. 작년(2018)부터 태형 70대 맞으신 분들도 독립유공자 서훈을 해 준다는 기쁜 소식이 와서 홍성보훈지청에 서류를 접수하고 오던 길이 왜 그리 가벼웠는지 모른다고 한다.

그는 서정리 이장으로서 청년회활동도 하면서 마을의 좋은 일 궂은일 찾아다닌다. 마을에 광역상수도가 없어 공공기관을 찾아다니며 동분서주했다. 군으로 면으로 해보아도 안 되자 국회의원 특별면담을 통해 설득해서 결국 광역상수도를 끌어왔다. 이장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는 지금도 뿌듯하다. 그는 '임득행' 손자라는 말이 제일 듣기 좋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고향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의무요 자랑이다.

홍성군

| **김정만**(1943년생) 홍성군 광천읍 |



옹암포구의 흥망성쇠

김정만은 옹암포구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일평생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의 조상은 대대로 안면도에서 살아왔다. 아버지가 결혼하여 옹암포구에 정착하면서 육지로 나오게 되었다. 어린시절은 옹암포구의 전성기였다. 안면도를 비롯한 서해 도서지방에서 잡아 올린 해산물은 거의 모두가 옹암포구를 통해서 육지로 이동했다. 옹암포구는 광천읍 옹암리에 있는 작은 포구마을이다. 마을 산아래에 옹기와 비슷한 바위가 있어서 '옹암(甕岩)'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옛날에는 '독바위'라고 했다. 발음이 변하여

'독배'라고 불렀다. 지금도 옛사람들은 '독배'라는 이름을 즐겨 사용한다.

옹암포구는 물산이 풍부하고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이 많았고 사람들로 붐볐다. 옹암포구로 들어오는 배들은 포구 밖에 있는 피섬 부근까지 줄지어 대기했다. 밀물 때 배가 들어오고 썰물이 되면 물이 얕아져서 배가 움직일 수 없었다. 배들은 당일로 나가지 못하고 물때를 맞춰서 하루를 묵어가야 했다. 이런 이유로 포구에 사람들이 많이 북적거렸다.

포구에 들어오던 배는 주로 세 종류였다. 상고선과 장배와 어선이다. 상고선은 고기장사 배이다. 장사배들은 바다로 직접 고기잡이배들을 찾아다닌다. 바다에서 어선들이 잡은 고기를 직접 구입하고 옹암포구로 싣고 들어와서 매매하는 배이다. 상고선은 해산물을 중계하는 배들인 것이다. 장배는 광천으로 장을 보러 오는 배들이다. 옹암포구의 배후에는 광천시장이 있다. 장항선 일대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었다. 광천 정기시장은 4일과 9일이다. 옹암포구를 통해서 입항한 배들은 광천장으로 물건을 싣고 와서 팔기도 하고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여 도서지방으로 갖고 갔다. 옹암포구에는 광천장이 서는 안날에 장이 섰다. 3일과 8일에 옹암포구에서도 장이 섰다.

어선은 고기잡이 배이다. 인근 도서지역 바다에서 잡은 고기들을 직접 갖고 와서 파는 배이다. 고깃배가 들어오면 고기를 구입하려는 상인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든 해산물들은 옹암포구에서 매매가 이뤄졌고 객주들이 매매를 담당했다. 배들이 들어오고 매매가 이뤄지면 노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하역작업 등을 했다. 큰 자본 없이 맨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일자리였다. 이런 이유로 옹암포구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옹암포구 뒷산 언덕에는 집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한참 번창하던 시기에는 마을에 320여 세대가 살았다.

옹암포구는 1960년대까지 전성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이후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쇠퇴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첫째는 교통로의 변화이다. 1970년에 안면도 연육교가 세워지면서 서해 도서 지방에서 육지로 이동하는 교통로가 변화를 맞이했다. 굳이 배를 타고 옹암포구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가까운 서산이나

태안장을 보러 다닐 수 있었고 육지 내륙으로 더욱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안면도 연육교의 설치는 옹암포구로 들어오는 인구와 물동량을 현저히 줄어들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 둘째는 옹암포구의 토사 유입과 갯고랑의 변화이다. 옹암포구에서는 1960년대에 수 년간 금배가 사금을 채취했다. 중앙대 총장을 역임했던 분이 옹암포구 갯고랑을 파헤치면서 사금채취사업을 벌인 것이다. 사금을 채취하면서 갯고랑을 파헤쳐놓음으로써 뱃길이 좁아지고 불편해졌다. 또한 육지 쪽에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바다 깊이가 낮아졌다. 이런 이유로 배들의 접안이 점점 어렵게 되었다. 셋째는 수협의 횡포이다. 옹암포구를 통해서 유입되는 해산물을 매매하면서 수협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 것이다. 이에 불만을 갖고 있던 도서 지방 어민들이 옹암포구를 외면하게 만든 원인이 있었다. 이외에도 동력선이 건조되면서 배의 접안이 쉬운 대천이나 오천항을 많이 이용하게 되었다. 갯고랑이 좁은 옹암포구보다는 편안하게 접안할 수 있는 대천항이나 오천항을 이용하면 당일치기로 육지를 왕래할 수 있는 이점이 생겨났다. 조수간만의 차이로 하루를 묵어야 하는 옹암포구보다는 인근 항구를 이용하는 것이 경비와 시간을 줄여주었다.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던 중에, 1990년대에 보령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옹암포구에는 완전히 배가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옹암포구는 완전히 폐항되었고 광천시장도 함께 침체되기 시작했다. 홍보지구 방조제가 설치되면서 옹암포구 주민들에게 좋은 점이 한 가지 생겼다. 그것은 수시로 마을을 덮치던 해일 피해를 방지해준 것이다. 옛날에는 갯고랑을 타고 들어온 바닷물이 밀물 때와 겹치면서 수시로 마을 저지대를 덮쳤다. 마을 저지대 주민들의 해일 피해는 연중 수시로 겪는 일이었다. 해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으로 제방을 쌓았지만 완전히 막아낼 수는 없었다. 홍보지구 방조제가 설치되고 바닷물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해일 피해가 없어졌다.

다행히도 옹암포구는 1960년대부터 '토굴새우젓'이 유명했다. 윤병원이라는 분이 금광의 폐광된 토굴에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법을 알아냈다. 이것이 광천 토굴새우젓 유래이다. 새우젓은 상온에서 숙성시키면 상하여 고랑젓이 되기 십상이었다. 토굴은 연중 온

도의 변화 없이 14도 정도를 유지한다. 질 좋은 새우젓을 생산하여 유통시키기 시작했다. 당시에 노동자들도 많은 덕을 보았다. 토굴 파는 품삯이 다른 노동일보다도 몇 배 더 비쌌다. 토굴에서 숙성된 새우젓으로 포구가 사라진 옹암포구의 명맥을 이어갔다. 광천시장을 비롯하여 옹암포구 토굴과 시가지에는 요즘도 토굴새우젓가게가 성업 중이다.

옹암포구가 번창할 때는 뒷산에서 지내는 당산제도 상당히 성황리에 실시되었다. 매년 소를 잡고 생기복덕을 살펴서 흠이 없는 사람을 제주로 선정했다.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합심하여 바닷길의 안전과 풍어와 마을의 안전을 기원했다. 풍어제가 끝나면 개인별로 신당에 올라가 치성을 드리기도 했다. 당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온다. 하지만 지금은 당산제도 사라졌다. 기독교 등 종교의 다양화로 인한 이유도 있고 젊은 세대들은 당산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다. 몇 년 전까지는 마을 노인회 주관으로 당산제를 지냈는데 지금은 그마저도 명맥이 끊어졌다.

| **신진옥**(1936년생)홍성군 광천읍 |



웅암포구의 새우젓과 액젓 공장

신진옥은 웅암포구가 고향이 아니다.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조상들은 대대로 효자도리에서 배 사업을 운영하며 살아왔다. 그는 고향에서 배 사업을 몇 년 동안 해왔다. 젊은 시절에 배를 타고 웅암포구를 자주 들락거렸다. 직접 잡은 해산물 등을 웅암포구를 통해서 매매하고 필요한 물건을 구입해오곤 했다. 그런 과정에서 늘 번창한 포구를 동경해오다가 결혼하고 20대 후반 무렵에 웅암포구로 이사를 왔다. 이사 올 때는 슬하에 1남 2녀를 두고 있었다. 웅암포구로 이사 와서 1남 1녀를 더 낳았다. 모

두 5남매를 두었다.

그는 옹암포구에 살며 장래성 있는 새우젓 도·소매 사업을 구상했다. 당시 옹암포구의 토굴을 이용한 새우젓은 전국적인 명성을 얻어가고 있었고, 광천 옹암마을에 살던 윤병원이 획기적인 새우젓을 생산해 낸 후였다. 그 전까지는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일이 참으로 힘들었다. 마땅한 저장시설이 없으므로 새우젓은 곯아서 고랑젓이 되곤 했다. 새우젓을 곯지 않고 숙성시키는데 성공하면 큰돈을 벌 수 있었다. 윤병원은 자신이 일하던 금광 폐광을 이용해서 새우젓을 숙성시키는 법을 알아냈다. 폐광의 시원한 내부는 일 년 내내 15도 정도를 유지하였고, 이곳에 새우젓을 여러 달 동안 넣어두고 가을 김장철에 꺼내보았더니 신기하게도 새우젓이 뽀얗고 맛있게 숙성되어서 최상품이 되었다. 이렇게 토굴새우젓은 옹암포구의 새로운 상품으로 각광 받았다. 옹암포구 뒷산 곳곳에 새우젓 저장 토굴을 파기 시작했다.

그는 32세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초창기에는 자본이 없으므로 소규모로 시작했다. 조금씩 사업을 확장하여 사업을 키워나갔다. 당시 그는 옹암포구에서 새우젓과 액젓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젊었다.

현재 옹암 뒷산의 토굴은 모두 30여 개가 된다. 옹암포구에 20여 개가 있고 홍성과 보령의 경계 부분인 보령 쪽으로 10여 개가 있다. 옹암포구에 있는 토굴에는 모두 10,000드럼 정도까지 보관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그는 옹암포구 뒷산에 토굴을 3개를 갖고 있다. 토굴 한 곳에 200드럼 정도를 저장할 수 있다. 한때는 자신의 토굴과 타인의 토굴을 임차하여 4,000여 드럼까지 저장한 적도 있었다. 전국에서도 최고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던 시절이었다. 새우젓을 숙성시키기 위해서 원재료인 새우를 전라도나 신안 앞바다 등에서 직접 구입하여 배로 싣고 옹암포구까지 운반해 왔다. 현재는 바닷길이 막혀있으므로 주로 목포에서 새우를 구입하여 차로 운반해 온다. 옛날에는 액젓의 원료가 되는 젓갈도 인근 섬에 나가서 어부들과 계약하여 구입해왔다. 지금은 차로 운반해 온다.

그는 옹암포구에 액젓 공장을 지었다. '서해수산'이라는 액젓 공장을 40여년 가까이 운영해오고 있다. 공장에는 4개의 큰 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4개 탱크에 10,000드럼까

지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다. 액젓공장에서 까나리액젓과 멸치액젓, 잡고기로 만든 액젓을 생산한다. 이중에서 멸치액젓이 가장 좋고 그다음이 까나리액젓이다. 새우젓과 액젓은 주로 도매용이고, 소매도 조금씩 판매하고 있다. 수익성은 옛날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떠나는 사람도 많았다. 현재 옹암포구에서 액젓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신진옥 혼자뿐이다. 자녀들 중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사업을 도와주고 있다. 강화나 목포 등지를 돌아다니며 자식들이 고기와 새우를 입찰하여 운반해온다. 큰딸은 옹암포구 인근에서 젓갈을 이용한 음식 재료를 만들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는 결혼한 이후에 옹암포구로 이사해왔으므로 성인이 되어서 이주해온 이후 겪은 옹암포구의 기억이 대부분이다. 이사 올 무렵만 해도 하루에 장배가 30여 척이 왕래하고 현재 광남초등학교 부근까지 배가 들어왔다. 당시에는 바닷물이 옹암포구를 통과하여 소암리까지 바닷물이 들어갔다. 그곳은 배는 다니지 않았지만 밀물 때면 바닷물이 들락거렸다.

옹암포구의 저지대도 수시로 바닷물이 넘어왔다. 사리 때는 바닷물이 넘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에 제방을 건설하여 피해는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막아내지는 못했다. 안타깝게도 그 무렵부터 포구는 서서히 쇠퇴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사금을 채취하던 금배가 갯고랑을 헤집어 놓고 토사가 쌓여서 포구의 깊이가 얕아졌다. 그 바람에 안강만 어선 등 큰 배는 들어올 수가 없게 되었다. 더구나 옹암포구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한 번 들어온 배는 당일로 되돌아갈 수가 없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옹암포로 들어오던 배들은 이웃 오천항 쪽을 많이 선호했다. 그마저도 홍보지구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옹암포구는 완전히 폐항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포구의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최근 홍보지구 방조제를 헐어내고 역간척을 시행한다는 소식도 있지만, 그래도 옹암포구는 기능 회복이 어렵다고 본다. 차라리 드넓은 간사지 벌판을 이용하여 관광사업을 하는 편이 좋을 것이란 생각이다.

| **최종돈**(1929년생) 홍성군 광천읍 |



광천 옹암포구의 변천사

최종돈은 원래 보령시 주포에서 나고 자랐다. 선대 조상들도 주포에서 대대로 살아왔다. 일제강점기부터 육이오 한국전쟁까지 주포에서 살았다. 18세에 공무원시험을 보고 주포면에 면서기로 발령을 받아서 마강리를 담당하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한국전쟁 당시에는 공산당원들에게 끌려가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어딘가로 끌려가던 중 인민위원장이 남몰래 빼내주었다. 인민위원장은 평소에 최 씨 집안의 선대들과 잘 아는 사이여서 특별히 보살펴 준 것 같았다.

광천으로 이사 온 것은 1957년도이다. 오천에서 1955년도부터 조선일보 지국을 운영했는데 250여 부의 구독자를 모았다. 당시에 천북, 주포, 오천이 주요 관할 지역이었는데 상당한 실적이었다. 그의 신문지국 운영에 관심을 갖고 있던 충청남도 책임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구독자가 저조한 조선일보 광천지국을 맡게 되면서 광천에 터를 잡게 되었다. 광천지국을 맡으면서 장곡, 결성, 은하, 서부까지 관할했다. 당시에 조선일보 신문 구독자를 600부까지 확보했다. 또한 천안부터 온양까지 각 지역 조선일보지국들을 규합하여 '조일회'를 만들고 회장도 역임했다. 조일회 산하에 모두 114개 지국이 회원으로 들어왔다.

일제강점기에 웅암포구는 서울 장항 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해로와 육로의 교통조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대까지 번성을 누리던 결성해안 주변의 상권은 점차 철길을 따라 웅암포와 광천으로 옮겨오기 시작했다. 광천과 웅암포가 일제강점기에 번창하던 제1전성기였다. 웅암포구의 제2전성기는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다. 이 시기는 웅암포구의 토사 유입과 조류의 영향으로 배를 정박시키는 곳이 점차 보령시 청소면 의식마을로 옮겨가던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비록 부두는 의식마을로 내려갔지만, 웅암포구는 여전히 장보러 오는 도서 지역 사람과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찾아들며 사람들로 북적였다. 의식마을 주변에 배는 정박시켰지만 포구의 기반시설이 없기 때문에 웅암리로 와서 숙박하고 광천장을 보러 갔던 것이다. 이런 현상은 1970년대 중반에 부두가 오천으로 옮겨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오천에 배를 정박시키고 광천장을 보러 오는 도서 지역 사람들이 많았다. 웅암리 주변으로 와서 숙박을 해결하고 광천장을 보러 가곤 했다.

광천 지역은 당시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쌌다. 기차역이 생기면서 교통이 편리한 광천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물가가 싸기 때문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물가뿐만이 아니라 가축 값도 광천장이 쌌다. 소나 돼지 거래도 값이 싼 광천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광천은 온양부터 장항까지 생활의 중심이 되었으며, 대흥, 광시, 비봉, 청양 등에서도 광천으로 장을 보러 올 정도였다.

웅암포구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서 배가 들어와 하루를 묵어야만 물때를 만나서 다시 출항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도서민들이 광천과 웅암포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서 이곳 경제가 활발했던 것이다. 웅암포구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술집과 여관들도 흥청거렸다. 뿐만 아니라 웅암포구에서 텃세를 부리는 건달들도 많았다. 이들은 웅암포구로 들어오는 배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돈을 뜯기도 했다. 건달들은 웅암포의 질서유지를 위해 차출된 경찰의 사무소를 때려 부수기도 했다. 이런 행패를 보다 못해 건달들을 소탕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는 언론인 기자 신분으로 건달들과 맞서서 싸운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웅암포의 쇠퇴는 웅암포가 더 이상 포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비롯되었다. 웅암포에 배가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가 중앙대 총장을 역임한 임영신 씨가 학교운영을 위해 웅암리 갯고랑에서 사금을 채취한 것이다. 이때 갯고랑을 파헤쳐 뱃길이 나빠졌고, 선착장 위쪽에서 산사태 등으로 토사가 유입되면서 갯고랑이 메워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최종돈씨는 사금채취 배가 갯고랑의 물길을 확보해주는 역할도 했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은 대다수 사람들의 주장과 상반된 것이다.

웅암포구 쇠퇴의 또다른 이유는 1970년에 태안반도와 안면도를 잇는 연육교가 개통되면서부터이다. 웅암포구로 유입되던 안면도 사람들이 연육교를 이용하여 서산장을 보러 다니게 된 것이다. 또한 동력선이 확보되면서 도서지역 사람들이 대천항 등으로 안전하게 입항이 가능해졌고 대천장으로 장을 보러 다니게 되었다. 웅암포로 배가 들어와서 조수간만의 차이로 하루를 묵게 되면 시간과 경비의 지출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대천이나 서산에서 하루 만에 장을 보고 돌아갈 수 있어서 경비와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는 웅암포구가 사라지고 더불어 광천장의 상권도 위축되었다. 한때 2만 7천여 명에 달하던 광천인구도 1만여 명이 채 안 된다. 그나마 광천토굴새우젓과 광천김 등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 **이종수**(1937년생) 홍성군 은하면 |



토기점을 하는 집안의 장손

이종수는 구동포구 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왔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마을에서 토기점을 운영하는 부유한 집안의 5형제 중에서 맏이로 태어났다. 장남을 중요시하던 시절에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다. 어려움도 없었고 힘든 일도 해본 적이 없었다.

일제강점기 때에 할아버지가 일본교육을 거부했다. 당시에 주변 친구들은 은하공립보통학교에 다녔다. 공립보통학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교육제도로 편입된 초등학교였다. 할아버지는 일본인 교육이 싫어서 손자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 바람에 이종수

는 초등학교를 다지지 않았다. 대신 서당에 다니며 공부했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자연적으로 한글을 깨우칠 수 있었다. 해방 후에 광천에 있는 광흥중학교에 입학했다. 초등학교 졸업장 없이 중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당시에 광흥중학교는 사립이었고 설립 초기여서 학생들 모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재력을 바탕으로 연줄을 동원하여 입학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2학년을 다니다가 중퇴하고 말았다. 광천지역 토박이 학생들의 텃세가 싫었기 때문이었다.

구동포구 주변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토기점에 다녔고 바닷가에서 조개잡이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종수는 어린시절과 청년 시절을 할아버지와 부모님의 재력으로 어렵지 않게 살아왔지만, 현대화의 물결은 선대가 운영하는 토기점을 사양길로 접어들게 만들었다. 그도 한동안 토기점 일을 도왔지만 점점 회복하기 어려웠다. 점점 마을의 토기점들도 문을 닫기 시작했다. 그의 집안도 토기점을 접고 살길을 찾아야 했기에 고향에 남아 농사에 전념하였다.

1950년대 초에도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마을 위쪽은 간척사업을 하는 바람에 물길이 막혀서 마을 아래 사거리 부근까지 배가 들어왔다. 배가 정박하면 토기를 포구까지 운반하여 배에 싣고 웅암포구 등으로 나갔다. 또는 보부상들이 토기를 지고 내륙으로 팔러 나가기도 했다. 구동포구는 어업을 하는 배가 있었지만 한두 척이었다. 대부분 마을 앞바다에서 조개나 굴이나 게 등을 잡았다. 이렇게 잡은 해산물은 부인들이 광천이나 내륙으로 이고 가서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다. 1990년대 이후에 홍보지구가 막히면서 모든 바닷물길이 끊어지게 되었다.

홍보지구 방조제가 완공된 후 마을에 그다지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담수호에 물이 가득 넘쳐나도 마을에서 농사짓는 데는 그림의 떡이었다. 현재 마을이 맨 끝 고랑에 위치한 관계로 물을 끌어올릴 수단이 없어서, 성호리나 수룡동 쪽은 양수시설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는 앞으로 관계기관에서 마을에 혜택이 돌아올 수 있는 행정을 해줄 것을 간절히 바랄뿐이다.

| **이범화**(1936년생) 홍성군 결성면 |



결성 지역과 성호포구의 변화

이범화는 사회활동을 많이 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서 제대한 후에 취직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했다. 고향을 떠나 친구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다닌 적도 있었다. 나중에 아버지가 농사일을 돌보라고 권하자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일을 하면서 결혼까지 했다. 결혼 후에 결성면 읍내리로 분가했다. 분가할 당시에 아버지는 집안의 재력에 비해서 작은 집을 사주고, 농사지을 작은 땅만 주었다. 훗날 알고 보니 아버지는 막내아들이 자유분방하여 재산을 많이 물려주어도 얼마 가지 못해

서 탕진할 것이라고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걱정처럼 그는 결성농협조합장, 홍선군의회의원 등에 출마하면서 적지 않은 재산을 없앴다.

결성은 홍성군 서쪽 천수만과 연결된 모산만의 끝자락이다. 옛날에는 결성현감이 상주하며 광천·은하·천북·구항 등 주변 고을을 다스렸다. 결성에는 지금도 결성현감이 근무하던 결성동헌과 치안을 담당했던 형방청 등 옛 건물이 남아있다. 결성초등학교는 옛 결성현의 객관이 있던 자리이며, 학교 운동장에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있고, 결성형방청 뒤쪽에는 수백 년 된 팽나무가 서있다. 결성현감이었던 정구녕이 이임하면서 심었다는 나무이다. 일제강점기에는 형방청을 일본 순사들이 사용했다. 그때 일본인 순사가 팽나무고목의 가지를 잘랐다가 어찌된 일인지 죽어버렸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신목으로 대접받으며 지금까지 신목제가 이어지고 있다.

결성은 남쪽으로 모산만을 끼고 천북면과 바다로 인접해 있었다. 성호포구는 결성의 대표적인 해안 포구였다. 하지만 교통의 중심이 육지로 이동하고 또한 현대로 들어서며 간척사업과 홍보지구 방조제 건설로 인하여 바닷길은 완전히 막히고 말았다. 홍성(洪城)이라는 지명 속에 결성이 담겨 있다. 1914년에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당시에 홍주군(洪州郡)과 결성군(結城郡)을 홍성군(洪城郡)으로 합쳤다. 홍주군(洪州郡)의 '홍(洪)'자와 결성군(結城郡)의 '성(城)'을 한 자씩 따서 홍성군이라고 했다. 현재는 홍성군의 낙후된 지역으로 인구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결성중학교가 폐교되었고 초등학교도 학생수 감소로 인해 언제 폐교될지 모르는 형편이다.

결성면 성호리 성호포구가 있던 곳을 원성호마을이라고 부른다. 원성호는 마을 앞으로 바다가 별모양의 호수처럼 펼쳐져 있어서 성호(星湖)라고 불렀다. 원성호가 속해 있는 성호리는 조선시대 결성현의 외항이었던 모산만 입구에 위치하여 '돌곶이'라고 부르던 유명한 포구였다. 한때는 주민이 300호를 넘어설 정도로 풍요로운 어촌이었다. 근간에는 홍성과 보령을 이어주는 홍성방조제 간척사업 등으로 선박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마을로 변모되었다.

성호포구 마을에는 맹씨·박씨·안동김씨·금녕김씨들이 주류를 이뤘다. 그가 기억하는

성호포구는 상당히 번창했던 모습이다. 포구마을에 사람들이 많았으며 각종 해산물이 많이 들어왔다. 지금은 전락하고 말았지만 당시 성호포구에는 세력 있고 재력 있는 집안들이 많았다. 성호포구에는 이웃한 서부면 수룡동포구가 있었다. 수룡동이 성호포구보다 더 컸다. 많은 물동량이 수룡동으로 몰려들었고 그 다음이 성호포구였다. 경향 각지에서 해산물을 구입하기 위해 몰려왔다.

성호포구 뱃머리 위쪽으로는 나루터가 있었다. 이곳은 보령 궁포리와 연결된 지역이었다. 나루터는 성호포구를 통하여 결성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다. 뱃머리 나루터는 소방대에서 운영했다. 특히 결성장날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사람들을 계속 실어 날랐다. 성호포구는 다양한 물건들이 많았다. 성호포구를 통해 결성장을 보러오는 사람들은 주로 천북 쪽 사람들이었다. 5일과 10일에 열리는 결성장은 특히 생물전이 유명했다. 성호포구를 통해 들어온 해산물이 결성장에서 많이 거래되었다. 1970년대까지 운영되던 결성장은 성호포구가 완전히 막히면서 사라지고 말았다.

성호포구 사람들은 생일이 똑같은 날이 많다고들 농담 삼아서 말한다. 포구 남자들은 배를 타면서 멀리 바다로 고기잡이를 다녀야 했다. 한번 나가면 보름 정도 걸려서 포구로 돌아왔다. 젊은 부부들이 배에서 돌아오면 동침하면서 임신이 되기 십상이다. 배에서 돌아온 날 밤에 동침하면서 아기를 만들었으므로 대부분 생일이 같다고 농담 섞인 말들을 많이 한다. 또한 일제강점기에 배를 타면 징용을 면제해 주었다는 말도 전해온다. 아마도 이 말은 징용을 면제해 준 것이 아니고, 징용을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것이 와전된 말일 것이다.

성호포구 주민들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하거나 금녕김씨인 김참봉 집에서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재력이 풍부했던 김참봉은 대규모 염전을 운영했다. 판교에서 원판교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염전이었다. 5만평이 넘는 규모였으며 194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다. 하루 평균 생산량이 250가마 정도 되었다. 염전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수백 명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그는 기억한다. 염전은 해방 이후부터 사그라지기 시작하다가 1970년대 중반에 완전히 사라졌다.

지금은 홍보지구 방조제 건설로 인하여 바닷물이 완전히 막히고 말았지만 그 전까지 밴뎅이를 비롯하여, 꽃게와 일반게(황발이와 능젱이), 박하지, 굴 등을 채취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바닷물의 유입이 차단되면서 해산물 채취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한때는 결성면 11개 리에서 가장 인구가 많던 성호포구 주변이 해방 이후에 가장 가난한 마을이 되었다. 전성기에는 300여 호까지 되던 인구가, 현재는 50여 호까지 줄어들었다.

성호포구 뒷산 왕자산에는 오래된 신당이 있다. 원래는 산중턱에 있는 바위에서 당산제를 지냈다. 이곳을 상당이라고 불렀다. 이곳에서 제사를 지낸 후에 하산하여 바닷가 신당으로 내려왔다. 성호포구 바로 앞에 야트막한 산에는 오래된 소나무와 신당이 세워져 있었다. 안타깝게도 신당은 허물어져 없어지고 소나무만 남아 있다. 이곳을 하당이라고 부르는데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다. 지금은 성호포구 왕자산 기슭에 신당을 잘 지어 놓았다. 이곳에서 제관들이 당산제를 지내왔다. 시대가 흐르면서 옛날의 화려했던 당산제 모습은 사라졌다. 지금은 당산제의 맥도 끊어지고 옛이야기와 함께 신축된 신당만 남아 있다.

| **강병오**(1954년생) 홍성군 결성면 |



홍보지구 방조제 공사로 인하여 사라진 성호포구

결성은 옛날부터 유서 깊은 고장이다. 특히 결성 번영의 배후가 되는 바닷길이 인접해 있어서 해산물이 풍부하고 유동인구가 많았다. 결성면 성남리에는 해창포구도 있었다. 이곳은 결성 읍내리로 통하는 길목이었다. 또한 나라의 세금으로 걷어들인 곡식을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해창(海倉)이라고 불러왔다. 해창은 성호포구가 막히기 전부터 포구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옛날 포구의 역할을 했다는 것과 창고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정도이다. 해창이 유명한 것은 해창다리 때문이기도 하

다. 해창다리는 해창포구에서 안쪽으로 더욱 들어간 갯고랑이다. 이곳에 다리가 있어서 해창다리이다. 해창다리는 갯벌이 있었고 게와 조개 등을 잡던 곳으로 유명했다. 결성과 가까운 은하 등지에 사는 주민들이 게와 조개를 잡던 추억의 장소이기도 하다. 해창포구는 성호포구 바로 옆에 붙어 있다. 성호포구가 있는 성호리의 한자 표기는 성호리(星湖里)이다. '별성(星)' 자에 '호수 호(湖)'이다. 바다에 비친 별빛이 호수처럼 아름답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강병오(姜炳五)는 성호의 지명유래를 다른 뜻으로 설명한다. 옛날에 유명한 풍수지리가가 언젠가 마을 앞으로 호수가 생길 터라는 예언이 있었다고 한다. 홍보지구 방조제 공사로 인하여 마을 앞 바닷물이 유입되던 곳에 담수호가 생겼다. 옛날 풍수지리가의 예언이 맞아떨어졌다는 유래담이다.

성호포구가 한창 번창할 때는 바다 앞으로 배가 꽉 들어차기도 했다. 숫자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그에게는 배들이 많았던 기억이 난다. 뱃머리와 나루터는 물론이고 수룡동 입구 모산도까지 배가 가득 들어차 있었다. 수룡동포구에는 안강만 어선이 많았고 성호포구는 주로 작은 돛단배들이 많았다.

포구가 번창하다 보니 유동인구가 참으로 많았다. 좁은 마을에 사람이 많아서 물이 부족할 지경이었다. 수룡동까지 배를 타고 물을 구하러 다니기도 했다. 여자들 10~15명이 물동이에 물을 이고 배까지 실어 날랐다. 배는 한 번 출항하면 보통 10~15일 정도 일을 하고 돌아왔다. 조수간만의 차가 커야 고기가 많이 잡혔다. 큰 배들은 먼 바다까지 나가서 고기를 잡았다. 연평도 칠산 앞바다까지 나가서 조기 등을 잡았다. 배가 정박하면 깃발을 꽂았다. 깃발 색깔에 따라서 잡아온 고기의 종류를 알 수 있었다. 작은 배들은 가까운 바다에서 밴댕이를 많이 잡아왔다. 밴댕이는 무게가 아니고 말(斗)로 담아서 거래했다. 밴댕이를 머리에 이거나 지게에 지고 내륙으로 다니며 파는 사람도 많았다.

성호포구에는 김참봉네가 가장 부자였다. 성호리 일대에 많은 땅을 갖고 있었으며 염전도 상당히 크게 운영했다. 성호포구의 사람들은 상당수가 김참봉네 염전에 가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 지금까지 당시에 유행하던 말들이 전설처럼 전해온다. 우스갯

소리로 '김참봉네 가서 머슴 살아라'는 말들을 하곤 했다. 김참봉네가 살던 옛 기와집은 지금까지 남아있다.

성호포구의 전성기는 1960년에서 1970년 정도로 생각된다. 성호포구가 있는 마을 입구에는 장도 섰다. 사람이 워낙 많아 땔감이 필요했으므로 나무를 팔고 사는 나무시장과 함께 어시장이 섰다. 지금은 장이 섰던 자리가 밭으로 변했다. '시장밭'이라는 이름이 전해온다.

천북면 장은리에서 결성장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성호포구로 건너왔다. 나루터는 장은리와 성호포구를 건너다니는 사람들이 나룻배를 타고 다니던 곳이다. 당시에 결성장을 가려면 일찍 가야 했다. 늦게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어깨가 부딪칠 정도였다. 결성장의 생선전은 유명했다.

풍어제와 뱃고사가 그의 기억에 제일 남는다. 바닷가 마을이므로 바닷길의 안전과 마을의 평안을 위해서 뱃고사를 성대하게 지냈다. 성호리 뒷산 왕자산 절터에는 우물이 있다. 항상 물이 고여 있으므로 화부로 선정된 사람이 이틀 전에 올라가서 우물을 깨끗이 청소한다. 풍어제 전날에 제관으로 선정된 2명이 올라가서 제를 지낸다. 화부나 제관은 몸을 신성하게 유지해야 한다. 손으로는 성기도 만지면 안 되었다. 소변 등을 보고 나면 나무젓가락으로 성기를 만지라고 할 정도였다.

왕자산 바위를 상당이라고 부른다. 상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뱃머리가 있는 하당으로 내려와서 제를 지냈다. 하당에는 신당이 있었지만 오랜 세월 비바람에 부서졌다. 하당에는 임경업 장군상을 벽에 걸어놓았다. 지금은 마을 뒤쪽에 오방제각을 잘 지어놓았다. 하지만 세월과 함께 옛날처럼 성대하게 지내지는 않는다.

옛날 풍어제를 지낼 때는 배 주인들이 깃발을 일렬로 당집 앞에 꽂아놓았다. 풍어제가 끝나면 배 주인들은 깃발을 들고 배로 달려가서 깃발을 꽂는 풍습이 있었다. 깃발을 제일 먼저 배에 꽂는 배 주인은 그해 고기를 제일 많이 잡는다는 속설이 전해왔다. 이런 속설 때문에 풍어제를 지내고 나면 배주인들이 깃발을 들고 전속력으로 달려서 배로 달려갔다. 이때 서로 엉키고 넘어지고 바다에 빠지는 일들이 속출했다. 뱃기를 들고 배로

달려가던 배 주인과 펄럭이던 깃발 모습, 여러 가지 웃지 못할 돌발적인 일들이 벌어지며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제일 생생하게 남아있다.

1990년대에 성호포구가 막히면서 포구를 생활터전으로 삼던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기도 하고 농사 등으로 전업했다. 성호포구에서 배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홍보지구 방조제 앞으로 배를 옮겨서 어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강병오도 작은 배를 한 척 갖고 있다. 그 역시 배를 방조제가 있는 모산도 주변으로 옮겨놓았다. 바다를 멀리 나가지는 못하고 가까운 곳에서 주꾸미와 대하 등을 잡는다.

대하나 주꾸미 수입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다. 하지만 지금은 주꾸미가 많이 잡히지 않는다. 주꾸미가 채 차라기도 전에 낚시꾼들이 몰려들어서 모조리 잡아가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어린 주꾸미를 잡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담수호에 담아놓은 물도 아직까지 농업용수로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홍보지구를 헐어내고 역간척이 되면 어업자원이 확보되며 성호포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 **황성창**(1936년생) 홍성군 결성면 |



세곡창고가 있던 바닷가 마을

황성창은 어린시절에 해창 바닷가에서 자랐다. 당시에 바닷가는 바닷물이 들어왔다. 하지만 해창이라는 지명유래가 된 세곡창고는 없었다. 옛날부터 세곡(稅穀)창고가 있었다는 말을 구전으로만 전해 들었다. 기록을 통해 찾아본 바로는, 당시에 세곡창고의 규모는 동서로 5칸 규모였다고 한다. 해창 바닷가에 있던 세곡창고는 1841년에 결성면 성남리 창말포구로 옮겨갔다. 그 뒤로 해창포구가 있던 마을은 '구해리'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다. 지금은 해창 바닷가 마을의 공식적인 지명이 '해동'이다.

결성은 홍성 지역에서 일찌감치 역사에 등장한 지역이다. 결성 지역의 유서 깊은 역사로 인해서, 예부터 전해오는 유적들이 상당수 남아 있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석당산을 중심으로 하여 동헌과 형방청과 결성향교 등이다. 또한 석당산을 중심으로 문화유적과 문화인물과 역사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배경으로 인하여, 결성 사람들의 자기 고장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이 대단하다. 결성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맨 앞에서 지켜오고 보존 발전시켜 온 인물은 여럿이다. 그도 그중에서도 한 사람이다.

결성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는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20호인 결성농요가 있다. 결성농요는 1993년에 제34회 전국민속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상인 대통령을 수상했다. 이때 결성농요는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140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이 6개월 동안 피눈물 나는 연습을 했다. 결성농요 연습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서, 결성 지역 5개 마을 전체가 한 가구씩 돌아가며 단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이처럼 결성농요는 지역민 모두의 노력에 의하여 탄생되었다. 당시 그는 결성농요의 탄생과 전국대회 출전을 위해 맨 앞에서 동분서주 했다. 또한 결성농요 보존을 위해 2대 회장으로 노력해 왔다.

해창포구가 사라지기 전에는 작은 배들이 들어왔다. 주로 가까운 바다에 나가 밴댕이 같은 고기를 잡아왔다. 포구 주변의 갯벌에서는 게와 낙지와 조개 등을 잡았다. 갯벌에서 잡아들이는 해산물은 호미 정도만 있으면 채취가 가능했다. 해창 바닷가는 내륙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게구럭을 갖고 와서 게를 잡았다. 게는 주로 칠게인 능쟁이와 농게인 황발이가 많았다.

능쟁이는 움직임이 빠르지 않았다. 갯벌 위를 느리게 걸어 다니므로 잡기가 수월했다. 하지만 황발이는 움직임이 매우 빨랐다. 또한 갯벌 속 깊이까지 구멍 속으로 숨어들었다. 황발이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팔뚝이 깊숙하게 들어가야 할 정도로 갯벌을 파내어 잡았다. 황발이는 양쪽 발에 집게가 있어서 물리면 상처가 날 정도로 아팠다. 게구럭에 능쟁이와 황발이를 잡아서 시장에 내다 팔거나 내륙 쪽으로 이고 다니며 파는 주민들도 있었다. 해창 바닷가 갯벌은 많은 사람들의 생계수단이기도 했으며, 추억거리를 제공해

주기도 했다.

해창 바닷가의 명물은 해창다리였다. 은하면과 결성면을 이어주는 다리였으며, 주변 갯벌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많은 추억을 만들어 주었다. 지금도 80세 전후의 노인들은 옛날 젊은 시절에 해창다리에서 다리 건너던 민속행사의 추억을 말하곤 한다. 음력 섣달 그믐날에는 해창다리에 나와 다리건너기를 했다. 다리를 건널 때는 자기 나이만큼 숫자를 세면서 건넜다. 출발 지점에서 시작하여 건너편까지 건너가면 하나가 되고, 다시 되돌아오면 둘이 된다. 이렇게 자기 나이가 되도록 숫자를 세면서 건널 때, 출발 지점에 도착하여 딱 나이가 맞아떨어지면 새해 재수가 좋고 원하는 일이 성취된다는 속설이 있었다. 마을 처녀들이 서로 깔깔거리며 다리건너기를 할 때, 다리 건너 지점에서 자기 나이에 걸리면 돌아오는 것이 문제였다. 재수가 좋으려면 다리를 더 이상 건너오면 안 될 일이었다. 그렇다고 바닷물이 출렁거리는 다리 아래로 내려가서 건너올 수도 없었다. 이럴 때는 그냥 다리 위로 건너오는데, 실망스러운 마음이 크기만 했다.

해창 바닷가는 세월이 흐르면서 토사 유출 등으로 자연스럽게 바다가 얕아지게 되었다. 바다가 얕아지고 갯벌이 넓은 곳에 염전을 조성했다. 당시 염전 조성으로 바다 가운데에 있던 아름다운 섬 풍류도가 훼손되었다. 풍류도는 섬이 생긴 유래가 전설로 전해오며 고려 충신이 숨어 살던 곳이라는 전설도 전해온다. 풍류객들도 풍류도와 안면도 등을 구경하기 위해 찾아왔던 섬이라고 전해온다.

염전을 조성할 당시에 풍류도 한쪽을 훼손하여 사용하는 바람에 옛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석당산에 있는 결성읍성도 일부 헐어서 염전 조성에 사용했다고 전해온다.

| **임순환**(1953년생) 홍성군 서부면 |



경치가 아름다웠던 교항리 바닷가

임진왜란 중인 1595년에 부여 홍산에서 이몽학이 반란을 일으키며 파죽지세로 홍주까지 진격해왔다. 당시에 나라에서는 전란의 와중에서 이몽학의 난을 제압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 이때 홍주목사는 홍가신이었다. 이몽학의 난을 제압하기 위해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홍주성으로 들어왔다. 당시에 선조인 임득의 장군은 의병을 모으고 가솔들과 함께 홍주성으로 들어왔다.

이몽학의 난은 홍주성에서 진압되었다. 이몽학의 난을 제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다섯

명에게 청난공신 책봉이 내려졌다. 선조인 임득의 장군도 청난공신 3등에 봉해졌다. 이 공으로 부모와 처자식에게도 전지 60결, 은자 5량, 내구마 1필이 하사되었다. 이후 임득의 장군은 1607년에 호성원종공신 1등에 봉해지고 충청도 수군우후를 거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종2품)를 역임했다.

임득의 장군의 묘소는 원래 경기도 양주군 시둔면에 있었다. 당시에 경기도 양주에 사패지를 하사 받아서 묘소를 마련했다. 1632년에 현재의 서부면 판교리 청룡산 기슭 명당으로 이장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묘소 앞에는 400여 년 정도 된 큰 소나무가 묘소를 지키고 있다. 소나무는 임득의 장군 묘소를 이전할 때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임득의 장군 묘소 북서편으로 마을 언덕에는 임득의 장군을 배향한 정충사가 있다. 정충사는 충남문화재자료 340호로 지정되었으며 1604년에 제작된 장군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다. 매년 음력 9월 19일에 장군의 업적과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림과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하여 제향을 올리고 있다.

임순환은 대대로 벼슬을 하던 임씨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대대로 나라에 충성한 조상들의 업적을 전해 들으며 그는 어린시절을 보냈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도 위와 같은 선대 조상들의 훌륭한 업적을 마음속에 새기며 사회생활을 했다. 고향마을과 선대조상들의 발자취들은 그의 정신세계를 확립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서울에서 학교생활을 했으며 직장생활도 서울 등지의 객지에서 보냈다. 국내 유수 대기업의 간부로 정년퇴임한 후에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왔다. 고향에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 있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선산을 지키며, 선대들의 훌륭했던 발자취를 찾아서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었다. 그래서 지역문화에도 관심을 갖고 대학원에서 문화유산 정책에 대해 공부했다.

그는 어린시절부터 결성면 고향리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결성 지역으로 처음 입향한 선대는 15대 조상이다. 처음 입향한 선조 임식 할아버지께서 교항리 바닷가에 정자를 짓고 후학을 가르치며 풍류를 즐기면서 말년을 보냈다고 한다.

옛날 교항리 바닷가는 참으로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바닷가 풍경에 반하여 그 자리에

정자를 지었던 것이다. 당시 정자 이름은 '부해정(浮海亭)'이었다. 선대 조상이 정자를 짓고 후학을 가르치고 풍류를 즐기던 부해정은, 이후 이곳 지명의 유래가 되었다. 현재 부해정은 이름만 남아 있고 정자는 없다. 당시에 아름답던 바닷가 경치도 사라졌다. 하지만 선조들이 이곳에 세거했던 발자취와 옛이야기들은 구전으로 많이 전해 온다.

부해정이라는 이름은 글자대로 해석하면 바다에 떠있는 정자라는 뜻이다. 하지만 단순히 바다에 떠있는 정자라는 의미가 아니다. 논어 공야장에 나오는 말이며, 어지러운 난국에 새로운 이상향을 찾아서 평소에 품고 있던 이상을 실현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 이곳에 처음 자리잡았던 선대 조상의 깊은 마음을 담아 놓은 뜻깊은 이름인 것이다.

그는 어린시절의 부해정 바닷가를 기억한다. 이곳은 고향인 판교리에서 부해정을 경유하여 갈산이나 홍성으로 다니던 길목이었다. 당시 부해정은 강처럼 넓었다. 이곳이 무척 깊어서 어른들이 업어서 건네주던 기억도 남아 있다. 부해정을 지나 용호리 앞 들판은 옛날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던 곳이다. 이곳에는 넓고 깨끗한 모래톱이 있었다. 당시의 모래톱은 지금 넓은 논으로 변해 있다.

부해정과 가까운 용호장터는 인근에서 잡은 해산물의 집산지 역할을 했다. 지금은 AB지구 간척사업으로 막혀 있지만, 당시 갯벌에서 잡아 올린 해산물의 1차적인 매매장소이기도 했다. AB지구 방조제가 건설되기 전까지 교항리는 어촌이었다. 바닷물이 마을 앞까지 들어왔고, 와룡천과 합류되는 지점이어서 홍수피해가 잦은 편이었다.

부해정에서는 바닷물막이를 하여 농사를 지었다. 바닷물을 막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 물이 넘쳐 둑이 터질 때마다 다시 막기를 반복했다. 아무 때나 제방을 높일 수도 없어서 물이 줄어드는 조금 때에 맞춰 둑을 쌓았다. 가래로 모래와 흙을 퍼서 제방을 쌓았다. 현재는 일대가 모두 논으로 변하여 결성 지역에서 가장 넓은 교항들판이 되었다.

AB지구가 완공되면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일은 없어졌다. 제방을 쌓기 전까지만 해도 바닷물이 차오르는 지역이었지만, 배를 부리는 어민은 없었다. 기껏해야 뱀장어를 잡아서 반찬거리로 먹는 정도였다. 지금 교항리와 원교항과 부해정 주민들은 대부분 논농사

를 주업으로 살아간다. 마을 앞에 펼쳐진 논은 농사가 잘되는 곳으로 손꼽히고 맛도 좋기로 유명하다.

옛날 교항리 다리목은 와룡천 넓은 하천을 건너다니기가 힘들었다. 일제강점기에 하천을 건너다니기 위한 쪽다리가 있었다. 쪽다리는 판자로 만들어서 홍수가 나면 여지없이 휩쓸려 나갔다. 매년 겨울에 나무로 다리를 만드는 것이 다리목 사람들의 연중행사였다.

1960년대에 와룡교를 설치하면서 연중행사로 치르던 쪽다리 놓기는 사라졌다. 지금은 다리목 아래 와룡천 넓은 곳에 호수처럼 항상 물이 넘친다. 이곳에 낚시꾼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으며 낚시대회를 개최하기도 한다.

| **김용홍**(1941년생) 홍성군 서부면 |



남당리 해안

남당항은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에 위치한 포구이다. 남당포구 앞으로는 홍성군의 유일한 유인도인 죽도가 있다. 죽도는 대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남당항에서 죽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운행되고 있다. 남당항은 홍성군에서 가장 큰 해안 관광지 역할도 하고 있다. 횟집이 많고 주꾸미와 꽃게와 대하와 새조개 등 해산물이 풍부하다. 해마다 가을과 겨울에 대하축제와 새조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남당항에는 바다 근해에서 고기를 잡는 수십 척의 배와 낚싯배가 항상 정박해 있다.

남당항을 통해서 죽도를 찾는 관광객과 남당항을 찾는 관광객이 많기 때문이다. 해마다 대하와 새조개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다.

남당항 제방을 막기 전에는 신당초등학교 안쪽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제방을 쌓으면서 바닷물은 현재 포구 앞에까지만 들어온다. 남당포구를 매립하면서 넓은 광장이 형성되어 있다. 홍성군에서 대단위 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매립한 것이다. 남당항의 미래 모습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옛날 남당항은 고기가 많이 잡혔다. 농담으로 '고기가 반 물이 반'이라는 말이 성행할 정도였다. 남당리 주변 사람들은 남당리를 '남뎅이'라고 부르며 각종 해산물을 구입하러 찾아오기도 했다.

김용홍은 남당리 바다 어장으로 나가 그물을 매놓고 고기를 잡아왔다. 밀물 때 고기가 들어오고 썰물 때 고기를 건져오곤 했다. 고기가 많이 잡힐 때는 배에 고기가 가득 넘칠 정도였다. 옛날 남당포구에서 앞바다 어장에 그물을 매고 고기를 잡던 사람들은 그물을 건지러 갈 때는, "돈가방 풀러간다"는 농담을 했다. 고기가 워낙 많이 잡혔고 돈이 되었다.

남당리로 들어오는 고기는 새우, 꽃게, 우럭, 광어 등 종류가 다양했다. 외지에서 잡아서 팔러오는 배들도 많았고 고기를 사러 오는 상인도 많았다. 주변 포구에서도 남당리로 모였다. 바지락, 굴 등도 흔했다. 이들은 모두 광천장이나 결성장과 갈산장으로 팔려나갔다. 다양한 해산물 중 새우가 가장 값비싸게 팔렸다. 새우젓을 담기 위해 광천 독배 등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생새우를 사서 토굴에 숙성시켜 김장철에 팔기 위해서였다.

마을 사람들은 남당포구와 앞바다 덕분에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도 마찬가지여서 결혼하여 분가할 당시에는 논 두 마지기를 갖고 나왔지만 바닷일을 하며 열다섯 마지기의 논을 장만했다. 또한 슬하의 5남매도 모두 대학까지 공부시켰다. 아마도 남당 앞바다가 아니었으면 자식 교육과 살림살이가 힘들었을 것이다.

과거에는 식량이 부족해 논을 갖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었고 돈을 모아 논 열다섯 마

지기를 샀을 때 참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논보다도 바닷가 주변에 땅을 사놓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옛날은 바다 주변의 땅이 헐값이었다. 세상이 변하면서 논보다도 바닷가가 더 값진 땅이 되었다.

남당항은 예전만큼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어족자원 고갈 때문이다. 바다가 오염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잡다 보니 고기가 없어졌다. 뭐니 뭐니 해도 고기가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AB지구 방조제 건설 때문이다. 서산 간월도와 홍성군 서부면 궁리를 잇는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바다의 생태계가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다. AB지구 방조제 사업으로 홍성군과 서산시 사이에는 대규모 담수호와 논이 만들어졌다. 이곳은 과거에 넓은 바다와 개펄이 있었으며 수많은 고기들의 산란장소였다. 고기들의 산란장소가 없어지다 보니, 고기는 줄어들고 잡는 양은 많아지면서 어족자원의 고갈로 이어진 것이다. 담수호 주변에서 산란한 치어는 멀리 일본 근해까지 간다고 알려졌다. AB지구를 막을 때 일본에서도 반대했다는 말이 전해온다. 뿐만 아니라 담수호에 가둬놓은 물은 썩게 마련이다. 얼마나 썩었는지 모를 정도로 오염된 담수호는 비가 많이 올 때 한 번씩 수문을 개방하여 물을 앞바다로 내보낸다. 담수호에서 흘러내린 앞바다는 모두 오염되어 양식장을 폐허로 만들기도 한다. 지금은 바다 주변이 모두 오염되었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앞바다에 바지락 등의 종패를 넣어도 썩고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

남당리는 현재 토박이 주민보다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횟집 등을 운영한다. 앞바다에서 우럭과 광어 등을 양식하는 주민들도 있다. 배들도 낚싯배가 많이 정박해 있다.

| **김옥태**(1955년생) 홍성군 서부면 |



어사리 어사포구

어사포구는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바닷가에 있는 포구이다. 홍성군 서쪽 천수만에 위치하며 좌우로 남당포구와 궁리포구가 연결되어 있다. 포구 앞으로는 안면도와 죽도 섬이 빤히 건너다 보인다. 옛날 어사포구는 백사장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어사(漁沙)라는 지명 속에 들어있는 '사(沙)는 모래를 의미한다. 어사리의 모래백사장은 지명에 등장할 정도로 넓고 길었다. 마을 아이들의 훌륭한 놀이터였으며 지역민들의 생활터전이었다.

이렇게 아름다웠던 백사장은 방파제를 축조하고 바다를 매립하여 옛날 모습이 완전

히 사라졌다. 그래도 방파제와 바다 매립으로 배를 접안시키고 태풍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바람과 해일로 농사를 망치는 일도 허다했었는데 지금은 예전과 같은 피해가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옛날 아름답던 포구 모습도 함께 사라졌다.

어사포구는 앞바다에 펼쳐진 갯벌에 자생하는 바지락과 굴이 유명했다. 어사리 바지락과 굴은 인근 지역에서 비싼 값에 팔려나갔다. 가까운 시장에 나가면 가장 인기 있는 해산물이었다. 과거에 어사리 주민들이 어촌계를 조직하여 바지락을 캐고 집집마다 수입이 좋았다. 당시에 120여 호가 되는 가구 중에서 80여 명이 어촌계에 들어와 바지락 채취를 했다. 바지락 채취로 하루에 호당 50~60만 원의 수입을 올릴 정도였다. 초보자들도 하루에 150~160킬로그램 정도 잡을 만큼 황금양식장이었다. 바지락은 잡아도 잡아도 고갈되지 않았다. 천연적으로 계속 자라고 또 자라서 매일매일 수없이 채취할 수 있었다. 지금도 어사리 마을에 바지락 양식장이 170ha 정도 있고, 여기에서 채취하는 어사리 바지락은 지금도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이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허리 높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바다를 빠져가며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며 직업병이 생기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정부에 건의하여 바다 가운데 양식장까지 진입하는 진입로를 870m 조성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길다고 한다. 어업활동이 과거보다는 훨씬 쉬워졌음에도 어려운 일을 하려는 젊은이들이 없다. 현재는 어촌계원들이 노령화 되어서 회원 숫자도 줄어들고 채취하는 양도 줄어들고 있다. 현재 50대 미만은 10명도 되지 않는다. 돈벌이가 좋아도 너무 어려운 일이다. 한겨울에 세찬 바람을 맞으며 바다 가운데로 나가서 바지락을 캐는 것을 누가 좋다 할까. 세월이 흐르면 어촌계원도 없어질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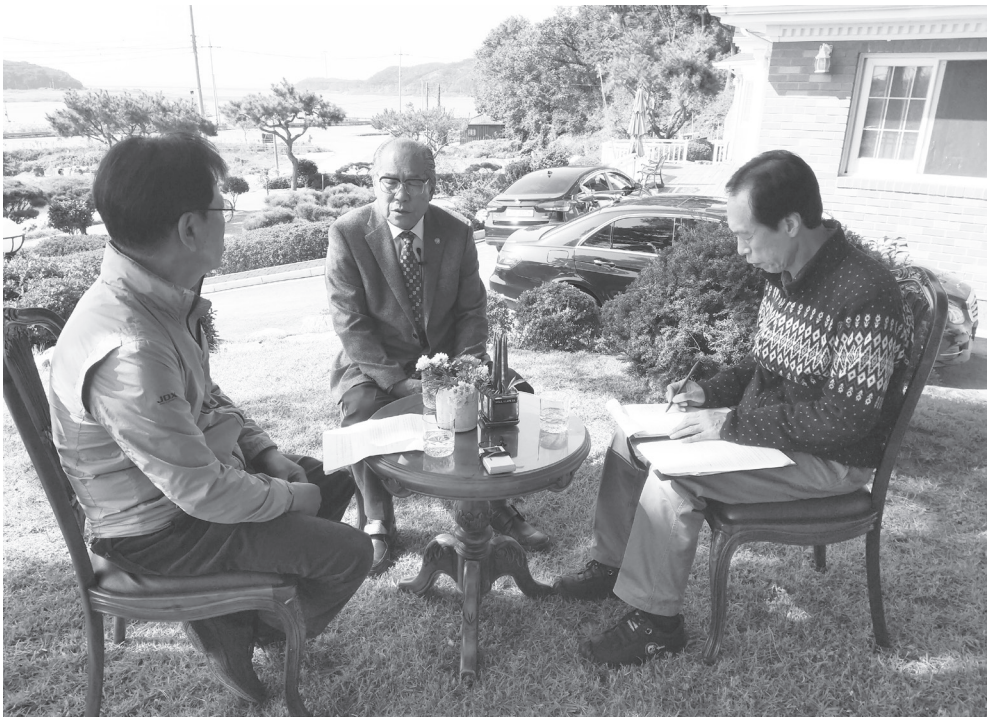
김옥태가 오래전 어사포구 앞 개펄에 굴양식장을 조성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닐 때였다. 마을 주민들이 자연산 굴을 채취하기 위해 소나무를 베어다가 양식장을 조성했다. 굴양식장 조성에 필요한 소나무를 집집마다 배당하여 경운기에 실어 날랐다. 그 와중에 누군가 소나무 벌목을 시비하며 홍성군 산림과에 고발하는 일이 있었다. 홍성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나왔었다. 주민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

고 공공의 수익을 위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더구나 소나무를 통째로 잘라낸 것이 아니고 가지만 잘라온 것이라며 선처를 부탁했다. 다행히 사건은 잘 마무리 되었지만 지금도 그 때를 생각하면 그는 속이 상한다.

서부면 남당리 죽도 부근에 드넓은 상펄어장이 있다. 상펄어장에는 바지락이 지천으로 자라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상펄어장을 서산에서만 차지했다. 그는 어촌계장을 하며 홍성군 서부면 어민들이 상펄어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다. 인근 어민들과 힘을 합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수년간 많은 일이 있었다. 그 결과 재판에서 승소하여 죽도 섬 부근의 상펄어장 일부를 홍성군 서부면 어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상펄어장을 확보하여 품질 좋은 바지락을 많이 채취할 수 있다. 상펄어장을 찾아온 것은 어촌계원들의 합심으로 이뤄낸 쾌거였다. 당시에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니,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 혼자 생색을 내고 있었다. 그는 그대로 할 일을 한 것이고 실무적인 일들은 어촌계원들이 대부분 발로 뛰어다녔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씁쓸하기도 했다.

1980년대에 홍성군 서부면 궁리와 서산 간월도 사이의 바다를 막은 대규모 간척사업을 했다. 당시에는 쌀을 얻기 위해 농토를 확보하고자 간척사업을 것이었다. 하지만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바다 생태계는 모두 파괴되고 말았다. 물고기들의 산란지에 담수호와 논이 만들어졌다. 이곳에서 물고기들이 산란하면 천수만 앞바다와 일본까지 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자리가 없어지니 천수만은 생태계가 교란되고 파괴되었다.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어족자원이 모두 고갈되고 만 것이다. 어족자원의 고갈의 원인은 간척사업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남획에도 있다. 어사포구 앞바다에서 숱하게 잡히던 주꾸미 등이 수확량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는데 이는 자라기도 전에 남획하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AB지구 간척지를 원래대로 복원해야 한다. AB지구 담수호는 물이 모두 오염된 상태고 천수만 앞바다도 뻘로 차 있는데다 지금은 농사로 얻는 이득보다는 바다에서 올리는 수입이 훨씬 낫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도 증명되고 있다. 바다를 살려서 어민들의 수입증대를 확대해 주어야 한다.

| **김관은**(1925년형) 홍성군 서부면 |



피난민과 원주민들이 함께 가꿔온 수룡동포구

수룡동은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에 위치한 포구마을이다. 지금은 홍보지구 방조제 축조로 인해 수룡동포구 앞바다는 담수호가 되었으며 포구마을은 육지가 되었다. 수룡동포구는 전형적으로 원주민들이 뿌리내리고 살던 작은 해안마을이었다. 이곳에 한국동란 1·4후퇴 당시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사건이 생겼다. 황해도 옹진군 해주에서 80여 명의 피난민들이 대거 이주해 온 것이다.

수룡동 원주민들은 피난민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집집마다 빈방을 내어주고 헛간

등 피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모두 내어주었다. 80여 명의 대규모 피난민들을 작은 해안마을에서 모두 수용할 수가 없었다. 당산 주변의 언 땅을 녹이며 임시 움막을 지었다. 이곳에서 한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했다.

수룡동포구에 정착한 피난민들은 원주민들과 함께 화합하며 마을을 가꿔왔다. 바다에 나가 함께 어업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갔다. 마을에 조상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수룡동당산풍어제도 함께 발전시켜 왔다. 수룡동은 황해도 피난민과 원주민들이 70여 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발전시켜 온 포구마을이 되었다.

수룡동은 작은 해안포구로서 어업기술은 재래식을 벗어나지 못했었다. 반면에 황해도 피난민들은 원산 앞바다 등을 누비던 안강망 어선이 컸고 조기잡이 등 어업기술도 5,6년 정도 앞서 있었다. 수룡동에는 원주민과 피난민들이 마음을 합쳐서 다른 포구보다도 앞서가는 어업활동을 했다. 안강망 어선을 축조하고 배의 규모도 점점 크게 만들면서 먼 바다까지 나가서 어로활동을 했다. 피난민들도 몇 년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안정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 덕분으로 수룡동은 인근 항포구들 가운데에서 안강망 어선이 제일 많았다. 안강망 어선들은 처음에는 10톤 정도로 시작하였다가 70년대와 80년대를 거쳐 오면서 90톤 규모로 커졌다. 수룡동포구는 인근 오천항에 이어서 1종항으로 승격되었다. 충청남도에서는 두 번째고 1종항이 되었다. 당시에 1종항이 되면서 기름 탱크 시설 등을 지원받았다.

1980년대는 각종 어선에서 잡아들이는 고기가 참으로 풍성했다. 배에서 생산되는 수입이 상상 이상이었다. 안강망에서 잡아오는 새우는 가장 값비싸게 팔려 나갔다. 1년에 새우를 400~500드럼 정도 잡아들였다. 어선이 대형화되고 많은 어선들이 입항하면서 수룡동은 협소하기만 했다. 수룡동포구에만 안강망 어선이 20여 척이 되었다. 대형 안강망 어선들은 더욱 큰 항구를 찾아 나섰다. 인천과 군산 등지에 출장소를 두고 어업활동을 했다.

수룡동포구를 비롯하여 천수만 인근에 몰려있던 포구들은 1980년대부터 황금어장을 잃기 시작했다. 정부의 농산물 확보를 위한 간척사업이 원인이었다. 당시에는 쌀 생

산 증대가 국가의 주요 시책으로 자리잡았다. 천수만 일대는 리아스식 해안으로 간척사업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갖고 있었다. 홍성군 서부면 궁리와 서산시 간월도를 잇는 대단위 간척사업이 현대건설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도 드넓은 개펄과 함께 각종 어류들의 산란장소였다. 고기들이 산란하기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바다로서 상당한 보존가치가 있는 해안이었다. 이곳을 막아서 대규모 농토를 조성한 것이다. 이곳을 터전 삼아서 조상 대대로 살아오던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어버렸다. 보상금 몇 푼을 받고 고향을 등지거나 생활 업종을 바꿔야 했다.

수룡동포구도 마찬가지였다. 홍보지구 건설로 인하여 인근 성호포구와 함께 바닷물의 유입이 막혀버렸다. 대대로 이어지던 어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생활터전을 잃었다. 당시에는 국가권력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할 때였다.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대기업과 국가기관이 하는 사업을 지역주민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었다.

지금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 간척사업을 실패한 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농토와 바다의 수입은 1대 13의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수산업계에서 서울대에 용역을 주어서 도출된 내용이다. 농토보다도 월등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바다를 막은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었다. 천수만 일대의 바다가 황폐화되고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오염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홍보지구 방조제는 숱한 비용을 들이고도 아직까지 활용을 못하고 있다. 시간이 수년 동안 흘렀어도 담수호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사이에 포구와 주변 바다는 사라지거나 황폐화되었고 국민들의 혈세가 수없이 투자되고 있다.

김관은은 수룡동 홍보지구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한동안 방황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갑자기 없어지는 생업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더구나 조상대대로 이어지던 오랜 전통인 당산풍어제의 앞길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 마을 주민들은 오랜 고민 끝에 당산풍어제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수룡동 당산풍어제는 당산의 천연적인 바위 앞에서 지냈다. 육지로 변한 당산 아래에 풍어제단을 신축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36호로 지정받았다. 홍성군의 각종 축제행사장에 당산풍어제를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수룡동 당산풍어제는 원주민들과 황해도 피난민들이 각각의 고향 전통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왔다. 황해도와 충청도의 풍어제 풍습이 함께 가미된 특별한 풍어제 형식이다.

수룡동에서 어업활동을 하던 주민들은 방조제가 건설된 모산도로 배를 이동하여 정박시킨다. 현재 마을 앞으로 건설된 해안도로를 타고 나가서 어로활동을 하고 온다. 수룡동이 한창 번창할 대는 80여 세대가 되었다. 현재는 35세대로 많이 줄어들었다. 젊은 세대들이 모두 도시로 빠져나가고 노령인구들이 많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수룡동은 포구까지 사라지면서 인구감소가 더욱 심한 편이다. 수룡동은 포구가 사라졌어도 전통문화를 더욱 정성껏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황해도 피난민과 수룡동 원주민들이 함께 가꿔온 소중한 마을을 지금도 계속 지켜나가고 있다.

| **고광규**(1950년생) 홍성군 서부면 |



AB지구 방조제가 갈라놓은 궁리포구

궁리포구는 홍성군 서부면 하리에 있다. 옛날에는 마을이 당곡, 산막, 하리, 원당 등 네 개로 구분되었다. 그중에 하리 해변은 궁갓, 족시리, 산막 등 세 개 포구가 있었다. 이곳이 고향인 고광규의 회상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까지 세곳 포구에는 소형 어선들이 여러 척씩 정박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소형 어선으로 족시리에 5척, 궁갓에 8척 정도 있었다. 배에 돛을 달고 바람으로 움직이는 돛단배였다. 이곳에서는 풍선배라고도 불렀다. 1980년대까지 포구에 선착장 등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배를 정박시키

고 출항시키는 일이 힘들었다. 바닷물이 나가는 썰물 때는 2킬로미터 이상 백사장 아래로 물이 빠져 나갔다. 이때는 배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밀물 때 물이 들어와서 배가 떠야 출항할 수 있었다. 배가 백사장에 걸려있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배를 바닷물까지 밀어야 했다. 당시에는 너나없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다. 함께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 나눠먹곤 했다. 합심도 잘되었고 인심도 좋았다.

궁리에는 여러 종류의 고기가 잡혔지만 바지락이 흔했다. 당시에 굴양식장과 바지락 양식장은 대규모였다. 양식장에 나가면 4.5톤 트럭 여러 차에 실어야 할 정도였다. 그 자리에 앉아서 경운기 짐칸에 가득 넘칠 정도로 많아 잡았다. 보통 하루에 13톤 정도씩 채취했다. 1980년대 초까지 굴과 바지락을 많이 채취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먹고 사는 걱정이 없을 정도로 집집마다 소득이 높았다.

1980년대 들어서며 마을 앞으로 AB지구 방조제 건설이 시작되었다. 국가적인 사업이라 주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AB지구 건설로 인하여 해안마을은 반쪽으로 갈라졌다. 원래 3개 포구는 남쪽과 북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북풍이 불면 산막으로 배들이 피신을 갔고, 남풍이 불면 궁갓 포구로 피난 왔다. 해안선을 따라서 이어진 포구들은 서로 연결되어 이쪽저쪽으로 편리하게 오고 갔다. 하지만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산막에 있던 포구는 육지로 변하였고 궁갓에 있는 포구만 남아서 궁리포구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방조제가 건설되고 해안 생태계가 변하면서 마을 주민들은 한동안 많은 방황을 해야 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고기잡이를 계속해야 할지 우왕좌왕했다. 지금은 세월이 흐르면서 많이 정착되었다.

AB지구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궁리 앞바다에 새조개가 다량으로 서식하기 시작했다. 궁리 주민들은 당시에 새조개가 귀한 대접을 받는 조개인 것을 몰랐다. 그전에 어쩌다가 새조개가 그물에 걸리면 먹지 않고 버리기 일쑤였다. 새의 부리처럼 생긴 모양새도 이상하고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이곳에 새조개가 다량으로 서식하는 것을 외지인들이 먼저 알아차렸다. 전라도와 보령 등지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궁리 주민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여서 새조개를 차지하려고 혈안이 되었다. 전라도 쪽에서

주먹을 쓰는 사람들이 몰려왔다. 궁리 주민들에게 새조개를 잡아서 자기들에게 넘기라고 회유했다. 주민들을 고급 술집에 데리고 가서 후한 대접을 하며 약속을 받아냈다. 보령 쪽에서도 인천 쪽에서도 사람들이 왔다. 인천 사람들은 바다에 나가 조개를 잡을 수 있는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정식으로 조개를 잡을 수 있는 면허가 있으므로 자기들에게 새조개를 넘기라고 회유했다. 그 바람에 궁리 주민들은 이쪽저쪽으로 회유당하고 패가 갈려서 수난을 당했는데 어떤 주민들은 건달들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홍성군 경찰들이 와서 감시를 해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새조개를 마음대로 반출할 수가 없어 몰래 잡아서 팔기도 했다. 마을 어촌계에서는 외지인들에게 새조개를 넘기면서 공식적으로 0.2%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곳에 새조개가 다량으로 서식하자 새조개 축제도 시작되었다. 한동안 새조개로 인하여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지금은 새조개가 예전처럼 많이 잡히지 않는다. 축제를 하려면 새조개를 외지에서 반입해 와야 할 지경이다.

궁리포구는 백사장이 참으로 넓고 길게 이어졌다. 산막, 당곡을 거쳐 멀리 서산 고북까지 이어졌다. 각 포구마다 음력 8월 보름날에는 선유놀이를 했다. 포구별로 배가 모여서 불을 켜고 농악을 치며 바다 가운데를 한 바퀴 돌아오는 놀이였다. 배들마다 불을 켜고 바다를 한 바퀴 돌아오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이 행사는 1960년대까지 이어졌다.

앞바다에 물이 빠지면 서산 고북까지 개펄이 이어졌다. 썰물 때면 개펄 사이로 드러난 갯고랑에만 바닷물이 고여 있었다. 어린시절에 갯고랑에 주낙을 놓아서 고기를 잡았다. 미끼는 주로 낙지를 잡아서 사용했다. 계절에 따라서 도미, 장대, 숭어 등이 주렁주렁 낚시에 걸려 나왔다. 도미는 3~4킬로그램 정도 되는 크기도 있었는데, 아이들은 들기도 힘들 정도였다. 이렇게 잡은 고기는 어른들이 이웃 상황리에 가지고 가서 곡식으로 바꿔오기도 했다. 마을 앞 포구에 정박했던 배들도 보기 좋았다. 배에 돛을 단 숫자에 따라서 외대배, 두대배, 세대배 등으로 불렀다. 돛을 세 개 단 배가 제일 컸다.

마을 주민들은 농사와 어업을 병행했었다. 농사를 지을 때 두레도 성행했고 마을별로 지내던 풍어제도 풍성했다. 당제를 3개 마을이 함께 지냈으며 당집을 관리하는 사람도

별도로 있었다. 당집은 조류박물관이 있는 산중턱에 있었다. 풍어제는 70년경에 끊어졌다. 한때는 풍어제를 재현하려는 시도를 했으나 이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 바다 앞 개펄은 없어졌다.

AB지구 방조제 건설로 포구가 막힌 마을의 어민들은 궁리로 옮겨와서 배를 부리고 있다. 옛날처럼 잡히는 고기도 많지 않고 어종도 변했다. 지금은 바지락, 꽃게, 대하 잡이 등을 주로 한다. 궁리포구 근해에서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으므로 멀리 외연도 부근까지도 나간다. 주로 소형 어선들이므로 멀리까지 나갈 수가 없다. 현재는 낚싯배와 고깃배 등 50여 척이 넘는다. 포구 앞에는 횟집들이 늘어서 있으며 외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관광지가 되었다.

| **이성준**(1959년생) 홍성군 서부면 |



죽도(竹島), 홍성군에서 유일하게 사람이 사는 섬

죽도는 대나무가 많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홍성군에서 사람이 사는 유일한 섬이다. 죽도는 크고 작은 섬이 모두 12개이며 본섬에만 사람이 살고 있다. 물이 들어오면 보통 7개 섬만 보이고, 물이 빠지면 본섬과 연결된 몇몇 섬들을 걸어서 돌아볼 수 있다. 죽도는 천수만 한복판에 있는 섬이며, 남당리에서 가장 가깝다. 해돋이와 해넘이를 동시에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모습이 잘 보존된 천혜의 섬이다. 우럭, 꽃게, 바지락, 새조개 등이 잡히고 있으며 싱싱한 해산물을 사계절 맛볼 수 있다. 최근에 홍성군

의 최고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2012년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공모사업에 죽도가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년간 국비 20억 원, 도비와 군비 각 2억 5천만 원 등 총 25억 원을 투자하여 죽도의 특성에 어울리는 관광활성화 시책을 펼쳤다. 죽도의 명물인 대나무 숲을 이용한 '대나무 숲길 조성'과 죽도 인근의 무인도를 연결하여 사시사철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바다낚시공원' 조성, 외지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섬을 찾아올 수 있도록 '선착장 연결로' 등을 조성했다. 또한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정기 여객선도 운행하고 있다. 자가발전 시설과 함께 바닷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시설도 만들었다. 현재는 육지에서 해저터널로 직접 물을 연결하는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죽도리 마을이장인 이성준에 의하면, 과거 죽도 주변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잡혔다고 한다. 물 반 고기 반이라고 할 정도로 각종 고기가 많이 잡혔다. 특히 죽도의 김양식은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그때에는 낚시로 농어 등을 많이 잡았다. 낚시 미끼로 흰 헝겊을 끼워서 바다에 넣어도 고기가 물릴 정도였다. 지금은 비싼 새우로 미끼를 사용해도 고기가 잘 안 잡힌다. 그만큼 고기가 줄어들었다는 증거이다.

1980년대에 AB지구 방조제 공사로 인하여 바다고기가 줄어들고 오염이 심각해졌다. 특히 어족자원 고갈과 함께 고기 종류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옛날에는 농어, 숭어, 갯장어, 도미, 우럭 등이 많이 잡혔지만 AB 방조제를 막은 이후에는 대하와 새조개 등이 늘었다. 그러나 지금은 새조개도 많이 줄어들었다.

죽도가 서산군에서 홍성군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지만, 옛날에 사용했던 상펄어장은 서산 소유였다. 상펄어장은 바지락이 많아서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홍성군과 지역 주민들은 상펄어장을 찾아오기 위해 여러 해 동안 꾸준히 노력했다. 대법원에서 상펄어장 일부를 홍성군에 넘겨주도록 최종 판결이 나면서 오랜 숙원사업이 실현되었다. 이 결과 서부면 7개 어촌계가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상펄어장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죽도가 있기 때문이다.

1989년에 서산군 안면면에서 홍성군 서부면으로 편입되면서 죽도 주민들의 삶은 얼

마나 변화되었을까? 죽도 주민들의 교통과 관공서 출입은 편리해졌다. 행정구역이 바뀌기 전에도 죽도의 생활권은 남당리와 광천이었는데 민원서류나 관공서에 볼일이 있으면 멀리 서산이나 안면도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행정관할 구역이 바뀌면서 생활이 바뀐 것은 거의 없지만 관공서 출입은 편리해졌다고 볼 수 있다. 옛날의 죽도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 우선 교통이 불편했다. 육지로 나가려면 개인 어선을 이용하여 남당리까지 나갔는데 지금은 정기 여객선이 운행되므로 많이 편리해졌다. 배를 댈 수 있는 선착장 시설도 좋아졌다. 선착장 시설이 없을 때에는 바닷가 적당한 곳에 배를 댔다가 바람이라도 불면 배가 바위 등에 부딪히며 파손되는 일이 많았다. 지금은 선착장과 방파제 시설이 잘 되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

옛날부터 초등학교 분교가 있었지만 폐교되었다. 학생들은 남당리에 있는 신당초등학교로 다녀야 한다. 옛날 폐교될 당시에 죽도분교 재학생들은 남당리로 나가서 하숙을 했다. 죽도는 AB지구를 막으면서 바다가 오염되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바다에서 대규모로 양식을 하던 김양식을 할 수가 없다. 온도 변화로 물이 뜨거워진 데다가 바다가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죽도에서 많이 잡히는 바지락도 폐사되는 경우가 많다. 바닷속에 해초가 자랄 수 없으므로 고기도 산란장소가 사라졌다. 바닷속은 해초가 사라지고 시커먼 뻘 흙으로 뒤덮여 있다.

이성준은 선착장을 좀 더 넓혀서 배가 닿는 데까지 물건을 차로 옮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관광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므로 물이 부족한 것도 현재의 문제다. 육지에서 해저터널로 상수도를 연결하면 물 사정은 좋아질 것이다. 혹시 객지에 사는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들이 하는 사업을 잇겠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자녀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큰 걱정 없이 넉넉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섬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김동주**(1940년생) 홍성군 은하면 |



AB지구 방조제 건설로 육지가 된 오두리

오두리(鼇頭里)는 마을의 생김새가 자라 머리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이름으로는 '오두' '자라머리' '웃머리' 등으로도 부른다. 오두리 마을 앞에서 바라보면, 마을 지형이 자라머리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오두리는 1960년대까지 마을 바로 앞까지 바닷물이 출렁거렸다. 주민들이 마을 앞 갯벌을 막으면서 바다가 멀어졌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로는 바닷물이 아예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 현대건설에서 AB지구 방조제를 건설하면서부터이다. 오두리는 방조제 안쪽

에 있다. 육지로 변한 오두리는 옛날 바다였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마을 앞 해변은 황금들판으로 변하여 노랗게 익은 벼들이 수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방조제 안쪽 갯고랑 깊은 곳으로는 간월호라고 부르는 담수호가 출렁거린다. 바다였던 오두리 앞으로는 2차선 도로도 건설되었다.

오두리 지역 주민인 김동주에 의하면, 1960년대 초 주민들의 힘으로 오두리 마을 앞 갯벌을 막아서 논으로 만들었다. 당시에는 중장비가 없던 시절이었다. 오두리 주민들이 갯벌을 논으로 만든 간척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렵게 둑을 막아 놓으면 밀려드는 파도에 휩쓸려 나가는 어려움을 여러 번씩 겪었다. 그때마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싶었지만 끈질기게 이겨내어, 결국 7만여 평의 논을 확보했다. 이렇게 확보된 땅을 주민들이 공평하게 나눠 갖고 농사를 지었다. 오두리 마을회관 앞에는 바다를 막는 대역사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엄대섭의 공적비가 서있다.

오두리는 주민들의 힘으로 간척사업을 할 때만 해도 주변에 바닷물이 출렁였다. 마을 안쪽까지 들어오던 바닷물이 약간만 밖으로 밀려갔을 뿐이다. 그런데 1980년대에 현대건설에서 홍성군 서부면 궁리와 서산 간월도를 잇는 대규모 방조제를 건설하여 방조제 안쪽에 있는 드넓은 갯벌을 육지로 만들었다. 오두리는 방조제 바로 안쪽에 있는 마을인데, 그로 인해 마을 앞까지 넘실거렸던 바닷물이 궁리포구와 간월호 방조제 밖으로 밀려갔다. 오두리는 동서남북이 모두 육지로 변해버렸다. 옛날 바다였던 마을 앞으로는 서산과 안면도로 통하는 도로가 지나가고 있다.

오두리는 조선시대 안동김씨가 갈산 지역에 처음 입향한 마을이다. 조선시대 오두리에 정착한 안동김씨 입향조는 수북(水北) 김광현(金光炫, 1584~1647)이다. 김광현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순절한 김상용의 아들이다. 1637년 1월에 김상용이 순절하자 3년상을 치른 후에, 이곳 오두리로 낙향하여 정착한 것으로 전해온다. 이후 안동김씨가 갈산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며, 일명 '갈뫼김씨'로 불리고 있다. 또한 오두리에 정착한 안동김씨 후손 가운데에는, 오두리를 주제로 하여 많은 시를 남긴 부부 시인이 주목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김광현의 손자인 김성달과 이옥재 부부이다. 이들 부부는 김성

달이 벼슬살이를 위해 객지에 있는 동안, 애틋한 마음을 시로 주고받았다. 부부의 시집 이름은 『안동세고(安東世稿)』이다. 김성달과 이옥재 부부의 아홉 자녀들도 모두 시를 남겼는데, 특히 막내딸인 김호연재의 시가 주목받고 있다. 김호연재는 대전 동춘당 송준길 가문으로 출가하여 살면서 친정과 고향 오두리를 그리며 썼던 시들이 유명하게 전해오고 있다. 김호연재의 한시 수록 시집 『연주록(聯珠錄)』과 『호연재유고(浩然齋遺稿)』 등이 전해오고 있다.

김동주는 어릴 적 오두리 앞바다에 대한 추억이 많다. 오두리 앞으로 넓게 형성된 백사장을 잊을 수 없다. 백사장은 마을 아이들의 놀이터였고 주민들이 모여서 휴식을 하던 장소이기도 했다. 백사장의 모래는 어찌나 하얗고 고왔는지 금빛이었다. 아무리 뒹굴어도 모래가 몸에 들러붙지 않았다. 이곳에서 씨름을 하고 뛰어놀던 추억이 남아 있다. 또한 한여름에 백사장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던 추억도 있다. 바다에서 잡아 올린 각종 해산물을 끓여 먹고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두리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던 지점이었다. 수덕사에서 발원한 와룡천은 갈산면을 경유하여 오두리 앞으로 흘러와서 바다와 합류한다. 밀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합류 지점에는 각종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곳에 그물을 쳐놓고 다양한 고기를 잡아 올리곤 했다.

오두리 주민의 삶은 반농반어의 생활 모습이었다. 배를 타고 먼 바다까지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경우는 많지 않고 농사를 하며 앞바다에 나가 맨손으로 각종 해산물을 채취해 생계를 이어갔다. 당시 앞바다 갯벌은 해산물의 보고였다. 부지런하기만 하면 바다에 나가 낙지와 조개와 굴 등 맨손으로도 얼마든지 많은 해산물을 채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잡아 올린 해산물은 갈산장이나 홍성장 등으로 갖고 나가 팔았다.

그는 바다가 아니었으면 1남 7녀를 고등학교까지 가르칠 수 없었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자녀들은 방학이나 공휴일 등에는 바다에 나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에 매달렸다. 오두리 앞바다는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가장 좋은 돈벌이 장소였다. 자녀들은 집에서 공부할 틈도 없이 바다에 나가 스스로 학비를 벌어서 학교에 다닌 셈이었다. 바다는 부지런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주었다.

옛날에는 뒷산 당집에서 당산제도 정성껏 지냈다. 생기복덕을 보아서 제일 마땅한 사람 2명을 제관으로 선정했다. 제관은 음력 섣달그믐날 당산에 올라가서 주민들의 소지를 올렸다. 모두가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낸 제사였다. 당산제에 소요되는 비용은 걸립하여 모았다. 그도 제관으로 선정되어 직접 당산제를 지낸 경험을 갖고 있다. 주민들 모두가 당산제를 신성하게 여기고 합심 단결하여 지내던 것이 20여 년 전부터 중단되었다.

오두리는 AB지구 간척사업으로 많은 것을 잃었다. 우선 풍성하게 잡아 올리던 해산물을 구경할 수가 없게 되었다. 주민들은 나라에서 하는 일이니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쌀이 부족하여 농토를 넓히는 일이니 괜찮은 사업이라 여겼다. 지금 생각해보면 손해가 많은 사업이었다. 마을뿐만 아니라 홍성 지역과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란 생각이 든다. 아마도 지금 같았으면 방조제 건설을 반대했을 것 같다. 현재 주민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한다. 대부분 마을을 떠나고 남은 사람들은 주로 노인들이다. 젊은 사람들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다. 바다와 관련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다.

| **이완수**(1935년생) 홍성군 갈산면 |



전국적인 살조개 생산 갯벌이었던 동성리 앞바다

이완수는 동성리에서 나고 자랐다. 한 번도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다. 4형제의 막내아들로 태어나서 토기점을 물려받아 운영하면서 고향을 지켰다. 그가 운영하는 옹기점은 증조할아버지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거쳐서 가업을 이어왔다. 그의 손자는 대학에서 도예를 전공했다. 선대로부터 해오던 사업을 잇겠다며, 순전히 본인 의사로 도예과에 입학했다. 노동을 싫어하는 세태인데 흙을 만지고 그릇 굽는 일을 물려받겠다는 손자가 기특할 뿐이다. 이렇게 그의 가업은 6대째 잇고 있다.

그는 14살 때부터 아버지가 운영하는 옹기점 일을 도왔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정도 하는 일 없이 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거라도 해야 밥 먹고 산다."면서 옹기 일을 권유했다. 그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흙을 만지고 그릇 만드는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생전에 전통옹기 기능보유자로서 충청남도 인간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지만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지 겨우 3년 만에 돌아가셨다. 안타깝게도 그는 아버지의 인간문화재를 이어받지 못했다. 아버지가 인간문화재로 지정받고 5년 이상을 생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그 뒤 전통옹기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과 손자가 이뤄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의 옹기점은 동성리 바닷가와 붙어 있었다. 당시에 동성리 바닷가에는 옹기점이 5곳이나 되었다.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2곳에서 옹기를 굽고 있다. 옹기점이 바닷가에 위치한 것은 여러 이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바다를 이용한 그릇의 운송이 편했다. 옹기점에서 구워 내는 그릇은 바로 앞바다에서 배에 싣고 섬이나 이웃 지방으로 팔려 나갔다. 성촌토기에서 굽는 옹기들도 바다를 통해서 팔려나갔다. 당시에 잘 팔리던 새우젓 독은 독배 등지에서 인기 있었다. 동성리 앞바다에서 배에 싣고 독배와 이웃 섬 지역으로 운반되었다.

동성리 바다는 각종 해산물의 생산지였다. 흔히들 '고기 반 물 반'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바다에서 고기가 많이 잡힐 때의 일화가 전해온다. 옛날 마을에서 운영하는 중선배가 출항했다. 배가 한 번 출항하면 보통 일주일 이상 고기를 잡은 후에 만선이 되어 돌아왔다. 그런데 바로 전날에 출항한 배가 갑자기 이튿날 입항하는 때rk 있었다. 멀리 입항하는 배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다. 하루 만에 배가 들어오는 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무슨 사고를 당해서 미리 입항하는 것으로 추측하게 되는데 배가 입항하고 보니 사람들의 추측은 완전히 빗나갔다. 배가 출항하여 첫 그물을 내렸는데 한 번에 만선이 될 정도로 고기를 그물 가득 끌어올린 것이었다. 더 이상 고기를 잡아야 담을 장소가 없어서 미리 입항한 것이었다. 그만큼 동성리 앞으로 펼쳐진 바다는 고기가 많았다.

동성리 앞에 드넓게 펼쳐진 갯벌은 각종 조개와 바지락과 갯벌낙지들이 바글바글 했다. 금방 잡고 되돌아서면 그 자리에 또다른 해산물이 모여들었다. 바지락이나 조개를 호미로 캐낼 것도 없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주워 담기만 할 정도였다. 갯벌에 한 번 나가면 그 자리에 앉아서 몇 발짝 움직이지 않고 살조개를 몇 말씩 잡는 것은 보통이었다. 지게에 짊어지고 나올 수 없을 만큼 잡았다. 이렇게 잡고 또 잡아내도 항상 해산물들이 넘쳐났다. 동성리 앞바다 갯벌은, "물 반 고기 반"이 아니고, "흙 반 조개 반"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다.

그의 옹기점에서 가마에 불을 때면서 고기 잡던 추억도 새롭다. 옹기점 가마는 바다와 마당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붙어 있었다. 가마 아궁이에서 가마에 불을 지피고 앉아 있으면 마당 앞까지 들어찬 바닷물에서 고기가 파닥이며 뛰어놀았다. 그는 불을 때다가 얼른 달려 나가서 뜰채로 고기를 잡아 올리곤 했다. 이렇게 잡아 올린 고기를 가마 아궁이에서 구워 먹던 추억도 남아 있다. 당시에 동성리 앞바다 갯벌에서 잡아 올리던 종류는, 모시조개, 대합, 백합, 갯벌낙지 등이 많았다. 갯벌에서 갯지렁이를 잡아서 벌어들이던 수입도 괜찮았다. 갯지렁이는 배들이 바다에 나가 낚시할 때 미끼로 사용되었다.

옛날 동성리 앞 갯벌에서 채취하는 살조개는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이곳에서 생산되던 살조개는 전국으로 팔려 나갔다. 1960년대를 전후하여 홍성, 광천, 서산 등지의 시장에는 동성리에서 잡아 올린 살조개가 대량으로 출하되어 애호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당시 이웃한 지역의 버스나 기차역에는 재미있는 볼거리가 있었다. 한겨울에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는 화덕 위에 살조개를 삶아서 파는 아낙네들이 많았다. 양복이나 양장 옷을 예쁘게 차려입은 신사나 숙녀들도 방금 삶은 살조개를 체면 차리지 않고 사 먹곤 했다. 지금도 나이 60대 이상이라면 옛 풍경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을 터인데,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에서 파는 살조개는 거의 모두가 동성리에서 채취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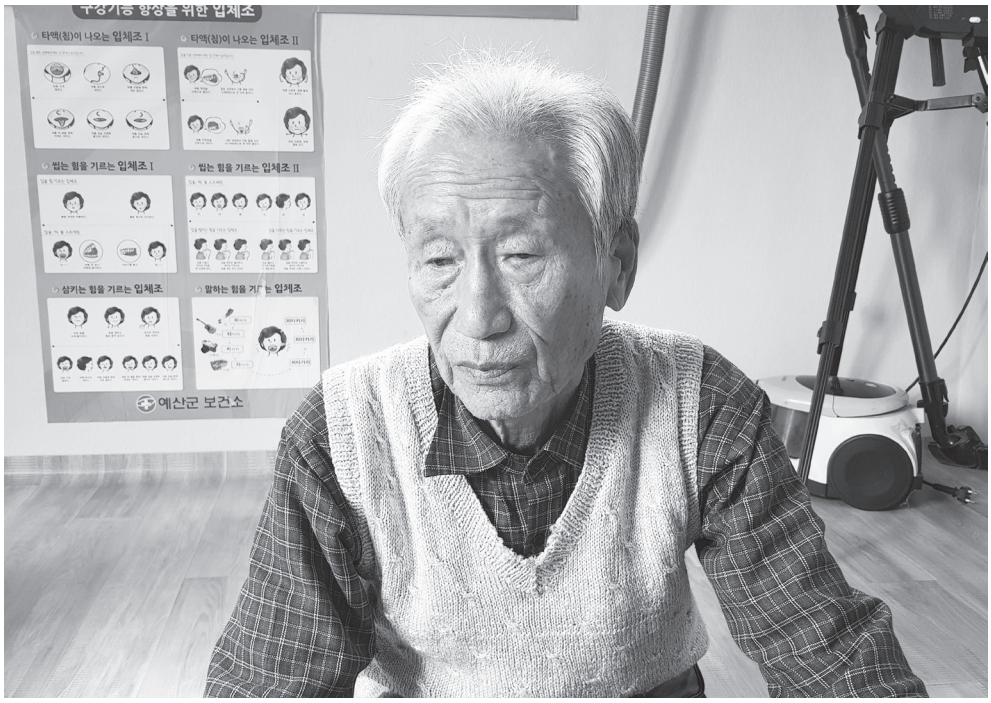
당시 홍성에는 전국적인 유통망 조직을 갖고 있는 살조개 도매상이 있었다. 지금도 당시의 전통에 따라서 타 지역에서 잡은 살조개가 홍성을 경유하여 전국적으로 유통될 정도라고 한다.

1960년대 이후부터 동성리 바닷가는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생겼다. 성촌토기 앞으로 대규모 염전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단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염전이 생긴 것이다. 이 염전은 성촌토기 바로 앞쪽에 조성되었다. 갯벌이 얕은 부분을 막아서 염전을 만들고 천일염을 생산했다. 천일염뿐만이 아니라 불을 때어 화염을 생산하던 염전도 두 곳이 있었다. 이들 염전은 1980년대 AB지구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모두 사라졌다.

1980년대에 동성리 앞을 막는 방조제가 건설될 때, 나라에서 부족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 대규모 간척사업을 하는 일이므로 괜찮겠거니 했다. 또한 방조제를 건설하면서 방조제 건설로 생겨난 논을 주겠다며 보상책을 내놓았다. 당시 보상을 받아서 논농사를 잘 짓고 있는 주민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상받은 증명서 딱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겼다. 그도 옹기점 일에 바쁜 관계로 그렇게 했다. 주민들은 지금에 와서 대부분 후회를 많이 한다. 그때는 우선 보상을 받은 만족감으로 별다른 반대도 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마을 앞에 펼쳐진 천혜의 보물창고가 사라지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예산군

| **홍화중**(1937년생) 고덕면 상궁2리 |



홍화중은 1937년생으로 합덕읍 서구리에서 태어나 15세에 상궁2리로 이주하여 성장하고 군 생활을 제외한 모든 세월을 이 마을에서 살았다. 17세에 마을 두레에 들어 장정 품앗이를 시작했으며 19세 어린 나이에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허복희와 혼인하여 농사를 직업으로 평생을 살았다.

상궁2리는 들이 넓기로 예산에서 소문난 마을이며 농사일도 많은 마을이다. 일찍이 큰 방앗간(정미소)이 생겨 인근의 20여 개 마을 벼를 찌어, 타동에서는 이 마을을 방앗

간 동네라 불렀다.

이 마을에는 서당이 있었다. 그 서당의 마지막 훈장 이순갑은 학동을 모아 사랑방에서 글을 가르쳤다. 이 마을에 살던 장기돈 또한 자기 사랑방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쳤다.

마을 사람들이 먹는 공동 우물이 4개고 마을에서 동민이 함께 올리는 대동 마을 신앙은 없으며 칠석에 〈무고안택풍장〉이 유일한 집단 민속이다. 칠석 무고안택(安宅) 풍장은 예산 지역의 고유민속으로 칠석날 아침부터 밤까지 풍장꾼들이 부잣집을 돌며 안택풍장을 쳐주고 음식과 술을 대접받았던 민속이다.

절기 민속으로는 2월 1일의 머슴 생일에 마을 부잣집을 돌며 풍장을 치고 머슴 생일놀이가 성행했다. 단오놀이도 즐겼다. 단오 그네는 평야 지대에는 흔하지 않고 산간 지방에서 성행하는데 상궁2리는 들 가운데 마을임에도 단오 그네를 반드시 매던 마을이다. 마을 안에 그네 터 2개소가 있어 매년 그네를 즐겼고, 위 참나무에는 나이 먹은 아낙네들이, 아래 그네터에는 미혼의 처녀들이 즐기는 자리가 되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단오 씨름 마당도 있었다. 다른 마을과는 다르게 이 마을의 단오 씨름판은 멍석 2겹을 엎어 깔고 판을 벌여 멍석 씨름이라 부르기도 했다. 우승을 해도 특별한 상은 없으나 단오 멍석 씨름판에서 우승을 하면 동네 장사로 대접 받았기 때문에 매년 많은 사람이 모여 단오 씨름을 즐겼다. 이는 예산 지역에서는 드믄 일이며 멍석 씨름판은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독특한 문화다.

정월 대보름에는 마을 고사를 지내지 않고 장가든 사람 이상 참여하는 윷놀이 대회인 척사대회를 열었다. 이 역시 별도의 상장이나 상금은 없는 대회였다.

일제강점기에 장석태가 발동기 방앗간을 세워 상궁2.3구, 신리, 구만리, 대합덕 등의 벼 방아가 이 마을로 몰려 상궁2리를 방앗간 동네로 불렀다. 이 마을의 창말 두레의 특징은 고덕에서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최병하, 인동 40리 안에 땅이 있다는 이교승 등의 큰 부자가 있고 마을의 들이 넓어 아주 일이 많았던 두레라는 점이다. 해방 후 두레를 세웠으나 일이 많아 일찍 쇠락하여 1949년경에 두레가 사라졌다. 두레가 본디 일을 빨리 많이 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고 힘없는 농부들이 부자들로부터 자신들을 보

호하고 적은 일감을 고루 나누어 하기 위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이 많고 장정이 적어 두레를 운영하지 않아도 피해가 적은 마을에서는 일찍 사라진 것이다.

두레 호수는 115호, 두레 물수는 2물 두레, 마지막 좌상은 윤창한이다. 이 마을 두레 선소리꾼으로는 권진갑, 김희연, 방천룡, 임영신, 방대연이 활동하였으며 논매는 소리 후렴 긴소리는 '얼카 덩어리', 잦은 소리는 '얼카뎅이야'다. 일이 많았던 두레라서 두레풍장은 성행하지는 않았으나 두레가 서는 날에는 어김없이 풍장을 쳤다. 1940년대까지 두레 일판의 풍장꾼들은 다음과 같다.

상쇠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성명 미상이며 1913년경 생으로 당진 채중석의 아버지 채주태와 함께 침)이 있었으며, 이 뒤를 이은 사람이 1927년생 박명신이었는데, 걸립풍장과 두레풍장 모두 상쇠를 했다. 허튼춤이 일품이고 소리에 능했던 사람이다. 부쇠 전용근은 1928년경 생으로 잔가락을 잘 쳤으며 북도 잘 쳤다. 장구 홍백중(1942년생), 방대석(1942년생) 두 사람이 함께 장구를 잘 치고 놀기를 좋아하였다. 홍백중은 타동에도 장구 잘 치는 사람으로 회자되었으나 술이 과하여 단명하였다. 방대석은 특히 열채 가락이 좋아 열채대석이라는 별호로 불렸다. 이후 아직도 생존해 있는 홍화중이 마을의 장구잽이로 대를 이었다. 징은 이재열(1835년경 생)과 인봉욱(1935년경 생)이 번갈아 징을 쳤으며, 북은 유상직(1926년경 생)이 잘 쳤다. 유상직은 마을에서 큰 북잽이라 칭해지던 사람이다. 이웃 호음리에서도 잘 한다는 소문이 나서 훗날 호음리가 예산의 대표 풍장단으로 운영될 때 자주 참여하였다. 최복석은 1920년경 출생자로 유상직 이전에 이 마을의 북잽이였다. 새납은 이갑순(1903년경 생)이 잘 불었다. 그의 새납 솜씨는 인근 마을에 뽑혀 다니던 새납꾼으로 1930년대 중반에 이미 새납으로 유명했으며 누구에게 배운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상모로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수상모 활동을 한 사람은 이만복(1918년경 생)이다. 짧은 상모를 잘 돌려 오래도록 꿩배에 든 젊은 두레꾼들에게 상모놀이를 가르쳤다.

두레의 쇠락은 타동보다 빨랐다. 이 마을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두레를 세우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상쇠 부쇠, 장구 3. 북 2, 징 1, 상모 다수의 농사와 마을 풍장은

매우 성행하였던 마을이다. 특히 마을에 소리꾼들이 많아 두레 공동작업이 아닌 일판에서도 논매는 소리는 즐겨 부른 마을이며 먹으로 그린 용대기와 사령기가 각 1조 있었으나 해방 후 보았다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50년경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상궁2리의 칠석풍장은 하루 전부터 시작된다. 음력 7월 6일 마을 안에 있는 네 개의 동네 샘을, 샘물을 먹는 사람들이 모여서 푸고 청소한 후 샘고사를 재냈다. 샘고사는 특별한 고사 음식 없이 술 한 잔 부어 놓고, 새로 받은 맑은 물 한 잔을 떠 놓고 "뚫으세 뚫으세 물구녕만 뚫으세." 이 짧은 축원을 한 후 아주 빠른 가락의 풍장을 치는 것으로 끝난다.

칠석날은 하루 종일 풍장을 친다. 마을의 풍장꾼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풍장을 치며 복을 빌어주고, 그 집에서 내는 음식과 술을 얻어먹으며 노는 이른바 칠석풍장 마당을 벌이는 것이다. 일제강점기에도 한 해도 거르지 않았다. 오전 10시경 시작 밤늦게 끝난다. 이 풍장을 '무고안택'이라 하였다.

| **이종배**(1937년도) 고덕면 상궁1리 |



땅 부자 일 부자

이종배는 1937년생으로 예산읍내 예산리에서 출생하여 아홉 살에 이 마을로 이주해 평생을 살았다. 29세에 예산군 신양면에 살던 정연희와 혼인하여 슬하에 2남 2녀를 두었다. 논 25마지기(5,000평)를 농사짓는 중농이었지만 부자가 많은 이 마을에서는 부자 축에 들지 못하고, 그저 살 만한 사람 대접을 받았다. 흥이 좋아 놀기는 좋아했지만 일에 치여 풍장꾼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으며 장구가 놀면 간혹 치는 정도로 살았다. 지금은 농악을 전혀 치지 못한다.

상궁1리는 들 가운데 있는 마을이다. 들이 넓으면 일이 많다. 그러나 꼭 부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들이 넓은 마을이지만 땅은 외지 지주들이 차지하여 소작농이 많은 마을도 있기 마련인데 상궁1리는 다행히 땅을 외지 지주들에게 빼앗기지 않아서 이 마을 사람들이 땅을 많이 소유한 부자 동네다. 부자 마을이면서 일이 많아 조선 말엽에서 일제강점기 중반(1930년대)까지는 두레가 매우 성행하였으며 일제강점기에 왕성하게 활동한 새납의 명인이 살았던 마을이다.

대동 마을 신앙은 없으며 칠석의 '무고안택풍장'이 유일한 집단민속다. 이 마을에 살았던 청송인 심구택이 일제강점기에서 해방 후까지 서당을 열어 천자문, 명심보감 등의 서당 초학(初學)을 이종배의 사랑방에서 가르쳤다.

상궁1리는 옛날 한내장으로 불린 고덕장 인근 마을이어서 많은 영향을 받았으며 서산장-한내장-온양장으로 소장수들이 이동하여 한내장의 우시장이 유명하였다.

상궁1리에는 다른 마을에서는 좀처럼 쓰지 않는 말이 쓰인다. 이른바 '여인네 두레'가 그 말이다. 남자들이 논농사를 지으며 공동작업을 하면서 지주들로부터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일감을 서로 나누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두레다. 그러나 논농사에 여인들이 참여하면 안 되는 풍습으로 살아온 예산에서는 여인 두레라는 말은 없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밭농사를 함께 하는 여인들의 공동작업이 성행하였고, 이를 '여인 두레' 또는 '여인네 두레'라고 불렀다. 이는 마을 소유의 밭인 동전(洞田) 때문에 시작되었다. 개인의 밭이 아니고 보니 밭농사를 지어 마을 공동 재산으로 삼았는데, 이를 품을 얻지 않고 순번을 정하여 여인들이 무료 출력하여 농사를 짓는 것이 계속되었다 한다. 여인들이 품삯을 안 받고 공동작업을 행한 이유로 여인네 두레라 말했다. 동전 면적은 600여 평이었다. 이 마을에서 활동한 소리꾼은 강금호가 두레 소리와 노랫가락 창부타령에 능했으며 김윤태도 소리꾼이어서 평소에도 소리하는 것을 즐겼다. 앞서 기록대로 상궁1리는 부자 마을이다. 이수영, 장연식, 유영철 등이 1만2천 평에 이르는 3섬지기(60마지기) 이상의 대농이고, 예닐곱 집이 30마지기 이상의 부자가 살았다. 전통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논 4,000평이 부자의 기준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는 매우 많은 것이다.

전통 사회 농사는 땅 주인이 마을의 농사를 책임지는 것이 관습이다. 내가 사는 마을의 부자가 다른 마을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타동의 일까지 해야 하고, 내가 사는 마을 땅을 타동 부자가 지으면 내 동네일을 타동의 농부들에게 빼앗기는 것이다. 물론 소작일 때는 예외다. 이런 관계로 상궁1리는 땅 부자, 일 부자였고 두레는 당연히 성행할 수밖에 없었다. 일반적으로 일감을 나누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두레인데 이 마을에서는 일을 빨리 많이 하기 위해 두레를 세웠다. 그러나 전통 사회에서 일제강점기 말까지 성행하였던 두레는 1940년대, 이른바 태평양전쟁 시기에 일제가 두레를 탄압하여 세우지 못하게 되었고, 일이 많고 장정이 적어 두레의 공동작업이 빨리 쇠하였으며 풍장도 쇠하여 해방 후에는 오히려 풍장이 약한 마을이 되었다.

두레 호수는 60~70호, 마지막 좌상은 미상, 두레 선소리꾼은 강금호와 김윤태, 논매는 소리 후렴은 느린 소리 잦은 소리 모두 '얼카 덩어리', '얼카뎅이야'다.

이 마을에서 활동한 두레풍장꾼은 다음과 같다.

상쇠는 1898년경 출생자인 김윤태가 고덕면에서 알아주는 상쇠로 타동에 불려 다녔다. 흥이 좋고 노래를 잘하여 논매는 소리의 선소리꾼이기도 하였으며 놀이판의 소리에도 능했다. 이후 이종민(1929년경 생)이 김윤택 강금천의 가락을 배워 쳤으며 부쇠는 강금천(1909년경 생)으로 성격이 차분하여 언제나 부쇠만 쳤다. 박부석(1929년경 생)은 이종민 상쇠 시절의 부쇠다. 징은 이수영(1899년경 생)으로 이 마을 이병구의 아버지인데 언제나 조용히 징을 친 사람이다. 장구는 강금오(1910년 생)로 흥이 좋고 춤을 잘 추며 화려한 장구를 치던 사람이고 목청이 좋아 두레 논매는 선소리꾼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북은 북 가락이 좋았던 북잽이 김문섭(1909년경 생)과 이종민 상쇠 시절의 북잽이 박종관(1939년경 생)이 활동하였으며 새납은 예산 최고의 새납, 새납의 명인으로 이름이 높았던 강금호(1910년 생)가 불었는데 1930년대 후반에 이미 새납으로 유명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마을 두레는 일찍 쇠락했다. 무슨 연유인지 밝혀지지 않으나 1934년경부터 마을에

서 있었던 일로 두레의 결속력이 약해진 것으로 보이며 일제가 두레를 금한 1940년부터 두레가 미약해져 1943년경 두레가 완전히 사라지고는 다시 세우지 못한 마을로 보인다. 먹으로 그린 용대기와 사령기가 각 1조 있었으나 해방 후 보았다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43년경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상궁1리도 칠석은 전날부터 시작된다. 음력 7월 6일 마을 4개 동네 샘의 샘을 먹는 사람들이 모여서 푸고 청소한 후 샘고사를 지냈다. 고사에 음식은 진설하지 않으며 술 한 잔에 맑은 물 한 잔을 놓고 축원을 한 뒤 풍장을 치는 것으로 끝난다. 4개의 마을 공동우물 중 하나는 물이 차가워 옻이 올랐을 때나 옴이 오를 때 그 물로 목욕을 하면 낫는 샘이라는 의미의 〈옻샘〉이라 불렀다.

칠석날은 하루 종일 풍장을 친다. 일제강점기를 포함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쳤으며 오전 10시경 시작 밤늦게 끝난다. 이렇게 치는 풍장을 이 마을 사람들은 '무고안택'이라 하였다. 이 증언은 상궁2리와 같았다. 이 마을도 1945년 해방 후 광복의 기쁨으로 여러 날 풍장을 쳤다.

| **이영칠**(1928년생) 예산읍 신례원리 |



예산 최고의 농기 보유 마을

이영칠은 1928년생으로 이 마을에서 태어나 1940년 14세에 영등포에 나가 살다가 19세인 1945년 마을로 다시 들어와 살았다. 92년 세월 중 5년만 마을을 비웠을 뿐 이 마을을 지키고 살아온 토박이다. 더구나 마을의 많은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을의 역사 민속에 대해 막힘이 없다. 21세에 인천에 사는 신금례와 혼인하여 슬하에 3남 1녀를 두어 가정을 이루었다. 농사의 규모는 20마지기(4,000평)로 부자에 속한 농부였다.

청소3리는 신례원으로 통칭되었던 마을이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신례원은 다른 마을이고 행정구역도 다르다. 그러면서도 청소3리라 하면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신례원이라면 알아, 다른 고장에 가서 자기 사는 마을을 이야기할 때는 신례원으로 통한 것이 이유인 듯하다. 청소3리는 조선조 역창이 있고 배가 드나들었던 고장이다. 삽교 방조제가 막힌 이후에는 내륙이나, 이전에는 항구로 예산의 전통 항구의 문화를 포함하고 있는 마을이라는 점이다. 이 마을에는 조선조 역창이 있었다. 곡식이 아니라 소금을 저장하는 창고가 있었으며 서울로 올리는 조공 소금과 공주, 강경, 청주 등으로 소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항구, 즉 염창(鹽倉) 고장이면서 교통의 요지였다.

이 마을에는 예산 최고의 농기가 전한다. 이 농기로 보아 1980년대 두레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각성바지의 마을이라는 그 시대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농기를 세우고 마을을 운영하였다고 한다. 염창이 있고 장이 컸던 마을 특유의 직업으로 짐을 실어 나르는 마차꾼들이 많은 마을이기도 했다. 행방 당시 마차꾼 수입으로 살아간 가정이 13가구에 달할 만큼 마차는 이 마을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다.

민속으로는 타 마을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오방 장승제가 있었다. 산이 없이 평지의 바닷가 마을이라서 한 곳에 장승백이를 만들지 않고 사방 네 곳에 장승을 세웠다. 매년 사방의 장승백이에 장승을 세우고 장승제를 지낸 후 중앙에서 소지를 올리는 오방 장승제가 오래도록 유지되었던 마을이다.

오방 장승은 동방청제, 남방적제, 서방백제, 북방흑제 중앙황제 대장군으로 칭하고, 유교식 고사를 사방에 올렸다. 사방에서는 단순한 축문을, 중앙에서는 격식을 갖춘 축문을 봉축하고 중앙에서 마을 대동 소지와 호주 소지를 올리며 용대기를 세우고 농기고사를 간략하게 올렸다. 부정 드는 것을 몹시 경계하여 풍장은 치지 않으며 아이 출산이 임박하면 타동 친척의 집에서 출산하여 3.7일, 즉 21일 후에 돌아오게 하였다. 장승제는 정월 초사흘에 올리며 전년도 동지부터 본격 추진하였다. 1955년까지 장승을 세우고 지냈고 1959년까지 장승을 세우지 않고 글씨만 써 놓고 지낸 후 마을 총회를 거쳐 중지하였다(1958~9년경 완정 소멸). 마을 소리꾼은 상여 행상소리·들노래 선소리꾼이



청소3리 농기

방석준(93세)이며 이전에는 엄인영(110세 정도)이 상여 요량 선소리꾼으로 활동했다.

청소3리는 창말 두레의 특징은 자유로움에 있다. 역창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농업 소득 외의 소득을 중요시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이 약했다. 두레는 운영되면서도 두레의 강제력이 매우 낮았으며 논매기 두레 공동작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 두레 공동작업에 빠져도 벌금이나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말이다.

두레 호수는 80여 호, 마지막 좌상은 김병삼(1908년생)·고창윤(1903년생), 두레 선소리꾼은 최정섭(1912년 생)·방석준(1926년 생), 상쇠 고창윤(1909년경 생), 부쇠는 있었으나 성명 미상, 징은 김은경의 작은 아버지(성명 미상 1915년 생), 장구 이경선(1913년생), 북 이재우(1928년생), 새납 방태석(1913년생, 방석호의 부. 1930년대부터 불었음)이 두레의 일반 사항이다.

이 마을에는 민속자료 차원의 중요 농기가 전한다. '신농유업(神農遺業)'이라 쓴 농기는 1821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세분한 기의 규격은 총 길이 385cm, 총 기폭 180cm, 본 길이(농기 기치 검은 부분을 제외한 바닥 흰 천의 길이) 321cm, 문(신농유업) 길이 278cm, 폭 75cm, 제작 년대의 기록 길이 103cm, 천 원단의 폭(바탕은 흰 천 2장을 이어붙였으며 그중 넓은 천의 폭) 110cm, 기치 폭 27cm, 길이 20cm, 사이(기의 양편 삼각 톱날 부분으로 끝과 끝 간격을 말함) 19cm이다. 다행히 농기의 제작 시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제작 시기문은 도광원년(道光元年)이며 이는 중국 청조의 연호로 1821년에 해당하여 우리나라는 조선조 순조 21년에 해당한다.

1821년에 농기를 세웠다는 것은 1821년에 이미 이 마을에 두레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영칠에 의하면 이 마을에는 타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였다 한다. 또한, 방조제가 막히기 전에는 항구로도 작은 마을이 아니라서 언제나 외지 사람들이 유입되던 마을이었다. 그런 연유로 마을의 이장을 비롯한 유지들의 발언권이 매우 강했고, 농사의 두레 역시 두레쌀을 얼마나 모으느냐보다는 두레꾼들이 얼마나 단합하느냐에 좌상의 관심이 컸다 한다. 그의 증언 중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 그렇게 해도 여전히 안정되지 못하고 1930년대의 일제시대나 해방 후나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청소3리는 방조제 막힌 후 내륙의 마을이 되고 나서야 일반적인 농촌의 촌락구조로 안정되었다 한다. 이로 미루어 1821년 농기 제작으로 두레가 완성된 후 삽교 방조제가 막히기까지 돈에 얽매임은 다른 마을보다 적었지만 마을이 단합하기 위해 구속력이 강한 두레로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청소3리의 칠석풍장은 예산의 다른 마을과 유사하다. 칠석풍장 중 다른 마을과 다른 점은 하루 전에 원봉리에서 매년 농사를 짓는 원두막에 가서 '호박 청참외'로 부르는 참외를 많이 사고, 마을 부자들이 술을 내서 호별 방문을 하기 전에 1차로 풍장패와 마을 사람들이 마을 공터에 모여 즐긴 후 호별 방문 풍장을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무관택풍장에서 쌀이나 보리쌀, 돈을 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풍장꾼들은 이를 모아 마을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마을 경비로 사용하였다.

| **오석호**(1934년생) 예산군 광시면 시목2리 |



물가래질 하는 마을

오석호는 1934년에 이 마을에서 태어나 군 경력 제외하고는 모두 이 마을 시목2리에서만 거주한 인물이다. 또한 금번 예산 농악의 주제에 맞게 마을 풍장패의 벅구잽이면서 상모꾼이다. 그는 시목2리가 해방 후 광시면 풍장대회에서 여러 번 장원을 하였고 예산군 풍장대회에 면 대표로 출전한 광시면 최고의 풍장고지였다. 20세에 예산읍내 김기란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2남 2녀의 아들딸을 두어 가정을 이루었으며 그의 아우도 벅구를 치고 상모를 돌렸다.

시목2리는 남자 노인들이 건강하고 정신이 맑아 장수촌이라는 인상이 깊은 마을인데, 지금도 강석기(85세), 김학묵(76세), 이신규(86세), 강석천(74세), 최홍식(78세) 등이 많은 옛일을 기억하고 있다.

시목2리는 산신제를 올리던 마을이다. 정확히 말해서 시목1·2리가 나뉘기 전 시목리가 올린 산신제였다. 안살무기는 시목1리는 밖살무기는 지금의 시목2리가 된 것인데 1990년대 이후 사라졌지만, 마을 전체의 주민들이 함께 올리는 백월산의 산신제가 있었다. 백월산의 산신제는 시대적인 흐름을 이기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산제당은 아직 존재하고 있다. 정월 대보름에 올리는 산신제는 유교식의 산신제로 음력 1월 5일 마을 어른들이 모여 마을 장정 호주 중에 생기복덕(生氣福德)을 보아 유사를 정하고 1주일 동안 몸을 정갈히 하며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신제를 지냈다.

시목2리에는 전국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민속이 있다. 봄가을로 물길 여는 '동네 가래질'을 한 마을이라는 것이 그렇다. 마을에 우물이 없어 물이 귀했다. 농사짓는 물은 물론이고 사람이 먹는 물도 귀한 마을인데 안살미기에 백월산부터 마을까지 물길을 내서 물을 끌어와 식수와 농업용수로 사용해야 했다. 그리고 그 물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봄가을 2회 5~6km에 이르는 먼 거리를 마을 전체의 공동작업으로 가래질을 했다. 봄 가래질은 농사를 위한 것이라 하여 농지 면적을 기준으로 논 600평(3마지기)에 장정 품 1명을 의무로 지웠다. 물 가래질에 나오지 않으면 품삯으로 내게 했다. 보통 봄 가래질은 마을의 모든 장정이 출력하는 것으로 2일간 진행된다. 주로 5목 가래를 사용하고 3목 가래도 썼으며 가래질 소리를 했다 하나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안타까웠다.

시목2리는 광시면의 풍장을 대표했다. 이는 전통 사회 마을의 풍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왕성했던 두레의 활동과 산신제와 물길 가래질 등의 마을 전체가 행하는 민속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으로 해방 이후 1959년 처음 열렸던 광시면 풍장대회에서 우승했다. 당년도 예산군 풍장대회에서 상을 타지 못하면서 동력을 잃어 광시면의 대표 풍장이면서도 활동이 점점 줄어들었지만 1991년부터 이 마을의 이장이

었던 차태희(1956년생)를 중심을 마을 젊은이들이 다시 뭉쳐 어른들의 풍장을 새롭게 가다듬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왕성해져 1997년에는 예산군의 풍장경연대회에서 장원을 차지하고 면민 체육대회, 군민 체육대회, 도민 체육대회 등의 선수 입장과 함께하는 퍼레이드에서 모두 예산군의 대표 풍장으로 활동하였다. 1997년에는 광시면이 아니라 예산군의 대표 풍장이었던 것이다.

시목2리 두레는 좌상 1인, 공원 1인이 이끌었고 마지막 두레 좌상은 이기만이다. 두레 공동작업을 하는 논매기 횟수인 물수는 1물로 만물에 한했다. 일감등급은 상매, 중매, 하매로 일감의 경중을 따져 마지기당 장정 품삯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했으며, 농기는 먹을 주로 사용하여 그린 용기였고 영기는 백색 바탕에 검정 글씨 하나만 사용했다. 두레풍장은 상쇠 1, 부쇠 1, 장구 2, 북 2, 징 1, 벅구(상모) 5, 새납 1이며 두레 벌은 깽매기 벌주, 두레 기둥 등이 행해졌으며 특히 벌주 문화가 세었다. 논매는 소리 후렴 긴소리로 '얼카 덩어리'로 매우 느린 가락으로 불렀으며, '호맹이질 소리'라 칭했고 마지막 두레 논매기 공동작업은 1964년도였다.

두레풍장꾼은 상쇠·부쇠는 이기만이 1933년 출생자다. 그는 아직도 이 마을에 생존해 있으며 마을의 두레풍장과 면 대표 풍장으로 치던 가락을 구분하여 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예산 전통 두레풍장의 연구에 아주 소중한 인물이며, 김정묵은 1944년 출생자로 이미 사망하였는데 1959년 면 풍장대회 때부터 부쇠였다. 장구잽이는 김봉수가 1923년 출생자로 잔가락을 매우 잘 치던 장구잽이로 춤을 잘 추었으며 이전에는 1919년경 출생자 김봉한이 장구를 잘 쳐 양장구잽이로 불린 인물이다.

북은 1936년생 박구서가 잔북, 큰북 소리의 조화가 좋고 흥이 좋았던 북잽이며, 김승환(1944년 생)은 아직도 이 마을에 생존해 있는 북잽이다. 징은 1932년 출생자 이신규가 아직도 이 마을에 생존해 있는 징잽이로 춤을 추며 치는 인물로 1959년과 1991년부터 1997년까지의 모든 판에서 징을 쳤다.

새납은 이순봉(1919년 이전 출생자)이 잘 불었다. 특이한 것은 이전에 이 마을에서 새납을 불지 않았고 별도로 타 고장에서 배우지도 않은 인물임에도 민요재의 새납이 아니

라 곡을 알지 못하는 풍장에 맞춘 새납을 불었다 한다. 이후 서동재(1929년경 출생자)가 이순봉의 새납을 배워 마을 새납꾼으로 활동하여 1959년 면 풍장대회에서 새납을 불었다. 벅구는 마을 어린 장정들에게 상쇠가 가르쳐 벅구를 치면서 돌모를 돌리게 하였다. 두레 선소리꾼은 서동재(1924년경 출생자)가 마을 최고의 소리꾼이며 광시에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

시목2리의 연중 풍장 치는 날은 년에 11~12일이며 정월 대보름에 안택 걸립풍장 2일(1930년대 이전에는 8~9일), 머슴 생일인 음력 2월 1일에 2일간, 칠석에 2일간, 여름 두레풍장은 5~6일, 물길 가래질에 1일, 추석에 1일이다.

현재 시목2리에는 한 점의 작은 농기가 전한다. 이 농기는 1959년 마을 풍장패가 광시면 풍장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기념하여 마을에서 자체 제작한 것이다. 우승은 하였으나 상장도 좋지 않았고 징표가 될 부상도 없었다. 이에 마을에서는 이를 오래 기억하기 위해서 농기를 제작한 것이다. 마을의 여인들이 손수 재봉을 돌려 농기를 만들고 이 마을의 김종묵이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썼다.

| **이순영**(1937년생) 예산군 봉산면 봉림리 |



천년 나무와 봉림리 칠석제

이순영은 1937년 이 마을에서 태어나 경기도 의정부에서 생활한 군 경력을 제외하고는 마을을 떠난 적이 없는 인물이다. 27세 때에 봉산면 사성리에 사는 김복덕과 혼인하여 2남 1녀를 두었다. 젊어서는 마을 이장을 보았고, 최근에는 마을의 노인회장을 역임하였다. 마음이 자상하고 성실하며 마을 일을 소중히 알아 현 이장, 노인회장 이세복과 더불어 천년 나무라 주장하는 느티나무 정자 아래서 매년 새벽 정성의 칠석제와 낮에 하는 축제로의 칠석제를 잘 가꿔 나가고 있다.

봉림리는 마을의 민속이 아주 풍부하다. 1945년 광복절에 이 마을의 이돈구 상쇠 등이 고도리 이석구 상쇠 등과 합심하여 8월 18일 면사무소 앞에서 해방 기념 풍장을 쳤다. 여러 마을 풍장패가 모여들어 하루 종일 풍장을 쳤으며 이 일이 광복절 1주기부터는 광복절 기념 풍장 판을 벌였고 이후 봉산면의 면 풍장대회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마을 앞에 천년나무라고 불리는 느티나무가 있다. 고려조에 이 마을에 살다가 병든 노모가 있음에도 효도보다 충성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난리에 자원하여 출전한 사람이 심어 놓고 간 나무가 자라 지금처럼 늙었는데 나무를 심은 사람은 살아오지 못했다. 마을에서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는 옛날부터 칠석제를 올렸고, 이 나무는 위하는 나무라 하여 작은 가지도 함부로 꺾으면 사람이 다친다는 믿음이 전한다.

천년나무 아래서 매년 음력 7월 7일 새벽에 '칠석제' 고사를 올린다. 여름에 나무 밑에서 올리는 고사라서 해가 뜨면 나무의 벌레가 똥을 싸 부정이 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새벽에 올리는 것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마을의 원로 노인들과 지도자들이 새벽에 모여 고사를 지내고 낮에는 풍장꾼들이 칠석풍장인 무관택풍장을 치고 놀았다. 그러던 것이 일제강점기 말에 신사참배를 종용하면서 칠석제를 금하는 것에 밀려 마을 노인 3인만 조용히 새벽 칠석제를 올렸다. 새벽 정성으로만 이어지던 칠석제는 남자 어른들이 사망하고 1970년 새마을운동과 미신 타파를 부르짖는 정부로 하여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때 칠석제는 시아버지와 함께 칠석제를 지내온 여인이 홀로 개인 칠석제처럼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여인이 늙으면서 홀로 정성을 올리는 것이 어려워 2008년부터 몇 년 동안 칠석제를 중단하였다.

그러자 마을에서 젊은이들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젊은이들이 상하는 이유가 칠석제를 지내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 하여 5인의 남자 어른들이 참여하는 칠석제를 이어나가기 시작하였으며, 현 이장이 이를 오전 10시로 시간을 옮겨 축제화 하였다.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계속해 오다가 칠석제를 축제로 열면서부터 시행하지 않는 마을 민속 중 '칠석 무관택풍장'이 있다. 칠석날 오전 9-10경 풍장패가 모이면 가가호호를 방

문하여 안택풍장을 쳐주고 그 집에서 내는 술과 음식을 먹고 즐긴다. 보리쌀이나 쌀을 내면 이를 받아다가 마을 기금으로 쓰는데 무관택풍장의 집안 고사 순서는 마당, 우물, 부엌, 장독대, 마당 순이며 고사 소리는 상쇠가 행하였다. 칠석제의 마지막 절차로 황룡이 그려진 농기를 느티나무 북쪽 마당에 세우고 좌상이 농기고사를 지낸다. 진설 음식은 없으며 술 한 잔에 두 번 절하는 것이 전부다.

봉림리 두레는 좌상 1인 공원이 1인인 두레로 마지막 좌상은 김봉필(1896년경 출생)이다. 두레 호수는 98호, 논매는 소리는 호미질 소리가 '얼-카 덩어리-'이며 만물 소리는 흘림소리로 '어어허하- 아-어-러허허러후---'이다. 봉림두레는 두레벌 매우 무서운 마을이었다. 두레 회초리라 하여 어린 두레꾼들이 게으름을 떨면 때리기 위해 꽁배가 회초리를 들고 다녔고, 벌주가 심했으며 잘못이 과하면 두레 농기에 매달아 놓기도 했다. 두레 경작 규모는 800여 마지기였으며 용대기라 불린 두레 황룡기에 대해 인근 마을이 기세배를 하던 마을로, 인근 두레와는 차이가 매우 클 만큼 풍장을 즐겼다.

이때 활동한 풍장꾼들은 상쇠로 김용재(1896년경 출생)가 상쇠의 잔가락이 매우 좋았던 인물이며 일제강점기에 봉산 최고의 상쇠였다. 이후 이기성(1908년경 출생자)이 김용재에게 상쇠를 배워 마을 상쇠로 오래 활동하여 한국전쟁 이후까지 상쇠를 쳤다. 흥이 아주 좋아 마을 사람들이 그가 상쇠를 하는 모습을 보고 '황새가 나르는 듯'하다고 하였다. 마을에서는 풍장을 이끌었으나 타 동에 나가 풍장 치는 것을 꺼려 광복 이후 면 단위 풍장판에는 참여하지 않아서 이돈구가 행하였다. 이돈구(1926년경 출생)는 마을에서는 부쇠에 그쳤으나 면내 풍장판에 자주 나가 봉산면의 1945년 광복절에 해방 풍장을 고도리 이상구와 함께 이끌었다. 이후 1947~1949년까지 봉산면의 광복절 기념식장의 풍장판에 매년 참여하였다. 이병원(1956년 출생)은 봉림리의 두레풍장 소멸 후에 마을 상쇠다. 지금은 웃다리풍장을 배워 마을에 풍장패를 조직하여 함께 친다. 징은 이병일(1919년경 출생) 봉림리 마을 고사 풍장과 두레풍장의 마지막 징잽이이다.

장구는 이경복(1926년경 출생)이 봉림리 마을 고사 풍장과 두레풍장의 마지막 장구잽이였고, 권춘혁은 현재의 이 마을의 장구잽이로 권춘혁 외 6인으로 칠석제의 마을 풍

장에서는 친다. 북은 이도원(1956년생) 현재 봉림리에서 유일하게 노인 어른들과 함께 풍장을 친 젊은이이며 봉림리의 옛날 풍장의 가락을 가늠하게 하는 인물이다. 이부원은 이도원의 친동생으로 이도원과 함께 북을 쳤으나 지금은 마을에 살지 않는다. 김기홍은 현재 이 마을의 젊은 북잽이다. 새납은 성명 미상으로 1930년대부터 새납을 잘 불어 타동에 불려 다닌 사람이 있었다.

봉림리 두레의 농기는 황용기였고, 이름은 용대기다. 진한 황룡기의 그림이 살아있는 듯 화려하고, 마을에 서원이 있어 인근 두레의 어른 두레였다. 인근 마을 두레 농기들을 들에서 만나면 절을 받는 농기였으며 영기는 삼각 흰 천에 먹으로 영자를 쓴 것 하나를 앞세웠다. 칠석날에는 농기에 잔을 부어 올리고 마을의 풍년을 기원하는 소지를 올렸던 농기인데 1970년경 이를 분실하였다. 마을 사람들이 옛날의 농기를 다시 건립하기를 희망하여 2018년부터 준비하여 2019년 용기를 복원하려 한다.

| **허흥섭**(1932년생) 예산군 삽교읍 성리 |



예산 최고의 상쇠가 태어난 고장

성리는 예산군 최고의 풍장 고지다. 허흥섭은 1932년생으로 성리에서 출생하여 군대 생활 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마을에서만 거주하였다. 이 마을의 다른 청소년들과 같이 17세에 두레에 들어 장정 품앗이를 시작했고, 1949년 꿩배라는 이름의 소년 두레꾼이 되어 어른들에게 벅구와 상모를 배워 풍장에 입문하였다. 이후 허흥섭은 두레 농악에서 제외되어 평범한 두레 장정으로 성장하였다.

그의 나이 25세에 예산읍 주교리에 살던 김설금과 혼인하여 3남 3녀의 아들딸을 낳

아 가정을 이루었다. 평생 농사를 지어 생활하였으며 경작 규모는 논 8마지기(1,600평)와 약간의 밭을 소유하고 있는 중간 정도의 농사꾼이었다. 허흥섭이 풍장판에서 다시 벅구를 잡은 것은 박익수가 1959년 마을 풍장패를 지도하여 삽교읍 풍장대회에 출연할 때였다. 출연한 악기는 역시 벅구잽이였다. 당시의 나이가 27세라서 20세 전에 벅구를 돌리는 것이 일반적이던 시기였지만 애기 장정들에게 벅구를 가르치고 앞서 시연할 수벅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선 것이다. 성리에서는 벅구 박익수가 가르쳤지만 재주를 알고 앞서 하는 수벅구는 필요했다.

성리에는 마을에서 7대 이상 거주 집안이 없는 각성바지 마을이다. 양천허씨 등 4~5대를 살아온 집안은 다수가 있지만, 더 오랜 성씨가 없다는 것은 이 마을이 조성된 것이 오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마을의 마지막 서당은 이 마을에 살았던 정동국 훈장이 자기의 집 윗방에서 학동을 모아 10여 명에게 격몽요결, 동몽선습, 명심보감, 효경을 가르친 것이 마지막 서당이다. 일제강점기에 이 마을에는 일본어와 한글을 가르치는 강습소가 운영되었다. 소학교가 생겼는데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야학이었다. 이 야학은 당시 신교육을 받은 마을 사람이 운영하였는데 정 훈장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서당을 계속 운영하였다.

이 마을 경로당 앞 광장에는 동학에 대한 안내판이 있다. 동학이 성행하였던 시절에 성리에는 문씨 문중의 사람들이 동학을 신봉하였다 한다. 이는 문씨 문중에서 신망이 높았던 1857년경 출생자 문종서(文鐘瑞)가 일찍 동학에 입문하였기 때문에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문종서의 집안이 부유하여 말을 타고 다니는 생활을 즐겼는데 공주 우금치 전투가 있던 해에 말을 타고 홍성으로 출정하였다가 사망하여 돌아오지 못했으며 시신도 찾지 못하여 어디서 죽었는지는 모르고 지냈다. 이후 동학이 역적이라 하여 모두 감추려 했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죽음을 밝히려 노력도 하지 못했는데 동학에 관련된 특별법이 설치되어 유족 신청을 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지정받지 못했다 한다.

성리에는 2개의 마을 고사와 기우제가 전한다. 마을 중심에 있는 선돌에 지내는 마을 고사는 미륵제다. 선돌에는 오래전부터 장옥(墻屋)이 있었다. 주민들은 미륵이 무섭

다 하여 아이들에게도 미륵당 가까이 가는 것을 금하고 조심시키는 것이 이 마을의 오랜 관습이다. 애초 건물은 지금의 건물과 유사한 목조 건축에 볏짚 지붕이었다가 1960년대 말 기와로 지었으며 2018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개축하였다. 고사의 절차는 유교적인 고사고 정월 대보름 전 택일을 하여 정월 보름 전후에 마을의 80여 호가 모두 참여하는 큰 고사를 지낸다. '고사에 요란한 소리를 내면 부정이 든다' 하여 풍장을 치지 않으며 제물은 유사의 집에서 성심껏 준비하여 편차가 있어도 용인한다. 1964년경 마을에 교회가 들어와 번성하면서 중단되어 지금은 지내지 않는다.

마을 중심을 흐르는 개천의 제방 안쪽 자연 마을이 안뜸이고, 이 안뜸에서는 거리제를 올린다. 앞 공지에 터를 닦아 공터가 넓은 곳에서 지낸다. 이 고사에는 부정에 대한 조심성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역시 풍장을 치지 않았다. 고사장은 밀대 방석으로 임시 울타리를 치고 황토와 금줄을 둘러 준비하였고 고사상 등의 제구를 갖추고 마을 창고에 보관하는데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고 마을 고사에만 사용한다. 이 고사 역시 정월 대보름에 유교식으로 지낸다.

바깥뜸 기우제는 가뭄이 들면 작은 돌다리 아래 있는 큰 돌다리에서 신작로에 짚 한 단의 화톳불을 놓고 떡과 과일을 준비하여 들판의 경작자 중심으로 기우제를 올렸다. 기우제에 올린 음식을 제관들이나 어른들이 먹지 않고 제방 위에 두어 청소년들이 주워 먹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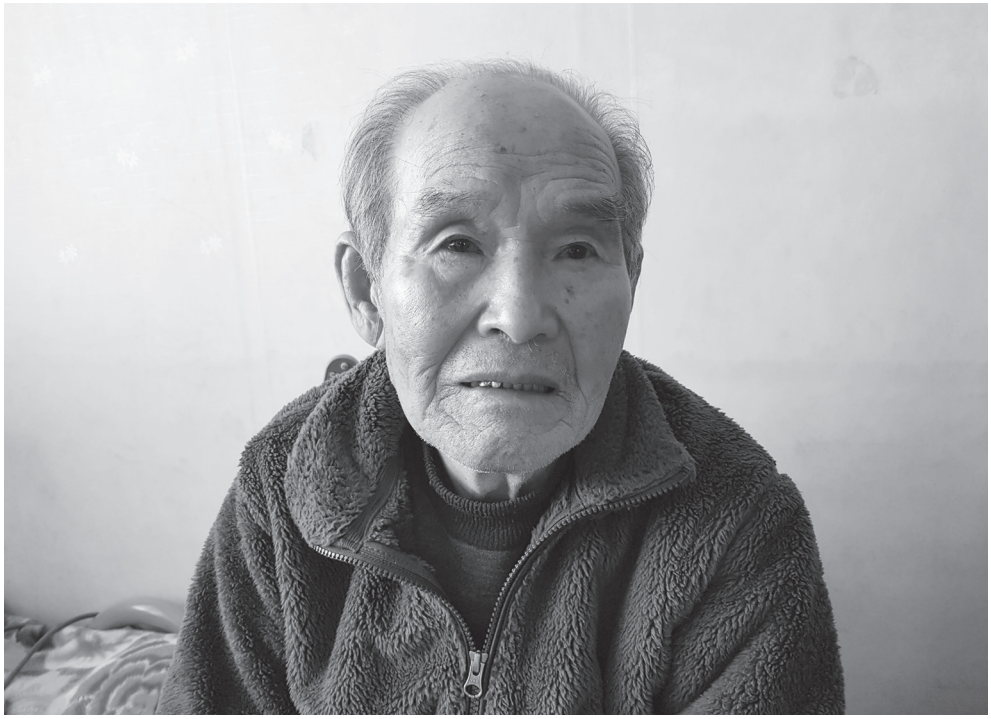
성리 마을 두레는 칠석물 먹매두레다. 장정들의 두레 쌀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칠석날 두레꾼들이 하루를 즐기는 데 필요한 음식 준비 경비(먹매)를 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두레라는 것이다. 두레 임원은 좌상 1명, 공원 1명이며 성리 두레의 좌상은 손임득(1909년경 출생)과 현종석(1918년경 출생)이다. 신입 두레는 17~18세. 두레 영농규모 1천 4-5백 마지기로 추정되며 두레 논매기는 1~2일로 끝난다.

두레 농기는 신농씨유업이라 쓴 농기를 용대기라 부르고, 영기는 청·홍 각 1매 두레풍장의 규모는 21~23명으로 상쇠 1, 부쇠 1, 장구 2, 북 2, 징 1, 농기 1(4명), 벅구(상모) 5~7, 길나래비 1, 꽁배 1, 따비 1명이다. 따비는 의무적으로 춤을 추며 따라야 했다.

성리의 풍장꾼들은 마을 대표 상쇠로 해방 후 삽교읍으로 이주하였던 박익수 상쇠의 스승 김종갑, 부쇠로 활동한 호종훈, 김종갑 이후 마을의 대표 상쇠로 삽교목씨 집성촌인 삽교읍 성리 상소에서 살다가 시량리 상가 자리로 이주했으며 194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까지 예산 최고의 상쇠로 활동한 박익수, 김종갑과 박익수가 마을을 떠나 이주한 후 마을 상쇠를 맡았던 이병권(1938년경 출생) 등이 상쇠다. 징은 백수복(1917년경 출생)이, 장구는 장구는 치는 모습은 뻗장구라 칭해졌으나 가락을 뛰어나게 잘 쳐서 성리 풍장이 흥이 나면 최인섭의 장구 소리만 들린다고 회자되었던 인물 최인섭(1908년 출생), 유일한 성리2구의 장구잽이 주종만(출생 미상) 등이 있었다.

북은 구연달이 흥이 좋고 소리를 잘하며 북춤을 잘추어 1950년 이후 박익수가 마을 수상쇠를 맡아 삽교 최고의 풍장단으로 활동할 때에도 머릿북을 쳤으며, 현종옥(1918년경 출생)은 마을 두레풍장의 북쟁이다. 벅구(상모)꾼은 장학순, 김도협, 허흥섭, 이병진, 석선덕, 허흥국, 문영주 등이다.

| **박상용**(1927년생) 예산군 봉산면 고도리 |



고도리 칠석풍장

고도리에 사는 박상용은 1927년생이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1940년도에 경기도 의정부에서 일하다가 18세인 1945년에 다시 마을로 돌아와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의 나이 22세에 봉산면 화전리 이옥례와 혼인하여 3남 3녀의 아들딸을 낳아 일가를 이루었다.

그는 고도리 마을 풍장의 역사이다. 18세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을은 온통 광복의 기쁨에 들떠 있었다. 면 소재지였던 고도리 풍장패는 봉림리 등의 여러 마을 풍장패와 어울려 면사무소와 봉림 초등학교를 오가며 매일 풍장을 쳤다. 그리고 광복 1주

년에는 더 많은 마을의 풍장패가 참여하여 풍장을 쳤다. 당시의 분위기는 마을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풍장패를 구성하여 타동 풍장에게 위용을 자랑하려 하였기에 기량이 부족해도 어른들과 풍장을 칠 수 있었다. 그러나 박상용은 마을 풍장패에 들어가지 않았다. 어른들이 해보라 권하였지만 하지 않다가 22세가 되던 해, 1949년에 풍장패에 들어가 벅구잽이가 되었다. 지금부터 70년 전에 풍장을 배우기 시작한 것인데, 그는 '늦게 들어가 풍장을 잘 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전쟁 때 인민재판과 풍장의 잘못된 인연으로 풍장을 치지 않다가 50대에 이르러 마을 풍장의 부쇠로 활동하였다.

고도리 칠석풍장은 예산의 다른 마을과 유사하다. 하루 전인 음력 7월 6일 마을 2개 동네 샘의 샘을 푸고 청소한 후 술과 맑은 물을 떠 놓고 샘고사를 지냈다. 칠석날은 종일 가가호호를 돌며 무관택풍장을 즐겼다. 칠석풍장 마당은 언제나 마을의 천석지기 갑부인 서울 부자네 집 바깥마당에서 시작하는데 부잣집에서는 매년 풍성하게 음식을 내기 때문에 풍장꾼만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모이는 자리가 되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칠석의 무관풍장은 어느 마을보다 풍성했다 한다. 무관택풍장 마당에서 쌀이나 보리쌀, 돈을 내는 사람이 있어서 풍장꾼들은 이를 모아 마을 불쌍한 사람을 돕거나 마을 경비로 사용하였다 한다.

고도리에는 '물끄세풍장'이 있다. 이는 칠석 전날 동네 샘을 소제하고 작은 샘고사를 지낸 후 치는 풍장을 이른다. 그 마을만 특별히 하는 풍장이 아닌데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고사 축원 풍장의 고사 소리가 '물 끄세, 물 끄세, 사해 용왕에 물 끄세,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만 뚫어라'라서 마을 사람들이 '물끄세 풍장'이라 한다.

이 마을에는 천석지기 부자가 살았다. 천석지기란 자기 소유의 땅을 농부들에게 소작으로 빌려주고 1년에 도지로 받는 쌀이 천 가마라는 뜻이다. 이 부잣집을 서울 부자네라 불렀다. 서울 부자네 주인은 인심이 후하여 마을 사람들에게 잘했다. 일설에는 마을을 벗어나면 나쁜 사람으로 욕을 먹는데 고도리 사람들에게만 잘했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그 진위를 따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잘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서울 부자네 집에는 여러 명의 머슴을 두었다. 그런데 그 머슴들 중에는 농악에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같은 시기에 여러 명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으로 보면 그 집 머슴이 풍장에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어서 왕성하게 활동한 사람이 여럿 있었다 한다.

"머슴이 풍장을 치믄 쥔집이 두레와 친해지는 겨."

박상용의 이 말은 부잣집에서 풍장 재주 있는 머슴을 선택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고도리 두레는 호수 40여 호, 두레 임원은 좌상 1인, 공원 1인, 두레 논 규모는 700여 마지기, 신입 두레는 18세, 논매는 소리 후렴은 '얼-카- 덩어리---'다.

두레풍장꾼 상쇠 이상구(1906년경 출생)는 봉산 최고의 상쇠로 광복절 풍장마당에서 면내 각처의 풍장패들이 모여 풍장을 칠 때 수상쇠였다. 이로 인하여 면내에서는 이를 따를 사람이 없다고 칭송을 받았으나 한국전쟁 이후에는 풍장을 치지 않으려 하였다. 부쇠 황인성(1909년경 출생)은 이상구의 상쇠 가락을 배워 아주 잘 친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고도리 풍장이 쇠하면서 대지1리로 이주 그 마을에서 풍장패를 키워 봉산 대표 풍장으로 활동하였다. 장구 유영길(1916년경 생)은 흥이 아주 좋아 춤을 추면서 장구를 친 인물로 서울 갑부네 머슴으로 오래 있은 후에 마을에 정착하여 살았다. 박상용(1925년경 생)은 유영길 후 마을의 장구잽이로 가락이 매우 좋았다. 북은 박복성(1918년이전 생)이 흔틀북을 잘 치던 인물이며, 징은 윤산용(1918년 이전 생)이 쳤고, 새납은 김낙진(1919년생)이 어려서부터 잘 불었다. 이후 유영근(1927년경 생)이 김낙진에게 새납을 배워 불었으나 그에 미치지 못했다.

상벅구는 유영근이 상모에 능하여 젊은이들을 가르쳤으며 긴상모는 박채신(1918년이전 생)이 앉아 돌리고 누워 돌리는 긴상모잽이로 인기가 높았다. 윤태원(1922년생)은 박채신에게 긴 상모를 배워 해방 후에 활동한 마을 최후의 긴 상모잽이이다.

이 마을 풍장의 특징은 긴 상모에 관한 것들이다. 작은 마을에 열두 발 상모로 일컬어지는 긴상모잽이가 2명이나 있었고, 재주를 부리는 것도 현대 열두 발 상모의 어려운 기술을 능히 행하였다 한다.

고도리에는 한국전쟁 때 풍장의 아픈 역사가 있다. 한국전쟁 시기 북한의 봉산 지배

시절, 인민위원회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두 봉산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나오라는 통지가 있었다. 이 호출은 인민재판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8·15 광복 이후 마을 풍장패는 학교 운동장에 나가 여러 차례 풍장을 놀았던 사례 때문에 고도리 풍장패는 모두 풍장을 치며 학교 운동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운동장의 한편에 자리를 잡고 풍장마당을 열었던 것이었다. 고도리 풍장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풍장을 매우 흥겹게 치며 즐기고 있는데 한쪽에서 '사람이 죽었다.' 하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었다. 심장을 파고드는 외마디 비명도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풍장을 치던 고도리 풍장패와 몇몇 구경꾼들은 사태를 파악할 겨를도 없이 우왕좌왕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엉켰다가 풀어지고 넘어지면서 모두 도망을 쳤다. 그리고 인민재판을 본 사람들에 의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이 죽었다는 소리도 전해 듣게 된다. 박상용은 고도리의 풍장이 6·25전쟁 이후 급속이 쇠락한 이유라고 한다.

| **이주현**(1938년생) 예산군 신암면 예림2리 |

칠석 사제(師弟)풍장의 마을

구술 : 이주현



이주현은 1938년 이 마을에서 출생하여 군 생활을 제외한 모든 세월을 이 마을에만 거주한 사람이다. 결혼은 그의 나이 21세에 당진 합덕에 사는 장복희와 혼인하여 2남 4녀의 자식을 두어 일가를 이루었다. 농사는 50마지기(1만 평)의 대농이다.

예림2리는 장터, 담안, 영상의 세 마을로 구성된 마을이다. 예전에는 영상두레가 전체 마을을 총괄했으며 천석 부잣집이 있고 장이 서던 큰 마을이었다. 장이 쇠락하고 농가 호수가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이 도시 같다고 부러워했던 마을이다. 삽교호 막히기 전에는 마을 앞으

로 큰 배가 드나드는 뱃길이 있었으며, 구만리포구가 일본인들이 충청도 쌀을 실어가는 본부였다는 말이 나기도 하였다. 특이한 점은 뱃길이 있고 포구가 멀지 않은 어촌이었음에도 어업에 종사한 사람이 없는 순수 농촌이었다는 점이다. 삽교방조제가 막히기 전에도 그러했다고 한다.

마지막 훈장은 수천리 곽 선생으로 영상 이원길 집 사랑방에서 학동을 모아 가르쳤으며 5리가 넘는 조곡리에서도 와서 배웠다.

이 마을에는 일제강점기 초까지 위세를 떨쳤던 큰 부자가 영상에 살고 있었다 한다. 장이 서던 마을이라서 영상에서부터 담안까지는 남의 추녀 밑으로만 걸어가도 비를 맞지 않는 마을로 회자되었다. 그러나 부자가 쇠락하고 장이 쇠락하면서 점차 마을의 규모가 줄어들어 지금은 예림 1.2.3리를 통틀어도 120가구에 이르지 못하는 마을이 되었다.

영상두레가 예림2리를 총괄하였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두레 물 수는 1물. 두레 호수는 전통 사회에는 130여 호 광복 후 85호. 장정들의 공동작업은 장정의 수대로 모두 출력하고 마지막 두레 좌상 미상이다. 두레 선소리꾼은 박정운이며 두레는 1949년경 소멸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레 논매는 소리 후렴은 '얼카 덩어리', '얼카 덩어리 잘 넘어간다.'이다.

예림2리는 조선조 말엽과 일제강점기 초에는 두레가 매우 성행하였고 해방 후에 두레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미약하다가 1949년을 끝으로 여름 두레 공동작업은 행하지 못했다.

이 마을 풍장패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쇠는 조인서(1886년생)가 이 마을의 최고 상쇠이자 신암면 최고 상쇠로 지칭되던 인물로 가락과 춤사위가 뛰어나며 특히 이 마을에서 '법수'라고 일컬어지는 풍장의 격식에 밝아 두레 일판의 풍장, 칠석풍장, 무관택풍장, 농기세배의 각종 법도와 가락, 고사풍장 등에서 가락과 판의 운영(판재라 하지 않았음)의 법도에 밝은 풍장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며느리가 효부로 칭송을 받았다.

부쇠 이옥성(1924년경 생)은 조인서에게 상쇠를 배워 조인서의 상쇠 시에는 부쇠를 치고 조인서가 상쇠를 못할 때 상쇠를 했던 인물이다. 징잽이 김정옥(1920년경 출생)은 마을이 알아주는 점잖은 징잽이였으며 장구는 박정운(1918년생)이 잘 쳤고 북은 김종환(1924년경 출생)이 마을이 알아주던 북잽이로 몸이 가볍고 흥이 좋아 북을 잡으면 언제나 춤을 추어 '북을 메면 언제나 곤두벌레 뛰듯이 논다.'는 말이 회자되었던 인물이다.

새납꾼 이갑순(1920년경 출생)은 면내 최고의 새납꾼으로 활동한 인물이며, 수상모로 젊은이들에게 상모를 가르친 사람은 이옥성이다. 풍장 행렬을 이끌고 다니는 길나래비는 이종식(1922년 생)이 맡았는데 분장을 하지 않은 평복으로 풍장패의 앞잡이로 다니는 것을 즐겨 하였으며, 칠석풍장에서는 농기 기수였는데 7m에 이르는 긴 농기대를 혼자서 들고 다녔다.

예림리와 아랫마을 중외리에는 칠석 문화로 남다른 문화가 있었다. 이른바 두 마을의 상쇠에 인연으로 아랫마을인 중외리와 예림리 간에 벌어지는 사제(師弟) 풍장마당이 그것이다. 사제풍장이라는 말이 성립된 것은 영상두레의 수상쇠였던 조인서(1886년생)가 중외리의 수상쇠에게 마을에서 치는 풍장의 가락과 치는 성격에 따라 진행되는 판재(이 마을에서는 이를 법수라 칭한다.)를 지도했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시골 마을의 풍장도 칠석의 풍장마당과 두레 일판의 풍장, 그리고 잔칫집 등에서 치는 연희 풍장, 개인이나 마을 고사에서 치는 풍장은 각기 다른 것이며 움직이는 동선, 풍장꾼의 몸짓 등이 모두 달랐다. 더구나 모든 민속에 명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예산 지역의 생활 정서상 법도에 맞지 않으면 하시(下視)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기에 자기 마을의 풍장에 법수를 타동 풍장에게 가르치기보다는 부족한 것으로 하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법수를 모르는 중외리 상쇠를 예림2리 조인서 상쇠가 불러 강습을 하듯 가르쳤다는 것이다. 중외리 상쇠는 이런 인연으로 영상두레를 선생 두레라 칭하였으며, 자기 마을 두레를 스스로 제자 두레라 칭하면서 두 마을 간에 벌어지던 두레 싸움도 하지 않는 사이좋은 두레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매년 두레가 끝나는 칠석날에 자기 마을 농기를 앞세우고 영상두레를 찾아와 기세배를 올리는 전통으로 이어졌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두레는 사

라졌는데도 사제 두레 간의 칠석 기세배 문화는 살아남아 1960년대 후반까지 계속되었다.

이 마을의 두레와 관련된 민속 채록 중 가장 애석한 점은 농기 문제였다. 이 마을에는 추사 선생이 직접 글씨를 쓴 농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마을의 노인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를 증언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칠석 농기세배가 진행되었던 1968년경까지 농기가 있었다. 이 농기는 용대기라 불렸지만 그림은 없었고 글씨만 있었으며 글씨의 내용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었으며, 농기를 만든 해에 대한 짧은 기록이 있었다 한다. 농기의 크기는 인근 마을 농기 중 가장 컸으며 기치의 수는 알 수 없고 꽁지는 3개였다.

이 농기는 마을의 노인들이 매우 소중히 하였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농기의 글씨가 추사 선생의 글씨라고 말해 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 증언한 분들은 모두 한결같이 '당시에는 추사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고 증언한다. 그러기에 그 농기는 당시의 공회당 대들보 위에 올려놓은 채 보관하였다가 칠석이면 사용하고 다시 걷어 공회당 대들보 위에 보관하는 것을 반복해 왔다. 그런데 1968~1969년경에 분실하였다.

| **김기만**(1938년생) 예산군 오가면 좌방2리 |



걸립풍장

걸립풍장이란 풍장 판을 벌여 구경꾼이 내는 돈을 모으거나, 마을 단위의 걸립으로 집집마다 풍장으로 안택고사를 지내주고 돈을 받아 모으는 풍장 놀이를 이르는 말이다. 전자는 절을 짓거나 다리를 놓거나 갑자기 이재민 등 불쌍한 사람 다수가 생겨 적지 않은 재화를 모금해야 할 때 시행되고, 후자는 마을 고사의 경비나 마을 공동 자금이 필요할 때 주로 사용된다.

예산의 걸립풍장은 대부분 후자로 마을 고사를 위한 걸립이 주를 이룬다. 그런데 좌

방2리에서는 놀이 풍장마당을 마을 공터에서 공연하는 걸립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돕고 홍수 피해를 극복하는 자금으로 삼는 등의 일을 해낸 걸립풍장이 성행한 마을이다.

1938년생인 김기만은 이 마을에서 젊은 시절 10년 넘게 이장 일을 본 사람이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군 경력 외에는 모두 이 마을에만 거주한 토박이다. 25세에 오가면 원천1리에 살던 박기남과 혼인하여 1남 2녀의 아들딸을 낳아 가정을 이루었다. 평생 농업에만 종사하며 마을을 지켜왔다.

좌방2리는 일제강점기 중반까지 풍장이 성해하였던 마을이다. 전통 사회의 풍장 기반도 매우 튼튼했던 마을에 1910년경 출생한 세 사람의 풍장꾼의 재능이 탁월하여 마을 풍장이 인근 마을의 부러움을 살 만큼 성행하였다. 더욱이 뛰어난 상쇠가 있었다. 이름은 미상이나 이 마을에 살던 김호천의 아버지가 어려서부터 상쇠를 배워 마을 풍장을 이끌었는데 상쇠의 기량이 면내에서는 따를 자가 없다고 칭송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걸립풍장은 당연히 자기 마을의 일에 한정하여 시행하던 시기다. 그런데 좌방2리의 김 상쇠는 내 마을이나 이웃 마을을 가리지 않고 불쌍한 사람이 생기면 걸립풍장을 쳤다. 일제가 두레와 풍장을 금지하였던 태평양전쟁 시기에는 걸립풍장을 쉬었지만, 해방 후에는 오가면내 이웃 마을에 소문이 날 만큼 불우한 사람이 발생하거나 홍수, 화재 등이 있을 때는 어김없이 걸립풍장을 쳐 돈을 모아 이를 극복하는 데 썼다. 걸립풍장을 치는 곳도 마을에 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을 공터는 물론 면 소재지에 나가 풍장을 치기도 했다 한다.

이렇게 풍장이 성행하였던 좌방2리는 1957년 시행된 오가면 풍장대회에 출연하지 못하면서 급속도로 쇠락했다. 김 상쇠의 건강이 좋지 않아서였는데,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그동안 마을에서 풍장을 자주 치는 흐름이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마을의 갈등의 증언으로 인하여 한국전쟁 이후 오가면의 면 풍장대회가 1957년에 개최되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좌방2리의 두레는 예산 지역의 들이 넓은 마을 두레의 일반적인 규범과 같은 평범한 두레다. 두레 규모 70~80호로 두레 공동작업을 5~6일 시행하는 1물 두레였다. 좌상은

1명이며 마지막 좌상은 용대기를 혼자 들고 다녔던 용대기 기수이면서 마을 최고의 장사였던 오정근이었고 공원도 1명인데 마지막 공원은 전영규(1911년경 출생)였다.

신입 두레를 꽁배라 하며 장정 19세경에 들고, 농기는 용담기에 농기 줄은 4줄, 영기는 흰색 기 하나를 썼다. 논매기 공동작업에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는 따비는 꽁배 또는 집주인이 맡고, 꽁배는 새벽에 두레 일판에서 쓰는 물을 길어다 놓아야 했다. 두레 싸움 상대는 분천리 두레로 두 두레는 자주 싸웠다. 좌방2리 두레와 분천리 두레가 자주 싸운 이유는 좌방리 부자들 때문이었다. 좌방리 부자가 분천리 마을 앞에 3,200평 논을 구입하여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좌방 두레가 분천리에 가서 공동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고, 분천리 두레는 타동 두레가 자기 마을에 와서 일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여 싸움을 걸었기 때문이다.

특이한 두레 민속으로는 농기 춤이다. 농기를 든 기수가 농기 깃대를 들썩이며 작은 춤사위로 놀았지만, 예산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농기가 춤을 춘 마을이다. 봄철 모내기 때는 인근 방아리 장정들이 모품 팔러 많이 왔던 이 마을 두레의 논매는 소리는 긴소리 잦은 소리 모두 '얼카 덩어리 잘 넘어간다'였다.

두레풍장의 규모는 상쇠, 부쇠, 징, 장구, 북이 각 한 명, 벅구 2인 이상이며, 상쇠는 앞에 말한 김호천, 잔가락이 좋았던 신산봉(1911년경 출생), 장구는 김수만(1912년경 출생)과 윤수만(1935년생)이 잘 쳤으며, 북은 이름을 모르는 김모(1911년경 출생, 이 마을 이영식의 장인)가 홑북으로 춤사위를 시원스럽고 크게 놀아 대중들이 좋아했으며, 징은 이희석(1912년경 출생)잘 쳤다. 벅구는 이문목(1919년경 출생)이 젊은 두레 장정들에게 가르쳐 쳤기 때문에 매년 치는 인원이 달랐다.

두레에는 궂은일을 하는 마을 머슴이 있었는데 이를 '소이'라 하였다. 타 고장에서는 동네 머슴은 천대를 받았는데 이 마을에서는 옛날에도 본인이 듣는 데서는 동네 머슴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 마을 머슴이었던 소이는 일제강점기에는 이서기(里書記) 역할을 하였으며, 동네 논 3마지기 농사지어 먹었고 새경으로는 마을 내 농사짓는 모든 집에서 가을에 벼 1말을 주었다. 본디 소이는 충청 일원에 마을 공동으로 부려도 되는 천

민이었는데 이 마을의 소이는 천민이 아니었다는 것은 특이 사항이다.

좌방2리에는 오래된 농기가 전한다. 기의 종류는 먹과 치자 물로만 그린 용대기라서 황룡기다. 제작 시기는 단기4267년(1934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마을 농기는 단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채롭다. 더구나 예산 군내는 이 시기인 1933년과 1934년에 3개의 용대기 농기를 제작하였는데, 용대기에는 "檀紀四二六七年甲戌正月貳十五日"라 쓰여 있다.

좌방2리는 오가면의 대표 풍장 마을이었던 오촌리보다 먼저 면 최고의 풍장 고지로 이름을 날린 마을이다. 이 마을 김기만에 의해 증언된 〈마을 걸립〉 풍장은 전통 사회 마을의 걸립풍장보다 발전한 단계로 예술 풀장으로의 발전에 첫 과정이라는 의미가 있다. 단순히 집안 잘되라고 치는 풍장이 아니라 공터에서 시간을 정해 공연하여 구경꾼들이 돈을 내게 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가락과 판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롭고 감동적이며 신비로운 풍장마당을 꾸리기 위해 노력해야 했기 때문이다.

| **최석환**(1939년생) 예산군 오가면 오촌리 |

예산군 대표 풍장 마을 오촌리



오촌풍장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거의 20년 동안 예산군을 대표하는 풍장단이었다. 광복 후 1970년대까지는 삽교 성리와 덕산의 장터 풍장이 예산을 대표하였지만, 박익수 상쇠의 활동이 줄고 농악이 홀대받던 1970년대 이후에는 백제문화제 전국 풍장대회를 비롯한 거의 모든 충남권의 시군 대항 풍장대회에 예산군 대표로 출연하였던 풍장이 오가면 오촌리 풍장이었고 이 풍장단의 중심은 오촌2리였다.

최석환은 1939년 생으로 이 마을에서 태어나 군 경력을 제외한 모두 세월을 이 마을에서만 거주한 인물이다. 또한 31

세의 젊은 나이에 마을 이장을 맡아 당시 뜨겁게 불었던 새마을운동을 이끌었으며, 마을 풍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직접 징잽이로 활동하였다. 24세에 광시면의 손선예와 혼인하여 2남 1녀의 자식을 두어 가정을 이루고 농사를 지었지만 1978년부터 시작된 오가면 대표 풍장으로 군 풍장대회 등 많은 대회에 나설 때는 마을 풍장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대표자였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 예산에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으로 여겼던 박익수 상쇠의 풍장을 이기고 예산을 대표하는 풍장단이 되었으며, 이후 고덕풍장이 흥하여 군의 대표 풍장이 되기까지 예산 대표 풍장으로 활동하게 한 대표적인 중심인물이다.

오촌리는 전통사회 마을 두레풍장이 매우 성행하였던 마을이다. 타동과의 교류가 적고 면 단위 풍장대회나 연주 마당이 없어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이전에도 이 마을 두레풍장은 매우 성행하였다. 오촌2리 두레는 두레 호수 120여 호, 물 수는 1물 두레로 매년 5~6일 동안 논매기 공동작업을 하였으며, 임원은 좌상 1명, 공원 1명, 마지막 좌상은 마을 최고의 상쇠였던 김희기가, 마지막 공원은 조세종이 맡았었다.

꽁배에 드는 나이는 17~8세였고 농기는 용담기로 3줄, 영기는 백기 깃발 하나를 썼다. 풍장꾼의 규모는 상쇠 1, 부쇠 1, 장구 2, 북 2, 징 1, 상모 6~7, 새납 1이며, 따비 꽁배가 맡았다.

오촌두레 풍장꾼은 상쇠 김대익(1925년생)이 마을 풍장을 오래도록 이끌어온 상쇠로 왼손잡이 상쇠였고, 김재용(1943년생)은 현재 이 마을 거주 상쇠로 농악의 악기 4종을 모두 치는 재주를 가지고 있다. 징은 서정환(1921년경 출생)과 김경환(1944년생)이 쳤으며 장구는 국장구(본명 미상)로 불린 1905년경 출생자가 장구를 하도 잘 쳐 국장구라는 별호를 얻은 인물이며, 장철순(1938년생)이 현재 이 마을 거주하고 있는 장구잽이이고 정복영(1934년경)은 점잖은 장구잽이로 가락이 좋았다.

북은 오북(성명 미상)으로 불린 1900년경 출생자가 겹북을 쳤으며 오영수(1934년생)가 뒤를 이어 현재 이 마을 거주하는 북잽이고, 장원승(1939년생) 또한 현재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북잽이다. 상벅구로는 심씨(1920년대)가 이 마을 살던 심태석의 형으로 자신

이 상벅구임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엄승돌(1940년경 출생)이 심씨의 대를 이어 상벅구를 쳤고 정진태(1933년생)가 늦게 벅구를 배워 상벅구로 활동하면서 이 마을 3무동 경연시 중간에서 무동을 탔던 인물이다.

삼무동의 하단은 조세종(1920년대 출생)이 중단은 정진태가, 상단은 조성근(1937년생)이 행하였고 조성근은 현재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다. 새납은 정산옥(1908년경)이 불었다. 마을에 새납을 부는 사람이 없었는데 1930년대에 스스로 채득한 재주로 새납을 불었다.

이렇게 운영되던 것이 해방 후, 예산의 모든 지역에 풍장의 열풍이 분 것에 영향을 받아 오가 최고의 풍장 마을로 성장하였다. 이는 이 마을 두레풍장의 뛰어난 상쇠 김희기(1909년경 출생)의 영향이 컸다. 김희기는 상쇠의 가락이 좋고 판을 잘 운영하여 면 풍장 대회에 나갈 판재를 구성하는 것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오촌리 풍장은 1957년 예산 풍장대회 면 대표로 출연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대상은 박익수 상쇠의 풍장단이었으니 그를 이기지는 못한 것이다. 이후 군 풍장대회를 제패하기 위하여 새로운 판재를 짜기 시작했으며, 재주 부문에서 3무동을 도입하여 신기함을 늘이는 변화로 예산군 풍장대회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후 1965년경부터 출연하면 상을 타는 단골 단체로 활동하였고 명성은 1983년까지 이어졌다.

오촌2리와 한마을이었던 오촌1리에는 아주 특이한 용기가 있다. 보관 상태가 아주 양호한 농기인데 붉은 용을 그린 용대기가 보존되고 있다. 농사에 있어서 날씨, 그중에도 비[雨]가 매우 중요하고, 하늘에서 비를 관장하는 것이 용이라는 전통사상 때문에 용을 그리는 것이다. 파란색의 용은 청룡으로 시작, 동쪽, 풍년, 기원의 의미를 지니며 황룡은 이루어짐, 중앙, 가득참의 의미로 사용한다. 백룡이나 흑룡은 농기에 사용한 사례가 없다. 다만 흑룡의 경우 청룡을 그리는 의미로 먹으로 그리고는 채색을 하지 않아 흑룡이 아닌 먹룡 그림의 농기는 다수가 전한다. 문제는 적(赤)룡이다. 붉은색 용은 불, 남쪽, 열정을 의미하기에 농사와 불이 상극이라 생각하여 그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좌방리에는 붉은색으로 용의 몸통을 그린 적룡 농기가 있다.

"이 농기가 화가의 실수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질문자의 말에 김기만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설명했다. '뜻이 그런 것이라면 이건 실수로 그린 것이 아니다.'였다. 오촌리는 수촌이라는 것이다. 봄에 가뭄이 들어 농사짓기 어려운 것보다 여름에 홍수가 져 농사를 필농(畢農)하는 것이 더 많은 마을이라서 물은 적어야 사는 마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여름비가 적당히 와야 하는데, 삽교에서부터 흘러내린 많은 물이 제방이 부실한 들판을 덮쳐 홍수에 들판 모두가 잠기는 일을 피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붉은 용 농기를 세웠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 농기는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예산 중앙신협에 보관하고 있으며 이 농기에는 鵝池洞(아지동) 戊辰六月日(무진육월일) 甲戌年六月重修(갑술년육월중수)이라 적혀 있다. 갑자에 정확한 연대를 알아 볼 수 있는 기록이 전혀 없이 기록하여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천의 재질 등으로 보아 중수하여 현재 보관 중인 농기는 1934년 갑술년으로 보이며, 당초의 연대는 마을 노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1865무진년으로 추정된다.

| **정남복**(1937년생) 예산군 덕산면 광천1리 |

광천다리 걸립풍장



덕산면 광천리는 예산에서 풍장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다. 그러나 이 마을은 마을 풍장 규모나 기량면에서 덕산은 물론 예산 전체에 비추어 보아도 매우 탁월하였던 마을이었다. 1937년생인 정남복의 집안은 어릴 적에 아버지가 마을에 발동기를 놓은 방앗간을 운영하는 부자였고, 젊어서 마을 이장을 보면서는 마을 앞의 큰 다리가 홍수로 떠내려가 다시 건설해야 했을 때 마을의 풍장단을 키우고 화려한 판을 만들어 언제나 공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광천다리 걸립풍장'을 시행하여 다리를 놓은 인물이다. 이 걸립풍장은 당연히 광천리에 한정하지 않았다.

덕산의 면사무소는 물론 예산 군청 마당에서도 판을 벌였으며 덕산면의 기관을 돌기도 했고, 수덕사 앞마당에서도 공연하였다. 풍장 공연으로 마을의 어려움을 세상에 알리고 주민들이나 공무원 승려 등에게 후원을 받아 정부의 지원 없이 다리를 복구한 것이다.

정남복은 당시의 이장이며 실무 책임자였고, 풍장꾼이 부족하면 스스로 징을 치는 징잽이기도 했다.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태어나 군대 생활 외에는 마을을 떠나지 않았고, 나이 22세에 삽교읍 신리 박성자와 혼인하여 아들만 셋을 두어 가정을 이룬 사람이다.

덕산면 광천리는 덕산장에서 20여리 떨어진 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아주 의미 있는 상여가 있었다. 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시신을 서울에서부터 광천까지 메고 와 이장을 하고, 상여는 마을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남은들 상여가 그것이다. 조선 말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대원군은 아들 고종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대발복(當代發福)의 명당을 찾아 자기 아버지 남연군의 산소를 이장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지관 3인을 불러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당대에 왕을 만들어낼 자리를 찾으라 하였다 한다. 그런데 그때 잡은 명당이 현재까지 남은군의 무덤이 있는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였고, 이미 다른 곳에 무덤이 있던 남연군의 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상여에 싣고 예산까지 내려와 무덤을 지었다. 당시 남연군의 상여가 덕산면 경계에 들어왔을 때 광천1리 상여 담여꾼들이 행상을 하여 무덤까지 이동하였는데 초상을 치른 대원군이 상여를 잘 운반하였고 상여 행상소리가 좋다 하여 그 보답으로 상여를 마을에 주었다 한다. 광천1리는 이 상여를 잘 보관하며 마을의 장례에 사용하였는데 중요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국립민속박물관으로 이전하였고 박물관에서 만들어 준 상여는 사용하지 않게 되어 태우고 지금은 마을에 모형을 전시하고 있다.

덕산면 광천1리는 원주원씨, 전주이씨가 이 마을에서 15대를 이어 살고 있으며 경주정씨는 14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다. 한 성씨의 집성촌이 아니지만, 세 집안이 합심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 하여 단결이 좋고 인심이 좋은 마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광천리 두레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임원은 좌상 1인, 공원 1인, 신입 두레꾼은 꽁배라 부르며 장정은 17~18세에 든다. 두레 물수 1물(만물에 한함), 일감등급 구분은 상매, 중매, 하매(일감의 경중을 따져 마지기당 장정 품삯을 기준으로 차등 부과), 농기는 용기·영기 각 하나, 따비는 꽁배 따비이며 두레풍장 규모는 상쇠 1, 부쇠 1, 장구 2, 북 2, 징 1, 벅구(상모) 6, 새납 1이었다. 광천1리의 연중 풍장 치는 날은 연 18~20일이며 정월 대보름 안택 걸립풍장 5~6일, 머슴생일 1일, 칠석풍장은 1일간 어떤 경우에도 거르지 않았으며 두레풍장 10~11일로 두레가 서는 날부터 칠석까지 매일 치고 추석은 당일 하루만 쳤다.

광천1리의 두레풍장 가락은 칠채 길나래비, 느린 세마치 놀이 풍장 가락, 느린 춤 장단 네마치, 몰아치는 잦은마치, 굿거리형으로 느리고 흥겹게 치는 굿거리다. 이중 굿거리는 벅구잽이들을 춤추게 한다 하여 춤장단이라 불렀다.

앞서 기록한 대로 광천리는 다리 놓는 공사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대규모의 풍장꾼이 광범위한 지역을 돌며 활동하였던 '다리 걸립풍장'이었다. 지금은 시멘트 큰 다리가 놓여 있지만 1970년 이전에는 섶다리였다. 마을 사람들이 외부로 나갈 때만이 아니고 여러 마을 사람들이 오가는 중요한 다리였는데, 이 다리가 홍수로 훼손되어 복구해야 할 때 필요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걸립풍장을 쳤다.

덕산읍내에 나가서는 장터와 면사무소, 예산고등학교 운동장, 덕산초등학교 운동장, 나박소, 대치리 등 많은 곳을 찾아가 풍장판을 벌였다. 당시 그 걸립풍장을 이끌었던 정남복의 증언과 노인들이 확인한 광천1리 풍장 판재는 다음과 같다.

1) 인사 마당 : 칠채형 길굿나비로 입장하여 다드래기 가락으로 인사
2) 둥그래미 마당 : 이사 마당을 풀면서 세마치 장단을 흥겹게 치면서 원을 그리고 느리게 돌다가 빨리 돌았음.
3) 모듬발 치기 : 원을 이루었던 마당이 풍장꾼은 안으로 벅구잽이는 밖으로 두 개의 원을 이루고 옆으로 서서 풍장꾼은 모듬발을 치고 상모는 매우 빠르게 뛰면서 상모를 돌렸음.
4) 멍석말이 : 일반적인 멍석말이

5) 볏가릿대 세우기 : 모든 풍장잽이들이 1렬로 서서 종에서 횡으로 볏가릿대를 세우듯이 천천히 세워나갔음, 이는 다른 고장에서는 없는 풍장 마당임.

6) 삼무동이 : 풍장꾼은 왼쪽에 한 줄로 서서 연주하면 3무동이 중앙에서 무동이를 세웠음(세우고 입장하는 것이 아님). 그 주변을 벅구잽이들이 천천히 돌며 상모를 돌리면서 삼무동의 꽃나비가 떨어질 때 받아주는 역할을 하였음. 삼무동이의 재주는 ①어깨위의 춤 ②두 번째 무동이 팔을 굽히고 힘을 주면 꽃나비가 양팔로 미끌어지듯 내려서서 춤을 추다가 어깨로 올라가는 양 팔뚝 위에서 춤을 춤 ③꽃나비가 두 번째 무동의 배에 안겼다가 어깨로 올라가는 안기기 ④꽃나비가 두 번째 무동의 머리 위에서 추는 머리 밟기 춤 등이었다 하는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삼무동이 놀이다.

광천 1리에는 1958년 당시 이 마을의 젊은이가 필사한 청룡 농기가 전한다. 광천 1리에는 조선조 1850년대 제작한 청룡기 농기가 있었다 한다. 청룡을 그린 농기였고 화공이 그렸다 하는데, 이 농기가 낡아 1958년에 필사를 하였다는 것이다. 농기의 필사는 예산에서 오촌1리, 하탄방리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앞의 농기가 낡았을 때 화공이 아닌 일반인이 앞의 농기를 놓고 그대로 옮아 그리는 방식인데 이 역시 예산에서만 조사되는 현상이다. 이 마을의 임난대가 필사를 하였다. 임난대는 1936년생으로 필사할 당시 22세의 청년이었는데 마을에서는 드물게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한 사람이었고 손재주가 좋아 조각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한다. 마을의 어른들이 임난대의 재주를 알고 권하여 그리기 시작했으며 그림을 잘 그려 앞의 농기와 똑같다고 칭찬을 들었다 하니 이 마을 농기는 대를 이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종화**(1934년생) 예산군 대흥면 하탄방리 |



예산 고유 두레풍장 가락

예산의 전통 마을 농악은 소멸되어 가는 상황이다. 농악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인정하는 것처럼 현재의 예산 농악은 대전 웃다리풍장과 앉은반 사물놀이의 영향으로 향토 풍장이 사라지고 있다. 본디 농악은 아래위 마을조차 가락이 조금씩 다른 것이 생명력이다. 가까이 살면서도 자기 마을 것을 고집할 줄 알던 조상들이 각기 다르면서도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풍장을 가꿔 왔기에 소중한 것이다.

더구나 예산의 농악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보배롭게 예산 농악을 지켜온 박

익수의 장터 풍장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마을의 상쇠들이 박익수 상쇠를 배워 치는 바람으로 마을 고유의 풍장들은 변질되거나 사라지기 시작했다. 마을마다 달랐던 풍장이 모두 하나의 가락을 동경하고 연주하는 바람이 불었던 것인데, 이 위에 웃다리풍장과 예산인으로 앉은반 사물놀이를 창시한 이광수의 영향으로 옛날 두레풍장이나 고사풍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런데 하탄방리의 이종화는 아직도 하탄방리 두레가 치던 옛 가락을 변형 없이 치는 사람이다. 1934년생인 이종화는 경주이씨 가문의 사람으로 하탄방리에서 출생하였고 군대 생활 외에는 이 마을을 떠난 적이 없이 살아온 사람이다. 18세에 마을 두레에 꽁배로 입문하였으며 그해부터 마을 두레풍장의 벅구잽이로 상모를 돌리기 시작하였고, 다른 애기 장정들이 벅구를 한 해 치면 중단하는데 그는 벅구를 치며 상모를 돌리는 것이 좋아 계속하였다. 그리고 상쇠 앞에서 벅구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 풍장의 상쇠 가락을 몸에 익힐 수 있었다. 20세에 교촌리 정옥문과 혼인하였고 슬하에 2남 4녀의 아들딸을 두어 가정을 이루었다.

하탄방리 두레는 작은 두레다. 두레 호수가 40호 미만이었고, 장정은 최대로 출력할 때도 50명에 이른 적이 없었다. 두레 물 수는 만물 논매기만 공동작업으로 하는 한 물 두레인데, 풍년이 들 정도로 농사 세월이 좋으면 추가로 먹매두레를 운영하였다. 두레 임원은 좌상과 공원 각 한 명이며 심부름은 꽁배가 했다. 두레 쌀은 논의 일감으로 보아 상매, 중매, 하매로 차등을 두었으며 이는 좌상이 결정하였다. 두레 바탕은 마을 앞 느티나무 정자 아래 공터였으며 봄두레와 여름두레를 모두 이 자리에서 먹었다.

하탄방리 풍장꾼은 상쇠가 2명이다. 이 마을에는 상쇠는 시대순으로 박은현·오용근·박기원·김정섭에 이어 이종화에게 전승되었으며 장구잽이는 이명숙·김정섭이, 북잽이는 김정호·박근신·이학철·박기묵·이강돈이, 징은 박기남·김교영·김정화로 이어졌다.

이 중 1880년경 출생자 박은현은 마을의 전설적인 상쇠로 탄방리와 하탄방리 모두 덤벼도 박은현의 깽매기는 당할 수 없다고 회자된 인물이다. 언제나 상쇠를 쳤다. 상쇠들이 처음 배울 때는 부쇠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는 시작부터 부쇠를 하지 않고 상

쇠로 시작하였다 한다. 이종화는, 하탄방리가 작은데도 타동 두레와 어깨를 겨룰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박은현 때문이라 했다.

여름두레 먹는 날에는 오전 9시경까지 마지막으로 남겨둔 논매기를 하는데 이를 당년도 두레 논매기를 끝낸다 하여 '두레 뚜껑 덮는다'고 말했다. 여름두레 현장에서 가장 볼 만한 풍장의 행렬은 뚜껑을 덮는 논매기 작업 후, 농기를 앞세운 두레꾼이 풍장을 치면서 여름두레 먹는 장소로 이동하는 행렬이었다. 이를 두레행차라 했다. 두레행차의 순서는 길라잡이, 영기, 꽃나비, 농기, 좌상과 공원, 풍장꾼, 두레꾼 순이다. 여름두레 먹는 날에는 두레행차 후 두레 바탕에서 본격 놀이판을 벌이기 전에 농기고사를 지냈다. 다른 마을 두레와 달리 농기의 기수가 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하는 단순한 농기고사였다.

이종화의 두레풍장 가락은 일판에서 행하는 두렁거리 두레풍장과 정자나무 밑에서 놀며 치는 이른바 정자나무 가락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 중 두렁거리 가락은 향토적이며 가락의 속도가 느리면서도 흥겨운 것이 특징인데 정자나무 가락은 예산 최고의 상쇠 박상쇠 풍장의 시작 가락과 유사하다.

하탄방리에는 1934년에 만들어진 농기가 있다. 용을 그린 농기이며 이 마을에서는 용대기라 부른다. 마을의 용대기에는 同治十三年甲戌年六月(동치13년갑술년유월)이라 적혀 있으며 동치 13년은 1875년이다. 먹으로 용을 그리고 용의 눈만 치자 물로 노랗게 채색을 하였고 나머지는 채색하지 않은 농기다. 이 농기에는 많은 이야기가 전한다. 동치 13년에 만든 이 농기에는 현감(혹은 군수)이 마을을 칭송하는 글을 쓰고 직인과 수결을 함께 했다 한다. 대흥면에 2개 마을만 이를 해 주었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수결로 인하여 인근 마을의 모든 두레 농기가 현감의 농기에 절을 하는 풍습이 생겼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흥면의 인근 마을에서 유명했던 농기는 일제강점기 두레가 퇴락하면서 관리가 소홀했고 1934년 너무 낡은 농기를 중수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만들었다.

당시 이 농기를 중수하는 방법은 아낙네들이 손재봉틀을 이용하여 기폭을 만들고 이 마을 서당의 마지막 훈장 박무현이 농기를 그렸다 한다. 박무현은 1897년경 출생한 사

람으로 하탄방리 무터골 자기 집 사랑방에 서당을 열고 청소년들에게 한학을 가르친 훈장이었다. 세월이 어지러울수록 젊은이들이 공부해야 한다면서 서당을 열고 글을 가르치면서도 글 삯은 가정 형편에 따라 조금 받거나 받지 않는 선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이다.



박무현은 동치13년의 용대기와 현재의 농기폭을 나란히 펼쳐 놓고 천을 나누어 접고 길이를 맞추어 그대로 그려 마을 사람들이 “필사를 했다”고 증언하는데, 모두 그려 놓고는 어른들이 두 농기가 똑같다 하여 즐거워했다는 것이다. 아쉬운 부분은 중수와 관련하여 앞의 농기에 대한 이력과 중수에 관한 기록 없이 ‘동치13년갑술유월’이라는 글씨만 썼다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1934년에 제작된 이 농기는 예산군 차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소중한 민속자료임에 틀림없다.

칠석에는 하루 동안 어떤 경우에도 거르지 않았다. 초상이 나면 거르지만 부정은 아무리 커도, 예를 들어 소가 죽어도 쳤다. 광복절 풍장이라 하여 매년 8월 15일에는 하루 동안 1946년부터 1990년대까지 매년 쳤다. 먹매꺾기풍장은 두레풍장으로 1~2일간 친다. 이는 간혹 부잣집에서 기부한 술을 꺾어 안주를 마련할 수 없을 때 치는 걸립 풍장이며 두레풍장 두 물 두레라서 40~45일 동안 치는데 두레가 서는 날부터 칠석까지다.

| **박상천**(1929년생)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



민속의 마을 시량리

박상천은 1929년생으로 그의 고조가 시량리에 입향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의 증조할아버지가 정3품 통정대부 벼슬을 하였음에도 죽어서는 이 마을에 묻혀 그의 후손들이 외지에 나가 살아도 이 마을을 바라보게 하였다. 그는 25세에 서산시 해미읍에 사는 김금숙과 혼인하여 3남 1녀의 자녀를 두어 가정을 이루었고 한 번도 시량리를 떠나지 않고 살았다.

예산의 마을 지명 중 고욤골은 계음골이 잘못 표기되었다. 이 기록은 계음골을 고욤

나무골이라 하였는데, 감나무 씨를 심어 난 나무는 감이 열리지 않고 고욤이 열려 선대보다 후대가 약한 나무라서 지명으로 썼을 리 없다. 자신이 어른들에게 들은 지명은 계음골이며 이는 계수나무 그늘이라서 사람이 살면서 더위를 피해 쉴 수 있듯 마음과 몸을 쉬는 마을이라는 좋은 의미였다. 이런 것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이런 내용을 알고도 고욤골로 표기한 것인데 지금도 쓰고 있다.

계음골에 마을 고사가 없다는 것은 잘못이다. 마을에서는 1936년까지 마을 앞 느티나무 아래에서 서낭제를 올렸고 산의 고개가 아닌 평평한 곳에 올리는 서낭제라서 '평서낭'이라 불렀다. 이 마을에 살던 부자들은 이승영, 박영태, 한명우 등이 30마지기 이상 영농한 부자들로 두레에 많은 도움을 주어 부자들과 두레의 사이가 좋았다.

이 마을에 가장 먼저 입향한 입향조는 연주이씨로 17대를 내렸고 다음이 전주이씨 16대를 내린 향토 양반 가문이다. 이 마을의 마지막 서당 훈장은 유승열이며 현재 아파트 자리의 집 사랑채에서 가르쳤고 박상준 등이 수학했다.

시량리 두레는, 두레 호수가 70여 호에 이르고 장정은 1가구 1인이 아니라 장정이 있는 대로 출력했다. 두레 물 수는 두벌과 만물 논매기를 공동작업으로 하는 두 물 두레며, 두레 임원은 좌상과 공원 각 한 명이며 심부름은 꽁배가 했다. 두레 쌀은 논의 일감으로 보아 상매, 중매, 하매로 차등을 두었으며 이는 좌상이 결정하였다. 두레 바탕은 마을 개천 변의 느티나무 정자 아래 공터였으며 봄두레와 여름두레를 모두 이 자리에서 먹었다.

시량리는 풍장문화가 매우 성했다. 이 마을의 풍장꾼들은 1960~1970년대 예산의 대표 풍장으로 활동한 박 상쇠의 덕산장터 풍장마당의 주역으로 활동한 사람들이 많다. 이에 다른 민속 이야기를 생략하고 풍장꾼들의 인생을 간략히 정리한다.

인건배는 1896년생으로 시량리의 풍장잽이, 소리꾼이다. 소리는 축원덕담을 잘하였다. 덕산면내 대표 풍장단의 수상쇠로 동생 인동배와 함께 시량리 풍장을 이끌었다. 장구는 박갑돈·인건배, 북에 어일담, 징에 이국선과 함께 활동하였다. 시량리 풍장이 덕산을 대표하는 풍장이었으나 인건배의 이른 사망으로 쇠락하여 갔다. 이때 등장하여

1980년대 초까지 왕성하게 활동한 박 상쇠로 인하여 시량리 풍장이 마을 풍장으로 전락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인건배의 이른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여겼다. 인건배는 술을 마시지 못하면서도 신명이 좋았고 기운이 매우 세서 장사 소리를 들었다. 마음이 후덕하여 이웃 간에 화목함을 소중히 하였으며 마을에서는 싸운 사람들 화해시키는 사람으로 회자되었다. 평생 농사를 생업으로 6남 3녀를 두었고 1951년 상갓집에 음식을 먹고 급한 병을 얻어 사망하였다.

박갑돈은 1896경 출생의 시량리 풍장꾼으로 덕산에서 1930~1940년대 부쇠를 치기 시작하여 풍장을 배웠으나 장구로 바꿔 치면서 장구잽이로 이름을 날렸다. 예산 최고의 장구잽이로 회자된다.

박영구는 1924년생의 시량리 최고의 징잽이로 박영구가 징을 잡으면 징이 노래가 된다고 회자되었다.

인돈배는 1901년경 출생자로 인건배의 둘째동생이다. 장구잽이로 활동하면서 덕산풍장을 이끌었다.

인종민은 1923년경 출생자로 인돈배의 장남으로 인돈배가 연로하여 풍장을 치지 않을 때 아버지에게 장구 가락을 배워 마을 장구잽이로 활동하였다.

인종칠은 1928년경 인돈배의 차남으로 형과 함께 장구를 쳤다.

인종명은 인돈배의 삼남으로 창구를 잘 치며 축원소리와 각설이타령 등에 능했다.

어일담은 시량리와 둔리풍장의 최고 북잽이로 두레풍장과 장터풍장, 놀이풍장 모두에서 기량이 탁월하여 '어북'으로 불려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시량리에서 태어나 둔리로 이사하였지만 둔리 거주 시에도 시량리 풍장 판에 빠지는 법이 없었고 노년에 다시 시량리로 이사하여 살다가 죽어 시량리에 묻혔다.

지동순은 1903년경 출생자로 시량리에서 작은 북을 치는 북잽이다. 다른 마을이나 고장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대북 소북의 연주는 이 마을에서는 분명히 지켜졌고 대북은 머리 북이고 소북은 꼬리 북이라는 개념이 강했다. 지동순은 어일담이 이 마을에 거주할 때는 소북을 치고 둔리 이주 시에는 대북을 치던 북잽이였고, 춤사위는 어북

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가락은 못지않다는 평을 들었다.

이국선은 1900년경 출생자로 덕산을 대표하는 징잽이로 인건배와 함께 활동하였다. 징을 잘 치는 것으로는 소문나 뛰어난 풍장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이국선은 고사 축원 소리나 기타 유희 소리에도 능하여 여러 마을에 불려 다니며 풍장을 칠 수 있었다.

이 마을에 연중 풍장 치는 날은 1년 기준으로 회갑 결혼 등의 부정기적인 잔치를 제외하고 풍습에 의하여 풍장을 치는 날이 46일에 이른다. 정월 대보름에는 이틀간 희망하는 집에 안택풍장을 쳤다. 2월 초하루는 하루 동안 머슴 생일이라 하여 대농에서 막걸리를 내고 마을 젊은 풍장패가 놀이풍장을 쳤다. 여름두레는 30일 내외로 두물 두레 논매는 동안 매일 풍장을 쳤다. 여름두레 먹는 날은 칠석과 백중 사이 하루를 정하여 두레를 막음하며 전체 두레꾼들이 하루를 즐겼다. 추석날은 추석날 오후에 풍장잽이들이 풍장을 치며 즐겼다. 개인 논매는 날 10여 일 내외로 풍장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품앗이를 하면서 오전부터 오후 새참 때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풍장을 치며 즐기는 모습이 성행하였다. 칠석풍장 2일로 매년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다.

| **송창영**(1925년생) 예산군 덕산면 |



예산 장터풍장의 마지막 상쇠

송창영은 1925년생으로 덕산면 신평리에서 송국현의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 두레풍장의 벅구잽이로 시작하여 그 마을의 상쇠였던 강선충에게 직접 상쇠를 배웠다. 강선풍에 관하여는 '하루 깽매기를 치러 나가면 쌀 한 말을 번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는 당시 장정의 품삯이 하루 쌀 서 되였음을 생각하면 아주 비싼 사람이라는 의미였다. 강선충의 부드러운 가락은 배우기가 매우 어려워 '잔재비가 쎄서 못 배우는 가락'으로 일컬어 졌는데 송창영이 이 가락을 배워 상쇠를 칠 수 있었다.

1959년부터 성리에서 예산군의 군과 면의 농악 대회를 석권한 박익수가 1960년대에 이르러 덕산으로 나와 풍장패를 구성하고 덕산 대표 풍장으로 도약하였지만, 송창영은 그에 합류하지 못하고 시량리 부쇠로 활동하였다. 그러다가 1963년 박 상쇠 풍장판에 합류하여 박 상쇠 앞에서 시전하였는데, 그를 본 박 상쇠가 '쇠는 나보다 잘 친다'면서, 송창영이 모르는 자기 가락을 직접 가르쳐 수 상쇠로 삼았다. 그러나 몸집이 작고 힘이 약했던 송창영은 상모돌리기를 배우지 못하였다.

박 상쇠의 사망 후 송창영은 덕산 농악대의 수 상쇠로 활동하였으나 단체는 활성화되지 못했다. 박익수가 생전에 송창영을 일러 '쇠는 잘 치는데 마음이 너무 약해 판을 맞길 수 없는 사람'이라고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후 송창영은 둔리의 뛰어난 북쟁이로 시량리 어북에게 북을 배워 박익수 풍장의 북잽이로 활동한 김종호 등과 함께 예산 보부상놀이 단체인 '예덕 상무사' 보부상 풍장단에 들어가 덕산장에서 친 박익수의 장터 풍장을 재현하는 공연에 수 상쇠로 활동하였다. 풍장 치기를 밥 먹는 것보다 좋아한다는 말을 들었던 송창영은 보부상 문화 전승의 큰 기둥이었던 윤규상의 사망 후 이정순이 선도하는 보부상 난전 놀이단이 예덕 상무사를 이탈하여 '예산 보부상 난전 놀이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자 그 단체에서 수 상쇠로 활동하였다.

예산의 농악에서 박익수가 구성한 풍장의 가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순수한 예산의 풍장이다. 박익수가 삽교읍 성리와 덕산에서 구성한 판은 다르다. 이는 박익수가 삽교풍장과 덕산풍장의 차이를 온전히 이해하고 각각의 가치를 살려내기 위해서 행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리고 두 판재는 각각 예산군 풍장대회를 석권했다. 또 한 가지 박익수 풍장이 확실한 예산의 풍장이라 말하는 것은 해방 이후 급속도로 지역 농악의 벽이 허물어지고 타 고장의 우수한 예술 풍장을 배워 가락과 판재를 변모시켰지만 박익수는 그러하지 않았다.

덕산풍장 이후 예산풍장의 대표 풍장으로 활약한 오가풍장은 대전 웃다리풍장과 남사당의 영향을 받았고, 고덕풍장은 당진의 판재가 더 많았기에 충청도 풍장이라 할 수는 있어도 예산풍장이라 이르기 어려운데 박익수의 풍장은 순수한 예산의 가락과 판재

로 구성되어 있었다. 둘째, 예산의 우수한 풍장을 모아 재구성하였다. 박익수는 김종갑·강선충·인건배 등 당시 삽교와 덕산에서 활동한 최고의 상쇠들을 찾아다니며 공부로 쇠를 배워 자기 것으로 익히고, 이를 기반으로 판재를 구성하였다. 그뿐 아니라 송창영을 만나서는 자기보다 쇠 소리가 좋다며 쾌히 수 상쇠를 맞기는 아량으로 지역의 우수 풍장과 인재를 판의 중심으로 삼았다.

셋째, 장터에서의 공연으로 지역 풍장을 예술 풍장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박익수는 덕산에서 구성한 풍장단으로 5일장이었던 예산장과 덕산장에서 장날 풍장 공연으로 돈벌이를 하였다. 이 당시 장터풍장은 입장료 없이 난전 공연을 하고 구경꾼들이 내는 돈을 받는 광대 같은 공연이었다. 1960년대 이후 서구적 대중문화의 범람으로 돈이 안 되었지만, 그는 두 번이나 이를 시도하였다.

넷째, 중·고교생 등 청소년들에게 예산의 풍장을 가르쳤다. 박익수는 삽교중학교와 자기 마을인 성리의 고등학생들에게 풍장을 가르쳤다. 당시 그는 "오래지 않아 예산의 풍장이 없어질 것"이라 말하였고, 그를 막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가치로 보아 박익수의 예산풍장은 복원되어야 하며 앞으로도 오래 지켜나가야 할 예산의 중요한 전통문화이다. 송창영의 증언으로 정리한 박익수 풍장판의 예술인들은 다음과 같다.

인건배는 1896년생으로 시량리의 풍장잽이 소리꾼이다. 소리는 축원 덕담을 잘하였다. 덕산면내 대표 풍장단의 수상쇠로 동생 인동배와 함께 시량리 풍장을 이끌었다. 장구는 박갑돈, 인건배, 북에 어일담, 징에 이국선과 함께 활동하였다.

한두영은 박상쇠 풍장단의 짧은 상모 우두머리로 1900년경 출생하여 일제강점기에 주로 활동하였다. 본인은 짧은 상모를 돌리고 열두 발 상모는 공연한 적이 없으면서도 젊은이들에게 열두 발 상모를 가르쳐 공연할 수 있게 했다.

최승천은 1913년경 출생자로 예산풍장패 최고의 재담꾼이다. 풍물은 치지 않았으며 예산풍장의 유일한 잡색 놀음인 가짜 양반을 역할을 하였다.

송창영은 1925년생으로 박 상쇠에게 쇠를 배웠다. 예산풍장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며 예산 장터풍장을 가장 분명하게 증언하며 상쇠 가락을 시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맹근섭은 박상쇠가 풍장단을 모집할 때 참여하여 상쇠를 희망하였으나 장구에 소질이 보인다는 박 상쇠의 지도로 장구잽이가 되었다. 6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는 예산 최고의 장구잽이로 칭송을 들었다. 이한구는

1900년경 출생자로 박 상쇠 풍장의 열두 발 상모꾼이다. 마을에서 상모꾼으로 활동했던 이한구는 쇠를 배우고 싶어 박 상쇠 풍장패에 가입하여 박상쇠의 권유로 열 두발 상모를 돌렸다. 후에 예산, 덕산의 최고 열두 발 상모꾼이 되었다.

김종욱은 젊어서 보부상으로 활동한 인물로 단순한 장돌뱅이가 아니라 보부상(상무사)에 적을 두고 활동한 유일의 풍장패이다. 북을 잘 쳐 박 상쇠의 풍장판에서 풍장을 치기 시작했다.

김종호는 1936년 11월생으로 현재 예덕 상무사 공연단의 풍장 중 북잽이다. 이계덕·어일담·맹희순 등의 영향으로 어려서부터 풍장을 즐겼으며 이계덕의 권유로 북을 치기 시작하였다. 1969년경 맹희순의 권유로 박익수 상쇠의 덕산장터 풍장단에서 활동을 하였다.

태안군

| **김계곤**(1930년생) 태안군 소원면 |



모항의 자염

김계곤은 소원면 의항리에서 모항리로 13살에 시집을 왔다. 당시 남편(권일관)의 나이는 19세였으며 18세에 첫아이를 본 후 7남매를 키우며 남편의 자염작업을 도왔다. 모항에서 자염을 만든 일에 직접 종사한 사람 중에 여자는 김계곤이 유일했다. 그가 남자일인 자염을 만들게 된 연유는 자염을 만드는 갯벌과 염벗이 바로 집앞에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국승환 소유의 염벗에서 소금을 구웠다. 자염은 통조금 방식으로 만들었다. 통조금 방식은 태안문화원이 재현 복원한 방식과 같았다. 먼저 조금 때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갯벌에서 5~6일 동안, 사람은 가래질, 소는 써레질, 덩이질, 나래질을 하여

흙을 말린다. 흙이 잘 마르면 사리가 시작되기 전날 지름 9m 중심 깊이 2m의 깔때기 형태의 통자락에 밀어 넣는다. 통자락 중앙엔 말뚝을 박아 만든 간통이 있다. 소금물을 모으는 구실을 하는 장치다. 통자락에 개흙을 모으고 간통 덮개를 덮는다. 사리가 지나면 간통에 모인 소금물을 퍼다 염벗의 가마 솥에 끓이는 방식이 통조금 방식이다.

그녀는 소를 길렀기 때문에 통자락 4~5개로 소금물을 만들었다. 남자들 5~6명이 품앗이로 소 3~4마리를 이용해서 개흙을 말리는 작업을 같이했다. 그녀는 개흙덩이를 부수는 덩이질도 했고 개흙을 모으는 마지막 날은 고무래질로 거들었다. 그녀는 흙을 모으는 일을 '조금 들인다' 소금물 만드는 일을 '잿물 받친다'고 표현했다. 소금 생산은 음력 2월부터 10월까지 했는데 장마철에는 못 한다고 했다. 그녀는 통자락 2~3개를 헐은 소금물이 가마솥 1개를 채웠던 것으로 기억했다. 일하는 사람들은 밥은 각자 집에서 해결하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형식으로 품앗이를 했다. 그녀는 남편이 염벗에서 밤에 가마솥에 소금물을 끓일 때는 밤참을 나르기도 했다. 벗고사는 염벗주가 정월 보름에 지냈으며 떡, 술, 우럭, 조기, 과일 정도만 차렸는데 술은 맑은 술을 사용했다. 그때 같이 자염을 만들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뱃물아베, 글랑, 진한이를 기억했다.

그녀는 자염을 만드는 일은 무척 고달픈 일이라고 회상했다. 갯벌 통자락의 소금물을 염벗으로 져 나르고 땔감을 구해야 했는데 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도둑나무를 했다고 한다. 도둑나무는 산주 몰래 밤에 소나무 가지를 베어오는 것이었다.

13살에 시집온 그녀는 자염 굽는 일을 22살까지 했다. 한 가마솥에 소금이 얼마 생기는지 값은 얼마였는지는 상관하지 않아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값이 비싸서 동네 사람들이 힘들어도 만들었다고 했다. 자염 생산은 6·25전쟁 직전에 사라졌는데 자염 맛은 천일염과 천지 차이라고 기억했다. 자염이 사라지자 남편 권일관은 한동안 새로 생긴 하누니, 안상각의 천일염전에서 소금을 만들었다고 했다.

13살 어린 나이에 그녀는 개목에서 모항으로 시집왔다. 가마 타고 시집왔는데 가마 안에 사기요강을 갖고 왔단다. 어린 며느리를 시어머니 김 씨는 무척 아꼈다. 외아들 권일관이 그녀에게 화를 내면 "이놈의 새끼야, 너보다 천 냥 판이다." 하며 야단쳤다. 그녀

는 어린 나이에도 밥하고 빨래하는 일 외에 거친 들일도 잘했다. 모심으러 다니고 소꼴도 베어 날랐다. 삼베를 짜는 길쌈도 잘했고 근력 좋고 일손이 빨랐다.

그녀는 갯것(맨손 어업으로 잡는 어패류)도 잘했는데 꽃게를 눈 빼서 잘 잡았다(맨손으로 개울 속에 꽃게눈을 보고 잡는 것을 '눈 빼서 잡는다고 한다'). 김장철엔 굴을 찍어 팔고, 맛을 잡고, 조개도 긁고, 능젱이도 잡고, 설게도 잘 잡았다면서 능젱이는 봄에 잡는데 몸뚱이가 퍼런 '철발이' 다리가 긴 '철렁젱이' 발로 잡는 '발능젱이' 발이 빠른 '세발이'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게(쏙의 일종)는 6월에 잡는데 설게가 사는 구멍 주변을 판판하게 판 다음, 웅덩이 물에 된장을 풀어서 구멍에 부으며 '청설게야 황설게야 물 많이 먹고 나오너라' 하면 설게가 나오는데 그때 손으로 잡아당겨 잡고, 또 강아지풀꽃을 구멍에 쑤셔 넣어서 설게가 화나게 해 잡기도 했다. 또 잡은 설게 허리에 끈을 매어 다른 설게 구멍에 집어넣으면 구멍 속의 설게가 자기 집을 뺏으러 온 줄 알고 들어온 설게를 구멍 밖으로 밀고 나올 때 잡는다고 했다. 잡은 설게는 젓도 담그고 지져먹기도 했다. 김계곤은 두부를 잘 만들고 게국지, 조개젓을 잘 담갔다.

남편 권일관은 고집은 셌으나 부지런하고 양심은 반듯했다. 별명은 '1관'을 빗대 '엿근 넉량'이라고 불렀다. 그는 자염도 굽고 천일염전에 염부로 다니고 농사도 짓고 고깃배도 탔다. 조기가 잘 잡힐 때는 선원으로 다녀 돈도 벌었으나 노름을 좋아해 아내의 속을 썩였다. 그녀는 조기나 갈치 같은 생선이 너무 흔해서 밥은 보리밥을 먹어도 반찬은 잘 먹고 지냈다고 회고 했다.

그녀가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은 시어머니가 죽었을 때이다. 지금도 생각나는 말은 "에미야 젊어서 많이 먹어라. 이빨 성할 때 먹어라. 이빨 없으면 못 먹는다"는 말이라고 했다. 시아버지는 예순 살에 죽었는데 치매가 심해서 툭하면 지붕에 올라가 말뚝을 박았다. 박이 열면 박에도 말뚝을 박았다. 남편이 있었어도 시어머니가 죽으니 앞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사는가 걱정이 앞섰다며 시어머니와 사이가 그렇게 좋았다고 말했다. 그 시절 고부 관계로는 매우 돈독한 사이였다. 자염을 만들던 갯벌은 지금 간척사업으로 논이 됐다고 했다. 6·25전쟁 때는 총소리가 많이 났고 마을에 우환이 많았다고 한다.

| **정윤영**(1933년생) 태안군 소원면 |



태안의 자염 생산

정윤영(鄭潤永)은 16세부터 부친과 함께 갈개조금 방식으로 자염을 만들어 생계에 보탰고 나중에는 '통조금' 방식으로 소금 만드는 일꾼으로 살았다. 갈개조금 방식으로 소금을 만든 건 집안이 가난하여 일손과 소[牛]가 없기 때문이었다. 갈개조금으로 소금물을 만들어 가마솥에서 끓여 소금을 만들었는데 한 가마솥에 생산되는 소금 양은 5섬(1섬/90kg) 정도 되었다. 5섬 중에서 가마솥 임자 염벗주에게 1섬, 땔감 나무 값으로 1섬을 주면 정윤영의 몫은 3섬이었다. 당시 소금 1섬은 쌀 3말(斗) 값으로 소득이 높은 편이

었다. 6년 동안 갈개조금을 하면서 그는 품앗이로 통조금 일도 거들었다. 통조금이란 갯벌에서 조금 때 갯벌 흙을 말려 소금물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그의 기억으로 모항의 염벗 수는 6개로 안상각의 하누니 염벗, 정명호의 통삼 염벗, 정낙선의 큰말 염벗, 국승환의 진가리 염벗, 박기만의 솔모루 염벗이 있었고, 송현리의 벗앞들에는 '이정우·이강연'의 두 개의 쌍벗이 있었다. 염벗은 소금 끓이는 움막을 뜻한다. 모항의 자염은 거의 통조금 방식으로 만들었다.

염벗 1곳에는 소금물(함수)을 만드는 통조금(통자락)이 3~5개씩 있었다. 소금 생산은 3월부터 시작해서 장마철에는 쉬고 9월까지 했다. 소금물 한 가마솥을 끓이면 소금이 5~6섬 정도 생산되는데 소금의 분배는 염벗주 1섬, 간쟁이 1섬, 나무 값 1섬을 주고 나면 염한의 차지는 2~3섬 정도였다. 첫 소금을 굽기 전에는 소금고사를 지냈는데 염벗주가 제물과 음식을 준비했다. 모항의 자염 생산은 6·25 전쟁 직전까지 생산하고 사라졌다.

갈개조금을 해서 농토를 산 사람은 모항의 국병오 아버지로 그는 땔감으로 어린 소나무를 베어다 도리깨로 두들겨 생으로 말려 자염을 끓일 정도로 지독한 사람이었다. 갈개조금이나 통조금으로 생산한 소금은 보름에 한 번씩 소금장수가 중선배에 실어 강경포구나 군산에 가서 팔았다. 모항에는 국병훈 부친이 소금장사를 했는데 그는 눈이 커서 우럭부(夫)라는 별명이 붙었다. 다른 이에게 들은 기억으로는 우럭부가 군산으로 소금 팔러 가서 선원들과 어느 주막에 들렀는데 곱게 생긴 여자가 처음에는 술값과 밥값을 안 받더니 서너 번째 봤을 때엔 자기를 데리고 가라고 졸라서 그 여자를 소금 배에 싣고 와 작은댁을 삼았다고 했다.

정윤영은 자염을 굽는 일이 끝긴 뒤로는 농사를 지으며 소원면의 양조장에서 모항까지 6km 길을 하루 두 번씩 막걸리를 져 나르는 일도 했다. 막걸리 한 짐은 100kg 정도였다. 그때 아버지는 모항의 정명호네 조기잡이를 배를 탔는데 배의 크기는 삼대선이라고 했다. 그때는 돛이 하나면 1대선, 두 개면 2대선, 세 개면 3대선이라 했는데 얼마나 먼 바다로 조업을 나갔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조기를 잡는 게 아니라 퍼담는다고 할 정

도로 어족이 풍부했고, 그 조기를 자염으로 절여 태안장에 팔았다.

직접 배를 부리기도 했는데 주로 까나리잡이를 했다. 전쟁 때 황해도서 피난 온 뱃사공과 서너 명이 '방이' 근처로 까나리잡이를 다녔다. 바다에 까나리는 그물에서 바가지로 퍼담을 정도로 잘 잡혔다. 잡힌 까나리는 삶아서 모래밭에 널어 말려서 팔았는데 돈을 벌지는 못했다. 까나리잡이는 봄철 다섯 사리만 잡기 때문에 그물 값 선원들 품삯을 주고 나면 빚만 남았다.

1961년 정윤영은 28세 때 군인들한테 총에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다. 대전에서 간첩을 잡았는데 그 간첩 말이 며칠날 저녁 19시에 북에서 간첩을 실은 배가 모항리 '새나루' 바다로 온다고 자백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대한청년단원이었던 정윤영은 소원지서 순경 김관우와 송옥출, 이민애, 황봉룡 등 4명과 같이 작은 배를 타고 새나루 근방에서 북에서 배가 간첩을 싣고 내려오는가 살폈다. 밤 21시가 넘어도 간첩선이 오지 않아 배를 모항 '밭고개'로 돌리는데 정윤영이 생각하니 암호를 몰랐다. 그때 바다를 향한 산등성이에는 군인 5개 중대가 바다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정윤영이 순경에게 암호를 물으니 모른다며 우물거리는 그때, 산등성이에서 반짝반짝 불빛 신호를 두 번 하더니 세 번째 신호와 동시에 배를 향해 사격을 가했다. 아군이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황봉룡은 총 맞아 죽고 정윤영은 폐를 관통당했는데 서산의료원으로 실려 가서 겨우 살았다. 경찰서장도 다녀가고 병원비는 경찰서에서 냈다. 2개월 20일 만에 퇴원했는데 보상은커녕 보훈처나 그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증은 물론 보훈 가족 대우를 못 받고 살았다. 그 후 서산 경찰서를 수도 없이 찾아가서 억울한 이야기를 호소하다가 포기했다. 그가 듣기로는 그 간첩 사건으로 경찰서장이 다섯 번이나 교체됐다는 이야기뿐이었다. 민간인이 간첩 잡는데 동원됐다가 당한 사고인데도 국가는 물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는 억울하다며 말했다. "보상이 어딨어. 자유당 시절에는 부자들 권력자들이 사람 때려죽여도 법에 안 걸리는 시기여."

그 후에 그는 농사와 목수 일로 생계를 유지하며 4남매를 키웠다.

| **김재운**(1925년생) 태안군 소원면 |



진미리의 자염

김재운은 삼형제가 같이 자염을 만들었다. 영전리 진미리 갯벌에는 소금을 끓이는 염벗이 세 곳 있었다. 염벗의 위치는 사리 때 바닷물이 닿는 마지막 지점 근처에 세웠는데 이름을 섬벗, 땅벗이라 불렀다. 개흙이 섬처럼 모인 갯벌에 세운 '섬벗'이 한 곳이었고 갯벌 가장자리에 세운 '땅벗'이 두 곳이었다. 주인은 이택선, 한범석, 양진수였다. 가마솥은 쪼갠 드럼통을 펴서 두 개를 붙인 형태로 크지 않았다. 김재운은 섬벗에서 소금을 구웠다. 염벗 1곳엔 개흙을 말려 만든 소금물을 가두는 간통이 3개씩 있었는데 김재운의

형제는 3개를 운영했다. 진미리에는 염벗이 3곳 있었으니 총 9개의 간통(통조금)이 있는 셈이었다.

25살에 입대한 김재운은 군대 가기 전과 제대 후에 자염을 구웠는데 정확한 햇수는 기억하지 못했다. 소금물을 만드는 기간과 방식은 다른 지역과 동일했지만 일꾼과 도구의 명칭은 조금씩 달랐다. 염한이나 간쟁이를 염부장, 염부라고 불렀다. 물 푸는 바가지는 '뒤웅박' 소금 푸는 주걱을 '죽가래'라고 불렀다. 진미리의 자염 생산 방식에서 소금물을 만드는 간통은 다른 지역 통조금 간통보다 컸다. 일소와 일꾼의 숫자에 따라 간통의 크기가 달랐다. 간통 1개에서 만든 소금물은 가마솥에 2~3번 끓일 양이었다. 간통도 염벗처럼 주인이 있었다. 다른 사람은 자염을 굽고 싶어도 간통 만들 장소가 없어 못했다. 진미리에서도 갈개조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마른 개흙을 간통에 모으고 남은 흙으로 소금물을 만들기도 했다. 그 흙을 '똥밥'이라고 불렀다.

진미리에서는 염벗 주인들이 머슴과 같이 직접 소금을 만들었는데 일꾼을 사기도 했다. 김재운 삼형제는 일소가 있어 품앗이를 하지 않았다. 염벗이 없어도 소금을 만든 건 김재운 형제가 유일했다.

생산한 소금의 분배는 10%는 염벗 주인에게 가마솥 사용 대가로 줬다. 당시 소금 값은 1섬에 쌀 1가마 정도로 기억했다. 생산한 소금은 인근 마을 사람들이 와서 사 갔다. 멀리 당진에서도 사러 오는 소금장수들이 있었다. 김재운의 큰형은 생산한 소금을 배에 싣고 서울로 팔러 가기도 했다. 김재운은 소금을 구워 논 5마지기를 구입했다. 소금 굽는 것도 힘들었지만 땔감을 마련하기가 고역이었다. 그 당시는 '철마산'도 벌거숭이였다. 소금 굽는 땔감 준비는 겨울에 했다. 먼 산으로 나무하러 다녔다.

진미리 자염 생산은 6·25전쟁 뒤에까지 했다. 김재운은 7년 동안 군대 생활 하고 와서도 자염을 만들었다고 했다. 자세히 기억 못하지만 1950년대 말까지 생산한 것 같았다. 자염을 그만두게 된 건 바다가 간척사업으로 막혀서였다. 소원면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자염을 생산한 사람이 그였다.

김재운은 글을 배우지 못했다. 20세에 결혼했고. 농사를 지으며 자염을 구웠다. 25세

에 징집되어 군에 입대했다. 6·25 전쟁 중인 1950년 후반쯤으로 기억했다. 홍성에 모였다가 부산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에 도착하여 훈련을 한 달 반 받았다. 배를 타고 부산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은 군인 실은 배를 '동태배'라고 불렀다. 비쩍 마른 사람(군인)들이 배에서 내렸기 때문이었다. 구술자는 부산에서 비행기에 태워 백마고지 부대가 있는 산골에 내려놓고 나침반을 주며 부대로 찾아오라고 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2년 동안 전투에 참여했다. 백암산과 백마고지가 전투가 가장 많았는데 밤에 양쪽에서 총 쏘고 대포 쏘면 밤이 낮보다 훨씬 밝았다고 회상했다. 겨울에는 몹시 추웠다. 총 맞아 죽고 병신 된 사람을 많이 봤다. 죽은 군인들은 국군과 북한군도 있었지만 제일 많이 죽은 건 중공군이라고 했다. 중공군의 군복과 군화는 다르다고 기억했다.

2년 동안 전투한 뒤 그가 부대에서 다른 곳으로 전출돼서 간 곳이 서울 용산의 어떤 합판공장이었다. 당진시 합덕면 사람과 같이 갔다. 그는 그곳에서 합판 만드는 일을 했다. 그게 군대 생활인 줄 알았다. 그곳에서 5년을 일하고 집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나중에 알아 보니 속은 것이었다. 그 당시 김재운은 동생과 함께 형제가 군대에 입대하여 전쟁터에 나갔다. 형제가 군대에 같이 나가면 형은 먼저 의가사 제대를 시켰는데 김재운이 2년 만에 제대를 한 건 그 제도 때문이었다. 동생이 제대하니 형 김재운이 제대한 건 맞는데 집에 돌아오지 않은 것이었다. 가족들은 그가 죽은 줄 알았는데 몇 년 후 집에 돌아온 것이다. 군대에 간 지 7년 만의 일이었다.

나중에 자녀들이 병무청을 찾아가 본 결과 김재운은 군대 생활을 2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당시 군대 생활을 끝까지 마치면 1등 하사, 2등 하사였는데 그의 계급은 이등병으로 처리되어 있었다. 국방부에서는 정식으로 제대명령서를 발급했는데 그 부대에서 어떤 상급자가 김재운이 글을 모른다는 걸 알고 타부대로 이송하는 것처럼 속이고 사적으로 5년 동안 무임금 노동착취를 한 것이었다. 그는 자기가 온갖 고생을 하고도 아직 살아있는 게 뒷산 '철마산' 정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 **송영산**(1932년생) 태안군 근흥면 |



마금리의 자염 생산

송영산은 1932년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 보통학교 5학년을 다니다 해방을 맞이하여 소학교를 1년 더 다니고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졸업 후 윤달선 외 1명의 선생님으로부터 1년 정도 한문을 배웠다. 본관은 여산송씨이며 아버지 송금산과 어머니 순흥안씨 사이에서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송영산은 10살 무렵 아버지가 자염을 만드는 갯벌에서 일을 거들고 놀던 과정을 생생히 기억했다. 마금리의 자염 생산 방식은 태안문화원에서 재현 복원한 통조금 방식이었

는데 현재 마금리3구 회관 앞에 염벗이 3곳, 모탱이에 1곳, 냉금에 1곳, 총 5개의 염벗이 있었다. 현재 마을회관 터에 있던 염벗 3개 중 1개는 안기리의 최학자, 2개는 조병순이 염벗 주인이었는데 조병순을 조선달이라고 불렀다. 인근 갯다리와 새냉금 염벗의 주인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했다. 현재 마금리의 염벗터는 농경지와 천일염전이 되었고 유일하게 남은 곳이 새냉금 벗터다.

마금리의 경우 염벗 하나에 20여 개의 통자락이 있었다. 20여 가구 이상이 자염 생산을 했다. 그의 아버지는 형과 아들과 함께 3개의 통자락에서 소금물을 만들었다. 소가 있고 일꾼이 넉넉한 집들은 2~3개의 통자락에 개흙을 말려 소금물을 만들었다. 10살 무렵의 그가 한 일은 써레나 덩이판에 올라타는 일과 소를 집에서 갯벌로 끌고 가는 일을 거들었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통조금 방식은 조금 때 가래로 통자락을 대접처럼 오목하게 형태로 파내고 그 개흙을 써레질과 덩이질로 잘 말려서 사리 직전에 통자락 안 간통에 나래로 밀어 넣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어린 그는 덩이판에 올라타서 개흙을 부수는 일을 도왔다. 조금이 지나고 사리가 되면 간통에 고인 소금물을 송진을 뭉쳐 만든 대림으로 염도 측정을 한 뒤 염벗의 가마솥에 운반하여 끓여서 소금을 만들었다. 그의 기억으로 1가마를 때기 위해서는 10~18짐의 소금물을 물지게로 져 날랐다. 1짐은 소금물 2통을 말한다. 한 가마솥에서 소금이 5섬 정도 나왔으며 땔나무는 솔가지 5짐 이상이 들어갔다. 그 당시 소금 값은 1섬에 쌀 4말 정도였고 분배는 간쟁이, 염벗주를 한 몫씩 줬는데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염벗고사는 벗 임자가 주로 지냈으며 통자락이 없는 한 사람이 갈개조금을 했었다.

자염 생산자의 호칭은 염벗 주인은 벗임자 혹은 염벗주, 소금물을 만들어 끓이는 염한이, 소금물을 운반하는 간쟁이로 불렸고 제각기 몫의 일을 했다. 마금리 자염 방식에서 특이한 호칭은 소금물을 나르는 사람이다. 태안의 자염 생산에서는 그 사람은 '간쟁이'라고 불렀는데 마금리에서는 '물부시'라고 불렀다. 이는 소금을 끓일 때 '간쟁이'가 덧물을 조절해서 붓는 데서 연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절 마금리에서는 자염을 생업으로 한 가구가 많았는데 송영산의 집안은 자염을 생업으로 한 게 아니라 부업으로

했다. 자염의 분배는 '물부시'(간쟁이)가 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생산된 소금은 갯벌의 갯고랑 타고 들어온 발동선에 싣고 군산이나 강경포구로 실려 나갔다. 소금장수는 안흥 사람 윤여옥이었다. 마금리에서 자염 생산이 사라진 시기는 1950년 6·25전쟁 직전이다. 안상기가 간척사업으로 갯벌을 막아 천일염전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송영산은 열아홉 살에 결혼했고 스물한 살 6·25전쟁 중 입대했다. 제주도 제1훈련소에서 84일 동안 제식훈련과 총 쏘는 방법만 배우고 배로 부산에 도착하였다. 강원도 양구 20사단으로 배치받았는데 그 부대가 6·25전쟁 중 창설한 사단이었다. 그는 배치된 부대가 미군부대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아니었다. 밤에 포를 쏘러 나갔다가 부상을 입어 대구 육군병원에서 4일 만에 깨어나니 손이 절단된 상태였다. 지금 같으면 꿰매서 장애인이 안 됐을 텐데 그 시절엔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육군병원엔 부상 환자가 넘쳐나서 며칠 만에 퇴원시켜 대구에서 기차와 버스 타고 태안으로 와 걸어서 마금리 집까지 왔다. 꼬박 이틀 걸렸다.

마금리 형상은 소가 누운 것 같아 소의 목(우황) 뿔의 안쪽(뿔안) 소의 물통(통샘) 소의 불알(낭금)이란 지명들이 있다. 마금리(摩金里)엔 금을 채취하던 동굴이 있었는데 그 연유로 금을 연마한다는 뜻이 지명이 되어 마금리다. 마을 사람들이 6·25전쟁 때 안흥에 군함이 온다고 환영하라고 동원됐다. 그 후 나중에 원북면에서 이사 온 좌익이 사람들을 근흥면 소재지로 모이게 했다. 모인 사람 중에 12명을 조사하여 매질하고 줄로 묶어 바닷가로 끌고 가 한 줄로 세우고 총살했다. 그 중 김용득은 총소리가 나자 먼저 뒤로 나자빠졌다가 바다 건너로 헤엄쳐 금구덩이에 숨었다가 인민군이 도망간 뒤 나와 구사일생했다.

송영산은 20년 동안 이장을 하면서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버스가 다니도록 했다. 재미있는 일화로 마금리 고개 도로를 낼 때 고개 정상에 서낭당이 있었는데 무서워 아무도 부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동네 교회 목사에게 부탁하니 그도 꺼림칙한지 못 부숴 옆 동네 용신리 목사를 부르니 그가 와서 서낭당을 부수었다. 송영산은 농사를 지으며 전쟁 때 당한 부상으로 국가 유공자가 되어 연금을 받으며 살고 있다.

| **최재철**(1939년생) 태안군 남면 |



고잿목의 자염 생산

최재철은 남면에서 천석꾼으로 소문났던 최부잣집의 장손이다. 고조부 최진문이 자염을 하여 부를 축적했다. 자염을 만들던 장소는 달산포의 고잿목이라는 곳으로 몽산포와 달산포 사이의 갯고랑 주변이었다. 그는 직접 자염 생산은 하지 않았고 12살 무렵 본 것과 후에 어른들에게 들은 말을 기억해 냈다.

그의 고조부 최진만의 자염 방식은 태안문화원 재현 복원한 방식과 달랐다. 염벗을 2개 소유했는데 컸고 가마솥은 방 한 칸(정사각형으로 가로세로 3~4m 정도, 높이는

20cm정도) 크기였다. 머슴을 3명 둔 최진만이 직영했다. 일소와 함께 일꾼 10명이 조금 때 흙을 말리고 사리 때 소금을 끓였는데 품삯은 돈과 소금으로 지급했다.

최진만의 염벗은 사리 때 바닷물이 닿는 경계선에 세웠다. 소금물 만드는 방식은 특이했다. 염벗 앞의 넓은 벌판 모래개흙(개흙 40% 모래 60%)을 소로 써레질하여 말려 나래질로 염벗 옆에 허리 높이로 쌓은 뒤 가운데 큰 웅덩이를 팠다. 사리 때 갯고랑에 바닷물이 들어오면 쌓은 모래개흙 웅덩이에 바닷물을 부어 옆의 구덩이로 짠물이 흘러내렸다. 그걸 '우름'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짠물을 우려낸다는 뜻이다. 구덩이에 모인 소금물을 밤낮없이 가마솥에서 끓였다. 최진만의 자염 방식은 갈개조금과 통조금 방식의 중간 형태로 대단위로 자염을 생산한 것이다. 총무를 둬서 관리하게 한 기업형태였다.

두 개의 가마솥에서 구워 낸 소금의 양은 엄청났고 그걸 팔아 최진만은 남면의 천석지기 부자가 되었다. 땔감은 거아도에서 배로 실어 날랐는데 그 섬은 최진만의 소유였다.

최진만은 커다란 중선배를 2척 소유했다. 생산된 소금은 군산이나 서울로 싣고 가 팔고 돌아올 때는 장군소주나 생필품을 싣고 와 태안 읍내에 팔았다. 중선배는 돛을 3개 단 큰 풍선이었다. 소금은 적돌만 광천이마(광천포구를 마주하고 있어 남면 사람들이 붙인 포구)에서 중선배에 실었다. 조기잡이도 다녔는데 잡아온 조기는 자염으로 절였다가 팔았다. 최재철의 기억으로는 광에 100여 개의 커다란 독에 조기가 절여져 있었다고 했다.

부잣집 도련님인 그는 어린 나이에 자염 굽는 현장에서 놀았는데 봄에는 갯고랑에서 구멍 망둥어 잡아 구워 먹었고 또 일꾼들이 닭을 잡아 진펄로 뭉쳐 감싼 뒤 소금가마솥 불 때는 아궁이에 구워 먹던 걸 기억했다. 그의 고조부 최진만의 달산포 염벗은 해방 직전까지 운영했다.

최재철의 가계는 350여 년 전 남면에 정착했다. 최재철은 부친 최광열과 모친 변석희 사이에서 5남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최광열은 공주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서산중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인민군에 끌려가 양대리에서 희생이 되었다. 그는 태안중학교를 졸업하고 할아버지가 면장 시절 중풍으로 쓰러지자 가계를 책임지게 되었다.

자염은 고조부인 최진문(1852년생)이 30세부터 시작해서 해방 전까지 했다. 천석부자 재산을 일구고 1950년 94세에 사망한 고조부 최진만은 양조장도 운영했는데 부인과 사별한 뒤 양조장 일꾼이 죽자 젊은 미망인과 살아 70살 넘은 나이에 아들과 딸을 뒀다. 증조부는 남면 면장을 했으며 조부 또한 일본 와세다대학을 마치고 남면 면장을 역임했다. 조부는 자염을 하던 모래갯벌 부근에 1955년 천일염전을 개설해 4년간 운영했으나 염전 바닥에서 민물이 나서 포기했다.

그의 어머니는 원래 만주 출신이었는데 공주로 이사와 아버지 최광열을 만나 결혼했다. 최재철은 해방 직후 8세 때 아버지와 함께 기차를 타고 어머니의 외갓집이 있는 함경도 회령 건너 만주 목단강을 방문한 걸 회상했다.

최재철은 고조할아버지와 아버지가 6·25 무렵에 돌아가시자 19세에 천석 부잣집 살림을 맡게 되었다. 그 때 살림은 많이 기울어 있었다. 중선배 2척은 6·25전쟁 직전 팔았다. 면장인 증조할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막내증조할아버지가 군산에서 '미두'라는 투전 놀음을 하여 많은 토지를 처분했다고 한다. 전쟁 당시 거아도에서 기르던 소도 사라졌다.

그는 6·25전쟁이 일어나자 할아버지와 거아도로 피난했다가, 다시 피난선 천세환호를 타고 피난 중 완도에 정박하였다가 좌익 사람들에게 나포되었다. 배에 탄 젊은이들은 인민군에 끌려갔다. 노인과 아이, 부녀자들만 남은 배는 닻줄을 끊고 탈출을 시도했는데 중도에 엔진에 불이 나서 표류하던 중 구조되어 추자도를 거쳐 제주도로 피난을 가게 됐다. 최재철은 할아버지와 함께 피난 갔다 2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다.

그는 27세에 23세인 부인인 이명숙(경주이씨)과 결혼해서 슬하에 1남 3녀의 자녀를 두었다. 젊어서 선대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팔아 다다미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하였다. '느르섬' 일대를 허가 없이 간척하였다가 고발이 되어 남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취조를 받았으나 부정행위가 없어 벌금형을 받고 풀려났다. 대신 돈을 투자해 만든 간척사업에 관련된 모든 재산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1980년대 말엔 정부 융자를 받아서 옥돔 양식 사업을 하였으나 1990년대 초반 옥돔이 수입되면서 단가가 맞지 않

아 부도가 났다.

최재철이 가장 슬펐을 때는 89살에 어머니 변석희가 운명한 때였다. 어머니는 만주 목단강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공주로 이사 왔는데 그 시절 신여성이었다. 그녀는 천석지기 최부자네 종부로 시집와서 증조부, 조부, 시아버지, 남편, 자식들이 함께 사는 대가족의 안주인으로 가계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근현사의 격동기를 겪은 사람이었다.

그는 남면의 새마을금고를 설립하기도 하였으며 한국전쟁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6·25전쟁 중에 이북에서 피난 온 일가족이 거아도 앞바다에 수장된 이야기를 그는 기억하고 있다. 피난 온 가족은 많은 패물을 가졌는데 그걸 눈치 챈 구○○ 지서장과 근무하는 몇 사람이 작당하여 거아도로 가는 배에서 패물과 돈을 뺏고 그들을 바다에 빠트려 죽인 것이다. 그 사건을 아무도 몰랐는데 후에 배에 같이 탔다 죽은 군인 애인이 수소문하여 배를 탔던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세상에 드러났고 그들은 처벌받았다.

| **신상호**(1943년생) 태안군 원북면 |



새마을지도자

신상호는 직접 자염을 생산하지 않았다. 자염을 하던 염벗은 동네에 하나 있었으며 6·25전쟁 이전에 폐지한 것으로 기억했다. 염벗의 벗주는 이수경이었다. 그 집은 동해리에서 넉넉한 가세였다. 자염을 만들던 장소는 현재 마을 창고가 있는 동해리 774-7번지였다. 소금은 이수경이 큰아들 이성환, 둘째아들 이봉환, 막내아들 이진환 삼형제와 같이 만들었는데 가끔 이웃인 정주상 형제들도 일을 다녔다. 자염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모두 죽고 현재는 막내아들 이진환만 생존해 있다.

신상호에 의하면 소금물을 만드는 방식은 태안문화원이 재현, 복원한 통조금 방식과 비슷했다. 흙을 말리는 것과 여러 개의 간통(갈통)에 말뚝 박은 걸 기억했다. 통자락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염벗의 모습은 또렷이 설명했다. 긴 연목을 둥글게 비스듬히 세우고 이엉을 덮었는데 위쪽은 하늘이 보이지 않았고 드나드는 문은 세 개라고 기억했다. 염벗 주위엔 큰 나무누리가 있었으며 그 나무로 불을 때다가 산으로 옮겨 붙어 산불이 난 적도 있었다. 동해리는 산골동네라 땔나무가 흔했다. 자염을 굽던 지명을 벗터, 그 뒷산 고개는 벗재라 부른다.

동해리 자염 염벗은 6·25전쟁 때 없어졌는데 가마솥의 철판 쇳조각은 그 염벗터에 오래 방치되어 있어 그도 한 조각 가져다 물건 덮는 덮개로 사용했다. 그의 기억으로는 가마솥의 크기는 방 반 칸보다 약간 작았으며 자세한 형태는 모른다. 다만 그 솥의 철판 쇳조각은 4개 이상으로 알고 있다. 철판 쇳조각은 두꺼워 간신히 들 정도로 무거웠는데 쇠못을 박았던 못 구멍 자리가 있었다. 그는 가마솥이 6~8개의 철판 쇳조각을 용접한 게 아니라 이어 덧붙인 것으로 추측했다. 자염이 폐지된 뒤 동네 아이들은 바닷물이 고인 간통에서 가무락 같은 조개를 잡고 놀았다.

신상호는 1943년 11월 원북면 동해리 108번지에서 아버지 신인식과 어머니 박한금 사이에서 3남 5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형제가 없는 외아들이었으며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동네 이발사로 부업을 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는 부자였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공직에 나갔다가 가세가 기울어서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게 되었는데 논 7마지기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밭작물로는 콩과 보리를 재배했다.

그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비인가 중학교를 3년 다니다가 원이중학교가 생기자 1년 연장교육을 받아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 후엔 한학을 했다. 당시 훈장님은 운계 조세환 선생이었고 서당에서 수학하던 학생 수는 30여 명이었다. 운계 조세환 선생의 스승인 오석능 선생은 간재 전우 선생의 수제자로 알고 있다. 그는 서당에서 천자문, 계몽편, 명심보감, 소학까지 공부했다. 또 풍수지리에 관심이 많아 그 공부를 하여 40여 년 전부터 농사일과 지관 일을 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돌아다녔다.

지관 일을 많이 보다 보니 전국의 명당이나 태안 지역의 집터, 묏자리 등을 많이 봤다. 환동부자 '원려당' 경우에는 당대 발복을 하는 터였는데 주변으로 길이 많이 나는 바람에 고리가 잘려 있어 그 기운이 많이 줄어들었다.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은 돌고 돈다. 실제로 원려당의 가계는 고창군수와 초대 충남지사를 배출했다. 그는 음택과 양택에 대해 많이 설명했는데 파도리 꽃장은 아미(이마) 혈이 있어서 미인이 많이 나온다.

동해리 마을 뒷산 승제산(성제산)이 명산이어서 그 덕으로 6·25전쟁 때도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당시 쌕쌕이라 불리는 인민군의 비행기가 날아다녔던 걸 기억했다. 동해리는 인심이 좋아 마을에서 상갓집이 생기면 호양미(상례비용 마련으로 마을에서 쌀 2되씩 추렴하여 초상비용을 보태줌)해 주는 풍습이 있다.

군대는 23세 때 입대해서 카추샤 병으로 3년간 근무를 했다. 당시 민정경찰로 미군들과 함께 GP(휴전선 감시 초소(Guard Post))에서 근무했는데 서당에서 배운 도덕과 윤리를 실천하느라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유는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한국 사병 중엔 미군 물건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는 그 유혹을 뿌리치느라 무척 힘들었다. 부대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걸 보고 미군 장교가 같이 미국을 가자고 했는데 대학을 간다며 거절했다. 사실은 한학을 할 때 효의 실천을 철저하게 배웠기에 늙으신 부모를 두고 미국에 갈 수 없어서였다.

그는 휴전선 근무를 할 때 철책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군들과 대화도 나누고 악수도 한 경험이 있었다. 놀라운 것은 북한 군인들이 영어가 능숙해서 미군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다. 당시 카추샤로 근무하던 한국 군인들은 미군과 능숙하게 대화하는 군인이 드물었다. 군대를 제대하고 마을 이장을 8년간 봤으며 새마을 지도자, 4H활동, 농촌자원지도자 등 활동을 했다. 늦은 나이인 33세에 근흥면 안기리 태생인 24세의 처녀 김본정(광산김씨)과 결혼하여 슬하에 1남 2녀의 자녀를 두었다. 구술자가 늦게 결혼한 건 인물과 지식이 좋은데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사가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이진환**(1941년생) 태안군 원북면 |



동해리 염벗

이진환은 동해리 염벗주 이수경의 막내아들이다. 신상호와 한동네 살았는데 자염에 대한 기억은 약간 달랐다. 그의 기억엔 현재 마을창고 터에 있던 아버지의 염벗 외에 소근진 갯고랑 밤섬과 노가산골에 염벗이 두 개 더 있었다. 동해리에 총 3개가 있었던 셈이다. 아버지 염벗 주위에 설치한 통자락의 수는 3개 정도로 기억하며 소를 기르는 다른 사람들도 통자락에서 소금물을 만들어 아버지 염벗의 가마솥을 빌려서 소금을 구웠다. 소금물을 만들고 끓이는 건 태안문화원에서 재현, 복원한 통조금 방식과 비슷했다. 일

꾼들의 호칭과 도구에 대해서는 자세히 구술하지 못했다. 소금의 생산 량, 분배 과정도 어려서 잘 몰랐다. 그가 기억하는 건 배를 이용해서 인천으로 팔려 나갔다는 것이다. 당시 배는 무동력 돛단배로 돛의 개수는 2~3개 정도인 것으로 기억했다. 그 배들은 새우젓을 싣고 와 팔기도 했다. 소금을 싣고 가는 중선배는 소근진성 갯고랑과 구술자 본가 갯고랑에서 소금과 새우젓을 싣고 내렸다.

그는 언제부터 자염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고 자기가 아는 건 해방 후 4~5년 만드는 걸 기억했다. 자염을 '화렴'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6·25전쟁 직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가마솥은 철판 8개를 이어붙여 만들었다. 원래 고향은 신두리 동네인데 그쪽에서는 자염 만드는 걸 본 적이 없다. 이진환의 집은 자염을 구워 농토를 구입했다. 자염을 굽던 갯벌은 지금 간척사업으로 막혀 농토로 변했다.

그는 원북면 신두리에서 태어나서 5~8세 때 동해리로 이사를 왔다. 12살쯤 동해리 2구의 조재훈 선생에게 3년간 한문을 배웠다. 선대가 원북면에 낙향한 건 12대조이며 아버지 이수경은 농사와 자염을 생산했다. 아버지는 4형제 중 3남이었으며 그는 3남 2녀 중에서 막내였다.

군대는 22세에 가서 3년 6개월을 근무했다. 제대 후 서울에서 목수 일을 하며 13년간 거주하였다. 목수 일은 고향에서 배웠는데 서울에서 더 배워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소목과 대목을 모두 했는데 한옥 짓는 목수로 뽑혀 다녔다. 양산 통도사에서 대목으로 6개월 일한 적도 있었다. 62살 때였다. 그가 서울에서 목수 일을 할 때는 자기보다 잘하는 '오야지'는 별로 없었다고 했다. 양산 통도사에서 일할 때 사고를 당한 후 목수 일을 그만뒀다. 소목으로 잘 하는 건 옛날 완자문을 짜는 것이었다. 그는 가구도 잘 만들어 집안 가구는 다 손수 만들어 사용했다. 그는 큰자귀, 끌, 대패, 사쿠리, 바수키 등 생소한 목수 연장을 기억나는 대로 나열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중매로 31세에 가흥윤(당시 25세, 태안 인평리, 소주가씨)과 태안에서 결혼한 후 다시 서울에서 목수 일을 했으나 인건비를 많이 떼이면서 생활이 어려워 부인의 권유로 고향 동해리로 내려왔다. 큰집에서 1년간 생활하다가 현재의 집터에

직접 집을 지어 이사하게 되었다.

동해리에서는 소소한 목수일과 농사일을 병행했다. 또 낙지 잡아서 가계에 보탰다. 낙지잡이 기술은 작은 형님한테 배웠다. 낙지는 7~8월 가장 잘 잡히고 겨울엔 구멍 깊이 들어가 안 잡힌다. 그는 마을에서 낙지를 가장 잘 잡는 선수였다. 낙지 잡아 돈도 많이 벌었다. 낙지를 잡을 때는 '부릇(숨구멍)'을 보면 낙지 구멍 어느 쪽에 낙지가 있는지 알 수 있다. 낙지는 보통 한 번 나가면 80~100마리 정도 잡을 수 있으며 많이 잡을 때는 130여 마리까지 잡은 적이 있다. 낙지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잘 팔렸다. 낙지 장사가 갯벌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갔다. 낙지 잡는 낙지가래도 손수 만들어 썼다.

이진환의 집엔 가죽나무로 손수 만든 책상, 의자, 쌀뒤주 등이 있다. 40년 전에 만든 뒤주에는 '복'이라는 글자를 나무로 오려붙였다. 모든 가구는 소박하면서도 기품이 있었다. 그의 창고에는 옛날에 사용했던 연장을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는데 기회가 되면 문화원에 기증하겠다고 했다.

| **최창우**(1942년생) 태안군 남면 |



장구목 염벗

최창우는 어렸을 때 자염을 하는 것을 보았으며 집안에서도 소금을 구웠다. 최창우가 사는 남면 당암리엔 장구막과 갯골 염벗이 있었다. 염벗이 있던 곳은 장구목(장구막)으로 사리때 물이 많이 들어오면 물이 육지를 넘어가 잠깐 동안 마을이 섬으로 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인근의 느르섬 염벗은 상류의 개꼴(갯골)이라는 곳에 있었다. 염벗의 주인이 별도로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염벗의 가마솥도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염벗 주위에서 마을 사람들이 갈개조금을 여러 개 했다. 구덩이와 개흙을 말리는 건 개인이 소유했다. 구덩이는 가로세로 1.5m 높이 1m 정도 되었다. 갈개조금의 규모는 매우 작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갈개조금 웅덩이 4~5개 정도의 함수를 모아야 한 솥의 물을 만들었다. 여러 사람이 합동으로 소금물을 만들고 끓여서 소금을 나눈 것으로 기억한다. 소금의 생산량이 적어서 따로 팔거나 살림에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

가마솥은 정사각형으로 그리 크지 않았다. 높이는 20~30cm 정도로 생각했다. 소금을 만들러 갈 때는 '소금 구우러 간다' 또는 '갈개 매러 간다'고 했다. 땔감이 귀해서 건너편 안면도로 나무를 하러 다녔다. 바닷물이 빠지면 직접 건너다닐 수 있는 곳을 택하여 바닷물이 들어오기 전에 재빨리 나무짐을 지고 바다를 건너왔는데 무릎까지 물이 찰 때가 많았다. 이렇게 나무하는 걸 두고 '감 건너' 다닌다고 표현했다. 생산된 자염은 어떻게 판매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당암리의 자염 생산은 1950년도 6·25전쟁 이전에 사라졌다.

최창우는 경주최씨 31세손으로 태안 남면에 13대 때 낙향을 했다. 아버지 최봉래와 어머니 소주가씨 사이에 5남 3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외가는 비교적 넉넉한 집안으로 외삼촌(가창현)은 일제강점기 동두천의 의정부 경찰서장을 역임하였으나 부모님은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매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결혼은 1969년 본인 나이 29세에 한정화(당시 22세)를 만나서 슬하에 2남의 자녀를 두었다. 집이 가난하여 중매에 실패하여 객지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늦게 결혼을 하게 되었다.

마을에는 김씨, 최씨, 이씨, 가씨가 많이 살았으며 해방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풍장을 치며 돌아다니던 기억이 있다. 6살에 집안 아저씨에게 한문을 공부하고 남면초등학교에 다녔다. 6·25전쟁이 일어나서 2년 정도 쉬었다가 원당분교를 거쳐 삼성초등학교 1회 졸업생이 되었다. 졸업하고 바로 머슴 생활을 하다가 당진으로 나가게 되었다. 집안이 어려워 객지생활을 하였는데 17~18세경에 당진 과자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여 강원도의 쌍용시멘트공장에 다니기도 하였으며 강화도에서 새우젓 배(7명 승선)를 타면서 어업에 종사하였다. 당시 교동도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간첩이 많았다.



당암리 염벗터(최창우 증언 1941년생)

어업을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강원도 인제의 원통에서 포병으로 근무를 하였다. 제대 후에 고향에 내려와 결혼을 하고 다시 어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현재 작은 배를 2척 부리고 있으며 주로 삐뿔고둥, 대하를 잡는다. 배를 타고 외연도 인근까지 나가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인근 천수만을 벗어나지 않고 어업을 하고 있다.

그는 통훈대부 '김연순'의 묘소와 당집의 이전에 관한 이야기와 현대그룹의 천수만 간척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는 간척사업 이전에 현재 천수만 B갯벌에서 김양식을 했었다. 천수만이 간척사업으로 막히기 전에 해리질을 많이 다녔다. 어려서 적돌만으로 해리질을 갈 때는 '등피'를 들고 다녔다. 등피는 철사를 얽어 바구니를 만들고 안에 광솔(관솔)을 넣는 자루가 달린 횃불이다. 철사 안의 광솔이 타는 대로 윗부분에 광솔(관솔)을 보충하여 불을 밝혀 꽃게를 많이 잡았다.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밤에 해리질을 갔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집에 돌아가자고 했다. 최창우가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도깨비가 앞에 가면 해리질이 안 된다'고 했다. 도깨비가 해리질하는 사람 앞에 지나가면 고기들이 다 도망간다는 것이었다.

그는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당집을 잘 보살피고 당제를 올리는데 당집의 터가 김연순의 소유여서 묘소와 관련되어 이전하게 되었다. 당집을 옮긴 뒤에 어느 날 밤에 당집이 있었던 당집터를 지나는데 구당터에서 나온 도깨비에 홀려 산으로 올라간 기억이 있다.

| **이재필**(1935년생) 태안군 이원면 |



옹동벗

이재필은 직접 자염은 굽지 않았지만 여덟 살 무렵 보고 들은 것이 생각난다. 아버지가 환동부자 의관의 마름으로 있을 때 새벗을 관리하면서 동행하고 심부름하며 본 것이었다. 그가 사는 인근 동네 갯벌엔 많은 염벗이 있었다. 염벗의 이름은 아래벗, 현승벗, 윗벗, 늙은벗, 가느실벗, 쌍벗, 원안벗, 벗들벗, 벗재박벗, 새벗, 옹동벗이었다. 벗들벗은 장병석, 벗재박벗은 조인호, 옹동벗은 조철호의 소유로 기억했다. 그 외 이름을 모르는 벗도 많았는데 그런 벗은 옹동이 같이 생겼다 하여 모두 옹동벗이라 불렀다. 벗의 이름

은 대개 갯벌 근처 지명에서 따왔다. 옹동벗의 형태는 마금리나 모항리의 염벗과 모습이 달랐다.

옹동벗은 2m되는 연목을 둥글게 박고 가운데에 네 개의 기둥을 세운 다음 기둥에 서까래를 거치듯 연목을 걸고 이엉을 둘렀다. 염벗 중앙 가운데는 하늘이 보이게 텄다. 바닥에 가마솥을 걸었는데 굴뚝은 만들지 않았다. 가마솥은 무쇠 철판을 용접해서 만든 것으로 매우 컸다. 옹동벗을 울타리 형식이 아니라 집처럼 만든 건 끓여 건진 소금섬을 쌓아놓기 위해서였다. 옹동벗은 멀리서 보면 옹동이 같았다.

염벗 주변에는 많은 버굿이 있었다. 버굿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찰흙으로 맥질하여 소금물이 새지 않도록 만든 것이다. 소금물을 저장했다가 가마솥에 퍼날랐다. 비가 오면 뜸으로 입구를 덮었다. 염벗 하나에 통자락이 많아 버굿에 저장했다가 간쟁이가 정해주는 순서에 따라 소금물을 끓였다.

통자락에서 소금물을 만드는 과정은 태안문화원에서 재현, 복원한 것과 비슷했다. 염한이 간쟁이 등 일꾼의 호칭과 도구도 같았다. 소를 동원하여 개흙을 말리는 과정도 비슷했다. 그는 새벗에 대해서만 자세히 구술했는데 그건 아버지가 관리한 염벗이기 때문이었다. 태안의 환동부자가 원북면과 이원면에 염벗을 많이 만들어 소금을 구운 건 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 땔감 구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환동부자는 자염으로 부를 축적했다. 이재필은 어려서 한 가마솥에서 소금이 얼마 생산하는지 자염의 분배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다만 소금 한 섬에 쌀 한 말 값 정도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일꾼 하루 품삯은 벼 5되였고 소의 품값은 써레질하는 사람 품까지 합쳐 벼 20되 한 말이었다. 이원면의 염벗은 차이가 있지만 6·25 전후해서 사라졌다. 이재필의 아버지가 관리하던 새벗도 마찬가지였다. 그 후 염벗을 관리하던 아버지는 환동부자 마름 일을 그만뒀다. 이원면에서 가장 늦게까지 염벗을 한 사람은 포지리 사는 손충호인데 6·25 전쟁 이후에도 몇 년 동안 소금을 만들었다. 그는 소금을 구워 동생들을 공부시켜 변호사로 만들었다.

이재필은 당진군 송악면에서 태어나 3세에 아버지를 따라 태안군 이원면에 이주하였

다. 아버지는 2남 2녀 중 장남으로 당진에서 1897년에 양반가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태안으로 이주해 80세에 별세하였다. 아버지는 한학이 깊고 문장이 좋았다. 당진에서 하던 금광을 처분하고 1930년대 말에 태안으로 이주하여 태안읍 환동 의관(원려당 이희열 차남 기훈으로 추정)의 마름으로 이원면의 농지와 염벗을 관리하게 됐다.

이재필은 4남 2녀 중 셋째로 21세에 광주안씨 안명수(당시 21세)와 결혼하여 슬하에 3남 1녀의 자녀를 두었다. 아버지는 이원면에 이주할 당시 기본 재산이 있어서 부유한 가정에 속해 있었으며 의관의 마름으로 10여 년 동안 일을 봐줬다.

어머니는 그의 어린시절(8세)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재혼하여 1남 1녀를 더 두었다. 아버지가 살림을 따로 차리면서 그는 형의 보살핌을 받다가 이원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외삼촌댁에서 머물면서 동양중학교(6년제)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화공과에 입학하였다가 군대에 입대하고 제대 후 가정형편상 복학하지 못했다.

해방 때 기억으로 광복이 된 이후 마을의 소작인들이 집에 찾아와 지주에게 보낼 곡식을 내어 놓으라는 시위를 벌여서 500~1,000석 정도를 풀었다고 한다. 그 덕택으로 아버지와 가족이 인공치하에서도 큰 피해를 보지 않았다.

1960년에 동양증권에 입사하여 당시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자 따라다니며 선거운동을 했다. 그가 직접 유세도 했는데 태안 선거 유세에 어살을 비유하면서 '물고기가 살에 들지 않으면 살을 옮겨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선거운동을 도운 후보가 낙선한 뒤 고향으로 낙향했다. 당시 재건국민운동(1961)에 참여하였다가 1962년에 정식 공무원이 되었다.

서울에서 중학교 다니던 시절에 전쟁이 나서 서대문 형무소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강물이 얕은 쪽으로 건너 12일 만에 태안의 고향에 내려왔다. 당시 서울에서 국군이 후퇴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국군을 인민군으로 착각하고 인민군 만세를 외치다 군인에게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6·25전쟁 당시 우익 진영이 피난가면서 희생시킨 사람은 동네에서 4명이었으며 포지리 전체에서는 6명이 죽음을 당했다.

태안에 내려와서 인민군 치하가 되면서 집안에 보관하던 교지, 호패, 서책 등을 모두

불태웠으며 아버지와 피난을 가기 위해 청산리 포구로 갔으나 배가 뜨지 못하게 되어 아버지는 청산리에 숨어 지내고 본인은 형과 함께 집으로 왔다. 인민군 치하에 이원 만대에 '복구대' 파는데 동원되어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반공호를 팠다. 처음에는 할당량이 10m였으나 나중에는 20m로 늘리고 급박한 상황에 이르자 낮에도 사역을 시켰다. 낮에 사역을 하는 동안 만대 앞 경기도 섬 앞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경비함이 쏜살같이 달려와 포격을 해서 급박하게 도망을 하였는데, 사격하는 사람들이 민간인임을 알아차리고 포탄을 다른 방향(가로림만 바다)으로 쏴서 경고만 했다.

인민군 치하에서 형은 면사무소에서 임시로 일을 봐서 징병되지 않았으며 그는 한 살이 어려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다시 수복이 되면서 형은 인공치하에서 면사무소 업무를 보고 아버지에게만 정보를 줘 피난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지 않아 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마을 골짜기에서 희생되었다. 그 사실을 듣고 본인이 밤에 직접 산골짜기에서 형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형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였다. 당시 마을에서는 모스크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었으며 좌익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우익에게 끌려가 희생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는 면장, 읍장을 거쳐 공직에서 은퇴하여 현재 향토사 연구를 하고 있다.

| **조익호**(1937년생) 태안군 원북면 |



개건너 염벗

조익호는 1950년도 이전까지 이원에 거주할 때 자염을 만드는 걸 자주 보았다. 아버지가 소금 굽는 땔나무를 제공하고 소금으로 나무 값을 받았다. 소금 한 가마솥을 땔 경우 20짐의 나무가 필요했다. 아버지는 20짐의 나무를 대고 생산된 소금의 절반을 나누어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가마솥의 주인은 조석호(일가친척)였으며 직접 자염을 구웠다. 당시 조석호는 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땔감의 조달이 용이했다. 염벗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개건너 마을에 있다고 해서 개건너염벗이라 불렀다. 염벗 가마솥 하나에는 갈통이 5개 정도 딸려 있었으며 염벗 주변에 소금물을 담아 저장하던 웅덩이가 있었다. 통자락의 물을 풀 때는 타래박을 사용했는데 타래박은 위에 네모난 구멍을 뚫어서 물이 최대한 많이 담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갯벌을 말리는 것은 통자락 방식을 이용했으며 소금물을 만들기 위해 개흙을 퍼낼 때는 사람들이 일곱모 가래질을 했다. 소금은 배에 실려서 인천에다 팔았는데 조석호는 소금을 팔아서 부자가 되었다. 소금장수에 대한 말 중에 '잔디밭에 소금 한 말을 뿌리고 다시 주워 담아 소금 한 말을 만들 수 있어야 소금장수라'고 한 말이 기억난다. 염벗 주변 바다에서는 갈치, 꽃게, 잡어가 많이 잡혔다.

조익호는 1937년 원북면 이곡1리 고랑축 마을에서 3남 4녀 중에 5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일제강점기 형(조의호, 전 태안향교 전교)이 일본군으로 징집되어 5년간 군대 생활을 하고 돌아왔다. 태평양전쟁당시 남양군도에서 5개 섬을 이동하면서 폭격을 피해서 살아남아 해방 후 귀향하게 되었는데 군대에서 월급을 한국으로 부쳤다고 하는데 중간에 사라져 집으로 돈이 한 푼도 오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엔 쌀을 수탈당하고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 대두박으로 연명했다. 또 부역으로 마을 사람들이 할당받아 채취한 관솔을 둥근 통에 담아서 불을 피워 열로 송진을 녹여서 송진 덩어리를 모아서 일본에 보냈다. 아버지는 당시 반장 일을 보고 있어서 마을에서 모아진 송진을 수거해서 면사무소에 갖다줬다.

조익호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이동식 발동기를 구입해서 방아를 찧었는데 큰아들이 일본에 징집되고 난 뒤 지서에서 발동기를 압수하려 하자 일본군에 간 아들이 사준 것이라고 설득해서 정미기를 빼앗기지 않았다. 염벗을 하던 주변 바다에서는 갈치, 꽃게, 잡어 등을 사둘질로 잡았으며, 바다에 살을 매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아버지가 도왔다. 살의 재료는 대나무와 싸리를 활용했는데 다양한 생선이 잡혔다.

형 조의호는 군대에서 돌아와 정미기를 운영하였으며, 면서기와 자위대장을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지독하게 군사훈련을 강하게 시켰다. 그의 아버지는 1950년에 부종으로

돌아가셨다. 어려서 서당에 다녔으며 이원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다. 광복 당시 마을 사람들이 풍장을 치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다. 조익호의 나이 14세에 가족들이 누님이 거주하는 부석면 송시리로 이주하였다.

6·25전쟁 때 인공치하에서도 형은 목숨을 보존했다. 전쟁이 일어나고 형은 부석에서 인공치하에 지서장을 하면서 천주교인들을 풀어주고 보호를 한 덕분에 국군이 수복한 이후에도 보복을 당하지 않고 교도소에 3년간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 1950년부터 3년 동안은 큰 가뭄이 들어 농사가 안되어서 크게 고생하였다.

형이 계시지 않는 동안 그는 소년가장으로 농사와 가족을 돌보다가 군대 영장이 나오지 않아 24세에 군에 지원했다. 그해 동갑인 윤태여와 결혼을 했다. 군대 생활은 용산 305대대 건설공단에 배치되어 경기도 수색에 2년간 파견되었다가 제대하였다.

24세에 입대하여 3년간 군 생활을 한 후 제대했는데 바로 결핵에 걸려서 7년간 공주 갑사에서 요양하였으며 국립중앙병원에서 수술했다. 절에 있는 동안 어떤 여인의 도움으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뒤에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려 돈을 들고 갔으나 그는 오히려 아내에게 주라고 동일한 금액을 줘서 받아왔다.

태안으로 돌아와 40대에 만물수퍼를 운영하다가 현대식 슈퍼마켓이 들어오자 삼보수퍼로 명칭을 바꾸어 운영하면서 사업이 번창했다. '장사는 사람의 정성으로 하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저녁 12시까지 영업을 했다.

그는 이곡리 전설로 '양산이와 시영산'의 이야기를 했으며, 시영산은 산 위에 가난하게 살고 영산이는 산 아래 부자로 살았던 이야기, 상여에 대한 유래, 제비가 보호받는 것, 상여소리, 사철나무와 송죽, 무지개, 청실홍실 등의 유래에 대한 전설을 제보하였다. 전설에 등장하는 어머니가 돌부처가 되어 그곳에 모시다가 매봉산 제비장 밑에 돌무덤을 세워서 놓았으나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한다.

| **이준호**(1943년생) 태안군 소원면 |



섬벗

이준호는 자염을 직접 만들지 않았지만 어려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드는 걸 보면서 염벗에서 놀았다. 그의 아버지는 이계선, 어머니는 안기리 궁틀 전주이씨였다. 그의 아버지가 염벗을 한 곳은 소원면 진미리로 세 개의 염벗이 있었다. 그 중 자염을 만드는데 가장 조건이 좋은 섬벗이 이준호 아버지 소유였다. 염벗과 가마솥은 다른 지역과 비슷했으나 이곳의 통자락 형태는 달랐다. 이곳은 간통의 윗부분을 덮지 않았는데 이유는 사리가 되어도 윗부분까지 바닷물이 올라오지 않는 높은 지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진미리의 염벗은 조금 때 갯벌에서 개흙을 말리는데 8~9일 정도까지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았다. 자염은 못자리를 할 즈음에 시작했다.

진미리 땅벗은 한영수의 아버지 한범석이 소유해 일꾼들과 직접 소금을 만들었다. 한범석은 동생과 1800년대 말부터 염전을 운영하였는데 둘째 동생은 6·25전쟁 때 사망하였다. 한범석은 한광수, 한영수(전 국회원), 한창수(둘째, 양자로 감) 3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한광수의 아들 한상만은 현재 소원면 영전리 349번지에서 살고 있다. 또 하나의 염벗은 누가 운영했는지 모른다. 같은 동네 김재운 형제가 이준호 아버지 섬벗의 가마솥에서 소금을 끓였다. 이 이야기는 김재운의 말과 다르지 않다.

염벗 하나에는 통자락의 수가 3~4개 정도였으며 써레를 이용해서 갯벌을 갈았다. 자염은 통조금 방식이었으며 조금 때 8~9일 동안 개흙을 말리는데 소로 써레질을 하고 '끄생이(덩이판)' 위에 돌을 얹어서 흙덩어리를 부수었다. 한 웅덩이의 물은 가마솥 2개 정도의 분량으로 생각했다. 그의 할아버지가 소를 끌면서 '끄시렁, 끄서렁~~' 하며 소리를 하던 게 기억이 난다고 했다. 그때 영전리에는 3개의 염벗이 있었으며 소는 2마리를 키웠다.

소원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과 염벗을 들러 망둥어와 깍뎅이를 잡아서 구워 먹던 생각이 난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도 깍뎅이를 잡으러 염벗 근처 갯벌로 갔다. 그 갯벌에는 깍뎅이 굴이 많았다. 소금을 굽는 땔감은 배를 타고 염벗 건너 산지골 심봉산에서 실어왔다. 이준호의 기억으로는 본인이 고등학교 1~2학년 때까지 염전을 하였다고 한다. 그는 1958년도까지 자염을 만드는 걸 봤다. 이준호는 자염의 생산량과 값은 기억하지 못했고 태안에서 사람들이 달구지를 끌고 소금을 사러 왔다고 기억했다. 대부분 소금은 현장에서 판매된 걸로 알고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는 자염 만드는 것을 신성시하였으며 고사는 부정든다고 여자는 참석 못 하게 했고 초저녁에 지냈다. 자염은 간척사업으로 생긴 천일염과 경쟁하였는데 맛에서는 자염이 우월했다. 개흙을 써래질하는 데는 암소보다 힘 센 황소를 부렸는데 얌전하던 황소가 갑자기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황소와 식혜는 언제 변할지 모른

다'는 말이 있었다. 또 황소와 암소의 발정기가 오뉴월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돌변하여 난동을 부리는 걸 두고 '오뉴월 황소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그래서 통자락 주변의 써레질을 하기 위해 위험한 황소보다 암소를 주로 키웠다.

이준호 집안이 태안 지역에 입향한 것은 300년이 넘었다. 11대 조부는 조선시대 장군이었는데 내란과 연관되어 가족들을 한강에서 배를 태워 임진강을 거쳐 서해로 피난시키던 중 파도리 인근에서 배가 좌초되어 정착하게 되었다. 그의 집안은 영전에서 잘사는 편이었다. 자염은 할아버지와 차남인 아버지가 만들고 큰아버지는 이장 일과 담배에 관련된 외부사업을 했다. 염전의 일부는 세를 주고 운영을 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소원면의 김재운(1925년생)이었다. 본인은 집안의 장남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농사일을 시키지 않았으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당을 2년간 다닌 뒤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이후 홍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였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2년을 수료하고 자퇴하였다.

6·25전쟁은 초등학교 1학년에 겪었으며 피난을 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삼촌이 면서기를 하고 있어서 공산치하에서 양대리로 끌려가 학살 위기를 맞았으나 같이 있던 면장이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바로 물에 뛰어내리자고 해서 수영을 못함에도 총소리가 나자 바다에 뛰어들었다. 물에 떠밀려 어느 섬에서 깨어나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집에 돌아왔다. 6·25전쟁 당시 마을에 삼 다발과 물을 넣은 뒤 흙을 덮고 불 때서 삼을 삶던 삼굿이 많았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을 때려죽여 묻어 버렸다.

그는 26세까지 고향인 영전에서 살았으며 27세에 25세인 이정래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어 1남 1녀를 두었다. 군대 생활은 영어가 가능해서 미군부대 카츄사로 1964년부터 1966년까지 32개월을 근무하였다. 처음엔 춘천으로 배정되었다가 충남 성환에서 근무를 하였다. 당시 미군들도 문맹자가 많아서 카츄사가 대신 편지를 써주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인 카츄사가 미군들의 물건을 훔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을 때 영전리 마을에 미군 헬기가 논에 불시착한 경우가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비행기의 내부 부품을 모조리 떼어가기도 했다.

| **손종석**(1945년생) 태안군 태안읍 |



염장 인근의 자염

손종석은 큰아버지 손감동으로부터 염장 부근 안쪽에서 자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염장 인근은 모래가 많이 섞인 갯벌이었고 조금 때 6~7일 동안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 자염을 만들 수 있는 장소였다. 도내리는 가로림만 갯벌을 낀 마을이지만 땔감이 없어 자염을 굽지 않았다. 도내리는 땔감이 부족하여 밥을 짓고 방구들을 덥히는 땔감으로 바닷가 갯잔디를 베어다가 불을 지필 정도였다. 자염을 구워서 파는 게 아니라 식용으로 굽던 염장 부근 염벗도 1970년 간척사업으로 농토로 변했다. '염장'이라는 지

명의 뜻을 자세히 몰랐는데 아마 소금과 관련된 지명인 것으로 그는 이해하고 있다.

손종석은 평생 도내리에 거주한 사람이다. 태안초등학교 어은분교를 졸업하고 농업과 어업에 종사했는데 주로 김, 굴, 바지락, 낙지 등을 잡았다. 아버지는 그의 나이 9살에 돌아가셨다. 그는 농사를 지으며 갯벌에서 갯것을 하여 농사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 갯벌에 지주식 김양식도 했다. 김양식은 대발을 엮어 사용하다가 나중에는 그물을 사용했다. 지주식 김양식에 박는 김말장은 한 떼에 20개고 높이는 3미터 정도였다. 김말장은 4~5미터 간격으로 9월~10월 사이에 갯벌에 박았다.

1960~1970년도 사이에 김 가격은 1톳(100장)에 5,000원~6,000원이었으며 소매로는 10,000원까지 주고 사 가는 사람이 있었다. 지주식 김양식 10떼를 설치하여 김을 수확하면 쌀 30~40가마를 생산하는 고소득이었다. 농사 소득보다 월등히 높아 동네 사람들은 김양식을 많이 했다. 김은 11월 말부터 시작해서 다음해 2월까지 생산되었다. 타 지역과 달리 가로림만 지역은 수심이 얕고 바닷물이 내륙 깊이까지 들어오므로 3월에 수온이 상승하면서 김을 생산할 수 없는 조건이다. 타 지역보다 1개월 정도 빨리 김양식이 종료되었다. 김말장(김을 자연 건조하는 틀)은 200여 개 있어야 김을 건조했다. 김을 뜬 김발을 꽂을 수 있도록 만든 문틀 같은 나무틀을 '호사꼬'라 불렀다. 호사꼬는 김을 뜬 김발을 꽂기 좋게 못을 밖으로 박았다. 김발을 꽂은 호사꼬는 햇볕과 바람의 방향을 따라 이동시켰다. 당시에도 자동화기계가 있어서 김을 쪼는(곱게 까순다) 기계를 사용했다. 김발은 사기도 했지만 논가나 개울에서 젓가락같이 일직선으로 자라는 '자우락'이라는 풀을 베어 말렸다가 김발을 쳤다. 자우락으로 만든 김발에 김을 떠서 말리면 잘 마르고 찢어지지 않고 떼어낼 수 있었다.

손종석은 김양식으로 논 15마지기를 마련했다. 바다에서 채취한 김은 부게에 지고 담아 집으로 가져왔다. 사리 때는 물때가 짧아 하루에 한 부게를 가지고 나왔으며 1부게에서 10~15톳(당시 쌀1가마니의 가격)의 김이 생산되었다. 김양식을 할 때 김말장을 박고 대나무 발을 걸을 때는 경운기를 이용하여 갯벌로 옮겼다. 마을에 남자가 있는 집은 대부분 김 농사를 했는데 도내리에서는 20여 호가 김 농사를 했다.

간척사업 이후 김 농사를 접었다. 간척사업은 수원 사람들이 했다. 김 농사를 못하는 대신 보상으로 간척농지 1,900평을 불하받아서 경작을 했다. 간척사업으로 김양식을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굴과 바지락 종패 등을 채취하면서 바다 일을 했다. 종패는 하루에 100~150킬로그램 채취가 가능하고 2018년도 기준으로 1킬로그램에 1,350원을 받았다. 굴, 바지락, 낙지 등은 간척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감태는 안 했으며 본인은 낙지를 주로 잡았는데 평균 30~50마리를 잡고 여름에는 100마리 정도 잡을 수 있었다. 낙지를 잡으면 상인이 수거하러 왔다. 현재 마을의 어촌계 회원은 60여 명이며 40여 명 정도가 실제로 바다 일에 종사하고 있다. 현재 도내리에서 어업권을 얻기 위해서는 60살 이하여야 하고 3년 이상 도내리에서 거주하고 수협 출자와 어촌계 가입비 300~400만 원 정도를 내야 가능하다. 그는 '낙지 가래'와 양식장에서 김을 뜯어 지고 와서 민물에 빨던 '부게'를 문화원에 기증했다.

| **최의수**(1938년생) 태안군 태안읍 |



기억골 염장

최의수는 일제강점기에 자염 만드는 걸 2년 정도 봤으며 해방 후에는 자염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해방 이후에는 소금을 다른 곳에서 구입해서 먹었다. 어은리는 당시 나무가 매우 귀해서 대단위로 소금을 구울 형편이 아니었다. 특이한 점은 자염을 끓이는 솥은 지게에 얹어 필요한 장소에 이동해서 사용하고 평상시에는 마을에서 그 솥에 삼을 삶았다. 솥의 규모가 작고 이동용이기 때문에 별도로 염벗을 만들지 않았다. 솥은 땅을 파고 그 위에 임시 적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염을 하던 곳의 지명은 염장(기억골이라고도 함)으로 그곳은 7~8가구 정도가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었다. 어은리는 은동이라고도 불렸다.

함수를 얻는 방식은 전형적인 통자락 방식을 사용했으며 다만 마금리 방식과 다른 점은 통자락을 봉분 형태로 만든 뒤 윗부분이 파도에 쓸리지 않도록 봉분을 이엉으로 한 바퀴 둘러서 보호한 점이었다.

자염을 만들던 갯벌은 지금은 간척사업으로 모두 밭과 논이 되었지만 그 위치를 기억하고 있다. 소금가마솥이 있던 자리는 태안군 태안읍 어은리 492-56번지이고, 통자락을 만든 갯벌 위치는 태안군 태안읍 어은리 873-8, 태안읍 어은리 870-5번지 인근의 논이다. 아버지는 남의 솥을 빌려서 집에서 먹을 양만큼 자염을 생산했는데, 당시 소금을 끓일 때 점심을 가져다주는 심부름을 하면서 본 기억은 2~3명이 같이 일을 했으며 소가 한 마리 동원되었다.

최의수는 증조부가 보령에서 어은리로 이주하여 태안으로 오게 됐다. 아버지 최호연과 어머니 구씨 사이에서 3남 1녀 중 2남으로 태어났다. 형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형수와 동생 조카와 부모님까지 15~16명의 대가족을 보살피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가 65세 때 91세로 사망하셨으며, 그는 논 20마지기와 밭 5,000여 평으로 대가족의 생계를 이끌었다. 당시에 농토가 많은 편이었으나 동생 여의고, 고모 여의고, 사촌 보살피고, 과부인 작은어머니 시집보내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살림살이가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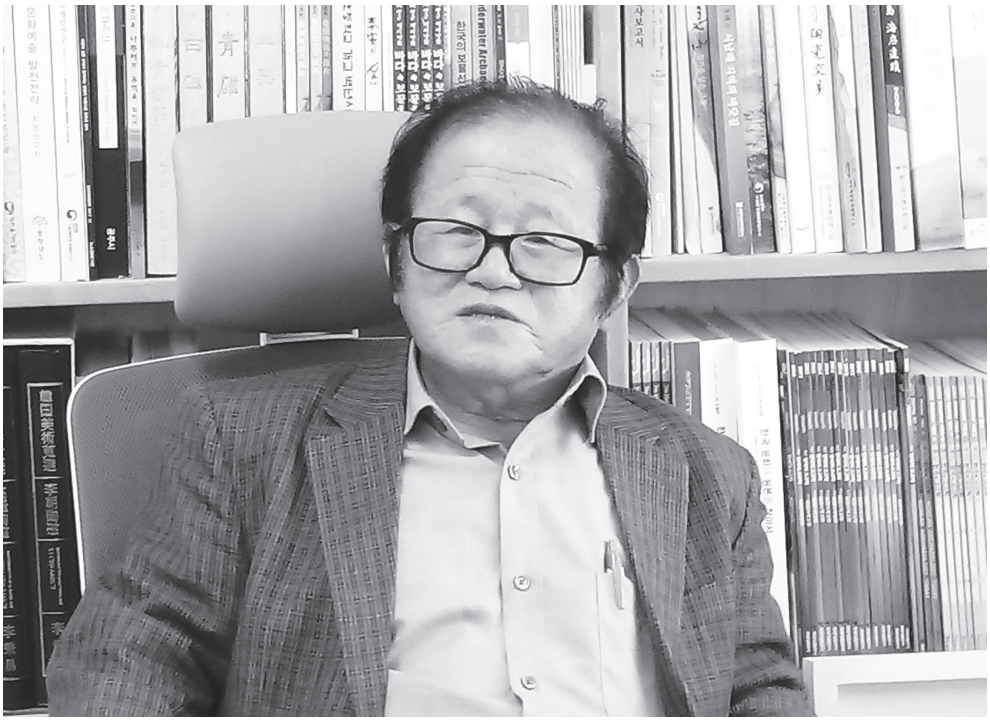
군대는 21살에 기갑사단 보병으로 파주에서 36개월을 근무했는데 당시 간첩사건 등으로 훈련의 강도가 매우 높았고 식사가 부실해서 배고프고 매우 어렵게 군대 생활을 했다.

윗집에 김면제(김해김씨)가 살았는데 아들인 김동준은 초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으로 어은리의 천석꾼이었다. 김면제는 인민군 사무실에 끌려가서 다음날 희생되었다. 손자 김인환은 할아버지 김면제가 '쌍섬' 좌측(청산리 방향) 섬 뒷편으로 커다란 바위에 금석문 글씨를 각인하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글씨가 잘 남아 있다.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어 바지락 종패를 채취하면 1일 1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으나 요즘은 힘이 들어서 못 나가고 있다. 다른 사람은 보통 어촌계에서 1년 동안 1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다. 현재 어은2리 노인회장을 맡고 있으며 1년에 경로당 운영비로 3백8십만 원의 운영지원금과 물품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최의수는 남면 '가바구리(바구니)'와 '최조랭이(조리)' 이야기를 했다. 태안 사람들은 바구니와 조리를 태안장에서 사다가 쓰는데 남면의 가 씨가 만든 바구니와 최 씨가 만드는 조리가 품질이 매우 좋아서 생긴 말이라는 것이다. 바구니와 조리는 시누대를 쪼개 만드는데 남면에 시누대가 많았다.

| **한원석**(1937년생) 태안군 이원면 |



새벗

한원석은 직접 자염 생산을 안 했지만, 12살 무렵 부친을 따라다니며 그 광경을 목격했다. 관리에는 새벗, 면벗, 통개벗 3곳이 있었다. 그중 새벗의 소유주는 태안의 환동부자 소유였다. 새벗은 소유주가 직접 경영했다. 환동부자의 마름 일을 봤던 그의 아버지 한창교는 소를 빌려주고 땔감 관리 등을 거들었다.

새벗의 구조는 이원면 염벗들과 비슷했다. 2m 되는 연목을 둥글게 박고 가운데에 네 개의 기둥을 세운 다음 기둥에 서까래를 걸치듯 연목을 걸고 이엉을 둘렀다. 염벗 중앙

가운데는 하늘이 보이게 텄다. 가마솥 놓을 자리를 파고 바닥에 평평하게 놨다. 가마솥의 크기는 3m×2m 크기에 높이 40cm 철판이었다. 굴뚝은 만들지 않았다. 염벗 주위엔 여러 개의 함수를 저장하는 구덩이(버굿)를 만들어 갈통(통자락)에서 만든 소금물을 저장했다. 버굿은 땅바닥을 1m 정도 파고 저장한 소금물이 새어나가지 않게 찰 개흙으로 맥질했다. 염벗은 다른 곳과 같이 사리 때 바닷물이 닿지 않는 곳에 세웠다.

조금 동안 개흙을 말려 소금물을 만드는 원리는 같으나 한원식이 본 새벗은 방식과 명칭이 달랐다. 개흙을 말리는 과정을 '갈 들인다' '갈 젓는다'(조금 들인다)라고 하고, 소금물을 모으는 곳을 갈통(간통)이라고 했다. 갈통의 구조도 태안문화원이 재현 복원한 형식과 약간 달랐다. 새벗 방식은 갈통을 세울 갯벌바닥을 1.5m 정도로 밑은 넓고 위는 좁게 둥근 형태로 파고 무너지지 않게 촘촘히 말뚝을 박았다. 말뚝은 갯벌바닥에서 60cm 정도 올라오게 박았다. 갈통이 완성되면 입구를 방석으로 덥고 조금 동안 말린 개흙을 봉분처럼 모았다. 사리가 지나면 갈통 덮개를 열어 소금물을 저장고로 옮기고 끓여서 소금을 건지는 건 같았다.

그는 새벗에 갈통이 3~4개 있었다고 했다. 갈통에서 함수가 몇 물지게 나오는지, 한 가마솥에서 소금이 얼마 나오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 소금 한 섬이 쌀 두 섬과 같다고 했는데 이도 불분명했다. 소금 한 섬은 150근(90kg)이다. 새벗은 벗주가 직영해서 일꾼 품삯을 소금이나 쌀로 계산한 것으로 기억했다. 생산한 소금은 중선배에 실려 예산의 선장으로 팔려 나갔다. 삽교호가 갯고랑이던 시절이다. 새벗은 1950년에 폐쇄했고 면벗과 통개벗은 1953년까지 운영했다고 한다.

마을에선 자염이라 부르지 않고 소금이라 했으며 더러 화렴이라고도 했다. 그는 '갈들일' 때(흙을 부수는 덩이질)는 소가 알아서 갯벌을 돌기 때문에 애들은 널빤지(덩이판) 위에 타고 놀았는데 일꾼들이 주막에서 노름하다 염벗주에게 혼나는 걸 봤고, 비 오면 말린 개흙이 젖을까 밤에 등불을 들고 남녀노소 흙을 모았다고 기억했다. 재미있는 얘기로는 조상준이란 사람이 소금을 한 배 싣고 예산 선장으로 팔러 갔다 주막 여자들에게 홀려 빈털터리로 돌아온 걸 두고 '조상준이 꼴 날라'라고 했는데 지금도 마을 사람

들이 그 말을 한다.

한원석의 본관은 청주한씨로 이원면에 정착한 지 5대, 150년쯤 된다. 아버지는 한창교, 어머니는 광산김씨 김성예다. 1937년 태어난 그는 3남 1녀 중 막내였다. 아버지는 외아들이었다. 가계는 마을 상위 15% 정도로 논 20마지기를 소유했고 머슴을 둔 살림이었다. 아버지는 서당 훈장이기도 했다. 그는 한문을 6년 배우고 이북공민학교를 졸업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는데 환동부자 마름, 점방, 재봉틀 집을 차려 재산을 늘렸다. 해방 전 아버지는 배를 타고 황해도 백천을 출입했는데 재봉틀 2대와 여자 재봉사를 데려와 옷을 지어 크게 성공했다.

한원석은 8살 무렵 일본 순사와 이장이 공출 벼와 보리, 놋쇠양푼 등을 수탈하던 일을 생생히 기억했다. 주민들이 곡식을 뺏기지 않으려 짚더미에 감춘 걸 이장이 고자질해 빼앗고 말 안 듣는 사람은 부역을 시켰다. 이장은 공출한 물건을 자기가 슬쩍 빼내기도 했다. 또 관솔을 따다 기름내는 걸 시켰는데 할당을 못 채우면 지서로 불러 '소좇매'로 때렸다. 소좇매는 소 자지처럼 긴 채찍을 뜻했고 지서에 불려가 그 매를 안 맞은 사람은 없었다. 그 당시 이원면엔 일본인이 순사 1명, 선생 2명이 있었다. 부인과 애들도 있었다. 이원면에서 징용에 끌려간 사람은 40~50명쯤 됐는데 2~3명은 못 돌아왔다. 돈 벌게 해준다고 데려가더니 죽도록 고생만 시키고 겨우 여비만 받았다고 한다. 징용 선발은 순사가 '너 가!' 하면 꼼짝없이 갔는데 이장이 손가락질해서 간 사람도 있었다.

한원석의 나이 12살에 해방을 맞았는데 그때 마을의 지식인 김동은, 손세남이 창호지에 태극기를 그리고 '건국에 힘쓰자!'라고 쓴 뒤 수십 장을 나눠줘 풍장을 치면서 이원면소재지로 나간 적이 있었다. 그들은 사회주의자였다. 6·25전쟁이 나자 경찰이 이원면에서 좌익 30여 명을 서산 양대리 갯고랑에서 죽였다. 김동은, 손세남도 포함됐다.

6·25전쟁 당시 한원석의 형은 22살이었다. 태안중학교 1회생으로 서울 국립체신학교를 거쳐 서울대 사범대를 다녔는데 전쟁이 나자 고향으로 왔다가 8월에 의용군으로 차출됐다가 40일 만에 돌아왔다. 9·28 수복 무렵이었다. 강원도 인제에 있었는데 인민군이 돌아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의용군에 끌려간 15명 중에 5명만 살아왔다. 좌익이 물

러나자 우익 치안대장 김○○이 인공치하에서 부역한 사람들 23명을 자염 굽던 옹동벗에 끌어다 죽였다. 그때 형도 죽었다. 1952년 10월 22일이었다. 형이 죽었다는 소문에 아버지가 옹동벗에 가서 형의 시체를 확인해 보라고 하여 누님과 가 보니 23명이 무 쌓아 놓은 것처럼 뒤엉켜 있었는데 몽둥이로 맞아 머리통이 깨져 골수와 피가 흘러 누군지 모를 정도였다. 누님이 치마말기를 뜯어 형의 다리에 묶어 표시했고 아버지가 사람들 서넛 불러 장사 지냈다고 한다. 한원석은 15살, 부친은 38살, 조부는 60살 때였다.

그는 방위로 병역을 마치고 1960년 23살에 인천 살던 손순덕과 결혼하여 2남 2녀를 뒀다. 1973년 새마을 지도자와 1974년부터 13년 동안 이장을 했다. 그 뒤 어촌계를 조직하여 계장을 4년간 했다. 이원면 최초 농번기 마을 탁아소 설치, 마을공동 모내기, 주민들이 흙벽돌을 찍어 마을회관 건립하는 등 상처 난 마을을 화합으로 이끌었다.

특히 볏가릿대 놀이를 부활시켜 마을 공동체 문화를 만들었다. 어려서 본 볏가릿대 놀이가 6·25 전쟁 이후 단절된 게 안타까워 동네 어른들의 고증과 참여 속에 원형을 살려 전국 최우수 마을로 선정됐다.

| **박병관**(1933년생) 태안군 안면읍 |



화렴

박병관이 어린시절에 보았던, 자염을 굽던 염벗은 병술만 인근에 있었다. 그때는 자염을 화렴이라고 불렀으며 병술만 갯벌에는 염벗이 3~4개 있었다. 소금물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금 때 개흙이 섞인 모래밭에 좁박(자루 달린 바가지)으로 바닷물을 끼얹었다. 바닷물을 끼얹은 모래가 마르면 뒤집어가면서 바닷물 끼얹기를 반복했다. 모래의 염분을 높인 뒤에 옆에 웅덩이를 파고 그 위에 연목을 걸치고 솔가지와 나뭇잎을 덮은 다음 염분을 높인 모래를 쌓은 뒤 바닷물을 부어 잿물 내리듯이 소금물(함수)을

만들었다. 이 방식은 남면 최재철 고조부가 했던 방식과 흡사했다. 규모가 작을 뿐이었다.

병술만 안의 염벗주는 오세성으로 기억하며 소금을 만드는 걸 본 나이는 박병관이 15세 정도였다. 땔감은 솔가지와 잡나무를 사용했다. 소금물을 만드는 모래 갯벌 현장에서는 소 1~2마리 정도를 이용하여 써레질했고 작업 인부는 10여 명쯤으로 기억했다. 일꾼들 옷은 중의적삼(광목으로 만든 홑바지저고리)을 입었으며 밤낮없이 가마를 땠다. 그는 한 가마솥에서 소금이 얼마 나오는지, 값이 얼마였는지는 알지 못했다. 염벗이 사라진 것은 1945년~1950년 사이인데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

박병관은 1933년에 태어났다. 부모님은 논 8마지기 정도의 농토를 가지고 어렵게 농사를 지었다. 중학원이라는 교육기관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했으며 평범한 삶을 살다가 19세에 어업조합 근무를 하게 되었다. 이후 22세에 입대해서 25세에 제대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군대 제대 1년 후 이장을 맡았는데 수입이 많았다. 마을 인구가 많아서 이장 수입으로 들어오는 모곡(여름엔 보리, 가을엔 벼)이 많아 공무원 봉급보다 많았다고 한다. 1960년대 공무원의 봉급이 쌀 1가마니 값 정도였다.

1950년대 말에는 머구리배 사업을 했다. 송복수(머구리 조합)가 해삼을 말려서 군산 화교촌에 판매하면 수입이 좋다고 권해서 시작했다. 머구리배를 인수해 어업에 소질이 있는 사촌에게 맡겨서 운영을 했다. 머구리배로는 해삼과 전복을 잡았다. 당시 머구리 기술자는 최고의 대우를 받았으며 산소는 배에서 수동으로 공급하다가 이후 자동 공급 장치를 설치했다. 머구리는 매우 위험한 직업이라 항상 조수가 배에서 머구리와 연결된 줄로 산소를 공급했는데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주내기'라고 불렀다.

'뱃사람은 빗돌을 핥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뱃사람은 돌까지 갉아 먹을 정도로 쏙쏙 빼먹는다는 뜻인데 그 말처럼 배를 부려서는 돈을 못 벌었다고 한다. 머구리배는 10년 운영했다. 배는 방포항에 정박했으며 해녀들과는 작업 깊이와 장소가 달라서 경쟁 관계에 있지 않았다. 해삼과 전복은 주로 한철에만 잡고 금어기에는 안흥 앞바다에서 전쟁 때 침몰한 철선을 건져 올려 쇠를 잘라서 팔았다. 선원 4~5명이 그 일을 했다.

1966년에는 당시 공의 수의사였던 명수남 씨(제4대 태안문화원장, 1933년생, 태안명가축병원장)와 꽃지 해변에 방풍을 재배하였으나 수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했다. 당시 방풍은 약용식물로 전망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원북면에서 씨앗을 가져다 심었다. 방풍을 심었던 해변 모래밭은 지금 '호텔 리솜'이 들어선 '꽃지 해수욕장' 옆이다. 1966년에서 68년까지는 미꾸라지 양식을 하였으나 철망이 삭아 미꾸라지가 다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것도 실패했다.

1970년대 초에 안면도에서 최초의 주유소를 냈다. 마침 안면도에 간척사업 바람이 불어 기름과 장비(불도저)를 공급해서 돈을 벌었다. 당시 '두산개발'에서 대단위 토목사업을 하면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당시 임야 5만여 평과 논 10만여 평을 소유할 만큼 큰 자산을 모았다. 이후 목욕탕과 여관을 지어서 운영하기도 했다. 1972년 안면농협조합을 창립하고 초대 조합장부터 3대까지 역임했으며 1978년 천일염전을 매입하여 운영(창기리와 정당리 사이에 있는 염전)하기도 하였다. 1982년 대통령선거인단에 참여하고 1983년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안면도에서 '최초'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한 인물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기억나는 것은 인민군 치하(인공치하)에서 의용군 지원 권유를 받았으나 참가하지 않고 참호를 파는데 동원됐다. 수복 후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참호 파는 부역도 했다. 6·25 당시 승언리에는 희생자가 별로 없었는데 그 이유는 밀양박씨 일가가 많이 살아서 서로 고발하거나 원한 삼을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쟁 당시 유일하게 죽은 일가 중에 박병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익에 충성했다고 좌익에게 영목에서 처형되어 수장되었다. 좌익은 당시 고남 영목, 양대리 등에서 우익을 잡아서 바닷가에서 수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함께 구술채록에 참여한 '명수남'의 집안 아저씨는 양대리에서 총살하기 직전 다리에서 갯고랑으로 뛰어들어 살아났다는 말을 했다.

구술자는 당시 안면도에는 부자들이 많았는데 어떤 부자들을 두고 '새알 멜빵 메고 다닌다'고 비웃었다고 했다. 이 말은 부자들의 옹색함을 비꼬는 말이었다.

| **최재학**(1941년생) 태안군 남면 |



고잿목벗

최재학은 고조할아버지가 자염을 직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이야기가 많다. 남면에는 3개의 염벗이 있었다. 고조할아버지 최진문 소유의 달산포 '고잿목벗', 김익두 소유의 진산 개천벗 신참봉 소유의 드르니의 곰섬벗이다. 이 중에서 고잿목벗엔 큰 염막이 2개 있었다. 그의 기억엔 염벗(염막)이 또렷하다.

염벗의 구조는 울타리 형식으로 둥글게 말뚝을 박았는데 연목(말뚝)의 길이는 2~3m 정도였고 이엉을 둘렀으며 중앙은 하늘이 보이도록 뚫려 있었다. 가마솥의 크기는 가로

세로 3×4m에 높이는 50cm로 기억했다.

소금물을 만드는 과정은 자세히 몰랐다. 달산포의 고잿목 염벗은 모래와 약간의 개흙이 섞인 갯벌이었다. 소금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 조금 동안 모래밭에 바닷물을 끼얹고 뒤집는 과정을 반복하였다. 염벗 주변에 웅덩이(갈통/간통)를 파고 위에 연목을 걸친 뒤 솔가지나 밀짚 방석을 깔고 염분을 높인 모래를 쌓은 다음 바닷물을 부어 잿물 받치듯 소금물을 만들어 끓였다. 땔감은 50만 평의 임야를 소유해 부족함이 없었다.

그의 고조할아버지 최진문은 대규모로 자염 사업을 경영했다. 일소 2마리와 일꾼 10명이 조금 기간엔 소금물을 만들고 사리 기간엔 밤낮없이 소금을 끓였다. 그가 기억하는 건 고조할아버지 소유의 중선배가 달산포구에서 소금을 싣던 모습과 그 배가 소금을 팔고 돌아오던 광경이었다. 염벗 앞바다에 소금 팔러 갔던 배가 들어오면 최진문은 집 뒤 들마당에 오색기를 세우고 아녀자들에게 '배 들어온다. 술 걸러라!' 하고 큰소리로 외쳤다고 한다.

최재학의 기억에 고재목벗은 해방 전 같은 동네 사는 문풍훈에게 운영을 넘겼는데 그는 6·25전쟁 무렵 그만뒀다. 개천벗과 곰섬벗도 그 때쯤 폐쇄한 것으로 기억했다. 남면의 3개 염벗 중에서 소금의 품질은 단연 고잿목벗이 최고였다. 태안의 상인들 말이 '곰섬벗과 개천벗 소금은 거무튀튀한데 고잿목벗 소금은 희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고잿목 염벗이 있던 자리는 그의 가계에서 천일염전을 개설했으나 2년 후 폐쇄했고 현재는 매립되어 숙박업소가 지어졌다.

최재학의 가계는 조선 영조 초기인 300여 년 전 남면에 정착했다. 고조할아버지 최진문은 4남 4녀를 뒀고, 증조할아버지 최창호는 2남 5녀를 뒀고, 할아버지 최병원은 3남 1녀를 뒀고, 아버지 최광열은 5남을 뒀다. 본인 최재학은 부친 최광열, 모친 변석희 사이에서 1941년 5남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1972년 32살 나이로 인천교대 출신인 오경숙(해주오씨)과 결혼하여 1남 1녀를 뒀다.

그의 가계는 태안지방에서 남면 천석지기 부자로 칭했다. 재산 축적은 고조할아버지

때부터였다. 고조할아버지는 직접 중선배로 생산한 자염, 조기 등을 군산 객주를 통해 판매(도매상)하고 돌아올 때는 장군소주 등 생필품을 싣고 와 태안 읍내에 팔았다. 또 남면 유일의 양조장(1914년) 허가를 내어 경영하기도 했다. 술 소비가 많은 마검포, 몽산포, 드르니에 안정적으로 주류를 공급하기 위해 술 운반이 편리한 거아도에도 양조장을 개설했다.

논은 50마지기 정도로 많지 않았지만 엄청난 임야를 소유했다. 거아도에 30만평, 현재 남면 면사무소 부근 임야와 밭 10만평, 후일 간척사업으로 논을 더 늘렸고 몽산포 해수욕장 10만평도 일부 소유, 일부 관리했다. 구술자의 집은 50칸짜리였고 머슴 둘에 식모 둘을 뒀으며 네 아들을 분가시킬 때는 본가에서 일직선으로 나란히 집을 짓고 논 30마지기씩 떼어줬다.

선대는 모두 한학과 신학문을 배워 면장, 교사 등을 역임한 재력을 겸비한 식자층이었다. 최재학의 가계가 기울기 시작한 건 1950년 전후 6·25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부터다. 고조할아버지가 1950년 94세 나이로 운명하고, 증조할아버지는 대한제국 시대(1910~1914) 면장을 했다가 몇 년 후 다시 또 면장을(1918~1924) 역임했으나 기우는 가계의 재산관리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인물이었다.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일본 교토 잠사대학(현 교토대 농과대학)을 나와 남면에 잠사학교를 짓고 학생들에게 누에치기 교육을 했다. 학생들은 소학교를 나온 여자들로 우등생들이 뽑혀왔다. 그의 직책은 잠업기수(잠업기사)로 공직이었고 진취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광식성(뽕잎 외의 잎을 먹는 누에) 누에씨를 구입해 태안 진산에서 드르니까지 도로변에 개가죽나무를 심어 누에를 올려 고치를 맺게 했으나 누에고치 품질이 떨어져 포기하기도 했다. 그 나무는 1982년 도로 확장 시 베어졌다. 할아버지는 과수원, 목장을 경영하기도 했다. 1950년 수복하면서 면장을 16개월 역임했다. 면장 재직 시 남면초등학교를 짓는데 주민들이 갹출한 돈을 면사무소 서무직원이 착복한 일이 발생하여 면장이 구치소를 가게 됐다. 그 돈을 갚기 위해 달산(현 면사무소 부근) 땅 몇만 평을 태안 부자 백남복에 저당하고 구치소를 나왔는데, 갚지 못해 헐값으로 넘기는 일이 발생했다. 그 후 할아버지 최병원은 1954년

중풍으로 쓰러져 1968년 작고했다.

아버지 최광열은 공주고보를 나와 서산중학교 교사 재직 중 6·25전쟁 때 학살당했다. 인공 치하에서 2개월 동안 곡식의 수량을 조사하는 서무를 봤는데 9·28 무렵 인민군들이 퇴각하면서 서산유치장에 가뒀다가 양대리 갯벌 다리에서 총살했다. 지주의 아들이고 삼촌이 국군장교로 있어서 반동분자 가족이라는 게 죄목이었다. 그의 나이 34세, 부인 변석희 나이 33세였다. 시신은 이틀 후 양대리 갯벌에 고꾸라진 걸 모친이 허리까지 빠지는 갯벌을 헤매어 찾아서, 달구지로 싣고 와 장사지냈다. 그때 조부와 형 최재철은 제주도로 피난을 떠나 10살 최재학과 8살 동생, 모친, 고모가 들것에 실린 아버지를 따라갔는데 동생이 길옆 보리수 열매를 따 먹는 걸 보고 고모가 철없다며 꾸짖었다고 회상했다. 양대리 갯벌에서는 최광열 친척 최병수도 학살당했는데 서산 여학교 학생인 그의 딸(16세)도 아버지를 찾느라 여기저기 갯벌에 처박힌 시신을 뒤집어보다 두 번 기절했고 나중에는 정신병자가 되어 일생을 마쳤다고 했다.

천안동남구(15)
손상기_ 16
신문호_ 19
유준봉_ 22
이복자_ 25
이선구_ 28
황규민_ 31
황복현_ 34
김광우_ 36
김남호_ 39
김정집_ 42
곽기종_ 45
최승도_ 48
황규명_ 51
유헌종_ 53
이영희_ 56

천안서북구(15)
이영자_ 60
임명순_ 64
이흥규 심원석_ 68
한상범_ 72
심재호_ 75
김준동_ 79
민경호_ 83
이영래_ 87
김성규_ 91
심재호 변윤서_ 95
강창환_ 99
황서규_ 103
정창순_ 107
김영실_ 111
정재택_ 115

공주시(13)
유왕종_ 120
전용주_ 123
권재덕_ 127
강미자_ 131
정철기_ 135
박성환_ 139
이용구_ 143
김옥정_ 147
조윤웅_ 151
유옥자_ 154
김영대_ 158
윤복수_ 162
모동진_ 166

보령시(15)
김성준_ 170
김성용_ 175
이규인_ 180
김향화 복남점_ 186
박연옥_ 191
김용순_ 196
이정우_ 201
김춘화_ 207
최돈영_ 212
박만곤 김명희_ 218
안성길_ 223
편제환_ 228
최두철_ 234
최기환 정봉섭_ 240
이상모_ 245

아산시(15)
강희춘_ 252
김봉기 이건열_ 255
김윤배_ 258
김현기_ 262
윤석홍_ 265
이규환_ 268
이무희_ 271
이범선_ 274
임종순 임영순_ 277
이종배 한상복_ 280
김상수 권희영_ 283
남기웅 김동석_ 287
손동희_ 290
신세현_ 293
유장근_ 296

서산시(14)
김명두_ 300
차태완_ 304
김지홍_ 308
최중인_ 312
김옥순_ 316
이화용_ 320
최정식_ 324
문완주_ 327
박주현_ 331
김영상 조정옥_ 335
이내윤_ 339
유호진_ 343
김익제_ 347
조부원_ 351

논산시(15)
정민재_ 356
나병국_ 360
서병석_ 364
임춘만_ 368
임상덕_ 371
송옥례_ 375
손상용_ 378
김중희_ 382
한상희_ 386
최호정_ 389
박노익_ 392
정현수_ 395
김무길_ 399
김병오_ 402
강중선_ 406

계룡시(15)
정제환_ 412
최용규_ 416
최재영_ 420
김용호_ 424
우종성_ 428
민병천_ 432
김원호_ 435
이상구_ 438
이정기_ 441
김영복_ 445
전봉선_ 449
박용규_ 453
배명희_ 457
오태창_ 461
나상현_ 465

당진시(15)
김진용_ 470

허용세_ 473
김형환_ 476
윤성의_ 479
남상섭_ 483
이수용_ 486
김기상_ 489
안승환_ 493
신양웅_ 496
조선형_ 498
임창묵_ 501
장기천_ 505
이홍근_ 508
손창식_ 511
이춘의_ 514

금산군(15)
설재용_ 518
길준열_ 522
길상하_ 526
양동엽_ 530
양찬규_ 533
장재룡_ 537
육일수_ 541
김현칠_ 545
고광우_ 548
고태기_ 551
박길석_ 554
한봉석_ 557
황상문_ 560
강신권_ 564
김한중_ 567

부여군(15)
김연소_ 572
김영구_ 576
김영만_ 579
김요산_ 582
송건호_ 585
송병일_ 588
윤구병_ 591
인국환_ 594
조복만_ 598
차병천_ 601
박종만_ 604
류희열_ 608
이일구_ 611
이규환_ 615
이석호_ 619

서천군(16)
유진선_ 624
조귀춘_ 626
박성용_ 629
이순자_ 632
윤덕선_ 635
김광희_ 638
홍성돈_ 641
신은성_ 644
유병진_ 647
최영환_ 650
윤교진_ 653
박수환_ 656
김현길_ 659
신동일_ 662
조기환_ 665
최병출_ 667

청양군(15)
유재은_ 672
이봉업_ 675
이강용_ 678
김윤종_ 681
윤홍수_ 684
김재풍_ 687
김희자_ 689
정명교_ 692
박기진_ 694
한철상_ 696
이두영_ 698
조태준_ 701
윤일수_ 704
이종국_ 707
임용대_ 710

홍성군(15)
김정만_ 714
신진옥_ 718
최종돈_ 721
이종수_ 724
이범화_ 726
강병오_ 730
황성창_ 734
임순환_ 737
김용홍_ 741
김옥태_ 744
김관은_ 747
고광규_ 751
이성준_ 755
김동주_ 758
이완수_ 762

예산군(14)
홍화중_ 768
이종배_ 772
이영칠_ 776
오석호_ 780
이순영_ 784
허흥섭_ 788
박상용_ 792
이주현_ 796
김기만_ 800
최석환_ 804
정남복_ 808
이종화_ 812
박상천_ 816
송창영_ 820

태안군(16)
김계곤_ 826
정윤영_ 829
김재운_ 832
송영산_ 835
최재철_ 838
신상호_ 842
이진환_ 845
최창우_ 848
이재필_ 851
조익호_ 855
이준호_ 858
손종석_ 861
최의수_ 864
한원석_ 867
박병관_ 871
최재학_ 874

2019 근현대 구술채록사업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발 행 일 | 2019년 12월 30일

발 행 인 | 김시운

편 찬 위 원 | 조성오 이종석 최창석 황의호 정종호 편세환
권선옥 유장식 장 호 정찬국 이관우 임호빈
유환동 정낙추

감 수 | 홍제연

행 정 지 원 | 김상희 조민영

발 행 처 |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별관209

전 화 | 041-635-9102

편 집 인 쇄 | 내포출판사

주 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가루실길 182, 109호

전 화 | 070-7761-6537

직 통 | 010-4610-6537

I S B N 979-11-89097-07-3

|비매품|

2019ⓒ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

이 책은 충청남도의 지원을 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이 책의 원고와 사진은 충청남도문화원연합회와 사전협의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충남, 잊혀진 시간을 말하다

충청의 젖줄인 아름다운 금강을 따라 풍요롭고 넓은 들판과 과거부터 역사문화의 중심을 이룬 공주, 부여, 논산, 계룡, 빼어난 풍광과 청정 자연이 살아 숨쉬는 금산, 청양, 서천, 보령, 태안, 내포를 중심으로 인심이 선하고 후덕하기로 알려진 서산, 홍성, 예산, 그리고 경제생활과 활동이 편리한 당진, 아산, 천안 등 사람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충남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고장은 살기 좋을 뿐 아니라, 예부터 독자적이고 아름다운 '백제문화'를 창조하고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화를 일본에 전수하며 일찍이 한류를 이끌었습니다. 근대에는 일제의 식민 통치 아래 암울했던 시기를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역사로 바꿔놓은 매헌 윤봉길, 김좌진 장군, 만해 한용운, 유관순, 월남 이상재 선생 등 우리 지역 애국지사 분들의 민족독립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처럼 고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충남에서 살고, 또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은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올해 충남 15개 시, 군에서 충남도민들이 살아낸 삶에 대해 직접 듣고, 기록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엮어 책으로 만든 것은 또 하나의 역사로 우리 곁에 남을 것입니다.

- 발간사 중

| 비매품 |

9 791189 097073 93990

ISBN 979-11-89097-07-3